

# 10

##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982호 ~ 1080호 (2014년~2015년)



# 10

##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1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모음  
982호 ~ 1080호 (2014년~2015년)

발행일 2022년 12월 일  
발행인 이재훈  
발행처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편집인 김홍주  
기획·편집 채현석, 남윤조, 최지연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문의 :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070-4940-0641, 채현석 010-7336-7387)

# 10

##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982호 ~ 1080호 (2014년~2015년)



## 일러두기

1. 이 책은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 및 광고 등을 발췌하여 묶은 자료집이다.
2. 제10집은 <온누리신문> 982호(2014년 1월 5일)부터 1080호(2015년 12월 27일)까지의 자료이다. 이후의 자료에 대한 자료집도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3. 자료집 뒤에 신문 호수 별 목록과 신문 기사의 분류 별 목록을 실어 필요한 기사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4. 자료의 배치는 <온누리신문> 원면(쪽수) 순서대로 하였으나 편집상 필요한 경우 일부를 조정하였다.
5. 현재 2000선교본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온누리신문> 축쇄본 일부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자료집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양해를 구하며, 추후 <온누리신문> 원본의 수집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한다.



온누리교회가 제2대 담임인 이재훈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안정시키고 선교를 비롯한 교회 사역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는 모습은 2014년과 2015년의 이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제10집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이 기간의 주요 선교 기사를 보면, 먼저 용인 양지에 있는 온누리교회 선교훈련원 부지에 <하용조 목사 기념관>을 2014년에 착공하여 2015년 8월에 준공하고 하용조 목사 추모 행사를 다양하게 가짐으로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하용조 목사의 목회와 선교사역의 영성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공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연초의 선교헌금 작성 기간에 후원사역부를 신설하여 교우들의 재능기부를 선교 사역에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 CGN TV 지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동체 별로 인근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초청하여 운동회를 여는 등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예년과 같이 다양하고 활발한 아웃리치를 진행하였고, 문화행사를 활용한 러브소나타도 일본 시모노세키, 오비히로 등에서 의미 있게 진행 하였습니다.

2015년은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로, 선교 사역에서도 30주년 선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선교 영성을 끌어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누리행진 30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온누리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복음 및 선교 방송인 CGN TV는 홍콩 및 태국 현지 방송이나 기독교 기관과 협력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 갔으며, 온누리교회 내에 불어 예배가 시작되어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들의 선교를 지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에 일본 교토 및 오이타에서 러브소나타를 열었으며,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나자 온누리교회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여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관인 온누리교회 <안산 M센터>의 새 건물 건축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민을 위한 사역도 한층 더 심화시켜 갔습니다.

이처럼, 온누리교회가 이어 나가는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선교역사자료집> 발간을 지속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자료집 발간 사역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22년 12월 일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 ■ 목 차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b>2014년</b>			1023	11월9일	210
982	1월5일	11	1024	11월16일	216
983	1월12일	16	1025	11월23일	220
984	1월19일	21	1026	11월30일	223
985	1월26일	25	1027	12월7일	225
986	2월9일	28	1028	12월14일	228
987	2월16일	31	1029	12월21일	231
988	2월23일	35	1030	12월28일	234
989	3월2일	40			
990	3월9일	45			
991	3월16일	47	<b>2015년</b>		
992	3월23일	53	1031	1월4일	239
993	3월30일	58	1032	1월11일	244
994	4월6일	65	1033	1월18일	248
995	4월13일	68	1034	1월25일	251
996	4월20일	72	1035	2월1일	253
997	4월27일	76	1036	2월8일	258
998	5월4일	80	1037	2월15일	263
999	5월11일	83	1038	3월1일	266
1000	5월18일	84	1039	3월8일	267
1001	5월25일	92	1040	3월15일	272
1002	6월1일	96	1041	3월22일	278
1003	6월8일	100	1042	3월29일	282
1004	6월15일	101	1043	4월5일	286
1005	6월22일	106	1044	4월12일	292
1006	6월29일	108	1045	4월19일	298
1007	7월6일	110	1046	4월26일	303
1008	7월13일	119	1047	5월3일	310
1009	7월20일	126	1048	5월10일	313
1010	7월27일	130	1049	5월17일	316
1011	8월3일	139	1050	5월24일	319
1012	8월10일	150	1051	5월31일	321
1013	8월17일	159	1052	6월7일	325
1014	8월31일	163	1053	6월14일	330
1015	9월7일	170	1054	6월21일	335
1016	9월21일	181	1055	6월28일	339
1017	9월28일	187	1056	7월5일	343
1018	10월5일	191	1057	7월12일	350
1019	10월12일	196	1058	7월19일	359
1020	10월19일	201	1059	8월2일	368
1021	10월26일	204	1060	8월9일	376
1022	11월2일	208	1061	8월16일	384

## ■ 목 차


---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1062	8월23일	391
1063	8월30일	393
1064	9월6일	400
1065	9월13일	407
1066	9월20일	414
1067	9월27일	420
1068	10월4일	428
1069	10월11일	438
1070	10월18일	448
1071	10월25일	453
1072	11월1일	459
1073	11월8일	468
1074	11월15일	474
1075	11월22일	478
1076	11월29일	483
1077	12월6일	487
1078	12월13일	489
1079	12월20일	492
1080	12월27일	498

## ■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503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525





2014년

2014년 1월 5일~2014년 12월 28일  
982호~1030호

2015년

2015년 1월 4일~2015년 12월 27일  
1031호~1080호

# 오늘, 1차 선교헌금 작성

## CMS·현금봉투·이체,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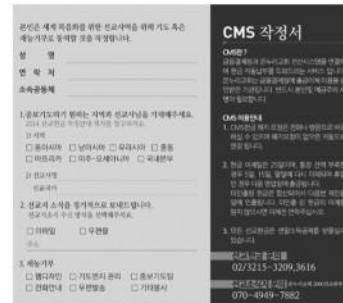
선교헌금 작성행사가 오늘(5일)과 다음 주일(12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헌금 방식은 CMS, 현금봉투, 직접이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중보기도후원과 재능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드리는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 및 파송(90여명 신규파송), 중장기 선교전략 수립 위한 연구소 설

립, 선교포럼 개최, 선교리더십 발굴 및 교육, 인터넷 신학교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선교사 복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주일부터 배포된 선교헌금 작성안내 책자에는 7개 선교지역과 선교사, 사역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 문의: 02-3215-3209(선교헌금)



CMS 작성서

070-4949-7882

(온누리선교사 후원사역부)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일본

# 러브소나타가 ‘바람’ 이라면 CGNTV는 ‘햇볕’



그곳에는 ‘설렘’이 있다. ‘기대’와 ‘감동’도 있다. 필자에게 러브소나타에 대해 묻는다면 곧바로 떠올리게 되는 단어들이다. 러브소나타가 ‘바람’ 이라면 CGNTV는 ‘햇볕’이다.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러브소나타가 일본교회에 ‘우리(일본 기독교인들)도 문화전도집회 할 수 있다’ ‘교단 교파의 벽을 넘어 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본 열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단초를 제공했다면 CGNTV는 ‘일본교회(목회자와 교인)는 외롭지 않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국경을 초월한 끈끈한 연대감을 심어줬다.

이는 지난 5월 오키나와, 11월 군마에서 각각 열린 러브소나타에서도 그대로 증명됐다.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와 군마 베이시안문화홀을 찾은 일본인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러브소나타를 통해 2000여개 일본교회와 협력이 이뤄졌다. 일본인 참가자는 5만6000여명에 달했다. 그중 결신자는 2600여명에 이르렀다. 2006년 10월 개국한 일본 CGNTV는 러브소나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촉매제,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 개국 5년 만에 일본 47개도현에서 1600여개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선교역사에 기록될만한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 ‘일본 향한 멈출 수 없는 도전, 교회 설립과 더불어 시작’

처음엔 ‘일본에서 대영집회가 가능하겠는가’ ‘연합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도 있었다. ‘적세지경’. 일본 목회자들은 물론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조차 비판적이었던 러브소나타의 초창기를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고 하용목 목사의 열정과 헌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도전정신이 고개가 숙여진다.

일본과 일본인을 향한 하 목사의 사랑은 러브소나타 이전부터 남달랐다. 교회 창립에 배를 드린 3개월 뒤인 1988년 1월 5일에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했다. 1994년엔 2천71만 비전 선포와 더불어 조성록 장로를 첫 장로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 목사의 안식년과 일본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1차 안식년

을 떠난 뒤 일본 어린이들을 위한 토요학교와 일본어예배가 시작됐고, 간암 수술에 따른 2차 안식년 기간 중 도쿄와 우에다 등지에 비전교회가 속속 세워졌다.

하 목사가 2002년 일본 하코네에서 가진 ‘일본온누리공동체수련회’에서 선포한 비전이 지금도 또렷하게 귓가에 맴돈다. “저는 일본교회가 일어나 길고 뛰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본사회를 뒤집을 것을 믿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파천코 비오사인 불빛이 모두 십자가의 붉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본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의 비전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 일본 CGNTV 개국과 함께 ‘오키나와에서 샤프트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러브소나타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온누리교회는 일본을 위한 사랑행진을 써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 상태였다. 하 목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일본을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1주일에 세 번씩 무릎을 꿇어 하는 상황에서 일본 선교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문화적 접근과 차세대 전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류 기독교인스타들을 러브소나타 대일에 합류시켰다. 2006년 일본CGNTV를 설립하고 24시간 일본어방송을 선포하며 러브소나타가 일본에서 연달아 이뤄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성하도록 노력했다. 두란노서원은 러브소나타를 위해 중요한 서적들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마침내 2007년 3월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교회의 적잖은 재정과 인원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일본 열도에서 19차례나 이어지며 일본교회의 신뢰를 얻었다. 하 목사가 소천한 뒤 러브소나타와 일본CGNTV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을 증명해냈다. 일본 목회자들은 일본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멈출 수 없는 사랑행진으로 러브소나타와 일본CGNTV를 축복해,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프렌드(Friend)’에서 ‘패밀리(Family)’가 되는 순간이었다. 필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러브소나타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하겠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온누리교회



일각에서 나온다고 들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다. “러브소나타와 CGNTV의 아웃리치에 일단 참석해보십시오. 그러면 일본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러브소나타와 CGNTV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내 비기독교인들의 높은 참가율을 통해 새로운 전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비기독교인의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켰다. 단기간에 일본 지역교회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교회를 통한 한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연합선교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은 놀랄만한 성과다.

## ‘어떤 것도 일본 향한 온누리교회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2013년 오키나와와 군마에서 펼쳐진 러브소나타에는 색다른 의미가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주요 지역을 돌아 다시 오키나와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러브소나타 일본선행위원회가 더욱 간접히 러브소나타 유치를 고대했다는 것이다.

이번 두 차례 러브소나타에서 또 잊을 수 없는 것을 꼽으라면 이세훈 목사의 메시지다. 이 목사는 오키나와와 군마에서 각각 일본인에 맞는 감성터치 메시지를 담았다.

오키나와에서 선포된 메시지 도입부분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확신에 입각하여... 설립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천년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목사는 국립국회도서관 전문이 성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러브소나타에 참석한 일본인들에게 복음이 결코 낯선 게 아니라는 것을 제시해나갔다.

군마러브소나타에는 CGNTV 운영위원들도 참여했다. 러브소나타 행사에 앞서 운영위원들은 일본교회와 일본학교를 방문, 일본 크리스천들의 지력을 느끼는 아웃리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거의 빠짐없이 러브소나타에 참석해온 정경선 운영위원장님 부부, 지성한 장로님 부부, 이용만 장로님을 비롯해 20명의 운영위원들은 뉴라이프그리스도교회, 시부키와 그리스도교회, 이카호중앙교회 등 일본교회 3 곳을 방문해 CGNTV 위성안테나를 달아주고 일본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러브소나타가 비기독교인들도 부담 없이 참석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한국과 일본, 일본 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크리스천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끈’이라는 데에 다른 도를 달 분 없이 보인다. 2014년 러브소나타가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CGNTV 팀장 겸 경원본부장





# 업그레이드 된 2014 선교헌금

‘헌금’ 과 ‘기도’ 로 동참하세요

온누리교회는 매년 첫째 주와 둘째 주 주일에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이는 ‘선교’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올 한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고백이고 다짐이다.

올해 선교헌금 작정은 업그레이드됐다. 헌금 작정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추가했다.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온누리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누리 파송선교사가 있는 7개 지역(동아시아, 남아시아,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오세아니아, 국내 및 본부)이 소개된 선교헌금 작정안내 책자가 지난주부터 배포되고 있다.

내용을 숙지하고 중보기도하기 원

하는 지역과 선교사를 작성서 선택사항에 체크하면, 매달 중보기도제목과 선교지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재능기부는 기도편지 관리, 우편발송 등 몸소 봉사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교사 후원사업부가 새롭게 개설됐다.

선교지 소식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숨어있는 스토리를 전하며 성도들과 선교지의 간격을 좁히고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4년도 선교헌금은 온누리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선교헌금이 사용될 신규 사역에 대해 소개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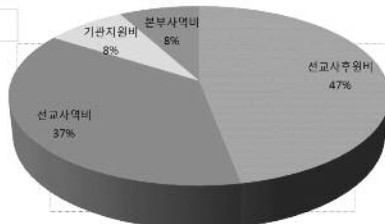
### 2014 신규사역 소개

사역	소개
인턴넷 신학교 (All nations Bible College)	-현지 지도자 대상으로 On/Off line 교육 실시 -학부과정 -왕지 Acts29 Vision Village 내 위치함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	-리더십 선교사 중 미래 리더십 대상으로 학비와 후원비 지급 -기존 온누리선교장학금 (하영조 장학금) 유지
동아시아 A국 선교후원	-기존의 Vitamin C 세미나 지속 -현지인 선교 헌신지 대상 선교후원 주변국으로 파송 -15개 일당 미전도종족 사역 평가 -온누리 창립 30주년 맞이하여 추가 일당종족 연구 및 분석 -선교백서 작업
정보전략연구소	-왕지 Acts29 Vision Village 내 위치 -선교사 영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점검 및 케어 -선교사 위기관리 교육 및 후속 상담 -왕지 Acts29 Vision Village 내 위치 -모든 파송 선교사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교회에서 국민연금 50%지원
선교사 케어상담센터	-선교사의 은퇴 및 노후복지에 활용 -선교한국(Mission Korea) 후원교회로 지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지역 컨설팅이전 대비 지원 등
선교사 국민연금 가입 지원	
한국선교 협력을 위한 후원	

## 2013년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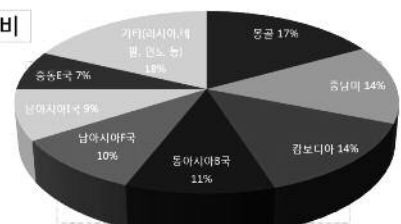
2013년도에는 2만 6천명의 온누리 성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했다. 25개국에 105명의 신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등지에 선교베이스를 구축하고 확장했다. 또한 블레싱 한반도를 통해 복음 통일을 준비했다. 이 외에도 71개국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에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다.

2013 선교헌금



선교사 후원비는 장 단기 선교사 후원과 협력 선교사, 선교사 자녀 장학금 등으로, 선교사역비는 선교지 교회개척, 프로젝트, 공휴사역, 교육사역 등으로 사용되었다. 기관지원비는 온누리교회 대내외 협력 선교기관 후원 등으로, 본부사역비는 선교소굴, 동원사역, 국내형성 및 캠퍼스 선교지원 등으로 쓰여졌다.

나라별 해외선교사역비



나라별 해외선교사역비는 몽골에서는 Acts29미니스트리(현지리더들을 통한 교회개척)사역 등에, 중남미에서는 미전도종족 교회지원과 기독교 운영 등에, 캄보디아에서는 문화센터 및 유치원 운영 및 보 카페 및 교회사역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동아시아8국은 유치원, 산지 미전도 종족 마을방문전도, 현지인(지역)자후원, 청소년제자후원 등에 쓰였다. 이 외에도 신학교 및 교회 개척사역, 교양원사역, 스포츠사역, 시리아난민대상 구제구호사역, 선교 베이스 구축 등에 사용됐다.

01

##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멘토 위촉

### 시니어 선교 관련 정보 제공

CGNTV가 시니어 선교캠페인 일환으로 제작중인 프로그램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의 멘토로 이훈 목사(은누리교회), 유해근 목사(나섬교회), 느헤미야 선교사(시니어 한국), 정의주 집사(남서울은혜교회)가 위촉됐다.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는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께 헌신할 시니어 선교단원을 모집해 선교훈련과 아웃리치를 통해 경험과 연륜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선교현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들은 시니어 선교단원 선발 및 훈련 과정에 참여해 시니어 선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CGNTV를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청 가능한 주파수가 변경되었다. 해당지역 시청자들은 원활한 시청을 위해 1월 31일까지 셋톱박스의 TP주파수를 12380으로 변경해야한다.

문의: 02)796-1118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의 멘토단.

02

##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

### 일 년여 만에 이룬 쾌거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세네갈 내부부령으로 은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일

년여 기다림 끝에 이룬 쾌거다.

그 동안 NGO 더 멋진 세상은 세네갈 본나라 마을에서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우물공사, 의료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올해에는 상

수도 건설과 학교 신축을 목표로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네갈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선교 전략적 요충지로 NGO 더 멋진 세상이 입양한 서부 아프리카 나라 중 하나다.

01

**단 동**

## 2013 장로장립식

지난달 18일 단동 온누리교회 정길안 장로 장로장립식이 있었다. 이날 장로장립식에는 강부호 목사(북경 온누리교회), 허원희 목사(Acts29), 이석일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길안 장로는 “단동 온누리교회가 중국과 북한선교를 잇는 교두보가 되도록 힘써 섬길 것”을 다짐했다.

한편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도 지난달 6일 일본인 5명, 한국인 6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직되었다.

### 해외 온누리비전교회 이취임

- 12월 29일 밴쿠버 온누리교회 이임: 안광복 목사 취임: 이한규 목사
- 1월 5일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이임: 이기진 목사 취임: 윤길중 목사
- 1월 12일 호치민 온누리교회 이임: 이종훈 목사 취임: 박영근 목사
- 1월 15일 청도 온누리교회 이임: 노치형 목사 취임: 최승구 목사
- 1월 17일 단동 온누리교회 이임: 손신국 목사 취임: 박시형 목사
- 1월 19일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이임: 김성원 목사 취임: 금경연 목사

02

##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추천서 각 1부를 내려 받은 뒤 작성 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인터뷰는 개별안내 한다. 훈련비용은 50만 원이다.

훈련은 1학기는 3월 22부터 6월 21일까지, 2학기는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다. 7~8월 중에는 현장 아웃리치가, 학기 중 4회에 걸쳐 1박2일동안 공동체 훈련이 실시된다.

이메일: opmstim@gmail.com  
문의: 070-4464-8110





# 2014 선교헌금 작성

72개국 797명의 은누리선교사님들이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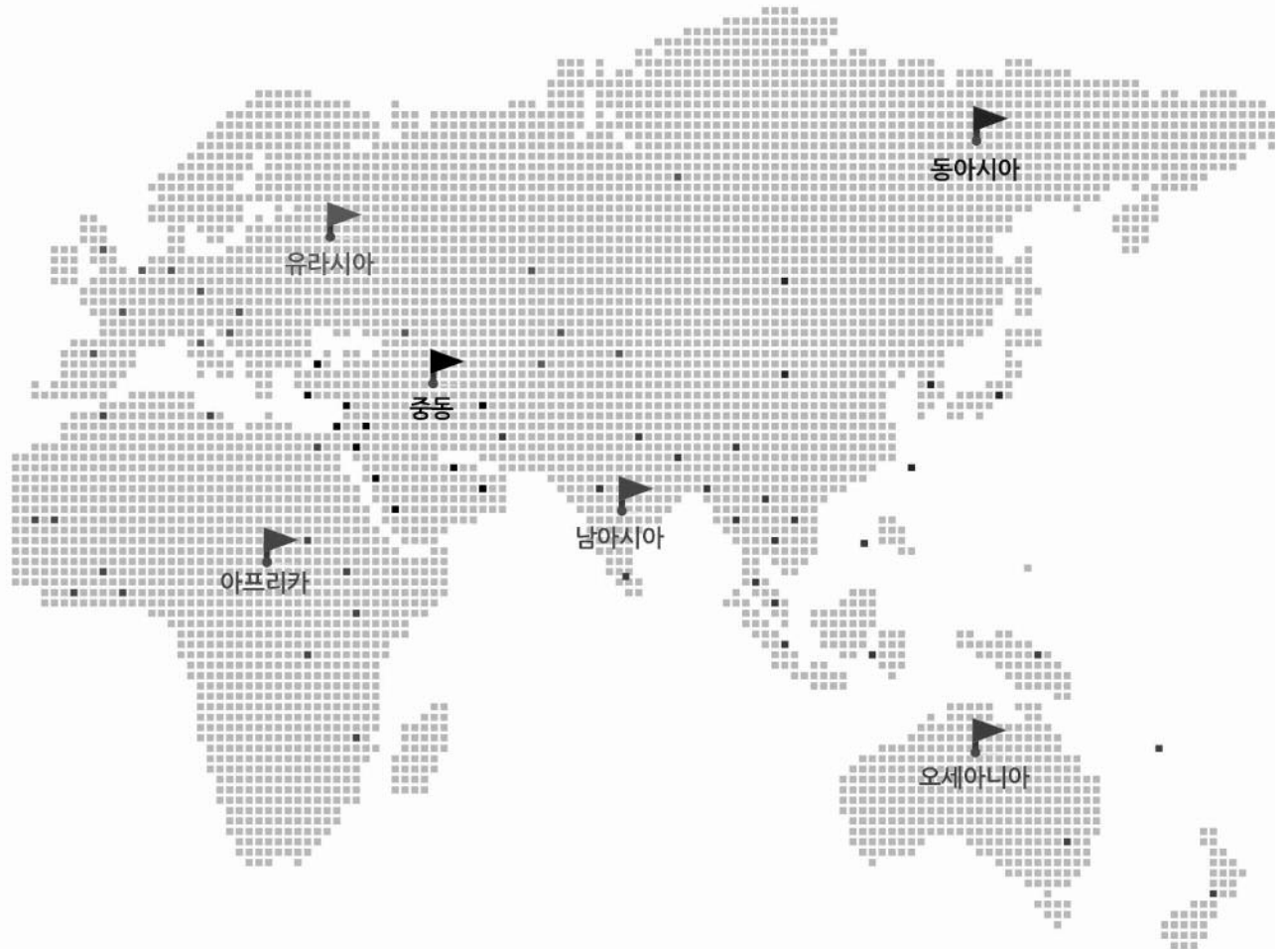
지난주에 이어 오늘(15일) 모든 예배에서 '2014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올해 봉헌한 선교헌금은 90명의 선교사 파송 및 후원, 중장기 선교전략 수립 위한 연구소 설립, 선교포럼 개최, 선교리더십 발굴 및 교육, 인터넷 신학교 과정 개설, 선교사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에 사용된다.

현재 72개국 797명의 은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열방에서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있다. Acts29 비전을 따라 세계로 열방으로 뻗어 나가는 은누리교회는 마침내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그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멈출 수 없다.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이든 기도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에 동참하자.

# Acts29 비전 따라



## 복음의 깃발 들고 뺨어나가는 온누리 선교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1994년 온누리교회는 2천1만 비전을 품었다. 이것은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비전이다. 비전

이 선포된 이후, '온누리 성도는 모두 선교사'라는 사명감이 고취되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온누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후 2003년에는 Acts29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사도행전적 교회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여 2천개의 교회개혁 비전으로 확장되었다. 그렇게 달려와 지금까지 1,508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후원하고 있고, 선교사에 340

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 선교 현장의 목소리

온누리교회 비전을 품고 떠난 선교사들은 각 선교지 상황에 맞게 선교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 교회 개혁, 현지인 리더십 양성, 미전도 종족 선교, 차세대사역 등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올해

도 각 선교지에서는 치열한 영적전쟁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각 지역의 선교지 상황과 올해 사역 방향, 선교원금 작정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온누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담은 온누리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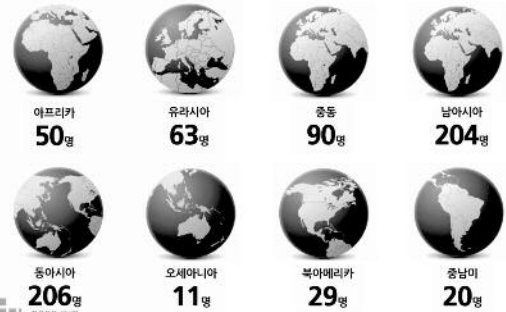


# ‘세계로, 열방으로’



## 2014 파송선교사 현황

현재 은누리 선교사 797명(2014년 1월 10일 기준)이 72개국의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2천명의 선교사 파송 비전은 2018년 즈음 완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 경제성장의 침체 '남아시아 1국'

“여러분이 작성한 헌금과 헌신이 한 톨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신흥 경제대국들의 경제성장 침체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의 여파로 이곳은 현재 무역적자와 경제성장을 침체, 불가상승 등 불안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데모

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CGNTV 남아시아 1국 언어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지와 미전도 종족 지역에 초점을 맞춰 사역하고 있는 은누리 선교사들이 CGNTV와 협력한다면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바울 선교사

### 분쟁과 격변의 '중동·아프리카'

“성도님들의 선교헌금과 중보기도는 선교지의 오병이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중동은 여전히 정치적 분쟁과 격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튀니지도 정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총동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내전에 휩싸여 수

십만의 무고한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른 상태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과 중장기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고, 요르단을 중심으로 아랍 교회의 차세대 리더십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한 한국 사역자 발굴 및 파송도 필요합니다.

/ 노 여호수아 선교사

### 복음화를 2% '동아시아 A국'

“은누리 성도님들이 있어 은누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복음화는 2%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곳 복음주의 협의회에서는 10% 복음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10% 복음화가 정치적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여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

회 내부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인 사회 풍조가 밀려와 복음 증거보다 기복적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일대일 제자 양육의 정착을 위해 힘써 달려갈 것입니다.

/ 김바나바 선교사

### 척박한 선교지 '동아시아 B국'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헌금 작정은 주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해주세요.”

새 정권 임기 초기의 강력한 통제에 예전과 달리 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의 비자 및 취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교사의 활동일지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향후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재조명하고 이에 적합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 사역방향은 현재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고 규모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유소양 선교사

### 현장 사역을 지원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

“자정헌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힘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은누리에 주신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불가능해 보이던 2천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누리 선교 제 2기를 준비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선교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 포함해

신임 선교사, 분부 선교 스템을 대상으로 교회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선교지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세워나갈 것이고, 안식년 선교사의 재훈련강화와 현장선교사들의 사역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 이준 총무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아프리카

#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를 구하라

### 남하하는 이슬람 ... NGO 중심 현장사역으로 맞서 먹고사는 것이 문제, 밥 한 끼와 약 한 알이 우선

1989년에는 북아프리카 H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를 후원했다. 1994년에는 아프리카 K국에 온누리교회 최초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했다. 지금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미혼모 및 고아원, 성경번역 및 교회 개척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선교는 2기 온누리교회가 출범한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2012년 '블레싱 아프리카'를 주제로 10억 아프리카인을 가슴에 품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기초의료서비스와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선봉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이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더 멋진 마음 조성 ▷아웃리치를 통한 지원의 연속성 유지 및 관계개선 ▷지역 개발을 위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아프리카인들에게는 하루를 살아가 수 있는 밥 한 끼와 질병을 치료하는 약 한 알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사망하는 데 대부분이 아동이다.

ADIS, 풍토병, 열악한 분만 시설 등도 아프리카인들을 고통 받게 한다. 하루속히 빈곤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 NGO 더 멋진 세상, 영적 최전선으로

NGO의 아프리카 선교는 영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슬람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아프리카인들을 개종시키고 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하하는 이슬람 세력에 맞설 전략이 필요한데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이름으로 전방개척 선교는 불가능하다. 현장에 뛰어들어가 그들과 함께 숨 쉬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NGO 더 멋진 세상은 세네갈과 르완다 등지에서 현장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일회성 단기선교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도 세네갈, 기니비사우, 르완다, 기니 등지에서 식수개선사업, 보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이동 검진 및 질병퇴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향후 서부 아프리카의 더 많은 국가들도 개척할 계획이다.

#### "하쿠나 마타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라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어. 이 말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생활이 느껴진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다. 대륙 한 가운데 적도가 지나고 있어 무더운 지역이 많고,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 민족과 언어, 종교와 문화가

다양하다. 자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 발달은 더딘 편이다.

#### 10억 아프리카인을 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발을 내딛었다.

1984년 한국선교사 최초로 감비아에 간 이재한 선교사(Acts29 비전센터지원장)를 도왔고

####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위와 빈곤, 질병과 싸우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기도, 눈물과 땀방울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 주님의 마음으로 품도록

복동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전기도 물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많지만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학교(교실 한 칸)와 치료실(한 칸)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오전에는 물, 수학,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종족 언어 읽기와 쓰기, 성경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치료(혈압, 당뇨 체크, 마사지 등)를 해줄 생각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실 한 칸과 작은 치료실, 야외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과 수차례 성경

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모두 무슬림들입니다. 이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해달라는 저의 요구에 마을 사람들은 몇 차례 모임을 가진 후에 저의 제안을 받아 드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 좋게 말해 준 덕분에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혜롭게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아프리카 D국에서 R선교사드림



## 춤추며 치료자 하나님 찬양

인도자문학교에서 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성이 좋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걸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만나 보니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집어했지만 수술이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치료방법을 찾던 중 한국의 선한목사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을 모시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목사와 사모님에게 한국에 가기 6개월 전부터 소식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가던 날 춤추며 걸어 나오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목사의 지극한 간호로 사모님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바 한국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모님은 평생을 누워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모님은 춤을 추며 치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아프리카 K국에서 K선교사드림



## “딸의 병 고치러 한국 왔어요”

### 러시아예배, 골수암 투병 소녀 돕기

지난해 가을, 에케르케(딸)의 부모님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찾았다. 딸의 병명은 골수암. 아이의 나이는 고작 14살이다. 3번에 걸쳐 화학치료를 받았고 왼쪽 다리의 뼈 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중이다.

부모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대한 돈을 마련해 왔지만 9천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더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온누리M미션 러시아 예배공동체에서 온누리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한 알렉산드라 전도사(러시아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이슬람 신자인 아이 부모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온누리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으로 도와주신다면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영혼을 살리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고 전했다.

후원계좌\_하나은행 573-910004-02305(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문의\_02-3215-373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골수암으로 투병중인 14세 소녀 에케르케와 부모님.

### 바로잡습니다

김대진 목사가 단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하기에 바로잡습니다.

# 사회선교부 신설

## 소외된 약자 위한 종합적 긍휼선교사역 1월 20일 19시, 서빙고 한동홀 오리엔테이션

사회선교부가 신설됐다.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긍휼선교사역이다.

사회선교부 본부장 이훈 목사는 지난 1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사회적 소명에 대해서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는 미가서 6장 8절을 기초로 공의, 긍휼, 겸손을 추구한다. 참여와 실천, 의존보다 자립, 갈등과 분쟁 중재와 사회통합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인, 사회봉사, 사회통합, 방문지원, 나눔 사역으로 영역을 나눴다.

▷사회책임 영역에서는 기해자와 피해자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회복적 정의’,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과 환경사역’, 청지기 정신을 고취시키는 ‘청지기사역’을 실시한다.

▷사회봉사 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 한명

을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지원하는 아플라피(아름다운 마음으로 돌리신 사람들), 해외입양인들과 농어촌 목회자들이 서울에 올 경우 제공 하는 홈스테이 ‘실만한 물장’, 입양가정의 네트워킹 형성을 지원하는 ‘제이홀’, 은퇴자들과 사회단체를 연결하는 ‘늦봄’, 노동선교사를 세우는 ‘새벽빛’,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팽이람(평화를 이르는 사람들) 사역을 한다.

▷사회통합사역은 탈북민을 위한 하나공동체, 한터, 미래홈, 하나원과 다문화사역을 담당한다.

▷방문지원사역은 농어촌미자립교회와 교정기관 방문 사역을 감당한다.

▷나눔사역은 사랑의 줄 잇기, 사랑의 나눔 장터 등 구제 봉사를 실천한다.

각자의 은사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선교부에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린다. 1월 20일 저녁 7시 서빙고 한동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문의: 02-3215-3524(회해옥 사역자)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사회선교 관련 필독서

## “하나님 나라, 거꾸로 뒤집은 질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새로운 질서였다. 겉이 아니라 대야를 든 예수님,

심김과 내어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꾸로 뒤집힌 나라를 알 수 있다. 허영과 양적성장에 집중해 온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지향해왔다. 건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허세로 신앙적 오류를 범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거창한데 있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많은 교회들이 해외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길거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다국적 체류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과 해외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 본문 중에서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도널드 크레이벌/복있는 사람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중동

# Acts29 비전 꽃피우는 밑거름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에서 중동 선교를 빼놓을 수 없다. 순교자를 배출한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국가에서 선교 열정을 썼다. 지금은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중동선교를 이어가고 있다.

## 순교자 배출한 이라크 선교

2004년 2월 21일 온누리교회는 슬픔에 잠겼다. 이라크에서 사역하던 김사무엘 선교사가 순교했기 때문이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2003년 9월 18일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이라크에 들어가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돌보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그해 12월 한국으로 돌아와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암이었다.

미국에서 급히 수술하고 깨었을 때 "이곳이 바그다드냐?"고 몇 번씩이나 확인할 만큼 그의 머릿속은 이라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결국 김사무엘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후에도 위기감은 계속됐다. 사역자 9명이 요르단 암만으로 피신하면서 모든 사역이 중단됐다. 사역팀과 국내기도 모임은 이라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라크한인연합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김선일 형제가 2004년 6월 22일 피랍돼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무리한 선교 활동이라며 온누리교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후 모든 사역팀이 이라크에서 철수, 현재 이라크 선교는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현지 교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무릎

교로 그 땅을 섬기고 있다.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서사시

이스라엘 선교는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이 형성된 1990년에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전문적으로 펼칠 KIBI(한·이 성경연구소)를 창설해 숨 기쁘게 단기기 시작했다. 메시아가 나섰던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2005 예루살렘 평화행진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2005 예루살렘 평화행진'이 2005년 8월 10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어진 6km 구간에서 열렸다. 행진에는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할렘루야교회, KIBI, 인터플 등 교회와 선교단체 기독교인 2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행진에 대해 이스라엘인들은 대체로 미온적이었던데 반해 팔레스타인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거리엔 "우리의 친구인 한국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들이 걸려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진심어린 환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엘리야스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은 3명의 자녀와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한글이 적힌 태극기를 휘날리며 열렬히 환영했다. 국내 언론에 반해 APT통신, 로이터TV, 이스라엘TV, 팔레스타인TV 등 외신기자들이 몰려 이 행진에 대한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 아프간 선교

아프가니스탄 사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온누리교회 선교열정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등지에서 이어졌다.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사진은 2005년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4년 순교한 김사무엘 선교사

이후 미국과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던 한 성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이남식 집사가 아프간 난민을 위해 세달리며 2천만 원을 파키스탄 대사였던 윤지훈 대사에게 전달한 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영아예배, 성인에 배에서 모금한 500만 원이 아프간 난민의 텐트를 짓는 데 보내졌다.

2002년 5월부터는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아프간 현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정탐팀이 구성되었다. 1차 정탐을 위해 김창욱 전도사(2000선교본부)와 장신철 장로(온누리신도)가 2002년 5월 7일 출발했고, 끝이 5월 31일 하용조 목사와 5명이 2차 정탐을 떠났다. 하 목사는 현지에서 아프간 정부 각료들과 만난 뒤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했고, KOICA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온 각료들과도 논의를 지속했다. 이후 장기 지원 계획에 따라 학교와 보건소 건립, 마을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동서문

화개발교류회(ECC)'를 7월 30일 설립했다.

2006년 7월, 온누리 대하청년부는 여름 아웃리지를 아프간에 집중했다. 험준한 환경과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아프간 재건을 위한 길을 닦았다.

하지만 다음해인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 피랍 사건 직후 현지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후 외교통상부가 해외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아프간에 파견된 모든 정담기 사역자들이 모두 철수했다. ECC도 그해 8월에 한국으로 철수하면서 현재 아프간 관련 사역은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아프간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 시리아 선교

2010년 2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전례가 없는 반정부 시위 물결로 중동 선교는 급발전을 타게 되었다.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이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미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에게 마신 물과 생명수(복음)를 주고 있다.

## NGO '더 멋진 세상' 필리핀 긴급구호 그 후

# 온누리교회는 그들과 함께 온다

집짓기, 학교, 보건소, 비전센터 건립 계획  
더 멋진 마을로 탈바꿈, 개발사업 더불어 영적 돌봄도

지난해 11월 8일 필리핀 중부지역에 재앙이 닥쳤다. 기상관측사상 최대크기 슈퍼태풍 하이옌이 초속 379km로 휘몰아치고 엄청난 높이의 해일까지 동반해 필리핀 중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1만 2천명의 사상자와 4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손을 쓸 수 없는 이수리장이 되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널렸고, 전염병 환자도 급증했다. 지구촌 이웃들의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식수, 약품은 턱없이 모자랐다. 아비규환이었다.

온누리교회도 긴급구호팀을 급파했다. NGO '더 멋진 세상'을 중심으로 의료팀과 긴급구호팀이 필리핀 중부 일원으로 지

역에서 대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다.

## 더 멋진 마을 프로젝트

지금도 피해복구가 한창이다. 현지 주민들의 노력이 처절하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이 입양한 비농안안(Binungan-an) 섬 주민들도 무너진 가옥을 치우고 새 집을 짓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공구는 이미 공급되었고, 목수 두 명이 주민들과 힘을 모아 집을 짓고 있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이 입양한 비농안안(Binungan-an) 섬 주민들이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주택 40채 신축공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와 보건소 겸 비전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섬으로 바꾸고, 무용공사와 정화조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 멋진 마을을 만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개발 사업과 더불어 영적 케어도 병행한다. 현지인 사역사 플로리타(Florita) 목

사가 매주 섬을 방문해 성경공부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도 하고 있다.

일회성 구호가 아니다. '더 멋진 마을'이 완성될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온누리교회는 필리핀과 함께 온다.

후원문의: (02-2271-224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1

## 정경화, NGO '더 멋진 세상' 봉사大使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동참



지난 14일, 온누리 NGO '더 멋진 세상' 봉사대사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가 위촉됐다.

지난 14일(화), 서빙고 담임목사실에서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봉사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봉사대사로 위촉

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를 비롯해 이재훈 목사, 박종길 목사, 김창욱 전도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봉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정경화 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했다.

정 교수가 홍보대사가 아닌 봉사대사가 된 배경에는 몸소 봉사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르완다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NGO 더 멋진 세상과 함께 자선콘서트를 열고 있다. 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살리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 8월에도 NGO 더 멋진 세상 주최로 정경화 자선콘서트가 열린다. 르완다에서 자선콘서트와 봉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박영근 목사 호치민 담당목사 취임



박영근 목사가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지난 12일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이종훈 담당목사 이임 및 박영근 담당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호치민 성도들을 비

롯해 한국에서 도육환 목사, 홍범식 장로, 박일구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는 그동안 수고한 이종훈 목사를 축복했고, 박영근 목사에게는 바나바같은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이종훈 목사는 사임한다.

03

## 제 1회 아시아 기도성회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난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서빙고 캠퍼스에서 진행된 제1회 아시아 기도성회가 막을 내렸다.

이스라엘사역네트워크(IMN)주최로 열린 제1회 아시아 기도성회에서는 아시아권 교회의 화개와 연합, 예루살렘의 부흥을 간구했다.

매년 1월 아시아 기도성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1월 20일(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서빙고 시온홀에서 '아시아 투 예루살렘' 연합 기도회가 진행된다.

문의 070-8628-1424



2014 CGNTV

# ‘선교 지향’ ‘복음 중심’ ‘섬김 실천’

## 콘텐츠로 승부... 선교, 교육, 사회적 소명 프로그램 강화

CGNTV가 은누리교회의 2014년 표어 ‘은혜와 진리(Grace & Truth)’를 영상과 스토리 등으로 구현하기 위해 ‘선교 지향’ ‘복음 중심’ ‘섬김 실천’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세웠다. 이는 올해 CGNTV 전 직원들의 삶과 신앙의 태도뿐 아니라 새롭게 선보일 프로그램들의 기획, 제작, 편성, 홍보 전 분야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 무슬림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등 글로벌 크리스천방송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안의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 계층과 청년대학생, 시니어세대에 보다 살갑게 다가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미리 본 CGNTV의 올 한해 모습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실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송은 콘텐츠로 승부한다”는 말에 걸맞게 CGNTV의 선교 콘텐츠가 다각화될 것이다. 기존의 해외선교, 북한선교, 군선교 프로그램이 다소 정적이었던 4월1일 봄개편에 선보일 50-70대 시니어세대(5070) 선교 및 청년대학생 전도 프로젝트는 소통과 체험이라는 동적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CGNTV는 올 한해 ‘꺼지지 않는 불꽃, 이제는 시니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중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인생 후반기를 시니어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좌담과 현장 체험프로그램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를 선보인다. ‘은빛날개’는 시니어들이 국내외 아웃리치를 포함한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와 생활 속 은혜의 순간을 ENG카메라로 리얼하게 담아내는 세미 다큐형식이다. 목회자, 교수, 통역사, 서예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50여명이 지원해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6명의 시니어의 꾸밈없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청년대학생 전도프로젝트 ‘RUN’, 개인주의, 스펙지상주의, 다원주의 등의 영향으로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멘토링 전도시스템을 통해 학원복음화와 청년 전도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프르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선교한국, Young2080 등 청년대학생 사역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젊은 세대 전도 전문가들이 멘토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게 된다.

둘째, 복음 중심의 교육 콘텐츠가 강화된다. 올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 성경 기초 과정 ‘유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와 심화 과정 ‘송병현 교수의 성경 속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기독교성인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대학생 리더십 양성과정을 선보인다. CGNTV만의 특화된 콘텐츠 ‘맛춤특강 나침반’도 확대 편성해 인생의 잠원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방송인문사 최초로 이스라엘 성지 발굴에 참여하고 세계 고고학계에 대한 기획다큐도 준비할 예정이다.

셋째, 섬김의 생활화로 크리스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프로그램도 기획된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미자립교회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CGNTV 직원들이 직접 전국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갈 섬김



CGNTV는 올 한해 ‘꺼지지 않는 불꽃, 이제는 시니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연중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방송의 질은 콘텐츠로 승부한다는 일념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사진은 시니어들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세미 다큐형프로그램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한 현지어 방송이 확대된다.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5개 방송스태이션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CGNTV 지사가 세워진다. 인도네시아 CGNTV는 현지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위한 콘텐츠, 무슬림 선교를 위한 콘텐츠 등을 방송하게 된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은누리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개국 8년만에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방송국이 될 수 있었다”면서 “올 한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준비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온누리M미션, 봉사자 모집

온누리M미션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주민 위한 설날 수련회’를 섬긴다. 수련회에서는 온누리M미션 소속 17개 공동체가 나라별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문의: 010-3937-3927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온누리 M미션 설날봉사자 모집

날 짜	공 동 체	장 소
1/29	러시아연합 (2/1까지)	강화말씀의집
	캄보디아 (2/1까지)	M센터 1/4층
1/30	몽골연합 (2/1까지)	TIM 비전센터
	스리랑카 (2/2까지)	수지수양관
	방글라데시 (1/31까지)	M센터 2/2층
	베트남 (1/31까지)	Acts29비전빌리지
1/31	필리핀 (2/1까지)	강원도 설악
	태국(2/2까지)	영흥도펜션
2/1	아랍	서빙고 B01
	네팔	서빙고-M센터 2/4층 / 하나로침터(안산예배)
	미얀마 (2/2까지)	미얀마쉼터



## 필리핀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합창



이은옥  
(가정사역공동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부모 된 마음으로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안고 지난 10일, 22명의 세라핌합창단원들과 함께 마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필리핀에 도착했다. 기대와는 달리 좁고 불편한 차량과 숙소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불행하기보다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다.

### 필리핀 방송출연!

11일, 도착예배를 시작으로 필리핀 국영 방송국에서 찬양과 필리핀 전통노래 ‘Paruparong Bukid’를 불렀다. 오후에는 ‘Jesus Follows Church’ 특별전도집회에서 찬양을 했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해간 학용품과 장로합창단의 후원물품을 현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천국산치가 따로 없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필리핀 아이들의 모습이 좁은 차량과 숙소에 심방감을 감추지 못했던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필리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찍으며 금새 가까워졌다.

### 산티아고 최초음악회



12일 주일에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Greenhills Fellowship Church’ 예배에서 특별찬양을 했다.

13일 새벽에는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이 사벨라의 산티아고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에서는 음악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세라핌합창단이 이 지역 최초로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그렇게 열린 음악회에서 잊지 못할 일이 생겼다. 연주 도중 소고 사라진 것이다. 이미 전주는 시작되었고 아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때, 성가사님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나를 봐, 나를 봐!” 성가사님의 모습이 마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같았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리는 앙코르곡으로 ‘Paruparong Bukid’를 연주했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공연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필리핀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행복한 음악회가 그렇게 끝났다.

###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마지막 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성경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님들과 교제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러웠다.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마치며 하나님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세라핌합창단원들이 지휘에 따라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처럼,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 모두 천국에 속한 사람들



신주연  
(1.5세대를 위한 Point5공동체)

감동의 크기를 염소한 언어로 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번 유럽연합청소년 수련회가 그렇다. ‘정말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에 도착하는 순간 벅찬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네덜란드 유학생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학시절 나는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 음악회를 위한 장소로 쓰이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럽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왔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녔던 한인교회에서 이질적인 문화로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지 못했다. 그 아이들을 품고 싶었는데...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언젠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남긴 채.

### 동역자들과 다시 밝은 네덜란드

공동체에서 네덜란드로 아웃리치를 간



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에 품은 그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나를 미리 그 땅에 보내셨던 것 같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울며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다.

네덜란드 도착.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여색함이 있었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모든 일정을 하나씩에 의탁했다. ‘모

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정이었다. 처음에는 좀처럼 속내를 표현하지 않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었다. 어색하던 사이가 짧은 시간에 정이 들어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 유럽 위한 중보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 유럽의 회복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귀하게 사용할 것을 믿는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동남아시아

# “아시아 하이웨이 따라 이스라엘까지”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이다.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797명 중 410명(50.2%)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복음이 서진(西進)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동남아시아 선교비전은 한 마디로 '아시아 하이웨이 따라 이스라엘까지'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시아 하이웨이를 따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중국, 인도 등을 거쳐 터키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 동남아시아 선교의 새바람

2011년은 동남아시아 선교에 새바람을 일으킨 기념비적인 해다. 일본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캄보디아를 거쳐 터키로,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첫 무대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 유일하게 열린 땅 캄보디아였다.

당시 캄보디아는 큰 슬픔에 빠져있었다. 매년 우기가 끝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3일 동안 수도 프놈펜 매콩강 일대에서 열리는 물 축제 '본 음 툽(Bon Om Touk)'에서 대형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인파가 좁은 다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무려 450명이 압사했다.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독교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대참사였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워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1975년부터 4년여 동안 '크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Killing



온누리교회는 동남아시아 선교에도 헌신의 힘을 쏟고 있다.

Field)대학살의 상처를 다시 떠올릴 만큼 국민들의 충격이 컸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했다.

당시 총괄수석 라준석 목사가 정부 관계자를 찾아갔다.

“캄보디아를 축복하러왔습니다”는 말에 그러면 집회도 불가하다면 정부관계자 마음의 문이 열렸다.

“축제를 하지 말고 종교집회를 하십시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였다. 그렇게 블레싱 캄보디아가 시작되었다.

### 인도차이나 반도를 깨우는 힘

2011년 2월 러브소나타 캄보디아, 5월에는 러브소나타 태일랜드가 개최되었다. 일본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캄보디아와 태국까지 진출했다. 집회뿐만이 아니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동쪽으로 90km 떨어진 똘을살리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배당이 없어 작은 움막에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접한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한 권사와 양재공동체가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태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없는 태국에 CGNTV 제작 센터가 문을 연 것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제작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깨우는 힘. 한류보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아시아 하이웨이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부는 그날까지 동남아시아 선교는 이어진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 ‘소통하는 선교, 준비하는 선교’

공동체와 소통하는 ‘순 선교’  
다양한 포럼 개최해 미래 준비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에서 선교 리더십 300여 명이 ‘공동체와 소통하는 선교’, ‘은누리교회 선교의 미래를 준비’ 하는 한 해를 보내기로 했다.

올해 은누리교회 선교방향이 발표됐다. 골자는 순과 선교사의 소통과 은누리교회 선교 미래준비다.

지난달 24일과 25일 Acts29비전발리지에서 열린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에 참석한 선교 리더십들은 ‘공동체와 소통하는 선교’,

‘은누리교회 선교의 미래를 준비’ 하는 한 해를 보내기로 다짐했다. 공동체와 소통하는 선교를 위해 순 선교 제도를 도입한다. 선교사 후원사역부도 개설했다. 선교지역자 스쿨 및 캠퍼스 순회 주일 선교집회 등도 시작된다.

또한 은누리교회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다각적인 선교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외에도 블레스 비엔티엔(라오스), Acts29 비전발리지 종합선교센터화, 선교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이번 비전컨퍼런스에서는 ‘응답하라 1994’를 주제로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은누리교회 선교역사를 되돌아봤다. 올해 선교비전도 공유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천선교본부장 도옥환 목사와 함께

## 순과 선교사가 소통합니다



“지금까지 선교분부는 현장사역에 집중해왔습니다. 선교사를 관리하고, 선교 전략과 정책에 집중해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공동체와 소통하기 위해 순 선교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책임선교지제도’를 ‘책임선교사제도’로 변화시키며 공동체와 선교사가 소통하도록 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에 선교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선교사와 순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선교소식을 순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순과 선교사가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2천선교분부는 순과 선교사의 소통을 돕기 위해 선교사 후원사역부를 개설했습니다.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 후원사역부에서는 기도편지 제작, 대륙별 중보기도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선교사별 기도모임을 개최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선교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 2014년 은누리교회 선교 10대 사역

1. 공동체와 함께 하는 선교
2. 창립 30주년 및 2기 은누리교회 선교 준비
3. Blessing Vientian(LAOS)
4. Acts29비전발리지 종합선교센터화
5. 선교역량의 집중
6. 타문화권 사회선교 확대
7. 선교사복지제도 확대
8. 지속적이고 다원화된 선교동원
9. 선교 리더십 역량 강화
10. 국내외 선교네트워크 확대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CGNTV

# 복음 심고 지구 끝까지

CGN(Christian Global Network)TV는 2005년 태어났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도 위성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CGNTV의 전신은 온누리TV다. 2000년 온누리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지털 목회를 선언했다. 그해 5월 온누리TV가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온누리TV 개국과 동시에 '디지털 세상, 불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온누리 사역축제(OMC)를 열어 사이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12월에는 온누리 라디오까지 전파를 쏘아 올렸다.

온누리TV는 방송 8개월 만에 전체방문자 100만 명, VOD 1,542개, ADO 1,742개 하루 평균 1만3천 명이 접속하는 영향력 있는 방송국으로 자라났다. 월요큐터집회, 화요일성령집회, 수요일집회, 토요일청년집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방영했다.

**선교방송 선두주자로 우뚝**

온누리TV는 2005년 3월 29일 더 큰 위성선교방송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CGNTV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용조 목사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열방에 CGNTV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CGNTV는 개국과 동시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위성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케이블,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 미주지사를 설립하고 대만, 아랍 에미리트, 태국 등지에 제작센터를 오픈했다. 인도네시아 지사도 오픈 준비가 한창이다.

CGNTV는 개국한지 9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방송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현재 5개 위성 6개 빔을 설치해 170여 개국에서 24시간 동안 언어권별 맞춤형 선교방송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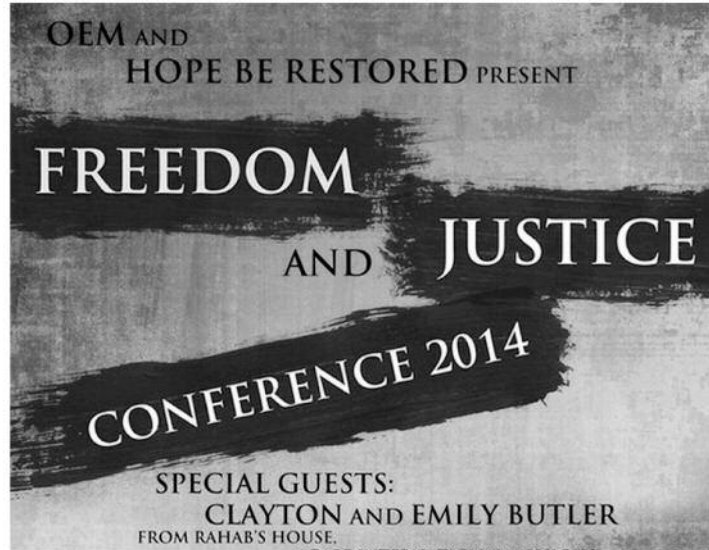
2014년 CGNTV는 '선교지향', '복음 중심', '섬김 실천'을 3대 가치로 내걸었다. 선교, 교육, 사회적 소명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크리스



CGNTV는 개국 9주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교방송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현재 5개 위성 6개 빔을 설치해 170여 개국에 24시간 동안 언어권별 맞춤형 선교방송을 하고 있다.

천방송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 계층과 청년대학생, 시니어 세대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영어예배, 자유와 정의 컨퍼런스 연다

2월 14~15일 서빙고 경찬홀

영어예배(OEM)에서 '자유와 정의(Freedom and Justice)'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서빙고 선교관 5층 경찬홀에서 진행된다. 클레이튼 버틀러, 에밀리 버틀러 선교사 부부(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가 강사로 초청됐다.

▷왜 교회가 성매매 문제의 답이 되어야 하는가 ▷성매매 예방의 본보기 ▷공급차단법 ▷수요에 대처

하는 법 ▷질의응답(Q&A) ▷후속관리 전략 ▷인식에서 행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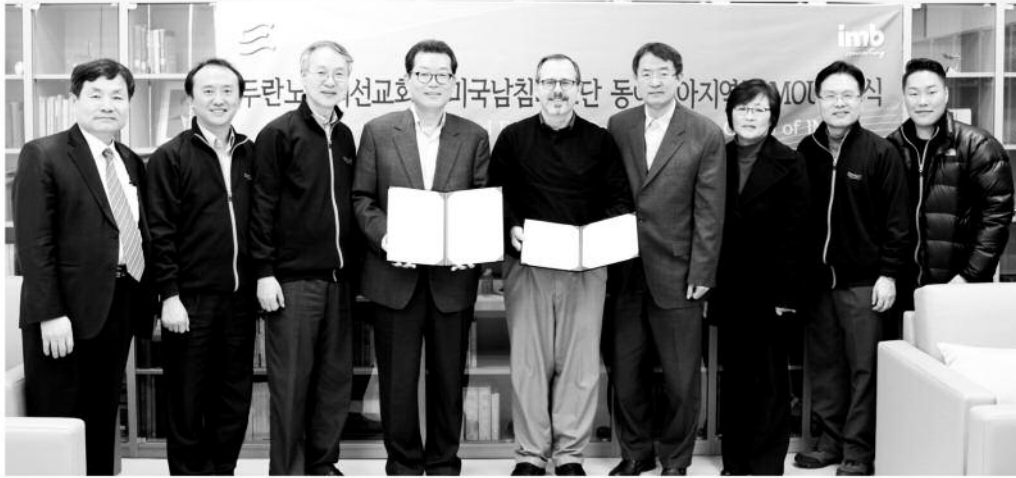
한국어 동시통역기가 준비될 예정이다.

클레이튼, 에밀리 버틀러 선교사가 사역하는 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AIM)은 성 인신매매에 대항해 싸우며 캄보디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선구적 단체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mailto:jjj@onnuri.org)



01 선교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두란노해외선교회와 미국남침례교단 동아시아지역국이 MOU를 체결했다.

## 미국남침례교단과 MOU체결

### 선교역량과 경험 공유하기로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미국남침례교단(IMB) 동아시아지역국이 MOU를 체결했다.

지난 13일(목) Acts29비전빌리지에서 MOU 협정식이 있었다. 이번 협정에서 두란노해외선교회와 미국 남침례교단은 폭넓은 선교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서로 배우며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침례교 동아시아 총책임자 스티브 엘리스 선교사는 “과거에는 서구 선교사들이 주도하던

선교 흐름은 이제 옛 이야기”라면서 앞으로는 미국과 한국선교사들이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B 동아시아지역국과는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교회개혁운동(CPM)훈련에 참가한 IMB 소속 김 다니엘 선교사 부부를 통해 관계를 맺었다.

한편 두란노해외선교회는 동아시아(2월)와 남아시아(5월)지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회개혁운동훈련(CPM)을 시행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故김사무엘 선교사 영성일기 ‘아낌없이 신실하게’ 출간



“사명을 받은 자가 선교사다. 사명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본문 중에서) 故 김사무엘 선교사의 영성일기 <아낌없이 신실하게>가 책으로 출간된다.

책에는 김 선교사의 영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일본에 7개 교회 개척을 비롯해 선교사 훈련, 이라크 교회 개척 등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의 일생

이 적혀있다. 그의 아내 김영숙 선교사가 책으로 엮었다.

오는 21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추모예배 및 출판감사에 배를 드린다. 23일 주일 12부 예배 후에는 저자 사인회도 개최된다.

03

## 올해 첫 선교사 파송식

오늘(16일) 서빙고 1부, 양재 3부 예배에서 올해 첫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된다. 선교사들은 장기선교사, 단기선교사, FA선교사, 갠렘선교사 형태로 중동, 유럽, 남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역한다.

/ 조은실 기자





목회사관학교

# 선교사가 곧 목회자, 목회자가 곧 선교사

선교는 목회자의 열(정체성) ... 무엇이든 '순종'

이번 목회사관학교는 특별했다. 새로운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국내 캠퍼스, 해외 비전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모였다. 선교사들도 함께 했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13일 경기도 여주 마임 비전빌리지에서 '미셔널 패스터(Missional Pastor)'를 주제로 제12회 목회사관학교(이하 목사관)가 개강했다.

이재훈 목사가 'Missional Pastor'를 주제로 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재환 선교사가 'Missional Church'를, 이훈 목사가 '공의, 공음, 겸손'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미셔널 패스터'는 선교사가 곧 목회자이고, 목회자가 곧 선교사라는 인식이다. 해외에서는 타문화권 선교로, 국내에서는 훌륭한 목회사역으로 나타난 수 있다.

이재훈 목사는 '미셔널(Missional)'이라는 단어를 '미션얼(미션+얼)'이라고 설명했다. 선교가 목회자의 '열(정체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미셔널 패스터'라는 것이다.

/ 특별취재팀



1



2



3



4



5

1. 유현목목사(뉴질랜드)가 청로들과 포옹하고 있다.
2. 들쭉날 저녁에는 운영위원회 장로 및 아버지학교 김성목 장로가 방문해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3. '세상을 변화시키는 Missional Church'라는 주제로 손창남선교사가 강의를 전하고 있다.
- 4,5. 선교사와 교역자들이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다.



01

| 메시지 |

# “선교 일이 담긴 목회자”

미셔널(Missional)은 영어사전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만 번역하기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셔널을 한국어로 ‘미션얼(미션+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셔널 패스터(Missional Pastor)는 선교의 열과 영혼이 담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와 목회가 하나 되었던 하용조 목사의 열, 선교적 정신에서 태동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목회사관학교를 통해서 선교와 목회가 별개라는 인식이 아니라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상황을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목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해외에서는 ‘타문화권 선교’로, 홈랜드에 있을 때는

‘지역사회 선교’로, 성도들한테는 훌륭한 ‘목회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 공동체, 심방, 돌봄이 모든 것이 미션얼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미셔널의 의미 세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Incarnational(성육신적)’입니다. 낮아지고, 찾아가고, 내려놓음으로써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오는 사랑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성도이기 전에 그들과 같이져야 되는 성육신적인 목회자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Passionate(열정적)입니다.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열정,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복회자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지지하지 못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사명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불태울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Reflective(묵상,반추적)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선교사든 목회자든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퇴색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미션얼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셔널 패스터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을 벗는다면 음성(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미셔널 패스터입니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미션을 단어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인 ‘얼’이 되어 Incarnational(성육신적인), Passionate(열정)을 가진, Reflective(반추, 되새김)함으로 인해서 미셔널(미션+얼)을 회복한 미셔널 패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02

#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사경회라는 성경공부가 온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사역회가 부흥사경회로 바뀌면서 심령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교회 형태가 변하면서 평신도 제자운동, 가정교회, 셀 그룹, 강해설교가 열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도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모두 이머징 교회운동(Emerging Church Movement)입니다. 이머징 교회운동은 새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머징 교회운동처럼 미셔널 처치가 굉장한 유행을 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신화화, 제도화되어 화석처럼 만들어버릴까 근심이 됐고, 처음 의도와 다르게 지나치게 보편화되어버리고 광의적으로 의

미가 확대될까라 걱정했습니다.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는 어떤 모습일까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교회 예산의 반을 선교에 투자하는 교회? 선교가 리드하는 교회? 무엇일까요. 레슬리 뉴비킨은 미셔널 처치를 교회 자체가 선교사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교를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표현됩니다. 사도바울은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롬 11:25)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교회 존재의 가치는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인 선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열두 제자도 깨달을 수 없었던 선교에 눈을 떴을까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

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갈 1:12)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선교이고, 비밀이고, 하늘에서 준 비전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간 것은 의무나 책임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며 비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선교는 초림에서 제림 사이에 교회가 가치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11억 7천 명의 무슬림, 8억 명의 힌두, 4억명의 불교, 셀 수 없는 미전도 종족, 1천 4백만이라는 유대인들...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날에 하나



이재환 선교사

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선교를 통해서만 오는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어 하십니다. 선교사로 떠나십시오. 못 가시면 보내십시오. 그것도 안되면 무릎선교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03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온누리교회”

해외 선교와 사회 선교를 두 단계로 표현한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보다 신실해지기 위한 반응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누군가를 보내는 것(Sending body)입니다. 교회 뿐 아니라 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보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한다면 모든 곳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선교는 낯설고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선교도 타문화권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 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공의로 행하려고 하십니다. 봉사, 사역보다 앞서 우리의 뉘뉘임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뉘뉘임을 보고 배우고 싶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성도들이 이웃관계 속에서 뉘뉘임이 다를 때 그때 진정한 사회선교가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래서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꿔 위로부터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이 사회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공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

리는 청지기 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을 갖고 산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공의롭게 행동하고 공물을 베푸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면 어떤 우리가 될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회에 기여하자 기득권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한사람 한사람 만나보면 하나님의 공물이 필요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기여자를 공물(공물)이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의 속도(속도)도 관련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선한 마음, 선한



이훈 목사

동기를 붙여넣으셔서 아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구하는 선교가 아니라 감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선교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2014년 2월 16일 987호

• 01-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재훈 목사 메시지 : “선교 일이 담긴 목회자”(9면), • 02-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재환 선교사 메시지 :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9면)  
 • 03-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훈 목사 메시지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온누리교회”(9면)



01

|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

실 연휴에 인도네시아 람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팀은 서빙고 성인공동체, 청년 W공동체 청년들로 구성됐다. 아웃리치 팀은 척추교정 및 수기요법사여, 침술사여, 어린이사여를했다. 서로 전혀 몰랐던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

자카르타에서 30분을 이동해 마르디완부 요 병원을 방문했다.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전날 동네 산파 아주머니께서 극심한 통증으로 호소해 방문하게 되었다. "푸한 예수그리스도(예수그리스도 찬양)"를 부르며 고통을 참은 아주머니는 치료 후 곧장 회복되었다. 병원장님께서 물방울이 수십 년 동안 떨어지면 바위가 깨지듯이, 현지인을 지속적으로 섬기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섬김의 일환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셨다.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돈은 무릎에서 나온다"는 확고한 믿음이 도전을 주

## 수십 년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깨지듯이



었다. 청소년 양육센터에서 4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도 만났다.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서 선교사님의 헌신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어린이사여와 수

기요법, 침술사여도 했다.

**복음이 닿지 않은 람퐁족을 품다**

기도로 품어왔던 람퐁족 사역이 시작됐다. 이 곳은 100% 무슬림지역이다. 주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조금은 경계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웃으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문뜩해졌다. 아직도 우리가 불에 그려준 그림을 자랑하며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두나스자야 지역 성도들이 람퐁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종족 간 교류가 없어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무슬림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에 현지인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

/ 김남희 · 정수진 자매(W공동체)

02



## 선교는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직업과 선교〉 손창남 지음  
OMF-조이선교회 | 240쪽 | 12,000원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마 28:19-20).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 이 책은 '직업을 통한 선교'를 이야기한다. 3부로 구성된 본문에서는 직업선교의 필

요성과 유형, 준비 과정을 알려준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쳐준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풀뿌리 선교'다. 사도행전에서는 선교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와 또 다른 하나는 '풀뿌리 선교'다. 전자는 사도들이 하는 선교로 지역이 국한되어 있다. 후자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하는 선교다.

저자는 '풀뿌리 선교' 모델에서 직업을 통한 선교방법을 발견한다. 이 책은 직업선교의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전문인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사무엘 선교사 소천 10주기



"선교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내 신화이나 교육이나 인품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분으로 전하는 데 쓰이는 씨앗으로 보냄 받은 것이기에 죽음이 선교의 첫째요, 전부다."

-저서 <왕의 초대>에서-



# 성지순례와 폭탄테러

비보가 전해졌다.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이집트 현지시간) 터키-이집트-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성지순례를 떠난 총북 진흥 중앙교회 성도들이 폭탄테러를 당했다. 한국인 3명(성도1명, 기아드 2인)과 현지인 2명(운전기사, 테러범)이 사망했다. 2004년 이라크에서 피랍돼 살해된 김선일 형제와 2007년 생물교회 봉사팀 피랍사건 이후 또 다시 전해진 비보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테러를 저지른 단체도 문제지만 기독교의 무리한 종교 활동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안전한 성지순례는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질문을 구했다.

/ 편집자 주

## | 특별기고 1 | 이번 사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희생과 아픔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도육한 목사  
(2천선교본부장)

한국교회는 또 다시 큰 아픔과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다. 성지순례단으로 떠난 선량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자폭 테러로 세계인의 가슴에 큰 슬픔을 불러 일으켰다. 사랑하는 성도를 잃고 큰 상실감에 휩쓸려가는 진흥중앙교회 성도들의 고통은 모두의 아픔이요 슬픔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속히 아픔을 치유하고 고난 중에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아픔과 상실감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악플러들의 언어적 테러를 접할 때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

#### 왜 이런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나

답이 단순하지 않다. 이번처럼 지배 권력에 타격을 기하기 위해 일으키는 정치적 목적의 테러가 있고, 시아와 수니파 사이에 일어나는 해묵은 이슬람 종파간의 전쟁이나 테러들도 일어난다.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종족 전쟁의 양상이 있는가 하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건설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진 테러집단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악행이 신의 이름으로, 성전(지하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UN도 인권단체도 해결이 쉽지 않는 반인륜적인 속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권력의 충돌 사이에서 희생되는 선량한 사람들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배푸시는 진정한 살림이 더욱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열방과 족속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그치고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 인간의 모든 욕심과 악을 내려놓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인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소수의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과격한 원리주의 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선량한 보통사람들일 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야 할 우리 이웃이다. 셋째는 해외사역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간 2만 5천 명 이상의 한국 성도들이 성지순례와 아웃리치 등으로 중동 인근 5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이 감수되어야 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있다. 복음의 특성상 우리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는 곳에도 가야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은누리교회는 해마다 3천 명 이상이 해외로 단기사역을 떠나는 교회이다. 그 동안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다. 동시에 가능하면 외교부가 정한 여행관련 지침

들을 지켜 지역들을 선정해 왔다. 성지순례나 해외아웃리치는 총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구하면서 또한 최선을 다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선교본부나 전문기관들의 자문을 받아 해외사역을 기획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너무 큰 아픔을 당함과 동시에 너무 큰 비난에 직면하면서 위축당하고 스스로 슬그머니 뒷걸음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뜻하지 않게도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게 된 사건도 있었지만, 선한 일을 행하다 당한 고난에 자부심과 확신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죄인처럼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하나님 의 명령 앞에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이런 희생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이 땅이 되도록 더욱 기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 | 특별기고 2 | 안전한 성지순례 없나?

###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류모세 선교사

2월16일 오후 2시40분. 필자는 성지순례팀과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나사렛을 조망하며 이스라엘 풍야를 달리고 있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는 유난히 직선으로 뻗어 있어 ‘씨르켈(깊이를 재는 자)’이라고 불린다. 직선으로 뻗은 도로에 멧있는 경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맨 뒤쪽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 한분이 버스 앞으로 뛰어나왔다. “이집트에서 한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폭탄테러가 일어났네요.” 버스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가슴이 찢어질 듯 내려앉았다. 이집트에서 폭탄테러가 일어

난 지역이 불과 3일 전에 지나 온 곳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날 저녁 우리는 성지순례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기도했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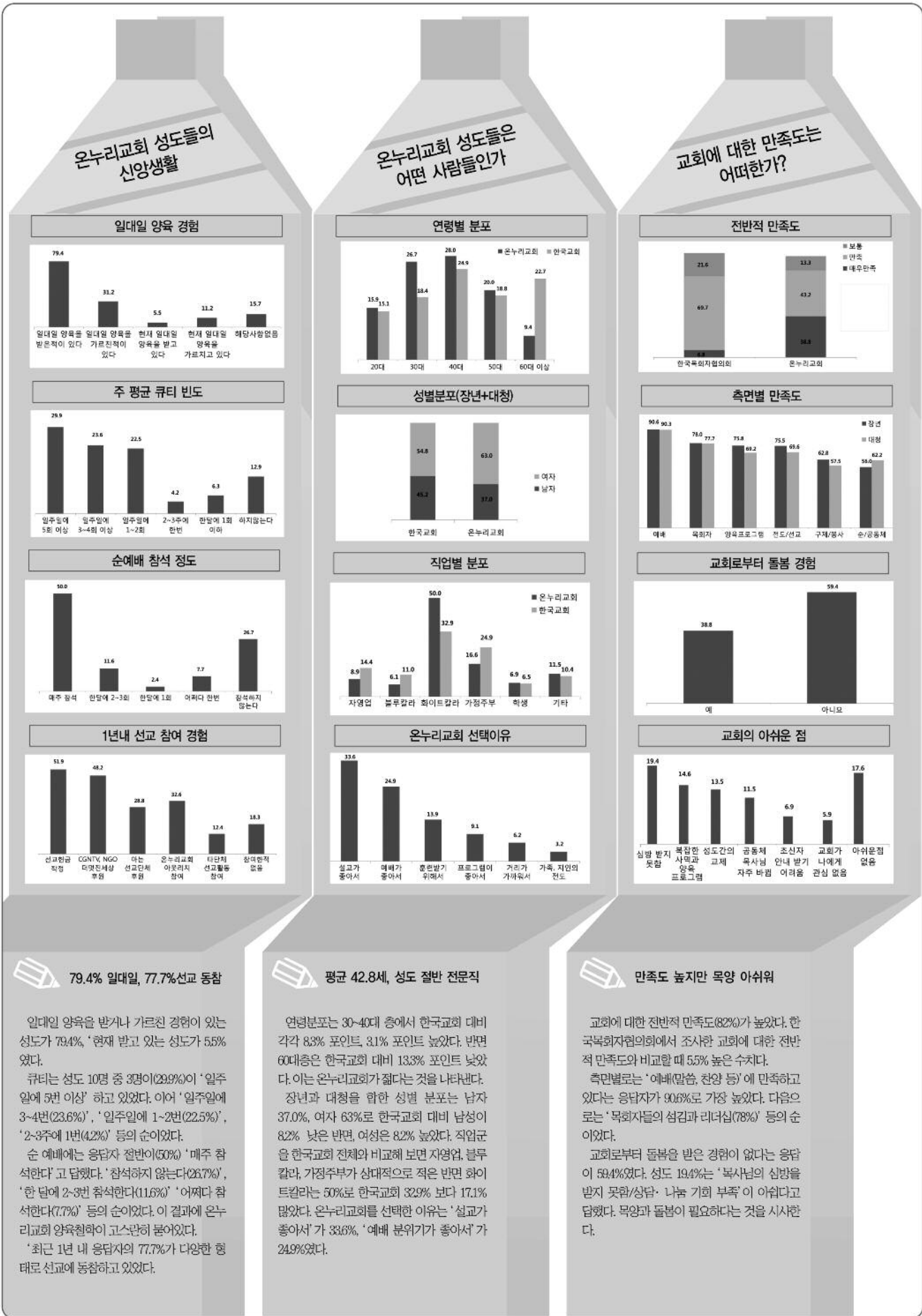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주 평균 2차례씩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났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커피숍, 피자집, 레스토랑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모두 타깃이었다. 집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소도 안전한 곳이 없었다. ‘폭탄 사이로 막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살벌했다. 그럼에도 테러로 인해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히브리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일어난 테러로 한국인 유학생 3명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다. 이집트는 장기 집권하던 무바라크 정권이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열풍에 의해 강제 퇴진 하면서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관광산업이 주 수입원인 이집트 경제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었다. 차안 유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다행히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성지순례 코스(이집트~이스라엘 출애굽 여정)가 재개되었다. 위험 구간은 최대한 피하고 버스에 현지 경찰이 동행하면서 성지순례는 이어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낯설다. 관광객을 직접 겨냥한 테러는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이집트를 찾는 여행객은 없을 것이다. 이집트가 바로 이번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세력이 현정부에 입할 수 있는 최고의 타격이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 어이없는 희생이다. 자신들의 정

치적 복직 달성을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 철저한 사전준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안전한 성지순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한국인들이 성지순례 코스도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치안이 좋지 않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다. 현지 전문가는 물론 필요하면 현지경찰 동행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지순례를 갈 나라의 정치 상황, 테러발생 여부도 살펴야한다. 이 모든 것을 체크했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한다.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일정을 보내야한다. 성지순례팀뿐만 아니라 교회와 동역자들도 계속 중보해야한다.





故김사무엘 선교사 10주기

# 하나님 사랑하는데 일생 바친 순교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0-21). 이 말씀은 김사무엘 선교사의 생전의 소망이었다.

말씀대로 그는 죽음의 유익을 증거하며 2004년 2월 하늘나라로 갔다.

김사무엘 선교사의 10주기를 추모하며 문막 은누리동산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다.

### 아낌없이, 쏟은 선교열정

김사무엘 선교사는 35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일본 땅으로 부르셨다. 부르심에 순종해 신학공부를 마치고 1983년 C&MA 교단으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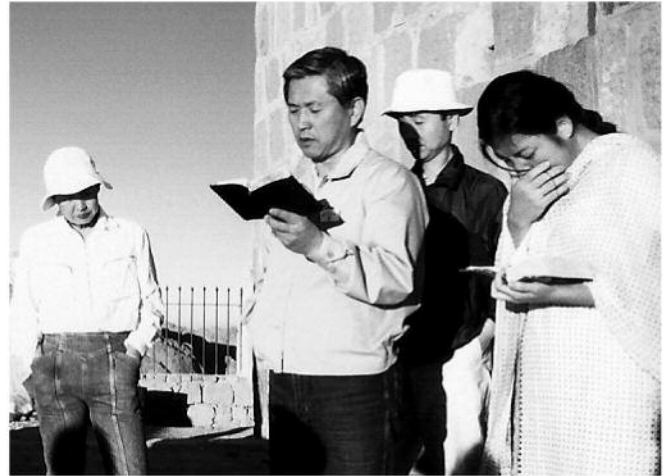
그는 도쿄 시부야 교회, 요시카와 복음교회, 이치카와 복음교회, 센겐다이 교회, 나리

타 복음교회, 아치요 복음교회, 기후 알라이 언스 교회 등을 개척하며 선교에 열정을 쏟았다.

1988년부터 95년까지 중국 선교사로 언어 훈련과 교회 리더십 훈련을 담당했다. 1995년 7월부터는 은누리교회 선교총괄목사로 사역했다. 일본에 비전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탤다. 일본에서 멈추지 않고 북한과 중국을 다니며 지경을 넓혀 갔다. 2003년에는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이라크에 들어가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에 온 힘을 쏟던 그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하늘나라로 떠났다.

김사무엘 선교사의 순교는 은누리교회 Acts29 비전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선교의 헌신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그의 영성이야말로 한국 교회 또 하나의 유산으로 남았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깊이 뿌리 내렸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고 김사무엘 선교사는 일본, 중국, 이라크 등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2004년 소천했다.

### 은누리교회 순교일지

2000년 새해 첫날, 중국으로 파송된 박승철 선교사가 순교했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박승철 선교사는 은누리교회 첫 순교자다.

2004년 김사무엘 선교사가 박 선교사의 뒤를 따른다. 같은 해 국내에서도 순교자가 생겼다. 이태화 형제가 경남 하동에서 이웃교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순교했다. 2005년 6월 중국에서 사역하던 권소망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곁으로 갔고, 같은 달 창조과학회 1호 선교사이자 은누리 파송선교사 전광호 선교사도 순교했다. 2006년에는 최보라 선교사가 순교했다.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

# 20번째 쓰는 러브소나타

### 일본 최남단 항구도시 ... 간몬교(關門橋), 복어 유명 벌써 집회준비 한창, 9백여 교회에 홍보전단 배포



통산 20번째 러브소나타가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5월 14~15일 열리는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를 3월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모노세키 현지는 벌써부터 러브소나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9월 실행위원회를 조직했고, 야마구치현을 포함한 주고쿠지방 5개 지역과 규슈 3개현의 9백여 교회에 러브소나타 홍보물을 전단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첫 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훈에서 열린 모임에는 김경훈 목사(러브소나타 본부)를 비롯해 운영섭 장로 등 24명이 참석했다.

#### 일본 최남단 항구도시

시모노세키는 일본 혼슈(본토섬) 최남단

에 위치한 작은 항구도시다.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교회는 24개가 있다.

시모노세키는 예로부터 육로와 해로가 발달해 일본의 교통상업 중심지로 변모했다. 도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조선시대 사립들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지나 일본에 들어왔다.

일본의 6대 무역항구 도시 중 하나이며, 복어 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시모노세키는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 슬픔을 안겨 준 곳이다. 청일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청나라와 '시모노세키조약(청·일양국강화조약)'을 체결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 조약으로 당시 일본은 조선과 동남아에 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불만만 곳도 많다. 간몬교(關門橋)가 손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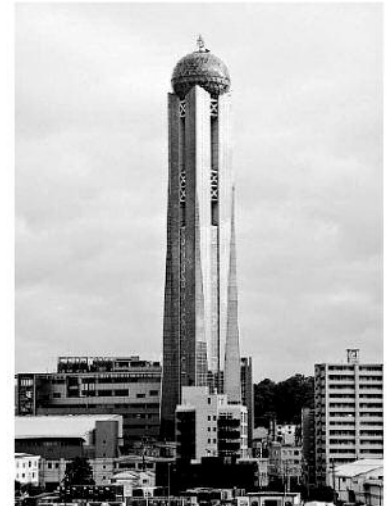
힌다. 간몬교는 일본 혼슈와 규슈 사이의 간몬해협을 횡단하는 다리다. 1973년 개통한 현수교는 시모노세키의 상징이다. 각종 해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가라토시장이 명물이다. 아카마신궁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1185년에 건립된 아카마신궁은 조선 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었다.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남아있다.

한편 11월 13~14일에는 오비히로에서 러브소나타가 개최된다.

/ 정현주 기자 joo819@onnuri.org

#### 〈러브소나타 간사 모집〉

자격: 일본어 가능한 성도  
일본선교에 헌신한 성도  
문의: 02-3215-3717



시모노세키 명물 가이료유메타워. 가이료유메는 '해협의 꿈'이란 뜻이다.

#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헌금 2만 7천여 성도, 109억 작성



선교헌금 2만 7천여 성도, 109억 작성

작지만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여린 손을 잡는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린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2편으로 이어짐>

01



2014 선교헌금

# 헌금에, 중보기도에, 재능기부까지

## 온누리교회, 선교하는 방법도 다양각색

26,751명의 성도가 해외선교헌금 109억 원을 작정했다. 올해는 현금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신청도 줄을 이었다. 5천2백여(중보기도 4,074명, 재능기부 1,092명)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다. 올해 처음으로 작성한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분야에 예상치 못한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다. 어떤 식으로든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생생정보통 '후원사역부'

성도들에게 생생한 선교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가 신설됐다.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는 성도와 선교사를 잇는 소식통이다.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선교사와 성도들이 소통하도록 돕는다. 소통과정은 이렇다.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 소속 재능기부자들이 선교지 정보와 선교사 편지를 담아 기도편지를 제작한다. 이 기도편지가 중

보기도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다. 기도편지를 받은 성도는 선교지 소식을 보고 홍보한다.

지금은 선교사들의 편지를 성도들이 받기만 하지만, 앞으로는 성도들도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귀한 손길 '재능기부자'

지난 2월 25일 첫 번째 기도편지가 발송됐다. 지난 2개월 동안 재능기부자들은 기도편지 제작을 위해 헌신의 힘을 쏟았다. 관심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로 4천통이나

들었다. 재능기부에 헌신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선교열정은 같다.

온누리선교후원사역부 팀장 김순태 집사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재능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인하 성도는 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소식지 제작을 돕는다. 박계용 집사는 소식지를 통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선교사 자녀 박영민 자매는 소식지를 제작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4949-7882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온누리교회에는 대륙별 모임, 선교사를 위한 모임,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한 모임, 미전도종족을 위한 모임 등 40여 개의 선교기도모임이 있다. 기도모임을 순차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첫 순서는 북한중보기도모임이다.

### 북한중보기도모임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 북한사역의 시초가 바로

북한중보기도모임이다. 청년부를 주축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장년층까지 확대되었다. 찬양과 말씀, 기도예배를 드린다. 북한과 중국 선교사들을 초청해 사역이야기를 듣고 기도제목도 나눈다. 매일 첫째 주에는 '북한선교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북한전문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연다. 매주 월 저녁 7시30분, 시범고 신관 402호. 문의: 송우중 팀장 010-8591-8236

### 기도제목

- 북한주민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 세태민들이 억압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 선교헌금의 역사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 중국과 이슬람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Mission Talk  
김정혜 선교사

03

## “보석같이 빛나는 선교사 자녀들”

2002년 한일월드컵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을 때 나는 북인도 델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가장 남자들의 노릇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두꺼운 눈빛, 온갖 쓰레기와 먼지를 마른 겉테로 뒤어내는 아이들의 무뎠은 동전 한 닢을 외치고 있었다.

뜨거운 델리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 한명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막다 남은 미지근한 콜라를 원하는 눈치였다. 내게 그것을 받아내자마자 건넌 아이의 눈이 때로 물러왔다. 울고불고 싸웠다.

인도의 고아, 동아시아국 선교사 자녀 유치원, 중남미 니카라과에서 학교 사역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 다국적 교사, 조문화(Multi-culture) 교육에 대한 한계와 갈등을 담소 체험했다.

성장시기를 태문화권에서 보낸 주재원, 비즈니스, 선교사 자녀

들을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특히 선교사 자녀(Missional Kids: MK)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국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많은 선교사의 간증을 듣다보면 특별한 울림을 주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자녀를 향한 고민과 애드립이다.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겪는다.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선교사들의 끝없는 순종과 헌신을 볼 때면 MK(선교사자녀)사역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싱글 시역자의 한계에 부딪혀 있던 즈음이었다. 선교사역을 활성화시키고 MK를 자체에 선교대사로 세우는 거룩한 자리에 초청되었다. 하나님은 MK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광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책상 앞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MK를 품게 되었다.

이동이 잦은 MK들이 더 이상 부모님의 신발이 아닌 하나님의 신발로 삼기 원한다고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들을 만나면 만년수목 보석같이 빛이 난다.

나는 MK가 정말 좋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마음으로 MK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들과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김정혜 선교사는.....

예배하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십을 양성하고 매가시킴기를 꿈꾼다. 현재 MK(선교사자녀) 사역을 섬기고 있다.

MK사역문의 070-4464-8115

2014년 3월 2일 989호

• 01- 2014 선교헌금 : 선교후원사역부 신설 및 재능기부자 기도편지 제작(2면), • 02- 〈북한중보기도모임〉 소개(2면)  
• 03- 〈Mission Talk〉 보석같이 빛나는 선교사 자녀들 : 김정혜 선교사(2면)



# 온누리교회는



##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1. 교회만족도와 신앙생활
2. 성도들의 신앙의식

## 구원확신 높고 신앙실천 의지 강해, 사회적 윤리문제는 더 보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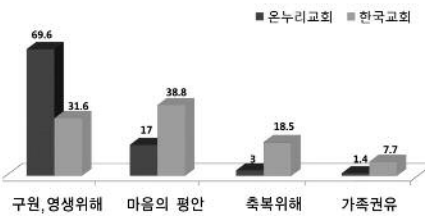
온누리교회는 역시 건강한 교회다. 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까지 실시한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식이 매우 건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와 비교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자녀 신앙교육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도 소명의식이 높고, 높은 비율의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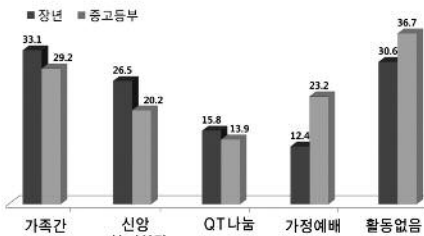
### 성도들의 신앙생활

#### 신앙생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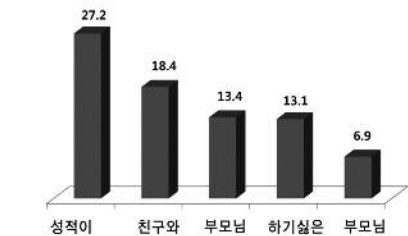
###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 가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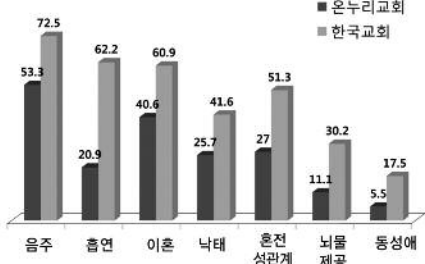


### 대학청년부/중고등부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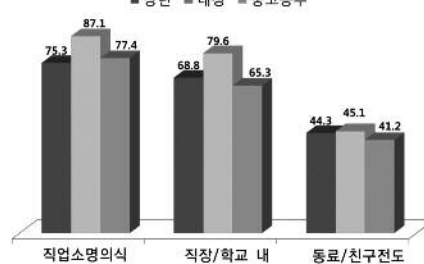
#### 가장 큰 스트레스(중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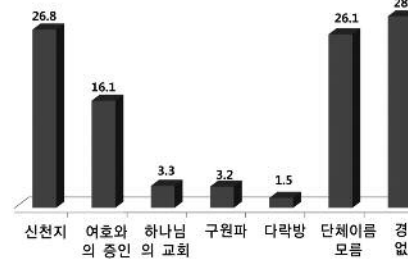
#### 윤리문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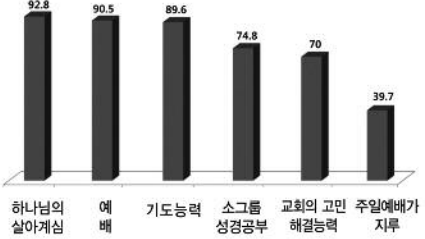
#### 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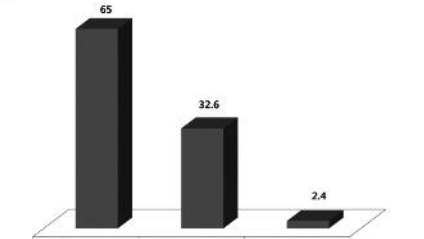
#### 이단사이비 접촉경험(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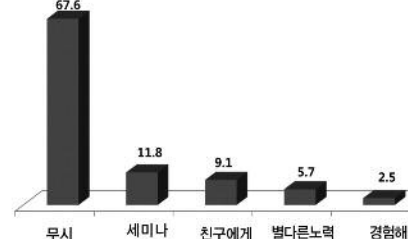
#### 신앙인식(중고등부)



#### 자녀 신앙교육(유자녀, 기혼자)



#### 이단사이비 대처요령(대학생)



### 구원과 영생을 위해(69.6%)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69.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17.7%)', '축복 위해(3%)' 등의 순이었다. 한국교회 조사결과(31.6%)보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높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38.8%)' 보다는 낮았다.

음주 53.3%, 흡연 20.9%, 이혼 40.6%, 인공유산(낙태) 25.7%, 혼전 성관계 27%, 뇌물 제공 11.1%, 동성애 5.5%의 응답자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와 '해도 무방하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한목협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윤리적·신앙적 견해는 보수적인 편이다.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는 항목은 흡연이었다. 한목협 조사에서는 62.2%가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온누리교회는 20.9%에 그쳤다.

### 가정, 일터, 자녀에게 신앙실천 노력

지난 1주일 동안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앙 교류에 대해 질문했다. 가족간 기도(33.1%)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6%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앙 나눔/상담(26.5%)', 'QT 나눔(15.8%)', '가정예배(12.4%)' 등이 뒤를 이었다.

일터에서 삶에 대해서는 75.3% 성도가 '나는 이 직업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68.8% 성도가 직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44.3%는 일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일터에서 소명의식과 신앙실천 노력 의지가 비교적 높았다.

자녀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65% 성도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다. '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21.1%)', '전혀 못하고 있다(3.5%)' 순이었다.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2배가량 많았다.

### 이단문제 · 성과와 진로 고민

56.7%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단·사이비의 접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단별로는 신천지가 2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집근했지만 잘 모르겠다(26.1%)', '여호와 의 증인(16.1%)', '하나님의 교회(3.3%)', '구원파(3.2%)', '다락방(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단 사이비가 접근한 적이 없다(28.8%)' 수준이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67.6%의 응답자가 '무시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이단·사이비 예방 특강에 참석한다(11.8%)', '주변 친구들과 물어본다(9.1%)', '직접 경험해 본다(인터넷 사이트 조회, 성경공부 등) 25%' 순이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떨어졌을 때(27.2%)'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학교 성적 및 공부 관련 비중이 40.2%로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선교와 예배가 강한 교회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음주, 흡연, 이혼, 낙태, 혼전성관계, 뇌물제공, 동성애 등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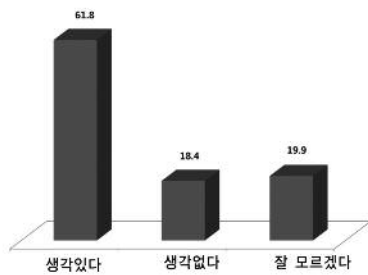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목회강점으로선 선교와 예배를 꼽았다. 교회 신뢰도도 높다. 한국교회에 방향성 제시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향후 사회선교 분야를 보완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식,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대학청년부/차세대 고민, 교역자들의 신앙의식, 온누리교회 이미지, 온누리교회의 역할에 대한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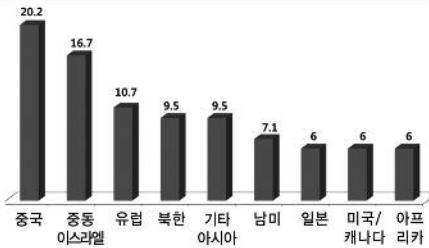
/ 김남원 부장 one@annuri.org

## 교역자들의 신앙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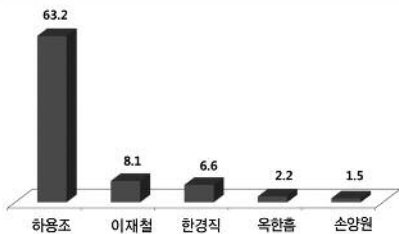
선교사로의 헌신



개척하고 싶은 지역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 61.8% 선교사 헌신 생각

온누리교회 교역자 61.8%는 해외선교사로 헌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 모르겠다(19.9%), 생각없다(18.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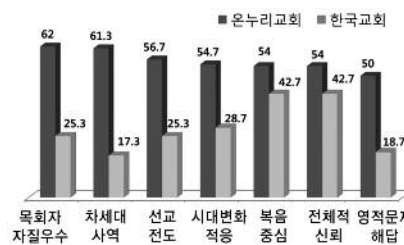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지역은 중국(20.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동(16.7%), 유럽(10.7%), 북한(9.5%), (일본 제외)아시아(9.5%), 남미(7.1%), 일본(6%), 미주(6%), 아프리카(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는 단연 하용조 목사(63.2%)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이재철(8.1%), 한경직(6.6%), 옥한흠(2.2%), 손양원(1.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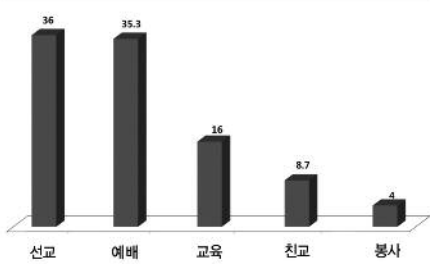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으라는 질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생각이 달랐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옥한흠, 한경직, 조용기, 김삼환, 오정현, 이동원 등의 순으로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았다.

## 온누리교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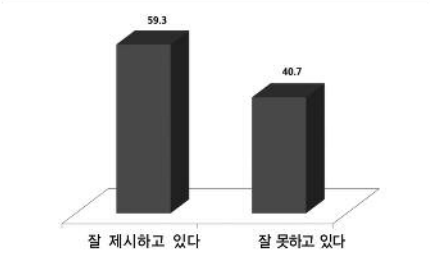
교회 신뢰도(긍정률)



목회 분야 강점



교회의 방향성 제시



### '선교와 예배' 최고의 목회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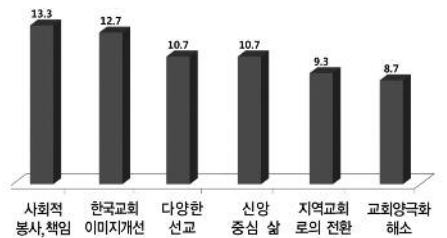
모든 조사항목에서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차세대 사역과 목회자 자질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도 56.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신뢰도 역시 온누리교회 54%, 한국교회 42.7%로 온누리교회가 더 높았다.

온누리교회 목회강점은 '선교(36%)'와 '예배(35.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16%)', '친교(8.7%)', '봉사(4%)' 등의 순이었다. 외부에서도 온누리교회는 선교와 예배가 좋은 교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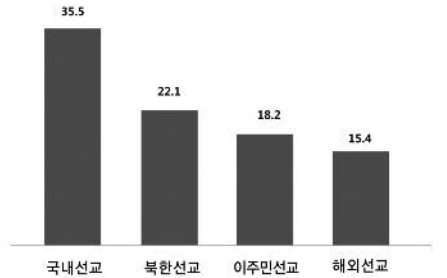
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적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9.3%가 한국교회보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40.7%나 되었다.

## 온누리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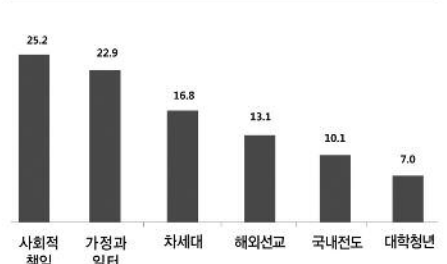
한국교회 발전위해 해야 할 역할



향후 보완해야 할 선교분야



향후 보완해야 할 사역분야



### 사회선교 분야 활성화시켜야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외부에서도 온누리교회가 보완해야 할 사역분야로 '사회선교'를 꼽았다. '사회적 봉사과 책임',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 '다양한 선교활동', '신앙 중심의 삶' 등을 통해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온누리교회가 향후 보완해야 할 선교분야로는 35.5% 성도가 '국내선교'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선교(22.1%)', '이주민 선교(18.2%)', '해외 선교(15.4%)' 등의 순이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사역 분야는 응답자 25.2%가 '사회적 책임(구제와 봉사)'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22.9%)', '아린이/중고등부(차세대)사역(16.8%)', '해외 선교(13.1%)', '국내 전도(10.1%)', '대학/청년 사역(7%)' 등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01

고령화, 교회에서 대안을 찾자

# 시니어 선교가 뜬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유례없이 빠르다. 원인은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이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한다.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았다. 부양문제, 노인우울 및 자살, 환한이혼 및 육아 등 인생의 황금기가 눈물로 얼룩지고 있다. 인구고령화 문제 교회에서 대안을 찾아보자.

### 이제는 시니어선교 시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은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직장에서 은퇴, 부모역할 은퇴, 사회생활 은퇴가 노인문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결책은 역할부여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역할부여 측면에서 CGNTV가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선교캠페인'이 무척 반갑다. 시니어선교캠페인은 인생의 후반부를 선교



CGNTV가 시니어선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에 헌신하는 운동이다.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인들에게 오아시스가 아닐 수 없다.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시니어세대는 귀중한 선교자원으로 환영 받는다. 젊은 선교사와 달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긴 시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쌓은 전문 기술과 경력도 매력적이다. 경험이라는 무기에 전문적 선교훈련이 더해지면 맞춤형선교사 탄생을 기대해도 좋다.

CGNTV가 한국교회와 손잡고 시니어선

교사 훈련을 시작했다. 전문가 초청 대담을 열고 시니어 선교 중요성도 논의했다. 시니어선교사 선발부터 선교사가 되기까지 여정을 '리얼다큐'로 방영한다고 한다. 벌써 그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문의: 02-3275-9445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서부아프리카에 더 멋진 세상을!

은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이 서부아프리카 지역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21일 세네갈에서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개소식이 있었다. 현지 정부 인사, 세네갈주재 한국대사, 참사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네갈 지부 첫 공식행사도 진행됐다. 본나바 마을의 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이었다. 총장과 교육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3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본나바 마을 어린이들은 학교 건물 없이 갈대로 지은 임시 막사에서 공부를 했었다.

### 기니비사우 우물공사 시작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블롬(Blom) 마을에서 우물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25미터를 굴착해 간수를 수동 펌프로 끌어 올려 주민들의 식수로 공급



하는 공사다. 오염된 물을 마시던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역 TV와 라디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다. 이번 공사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2천만 원을 익명으로 후원한 은누리교회 성도의 헌신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향후 진료소 설립, 학교 보수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2014년 3월 2일 989호

- 01- 고령화문제 교회에서 대안 찾기 (시니어 선교)(11면)
- 02-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및 기니비사우 우물공사(11면)



01

#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도처소 ‘시안홀’

## 그곳을 찾는 이유 ‘기도와 안식’

온누리교회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답은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에 조용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안홀’이 있다. ‘시안홀’은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의 첫 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던 ‘시므온’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안나’의 영성을 본받는 곳이 바로 시안홀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다. 선교사들의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다.

시안홀에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안 예배가 열린다. 시안예배는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와 개인 기도로 드린다. 세계적인 이슈와 선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부르짖는다. 올해부터는 선교사와 교역자들이 개별 기도를 해준다.

###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안홀에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이 있다. 주인공은 김인혜 성도와 김명선 성도다.

김인혜 성도는 시안예배를 드린 첫날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다. 지금도 화요일과 목요일은 시안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그녀는 처음 시안예배를 드릴 때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가 시안홀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들에게 빛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중보기도자로 살겠다는 서원을 이곳에서 지키고 있다. 열방과 선교사, 이웃을 위한 기도응답이 그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녀에게 시안예배는 특별하다. 기도의 불을 지피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선 성도에게도 시안예배는 특별하다. 그녀는 시안예배가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여 매주 화요일에 셔틀버스를 타고 Acts29 비전 빌리지로 향한다. 그녀는 지금도 시안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날이면 마음이 설렌다고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쁨 부으심에 대한 사모 때문이다. 지역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에게 시안예배는 온전히 예배자로 서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안식의 시간이다. 그녀에게 시안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시안예배안내

- 일시: 매주 화요일~토요일
- 시간: 오전 10:30-12:30
- 장소: 시안홀(1층)

- \*서빙운영시간
- 9:00 서빙고 초소
- 9:30 양재 초소
- 10:30 Acts29비전빌리지 도착
- 15:30 Acts29비전빌리지 출발

\*문의: 031-331-82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239번지

02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

2007년 아른기도실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공동체 중심으로 3-4명 정도 모이는 작은 기도모임이었다. 자유롭게 모여 기도하다 지금은 10명 정도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다.

구성원 대부분이 40대 초반이다.

시간과 여건이 되는 성도는 방학 때도 상관없이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실을 지키고. 기도모임은 한 주 동안의 큐티나눔으로 시작한다. 목상을 나누고 개인 회개기도를 한다. 이어 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헌금으로 선교사와

군부대 간식을 후원하기도 한다. 개인기도는 긴급 기도제목이 있을 때만 하고, 팀원들끼리 짝을 정해 주중에도 기도한다.

일시: 매주 목 오전 10시, 서빙고 아른기도실.  
문의: 이수연 집사 010-3243-8786

### 온누리교회 선교기도모임

월 오후 1시, 서빙고 아른을 / 최태숙 집사(010-2756-7467)

화 오후 1시, 서빙고 홀을 / 김주영 집사(010-2723-1689)

수 오전 10시, 서빙고 403호 / 이수연 집사(010-3243-8786)

금 오전 10시, 서빙고 홀을 / 최태숙 집사(010-2756-7467)

오후 6시, 서빙고 101호 / 김주희 집사(010-5697-8736)



Mission Talk  
박영희 선교사

03

## 골방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골방으로

시안홀은 예배자의 삶에서 선교의 삶을 연결시키는 모든 이들의 예배처이다.

선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시안예배가 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예배자의 삶을 세워가는 예배가 바로 시안예배다.

시안홀이 있는 Acts29비전빌리지는 OSCOM, TP, H2H(장·단기 선교훈련, 인성년선교사 재훈련 등 다양한 선교훈련이 이뤄지는 선교훈련센터다. 선교사들과 선교후보생들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부르짖는 곳이다. 선교사와 훈련생, 성도들의 사귀의 장이기도 하다.

선교훈련생 뿐만 아니라 서빙고와 양재를 거쳐 오는 셔틀 버스와 각지에서 찾아오는 성도들은 시안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삶으로 흠어져 예배자로 살아간다.

시안예배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올해부터 시작된 개별 기도사역은 사역현장(개인, 가정, 교회)에서 곤비하고 놀린 심령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세 힘을 공급하는 영적 배터리 충전소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배제다. 전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열매 맺는 예배가 될 것이다.

시안예배가 드려지는 시안홀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숫자적인 부흥과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개인을 위한 공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와 경배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미의 자궁같이 순결하고 안정되게 영적 공급을 받

는다. 또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개인 경건시간을 갖기 때문에 기도의 맥을 잡을 수도 있다.

선교사를 양육하는 Acts29비전빌리지에 가면 시안홀에 가보라.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는 곳이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함께 예배하며 드린 기도가 열방을 움직일 수 있게 도기를 소망한다.

박영희 선교사는.....

고 아리둔즈 선교사의 아내이다. 남편과 함께 중국, 홍콩 등지에서 사역했다.

현재는 Acts29비전빌리지 열방팀을 섬기고 있다.

2014년 3월 9일 990호

• 01- Acts29 비전빌리지 24시간 기도처 <시안홀>(8면), • 02-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 소개 (8면)  
• 03- <Mission Talk> 골방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골방으로 : 박영희 선교사(8면)

# “한 땀 한 땀 만든거예요”

## 선교지에 인형 만들어 보내는 박경희 권사

‘한 땀 한 땀’ 정성껏 인형을 만들어 선교지에 보낸 지 여인 10년. 박경희 권사(한 땀 사역팀)의 손끝이 유난히 빨강다.

“한국에서 손으로 만들어 보낸 인형을 선교지에서 받은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들이 고사리 손으로 적어 보낸 감사편지와 사진을 보면 힘들고 고단했던 몸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작은 인형 하나가 선교지에서는 커다란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취미삼아 시작했던 인형 만들기가, 처음에는 해외비전교회에서 전도용품으로 사용하려고 인형을 만들었다. 그것이 한 땀 사역의 시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느라 바빠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자녀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선교지에 인형을 보냈어요”

### 선교와 전도를 동시에

보낼 선교지가 많다보니 일손이 부족해 할 계할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다. “우연히 만든 블로그에 한 땀 사역에 관한 글

을 올렸어요. 블로그를 통해 빠르게 홍보됐고 많은 핸드메이더(직접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절반이상이 년크리스천이었다. 선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땀 사역을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에 동참한 39명의 핸드메이더 중 크리스천은 16명뿐이었다.

“좋은 일에 년크리스천들이 더 열심이었어요.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역이 확장되면서 박 권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생겼다. 한 땀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년크리스천들에게 본이 되고 싶어했다. 하나님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모하는 치유사역에서 년크리스천들을 전도하는 구원사역까지 지경을 넓혀줬다.

### 한 땀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블로그를 통해 물품은 많아졌지만 문제는 일손이 모자라다는 것. 박 권사를 비롯한 몇 명이 해내기에는 힘이 부친다. 다행히 지난해 초부터 2천선교본부의 도움으로 ‘한 땀사역’이라



한 땀 사역자들이 만든 인형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박경희 권사(가운데)와 김은하, 박보영 성도.

는 정식명칭을 갖게 되었다. 온누리신문에도 보도되면서 동참하겠다는 성도 10여 명이 찾아왔다.

“반년이 지난 지금은 5명이 사역하고 있어요. 동역자들이 적다보니 어떤 때는 2-3명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박 권사의 기도제목은 선교지에 인형을 많이 보내는 것이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손재주

가 있거나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땀 사역의 매력에 무엇인지를 물었다.

“직접 만들어 보낸 인형을 받고 행복해서 아쩔 줄 몰라 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상상해 보세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문의: 박경희 권사(010-4788-056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선교방법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을 선교에 활용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뜨고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스쿨이 있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가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서는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자비량전문인선교사를 양성한다.

올해부터 전문인선교학교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에는 비즈니스 선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전문인 선교 전체로 분야를 확장했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수료생 10여명은 해외에서 전문인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70-4464-8110

/ 조은실 기자

## 네팔 현지교회 입당예배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건축한 네팔 꼬힐빨지역 ‘아년더교회’와 쉐란지역 ‘시나이교회’가 오는 22-23일 입당예배를 드린다. 아

년더교회에서는 꼬힐빨 지역연합 경배와 찬양 사역도 진행된다. 입당예배는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주관한다.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함께 가자!

오늘부터 4주동안 참가자 모집



일 본 을 향 한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 Love Sonata

이번에는 시모노세키다. 일본에서 스무 번째 울려 퍼지는 러브소나타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참가자를 모집한다. 집회는 오는 5월 15일 시모노세키 시민회관  
 대홀에서 개최된다. 시모노세키는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현에서 1천3백km 떨어져 있어 방사능 공포로부터  
 자유롭다. 냉각된 한일관계를 기도로 녹이는 사도의 전도여행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시모노세키의 아픈 역사  
 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2014년 첫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에 함께 가자!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 모집



## 집회 준비 한창 ... 10년 만에 목회자 모임 결성 일본교회 부흥 더불어 한일간의 관계회복 꿈꿔

오늘부터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를 모집한다. 집회를 두 달여 앞둔 시모노세키 현지는 벌써부터 집회 준비에 한창이다. 시모노세키 현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집회를 준비했다. 러브소나타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번의 실행위원회 개최해 기도와 집회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현재까지 28개 교

회가 연합했다. 80개교회가 협력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전망은 밝다. 교회 연합이 끊어졌던 시모노세키 지역교회들이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10년 만에 목회자 모임을 결성했다.

시모노세키는 일본 혼슈 최서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다. 일본의 교통상업 중심지다. 간몬해협을 끼고 혼슈와 규슈를 잇는 지역인 이곳은 일본과 한국을 잇는 문화다. 과거 조선봉신사와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도 이곳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다.

시모노세키는 역대 가장 많은 총리를 배출한 정치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 현 아베총리까지 총 8명의 총리가 시모노세키 출신이다. 특산품은 복어다. 일본 최대 어획량(약 80%)을 자랑한다.

### 라키마루 목사의 한국과의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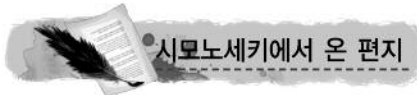
실행위원 라키마루 목사가 한국과 맺은 인연이 특별하다. 라키마루 목사의 아버지(라키마루 히로시)는 평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평양을 여행하던 중 교회로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우연히 찬송가를 듣고 회심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전도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조선인의 도움을 받았다. 전쟁 중에 집이 불에 타 잠시 이주해 산 적이 있는데 그 때 방을 내어준 사람이 조선인 박씨였다. 당시 라키마루 목사가 5살이었다. 또 아버지를 이끌어준 전영복이라는 스승과의 인연도 특별하다. 그는 일본인이지만 평생을 조선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 그 분이 아버지께 지팡이를 건네주었고 그 지팡이를 아들인 라키마루 목사가 전해 받았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런 인연 때문에 라키마루 목사는 한국과 북한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한국에게 시모노세키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곳이다. 그 곳에서 20번째 러브소나타가 열린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화해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시모노세키는 문 빛장이라는 의미다. 영어로 'bottom gate'이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복음이 이 문을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는 오는 5월 15일에 개최된다. 참가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러브소나타 집회 기대가 큼니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이나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시모노세키에는 교회가 24개 밖에 없고, 대부분 성도가 30명 이하인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모노세키는 일본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1550년에 자비에르 선교사가 2개월 동안

전도해서 500명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엄청난 박해로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1873년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기까지 이 땅에서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러브소나타에 가는 기대가 큼니다. 한국과 일본교회가 협력해 이 땅이 복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시모노세키를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 우카이 카즈미 목사(기독교형제단 시모노세키교회)

##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첫모임 : 3월 19일(수)  
20일(목) 13시30분  
장소: 미션홀(서빙고 커피숍 내)  
문의: 교문 유석인 권사  
(010-2824-3408)  
러브소나타 본부 02-3215-3717

선교지에서 온 편지

01

###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남반구 적도에서 가까운 이곳, 파푸아뉴기니는 열대 여름에서 열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살다 보니 변함없는 줄 알았던 이곳에도 사계절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파이루마 부족 마을을 여덟 차례 경비행기로 오가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경비행기로 하늘을 여행할 때 많은 것을 느낍니다. 고도가 높아지고 지상에서 멀어지면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하나님만 만든 아름다운 열대자연의 대장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면 눈 쌓인 발판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찬양하게 됩니다.

부족마을에서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드리

는 예배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영광스런 예배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생소해서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영적 교감은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줍니다.

파이루마 언어로 된 최초의 도서 출판과 TTC(Translator Training Course)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수집하고 수정한 파이루마 그림사전이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55가지 주제와 지도, 숫자, 간단한 일상회화가 들어 있는 113페이지짜리 그림사전입니다. 처음 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파이루마어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파푸아뉴기니에서 조중환, 임미경 드림

02

### 손 모아 기도해주십시오

이곳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기온은 많이 올랐습니다. 밤이면 영하 20도까지 오릅니다.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 모아 기도해주시길 소망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시간 거리에 있는 새로 생긴 마을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기쁨이 늘어났습니다. 이곳은 선교사 추방과 기독교 박해가 심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가 없는 지역에 준비된 리더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교사들이 기쁨을 방문해보면 무당이 된 가족이 교회 가는 것

을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거대한 규모의 불교 사원을 짓기 위해 범국민적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 큰 집회까지 열어왔습니다. 신천지는 저희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는 한 공간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NGO사역으로 감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를 주셔서 잔업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도 가르쳐려고 합니다. 그들이 회망을 가지고 복역 후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를 기도해주세요. 다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 동아시아 A국에서 한샘물 드림

03

###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 전문인선교종보기도모임

2011년 첫 번째 전문인선교학교가 끝나고 지체량으로 선교하는 전문인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종보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3~4명으로 시작한 기도모임이 지금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온누리 전문인선교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되어있다. 앞으로는 전문인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일정: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서빙고 홀출.



04



### Mission Talk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장)

### 온누리교회 선교를 생각한다

“선교가 무엇인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사를 떠올릴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군 선교, 농어촌선교, 직장선교, 미용선교, 스포츠선교, 미디어선교, 문서선교, 영상선교를 떠올릴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광범위한 활동을 선교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만큼 선교는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선교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예로 들고 싶지만 정작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선교 곧 Mission은 라틴어 Missio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다 보면 ‘사도’의 어근이 된 헬라어 ‘아포스탈로스’ 즉, ‘보내심을 받음’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선교적 기도를 드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다.”(요17:18) 다시 말해 선교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보냄 받은 자의 일’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온누리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선교로 대표되는 ‘타문화권 선교’에 집중하여 왔다. 교

회의 마릿들에 새겨진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세계복음화’란 위임명령에 따라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로 여기까지 헌신해 왔다. 그것이 2천 선교사 파송 비전이며, 이를 이끌어 가는 추진력이 Acts29 비전이다. 온누리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한 교회이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영성에 의해 성장해 왔다.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축신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온누리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가 지켜보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 당연히 한국사회가 기대하는 커뮤니티 교회의 본질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선한 영향력도 확대되어야 한다. 세상의 가운데 파송 받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 파송 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나눔을 실천하며, 밝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공화시역과 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왔다. 온누리복지재단이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Lamp On이란 이름으로 긴급재난구호팀으로 국내외 아픔 당한 현장을 찾아가 심했다. 최근에는 온누리NGO로 설립된 ‘더 멋진 세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강도 만난 이웃의 종

은 이웃이 되어 주고 있다. 이런 외중에 올 해부터 사회선교분부를 조직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상 가운데 파송 받은 선교교 교회(Missional Church)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타문화권선교와 사회선교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조부모부터 3대에 걸친 인도선교사였으면서 풀라선교대학원을 설립하여 세계선교신학을 이끌었던 하산에 따라 전도와 사회의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영혼구원에 집중하는 전도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사회정의는 선교의 양 날개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의 목적은 한 개인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뿐 아니라 그의 삶 전 영역이 그리스도께 드러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전인적 구원이라 부른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총체적인 구원사역이 타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천선교분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사회선교가 담당한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지향점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단연코 영

혼구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공화시역을 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궁극적이고 영원한 행동을 위한 총체적 사역을 해야 한다.

선교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질적 선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교면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요리를 하지만 모두가 요리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만 모두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아닌 것과 같다. 선교의 보편성과 선교의 특수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미션 ‘알’을 가진 미션교회(Missional Church)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역이라 부를만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만의 고유 의 사명과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신속한 세계복음화에 더욱 집중하는 교회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답습할 해하기를 소망해 본다.

2014년 3월 16일 991호

•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조중환-임미경 선교사 (파푸아뉴기니)(7면), • 0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샘물 선교사 (동아시아 A국)(7면), • 03- <전문인선교종보기도모임> 소개(7면) • 04- <Mission Talk> 온누리교회 선교를 생각한다 :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장)(7면)



외국어예배를 소개합니다

# 만(萬)국어로 드리는 예배

## 14개 언어로 드리는 21개 예배... 고국 선교사의 꿈

온누리교회에는 14개 언어로 드리는 21개 외국어예배가 있다. 타국에서 모국어로 드리는 온누리교회의 외국어예배를 소개한다.

### 사회악자 돌보는 '영어예배'

영어예배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영어예배가 없었던 때였다. 하종조 목사는 증가하는 외국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을 위한 전도와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서빙고 캠퍼스에서만 약 900명 정도, 도곡 교육관에서는 400명 정도가 영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어예배 구성원의 국적은 다양하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사명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모국어로 돌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

영어예배는 사회의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사역에도 힘쓰고 있다. 고아, 성금란, 노인,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사역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 일본선교의 선봉 '일본어예배'

일본어예배의 모태는 기도모임이었다. 1989년 온누리교회 해외선교의 부장이었던 장재윤 집사(현 동경온누리교회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동부이촌동에 사는 주재원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에 사는 일본인 중 약 80%가 동부이촌동에 살았다.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1990년에 '한글강좌'를 시작했다. 한글강좌를 통해 모이는 주재원 부인들의 수가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어린 자녀들을 위한 '토요학교'가 시작되었다. 그 해 10월 일본어 예배 정식 예배부를 창립했다. 현재 약 200여 명이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글강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토요학교는 연령대별로 Pappus, Petit Pappus로 나뉘었다. 그 외 Global Friends(일본인 유학생 전도 사역), 코히츠지(국제결혼커플을 위한 전도와 양육사역), 일본여성경공부 등으로 지경을 넓혔다. 일본CGNTV나 러브소나타, 일본비전교회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로는 동북지방 아웃리치를 통해 일본선교의 선봉으로 거듭났다.

### 중국목회자 양성지 '중국어예배'

중국어예배는 1986년 15명이 콘서트홀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다. 지금은 10배 이상 부흥했다. 평균 160명이 출석하고 있다. 그 중 70%가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어 예배는 현재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고 다문화 가정 등을 이르기 시작하자 예배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주일학교를 증설했고, 대학부와 청년부, 성인예배로 예배 분야를 세분화했다.

중국어예배의 매년 여름 아웃리치는 단순하지만 특별하다. 중국교회로 가서 인주인들만 일대일양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중국 크리스천들을 양육하고 있다.

중국어예배의 비전은 차세대 중국목회자 양성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10명의 중국 신학생을 훈련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진교회를 개척했다. 올해 시천성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예정이다. 중국 북음화 사역을 위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스시에 선교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학생 두가정이 이미 헌신을 결단했다. 2020년까지 중국 10개 도시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꾸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의 허브 '온누리미션'

온누리미션은 국내에 들어온 이주인들(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을 전도하는 선교기관이다. M은 이주민(Migrant), 어머니(Mother), 긍휼함(Mercy)으로 사랑하고 선교하여(Mission) 선교사(Missionary)로 역과 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부터 외국인 사역을 해온 온누리미션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 월곡동에 2006년 오픈했다. 다양한 언어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17개 예배 공동체가 있다. 5월에는 베트남 예배 추가 개척될 예정이다. 분기별로 연합예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니(Mother), 긍휼함(Mercy)으로 사랑하고 선교하여(Mission) 선교사(Missionary)로 역과 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부터 외국인 사역을 해온 온누리미션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 월곡동에 2006년 오픈했다. 다양한 언어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17개 예배 공동체가 있다. 5월에는 베트남 예배 추가 개척될 예정이다. 분기별로 연합예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를 뛰어 넘어 우정과 친목도 도모하도록 돕고 있다.

온누리M센터 구성원들은 상당수가 이슬람, 힌두, 불교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비전을 되새겨 주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 고국에 몇 년 동안 가보지 못한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전도도 한다. / 정현주 기자

### 국가별 예배 안내

외국어 예배	시간	장소	문의
영어 예배	16:00 11:30	서빙고 본당 도곡교육관 속명여고 교육관	영어예배 02-3215-3684
일본어 예배	14:20	서빙고 현동홀	일본어예배 02-3215-3702
중국어 예배	13:50	비전외방 전사관(EM전사관)	중국어예배 02-3215-3707
몽골어 예배	14:30	선교관 401호	외국어예배
	10:30	안산 M센터1, 3층	
	11:30	평택 온누리교회	
	14:30	인천 온누리교회	
러시아어 예배	14:30	선교관 302호	서빙고 02-3215-3514
	10:00	안산 M센터1, 2층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안산 031-491-9650
10:00	안산 M센터1, 4층		
아랍어 예배	14:00	서빙고 본관 B102	인천(몽골) 032-437-9686
캄보디아 예배	11:00	안산 M센터1, 1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 M센터1, 4층	평택(몽골) 031-651-9680
필리핀 예배	10:00	안산 M센터1, 3층	
태국 예배	15:30	안산 M센터1, 4층	안산 M센터1,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 M센터1, 4층	
필리핀(타지) 예배	15:00	안산 M센터1, 2층	안산 M센터1, 3층
다문화몽골 예배	11:00	안산 M센터1, 3층	



목회칼럼  
럼운홍 목사(중국어예배)

"주님 안에서 평안을 축원합니다"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를 읽으면 사도행전적 교회의 여덟 번째 특징으로 '이방인을 품는 교회'가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해외선교에도 집중하고, 이방인을 품는 사역에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는 많은 시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으로 위상의 상승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근로자, 국제결혼,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고넬료 가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육을 통해 그들을 선교사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선교사로서 '빛과 소금',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외국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나 외국인 목사들은 한국에서 신화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몸소 체험하고, 전인적 훈련을 받은 목회자로 성장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국의 복음화에 힘쓰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누리교회 중국어예배를 통해 회심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2000년 연변과기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 유학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에 흠뻑하게 되었습니다. 아국땅에서 매주일 중국어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매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어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배운다는 것은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외국어예배는 하나님이 그린 거대한 선교 그림입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랑과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하나님이 그린 선교 그림 '외국어예배'



인종차별 극복\_ 대화가 필요해

# 다문화사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도 상당하다.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인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다문화사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인종차별'이라는 소재를 시대착오적으로 느끼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시대유감이다. 흑과 백으로 나누던 차별의 잣대가 이제는 아프리카 흑인, 아랍인, 동남아계 아시아인으로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다. 다름에 대한 불편은 여전하다. 한국에서 사는 그들이 지치고 외로워 보인다. 지난해 워싱턴포스트지가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나의 이웃으로 다른 인종이 온다면?' 이라

는 질문에 우리국민 3분의 1가량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미 우리 이웃 100명 중 3명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문화가정.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동남아 출신이 대부분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를 많다. "너희 나라로 가", "넌 어디서 왔니"라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근로자다. 대부분 동남아에서 온 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보다 더 건

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다.

지난해 이맘 때 방송된 KBS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닮은 외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들까지도 반말을 하고, 돌을 던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을 주는 것이 한국사회의 찌그러진 자화상이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겠다.

/ 박익새 기자 leaf@onnuri.org



## 이제는 전문인 선교 시대

###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22일 개강

선교사들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제 공산권, 이슬람권과 같은 최전방 선교지역에 선교 목적만으로 체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교사들도 안식년 기간 동안 전문인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교방법이 있다. 전문인 선교다. 전문성을 가

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해외지비랑선교사와 MK(선교사자녀)사역자, 본부 사역을 돕는 국내선교사들을 배출했다. 올해부터 온누리전문인

인 선교학교가 더욱 탄탄해졌다. 조원상 선교사(IBA), 홍성건 목사(전 선교학교는 YWAM 동아시아), 매투 톨러 목사(하와이열방대학) 등이 강의한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는 오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두란노서원에서 진행된다.

문의 070-4464-811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중국 제남(濟南)에서 만난 하나님  
이영복 장로

1988년 5월 중국 제남에 있는 산동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다.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 대학생에게 다가가 서툰 중국어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의사인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요, 자신은 무신론자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자리를 뜨려는데 1988년 5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내게 보여주셨던 애뜻한 심정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다. 예사롭지 않은 꿈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다.

어느 날 나는 회사를 대상으로 무역협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고장 난 마이크와 수강생들의 항의로 짹짹대는 꿈을 꾸었다. 허황된 꿈을 꾸 것이라 생각하고 출근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무역협회 연수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날짜를 앞당겨 강의를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강연의 꿈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퇴근 후 무역협회 강의실로 갔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연수담당자가 마이크를 만지며 “이상하다. 조금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하며 여쭙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닌가. 머리끝이 쭈뼛했다. 꿈에서처럼 마이크가 고장 난 것이었

다. 목소리가 큰 편이어서 마이크 없이도 강의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꿈에서 본 수강생들의 항의 장면이었다. 세 시간의 강의 도중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강단에 섰을 때 교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쪽지를 펼쳐 보았다. 수강생들에게 강의가 끝난 후 있을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상문제를 미리 알려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항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평가 예상문제를 아는 것보다 알차게 강의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예상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에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통해 내가 받을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수강생들의 양해를 얻어 예상문제를 알려주지 않고 강의에 열정을 다하기로 했다. 그 쪽지는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소명의 쪽지였다.

중국어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들

## 잃은 양의 노래 ‘심지가(心之歌)’

려주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청년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잃은 양이라고 했다. 여러 번 복음을 전했다. 그처럼 분명한 변화를 목격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다. 불편을 꺼내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불과 2분여 만에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라며 완성한 ‘심지가(心之歌)’라는 제목의 시였다.

주님 내 맘에 오셔서/ 화평과 안락을 주셨네/ 내 맘 문 활짝 열고서/ 새 생명을 영접했네/ 저 푸른 산봉우리는/ 간증의 시작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음성 감동으로 솟아오르네/ 나의 삶, 생명 이제로 영원하리

훗날 내가 곡을 붙인 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영혼 속에 요새처럼 구축된 무신론 사상을 깨뜨리고 새 생명을 부여하신 간증이였다. 18년 전 중국 제남에서 만난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은누리교회 장로들의 릴레이 신앙간증 공간입니다.  
(onnuriweekly@gmail.com)



#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 'FT'



## 파워웨이브 청소년, 3개월 선교훈련 후 3주간 선교체험

차세대도 선교한다.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에 새 획을 그었다. 성인과 대학청년부에 이어 차세대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지난달 차세대 선교사 FT(Frontier teens)들이 인도를 다녀왔

다. 국내에서 3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마치고 현지로 파송됐다. 인도에서 3주 동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차세대 선교사 FT들은 '영적성장' 과 더불어 '실생활에서의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차세대 선교사 FT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은 물론 부모자녀관계, 학교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부모들이 차세대 선교사 FT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8면에 계속)



01

중동 기독교 채널 SAT7 설립자 '테리 에스콧' 대담

# “미디어 선교 아니면 불가능하다”



테리 에스콧(채널 SAT7 설립자)

## 효과 늦어도 낙심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라

### 왜 미디어 선교가 중요합니까?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람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이들 지역은 문맹률이 높아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텔레비전만이 정보를 접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시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까지, 적도 기준 북위 10도~40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2/3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들이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인구가 매일 백만 명씩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 방송을 통한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매스미디어가 아니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 프 만 지역은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지만, 이 집트의 경우는 인터넷 보급률이 20~30% 이하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검열 받지 않는 대체는 위성방송뿐입니다. 위성방송을 선교에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 방송선교를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동지역 시청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

회 방송을 시청하다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방송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부다비 CGNTV제작센터에서 실시한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가 171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 공산권,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선교가 매우 어렵다. 선교하다 발각돼 위험에 처하는 선교사도 많다. 그렇다면 선교를 적대적으로 보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미디어 선교가 답이다. 중동 기독교 채널 SAT7 설립자 '테리 에스콧'에게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 대해 들어왔다.

### 왜 위성방송입니까?

“지금 이 인터넷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인터넷 보급상황은 격차가 매우 큽니다.

02

## CGNTV 인터넷 시청자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접속, 서비스 이용

일평균 접속수 : 약 18~21만명

일평균 접속국가 : 150~200여 개국

구분	홈페이지	유튜브	팟캐스트	일정	
				애플	안드로이드
일일 평균 접속자수	29,267명	23,321명	83,046명	41,277명	34,099명
접속 국가수	178개국	200여 개국		150여 개국	



칼림  
합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 'CGNTV'

중세 인쇄술 발달로 대량 제작되던 책이 당시의 뉴미디어였다면 현재는 방송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전달매체다. CGNTV는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은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실현하는 양적 성장의 반석이 되고 있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이라는 'TGIF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들에게 위성, 케이블과 IPTV와 함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 오픈 플랫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힘쓰고 있다.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CGNTV의 복음 전파에는 한계가 없다는 기록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희생을 따른다 해도 케이블TV나 공중파가 가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열반에게 CGNTV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걸머져야 할 과제입니다.”

2008년 3월 23일 서빙고 본관에서 5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CGNTV 개국예배에서 합태경 목사는 이렇게 강조했다. 뿌리는 다르지만 가지가 붙어 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를 '연리지'라 부른다. 130여 명의 CGNTV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1

년 365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언어와 언어를 이어주는 연리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3월 현재 CGNTV 인터넷서비스 1일 평균접속국가 200여 개국, 1일 평균접속자수 21만명, 해외가시청가구 수는 247만, 국내가시청가구 수는 104만, CGNTV는 골디앗과 같은 대형방송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시청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세계 188개국에 1억1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아리랑TV의 손지에 전 시장은 유제진 CGNTV대표에게 “유럽에 가보니 아리랑TV보다 CGNTV를 더 즐겨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콘텐츠 면에서 CGNTV를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CGNTV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시청소감을 보내온다. 프랑스 남부 툴루즈의 한 교민은 독일 함부르크에 출장 중인 남편과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와 시간을 맞춰 CGNTV로 서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며 “CGNTV는 우리 가정의 영적 배경음악과 같다”고 전했다. 수입의 십일조를 CGNTV에 후원한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시청자는 “말씀이 복음과 있다”고 CGNTV를 보고 해결의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여러 차례 사살을 시도했던 한 일본 시청자는 “우연한 기회에 미션스쿨에 다닐 때 들었던 찬양이 흘러나오는 CGNTV를 보고 새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연이 CGNTV 직원들의 고단한 일상에 청량제가 되고 있다. “CGNTV는 단순한 TV채널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요 친구입니다.” CGNTV 1기 모니터요원인 유상환 씨는 매일 CGNTV를 통해 큐타한 내용을 블로그에서 공유하고 13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일본 여성들과 모임을 가질 때 CGNTV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니터요원도 있다.

오늘날 교회가 없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예수 결핍 장애(ADD, Jesus Deficit Disorder)’다. 기독교는 어떤도 할라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므로 그리스도를 깊이 안아보고 그의 무한한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CGNTV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분리할 수 없다. CGNTV는 예수를 가리키는 나침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오는 29일로 개국 9주년을 맞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시령과 은누리의 ACTS29 비전을 실현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해본다.

2014년 3월 23일 992호

- 01 - CGNTV 대담 : 테리 에스콧 (중동 기독교 채널 SAT7 설립자)(2면)
- 02 - 칼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 'CGNTV' : 합태경(CGNTV 경영기획본부)(2면)



# 차세대 선교사 FT, 인도를 가다

차세대 FT, 프론티어 티즈(Frontier Teens)의 약자다. 차세대 지역본부와 이전선교본부가 손잡고 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성인 장단기선교사 파송과 대학청년부 선교사 FA 파송에 이어 이번에는 차세대 선교사 훈련이다.

온누리교회가 차세대 선교사를 양육하는 FT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FT 1기를 파송한데 이어 올해 2월 2기를 파송했다. 파워웨이브 소속 차세대 선교사 FT들은 3개월 동안 국내 훈련을 마치고 3주 동안 인도로 파송됐다. 티문화권을 이해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리더로서의 역할을 키웠다.

“선교현장에는 추수할 열매들이 많

는데 일꾼이 부족하더라고요 나중에 꼭 선교사가 될 거예요”(한상훈)

파워웨이브 소속 차세대 FT선교사 한상훈이 선교현장을 다녀온 뒤 밝힌 포부다. 한 튀어오던 이수진의 소감도 맛지다.  
“세상은 저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요소들이 가득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거예요.”

차세대 FT선교사 훈련과정은 영적성장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에서의 변화도 있었다. 차세대는 물론 부모와 학교에서도 차세대 FT선교사를 환영하는 이유다. 차세대 FT선교사 3기는 4월에 모집한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 간증 · 차세대 선교사 FT 2기

### “그곳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거예요”



/ 김희원

차세대 선교사 FT 1기 언니 오빠들이 찍은 동영상 보고 저도 지원하게 됐어요. 동영상 속 언니, 오빠들이 무척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실 저는 FT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선교에 대해서는 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현장에 가보니 끝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

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 아이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전도사님께 불평을 했는데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곳의 아이들의 모습과 제가 다름 바 없다는 것을 깨닫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일주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땅이 그리워요. 이 그리움을 잊지 않고 그곳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 “선교사님,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들었대요”



/ 이종태 전도사

시바신의 눈물이 떨어졌다고 믿는 힌두교의 상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힌두교 사제가 나와 대적기도를 할 정도로 영적전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인도여행을 온 한 호주인이 예수님을 만나 살다가 우연히 저희를 만난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FT 1기와 마찬가지로 2기도 한 시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FT 1기가 이 시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한 인도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선교사님과 함께 일년 동안 성경공부를 했어요. 그의 소원은 할머니가 복음을 듣는 것이었어요. 시장에서 전도를 한 그날 저녁 선교사님께 전화 한통이 왔어요. 그 인도 소녀였어요. “선교사님,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3백만 명이 사는 그 지역에서 소녀의 할머니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목회칼럼  
노회대 목사(차세대본부장)

## 행복한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녀와 친구들과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말명칭에서는 '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하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입니다. 좋은 정체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누군가의 밑거름이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이 합쳐져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행복한 성경 이야기, 성경을 믿는 중요한 다짐들이 경험한 믿음 이야기들이 합쳐져 형성됩니다. 그 경험들이 성숙한 믿음의 발판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하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 선교 이야기의 보고

지난 겨울 중학생들과 함께 스리랑카 북부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다리에 퍼져있던 암이 떨어져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독교로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예배 환경에 대해 감사가 없었던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등 각자의 이야기는 현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눈물의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 두 명은 당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싶다고 고백하며 현지 믿음의 시구들의 침례소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귀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인도양의 파도 속에서 침례를 받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선교의 이야기는 시도했던 2명의 초대교회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모여 기도하기를 합했던 초대교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던 초대교회. 선교만큼 강력한 믿음의 이야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 선교사님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선교지의 감격은 어디 갔을까 싶은 정도로 빠르게 대한민국의 중학생으로 변신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일체히 목숨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긴 시간 손을 놓고 있었던 공부 때문에 새학기 자신의 성적이 뒤쳐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난 7일 혹은 21일간 만났었고 그 이야기를 기억 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시명, 이야기의 전수

서빙고와 양재를 중심으로 자라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선교 프로그램인 FT(Frontier Teens)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부서별로 진행되는 '선교하는 바울학교'란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자 합니다. 우리는 21일간 진행되는 FT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음악과 미술에 특기가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을 받아 서부아프리카 마을에 머물며 현지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원합니다. 또한 유럽 지역 전도여행을 통해 유럽의 복음화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 대학청년부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인 FA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기업하십시오 이 땅의 다음세대들은 행복한 신앙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는 행복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선교를 배운다 '선교스쿨'

## 와이미션 · 북한선교학교 · 과학기술 · IT선교학교

선교는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 선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교 없을까?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선교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다양한 스쿨이 있다. 선교가 무엇인지부터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기까지 돕는 과정들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신도를 위한 선교스쿨을 소개한다.

### 평신도 선교 훈련 '와이미션'

조문숙 권사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선교를 떠올리던 막연했다. 고향 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 람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도 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이 선교에 대한 마음은 아니었다.

4년 전 남편과 사별 후, 남은 삶을 어떻게 살 아야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다. 그 때 와이미 션 모집공고를 보게 됐다. 그녀는 신학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선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 고 있지도 않았다. 대학생 자녀가 있어 부모로 서 책임도 막중했다. 그러나 와이미션 홍보문 구에 '평신도를 위한'이라는 말이 용기를 내 게 했다.

그녀는 와이미션 스쿨을 통해 선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그리스도 인들은 선교사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 롭게 알게 됐다.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 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되새겼다.

와이미션을 마치고 그녀의 삶이 변했다. 만 나서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40~50대 엄마들에게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교

육법도 전수한다.

와이미션(WHY MISSION?)은 평신도를 위 한 선교스쿨이다. 와이미션이라는 이름같이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 어 준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 세계 선교역사, 온 누리교회 선교현황 및 비전 등 선교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선교의 실제까지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다. 2002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현 Acts29세 전벨라지)에서 시작된 와이미션 스쿨은 지금 국 내 캠퍼스, 해외비전교회, CGNTV, 두란노, 등지 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입학자 필수과 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 북한선교 실제 배우는 '북한선교학교'

김민경 성도는 청년 때부터 북한선교부에 몸 담고 있었지만 삶에서 북한선교를 하기엔 멀 게 느껴졌다. 그러던 그녀가 중국 단둥 아웃리 치 이후 북한을 섬겨야겠다는 결단이 섰다. 그 녀는 북한선교를 배우기 위해 2기 북한선교학 교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북한선 교 하는 방법을 배웠다. 북한선교학교 수료 후 그녀는 북한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북한선교 학교 포스터 제작, 기도편지 발송 등의 사역을 돕고 있다. 직장 동료들도 북한선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몇 개만 느껴졌던 북한선교가 이제는 그녀의 삶 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모두 북한 선교학교 덕분이다.

북한선교학교에서는 북한 실상을 소개하고, 다양한 북한선교 방법을 제시한다. 북한전문 가들에게 북한사회와 의식구조, 경제, 탈북자 증언, 교회의 역할 등을 배운다.

2010년에 시작된 북한선교학교는 올해 3월



까지 총 10차례 개최되었다.

### 첨단기술 활용 '과학기술, IT선교학교'

기술을 통해 선교하는 방법을 배우는 스쿨도 있다. 과학기술선교학교(How Mission)와 IT선 교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과학기술선교학교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선

교스쿨이다. 제3세계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 을 활용해 선교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선교 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적정기술 콘텐츠를 통해 선교사와 주민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다.

IT선교학교는 IT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스 쿨이다. 온누리 성도가 아닌 IT직종에 종사하 는 교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상반기 선교스쿨 일정>

과목	일정	문의
와이미션	46기 4/4~5/23 매주 금 10:00, 서빙고 시온홀	허은아 간사 3215-3644
	47기 4/5~5/24 매주 토 17:30, 서빙고 힌동홀	허은아 간사 3215-3644
	강동 47기 4/12~5/31 매주 토 17:00, 강동 사랑홀	김신원 팀장 010-5232-1850
	인천 37기 5/10~6/21 매주 토 15:00, 인천 온누리	정완영 팀장 010-5306-8030
	양지 1기 5/11~6/22 매주일 14:30, 양지 온누리	이상형 팀장 010-5217-3060
	수원 97기 5/18~6/29 매주일 16:00, 수원 온누리	조영현 팀장 010-2790-1204
평택 27기 6/1~7/13 매주일 16:00, 평택 온누리	유순곤 팀장 010-3311-2233	
북한선교학교	하반기 10월초예정	이창은 총무 010-2335-6055
과학기술선교학교	5/20~6/17 매주 화 19:00, 서빙고 시온홀	이주만 총무 010-7292-2349
IT선교학교	3/24~4/28 매주 월 19:00, 서빙고 신관 201호	권기현 총무 796-3217



Mission Talk  
손창남 (OMF 선교사)

## 풀뿌리 선교를 생각하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과 베냐민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벌어진 선교를 생각할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 울과 베냐민을 파송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 들이 더 중요하다.

사도행전 11장 후반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 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흠어진 사람들의 사역의 결과로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 도를 믿게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이 예루살렘 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냐민을 안디 옥으로 파송하게 된다. 베냐민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동안 다스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 서 할례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베냐민과 사 도 바울도 이 흠어진 사람들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흠어진 사람들의 흔적은 사도행전 도처에 나타난다. 88장에 그 흠어진 사람들이 사마리

아에 가고 에티오피아 내사에게 전도하는 이 야기가 나온다. 18장에 나오는 아글라와 브리 스길과 부부도 이렇게 흠어져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 로마 제국 의 구석구석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겨나 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다닌 것보다 더 많은 곳을 다녔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선교의 모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나 베냐민과 같은 사도적 인 선교 모델이고 또 하나는 흠어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진행된 풀뿌리 선교 모델이다.

지난 200년의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 님께서는 사도적인 선교 모델을 사용하셨다. 당시는 여행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전혀 알려 지지 않은 민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 많지 않았던 시대였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선 교사들이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 라들은 점점 줄어들고는 반면 교통과 통신의 발

달 이변의 증가 등으로 선교지는 가까워졌다.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800만명을 육박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근로 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의 숫자는 200만 명을 육박한다. 우리 가까이에서 외국인과 마주치 는 것은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니다. 이제 선교사 만이 선교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선교 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선교는 특수한 명령이 아니다

선교는 더 이상 지리적인 거리로 말하지 않 는다. 선교에 있어서 문화적인 거리가 더 중요 하다. 우리 이웃에 있는 타문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 동이 없이 선교는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풀뿌리 선교를 이해하고 2000 년 전 흠어진 사람들처럼 쓰린 발을 준비가 되 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풀

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전염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 편견을 뛰어넘어 자식들 가까이에 있 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였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평 령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요 리는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수만 노래 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 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지 해외로 가는 몇 명 의 선교사에게 부여된 특수한 명령이 아니다. 중국까지 선교회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는 이 렇게 말했다.

“배를 타고 해외에 간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 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본국에서 선교사처럼 살 지 않는다면 해외에 나간다고 해도 아무런 차 이는 없을 것이다.”



01

#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 5월 시모노세키집회서 사용



봉사자들의 화관 제작 모습. 화관은 러브소나타에 사용된다.

샤론데코팀에서 화관제작 봉사자 은 5월 15일(목) 시모노세키 시민회  
를 모집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화관 관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 시모노

세키' 집회에서 사용된다.  
류석인 권사는 "일본을 보혈의 십자가로 품는 마음으로 화관을 제작할 손재주 있는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샤론데코팀은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하는 화관을 매회 손수 제작했다.  
일시: 3월 25일(화)-27일(목)  
장소: 미션홀(서빙고 커피숍내)  
문의: 류석인 권사  
(샤론데코팀고문) 010-2824-3408  
러브소나타 본부 02-3215-3717  
문의 070-4464-811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일만사역자 파송〉

한충희, 김경희-미국(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 기도제목

- 유엔 각국 대표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 유엔에서 한국 국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 두 자녀(제호지윤)의 비전이 더욱 커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03

## Love Sonata 시모노세키 기·도·제·목

- 3월 24일(월)  
집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 3월 25일(화)  
일본실행위원회와 온누리교회가 하나 되도록
- 3월 26일(수)  
60개 이상 협력교회가 초교파적 연합을 이루도록
- 3월 27일(목)  
러브소나타를 통해 한일관계가 변화되도록
- 3월 28일(금)  
러브소나타 집회장이 참가자들로 가득 차도록
- 3월 29일(토)  
봉사자들이 즐거움으로 섬기도록
- 3월 30일(일)  
장소, 교통, 숙박, 날씨, 재정 등 준비과정에 은혜가 임하도록

04

## CGNTV 봄 개편 프로그램

###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청춘선교단 은빛날개'는 '시니어 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교회 내에서도 시니어 세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안으로 시니어 선교가 떠올랐다.

시니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세대로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다. '청춘선교단 은빛날개'는 그들의 장점을 살려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독려한다는 비전으로 출발했다.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프로그램은 다소 생소한 시니어선교의 개념과 시니어들이 실제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리얼하게 그렸다. 부부 한 팀을 포함해 총 6팀 7명의 선교사가 시니어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4월 2일 첫 선.



# CGNTV 개국 9주년

선교전문방송으로 자리매김  
170개국에 복음 방송 중

CGNTV 개국 9주년이다. 오늘 서빙고와 양재 은누리교회에서 CGNTV 개국 9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그동안 CGNTV가 전 세계에 보여준 영향력은 엄청나다. 광고수익 하나 없이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며 이뤄낸 성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CGNTV를 '선교전문방송', '미디어선교 선도자'라고 부른다.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CGNTV의 활약은 대단하다. 위성, 인터넷, 모바일, IPTV 등의 미디어를 활용해 아프리카, 아바존, 중동, 동남아 등 전 세계 170개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이나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는 선교가 있는 곳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했다. CGNTV가 또 어떤 역사를 쓸지 앞날이 기대된다. <9면으로 이어짐>

### 확대당회

일시: 2014년 4월 5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은누리교회 두란노홀  
대상: 교역자, 장로



#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 CGNTV 개국 9주년 감사 및 선교헌신예배

CGNTV가 개국 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29일(금) 서현고 은누리교회 경전홀에는 CGNTV 개국 9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재훈 목사,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를 비롯해 당회운영위원회와 CGNTV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CGNTV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선교헌신제를 봉헌했다. CGNTV 직원의 심입조를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기술국 송출팀 송인승(대만, 외국어제작국 미주제작팀 신정길(인도네시아), 제작국 영상제작팀 김재경(일본)이 방

송선교사로 헌신했다.

CGNTV 개국 9주년 감사예배는 양유식 장로의 지도를 시작으로 9주년 개국 축하영상 상영, 1기, 2기 선교헌신자 간증, 이재훈 목사의 말씀, 유재건 대표이사의 감사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에서 이재훈 목사는 “CGNTV의 기록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했고,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감사인사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위성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현고 경전홀에서 CGNTV 개국 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선교헌신예배로 드러났다.

### “작은 헌신,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 송인승  
(기술국 송출팀)

하나님께서 저를 CGNTV로 부르셔서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하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CGNTV를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을 볼 때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선교 심입조”를 드려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감히 선교사로 나갈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만 제작센터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땅에도 CGNTV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 “너의 삶을 드러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 신정길  
(외국어제작국 미주제작팀)

모태신앙이지만 어느 순간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아버지의 권유로 아동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한 봉사였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고민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삶을 드러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열광을 섬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제가 가진 달린트로 많은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 “어느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 김재경  
(제작국 영상제작팀)

어느 선교사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큰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지 사람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폐암으로 투병하다 죽는 순간까지도 선교지 사람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질문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저의 속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긴 씨름을 끝내고 비로소 저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질문의 해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고난을 통해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선교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선교 헌신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CGNTV의 인도네시아 진출” 미디어 선교 선도가 CGNTV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앞서 현재 보다 집중해야 할 지역을 이슬람권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슬람권만이 땅 끝이라는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

CGNTV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것은

## 동남아 무슬림 향한 러브레터, CGNTV의 인도네시아 진출!

오랜 기도제목의 성취이자 전략적 선택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5%는 무슬림, 개신교인은 10% 남짓 개신교인 200만명, 교회 18만개로 우리나라 크리스천, 교회 수의 3배 가까이 된다.

선교전문가들은 수많은 인도네시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복음주의 신학과 건강한 복회 기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 도움이 손길이 절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전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CGNTV와 같은 위성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CGNTV는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진리를 보다 진지하게 전하고자 한다. 저자 설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아래’에 놀라고 있다. 사도바울이 본 바에 따라 환상처럼 한국인은 물론 현지인들이 CGNTV의 진출을 바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우마가 돼 주고 있다. 현지 기업가와 목회자, 선교사, 교민들과 인도네시아인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이 ‘도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국기독교네트워크 대표인 다니엘 벤지 박사는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한국과의 동역은 필수적”이라며

“그 중심이 CGNTV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13년째 미지럼교회를 섬기고 있는 벤지민 박사는 “신학교가 너무 많이 있어 학업을 끝마치지 못했다.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부족함에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 CGNTV가 생기면 가장 먼저(신학강좌 프로그램)의 학생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가 중동지역 복음화의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외로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현지 지역지들과 교민들에게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무슬림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하루 러브레터를 전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인도네시아 최대 디지털위성방송인 인도비전과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매일 최소 2시간 CGNTV 콘텐츠를 방송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8일에는 인도네시아 CGNTV 개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할 것이다.

CGNTV는 동남아 무슬림, 대니아가 온 영방의 이슬람권 무슬림을 품고 있는 교민들과 더불어 동역의 끈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 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



# 기회의 땅 네팔에 그물을 던져라!

## 두란노해외선교회, 아너더 교회·시나이 교회 헌당예배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동서로 긴 국토가 이어져 있다. 북쪽은 티베트와 국경을 접하고, 동남서쪽은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 전체인구 3천만인 나라에 3억 3천만의 신이 존재한다. 히말라야 만년설과 불교와 힌두교 성지가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나라다. 산악인들에게는 꿈의 나라이다.

실제 네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네팔은 가난한 나라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 우리나라 모습과 비슷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교가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2008년 공화정 국가가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복음에 목마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나라가 되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가 네팔 현지에 세운 '아너더 교회'와 '시나이 교회'를 다녀왔다.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성도들을 수용할 예배당이 필요했는데 재정부족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은누리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태 교회 건축을 도왔다. 그렇게 완공된 교회 헌당예배를 드렸다. 뜻 깊고도 뜻 깊은 예배였다.

네팔 현지를 다니면서 빠르게 복음화 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네팔을 가슴에 품고 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삶도 들여다봤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21일 오전 9시 55분, 네팔 카트만두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도유한 목사(2인선교본부장), 김성진 장로(월요치유집회), 김숙경 권사와 함께했다. 7시간의 비행 끝에 네팔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해있던 홍범식 장로(두란노해외선교회)와 조경근, 김영미, 김일환 선교사가 일행을 반겼다. 공항 구내선 공항으로 이동해, 경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에서 네팔간지까지 500km를 더 날았다.

비행기 오른쪽에 앉으면 히말라야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신속하게 줄을 섰다. 아쉽게도 히말라야는 구름에 가려져 볼 수 없었지만 구름 아래 신을 볼 수 있었다. 산 구석구석에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

“이런 곳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네팔 복음화가 간절해졌다.

네팔간지에 도착했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도시가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길거리 한가운데 모래를 파서 도로를 뚫고 있었고, 하수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건기의 막바지라 모래 바람이 엄청났다.

양상하게 마른 소 무거운 짐을 이마로 메고 가는 아이들, 무기력하게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들, 농사짓고 있는 아내네가 보였다. 네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4명의(김예라, 윤태희, 이정은, 이주연) 대학청년부 FA단기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장기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 네팔과 청년, 왠지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사실 이곳에서 FA선교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FA선교사 중에 2명은 FA 5기에 이어 6기까지 기간을 연장 한 상태였다. 무엇이 그들을 이곳에 붙잡았을까.

“인생의 심연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늘에 소망을 둔 그들의 고백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들은 은누리교회의 자람이었다.

### 교협별 최초 교회 '아너더 교회'

22일 토요일 아침, 네팔은 토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경근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올네이션스 비전센터(ANVC)로 이동했다.

오전 10시부터 예배를 드렸다. 건물 4층에 자리잡은 비전센터에 찬양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배를 마치고 몇몇 성도들이 전에 이곳에서 치유집회를 인도했던 김성진 장로를 알아보고 찾아왔다. 이런 곳을 내보이는 성도들을 위해 일행들이 기도해주었다. 기도를 받은 성도들은 밝은 표정으로 교회를 나섰다.

점심을 먹기 위해 조경근 선교사 집을 찾았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FA김예라 선교사가 보고 영상과 청년단기선교사 FA를 소개했다. FA선교사들은 네팔 청년들의 삶속에서 함께 숨 쉬고 있었다. 선교사로서의 야심을 기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FA선교사 숙소를 방문했다. 기도하는 방 '시온홀', 후원물품을 건어놓은 벽면, 직접 만든 세계지도 등 젊은 선교사들의 손재주가



교협별 지역의 아너더 교회 헌당예배 드리러간 성도들이 국기와 십자가 깃발을 들고 교회를 돌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셀란 지역의 시나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흔잡고 셀란지역을 구원하는 생명의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집안에 녹아있었다.

FA선교사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맞은편에 여호와의 증인 청년선교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단(異端)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먼 곳까지 온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다. 네팔에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오후 2시, 아난디 교회 헌당예배를 위해 이동했다.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모인 것 같았다.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사람들이 가득했다. 찬양이 시작되자 성령이 춤추듯 모든 성도가 손을 들고 춤추며 찬양했다. 작년만 해도 이 교회는 콘크리트 기둥과 천장만 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태 교회가 완성됐다. 일행 중 김승경 권사는 교회 건축 헌금을 보낸 일원이었다. 김 권사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만으로 그저 감사하다고 했다.

사실 일행 중 김 권사의 활약이 대단했다. 만나는 네팔 사람마다 직접 제작한 네팔어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현지 운전수와 김영미 선교사의 집주인에게는 영접기도 인도와 급 근처 교회도 추천했다. 이동 중 버스 안에서 FA선교사들에게 전도복발 훈련을 직접 선보이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전도복발 교재와 네팔어 전도지를 전달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네팔에 전도복발 사역은 큰 힘이 되어보였다.

헌당예배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테이프 커팅을 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아난디 교회는 24년 전 외딴땅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이번에 새로 건축한 교회와 과거의 교회가 나란히 자리 잡았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지역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쏟아냈다. 도약한 복사는 지역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마을잔치가 벌어졌다.

### 오지에 세워진 '시나이 교회'를 찾아서

마지막 일정은 시나이 교회 헌당예배였다. 새벽 6시 숙소를 나섰다. 시나이교회가 있는 험란지역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6시간 동안이나 가야했다. 말미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도 있었다. 몸은 고됐지만 일행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피곤을 잊었다.

정오에 헌당예배가 시작됐다. 지역교회 목사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졌다.

해맑은 아이들이 있었다. 기차를 타는 한 아이에게 사탕을 건넸더니 다른 아이들도 데려와 더 달라고 애교를 부렸다. 사랑하나 더 건넸더니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밝고 큰 눈동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또 다시 6시간을 이동해 숙소에도착했다. 이미 밤이었다.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네팔 하늘을 바라봤다. 그 무수한 별들이 이 땅에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 같이 보였다. 복음만 전하면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네팔. 네팔은 분명 기회의 땅이자 소망의 땅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눅 5:46절). 아멘.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경기도 양지의 Acts&2세션리더에 있으며, 온누리교회 소속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다. 장단기 선교사 훈련 및 파송을 총괄한다.

### To.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경근·브린다선교사 가정, 김영미 선교사, 윤태화·이주연·이정은·김예리 FA선교사(왼쪽위 시계방향)

### “젊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국에 있을 때 선교는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 오면니 선교는 그냥 '살' 그 자체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가장 좋은 건 일매인 없이 자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문제에 국한해 하나님을 제한해버릴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채 맡깁니다. 우리 세상이란 틀 안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가장 높은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아래 단계가 쉬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듯이, 이 세상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안경을 내딛으시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갖게 만날 수 있는 선교지로 뛰어드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From, FA선교사 김예리(27), 윤태화(23), 이정은(26), 이주연(23)  
(FA : 청년단기선교프로그램)

2014년 3월 30일 993호

- 01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네팔 아난디교회 · 시나이교회 헌당예배 1-2(5면)
- 02 - To.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FA선교사들이 보낸 편지(5면)

 Love Sonata 시모노세키 기·도·제·목  
2014 REVIVAL JAPAN

- 3월 31일(월)  
하늘의 도우심과 충만한 은혜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도록
- 4월 1일(화)  
일본 실행위원회 모임과 사역에 기쁨 부으심이 넘치도록
- 4월 2일(수)  
일본에 수많은 협력교회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하나되도록
- 4월 3일(목)  
재정, 조직운영 등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채워지도록
- 4월 4일(금)  
일본인 참가자가 1,500명을 넘어 행사장을 가득 채우도록
- 4월 5일(토)  
한국인 봉사자 160명이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하도록
- 4월 6일(일)  
감사, 출연진, 스태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일본 동북지역 아웃리치 후기

# 눈길 뚫고 동경에서 이와테까지



/ 배수영 성도  
(일본어예배)

6명의 팀원들과 일본 동북지역 아웃리치를 갔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 국적이 다른 구성원들이 모였다. 일본을 향한 마음은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팀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주셨다. 현지사정에 무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동경에서 이와테까지 차로 600킬로미터를 가야 했다. 장거리 운전만 걱정했던 우리팀에게 또 다른 악재가 생겼다. 바로 눈이었다. 목적지를 이와테에서 센다이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예약한 숙소에서 하루를 마감했다.

이튿날, 연휴라 렌터카도 없고, 체인도, 스키타이어도 없었다. 해안을 따라 천천히 운행하면 관찰을 거리는 숙소 주인의 조언을 듣고 재해지역을 둘러보았다. 45호선 해안국도를 따라 올라가자 ‘여기까지가 침수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나왔다. 차안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했다.

첫 방문지는 ‘계센누마교회’. 교회 건물이 쓸려 내려가 모든 것을 잃은 곳이다. 이곳에서 시무하시는 미네기시 목사님은 가설주택에

거주하는 150여 세대 주민들을 돌보고 계셨다. 손수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목사님 내외분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을 위로하러 갔다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

두 번째 방문지는 ‘리쿠젠다카다교회’. 이 교회는 쓰나미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곳이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리타 목사님 내외분이 교회가 세워진 역사, 쓰나미 피해로부터 보호받은 간증,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엿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간증을 들려주셨다.

가설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일본어예배부가 지난 3년 동안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해 주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좀처럼 외부인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반가운 변화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한다. 일본선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 지금도 가설주택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재민들은 가뭇의 콩 같은 선교를 원하지 않는다. 받기만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베풀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 그것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아웃리치였다.

01

CGNTV 개국 9주년 특별인터뷰

# “CGNTV에 희망이 있습니다”

CGNTV가 29일로 개국 9주년을 맞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용조 목사가 온누리교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CGNTV를 꼽을 수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쓰이는 씨앗인 CGNTV를 소중히 잘 가꿔 열매 맺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목사와의 일문일답.

온누리교회에게 CGNTV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해 교회 창립주일에 CGNTV 후원행사를 가졌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곧 CGNTV 후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온누리교회의 선교결정체가 CGNTV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회 여정과 사역의 동반자도 CGNTV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인들이 CGNTV를 통해 QT도 하고요 ‘힐링유’, ‘나침반’ ‘말씀강해’ 등 시정화 내용들을 누군가 정리해서 순보일할 때 각자 의견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면 어떤가요. 아울러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교인이 CGNTV를 후원하면 좋겠습

니다. 5000원, 1만원도 좋습니다. 작은 후원이 모여 고품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온 열방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동남아 무슬림 선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인도네시아 CGNTV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지 교회와 크리스천들, 선교사님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방향이 매우 필요하죠. 세계선교회는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미디어를 꼽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세워지면 생활의 영성을 강조하고 현지인들을 침범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는 올해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통합, 방문지연, 나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회선교본부를 신설했습니다. CGNTV도 이에 걸맞는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번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매우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사역분야로 사회적 책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이를 위해 국내선교, 이주민선교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따라서 각자의 은사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GNTV도 소외된 이웃, 탈북민이나 다문화가정, 농어촌미자립교회, 위양가정, 나눔로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캠페인 등을 통해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해야 할 일이라는 의식을 고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GNTV 직원들과 시청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으시다면.

“지난 28일 CGNTV 개국 9주년 선교헌신에 배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해부터 CGNTV는 직원들이 먼저 선교에 순신수반하지는 취지로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선교헌신자를 매년 3-4명을 뽑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선교훈련과 언어훈련을 볼두하는 헌신자들의 간증을 듣고 CGNTV의 미래가 매우 밝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이재훈 목사

크리스천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걸 느끼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헌신이 있는 한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늘 ‘CGNTV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CGNTV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CGNTV를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십시오. CGNTV는 또 하나의 기독교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섬김의 공동체이자 매체가 될 것입니다.”

02

## 개국을 축하합니다

### “90년 아니 900년 이상의 역할”



/ 이영표  
(축구해설위원)

CGNTV가 개국한지 9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90년 아니 900년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갓 동안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었는데 그곳에서 CGNTV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CGNTV가 전파를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CGNTV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CGNTV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것을 믿습니다.

### CGNTV는 일본선교의 커다란 힘



/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  
(일본 요도바시교회)

CGNTV를 통해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각지의 교회는 CGNTV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선교의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신 하용조 목사의 복음을 건 일본 사랑을 지금도 CGNTV를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CGNTV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CGNTV는 하나님의 선물”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 앞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CGNTV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CGNTV 시청자들과 후원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CGNTV가 할 일 기대”



/ 브라이언 휴스턴  
(힐송처치 담임목사)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CGNTV에 감사드립니다. CGNTV와 함께 사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CGNTV에서 방송되고 있는 힐송처치 예배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CGNTV가 할 일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도 열어주시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9주년을 축하합니다. 힐송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 “CGNTV를 통해 행하신 일들 놀라워”



/ 크레이그 그루벨  
(미국 Life Church)

그동안 CGNTV가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훌륭한 콘텐츠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열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9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아주 놀라웁습니다. 하나님이 CGNTV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CGNTV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 더 힘 있게,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 방지일 목사  
(영등포교회 원로목사)

CGNTV를 시작한지 9주년이 되었군요. 9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 동안의 역사를 가진 만큼 해마다 더 힘 있게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CGNTV의 개국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3월 30일 993호

- 01 - CGNTV 개국 9주년 특별인터뷰 : 이재훈 목사(16면)
- 02 - CGNTV 개국 9주년 축하메시지 : 이영표 외 5명(16면)



선교를 알면 온누리가 보인다

# 이제는 순 선교 시대



서초B공동체 9다락방 97순(이정석 순장이 지난 3월28일 순예배에 책임선교사(우주희 케냐선교사)를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강서공동체는 책임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해 메시지와 지체를 사진 찍어 보낸다.

온누리교회는 다양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선교훈련 명칭만 나열해도 방대하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활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워낙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선교본부가 방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올해 도입된 '순 선교'다.

순 선교는 말 그대로 순에서 하는 선교다. 순과 다락방이 함께 책임선교사를 돕는 것이다. 화두는 성도와 선교사의 의사소통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선교사는 성도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유익이 있다.

### 순 선교 소개

순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선교사 제도를 알아야한다. 책임선교사 제도는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를 다락방이 책임지고 돌보는 제도다. 성도들은 책임선교사를 돌보기 위해 보내는 선교사나 무

료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선교사 제도에 순도 참여한다. 순과 다락방이 손잡고 선교사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로써 선교사들은 순과 다락방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게 된다.

순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중보기도, 선교사 돌봄, 아웃리치 동참이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기도제목과 가지고 순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선교사 돌봄은 순이 선교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선교사 안부 묻기, 필요 사항 확인하기,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 보내기, 순 예배 초청하기, 경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아웃리치 동참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으로 직접 아웃리치를 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실제 선교를 경험하고, 선교사를 격려하는 방법이다.

### 순과 선교사 소통의場

올해 도입된 순 선교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순이 있다. 강서공동체 5다락방 3순과 서초B공동체 9다락방 97순이다.

강서공동체는 매월 둘째 주일 기도모임을 갖는다. 10~15명이 모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 강서공동체 5다락방 3순(순장 박진영)은 네 팔에 있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 순장을 중심으로 네팔 선교사에게 받는 기도제목과 SNS를 통해 근황을 물어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박진영 순장은 선교가 멀게 느껴졌는데 순 선교를 통해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가 가깝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는 순 선교의 기본은 기도이고, 순원들과 함께 가는 아웃리치는 필수라고 했다. 경험한 전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순 선교에 열심인 순이 또 있다. 서초B공동체 9다락방 97순(순장 이정석)이다. 이 순은 케냐에 있는 선교사를 섬기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경조사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초청해 함께 순 예배를 드렸다. 이 순은 매월 선교사와 연락하면서 기도제목은 나누고 있다.

경조사 발생 시에는 소정의 헌금을 드리기도 한다. 앞으로는 순의 네이브 밴드에 실시간 기도제목 올릴 수가 언제 어디서든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순 선교를 위한 TIP!

- 아이케어의 '선교메뉴'에 접속해 다락방장이 올려놓은 기도제목들을 열람한다.
- 아이케어 이용이 어려우면 다락방장에게 물어본다.
- 순 예배 시간에 선교사 기도제목 나누고 기도한다.
- 가능한 지역이라면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통해 계속 연락한다.
- 선교본부에서 배포한 '순장 기도노트'를 활용하면 중보기도 인도에 도움이 된다.
- 순원들과 함께 선교사가 있는 선교지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Mission Talk  
전영수 정리(2천선교본부 대표장로)

순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그동안 교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해왔고 공동체 단위로 선교 아웃리치를 해왔다. 다락방 단위로 책임선교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의 최소단위를 다락방까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니, 책임선교사 제도가 잘 시행되지 못한 공동체 소속의 성도들은 선교의 최소단위를 공동체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순에서 선교한다면 우리가 여러 생각했을 최소단위의 한계를 넘어 좀 무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 선교를 전교회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회는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목표

를 가지고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해왔다. 지금도 8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바로 이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선교의 주력이다. 이들을 위해 연초에 막대한 선교헌금을 하고 공동체 아웃리치도 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파송한 선교사들 상당수가 고립되어 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선교사역을 하고 있지만, 후방의 기도자원을 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는 선교사가 많다. 일부 선교사들은 공동체의 기도자원으로 힘을 얻어 활발하게 선교한다. 그러나 기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많은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엄청난 영적인 저항을 받으며 힘들게 사역하고 있다.

##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사는 그 선교사라는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공격을 담당하는 군인과 같다. 전방 공격군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대포로 적진을 초토화시켜야 비로소 전방 공격군이 공격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이 후방의 기도라는 대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면 제대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선교사를 방해하는 현지의 견고한 진을 기도로 무너뜨려야 한다. 선교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들을 기도로써 끊어내고 선교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교사의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선교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방의 기도가 선교사를 에

워싸고 있는 장애들을 허물어뜨리고 선교사와 협력할 때 선교사는 전진할 수 있고, 선교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활발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순에서 하자는 것이다. 순 선교는 그 시행이 오래지 않아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순장이 선교사에 대한 중보기도 인도하는 것을 잊고 지나치는 등 시행적으로 겪을 수 있다. 순 선교는 선교사를 둘러싼 장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속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과 순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는 작고 고충심된 종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Love Sonata** 시모노세키 기 · 도 · 제 · 목  
2014 REVIVAL JAPAN

01

- 4월 7일(월) 시모노세키를 중심으로 많은 협력교회들이 생겨나도록
- 4월 8일(화) 많은 일본인들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여하도록
- 4월 9일(수) 본부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 4월 10일(목) 한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도록
- 4월 11일(금)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 4월 12일(토) 모든 출연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 4월 13일(일) 러브소나타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02

**키즈나 집회 후기**

**“잊지 않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츠카네 유키오  
(은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지난달 30일 분당 선한목자교회에서 'Kizuna집회(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가 있었다. 은누리교회 일본어 예배팀도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여러 교회들이 모여 일본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은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교회와 집을 잃어버린 게센누마 제일성경침례교회 미네기시 목사님이 쓰나미 피해 이후 3년 동안의 이야기를 간증하셨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피해지역에 가서 무엇인가 할 수는 없어도 그곳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2012년과 올해 일본 동북지역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느낀 것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진 발생 당시에는 해외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철수한 상황이다. 봉사자들도 떠나고 회복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사역하고 계신 현지 목사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목사님은 지진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고 하

셨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설주택을 방문해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계셨다.

아직도 가설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동북지역 지진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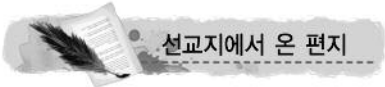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해주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2011년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 동북지역이 온전히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끝까지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다.

**Kizuna집회**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집회.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 여러 교회들이 참석하고 있다. Kizuna는 한자로 '絆'로 '줄(매듭)'이란 뜻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인연,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봄이 되었다. 여기저기 새싹이 나고 꽃도 피고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지 6개월 후에 첫 영적새싹이 나왔다. 바로 M군(20대 후반 남자)이다. A시의 믿는 형제자매들과 4-5주에 한번 씩 인터넷으로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접근했다. M군은 그중 한 사람이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지 한 달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M군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같은 도시에서 사역하던 동료 한명이 비자연장이 거절되어 고국으로 갔다. 그 동료는 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것이다. 그동안 허락되던 장기관광비자를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거주사유가 있어야만 비자를 주겠다는 서류를 받았다. 다시 들어오기 위해 시도하겠지만, 4월부터 바뀐 비자법 때문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급하게 정리해야 할 일을 대비해 우리집 방 한 칸에 짐을 쌓아 두었다. 앞으로 이곳은 비자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2-3주에 한번 씩 시골에 간다. 시골에 갈 때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이'가 유행했다. 시골에 한번 다녀오면 약품을 임주입 동안 사용한다. 좋아질 만하면 다시 시골에 가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의 말로는 '이'는 화학용품 냄새를 싫어한다. 그래서 많은 시골학교 여선생님들이 머리에 염색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것이다. 나도 약품을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머리에 염색을 할 예정이다.

불편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주에도 시골에 간다. 아쉽게도 내가 방문하고 있는 가정은 아직 복음에 관심이 없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이웃집도 갈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도 옮지 않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다.

지난달에 방문하던 한 현지인 집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H씨(31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영일읍 살에 한 남자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이 나라는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이지만, 생활관습으로 허용되는 종교법에서는 네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내가 사는 도시에도 많은 가정이 일부다처제로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부인 외에 다른 아내들은 재산에 관련된 법적 권리가 없다. 자녀들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 H씨는 3명의 아내를 둔 남편과 12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헤어지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쪽에 서 자녀를 데리고 간다. H씨가 자녀를 뺏기면 재

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에서 살고 있다.

H씨가 한 남자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은 집안이 가난하거나 못 배워서가 아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넉넉한 집안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후에 외삼촌의 강력한 제안에 의해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이다.

내가 H씨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아프고 슬퍼 보였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했다.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성을 고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다. 기도하는 중에 그녀가 많이 울었다.

기도 후에 눈의 통증이 사라졌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집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슬픔과 절망에 놓여 있던 마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록 기도를 부탁한다.

/ 선교지에서 사랑의 빛인 자 김말레 울림



장로 순환칼림 박대호 장로(2천선교)

예수님이 바라시는 '더 멋진 세상'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멋진 세상? 아니 더 멋진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은 더 멋진 세상이 된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또 하나의 축복을 주셨다. NGO '더 멋진 세상' 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멋진 마음' 들이 바로 그것이다. NGO '더 멋진 세상' 은 온누리교회 5대 선교기관 중 하나다. NGO 활동이 선교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해 하는 성도들이 많다.

더 멋진 세상은 NGO 단체인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와 같이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현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쉽게 형성된다. 그렇다고 다른 NGO들처럼 구호와 자선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NGO 활동기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다. NGO 더 멋진 세상은 한 마을을 선정해 3년 정도 돕는다. 마을의 변화가 일어난 때까지 돕는 것이다. 이 세상 최초 선교사였던 예수님을 모델로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 모델은 '총체적(Wholistic) 선교' 또는 '통합(Integral) 선교' 라고 칭한다.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개인과 마을의 필요를 동시에 진단해 적절한 자극과 도움을 주는 모델이다. 개인의 역량이 변화되고 나아가 마을 전체가 더 멋지게 변화되도록 돕는

선교전략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역사회개발선교(Community Health Evangelism)' 라고도 한다. 흔히들 줄여서 CHE(체)라고 하는 이 선교전략은 현대 선교의 트렌드이다.

교회의 품 안에서 탄생된 NGO '더 멋진 세상' 은 총체적 선교원리(CHE)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그 어떤 NGO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당당하게 해내고 있다. 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CHE의 주요 원리를 기술한다. 첫째, 영육통합의 원리이다. 복음이나 행이나 또는 순수신교인 가이 아니면 사회선교인기를 놓고 우선순위를 저울질하기보다 인간의 영육간의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주인의식(Ownership)이다. 대부분 NGO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현지 주민들은 역량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NGO '더 멋진 세상' 은 다르다. 현지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들이 주체가 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적극적인 인사로써 변화되어간다.

셋째, 개발의 원리이다. 천재지변이나 생사를 다루는 상황을 제외하면 모든 NGO(체)들의 목표는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사업결과를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나라들은 NGO들에 의한 만성구호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아프리카에서 NGO 단체들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NGO '더 멋진 세상' 은 한 마을을 선정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눈에 보이는 개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게 된다.

넷째, 배가(Multiplication)의 원리이다. 'NGO 더 멋진 세상' 과 함께 '더 멋진 마음' 이 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게도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된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변화시켰다는 소문은 기쁘게 있어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복음을 품은 '더 멋진 세상' 의 활동가(선교사)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뿐 아니라 영적인 변화까지 일어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배가의 원리가 나타난다. 실제로 '더 멋진 세상' 과 함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세네갈 반나바 마을은 KOICA와 현지에서 모범사례라고 여기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안개가 뿌옇게 낀 지난 수요일(9일),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서울에서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리더십들의 단체사진이 눈에 띈다. 송구영신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과 여러 콘셉트로 찍은 사진들이 재미있다. 올해는 성도들을 잘 섬기겠다는 의미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촬영을 했다. 사진마다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었다.

여기는 3층 예배당. 수요일성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번 달은 아가서 강제가 진행 중이다. 예배를 드리고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 백상욱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다. 매뉴는 비빔밥이었다.

“비빔밥 소스에 성도가 가지고 온 머무름이 들어있어요” 한 끼 식사에도 성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목 백사와 성도들의 교제가 이어졌다. 생일을 맞은 성도를 축하해주고 전도필과 전도지를 함께 접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주방을 섬기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기자가 식당에서 만나 성도들에게 물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족 같이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 더 섬기고, 더 나누는 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순에서 비롯됐다. 순에서 맺어진 끈끈한 유대관계가 다락방과 공동체로 이어진 것이다. 1,1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구리·남



백상욱 목사와 남양주 수요일성예배 찬양팀원들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양주 공동체로 시작됐다. 한 성도의 사무실에서 열린 새벽기도모임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2004년 11월 7일 경기도 구리시 도평동 968번지 진성빌딩 2-3층에 약 80명의 성도들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기훈, 안광복, 이기진 목사가 시무했고, 현재는 백상욱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주민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 다문화가정사역, 북한선교사역 등이 이를 웅변해준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에는 인도와 네팔에서 온 성도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다문화가정사역은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요리수업,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한글학교, 미술교실, 탁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선교사역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매주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을 위한 수련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탈북민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우리들 학교’에 반찬봉사를 나가고 있고, 지난 주일(6일)에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삼겹살 파티도 열었다.

올해 11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창립 10주년인 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를 더 섬기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사진 여준원 기자

## 축복합니다·사랑합니다

###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 ✓ 늘 함께 하는 행복한 교회 / 정인숙 권사
- ✓ 다문화 성도들을 잘 챙겨주시는 따뜻한 권사님이 있는 곳 / 친러링
- ✓ 마음이 편해지는 교회 / 단터투호영
- ✓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신지연 집사
- ✓ 성령 충만한 교회 / 김선희 집사
- ✓ 서로 배려하고 품고 기도해주는 사랑이 많은 교회 / 정월자 권사
- ✓ 목사님이 친구 같은 교회 / 김경숙 권사
- ✓ 가족적인 분위기, 따뜻한 교회 / 조영숙 집사
- ✓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 임현태 장로
- ✓ 다같이 함께하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 / 석재연 집사
- ✓ 목사님이 너무 좋은 교회 / 박영숙 집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일본교회에 용기주려고 일본어성경 필사(筆寫)한 최정순 권사



최정순 권사가 구약필사본을 책상에 펼쳐 놓고 수줍게 웃는다. 최 권사는 이것을 제분하여 일본 이웃교회에 가져갈 생각이다.

일본교회에 용기를 주려고 6년 동안 일본어성경을 필사한 성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올해로 12년째 일본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순 권사다. 그녀를 만나 일본어성경을 필사하게 된 이유와 필사하면

서받은 은혜를 들어보았다.

### 자그마치 6년

“2008년 6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어성경을 필사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6년이다. 최 권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시간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어김이 없다. 6년 동안 일본어성경을 필사한 분량이 구약만 큰 상자도 하나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일본어성경 필사를 시작한 것일까. 한국어 성경도 필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필사한 내용을 제본해서 일본 이웃교회 갈 때 가져 갈 거예요. 일본교회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거든요”

그녀의 일본 사랑이 감격스럽다. 일본어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녀 개인적 인 신앙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필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시어머니(한세 99세) 병간호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노후직접, 자식들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말)로가서 1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병색이 권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때부터 일본어성경 로마서를 필사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일본어성경은 글 정렬방식이 세롭다. 한자와 일본고유문자 하리가 나뉘어 섞여 있다. 띄어쓰기가 없다. 눈 아프고 어지러웠다.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필사를 안 하면 언젠가 같은 부담감이 그녀를 깨웠다.

2008년 12월,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고 다시 일본어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고비도 많았어요.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발음도 어렵고 쓰기도 힘든 일본어성경을 내가 왜 쓰고 있는지, 이거야. 이어도 할 것 많은데... 무수하고 비를 이겨냈어요”

###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 주려고

일본어성경 필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최 권사는 일본 이웃교회 갈 생각에 부풀어 있다. 필사한 종이를 제본해서 8월 일본 이웃교회에 가져갈 생각이다. 한국 사람이 일본어성경을 필사했다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다. 일본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최 권사는 성경필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자신감도 얻었다고 고백했다. 무엇보다 일본교회를 향한 사랑을 키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경필사를 하고 싶지만 임무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좋아하는 권(卷)부터 써 보세요. 순서대로 쓰라는 법 없고 전체를 다 써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나이는 나도 했는데, 젊은이들은 더 잘하겠죠?”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살롬 예루살렘 2014 참가자 모집

KIBI(한·이 성경연구소)가 '살롬 예루살렘 2014'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를 주제로 오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가 두 번

째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이재훈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한편 대회 사전공연 및 중보의 밤 행사가 오는 28일(월)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02-792-7075-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시모노세키 기 · 도 · 제 · 목

- 4월 14일(월) 협력교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러브소나타에 참여하도록
- 4월 15일(화) 협력교회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참가자들이 차고 넘치도록
- 4월 16일(수)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가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 4월 17일(목) CGNTV가 좋은 무대를 세팅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
- 4월 18일(금) 한국인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4월 19일(토) 시모노세키에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묶임을 받도록
- 4월 20일(일)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네팔 노방전도 후기

# 준비된 영혼들의 황금어장 ‘네팔’



/ 김숙경 권사  
(새벽예배1부찬양팀)

3월 21일, 서빙고 새벽1부 찬양팀에서 헌당 한 네팔에 어넨더 교회로 향했다.

네팔은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6개의 봉우리가 있는 네팔은 불교와 힌두의 성지가 있다. 온 국토가 우상으로 덮여 있어 영적으로 숨쉬기조차 버거운 나라이다.

국토의 90%가 산간지역인 네팔은 지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인 카투만두에 몇 개의 교회와 근래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어넨더 교회는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에서 버스로 13시간을 가야하는 작은 도시인 네팔간지의 코헨발에 지어졌다. 현지 교인들이 교회를 증축하려다 기둥만 세우고 멈춰진 것을 은누리교회 두란노 해외선교부와 연결되어 헌금이 전달되고 완성되었다.

헌당예배하며 만난 네팔인들은 예배에 열정이 있는 순수하고 마음 따뜻한 부자런한 사람들이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처음 들어 보는 예수님 한 분 만이 구주되심에 놀라워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했다.

그 곳의 농림부 차관급이 되는 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니 바로 영접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전하겠다고 전도책자를 가져갔다. 교회에도 다니기로 약속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내가 놀랐다.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되었다.

호텔리어로 일하는 예쁜 번다나에게는 바쁜 일정으로 간단히 복음을 전했다. 호텔을 떠나는 우리 일행을 쫓아 나오며 선교사와 만날 약속을 했고, 나오는 헤어지며 눈물도 글썽였다.

산골에서 만난 영특한 소년 앤젤은 영어도 잘했다. 복음을 전한 후 가게에서 과자를 사주려 하자 자기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며 극구 거절했습니다. 포카리에서의 눈망울이 맑은 12살 소녀 리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네팔에 헌당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기도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은누리전도폭발에서 사역하며 만든 네팔어로 된 그림 전도책 200권과 전도책자 100권을 가져갔다.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네팔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하심이 느껴졌다.

“네팔에 준비된 영혼들이 들뜬 가득 회어졌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네팔은 준비된 영혼들의 황금어장이다. 우리가 힌두문화로 찌들은 그들의 영혼을 지레 두려워 할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힌두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날을 기다리는 곡식들이다. 그래서 교회 개척도 긴급히 필요하다. 산간 지역에는 500만원으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은누리교회는 네팔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계속된 기도와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 사역으로 쓰임 받고 있다. 네팔에서 만난 4명의 FA단기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더 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전도 현장임을 느꼈다. 8일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팔에 씨를 뿌렸다. 계속 키우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 선교지 이야기  
노규석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 아라비아 백성들을 섬기는 오아시스 병원

아라비아 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교회가 없는 지역이다. 선교사가 가장 적고 현지인의 복음화율이 거의 0% 수준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만큼이나 믿음을 가진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을 통해 이미 복음을 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초대 교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일어난 무함마드와 이슬람 군대로 말미암아 지난 1400년간 교회가 파괴됐다.

1960년대 UAE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은 매우 가난하고 척박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유아 사망률이 50%에 이르렀다. 약 35% 산모들이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해 11월, 미국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닥터 팻(Pat)과 마리안 켄네디(Marian Kennedy) 가족이 아부다비의 통치자였던 자이드(Zayed)의 초청으로 알 아인(Ai Ain)이라는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보건소를 세우고 아라비아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캐나다 선교사인 게르트루드 디크(Gertrude Dyck) 여자 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38년간 산파로 일하며 약 9만 명의 아기들의 탄생을 도왔다. 수많은 왕실의 아기들과 산모들이 이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돌봄을 받았다. 그는 UAE 사람들로부터 '자비의 의사', '사랑받는 만인의 어머니'라는 극찬을 들으며 사랑을 받았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수많은 아기들과 산모들의 생명을 건졌다. UAE의 유아 사망률은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오아시스 병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감사히 여긴 자이드(Zayed) 대통령은 병원 내에 교회를 세워주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 비록 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이지만, 공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됐다. 또한 아랍어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DVD를 각 병실마다 비치해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병원과 교회가 아라비아 반도와 이 땅의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UAE의 각 도시마다 수십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온-누리에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UAE에서 공식적으로 목회자 비자를 받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필자 역시 오아시스 병원의 선배 선교사들 덕분이다. 아부다비 온누리가 오아시스 병원의 귀한 선교사님들처럼, 아라비아 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쓰임 받도록 온누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 ... 정성담긴 선물 좋아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경근 선교사의 자녀 폴린(7살)이 한 성도에게 선물을 받았다. 리코더였다. 작은 손가락으로 리코더 구멍을 맞춰가며 시도 때도 없이 분다. 신났다. 얼마나 좋으면 3일 동안이나 리코더를 손에서 놓지 않을까.

박경희 권사는 수년째 선교사 자녀들에게 직접 만든 인형을 보내고 있다. 선물을 받은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을 때면 마음이 울컥하다.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 선교지에 보내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

선교사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 바로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다.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감동하는 것이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장난감이 워낙 귀하기 때문이다. 친구도 찾기 어렵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입하기도 힘들다. 선교지에서 장난감, 학용품, 옷, 책 등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모른다.

온누리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날과 성탄 전에 보낸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의 자녀들은 총 628명이다. 선물을 받는 선교사 자녀들은 1996년생 이후 출생자 270명이 대상이다.

선물은 지나치게 큰 선물보다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 좋다. 선교지의 기후나 상황을 고려해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추천할만한 선물은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장난감, 의류, 쿠키팩 등이다.

특히 보안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선교지로 골장 선물을 보내면 안 된다.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내야 한다. 또 반드시 보안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기독교 관련 선물과 편지는 삼가야 한다. '선교사->선생님', '목사님->사장님', '교회->회사', '공동체->부



박경희 권사와 한명사역에서 수년째 선교사 자녀들에게 손수 만든 인형을 선물로 보내고 있다.

서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하나님, 기도, 예배 등의 용어도 가급적 쓰지 않아야 선교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문의 02-3215-3208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선교사 자녀들이 보낸 편지

#### “귀한 선물 고맙습니다”

네팔서 저희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학용품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학용품이 매우 비싸거든요. 선물을 보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몽골 양편역 선교사 자녀

#### “선물과 편지가 기다려져요”

어린이날이 되면 한국에서 선물이 왔어요. 너무 기뻐서 선물이 도착할 날만 기다렸어요. 그동안 선물 받은 것 중에 인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인형이 얼마나 예쁘던지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 속에 편지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얼마 화장품, 사인펜, 크레용과 색연필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는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 A국 한사람 선교사 자녀

### 선교단체 연락처

비전빌리지 TIM사무실	02-794-1033	GMF 선교회	02-2663-4270-1
비전빌리지 훈련팀	031-331-8100	GMP 개혁 선교회	02-337-7191
이전선교 후원사업부	070-4949-7882	GMTC 선교회	02-2649-3197
경배와 찬양	02-796-9700	GO 선교회	02-4066-0114
발리온 선교회	02-879-1191	GP 선교회	02-443-0883
알타이 선교회	02-576-8303	HOPE 선교회	070-4005-5300
	070-7114-0286	Inter-Coop	070-8787-8807
중동 선교회	02-3436-3307	InterServe 선교회	070-4332-6510
BEE KOREA	02-822-9480	ITM 선교회	02-2685-1451
Come Mission (한국감선교회)	070-8250-3385	OM 선교회	031-713-5775
Cornerstone (모듬이들)	02-796-8846	OMF 선교회	02-455-0261
Destination	(+902323649029)	WEC 선교회	02-329-4832
FMinC 선교회	02-848-6251	YWAM (예수전도단)	02-322-6663
	070-7500-6241		
GBT 선교회	02-588-5324		

## 선교사를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_ 선교보안 지켜주세요!

한때 선교사에서 사역중인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는 7만명이다. 이 중 80%인 6만명만 선교보안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교보안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유대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이다. 선교보안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소통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되면 선교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선교사 신분이 노출되면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구금, 억류된다.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될 경우 선교 전략에도 손실을 입게 된다. 해당 선교사와 연결된 현지인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제 퇴직되거나 장기구금, 종신형, 벌금형, 자녀 출생신고 불가, 지역사회에서 퇴출, 명예 살인(매년 500명 추정)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이나 선물을 보낼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선교보안지역에서는 이메일, 우편, 우편, 유·무선통신 검열과 미행 및 탐문, 인터넷 검색으로 선교사 정보를 수집한다. 선교보안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터넷 카페나 클럽, 블로그 등

에 선교사 이름과 사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보안유지를 할 수 있을까. 보안이 필요한 모든 문서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통화할 때에는 보안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에 저장된 선교사 연락처는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다음은 보안용어를 사용한 선교사의 편지이다. (승리0~1(할렐루야))

저희 가정과 함께 손을 모아주시며 동역해 주시는 모든 은혜(은혜)와 기(영광)가 있기를 아멘이다.

저희가 인권공향을 출발하던 날부터 이곳은 이미 2사람(이슬람)의 라마(라마)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두움의 0(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며, 우리가 6(체)에 있지만 이들은 무고한 2(사람)이 슬람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0(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임을 다시 한번 사(전)파합니다.

\*괄호 안에 내용으로 해석한다. / 조은실 기자

### ■ 보안언어 예시

구원	9원, 7원	선교	스기(금적 사용금지)
천미	춤키	주님	지니
순교	순기	기도	기디, 손을 모으다, 아로다
헌신	흥신	천영	차오
역사	역시	성도	사디
사도	4도	평안	피안
동역자	디오자	할렐루야	흥러르오
집사	집4	성령	사리
권사	권4	예수	오스
다락방	디라방	그리스도	기르사디
선교지	주재국	축복	차하
교회개혁	기흥 개혁, 회사개혁	목사님	화장님, 사장님
은혜	0흥	선교사	선생님(중국지역 사용금지)
전도, 사역리	자디, 40리	말씀	마쓰
양육 프로그램	성장프로그램	선교	스기(금적 사용금지)
사역자	4역자	영광	0광
인도하심	인디하심	복음	복오, 기쁜소식
하나님	흥니, 윗분	여호와	오흥와
교회	기흥, 회사	영혼	오흥
파송	파송, 출장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쉼기대회

## 일본 80개 협력교회, 행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쉼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4일~16일 우베신소그리스도교회(14일), 바이코대학체플(15일), 기타큐슈부흥교회(16일)에서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쉼기대회가 열렸다. 쉼기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모임이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쉼기대회도 같은 이유다. 집회를 한 달 앞두고 일본현지 협력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쉼기대회를 기점으로 러브소나타 초대장 신청이 급증한다. 지난해 러브소나타 군마에서도 그랬다. 러브소나타 군마 쉼기대회 전에는 협력교회들이 본부에 요청한 러브소나타 초대장 수가 500여 장에 불과했는데 쉼기대회 이후 급증했다. 쉼기대회 일주일 후 1325장, 2주후에는 2841장을 신청했다. 쉼기대회 전과 비교했을 때 5.6배나 증가했다. 쉼기대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대다수 교회들은 성도수가 20~40명 사이다. 소규모다. 대부분 노년층이다. 상당수 목회자들도 은퇴를 해야 할 나이가 지났다. 그런데 후계자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시모노세키도 예외는 아니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현지 분위기를 쉼기대회가 역전시

켰다. 쉼기대회에 초청된 플룻연주자 송솔나무의 연주도 분위기를 반전에 한몫했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현지실행위원회도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지금까지 러브소나타에 협력하기로 한 교회가 80군데다. 당초 목표였던 60곳을 이미 넘어섰다. 지역도 집회가 열리는 시모노세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후쿠오카현에서 무려 47개 교회가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오이타현, 사가현, 멀리 오키나와현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일본에서만 러브소나타 준비가 한창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한국에서는 화관제작이 한창이다. 화관은 러브소나타 집회의 하이라이트인 화관수여식에 사용된다.

화관제작은 사문데코팅이 도맡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빙고 미션홀에서 제작한다. 평일 낮 시간에 제작하다보니 봉사자들은 주로 집사와 권사들이다. 그런데 봉사자들 중에 젊은 자매가 눈에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의 성공을 위해 14~16일 3일간 쉼기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첫날 14일(월) 우베신소그리스도교회에서 열린 쉼기대회 모습.

된다. 부천 온누리교회 소속 김희영 자매다.

“러브소나타에서 사용되는 화관이 정말 예뻐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예쁘다지만 화관 2천개를 만드는 것이 녹록치 않을 터. 어려운 점은 없을까.

“생각보다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든 화관이 일본인들 머리 위에 쓰여지는 장면을 상상하면 설레요. 그 기대감이 힘든 것을 잊게 하지요.”

그녀가 동역자들을 초청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은사를 통해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쉼기대회를 마치고

##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제가 없던 교회와 교단들이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 하면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본의 교회들이 러브소나타를 위해 서로 교제하고 힘을 합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리카마루 가츠코(기타큐슈시온교회)

01

## 중보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

2002년 하용조 목사가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온 후 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이 탄생했다. 현재까지 7명이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나라와 교회,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모임에는 3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하고 있다.

일정: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장소: 서빙고 선교관 201호

문의: 이현숙 권사 010-6651-5830

### 멕시코 중보기도모임

멕시코 중보기도모임은 1997년 12월 강동·송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당시 강동 송파공동체 담당 목회자가 박성근 선교사(멕시코)였던 영향이 컸다.

10가정이 중보기도팀으로 섬기며 현재까지 약 175회 모임을 가졌다. 멕시코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홀 기도실 혹은 양재 드림홀

문의: 김철주 장로 010-8980-6167

02

## 장로중보기도팀,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장로중보기도팀에서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로중보기도팀은 오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단둥으로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백두산을 방문해 평화통일을 위한 중보기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문의: 정영열 장로 010-9365-5960

/ 조은실 기자

03



‘네 양을 먹이라’ ...지난 주일(13일) 양재 일대일사역팀이 국내외 아웃리치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먹거리 자선장. 16개 공동체와 여호수아공동체 리더십들이 함께해 의미가 더 컸다. 이날 자선장에서는 일대일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오면 한 가지 메뉴를 무료로 증정하는 ‘원플러스원(One Plus One)’ 행사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 정현주 기자

04

## Love Sonata 2014 REVIVAL JAPAN 시모노세키 기·도·제·목

- 4월 21일(월)  
일본 협력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4월 22일(화)  
일본인 참가자가 2천명이 넘도록
- 4월 23일(수)  
모든 출연자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 4월 24일(목)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참여해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도록
- 4월 25일(금)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 4월 26일(토)  
중보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 4월 27일(일)  
러브소나타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2014년 4월 20일 996호

• 01- 중보기도모임 소개 :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 멕시코 중보기도모임(10면), • 02- 장로중보기도팀 : 중국 단둥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10면)  
• 03- PHOTO NEWS : ‘양재 일대일사역팀’ 아웃리치 기금 마련 자선장 개최(10면), • 04-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4.21-27)(10면)



여성선교사 팜 리트릿 후기

### “선교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 회개”

이번 리트릿은 어린아이처럼 투정부리는 나를 다 덮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까. 어려움이 있었다. 2기 사역을 하던 중 현지인의 배신으로 선교사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성선교사 리트릿에 초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싶으셨나 보다. 내가 선교사의 길을 멈추는 것을 만류하고 싶으셨나 보다. 지금까지 잘 했다고 괜찮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주시고 싶으셨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또 투정했다. 울어보고 또 울었다.

지친 영혼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 감사함이 느껴졌다. 리트릿에서 만난 선교사들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이심전심이다.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했다. 이번 리트릿은 여성선교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가득 들어 있었다.

리트릿 일정 틈틈이 태평양 바다에 몸을 담갔다.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아름다운 물고기를 쫓아 따라다녔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또 한번 감탄했다.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도 나를 언제나 이렇게 따라 다녔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단다.”

“나를 더 의지해라. 내가 네 손을 꼭 잡고 있잖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나? 내가 너를 용서한 것 처럼...”

주님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보다 나와 교제하시기 를 더 원하셨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날마다 하늘정원을 걷자구나!” 주님이 동행하자고 초대하셨다. 당장이라도 선교 를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을 회개했다.

“주님 저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치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 나 동일하다. 날마다 나를 사랑으로 붙잡으신다.

이번 리트릿에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반짝이는 노란 재킷을 입고 망가져(?) 주신 전도사님 과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 에셀선교회의 기도 와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간사님들의 섬김도 잊지 못 할 것이다. 팜 온누리교회에도 감사를 드린다.

나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다. 이전과 다른 마음이 짐으로 돌아간다.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날마다 하늘정원을 거닐면서 선교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선교사 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이 선교사(남아시아 1국)

여성선교사 리트릿은

\* 전 세계를 4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여성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2천선교본부가 2012년부터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14개국 22명의 여성선교사가 리트릿에 참가했다.

선교지 이야기 터키 손OO 선교사

### ‘루디아’를 찾아서

창세기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지역들이 터키에 있다. 아브라함이 머뭇했던 하란, 바울의 고향 다소가 터키다. 사도 바울은 팀을 이루어서 123차의 선교 사역을 통해 소아시아 터키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세웠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7개 교회도 모두 터키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민족들의 이동으로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 교회 건물들이 철거됐다. 심지어 회교 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큰 부흥이 있었던 터키에 지금은 7천 5백만 명 인구 중 기독교인이 약 3500명~5천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터키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터키 선교사들이 모여 작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 터키 8개 도를 나눠 각 지역자들이 교회가 없는 곳을 매월 마지막 주에 방문하여 중보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루디아를 찾아내자는 것이었다. 사역중인 선교사들에게 쉽지 않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흥분했고 지난 3월, 7명의 지역자들이 맡은 지역으로 떠났다.

우리교회는 터키 중부 내륙지역으로 갔다. K도시를 거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고되는 Y도시와 S도시를 거쳐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K도시 현지 지도자를 통해 오래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Y도시에 사는 현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버스를 탔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현지인 형제를 만났다. 그는 나를 태우고 집으로 데려갔다.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 열악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다고 했다. 아주 강력한 빛으로 자기를 부르셨는데, 꿈을 끈 후에 큰 도시에 천지주를 방문할 기회가 생겨 아주 어렵게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했다. 너무나 큰 기쁨과 놀라움으로 마을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간증을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민족을 지켰다고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직장을 잃게 됐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들의 굶지 않는 결단을 보고 급기야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살 수 없다고 쫓아내서 지금 이 외딴 곳에 들어와서 양 떼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7살짜리 딸이 매주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말씀은 시편 23편이라고 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가정은 내가 만난 첫 번째 ‘루디아’다. 이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 또 이들의 믿음과 소망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온가족이 러브소나타에 참가하는 김남희 성도가족

**Love Sonata** 시모노세키 기·도·제·목  
2014 REVIVAL JAPAN

- 4월 28일(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집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 4월 29일(화) 준비된 영혼들 모두가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구원받도록
- 4월 30일(수) 일본현역교회들과 실행위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5월 1일(목) 이재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
- 5월 2일(금) 모든 강사, 출연진, 스태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 5월 3일(토) 한국과 일본에서 드린 중보기도가 응답되도록
- 5월 4일(일)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교육

### 5월 1일과 8일 ... 참가자 반드시 참석해야

김남희 성도네(남편, 아들(10세), 딸(7세))는 온 가족이 함께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에 가기로 했다.

김남희 성도는 결혼하기 전에 2주 동안 일본에서 예수전도단(DTS) 훈련을 받았다.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만큼 행복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청년 때 품었던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가가 싫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2012년 러브소나타 가고 시마에 참석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했다.

청년시절 일본에서 훈련받았던 그때의 그 감정과 은혜를 다시 느낀 것이다. 그 좋은 경험을 가족들과 함께 느끼고 싶어 온 가족을 이끌고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에 참석하기로 했다.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5월 15일은 그녀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결혼기념일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방산공포, 한일관계 악화, 지진 등 일본의 슬픈 약재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번 집회가 일본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품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통산 20번째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가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행사에 앞서 5월 1일과 8일 양재와 서빙고에서 각각 참가자교육을 실시한다.

러브소나타에 참가하는 봉사자들은 참가자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특pecially 5월 1일에는 일본 훗카이도에 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란 선교사가 간증을 한다. 김 선교사는 올해 11월에 열리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의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에는 일반참가자, 은누리복지재단, CEO포럼, 스테이프 등 200명이 참석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참가자교육 일정안내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1차 참가자 교육

일정: 5월 1일(목) 오후5시  
장소: 양재 믿음홀

2차 참가자 교육

일정: 5월 8일(목) 오후5시  
장소: 서빙고 순형홀





#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인천 온누리교회'

## 오늘 창립8주년 감사예배

인천 온누리교회에는 특별한 예배가 있다. 바로 '찾아가는 예배'다. 찾아가는 예배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순 단위로 이웃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순과 이웃이 결연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부활절에도 어김없이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 흠뻑했다.

### "성도들이 아들보다 열배는 낫다"

부활절이었던 지난주인(20일) 이상혁 순장을 따라 나섰다. 오늘 만날 이웃은 이호임(78) 할머니다. 이순은 벌써 3년째 폐지를 주위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갔을까? 어느 빌라 주차장 창고 끝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밖을 빼꼼히 내다보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창고에 서서 순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원들이 도착하자 할머니 얼굴에 함박웃음이 번졌다.

"앉을 때도 없는데 번번이 미안하게..." 의자 하나 없는 것이 미안했던지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았다. 이상혁 순장이 그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무릎은 좀 아파주세요"

할머니는 몇 일전 돌에 걸려 무릎을 다쳤다고 한다.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넘어지기까지 해서 더 불편해보였다. 시퍼



인천 온누리교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이상혁 순장과 순원들이 3년째 섬기는 이호임 할머니를 찾았다.

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이날 할머니는 사업에 실패해 힘들게 살고 있는 두 아들 이야기, 유방암 걸린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친숙한 사이인지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참 고맷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골에 땅이 제법 있어 남 못지않게 산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들들이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할머니의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

폐지 줍는 일은 세 달 꼬박 해야 5만원을 번다고 한다. 자녀들과 같이 살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도 않는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아쩔 수 없이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구정에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연결해줬다. 그렇게 인천 온누리교회와 할머니가 만나게 됐다.

순원들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헌옷이나 제 환용품, 과일 등을 가져다준다. 소정의 현금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인천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순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다. 이날도 헌옷과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는 내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되뇌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원들에게 할머니가 무엇인가를 건넸다. 직접 만든 떡이었다. 전에도 직접 만든 식혜나 초코파이를 쥐어 줬다고 한다. 그렇게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매년 찾아오는 성도들이 아들보다 열배는 낫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고마움과 미안함의 눈물이 고여 있다.

### 기본으로 돌아가자

인천 온누리교회 42개 순은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이밖에도 교회 주변을 정

소하고, 사랑의 썬도 나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불공예예배도 4년째 드려지고 있다. 다국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도 계획하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큐티와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도 50명 이상의 교인들이 큐티학교에 참석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배시간에도 변화를 줬다. 3부 예배를 드리는 부모를 위해 영아 2부 예배를 신설했다. 탁아개념으로 진행했던 어린이 영아 양육 프로그램도 어린이 영아 예배로 드리고 있다.

예배와 말씀에 충실하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오늘(27일) 창립8주년을 맞이했다.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 높이 비상하기를 소망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목회칼럼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 세계 복음화의 문 인천

Korean Diaspora,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2013년, 작년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은 353명,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온 이민민은 5300여 명에 이른다.

1970년대에는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26500명이나 되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동, 아르헨티나 마지막 땅 끝인 'Tierra de Fuego'와 알래스카 'Kodiak' 섬에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 들어갔다.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보다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말 잘 통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이 지천이며 웃도 입으면 취적 잘 맞고 교통도 잘 되어 있다. 통신은 세계 제일이다. 전 세계 평균 3명 중 1명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이다. 인천공항도 세계 1등이다.

쌀이 귀해 잡곡을 먹어야 한다며 학교에서도 시락 검사를 하던 한국이, 베타과 점심을 거르며 실던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는 싫다, 한우만 내나라 하는 식이 되었으나... 아! 한국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거기에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20개 대령교회 중 8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 세계 성경은 어떠한 언어라도 90%가 한국에서 인쇄한다. 세계 교회들은 기도할 때 "Let's pray like Koreans(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 tong song kkk(통성기도)"라고 하며 한

국 사람들의 기도 스타일을 좋아한다. 거기에다 세상의 물도 없는 정(情)까지 있으니, 아! 한국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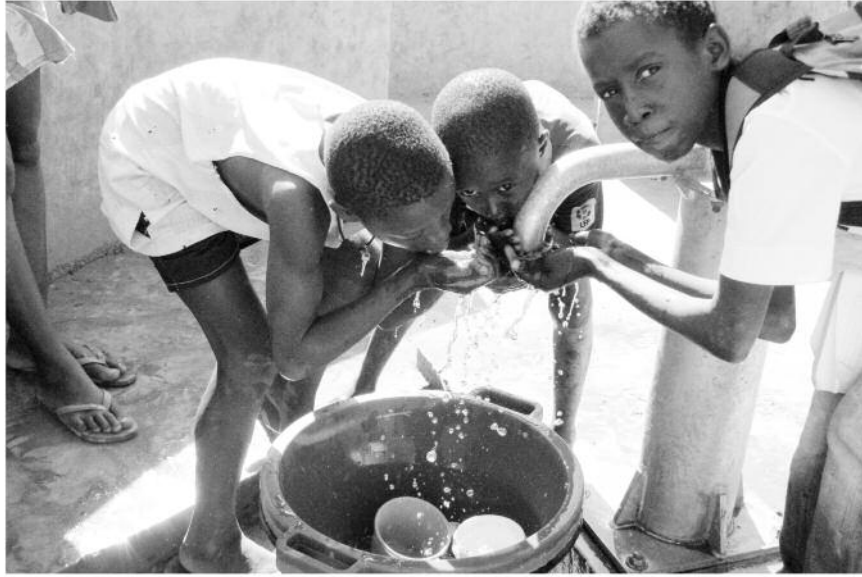
인천도 마찬가지다. 변해도 확 변했다. 특별히 영종, 청라, 송도신도시를 개발해 급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송도는 글로벌도시, 신중공업명문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3개의 국내대학인천대, 연세대, 인천가톨릭대, 2개의 글로벌대학(숙명여대, 조지메이슨대)이 개교했고 앞으로 100여개의 국내 및 외국대학(영약대, 한국외대, 유대대, 겐트대 등)이 개교예정이다. 더불어 GCF(국제기후기금), WB(세계은행), A-WEBS(세계선거기관협의회)등 글로벌기구 및 NGO등을 유치하게 되어서 명실공히 교육도시, 미래도시,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뻗어

고 있다.

또한 인천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서 안산보다 많다.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세계의 허브이자, 한국의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꿈꿔대는 성장 동력이다. 인천에서 다민족과 한국의 미래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내는 사명이 있다.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래세대를 갈라내고 파송해서 자동차, 핸드폰, 선박처럼 세계와 일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소망한다.

인천이 한국복음화의 문이 되었듯이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될 것이다.



우물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동네 아이들.

# 깨끗한 물이 쿵쿵!

## NGO 더 멋진 세상, 기니비사우 우물 준공식

아프리카에서 물은 매우 귀하다. 목마름을 호소하던 아프리카 서부 기니비사우 블롬(Blom)마을에 우물이 생겼다. NGO 더 멋진 세상이 파냈다. 펌프에서 깨끗한 물줄기가 솟아 오르자 마을 주민들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지난 9월 오후 5시, 기니비사우 블롬 마을 우물 준공식이 있었다. 행사에는 비움보(Biumbo) 도지사, 우물 공사 관계자, 블롬 초등학교 학생,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NGO 더 멋진 세상 백원경 지부장도 참석했다. 격려사에서 도지사는

“Viva Corea! Viva Better World(한국 만세! 더 멋진 세상 만세)”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모기장 500장 기증식도 있었다. 도청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사각모기장을 펼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번 우물 공사는 익명의 성도가 자신의 아들 이름(Daniel Cho)으로 우물을 파주고 싶다고 NGO 더 멋진 세상에 21,442,000원을 기부해서 시행하게 되었다.

기니비사우 블롬 마을은 수도 비사우에서 1시간30분 떨어져있다.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식수 공급이 어렵고 전기 공급도 되지 않는 가난한 마을이다. 농업이 생업이다. 하나 밖에 없는 블롬 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15명이 재학 중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 모집 >

내용: 르완다아웃리치

피아노 조율사 1명

기간 : 2014년 8월 23일~27일

장소: 르완다 키갈리 세레나 호텔

조건: 항공료, 체제비 제공



01

##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 후보생 및 관심있는 성도 대상

온누리교회 선교사 후보생 및 관심자를 대상으로 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을 실시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5월 24일(토) 오후 1시 두란노빌딩 202호에서 진행된다. 오리엔테이션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를 준비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프로그램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온누리교회 선교정책과 선교사 허입과정을 안내하고, 선교단체와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과 만남도 이루어진다. 개별상담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79

/ 조은실 기자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이야기  
노규석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02

##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아라비아 걸프에 위치한 UAE의 수도 아부다비는 숨겨진 진주와 같은 도시다. 아부다비는 2009년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아부다비 원자력 발전소는 아부다비 도심에서 300km 떨어진 바라카(아랍어로 축복) 지역에 세워지고 있다. 현재 1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최선을 다해 명품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아부다비 원전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세워지고 있다. 기도의 열매이다. 수도 단계에서부터 한전과 한수원 신우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구호를 외치며 믿음의 형제들이 건설 현장의 새벽을 열고 있다.

원전 건설 현장에 있는 바라카 교회는 그동안 임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2012년 7월에 정식으로 멋진 성전 두 동을 건축했고, 사막의 영성을 간직한 뜨거운 예배(한국어, 영어)를 매주 드리고 있다. 이곳 원전 건설 현장에 와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한분 한분이 자비량 선교사들이다. 자신들의 휴식시간을 반납하고 한국어예배와 영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국 언어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올해 부활절에 바라카 교회 첫 세례식이 있었다. 근로자 6명(파키스탄, 필리핀)이 건설현장 인근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원전 건설 초기인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원전 현장의 바라카 교회를 매주 섬기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다.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과 바라카 교회는 UAE 뿐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리라 믿는다. 한국 기업에 의해 세워진 명품 원전을 통해 아라비아 도시 곳곳에 전기가 전해질 것이다. 그곳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라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이 이곳 바라카 교회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격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배', '달콤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U.A.E의 한인사회와 다민족 교회, 특히 아랍과 아프리카 교회들과 함께 영적 부흥을 경험하길 소망한다. 현재 노규석 목사와 윤용순 목사가 섬기고 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2011년 6월 3일 창립돼 현재 성인 128명, 차세대 44명(지난 3월 기준)의 성도가 다니고 있다.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교육

## 2차 교육 5월 8일 19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1차 참가자 교육이 지난 1일(목) 양재 화평홀에서 진행됐다. 참가자교육에는 참가자 22명과 행사를 준비 중인 교역자와 스텝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홋카이도에서 지역하고 있는 강제관 선교사가 간증을 했다. 이날 김 선교사는 참가자들에게 “일본성도들은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한국 봉사자들에게 감동한다”면서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뿐만 아니라 11월에 있을 러브소나타 오비히로(홋카이도)에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봉사 지침 등이 실려 있는 ‘참가자 핸드북’을 배포했

다. 핸드북에는 시모노세키 및 현지 방문교회 정보, 봉사 매뉴얼, 특별 안내자료 등이 실려 있다.

2차 참가자교육은 오는 8일(목) 저녁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1차 참가자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본인에게 건네는 축복의 메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ました。  
가미와 아이시레루타메 우마레마시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神さまは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마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神は、実に、そのひとり子を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世を愛された。  
가미와지츠니, 소노히토리코오 아이타에 나타호도니, 요오 아이시테타.



시모노세키 기 · 도 · 제 · 목

- 5월 5일(월) 일본 협력교회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 5월 6일(화) 일본인 집회참가자가 2,500명 이상 되도록
- 5월 7일(수) 모든 출연진들이 준비를 잘하도록
- 5월 8일(목) 모든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 5월 9일(금) 한국인 봉사자들이 중보기도에 참여하도록
- 5월 10일(토) 모든 스텝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 5월 11일(일) 러브소나타 집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아프리카 지역개발 사업

### NGO더멋진세상과 함께

# 더 멋져진 ‘본나바 마을’

이프리카 세계 각 본나바 마을에서는 청년 일꾼과 아는 요즘 신이다. 마을이 멋지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일꾼들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물으면 쉽게 답하지 못했었다.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 NGO '더 멋진 세상'과 함께 마을을 멋지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NGO더멋진세상은 세계 각 본나바 마을에서 '더 멋진 마을(better villag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멋진 마을 사업은 최빈국가의 마을을 선정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마을이 바로 세계 각 본나바 마을이다.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마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 수도, 전기도 없는 가난한 마을

본나바 마을(Bonaba)은 세계 각에서도 시골이다. 수도, 다크르와 가깝지만 대도시와 거대한 호수에 둘러싸여 격리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도 좋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마을이다.

모래톱 위에 형성된 3개의 마을에 2천 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모래톱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겨우 농사를 짓고 산다. 전기도 수도도 없다. 먹을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을 곳곳에 우물을 파서 시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수량이 적다. 댐에서는 모래가 섞여 나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

마을사람들의 생활은 아예따랄까. 대부분 갈대떡을 얇은 작은 움막에서 산다. 어른 아이 모두 모래바닥에서 먹고 잔다.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소를 건설했다. 그러나 약품도 일손도 부족하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갈대떡 지은 교실 한 칸이 학교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마을 청년들이 NGO더멋진세상과 함께 세계 각 본나바 마을을 '더 멋진마을'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청년들이 우물 청소하는 모습.

NGO더멋진세상은 마을상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다. 보건, 교육, 환경, 식수, 농업 등 단계별로 돕기로 했다.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했다. 변화된 마을이 지역의 모범이 되어, 다른 마을도 변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하루하루가 다르다

NGO더멋진세상은 먼저 리더십들과 손잡았다. 마을 총장과 만정을 만나 마을 지원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후 군수를 만나 사업지원을 약속받고, 2013년 3월 NGO더멋진세상 봉사단원 1기를 파송했다.

질병에 노출된 주민들을 위해 의료 지원과 40여 종의 약품을 공급했다. 중환자 응급치료와 병원후송도 도왔다. 방약과 우물 공사, 쓰레기처리장을 건립했다. 케르발라 초등학교 건축공사도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압둘라이 칭닌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쓰레기를 모아 땅에 묻는 일을 시작했다. 공사현장 일손도 도왔다. 올해는 농업과 식수개선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사별 농장을 설치 운영하고, 유기농 비료를 만들 계획이다. 수도관 연결 사업도 추진한다. 지금 세계 각 본나바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더 멋진 마을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Interview

#### 광야에서 빛난 소망



김수영, 김연정, 백가수(왼쪽부터)

NGO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세계 각 본나바 마을에 파송한 김수영, 백가수, 김연정 선교사가 올해 초 입국했다. 그들을 만나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들어보았다.

#### 어떤 활동을 했나요?

“현장감독 및 행정, 교육 부분은 섬겼습니다. 우물 청소, 우물 탱크 점검사업, 마을 쓰레기장 건립, 초등학교 건축 등 마을사람들과 협력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한 주민이 자신이 농사지은 무를 주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주고 나누려는 그들의 모습은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항상 먼저인 사해 주지만 할머니께서 우리가 떠날 때 직접 찾아와 환송을 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자신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백가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김연정: '소망입니다.  
김수영: '하나님을 만난다는 광야처럼입니다.'"



칼럼 김광동 장로(NGO더멋진세상 CEO)

## NGO더멋진세상, 영적 최전선에 서다

지난 2010년 8월 하용조 목사님이 소청하시기 1년 전 필자에게 인종과 종교,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지구상에서 고통 받는 이웃들을 돕는 NGO를 설립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은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태동했다. 그해 12월 외교통상부에 NGO '더멋진세상' 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설립 다음해인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인 이와테현에서 3주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태국 홍수, 파키스탄 홍수, 미얀마 난민, 터키 지진, 시리아 난민지원 등 긴급재난구호활동을 활발히 펼쳐며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역개발을 통한 선교의 문도 열렸다. 현재 이슬람 세력이 남진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세계 각, 기니비사우, 르완다,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인도 등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더 멋진 마을'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내게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중앙아프리카에서 근무하게 하시고 오랜 기간 불어권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도 깨달았다. 인생의 파도가 맞닿는 것을 보며 전율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은누리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슬람국가와 같은 전방개척선 교지역은 낮은 개척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선교에 복음 건 북 목사님께서 NGO를 통해 중립적 색채를 띄우며 효율적으로 이슬람권이나 타 종교권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마지막 작업을 부탁하신 듯하다.

전방 개척선 교지역에서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활동이 요구된다. 땅을 굵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생존을 지원하고 도와야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특히 지독한 빈곤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지역개발은 시급한 일이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오일 달러를 등에 업고 금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분포도를 보면 과거에는 중동과 지중해에 밀착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인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수단, 차드 등의 나라들로 점차 남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경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이슬람의 물량공세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시역하는 것이 영적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전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과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순종하며 동행하기를 기원합니다.

01

## 온누리M미션, 자원봉사자 모집

### 5월 11일 열방연합예배

온누리M미션이 다음 주일(11일) 드리는 열방연합예배를 섬겨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장소세팅 인원 20명(토요일 오후 2-6시)과 주일행사 진행 인원 10명(오전10시-오후5시)이다.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고 있는 열방연합예배는 온누리교회 소속된 외국인 성도 500명과 한국 봉사자

1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다. 열방연합예배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 스리랑카, 네팔 등지에서 온 성도들이 참가한다.

예배에서는 이재훈 목사가 설교한다.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합심기도도 할 예정이다. 예배는 오후 2시 안산 관산중학교 체육관에서 드린다.

문의: 양옥진사역자 010-3337-3327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차이스타 러브터치 전도집회 후기



/ 주석(중국어예배부)

## 성경은 진짜다

내 고향은 갑림성 장춘이다.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국에 와서 신앙이 뿌리내렸다. 바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다. 새신자반, 일대일, 순도임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 19일,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차이스타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초대해 함께 갔다. 이날 말씀을 전하신 원지명 목사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큰 감동으로 남아 있다.

“성경은 가장 간단한 비유를 들어 인생의 가장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동안 나는 성경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만, 성경은 허구일거라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동안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날 원지명 목사님의 설교로 인해 의심을 떨쳐 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사람들을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요청하셨다. 집회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감격스럽게도 나와 같이 갔던 친구도 그 무리에 함께 있었다.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정도였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뻐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다. 굽은 길이든, 반듯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한다.

### 차이스타 러브 터치 전도집회는

\*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도집회다.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팀과 20여 교회 중국어예배팀이 연합해서 개최하고 있다. 차이스타(CHISTA)는 Chinese Student All nations의 줄임말이다.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운동이다.



01



시모노세키 기·도·제·목

- 5월 12일(월) 시모노세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도록
- 5월 13일(화) 모든 강사, 출연진, 참가자, 스태프 위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5월 14일(수)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집회 위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 5월 15일(목)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도록
- 5월 16일(금) 한국과 일본의 모든 봉사자들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 5월 17일(토) 일본 협력교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화합과 일치가 이뤄지도록
- 5월 18일(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일본에 계속 임하도록

02

선교지 이야기 \_ 루디아를 찾아서 2  
터키에서 손00선교사

### 쓰레기통에서 찾은 예수님

S도시에 도착했다. 이 도시는 작지만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 내리는 순간부터 호감이 갔다. 이곳은 셀죽 오스만 제국을 가지면서 학문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멘데레세라고 불리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단과대학이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탑과 함께 시내 곳곳에 버티고 서 있었다.

22년 전,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여름 단기팀으로 터키에 와서 사역을 했었다. 그때 방문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S도시였다. 언어도 모르고 모든 것이 생소했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멘데레세 앞에 앉아 쉬고 있었다. 동양인을 처음 보는 터키의 어린이들이 내 주위에 물려들기 시작했고 졸지에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한참 동안 손짓 발짓을 하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나에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열떨결에 군대에서 배운 영성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나에게 정다운 웃음과 함께 감사의 박수로 응답해주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도시에서 그 때 만났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나를 기억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도시를 방문하기 전에 만난 자매에게 전화를 했다. 이 자매에게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다. 4-5명의 젊은이들이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모임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자매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예수님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다. 교회도 삼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카페에서 만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모임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만게 된 간증을 들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또 재미있는지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중 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B형제는 어느 날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고 돌아서는데 작은 책자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평소에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어왔는데 전도용 소책자였다고 한다. 읽으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 그 친구가 웃으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말이다.

다음 날도 조용한 식당 2층에서 젊은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가르쳐 주었다. 찬양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색해했지만, 곧잘 따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내가 매 주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다행히 가까운 K도시에 있는 현자인 리더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해 섬기겠다고 했다.

터키 81개 도 중에서 교회가 없는 43개 도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루디아를 찾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자고 사역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시작된 루디아 프로젝트 이제 1차 정탐을 마쳤다. 우리는 43개 도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으셨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서 루디아를 찾아내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 ‘화해와 평화’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 1,781명 참석 “예수님은 화해와 평화의 다리입니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는 한 마디로 ‘화해와 평화’의 장(場)이었다. 예수님이 시모노세키에 하나님과 사람, 한국과 일본을 잇는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놓았다. 지난 5월 15일,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집회에 일본인 1,781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일본인 62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한국에서 참가한 봉사자 200명은 일본인 참가자들을 내 몸처럼 섬겼다. 14일에는 일본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부흥세미나’와 찬양집회 ‘가스펠 나이트’가 열렸고, 15일에는 한일 양국 각계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CEO포럼이 개최되었다.



열방연합예배 현장

# “복음 듣고 전하게 하소서”

## 2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 540명 참석

지난 11일,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 현장. 열방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인산관산중화교 체육관에 모였다. 올해도 많은 이주민들이 참석했다. 처음 교회 나온 이주민들도 많았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540명 중 150명이 새신자였다. 20여 개국에서 온 지체들이 국경을 넘어 신앙으로 하나된 뜻깊은 날이었다.

### 예배로 하나 된 천국잔치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중국,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온누리M미션 17개 예배공동체를 일리는 피켓 뒤로 파부새과 생김새가 다른 이주민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다. 2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어색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어우러짐이 돋보였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열방연합예배가 시작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전양팀이 예배를 인도했다. 세월호 참사로 적막하고 침체된 안산 지역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날 처음 예배에 참석한 이주민들도, 온누리M미션 지체들도 모두 하나되어 전심으로 찬양했다. 열방연합예배에서는 참석자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 언어로 통역을 해줘야 한다. 예배참석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원봉사자들은 통역기를 준비했다.

이날 설교는 아제론 목사가 했다. 이 목사는 12개 언어로 예배드리는 자체들을 보면서 마치 천국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참석자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족과 나라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설교가 끝나고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열방의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듣게 해 달라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예배로 하나된 천국잔치였다.

### 열방을 섬기는 '온누리M미션'

“한국에서 일하는 형님을 따라 왔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에게 양복을 준다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레처럼 귀가를 때렸습니 다. 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호크진도사, 방글라데시)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 나은 인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아내를 몽골에 홀로 두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괴한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부르짖던 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마치고 돌아가 조국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B형제, 몽골)

온누리M미션에는 이와 같은 보석같은 간증들이 넘쳐난다. 이주민 근로자들을 섬기면서 맺은 열매다.

온누리M미션은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이다. 2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17개 예배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복음을 전한다. 예배, 양육, 금융, 교육, 집회, 다문화사



역 등을 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주민대상 안내 일제지상육(한국어, 영어), 한국어교사, 예배봉사

자, 무료의료서비스, 다문화자녀 영어교사 등이 필요하다. (문의 031-491-965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온누리M미션 예배 안내

서빙고 02-3215-3514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	예배 장소
네팔	14:30	402호
러시아	14:30	302호
몽골	14:30	401호
아랍	14:00	B102호
인천 031-491-9650		
열방예배	11:00	M센터   1층
네팔	10:00	M센터II   4층
러시아	10:00	M센터III   2층
몽골	10:30	M센터II   3층
미얀마	10:00	M센터   3층
방글라데시	15:00	M센터II   2층
베트남	14:30	M센터   3층
스리랑카	14:30	M센터II   4층
캄보디아	10:30	M센터   4층
태국	14:30	M센터II   3층
필리핀	15:30	M센터   4층
다문화 공동(다문화자녀)	11:00	M센터   3층
인천 032-437-9686		
몽골	14:3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031-651-9680		
몽골	11:30	평택 온누리교회



Mission Talk

김영철 목사(안산 은누리M센터)

##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국에서 벌 수 있는 월급의 10배를 번다. 고국에서 1년 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1달 만에 버는 셈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번 돈을 한국에서 쓰지 않는다. 자신이 계속 살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점에서 말이다. 지혜로운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번 돈을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시한부 비자(Visa) 인생을 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때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체류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 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지를 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인생 비자 기간이 머지않아 만료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인생비자가 끝나면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심판 받을 날이 있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는다. 덧없는 세상 가치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에 선택, 집중하여 살아간다.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외국인 근로자들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체류 기간을 어기고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부른다. 마찬가지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에 성(誠)을 쌓으며 살다가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불법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신다. "외모로 보시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벧전 1:17).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리스도인은 모두 본향을 그리워한

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월급을 보장해 주는 기회의 땅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향에 돌아갈 날을 사모한다. 그곳에 가족이 있고, 돈보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그 날을 더 간절히 사모한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을 그리워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의 정을 나누기를 힘쓴다. 누구든 가족과 조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면 가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강렬해지고 절실히 지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오래 될수록 주님을 더 그리워하고 천국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기억하자. 우리도 이주민임을, 우리도 한국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과 같이 이 세상을 잠시 순례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자. 지혜로운 나그네는 여행길에 성(誠)을 쌓지 않는다는 것을.





르포- 시모노세키 길 위에서 서다

#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후쿠오카공원을 지나니 관광한 편이 편해졌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 든다. 바다 위 간판대교를 지났다. 혼슈와 키타큐슈 지역이 한 눈에 들어온다. 현해탄을 가로지르는 간판대교. 우뚝 솟은 유메타워. 시모노세키 사내가 참 멋있다. 일본 제왕궁담게 위궁을 펼쳐고 있었다.

한국인들에게 시모노세키는 참 많이 아픈 땅이다. 불평등 조약으로 상처를 주고, 조상이 탄광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죽어갔다.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준 시모노세키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의 아픈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이다.

시모노세키 길 위에 서다. 도시를 걸으며 이곳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묵상했다.

## 예수 초상 밟고 지나가라

시모노세키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다.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1594년이다. 포르투갈인들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 프란시스코 사비에르(Francisco Xavier) 신부가 이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사비에르 선교사는 시모노세키에서 천황의 천척 이파구치를 만나 전도를 허가받았다.

1637년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30만 명 넘게 늘어났다.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반란까지 일어나자 위기감을 느낀 막부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왕비가 잦은 다리 위에 예수의 초상화를 펼쳐놓고 밟고 지나가도록 하여 피해가는 사람들을 색출해냈다.

시모노세키 역에서 조금 떨어진 하카에 순교자들을 기리는 신자기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석상을 모신 곳도 있다. 시모노세키 역에서 JR을 타고 3시간이 걸린다. 역에서 1km 정도 걸다보니 도로 한 칸에 기독교 순교공원이 있었다. 배교

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의 이름을 외친 순교자들을 기리는 비석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작은 정원처럼 꾸민 순교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나무와 돌, 주변 구조물들은 편리한 흔적이 엿보였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고 깨끗하게 정리해 둔 일본인들이 대단해 보였다. 그와 동시에 이곳이 사람들에게 잊힌 순교자들의 무덤이라는 것이 씁쓸했다.

## 조선에 상처를 준 바로 그곳

암전의편이 끝나고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 다시 문화교류를 하고자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인들을 한양으로 오게 하지 않는 대신 대규포 사냥단은 일본으로 파견했다. 그들이 바로 조선풍선사다. 조선풍선사는 1807년(선조 40)부터 1811년(선조 44)까지 모두 12년에 걸쳐 일본에 다녀왔다.

1807년에는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페리도 운행을 시작했다. 시모노세키는 한일 양국을 잇는 해상 중심지였다. 메이 지유신 이후 근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은 불평등조약을 조선에 강요했다. 당시 청나라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불평등조약이 바로 이곳 시모노세키에서 체결되었다. 한국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조약이 체결된 곳은 당시 요정으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현지에서 만난 리카마루 조구오 박사는 그 장소에 대해 "그곳은 일본의 패배의 유산으로 볼 때마다 겸허해진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23일 아키히토(明) 천황은 자신의 예수여덟 번째 생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천황 가문에는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천황의 이 말은 한국과 일본의 인연을 이야기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은 흥인선과 일본의 관계가 서박해진 후다. 한반도에 근대국가 탄생하는 시기 300년 무렵부터 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인들은 외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

다.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왕을 죽이면서까지 싸웠지만 백제와 왜는 한번도 싸운 적이 없다. 백제는 왜에 문명을 전해주었고 대신 수시로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이란 불평등조약 강제징용으로 무너졌던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화된 것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부터다. 일본에는 '가카다시마'라는 작은 섬이 있다. 이곳에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오비야우라 동굴이 있다. 동굴 옆 끝짜기에는 갖태어난 무령왕을 목욕시켰다는 우봉도 있다. 가카다시마의 주민들도 백제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해들은 충남 공주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2006년 가카다시마 항구 가까이 무령왕 탄생 기념비도 제작하였다. 2012년에는 제주올레길이 일본으로 수출되어 '규슈 올레'가 만들어졌다.

## 러브소나타 울러 퍼질 때마다

이제는 막사는 지난 5월 15일 시모노세키 시민회관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한국과 일본이 예수님이 놓은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건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코스친CEO포럼에서도 진정한 의사의 화해와 평화는 정치적 입장과 자국의 이익을 뛰어넘어 양국이 하나님의 청사기로 쓰임 받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한일 양국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화해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린 화해와 평화의 손을 붙잡으면 좋겠다. 그것이 러브소나타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스무 번 울러 퍼진 러브소나타를 통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 오카와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시모노세키에 울러 퍼지는 동안 과거의 아픔도 그 어떤 이도 내려놓았다. 이것이 러브소나타를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온누리교회는 끝까지 일본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본에서 쓴 Acts 28 비전이기 때문이다. / 정지는 기자



# “내 사랑 일본”

## 봉사자들이 들려준 러브스토리

러브소나타 집회에 사용된 화관을 만든 류석인 권사는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에 다른 곳보다 기도를 두 배 더하고 왔다고 한다. 일본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류 권사가 일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류 권사의 일본 사랑이야기가 궁금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화관을 맞았어요. 그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당시 학교에서 모내기를 했는데 한 아이의 다리에 거머리가 붙었어요.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일본인이었는데 거머리를 떼어 주시는 거였. 한국인을 비하하는 욕을 했거든요.”

그때 그 기억으로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2007년 은누리교회가 러브소나타를 집회를 시작했다. 오기 시작했다. 그때 류 권사도 함께했다.

“우리 교회가 일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러브소나타를 생각하면 류 권사의 마음에 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화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러브소나타에 계속 참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 참가를 앞두고 화개가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박해되었던 일본인들에 대한 미움은 봉사하는 마음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기도를 두 배 했다. 봉사도 더 열심히 했다. 일본인들을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시모노세키가 아베 총리의 고향인 만큼 아베 총리도 일본의 모든 정치인들도 러브소나타에서 써주는 화관을 쓰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봉사했다.

일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성도는 류 권사뿐만이 아니다. 일본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손길을 헌신한 성도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류혜원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일본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비전을 이어받아 러브소나타에 참석했다.

“일본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암 무병을 하셨다. 할아버지가 무병 중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바로 일본선교다. 할아버지는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 비전을 이어받았다. 어머니와 함께 러브소나타 봉사자로 참석하기로 했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그녀 혼자 오게 되었다. 그녀의 비전은 하나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예수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녀의 일본 사랑이 끝이 없다. 일본을 향한 기도도 계속하고 있다.

김인성 형제(Point공동체)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일본인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봉사자로 헌신했다. 그동안 일본을 위해 중반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다고 했다.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마음도 선물 받았다고 한다.

“일본은 놀러오는 곳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재훈 목사의 초청으로 러브소나타에 처음 참석한 변창욱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는 러브소나타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러브소나타는 문화뿐만 아니라 의료적 시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 시모노세키에서 만난 사람들



# “천국을 향해 행진”

## 러브소나타는 평양대부흥 떠올려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라카마루 초구오 목사(카타큐슈시온교회)는 러브소나타 집회를 앞두고 심례는 마음을 간혹 같이 없었다. 시모노세키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는 내내 그랬다.

라카마루 목사가 러브소나타를 그토록 기대하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다. 라카마루 목사의 아버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1907년 평양대부흥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당시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그의 가족들은 후쿠시마로 대피했다. 조선과 평양을 지나 유럽으로 갈 계획이었다. 우연히 평양 대동강 일본인교회에서 개최한 전도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라카마루 목사가 태어나자 그의 아버지는 매일 밤 평양대부흥 이야기를 해주었다.

“천사들이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것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들고 찬송을 부르며 교회로 달려 들어갔다고 한다.

라카마루 목사는 시모노세키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가 들려줬던 평양대부흥이 떠올랐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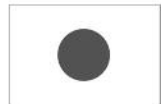
울었다고 했다. 시모노세키 집회에는 37명의 일본인 봉사자들도 함께 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하는 후지무라 레이코 성도(시모노세키그리스도교회)는 일본인을 사랑하는 한국인을 사랑해서 봉사자로 헌신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담아 왔다.

야마구치 시에서 온 마츠다 씨는 목사인 친구를 따라 러브소나타에 오게 됐다. 그의 고백이 진솔했다.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심수봉을 좋아해서 러브소나타에 왔다는 세노 하즈미 씨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는 그 어느 때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들이 협력했다. 카타큐슈를 포함해서 후쿠오카 현과 야마구치 현이 러브소나타를 준비했다. 꺾기기도회도 세 번 진행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80여 교회가 협력했다. 교류가 없었던 목회자들이 하나되어 기도로 준비했다. 러브소나타를 마친 지금 교류회를 만들 예정이다. 러브소나타가 만들어준 기적이다.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끝까지 사랑하는 ‘평택 온누리교회’

## 변화하는 도시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전한다



평택 온누리의 수요영성예배 모습. 이날은 수원 온누리교회 조동욱 목사를 초청해 성령집회로 꾸며졌다. 조 목사는 예배를 찾은 성도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난 지난 수요일(14일) 평택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한 시간여 남짓 가면 평택이다. 평택은 수원과 천안 사이에 있다. 평택역 광장으로 나오자마자 노란 리본들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평택시민들의 추모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평택역에서 택시로 약 10여분 거리에 평택 온누리교회가 있다. 교회에 들어서니 수요영성예배에 앞서 모든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평택 온누리교회에 대해 물었다.

평택 토박이 한태희 전도사가 포문을 열었다. “평택(平澤)은 ‘평평하고 운택한’이라는 뜻입니다. 산이 낮고 하천이 발달한 평야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해가고 있어요. 변화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명 설명을 들으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처럼 지금 평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7시30분. 수요영성예배가 시작됐다. 이날 예배는 수원 온누리교회 조동욱 목사를 초청해 성령집회로 꾸며졌다. 이날 조동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예배에 참석한 평택 성도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를 해줬다.

### 외국인 근로자 전도에 중점

평택은 물류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인천항의 과부하 된 물류량을 대체할 수 있는 평택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도 개통됐다. 2015년에는 KTX 신평택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해안 복선전철도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은 약 120만평에 달하는 ‘평택고덕산 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위성도시에서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 근로자들을 놓치지 않는다. 몽골어예배, 인도네시아 예배, 캄보디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늘(18일)은 평택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을 전도하기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CMN팀과 평택 온누리교회 공흥사역팀(이미용팀)이 손잡고 의료선교봉사를 실시한다. 해마다 2-3회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평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바로 평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흐름에 발맞춰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평택 온누리교회의 저력이 기대된다.

/ 청원주 기자 joo@onnuri.org

### <목회 일정>

#### 5월 가정의 달 특강

18일 : 비전교정(노희태 목사)  
25일 : IT와 영적 문화 전쟁(한장규 집사/소망교회)

#### CMN 의료선교봉사

서울의료선교사역팀과 평택이미용팀 연합사역  
일시 : 18일(금일) 오후 2시  
장소 : 파워웨이브 교육관  
대상 : 평택 거주 외국인/몽골인/인도네시아/캄보디아  
봉사내용 :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전도

####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평택2기

학습기간 : 6월1일-7월13일  
일정 : 매주 주일 오후4시-7시  
문의 : 010-3311-2233

01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4일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서 보건소 착공식을 거행했다.

## 아프리카에 보건소 세운다

### NGO 더멋진세상

의료시설이 없어 진료 받기 어려웠던 아프리카 산골마을에 보건소가 세워진다.

지난 14일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보건소 착공식'이 거행됐다. 착공식에는 르완다 르와마가나 시장과 보건소 관계자, 지역 리더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응호망과 마을은 르완다 수도 키갈리(Kigali)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

도 떨어진 곳이다. 전기와 식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그냥 참거나 한나절을 걸어 보건소를 다녔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의 사정을 전해들은 NGO 더멋진세상이 현지에 보건소를 세우기로 했다. 보건소는 8월 초 완공된다. 완공 즈음해서 온누리교회는 의료팀 15명과 청년봉사단, 더멋진세상 실행위원 등 30여 명이 응호망과 마을로 아웃리치를 떠나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정경화 교

수의 바이올린 연주회도 기획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응호망과 마을을 더멋진 마을로 만들기 위해 식수와 전기, 농장, 사업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2271-224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이슬람의 이해와 문화

### 온누리세계관학교, 5월 19일 포럼 개최

온누리세계관학교가 '이슬람의 이해와 문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5월 19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재환 선교사다.

이번 포럼의 취지는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책이

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이슬람의 6신 5행 ▷모스크 중심의 삶 ▷할랄과 하람(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 ▷일부다처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등록: ischool(www.ionnuri.org)

문의: 성지중 총무

(010-3771-0107)

03

##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24일, 서빙고 두란노빌딩

2천선교본부에서 온누리교회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오는 24일(토) 서빙고 두란노빌딩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선교와 5대 선교기관 소개, 온누리 선교사로 허입되는 과정 등을 알려준다. 선교 리더십과의 만남을 통해 상담도 할 수 있다.

/ 조은실 기자



## 문화한류 넘어 선교한류로

“혹시 한국사람이세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아! 제 딸아이가 한국을 정말 좋아해서 그러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  
처를 여쭙 봐도 될까요?”

“네, 물론 괜찮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방도시에서 사는 한국인이란 중종 겪는 일이다. 요즘만큼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때가 없다. 언제부터인가 인도네시아에도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한류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2년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래, 현지방송국들은 ‘대장금’, ‘풀하우스’ 등 50여 편 이상의 한국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드라마 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K-POP에 열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이돌 그룹 ‘Galaxy S4’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돼 1년 동안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데뷔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자카르타에만 100여 곳이 넘는 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국열병(Denam Korea)’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부는 문화한류 기류가 거세다. 사실 인도네시아에는 문화한류에 앞서 교회를 통한 ‘영적한류’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은 소수다. 그들에게 한국교회의 경이적인 성장과 기도 열기는 상당한 영적자극과 격려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꼭 한 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필자는 그들과 함께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말씀사랑, 순교적 신앙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기류가 필요한 때다. 문화한류, 경제한류, 영적한류에 이어 ‘선교한류’가 일어나야 한다. 인도네시아에도 수많은 대형교회들과 교단들이 생겨나고 있다. 더 이상 한국교회의 외형이나 성장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성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교회의 열기나 영성이 예전 같지 않다며 오히려 염려해주시까지 한다. 염려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수 없다. 한국교회에는 여전히 선교적 영성이 있지 않은가!

인도네시아 2억5천만 인구 가운데 2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무슬림을 향한 기독교의 선교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주류교단들은 선교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다보니 무슬림 세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하기 그지없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영성위에 세워진 교회다. ‘Acts29’ 비전은 온누리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다. 모든 교회들이 공유해야 할 비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선교한류를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 밖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중들이 한국하면 드라마나 아이돌 가수를 떠올린다면,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한국하면 선교하는 나라, 또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순교적 영성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의 나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01

## Acts29비전빌리지, 6월 특별집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팀에서 6월 한 달 동안 특별집회를 연다. 주제는 '하나님의 부흥'이다. 이번 집회는 나라와 민족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마련됐다. 디아스포라, 새터민, 선교사 등을 초청해 알찬 강의도 이어진다. 문의: 이일표 간사 (010-2693-7063) / 조은실 기자

날 짜	주 제	강 사
6/3(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피터 양 선교사(코나 열방대학 DTS리더)
6/10(화)	하나됨을 위한 실제적인 삶	민경일 집사(북한선교학교팀장)
6/17(화)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고형원 선교사(부흥한국)
6/24(화)	부흥을 위한 믿음과 제자의 삶	김권능 선교사(탈북 사역자)
6/25(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어떻게 기도 할 것인가?	오 테레사 선교사(중보기도사역)

02

## 정경화 자선콘서트 티켓 판매

오늘부터 정경화 자선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오늘과 다음 주일(6월 1일) 서빙고와 양재 은누리교회 로비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주중에는 서빙고 2천선교본부, 양재는 목회지원실에서 판매한다. 정경화 자선콘서트는 오는 6월 13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된다. 일부는 한국의 어린 음악가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2-2271-2246

03

##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박승철 선교사 추모 가족음악회가 오는 6월 1일 오후 5시, Acts29비전 빌리지 박모세홀(지하1층)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박승철 선교사 아내 김혜정 선교사와 자녀(성호, 진원)들이 직접 연주에 참여한다. 또한 손인경(바이올린), 배일환(첼로), 이민정(피아노)이 호흡을 맞춘다.



러브소나타 참가 후기

## 9년 만에 다시 찾은 '내 사랑 일본'



/ 최민정 성도(수원 은누리교회)

직장에 휴가를 내는 것이 여의치 않아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에 참가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남편의 권유도 그렇고, 회사업무가 조정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러브소나타에 참가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시모노세키에 보내시는지는 몰랐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던 중 8년 전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다.

나는 시모노세키에서 1시간 반 떨어진 하기시(아마구치현)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NHK뉴스를 보던 중 내가 살던 마을 근처에서 아들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사건을 접했다. 그 뉴스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 곳에 살면서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했다. 앞으로는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하며 중보하겠노라고 기도했었다.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8년 전 내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시모노세키를 위해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B-2팀에 소속되었다. 가스펠 나이트가 열리는 날 일본에 도착했다. 후쿠오카공항을 나오니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집회 당일에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다. 이동하던 중, 시야에 관문교가 보였다. 유학시절 수없이 건넌 관문교를 9년 만에 다시 건너니 감회가 새로웠다. 공부를 하기 위해 왔었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왔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행어나 비가 올까 팀원들 걱정하며 팀원

들 모두가 함께 기도했다. 다행히도 러브소나타 행사 당일에는 맑은 날씨를 허락해주셨다. 러브소나타가 시작되었다. 대홀이 꽉 차서 중홀에 자리를 잡았다. 중홀에도 일본인들이 와 있었다. 그 중에 어린 부부 두 커플과 아기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저들이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중간에 가버리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끝까지 메시지를 듣기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끝까지 남아 종이비행기도 날리고 화관도 썼다. 그분들이 결심 카드에 어떻게 기입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중보하면 언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 날, 우리팀은 '우베신쇼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했다. 신학교 동기였던 남편을 여윈 에이코 목사님 홀로 사역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며 불평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베신쇼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 우베 지역 복음화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에이코 목사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평택 외국인 근로자 의료선교 후기

/ 이종길 집사(평택 은누리교회)

## 가장 좋은 설교, 가장 고귀한 사랑

“슬라맛 소래?” (인도네시아어)  
“첸베세노?” (몽골어)  
“썬썬쓰다야?” (캄보디아어)

지난 18일 오후, 조용하던 평택 은누리교회가 소란해졌다. 각국 언어로 인사하는 소리다. 은누리 의료선교팀이 평택 은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사랑고 의료선교팀은 1년에 두 차례 평택 은누리교회를 방문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자원을 해주기 위해서다.

의료선교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의료팀이 오는 날을 가장 절실히 기다린다. 이날도 평택, 안성, 천안, 오산 등지에서 외국인 50여 명이 찾아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다.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지를 구하는 일, 일지리를 알아보는 일, 물건을 구입하는 일 등 무엇 하나 쉬운 일이 하나 없다. 게다가 몸이 아파도 아프면 큰일이다. 치료받는 것은 염두도 못 내고 아픈 몸으로 일 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의료선교팀은 예수님처럼 반가운 존재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온지 3개월째인 다윗 형제

는 치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벌어 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염두도 못 내던 터였다. 그는 의료선교팀이 해주는 치료를 받고 통증이 완화되었다.

프나이 형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허리가 아파고 생하고 있었다. 고향에 메달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처지에 일을 그만 둘 수도 없었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의료 선교팀은 그를 치료해주고 약도 처방해 주었다. 프나이 형제는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치료 받을 방법도 알려주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귀가 아픈 다니엘 형제, 관절이 아픈 에다스시 형제, 스켈링을 해야 했던 썬나 형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계를 자매 등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체험했다. 평택 은누리교회 인근에서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는 박요한 목사는 “외국인 형제자매들은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고 가더라도 많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은누리교회 의료선교팀 덕분에 친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말

했다. 진심 어린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선교팀의 헌신 덕분이다. 의료팀은 마치 훈련된 전투팀 같다. 많은 장비와 진료기구들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능숙하게 배치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헌신해온 경륜을 느낄 수 있다. 쓰러진 링거 거치대를 노곤으로 고정하고 진료한 내과팀, 구슬땀 흘리며 침을 놓은 한방팀, 손놀림이 능숙한 약제팀, 따뜻한 위로와 함께 초음파 결과를 알려주는 검사팀 등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접수대에서는 간호사 출신 집사님이 15년째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대하고 있었다. 올해 77세 된 집사님 한분은 20년 째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그분들의 모습이 위대해보였다.

의료선교는 은혜고, 감사고, 사랑이다. 팀을 구성하고 재능과 물질로 헌신한 분들의 땀과 헌신이 감동적이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설교요,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다. 사랑의 의미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의료팀에게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 알쏭달쏭한 인도네시아인의 마음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어느 결혼예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초대 받은 예식장은 골목이 복잡해 주소만 가지고는 찾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예식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길가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에게 길을 물었다. 그는 친절하게 한참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택시요금을 줄 테니 앞장서 달랠'고 부탁했다. 그러자 당황해하며 "싫은 나도 길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왜 길을 아는 척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일까?

현지 문화에 무지하면 선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선교사든지 파송식 때는 포부와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면 전혀 다른 문화, 세계관, 행동양식에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는다. 실수를 반복한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간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 300여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매력 이 넘치는 나라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7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생각보다 가까운 나라다. 그러나 그들의 단면만 보고 그들을 모두 이해했다고 큰 소리 쳤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인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개 참 순하고 친절하다. 그러다보니 인도네시아에 잠시 아웃리치를 다녀간 사람들은 그들의 친절한 성품과 낙천성, 유쾌함에 매료되곤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오랜 기간 머물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허전함과 건조함을 느낄 때가 많다. 오랫동안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특별히 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솔직해지고, 허물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들은 관계 안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아니요'라는 말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 이런 특성을 잘 알기 때문인지 인도네시아인과 대화를 나눌 때 '아(ya, Iya)'가 정말 '예'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요'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문화인류학자인 김형준 박사는 인도네시아 전체를 주도하는 종족인 '자바 종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갈등의 부재상태와 외적인 화합을 유지하는 소위 'Rukun(화합)'이라 말한다. 자바인은 외적인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품위 있는 행동과 감정표현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내면의 동기나 진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갈등을 피할 수만 있다면 표리부동한 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 즉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 미덕이 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운전수가 물건을 훔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인 선교사가 운전수를 공개적으로 야단치며 훈계했다. 그런데 현지인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선교사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란 기억이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섬겨온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알쏭달쏭 잘 보이지 않는다. 언제쯤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허물 없이 지내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아야 하는 것일까? 문화, 참 어렵다.

21세기 新선교 트렌드

# 왜 과학기술 선교인가?

아프리카에서 물을 구하는 일은 녹록치 않다. 몇 십 킬로미터를 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물 떠오는 일은 대부분 여자와 어린이들이 한다. 사용하기에 양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드럼(Q Drum)' 물통이 개발됐다. 큐드럼은 도넛 모양의 플라스틱에 끈을 달아 만든 물통이다. 이 물통을 이용하면 손쉽게 물을 운반할 수 있다. 평소 한 사람이 뜰 수 있는 양의 5배 이상 뜰 수 있다. 이것을 적정기술이라고 한다. 선교지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적정기술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과학기술 선교가 뜨고 있다. 21세기 新선교 트렌드 '과학기술 선교'를 소개한다.

/ 정현주 기자 joo@annuri.org

## 소외된 90%를 위한 착한기술을 선교에 접목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간은 최첨단 기술에 둘러싸여 있다. 노트북, 인터넷,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과학기술 발달로 만들어진 기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70억 인구 중 10억 명은 아직도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하루 수입은 2달러가 되지 않는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모기장이 없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전기가 없는 곳은 허다하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제3세계를 돕기 위한 친환경·로테크(low tech)기술을 총칭해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이라고 한다. 비싸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을 이용할 사람들의 형편에 맞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이 적정기술의 필요조건이다.

적정기술은 첨단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이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마을을 밝혀준 것은 태양열 램프(Solar lantern)였다. 적정기술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활용된다. 저렴하고 간단한 기술로 기후변화나 재난에 대비하는 착한기술이다.

### 적정기술의 역사

적정기술의 시초는 비폭력운동을 전개한 인도의 '간디'다. 그는 영국의 값싼 직물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인도경제가 큰 타격을 받자 직접 물레를 돌려 직물을 생산했다. '빈곤해결은 대량생산

기술이 아니라 대중에 의한 생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그의 철학을 대변해준다.

이런 간디의 사상은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를 쓴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에게 영향을 끼쳤다. 슈마허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대중에 의한 생산기술을 제안했다. 저개발국의 토착기술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부자들의 저대기술에 비해서는 값싸고 소박하다면서 이것을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고 명명했다. 이 중간기술이라는 용어가 '적정기술'로 바뀌었다. 구호개발기구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례

적정기술은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적정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휴대용 정수기다. 빨대안의 필터가 오염된 물을 정화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

아프리카 농민들을 위해 개발한 수동식 간이 펌프 '머니메이커(Money Maker)'도 인기다. 밭고 밭아서 농작물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기계다. 이 기기를 활용하자 농민들의 소득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아프리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필리핀의 가난한 마을 'Siño Maligaya'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둡다. 이곳 사람들에게



큐드럼(Q-Drum) 물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통이라고 불린다. 한번에 50L의 물을 담을 수 있다. 풀 수 있어 물통을 들거나 이는 것보다 힘이 훨씬 덜 든다.

게 페트병 전구가 빛을 선물해줬다. 지붕에 구멍을 뚫고, 정제수와 표백제를 넣은 페트병을 끼웠다. 태양과 달빛이 굴절되는 원리를 활용했다. 이 둘을 밝히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말라리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모기장 '파넷(PamaNet)'도 있다. 스무번 이상 세탁해도 4년 동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한 제품이다. 대한민국 적정기술 1호인 'G세이버(G-saver)'는 추운 나라 사람들을 위한 난방기다. 1년 중 7개월이 겨울인 몽골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

다. 몽골사람들은 생활비 중에 난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 매연과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추위를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 'G세이버(G-saver)'는 열효율이 높고, 매연은 줄인 축열기다. 몽골사람들의 생활개선과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항아리 냉장고(ut-in-pot)'도 빼놓을 수 없다. 질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 사이에 젓은 모래를 넣으면 완성되는 간단한 장치다. 항아리 냉장고를 이용하면 열대지방에서도 이삼일 가량 식품을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다. 운송수단이

### 적정기술 관련 단체 및 사이트

#### ▷국내 적정기술 단체

- 굿네이버스: [www.goodneightborskr](http://www.goodneightborskr)
- 국경없는 과학기술지회: [www.szw.org](http://www.szw.org)
- 국제기이대학가구: [www.kfhi.or.kr](http://www.kfhi.or.kr)
- 나눔과 기술: [www.stweb.net](http://www.stweb.net)
- 에너지팜: [www.energyfarm.or.kr](http://www.energyfarm.or.kr)

#### ▷국의 적정기술 단체

- 킵스타트: [www.kickstart.org](http://www.kickstart.org)
- IDE: [www.wide-international.org](http://www.wide-international.org)
- ▷기타 적정기술 관련 참고 사이트: [www.theuntoday.com](http://www.theuntoday.com)



### 적정기술 참고도서

####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김정태·홍성욱·지음 / 실림 출판사 / 4800원

####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스미스·노먼 연구소 / 에디터월드 출판사 / 20500원

#### <소외된 90%를 위한 비즈니스>

폴 폴락·지음 / 데퀘스트 출판사 / 15000원

#### <국경없는 과학기술자들>

이경선 지음 / 뜨인돌 출판사 / 18000원

문의: 온누리교회 과학기술선교팀

이일형 팀장 010-3034-1660

성지성 홍무 010-3771-0107







솔라랜턴(Solar Lantern): 낮에 태양 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 축전기에 저장했다가 밤에 LED전등을 켜는데 활용한다. 밤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햇빛 영화관', 태양광 전력을 이용, 이동이 용이해 오지에서도 운반, 설치 가능하다.

나전기가 없는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페달을 밟아 드럼통을 돌려 싹대하는 '자전거 세탁기'도 있다. 태양열을 모아 음식을 조리하는 '태양열 조리기', 사탕수수로 만든 '숯', 버려진 캔과 땅콩기름을 이용해 만든 '깡통라디오', 종로차로 만든 '인큐베이터' 등 적정기술을 활용해 만든 기기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적정기술**

우리나라도 적정기술을 제3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효성 블루월턴저는'은 취약성이 소외된 지역에 적정기술로 희망을 전하기 위해 가내체

과 함께 출범시킨 대학생 봉사단이다. 국내 최초 적정기술 봉사단이다. 이들이 만든 '블루스토브'는 실내에서 장작을 때 난방과 요리를 동시에 하는 기기다. 실내오염이 가장 심각한 베트남 등지에서 각광받고 있다. 내부에서 완전연소를 시켜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기를 줄여 실내공기 오염을 막는 것 외에도 장작 채집으로 인한 산림 파괴도 막아 준다.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숯을 이용해 난방 및 취사도 한다. 'LG 친환경 적정기술 연구회'의 활동도 눈에 띄어 볼만 하다. 이들이 개발해 아프리카에 보급한 '솔라멀티차저(Solar Multi Charger)'는 태양광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제품이다. 사회제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휴대전화냐고 하겠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 휴대전화는 이미 생활의 일부다. 문제는 전력인데 태양광을 이용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LED램프도 충전할 수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햇빛 영화관' (HATBIT LAB)도 있다. 인콰트루저권실링 회사인 MYSC와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이 함께 만들었다. 주민들의 필요와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전력은 태양광 발전으로 사용한다. 이동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2012년 말라위, 2013년 에티오피아, 올해는 네팔의 고아원에서 시범사업을 펼쳤다.

**비로 그 방법 '적정기술 선교'**

그렇다면 왜 적정기술 선교가 21세기 新선교의 트렌드인가?

선교의 주 대상 지역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이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가난하고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삶의 질이 낮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지역들이다. 이 지역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다.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에너지와 식량을 찾아주고, 교육서비스와 소득을 높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래서 적정기술 선교가 각광 받을 수밖에 없다. 베고픈 지역에서 관제전도는 한계가 있다. 관계전도가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적정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선교가 좋다고 해도 현지 사람들의 요구와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일방적인 태도도 금물이다. 현지인들이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햇빛 영화관'을 통해 선교지에서 기독교 영화가 상영되는 장면은 상상해보자. 한 번도 영화를 본적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성경도 없고, 선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무엇보다 강력하게 선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적정기술은 저렴하고 간단하다. 적정기술은 희망을 준다. 적정기술은 따뜻하다. 적정기술에 선교를 더하니 금상첨화 아닐 수 없다.



**Talk & Talk**  
박대호 장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들의 삶에 기여한 공로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과거처럼 인류 모두에게 혜택이 나눠지지 않고 있다. 시장의 요구에 맞춰 제품에 대한 연구가 설정되고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매력이 부족한 절대빈곤층은 해남기술에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반감계도 반세기 전 수마허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적정기술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은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단지 기술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개발 흐름에 대한 반성 및 문제점 지적, 기술개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로 확장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우리 생활 주변뿐 아니라, 전기와 식수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는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로 여러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전파되어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오염된 물로 인해 하루에 6천여 명이 사망하는 짐에 착안하여 개발한 빨대형 정수기 라이프스트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밭과 밭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마나메이커, 전기가 필요없는 램(Ram)램프, 화력엔진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폐해가 없고 연기 인내는 안전 화로,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기구(Solar Cooker)와 간이전등(Solar Bulb Light), 밤새 안나는 위성 화장실

(VIP)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많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적정기술은 이제 '인간과 기술의 만남'으로 인식되고 있고, 적정기술이 요긴하게 사용되는 빈곤국이나 개도국의 대부분은 우리의 선교지다. 그런 까닭에 이런 나라들의 적정기술 이전(移轉)에는 크리스천 과학자와 기술자들, 소수의 선교사들의 헌신이 숨어 있었다. 이제 선교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사이에 적정기술은 공분화되어야 하고 더 넓고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더구나 잠으로 적정기술의 원조는 예수님 아니신가! 이렇게 사시면서 하늘나라의 것을 세상에 '적정'하게 구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후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잘 기능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또한 영혼 구원과 함께 그들의 세계관과 삶까지도 구원사신 예수님의 선교방식을 따르려면 이 시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적정기술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잘 알고 더 선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선교지 차원에서의 적정기술활용을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할 기본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단순히 유용한 도구(Tool)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부분 적정기술은 그 원리와 사용법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적용을 가깝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직접 체험해보고 고민해봐야 쉽고 간단한 '생명력있는 유용한 적정기술'이 된다.

**적정기술과 선교**

둘째, 기화단체부터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 자원활용의 극대화, 현지에서 부품구입의 용이화, 쉽게 배우고 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현지 자연환경과 생태계 및 문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인들과 시차단체부터 함께할 때 이런 과제들은 쉽게 해결된다.

셋째, 현지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에는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므로, 현지인들에 의한 유지와 비용부담 뿐 아니라,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적정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은 규모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로 기획해 진행하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그들이 주도권을 갖게되어 이양도 쉬워진다.

인도의 자생 적정기술 NGO인 맨발대학교(Barefoot College)에는 재미있는 슬로건이 있다. '할머니를 훈련하여 세상을 바꾸자(Train a grandmother, change the world)'이다. 이 학교에서 6개월정도 훈련받은 할머니들이 지역사회를 이루고, 언어장벽이 있는 아프리카와 아프리카니스스칸까지 파견 나가 솔라에너지 기술을 가르치고 그 지역사회에 변화를 불어넣는 주인공이 된다. 적정기술을 배우는데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 적정기술 배우기에 뛰어들어보자!

01

## 박승철 선교사 추모 가족음악회

6월1일 오후 5시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교회 최초 순교자 박승철 선교사 추모 가족음악회가 열린다. 6월1일 오후 5시 Acts29 비전빌리지 박모세홀에서 박승철 선교사 추모 가족음악회가 막 오른다.

이번 가족음악회에는 박승철 선교사의 유가족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손인경(바이올린), 배일환(첼로), 이민정(피아노)으로 구성된 소마트리오 협연도 준비 중이다. 행사 당일 오후 3시에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행사장으로 출발하는 차량이 준비된다.

문의: 02-3215-3208

02

## 다문화가정과 함께 캠핑 갑시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캠핑이 오는 6월21일(토)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 오토크캠핑장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은 다문화가정과 온누리교회 성도 가정이 함께하는 이번 캠핑이 인종과 국가, 문화를 뛰어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캠프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가정당 12만원(최대 5인까지)이다. 텐트를 비롯한 캠핑 장비와 식재료가 제공된다. 신청은 6월13일(금)까지 받는다. 30가정 선착순 모집이다. 15일(주일) 오후 1시에는 캠프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장소는 추후공지. 문의: 정성은 간사

(02-3215-3313, 3434)

예민수 팀장(010-3426-4038)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창의적 선교방법을 개발해야 할 때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기다. 약한 나라들은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 절실했다. 선교지에서 고등교육기관 설립 요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KIMAP, 키르기스스탄의 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 아프가니스탄의 American University, 몽골의 3개 선교대학교 등 수많은 대학들이 설립했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선교지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환영하고 있다. 현지 학생들도 입학할 것 같아 환영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설립된 선교대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9개나 된다. 한국정부도 과거에는 KOICA 단원만 파견하다가 요즘은 'KOICA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TPC라는 이름으로 공학전문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랄프윈터 박사는 선교지에 신학교를 설립했지만 기독교대학을 설립하지 않은 것을 미국선교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신학교는 신학생만 배출하지만 일반 대학교는 다양한 영역의 인재들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배출된 다양한 영역의 리더들이 그 나라의 리더가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

매년 신입생들이 입학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 사제관 계도 형성이 되고, 각 영역에서 크리스천 인재들도 양성할 수 있다. 교환학생, 연구소, NGO 등 한국과 연계활동도 가능하다. 이처럼 교육선교는 다음 세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場이다. 영역별 크리스천 전문가를 배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다. 교회개혁의 모판이며, 공동체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다양한 사업 형태로도 확대 가능하다.

MIU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miu.edu.mn) 학교는 2002년 몽골 대통령 바기반디의 요청으로 설립된 특화된 4년제 국제대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교수진은 해외 11개국에서 왔다. 30%의 학생들이 시베리아, 중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프리카 등 1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다. 현재 7개 학과 750명의 학부학생, 2개 대학원, 60여 명의 교수진, 70여 명의 스태프가 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부설기관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국제 중·고등학교도 있다.

언어별로 소그룹 및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모임이 있다. 학생들은 아침 기도모임, 언어별 주일 예배, 교수와 학생들의 성경공부 모임, 미션트립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비자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교회개혁과 신학교를 설립하고자하는 패러다임으로 사역을 했다. 그런데 그 사역 패러다임은 현지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선교사에게 현지에서 요구하는 영역을 섬길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면 어땠을까. 창의적인 선교방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를 주관하시며, 경영하신다. 우리는 눈을 넓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교지를 섬겨야 한다.

01

## 다문화캠프 참가할 30가정 모집

### 1박2일 캠프, 13일까지 신청 가능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 캠프가 오는 6월 21일(토)부터 1박2일 동안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 오토캠핑장'에서 열린다.

다문화사역팀에서는 "30가정의 다문화 가정과 30가정의 온누리교인 가정이 연합해 인종과 국가, 문화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

등학생 자녀가 있는 온누리 교인이다. 각가정당 12만원(최대5인까지)의 참가비가 있다. 아영장소와 텐트 및 장비, 식재료 등은 제공된다. 오는 6월 13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15일(주일) 오후 1시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장소 추후공지).

문의: 정성은 간사(3215-3313, 3434)

예민수 팀장(010-3426-4038)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2

## “박승철 선교사님 그림습니다”



지난 1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박승철(박모세)선교사 추모음악회. 박선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가족 음악회였다. 박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이름지은 박모세홀에서 열린 음악회라 더욱 뜻 깊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박선교사의 자녀 박성호(기타리스트), 박진원(소프라노)과 신주연(플루트)의 연주, 소마트리오(손인경, 배일환, 이민정)의 연주가 빛났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3

## Acts29비전빌리지 연합부흥회

Acts29비전빌리지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연합부흥회를 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피터 양 선교사(코나 열방대학)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제로 연합 부흥회를 인도했다. 90여 성도들이 참석했다. 연합부흥회는 7월 1일까지 이어진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Acts29비전빌리지까지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 조은실 기자



# 흠어진 한민족,



이주 초기 농사짓는 고려인들의 모습



강제이주 이동경로(출처: 네이버)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分散), 이산(離散)'을 뜻한다. 흠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흠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다. 지금은 유대인에 국한하지 않고 특정 민족 집단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시작됐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이주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연행된 사람들, 농장의 노동자로 건너간 노동자(미주 하와이, 중남미), 일제의 박해를 피해 떠난 이주민(만주, 연해주, 중국, 미주 등) 등 흠어지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1930년대 이후 독일로 피견된 간송사, 광부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선택한 형태도 있다.

지역별로 그들을 부르는 말도 다양하다. 중국(만주, 연변 등에 거주하는 '조선족', 사할린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일본의 '재일한국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슬픈 이민사의 시초, 중국 조선족

조선족의 만주 이주는 19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60년대와 70년대 계속되는 제해와 흉년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때 비옥한 간도 지방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1910년 한일병탄은 해외 이주를 더욱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토지조사사업' (토지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인정) 제도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화한 후 일본인에게 되돌림. 일제에 불만이 있거나 근대병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신고를 안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많은 농민들이 급격히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아반 명목으로 소작농이 급증)했고, 조선의 곡식은 모조리 일본 제국주의에 사용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만주를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족을 내거 이주시켰다. 1945년에는 조선족 인구가 146만 명에 이르렀다.

해방 후 조선족은 중국의 공산화 과정 속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족과 중국 공산당 관계는 초기에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1958년 문화대혁명 때 많은 지식인과 학자, 기술자가 대거 숙청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소수민족의 문화가 말살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도 피해를 입었다. 조선인 3천여 명이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족은 생존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철저히 따랐다.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전역이 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자치구는 산악지대 정책에 순응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등 생존을 위해 애썼다. 조선족은 강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사회에 잘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경제개발로 인해 농촌의 조선족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했다. 중국 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등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이동했다.

조선족 디아스포라는 중국 내 소수 민족 선교와 한족 선교, 북한 선교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족은 특히 북한 출신이 자유로워 북한에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이라는 동진감을 바탕으로 소수민족 선교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워진 조선족 선교사는 중국의 복음화와 북한교회 재건에 큰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 강제 연행된 노동자, 일본 재일동포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유언비어가 나돌아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되었다. 세계 대공황으로 일본인들의 실업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의 이주를 막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이주한 한민족은 1944년에 20만 명에 달했다. 조선에서의 삶이 그만큼 힘들

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군수산업에 지탱할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동원하기 시작했다. 탄광, 광산, 위안부, 약백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끌려갔다.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1960년까지 약 104만 명의 한인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한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경제적 이유(맥아더장군이 일본거주 외국인들의 국외 반출금액을 전액으로 제한)한 재정성향한 재일한국인들이 포기하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당시 한국 내 정치혼란(극심한 좌우대립) 등으로 많은 재일동포들이 귀환하지 않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나라다. 그러나 용만척 관계를 갖고 미래 국제사회를 위해 공조해야 할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사로 세워진다면, 일본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다. 그들로 인해 일본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본으로 탈바꿈하도록 돕는 주역이 될 것이다.

###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1833년~1884년), 2단계(1884년~1905년), 3단계(1905년~1917년)다. 1834년 65명의 한인들이 조선 정부 밑에 러시아로 이주해 마을을 형성한 것이 시초다. 러시아 내 비옥한 토지가 증가하는 한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이주금지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1870년대 말 연해주와 아무르주 2개 마을에 거주하던 한인 이주자는 약 7천여 명에 이르렀다(1단계).

이주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자 러시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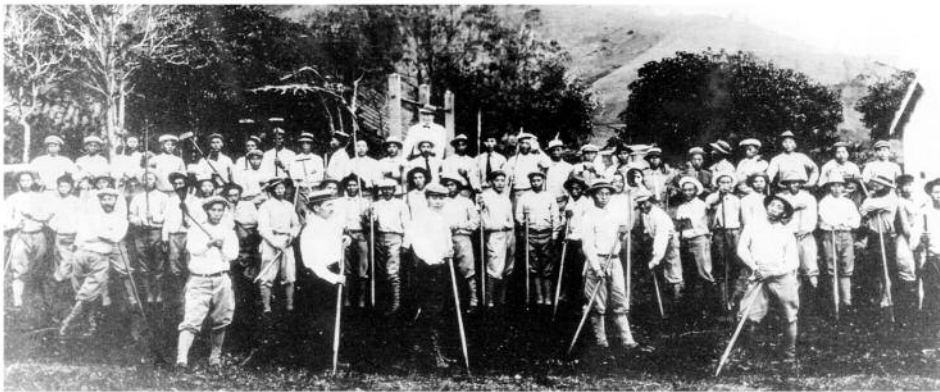


# 디아스포라를 아시나요?

##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일본 '재일한국인' 7월 7~11일,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오는 7월 7일~11일 햇빛선교센터에서 '2014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가 열린다. 디아스포라대회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한민족 동포들을 초청해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대회다. 또한 현지 언어와 풍습에 익숙한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場이다. 전 세계 175개국에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고 있다. 130여 개 국에 퍼져 사는 중국인, 100여 개 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더 넓게 퍼져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진 배경에 슬프고 아픈 우리의 근대사가 있다. 격동의 세월, 배고픔과 가난, 일제의 박해로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발길을 따라가 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914년 미국,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땅을 개간하고 있는 국민군단 병사들



1968년 파독 간호사(이승지씨) 모습(출처: 한국이민사박물관)

이주민들을 내륙으로 이동시켰다. 변방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한인 이주자들에게 농민계급을 부여하고, 한 가구당 50헥타르의 토지를 분배했다. 조세의 의무도 부여했다(2단계).

러일전쟁(1904~1905년)과 한일합방(1910년)으로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가속화되었다(3단계).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기근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러시아와 만주, 연해주 등으로 떠났다.

지리를 접이하기 시작한 한인들에게 시련이 닥쳤다. 1937년, 러시아 내 타민족에 대한 대량살상과 강제이주가 시작됐다. 그 첫 번째 대상이 고려인들이었다. 고려인 강제 이주를 시작으로 게르만족, 쿠르드족, 타타르족, 폴란드족, 체첸족의 강제이주가 이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려인을 가장한 일본침략의 침투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구소련 전체주의 사상이 배경이었다.

1937년 8월 21일 연해주 거주 고려인 전원이 카자흐스탄 이란에 부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됐다. 재산을 처분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대부분이 열악한 화물개차와 가축차량에 실려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60%가 사망했다. 그렇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전역과 러시아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주역이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세워지면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 노동자, 입양, 유학으로 비롯된 미주 이민

1800년대부터 하와이에서는 사탕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노동력을 조달했다. 1882년 중국정부 가 해외 이민을 금지하자 일본인들이 대용 노동자로서 대규모 이민을 오기 시작했다. 숫자가 많아진 일본인들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하와이 당국은 일본인들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조선인 노동력으로 눈을 돌렸다. 기근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조선인들은 하와이행 배로 몰리게 된다.

하와이 초기 이민 역사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일련 선교사는 1902년 이민원을 설립, 이민자들을 모집했다. 모집이 지지부진하자 인천 내리 감리교회 존슨 목사의 도움을 얻어 하와이 이주를 추진했다. 1902년 12월 12일 101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행 배에 몸을 실었다. 초기 이민을 주도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와이 초기 이민사회의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이민 노동자들은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해야 했다. 점심시간은 겨우 30분, 잠자리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구타당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받은 하루 일당은 1불25센트 적은 임금과 허약한 노동 현장이었다. 그 돈을 가져서 독립자금으로 또 친정으로 송금했다.

해방 이후 미주 이민은 입양, 유학생, 미국 가족으로 다양해졌다. 2002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15만 명으로 이중 10만 명이 미국으로 입양됐다. 재미한인의 5%에 달한다. 1900년대 이후 미국 유학생들의 숫자도 늘었는데, 그들은 학위 취득 후 미국에 머물렀다. 그리고 본국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연쇄이민이 늘었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디아스포라들은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할 수 없는 북한선교를 미주교회들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마추에 보내신 이유일 것이다.

### 돈 벌러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

파독 근로자와 간호사 이주는 1900년대 후반 한국경제발전과 더불어 생겨났다. 한국전쟁 이후 패자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돈과 기술이 필요했다. 때마침 유럽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이 부흥하고 있었다. 노동력이 모자랐던 독일과 '기술원조협정'을 체결, 한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파독이주의 시작이다.

독일 파견을 위해 1933년 정부는 '해외이민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12월 247명이 독일행 비행기를 타고 첫 집단 취업을 했다. 1차분(1963-63년) 2519명이, 2차(1970-77년)로 4219명이 독일로 갔다. 간호사 파견은 처음엔 민간 주도(1960년대~1966년)로 이뤄졌다. 한국과 독일 가톨릭교회의 협조로 63년까지 약 870여명의 간호사가 이때 파견됐다. 두 번째 시기(1963년-63년)는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시기(1970년-76년)는 제2차 간호협정에 의해 약 7033명의 간호요원들이 파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파독근로자들 앞에서 눈물 흘린 일화가 유명하다. 이주민 1세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다면, 2세대들은 유럽의 교회를 깨워야 한다. 유럽은 종교개혁의 본지이지만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2세 디아스포라들이 자

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선교사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도와야 한다.

### 디아스포라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민족에는 예로부터 영성을 지닌 팔방미인이 있다고 했다.

'나쁜 환경을 견뎌내는 인(忍), 무리가 잘려도 새끼이끼는 강(剛), 꽃이 한꺼번에 피지 않고 차례로 피는 예(禮), 여러 용도로 사용되니 온몸을 다 바쳐 기여한다하여 용(用), 꽃이 많이 필을 부드르도록(德), 줄기를 자르면 흰 액이 쫓겨나 나오므로 자(慈), 약으로 이용하면 노인의 머리를 건네하여 효(孝), 흰 액은 모든 종기에 효험이 있어 어질 인(仁), 씨앗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람을 타고 멀리 가서로운 후대를 만드니 용(勇)이 바로 그것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민족레와 닮았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현재 70만 명이 이라고 한다. 그들의 국적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아픔은 다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 그들이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 나아가 그들이 세계선교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이다.

### 《제2회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일시: 7월7일~11일  
장소: 양재 햇빛선교센터  
등록: 1차 6월15일, 2차 30일  
문의: 02-570-7064 www.diaspora.co.kr



01

# 청년이라면, 떠나라!



FA 선교사들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띠고 타문화권에 뛰어들어 사역하고 있다.

## 대학청년부, FA 7기 모집

대학청년부가 전방개척선교를 위해 시작한 청년선교운동 'FA(Frontier Agency Movement)'. Acts29 비전을 완수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FA의 목표는 전방개척지역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문화권에 대한 적응능력과 사역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을 장기적 선교사로 세우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척박한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이 굳건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지어를 학습하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관이 확장되는 유익

도 있다.

대학청년부에서 FA 7기를 모집한다. 8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인터뷰와 선교훈련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에 출국하는 일정이다. 파송지역은 인도네시아, 터키, 네팔, 튀니지 등지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중 20~33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 박임새 기자 leaf@onnuri.org

02

FA 간증문

## “선교사로 떠난 내가 선교지에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 오수린 (FA 4,5기 인도네시아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FA단기선교사로 보내셨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셨다. 온전한 기쁨도 누리게 하셨다.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평안했다. 그래서 주일을 빼짐없이 지키고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제 믿음에 의심이 없었다. 이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FA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향인할 수 없는 감동이다.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감동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었다. 선교사로 떠난 내가 선교지에서 진리를 깨닫다니. 무엇인가 뒤바뀐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님께 선교와 이슬람에 대해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막연한 삶을 살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끼게 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내게는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도록 하셨다.

1년 여 시간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경험들을 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 간사가 되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매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01

##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그 후

### 후속활동 논의 활발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는 끝났지만 현지 분위기는 아직도 뜨겁다. 일본 시모노세키 현지에서는 러브소나타 집회 후속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바이코학원에서 드린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감사예배에서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실행위원회는 집회 후속활

동으로 7월 9일부터 3일 동안 일대일 양육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고, 11월 24일에는 3일 동안 아버지학교를 열기로 결정했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에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 87개 교회가 협력했고, 62명의 일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시모노세키에서 온 편지

## “화해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에 1,781명이 참석했는데 야마구치현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로 기록되었습니다.

‘화해와 평화’라는 주제에 걸맞게,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했고, 한국과 일본이 선교를 위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역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본까지 와서 응원하고 기도해주신 은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코바야시 켄이치 목사  
(시모노세키 실행위원장)



## CGNTV

## CGNTV, 중동·아프리카 미디어사역 침병으로

### 두바이한인교회와 '미디어미션콘퍼런스' 진행

CGNTV가 SAT7, 킹덤SAT 등 해외 크리스천방송국 및 중동·아프리카 미디어 사역자들과의 연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CGNTV는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회 미디어미션 콘퍼런스(MMC)에 참석,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차드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고 방송하드웨어를 만들어온 사역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역 현황과 풀어야 가야할 난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나누고 상호 인적, 콘텐츠 교류의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선교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직면하기도 한다. 또 문맹률이 높고 기독교에 대한 인터

넷 검색조차 차단된 곳이 적지 않다"며 미디어선교의 가능성과 효율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를 후원한 신철범 두바이한인교회 담임목사는 "미디어는 모든 이슬람 국가에 대해 적중도가 높은 사역 아이템"이라며 "미디어가 현지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무슬림들에게는 참된 복음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라고 했다.

이번 콘퍼런스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CGNTV 아랍제작센터의 최서우 PD는 다양한 지역의 사역자들이 이번엔 참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 본사에서도 기자와 촬영감독, PD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참여해 콘텐츠 기획과 촬영, 편집 등 실질적인 교육을 감당했다.

## 정경화 헌정콘서트 '그래도 희망'

###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연주

지난 6월 13일(금)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어린이, 미래, 생명'을 위한 헌정콘서트를 열었다.

'그래도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독주 뿐만 아니라 14세 영재 피아니스트 임일균, 영재 첼리스트 유지인,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 첼리스트 양성원과 협연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의 피날레는 고통 받는 지구촌의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

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연주한 '내 영혼 바람 되어'가 장식했다.

공연 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음반사인화가 진행됐다. 이날 공연 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에, 음반 판매 수익은 한국의 젊은 음악 영재들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오는 8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르완다를 방문해 자선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mailto:jjj@onnuri.org)



## 개똥밭에 굴러도 선교지가 좋다!

터키에는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다. 선교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적 입지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역자들과 사역들이 공존한다. 20년이 훌쩍 넘은 선교사들도 있고, 대를 이어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MK출신 선교사들도 있다.

비자법이 바뀌기 전에는 3개월 단위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을 오가며 사역하던 선교사들도 있었다. 모두 각양각색의 필요와 부르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중에 2년 단기선교훈련을 받으며 사역하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20대 후반~30대 초반 4명의 자매들이 이스탄불에서 터키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인력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전혀 생소한 언어와 문화 속에 뛰어들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기숙사 좁은 방에서 생소한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고 밥과 김치, 된장찌개 대신 빵과 치즈를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이 서른의 나이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게 이 청년들의 마음을 졸이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는 소명 때문이다. 터키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교회가 있던 곳이고, 3월에 걸쳐 바울이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매들은 언어를 연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한다.

지난 5월 셋째 주 토요일에 그동안 만났던 현지 대학생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차와 한국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9명의 현지인 자매들이 한국음식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맛보았다. 기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들었다. 한 자매는 성경을 달라고 해서 받아갔고, 한 자매는 교회 예배에도 참석해서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가져왔던 회교에 대한 믿음에서 크게 갈등하고 있다. 또 한 자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현지인 리더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 그날의 초청 모임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했던 긴 시간의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값진 열매는 복음에 빛진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 거듭나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 단기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글로 옮겨서 나누어 왔다. 이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 귀한 자매들이 한 사람의 바울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단기선교사의 간증 하나를 덧붙인다.

“요즘 한국 친구들에게서 안부메시지가 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한다. ‘못 먹고 못 자고 힘들어. 근데 잘 살아’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한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한국은 흘러가고 터키는 멈춰있는 것 같았다. 나도 멈춰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그들은 멈춰있고 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앓은뱅이가 일어나서 처음 걸었던 때처럼, 서툴고 어렵지만 신나고 흥분된 마음으로 걷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때문에 난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걸 어찌 혼자 누리나며 어서 단기선교사로 지원하라고 권하게 된다.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이 떠오른다. 나 혼자 이 좋은 걸 누리면 안될 것 같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니다! 감히 말하건대, 개똥밭에 굴러도 선교지가 좋다!!!

# 의료선교팀 CMN이 간다

## 재난구호현장, 국내외 아웃리치 선봉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만드는 하모니

은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 창립 29년 동안 은누리교회의 역사는 선교로 점철돼 있다. 단일교회에 CGNTV, 두란노해외선교회, NGO더멋진세상, 사회선교 등 선교기관 및 단체가 이렇게 많은 곳이 드물다. 은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잡는 데에는 의료선교팀 CMN의 활약이 눈부셨다. 선교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의료선교다. 은누리교회 선교역사와 함께한 의료선교팀 CMN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CMN은 Christian Medical Network의 약자다. 의료봉사팀 통해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비전이다. CMN의 활동은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방대하다.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교회, 탈북민, 복지관 및 시설 등에서 주로 활동한다. 무료 진료, 이미용, 발마사지, 지압, 영정사진 찍어주기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약을 돋보인다. 긴급재난지역 등지에 파견돼 이재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2006년 스리랑카 쓰나미, 2008년 평창 수해 긴급구호, 2007년 태안 원유유출, 2010년과 2011년 아이티 긴급구호, 2013년 필리핀 테풍피해 지역 등지에서 활동했다. 지구촌 이웃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치료, 화상, 중이염 등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

### 8개 현장 의료사역팀

CMN은 8개 현장사역팀과 5개의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사역팀은 BEE, 마하나임, 리퍼팀, 마노아팀, 드림팀, 토브팀, 수원살롬팀이다.

BEE팀은 CMN의 8개 현장 사역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BEE팀을 거쳐 간 봉사자 수만해도 약 천 명에 이른다. CMN BEE팀은 서울역 인근 '예수사랑회' 건물에서 노숙인 사역, 농촌 미자립교회 아웃리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 아프리카 등지로 아웃리치를 떠나기도 한다. NGO더멋진세상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구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하나임팀은 1988년 고 하용조 목사가 구성했다. 은누리교회와 역사를 같이 해온 의료선

교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국내 농어촌지역 교회를 찾아가 사역하고 있다. 월 1회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찾아가고, 수월 인디옥셀터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섬기고 있다.

리퍼팀은 1998년에 구성됐다.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시립고 은누리교회에서 매주 월 4-6시, 안산M센터에서 매월 셋째 주일 3-6시에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치과, 가정의학과, 내과, 안과 등이다.

마노아팀은 외국인 교회나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다. 매월 셋째 주일 교회를 찾아 무료진료와 이미용사역을 하고 있다. 발마사지와 영정사진 촬영도 한다.

드림팀은 1999년부터 10여 년 동안 캄보디아를 섬겼다. 지금은 겨우에는 인도네시아, 여름에는 필리핀 마닐라 빈민지역을 섬기고 있다. 또 김포M센터와 연합해 외국인 사역도 섬기고 있다.

토브팀은 2006년 결성됐다. 양재 은누리교회에서 유일한 의료선교팀이다. 매월 첫째, 셋째 주에 양재 원형커피숍에서 탈북민을 위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일에는 가리봉동에 있는 한중사랑교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섬기고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치위생사, 미용사, 봉사자 등 약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수원살롬팀은 수원 은누리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이다. 의료팀(양방, 한방, 치과, 간호팀)과 약무팀, 미용팀, 영정사진 및 증보기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살롬팀은 한가족이 팀원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다. 매월 두 번째 주일에 안산M센터에서 사역하고 있



사진은 지난해 '더멋진세상' 과 함께한 필리핀 태풍지역 긴급구호팀의 진료 모습이다.

다. 공동체와 연합해 농어촌교회 봉사도 하고 있다. 이외에 대한 의료선교팀과 5개의 지원팀(이미용, 수기요법, 발마사지, 사진, 헤어)이 있다.

### 의료인, 비의료인 구분 없는 CMN

CMN은 전문 의료인의 봉사와 참여가 필수

다. 그러나 전문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의료인의 손길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보기도, 안내, 이미용 섬김, 발마사지, 영정사진 촬영 등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다. 의료인, 비의료인 구분 없이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는 주저 말고 CMN의 문을 두드려라.

문의 : 신진철 간사 02-3215-378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CMN 2014 여름 아웃리치 일정>

팀명	장소 및 일정	문의
BEE팀	라 오 스 7월17일~21일	윤상엽 팀장 010-9439-1180
	르 완 다 8월22일~29일	
마하나임팀	거 제 도 8월14일~18일	문경모 팀장 010-2023-8359
마노아팀	네 팔 7월14일~18일	이대현 팀장 010-3387-7764
드림팀	필 리 핀 8월13일~18일	우승엽 팀장 010-4230-1474
리퍼팀	완 도 8월1일~3일	김승욱 팀장 010-7161-3409
토브팀	인도네시아 8월6일~12일	장대순 팀장 010-2309-8768
살롬팀	인도네시아 7월19일~23일	김형태 팀장 010-2701-7471



**목희갈**  
김병순 장로(의료사역팀 CMN)

팡이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난해 CMN 대표장로직을 제안 받았다. 능력과 경험이 적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인수집사, 순장, 다락방집, 장로 피택 때 제시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생각나 겸손한 마음으로 수락하게 됐다.

은누리 의료팀은 1988년 발족했다. 2006년 CMN으로 개명 후 현재 8개팀 약 300명의 팀원들이 각자 은사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 초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CMN은 해외 아웃리치, 국내 농어촌 오지교회 섬김, 이주민사역, 탈북자사역, 노숙자를 위한 아웃리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수를 가능하게 하려 노력 중이다.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고 하용조 목사님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가져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함을 알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내년이면 은누리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된다. CMN은 제2기 은누리교회가 행해야 할 많은 사역과 함께 할 것이다. 선교와 공물,

진도와 교육 등에 CMN이 빠질 수 없다. CMN은 이천선교본부, 두란노해외선교회, 은누리미션 센터, NGO더멋진세상, CGNTV, BEE, 대학원년부, 차세대, 아버지학교 등 많은 부서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MN은 균형 잡힌 크리스천으로 살기 원한다. 균형 잡힌 사회,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 되는데 CMN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 CMN이 빠질 수 없다



01

##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 7월 7~11일, 햇불선교센터, 잠실실내체육관

2014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 선교대회(이하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막 오른다.

2014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성령을 받으라'를 주제로 양재 햇불선교센터와 잠

실실내체육관(10일 저녁)에서 개최된다. 이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는 전 세계 7개 지역 2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디아스포라 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등 전국의

햇불 회원 교회 성도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서는 로렌 커닝햄(YWAM), 마이클 오(국제로잔운동 총재), 루이스 부시(세계변혁선교운동 국제대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한복패션쇼, 샌드애니메이션, 비보이, 이화발레단, 소프라노 김영미, 가야금 이슬기 등이 특별공연도 선보인다.

참가문의: 02-570-7064

02

### 후쿠시마 아웃리치 후기

##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 박미라 집사(동경 온누리교회)



지난 3일, 동경 온누리교회 '주사랑 중보기도 팀'이 후쿠시마 이와키시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히고 있는 곳이다.

후쿠시마 이와키시에 도착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아물지 않는 상처가 여전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아웃리치 목적지 다카쿠 제6 가설주택에 도착했다. 잘 정돈된 주택가에 가건물 몇 동이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주로 고령자들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곳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을 위한 천국잔치를 열기 위해서였다. 러브소나타 집회 같은 큰 행사에 참석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일본인들이 우리의 초대를 좋아할까? 과연 몇 명이나 응할까? 걱정이 앞섰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초대했다. 우

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무장해제 되어 있었다. 일본가요와 한국 가요를 함께 부르며 즐거워하셨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사랑의 주님이' 라는 찬양을 율동과 함께 배울 때는 우리보다 적극적이었다. 액자 만들기 시간에는 즉석 사진을 붙이며 행복해 하셨고, 목사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셨다.

행사가 끝났다. 어르신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며 또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셨다. 자신들은 노령이라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신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곳에 파송된 니시오 전도사였다. 그는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곧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 또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교민 육경숙 사장(코리안 바비큐)과의 만남도 큰 은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복음전도사로 살고 있었다. 그곳에 한국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부터 우리를 기다렸다고 했다. 우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다. 그녀는 입술 펴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다. 후쿠시마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 후쿠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후쿠시마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후쿠시마 땅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과 일본에 전달되기를 소망한다.

#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2014 여름 아웃리치 본격 시작!  
약 152개 팀, 1천6백 명 단기선교, 국내도 풍성



본격적으로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난다.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면서 선교하는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약 152개 팀, 1천 6백 성도가 아웃리치를 떠난다. 국내 아웃리치 계획도 풍성하다. 신본안산공동체는 한 순도 빠짐없이 국내 아웃리치를 간다. 안산M센터, 군포청소년쉼터 하나로 등지에서 금홍사역 아웃리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동체별, 대학청년부, 차세대 국내외 아웃리치가 이어진다. **(관련기사 4-5면)**



다문화가정 위한 캠프를 가다

# 함께 사는 '우리'

## 지역 아닌 사람에게 초점 맞춰야

"남편, 딸과 함께 공기 좋은 곳에 오니까 좋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이 납니다."

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카니바 율가(러시아) 지체는 두 안니와 남편, 딸과 함께 이번 다문화캠프에 참여했다. 그녀는 교회에 다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캠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율가와 지체들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가정을 꾸렸다. 그녀의 가족들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캠프에 참석해 불놀이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21일(토), 여기는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오토캠핑장. 40가정이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캠프'에 참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새터민 등 다문화 20가정과 일반 참가자 20가정이었다.

다문화캠프에 참가한 유신남, 최영희 성도 부부는 오랫동안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해왔다. 이 부부는 다문화선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를 찾아 온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자연스레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찾아오는 선교자를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이번 다문화캠프에는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다. 춘천에서 가차를 타고 온 사랑행버와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사랑행버가 1시간여 동안 콘서트를 열었다. 사랑행버의 공연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했다. 아니 차고 넘쳤다.

"이미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여러 민족이 북을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원희 목사가 권면했다. 캠프에 참석한 모두가 하나되기 소망했다. 너나할 것 없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 이제는 한국도 다문화사회

지난해 안전행정부 발표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44만 5613명(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 포함)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인구의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0년대 4710건이던 국제결혼 수도 2010년 3만 4235건으로 20년 만에 9배 늘었다. 학교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늘고 있다. 2008년 9389명이었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2년 26864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41.3%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



캠프에서는 다문화가정 한 팀과 신청자가족 한 팀이 팀을 이뤄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저녁식사 장면.

### 캠프를 마치고

####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쌍둥이 남편과, 남편의 엄마입니다. 딸들과 처용 가족 캠프를 왔습니다. 정말 즐겁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만 했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캠프를 다녀온 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섬겨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노춘화

했다. 국가별로는 파키스탄 53.2%, 중국(한국계) 45.5%, 몽골 45.3%, 필리핀 44.7% 순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새터민(탈북자들)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터민들을 버려보아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도움은 교회뿐만 아닌 개개인으로 준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은 다문화캠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스쿨, 외국인 근로자 초청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찾아오는 선교사 다문화사역팀을 위해 헌신할 성도들의 발걸음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정성은 간사 02-3215-3313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사역칼럼  
허원희 목사(다문화, 탈북자사역 담당)

벧 헤전 이태원 이승삼사님 근처에 가본 적이 있다. 어렸을 적부터 한남동 언덕 위에 하얗게 자란 사원이 어떤 곳인지 호기심을 느꼈던 터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겠다고 생각했었다. 언덕을 오르면 수많은 아이들이 떼를 지어 물러다녔다. 외국인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 하던지... 내기 길을 물었는데 우리 아이보다 한국말을 더 잘했다. 파부색과 생김새는 분명 중동 아이들이었는데 속은 완전 한국 아이들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2014년도 한국에 살고 있는 장기 외국인 주민 수는 15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한국 총 인구의 약 2.9%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어렸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말에 자부심으로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배민의 민족', '백의 민족'이라는 별칭보다는 이제 다문화사회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배받은 이스라엘은 민족과 혈통을 강조하며 이방인을 차별하다 예수님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그들은

결국 북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고 구원에서 멀어졌다.

대한민국도 민족과 혈통, 자기 문화만 고집하면 안 된다. 유아독존적 태도로 살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을 물론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다. 언제까지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것인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옆집 아저씨의 얼굴만 떠올릴 것인가. 유대인들은 율리아, 그들의 전유물이며,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다. 편견에 사로잡혀 교회를 핍박했다. 북을은 온 세상에 전하지 못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민족이야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실패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문화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한민족인 새터민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터민들은 남한사회를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라고 말한다. 죽기야 하면 살기로는 남한에서 정착하지 못해 결국 제3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어디 새터민 뿐이겠는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배타와 무관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같이 맞이해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거든(신 10:18) 때문이다.

향후 5년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가 탈북민과 다문화사역이라는 보고가 있다. 온누리교회가 30주년을 준비하며 새롭게 개척해야 할 분야가 바로 다문화사역이다. 온누리교회는 창립부터 해외 선교에 목숨을 걸고,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였다. 연초에 수십억의 선교한금을 작정하고 방학마다 전 교인이 해외 이웃리처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란 무엇인가. 꼭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안인가?

선교는 자역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해외 선교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처럼 국내 선교에도 앞장서려면 다문화를 품어야 한다. 국내에서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해야 해외에 나가서도 그들을 품을 수 있다. 안에서 잘해야 밖에서도 잘하는 것이다.



# 위기관리 이렇게 하면 된다!



## 단기선교팀의 위기관리 기본자세 예방, 빠른 조치, 정보관리 방법

이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 장거리 여행이나 위험한 지역 방문을 지체하라는 내용이다. 음식과 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부탁한다. 단기선교팀도 이 같은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단기선교팀이 가져야 할 위기관리 기본자세

단기선교팀은 위기예방과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첫째, 팀원들의 영문 이름, 혈액형, 알레르기 유무, 자주 앓는 질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한국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한다.

둘째, 신앙생활을 해도 혈액형이나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같이 단기선교를 갔다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한다.

단기선교팀원 각각의 질병 유무 및 혈액형 정보 등을 기록한 종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교회에도 자료를 남겨두기 현장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보호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빠른 조치가 생명이다

아무리 예방에 힘쓴다고 해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선교 중에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생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선교사와 인솔자도 당황해서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교회나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결정을 기다리다보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초동조치가 미흡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교사나 인솔자가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나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선조치 후보고'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장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책임자는 먼저 조치를 취한 이후에 육하원칙에 의거해 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기관리는 곧 정보관리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단기선교팀은 팀원들과 함께 SNS나 이메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팀장이나 인솔교역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위기상황에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때문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나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내용을 교회와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선교팀과 현장선교사는 교회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유/무선 전화를 확보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말이다.

### 안전한 단기선교를 위하여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행동결과에 대해 미리 안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위기나 위험은 유한한 인생의 한 구성요소이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인생의 진정한 위기관리자는 오직 주님이시다. 가장 좋은 위기관리는 '주버리기'가 되는 것이다.

올 여름 열방으로 떠나는 수많은 단기선교팀들이 '주버리기 위기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 강일영 목사(이천선교)



여름이 왔다. 민음의 열정으로 이열차열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본격적으로 여름 야외로 나가보자. 올해도 약 150개 팀, 1천여 명의 성도들이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매년 2천여 명의 성도들이 해외 단기선교를 간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선교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올해는 더 그렇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교회도 안전 불감증과 위기대응능력을 점검해봐야 할 때다.

### 위기관리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위기와 위험이 항상 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림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듯이 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전 생애를 간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기와 위험을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기관리는 말 그대로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이지 위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여름철에 시중독 예방캠페인을 벌여도 식중독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벌여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위기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함으로써 위기와 위험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다. 위기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목적이다. 단기선교를 가기 전에 말라리아 예방접종

을 하고, 피상풍 주사를 맞는 이유도 바로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

### 민음인가? 확률인가?

위기를 관리 할 수 있는데도 왜 우리는 위기를 관리하기를 어려워할까. 예를 들어보자. 단기선교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는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탄다. 현장에서 차를 타고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차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실제적이지 않다. 안전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맞다.

비행기나 버스가 사고가 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확률적 확신이 어느 때에는 믿음으로 작용한다. 자동차 보험은 있는지, 비행기가 안전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기관리다.

### 위기관리의 핵심은 예방이다

위기관리는 사고나 질병 이후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목적이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보면 사고나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천선교본부는 위기관리를 위해 모든 선교사들에게 안내메일을 보낸다. 단기선교팀



01

# 특별한 여름 아웃리치 준비하자!

## 산본안산공동체의 '금홍사역 아웃리치' 노원공동체, 필리핀에서 받은 은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나는 아웃리치 계절이다. 어디로 갈까, 가서 무슨 사역을 할까, 공동체마다 아웃리치 준비에 여념이 없을 시기다. 여기 특별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있다.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세계선교와 사회선교를 병행하는 특별함이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많은 팀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 아웃리치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될 만한 사연도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여름 아웃리치의 주역이 되는 바람을 담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산본안산공동체는 올 여름 특별한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왜 특별한 아웃리치인지 살펴보자.

일단 모든 지체들이 빠짐없이 참가한다. 공동체 단위의 아웃리치가 아니라 순 단위다. 순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역도 해외가 아닌 국내다. 안산M센터, 지역교회, 요양병원 어린이집, 호스피스 병원 등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산본안산공동체의 올 여름 아웃리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홍사역 아웃리치'다. 특별하지 않을 수 없다.

산본안산공동체의 여름 아웃리치는 지난달 24일 시작돼 8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24일에는 공동체 종강예배를 드림서 순 아웃리치 반대식도 열었다. 반대식에서 김형회 목사(산본안산공동체 담당)는 '나도 너희를 보내드리요 20:20'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순 사수들이 특별한 여름 아웃리치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다. 이어 각 순은 여름 아웃리치를 갈 지역과 사역 내용, 참여인원 등을 발표했다.

김종호 순장은 "이번 아웃리치는 세계선교와 사회선교를 두 축으로 나아가는 온누리교회의 선교방향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산본안산공동체가 순 단위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2012-2013년도 온누리 부흥축제에서 들은 프랜시스 채 목사의 말씀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프랜시스 채 목사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올해 온누리교회가 사회선교본부를 발족한 것도 동력이 되었다.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실시해 온 대규모 단위의 아웃리치보다 순 단위의 소규모 아웃리치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아웃리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결정했다.

산본안산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지역 내에 안산 온누리M센터와 군포청소원센터 하나로 가 있어 금홍사역 아웃리치에 더욱 힘을 애정



산본안산공동체가 순 단위로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했다.

이다. 산본안산공동체가 실시하는 특별한 아웃리치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아웃리치

결과보고는 공동체 개강예배에서 한다.

/ 정치는 기자 jii@onnuri.org

02

### 노원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 신헌기(노원공동체)

##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수년전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을 때 지역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리조트를 조금 벗어나면 보이는 빈민가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데... 빈부격차가 심하구나."

지난달 중순, 노원공동체에서 실시한 필리핀 선교사자녀(MK)들을 위한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온누리교회를 다닌 지 십년이다 되어 가는데도 나는 봉사활동이나 아웃리치를 한 번 간 적 없었다. 주일예배만 게근을 하는 선라이 크리스천이었다.

얼마 전 회사를 사직하고 쉬고 있던 중 몇몇 집사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았다. 필리핀 아웃리치를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빛진 마음에서 해방되었다.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우리가 실시한 사역은 선교사 자녀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첫날이 마침 'MK학교 2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날이

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늘어나면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큰 기도제목이 되었다. 하나님은 1994년 선교사 자녀들만을 위한 학교 설립을 허락하셨다.

설립 초기에는 범교파적 후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후원이 끊겼다. 학교는 폐교 직전까지 갔다. 당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이곳을 방문했다.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목사님이 도와 주셨다고 한다. 그때 도움을 받아 현재의 위치로 학교를 옮기고 각종 편의시설도 완공되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뤄진 사례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대하 한세대 학교가 설립 후 어려움을 겪던 시절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던 장면이 교차되었다.

### 그들도 우리처럼

그곳에서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사시하고 게임을 했다. 장래의 꿈을 발표하

는 스피치대회도 열고 평소 애가보지 못하는 리조트에도 데리고 갔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선교사 자녀들과 소통하고 격려했다.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다니며 선교지에서 애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결혼 초부터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고 있지만 학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데...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의 일반 학생들과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데도 밝았다. 부모들의 사역을 이해하고, 자신들도 그 길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다. 이러한 선교사 자녀들을 보살피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현지에서 금홍사역도 했다. 필리핀의 빈민층은 충격적이었다. 쓰레기 천지였다. 야

산 위에 펼쳐진 판자집, 진흙탕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들의 발과 다리에는 피 부병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빈민가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좁은 골목길 옆에 문도 없이 건물만 서있었다. 아직 짓고 있는 중인 지 삼여 평 되는 예배당은 무척 어수선했다. 그곳에서 한자어로 준비해간 찬양을 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눈에 기쁨이 충만했다. 감사가 가득했다.

백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 준 복음이 필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잘 산게 됐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다. 우리처럼 이 나라도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 한자어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나라가 되길 기도한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경험했다. 타인을 위한 봉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체험했다. 나를 공동체 아웃리치에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14년 7월 6일 1007호

- 01- 산본안산공동체 : 순 단위 '금홍사역 아웃리치' 준비(5면)
- 02- <노원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 신헌기(노원공동체)(5면)



# 스포츠선교를 아시나요?

나라와 인종, 국경 초월하는 강력한 선교도구  
이단들도 전념 ... 저변 넓혀 현혹 막아야



몽골 사람들은 탁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탁구로 복음을 전한다. 우스베키스탄에서는 농아인들을 모아 3년 만에 축구팀을 결성했다. 그 사이 자연스레 복음이 전해졌다. 페루와 이스라엘, 크로아티아에서는 태권도로 선교한다.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 오른 브라질에서는 지금 국제 스포츠 선교단체들이 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스포츠가 선교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나라와 인종,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스포츠 선교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국내 스포츠선교의 역사는 길다. 구한말부터 시작됐다. YMCA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근대 스포츠를 전했다. 당시 질레트 선교사가 취미 활동을 위해 가져온 야구장비가 조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자 야구단을 설립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은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 축구, 육상, 체조 등의 종목에 가르쳤다.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다.

한국교회가 스포츠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다. '세계스포츠선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스포츠선교를 시작했다. 80년대에는 국내 최초 선교축구단이야 프로축구단인 '한렐루야 축구단'을 창단했다.

온누리교회도 활발하게 스포츠선교를 하고 있다.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공사랑'과 탁구로 선교하는 'OPM(Onnuri Pingpong Mission)'이 대표팀이다. 그들은 스포츠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있다.

## 축구하다 예수님 만나는 '공사랑'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공사랑은 2006년 창단됐다. 허하용목 목사가 "교회 안에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계기가 되어 탄생했다. 당시 축구를 사랑하는 9명(이종우, 손성관, 김영욱, 송태희, 이상훈, 김영대, 고영민, 한신희, 공만식)의 형제들이 힘을 모았고, 마침내 2011년 양재 온누리교회 스포츠선교팀으로 조직이 되었다.

공사랑은 믿지 않는 형제들을 축구모임으로



초대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축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다. 공사랑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중에는 일대일 양육도 하고,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형제도 있다.

공사랑이 첫 번째로 전도한 주인공은 이태현 집사(양재공동체)다. 당시 이태현 집사 가정의 기도제목은 아빠의 교회 출석이었다. 가족들과 공사랑 회원들의 기도를 통해 이태현 집사는 공사랑 회원이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지금은 공동체 순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를 전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축구다. 이 집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예수님도 만나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공사랑 팀장을 맡고 있는 이근재 성도(강남B 공동체)는 20년 넘게 독신한 불교신자로 살았다. 이 팀장도 공사랑을 통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공사랑은 축구 아웃리치도 간다. 안산 M센터와 하나원을 방문해 축구용품 후원했다. 북한 학생들에게도 유니폼과 축구용품들을 지원했다. 또한 한렐루야 축구단, 홈리스 축구팀, 한터 청소년 축구팀, 지역교회팀 등을 초청해 시합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있다.

해외 사역에도 힘쓴다. 선교사가 이끌고 있는 캄보디아 축구선교팀을 후원하고 있고, 아웃리치팀을 통해 아프리카에 축구공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한마을 축구대회를 열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축구선교팀이 함께 모이고 있다.

## 이번엔 탁구대! 탁구선교팀 'OPM'

이번에는 탁구다. 탁구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다. 주인공은 온누리탁구선교팀(OPM)이다. 이들은 주로 선교지에 탁구대를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모임 때마다 회비를 모아 탁구라켓과 탁구대를 선교지에 보내고 있다.

탁구선교는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20여 교회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 지역교회와 연합해 탁구로 선교하는 있는 팀 이름이 APM이다. Acts29 Pingpong Mission의 약자다. 20여 교회연합 탁구선교네트워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APM은 지금까지 22군데의 선교지에 탁구대 25개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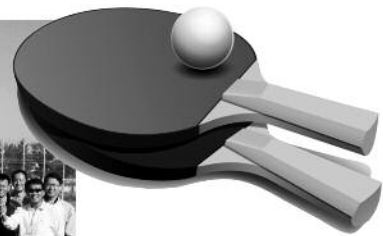
그들은 1년에 두 차례 300여 선수가 참여하는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때 모은 회비로 선교지에 탁구대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제3회 APM 교회연합 선교탁구대회'가 열렸다. 20여 교회가 참가했다. 경기를 치른 후 어김없이 회비를 모아 케냐, 연해주, 필리핀, 탄자니아 등지로 탁구대를 보냈다.

APM은 지난해 5월 개최한 '제1회 교회연합 탁구대회'를 시작으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우루무치, 몽골, 필리핀, 헝가리, 미국, 카타르 등지에 탁구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선교에 대한 세미나도 열었다.

내년에는 일본 요코하마로 탁구 아웃리치를 갈 계획 중이다. 탁구로 교류하며 선교하는 새로운 선교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다.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팀은 지역교회 성도들과 탁구로 교제하기 위해 초보자들을 위한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함께 운동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포츠선교를 체계적으로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이단들도 스포츠선교에 전념

이 시대에 스포츠선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단들도 스포츠선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가 단연 으뜸이다.

통일교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 축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통일교는 브라질 남부 상파울루주 소로카바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소로카바 축구단'과 '세네 축구단'을 인수했다. 전용구장과 호텔까지 갖추도록 지원했다. 게다가 브라질 축구협회 회장에 당선된 마르코 폴로 벨 네로는 상파울루주 축구협회장이자 FIFA 집행위원이다. 남미축구협회의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브라질 축구계의 실력자인데 통일교와 친분이 두텁다. 남너노소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이용해 포교하려는 통일교의 전략이다. 그 활동무대도 매우 넓다. 선교지에서 축구를 가르쳐준다고 하면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몰려든다.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하기 좋은 도구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이단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선교의 저변이 더 넓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정지는 기자 jj@onnuri.org

## 알림

### 공사랑 모임

문의: 안정섭 총무(010-3314-9430)  
매주 토 오전 6시 한동훈 :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매주 토 오전 7-9시 : 팀 훈련 및 축구 경기

### OPM 모임

문의: 고길병 집사(010-3772-3686)  
매주 토 오후 3-7시 역삼동 청운교회 지하 1층 다목적실(탁구대 12대 규모)



01

## 중종로 · 서초A공동체 CGNTV 후원금 전달

###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보탬 되었으면”

지난 6월 중종로공동체와 서초A공동체가 CGNTV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초A공동체는 순 헌금의 일부를 CGNTV에 후원하기로 했다. 공동체 측에서 순 헌금의 일부를 CGNTV에 헌금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순별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현재 7개의 순이 액수는 다르지만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요한1순은 선교사들에게 안테나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올해 공동체에서 CGNTV를 후원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기쁘게 헌금을 드렸다. 요한

1순 임윤목 순장은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CGNTV의 사역이 계속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서초A공동체는 지난 6월부터 매월 5만원씩 공동체 이름으로 CGNTV 후원을 작정했다.

중종로공동체는 지난 6월 6~7일 1박2일 일정으로 공동체 수련회를 진행하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

이후 폐회예배 때 드러진 감사헌금 100여 만원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생각하다가 공동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CGNTV에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받은 은혜를 CGNTV를 통해 흘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사실 중종로공동체의 CGNTV 후원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2006년에는 공동체 모두가 선교지에 CGNTV 안테나를 달아주는데 참여하기 위해 저금통을 제작, 배포해 후원한 저력이 있다. 그 정성은 수십 개의 안테나를 통해 선교지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정성은 선교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 15일까지 햇불선교센터와 잠실실내체육관(10일)

내일 2014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이하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막 오른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양재 햇불선교센터와 잠

실실내체육관(10일 저녁)에서 개최된다. ‘성령을 받으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는 전 세계 7개 지역 2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디아스포라 천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할렐루야 교회 등 국내 교회 성도들도 대거 참석한다.

교회측은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2-570-7064

01



## 장로중보기도팀, 중국 단동 아웃리치

### 백두산 올라 평화통일 위한 중보기도

장로중보기도팀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장로중보기도팀은 손신국 목사의 인솔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기념하고, 평화통일을 간구하기 위해 중국 단동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아웃리치에는 28명의 장로와 권사들이 참가했다. 10시간 여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연로한 장로와 권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장로중보기도팀은 아웃리치 기간 동안 단동 은누리교회를 방문해 중국과 북한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열었고, 압록강 선상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 백두산 천지에 올라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다.

/ 정지은 기자 [jj@muri.org](mailto:jj@muri.org)

02

## 이제 깨끗한 물 마신다!

### 더멋진세상, 파키스탄 농수 및 식수 개선사업 완료



지난달 23일 NGO 더멋진세상이 파키스탄 더멋진마을 농수 및 식수 개선 사업을 마치고 완공식을 거행했다. 파키스탄 더멋진마을은 염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파키스탄 더멋진마을 인근 운하에 솔라 관정(우물)을 설치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물을 깊이 파서 끌어 올린 물을 탱크에 저장해 각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제 1만여 명의 주민들은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오

염된 물을 마셔서 건강이 상하는 일도 없다. 주민들의 건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 더멋진마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1만여 명이 살고 있다. 2010년 파키스탄이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을 때 은누리교회는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수해복구 지원비 1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2년에는 비전센터를 세웠고, 현지인들을 위한 CHE(지역개발선교) 교육 실시했다. / 정지은 기자



일본어예배 수련회 'Joyful Family' 참가 후기



/ 채미숙 성도(일본어예배)

### 그 꿈같은 일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뺏속까지 일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진 한국인들이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그런데 그 꿈같은 일이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서 이뤄지고 있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는 일본인과 재일교포 그리고 한국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본과 북한의 복음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번 일본어예배 수련회 'Joyful Family'는 일본과 한국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마음과 몸, 눈으로 확신시켜 주었다. 설교와 기도회 때 마음으로 우리와 일본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박종길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대학팀을 이끌고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일본 성도들의 섬김에 감동

을 받은 이야기였다. 그때 일본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일본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증을 주셨다. 야마구치 목사님이 인도한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야마구치 목사님은 일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 야마구치 목사님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 모두가 일본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이 만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좋아했다. 나는 일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일본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란다.”

故하용조 목사님은 저서 <하나님께서 사랑

한 일본을 나도 사랑합니다>에서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면, 우리와 북한도 화해할 수 있다고 하셨다. 실제로 일본 크리스천 중에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본어예배부에서도 북한을 위한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한다. 반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 주신 것은 게임을 통해서였다. 이번 수련회 장소는 자연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잔디가 깔린 곳에서 게임을 하면서 천국에서의 운동회를 상상했다. 세상의 스포츠는 국가별로 편을 나누지만 천국에서의 운동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하늘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팀을 이뤄 함께 즐길 것이다.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각자가 3-4장의 시트지에 '흑'이라고 적힌 칸을 겹쳐 칠하고 모았다. 모은 종이는 퍼즐조각들이었다. 퍼즐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렇게 완성된 퍼즐은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서로 합심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도 각자가 선교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모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과 일본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진다.

'Joyful Family!'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다. 복음만이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가게 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권사순환칼럼 류석인 권사

## 흑암을 비추는 다이아몬드

“엄마, 몽골에 언제 오실 거예요? 일찍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 작은 딸의 애원에 내 마음이 또 흔들린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오신 감에 며칠 더 묵고 가시자...”  
 말을 잇지 못하는 작은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작은 딸이 남편과 세 아이를 데리고 몽골 선교사로 파송된 지 20여 년  
 이 흘렀다. 이제는 어엿한 몽골 사람이다. 사위와 함께 몽골국제대학  
 (MIU)을 세우고, 제자 양육하는데 10여 년을 헌신했다. 지금은 ‘밝은미  
 래국제학교’에서 몽골의 다음세대들을 양육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부족한 교실을 재건축해 완공식도 치렀다.

나는 작은 딸을 생각하면 태몽이 떠오른다. 킁킁한 긴 터널 끝에 찬란  
 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꿈이었다. 세상 부귀영화를 거머쥔  
 자녀일거라는 자부심에 부풀어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  
 미임을 깨우쳐 주셨다.

사위가 몽골 선교에 앞서 중국 연변 과기대에서 6개월간 연수할 때였  
 다. 작은딸 내외가 백두산 안내를 해주겠다고 우리 부부를 초대했다. 사  
 위의 안내로 올라간 백두산 정상에서 기도하는 데 하나님께서 작은딸  
 가족을 흑암의 땅 몽골에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보내실 거라고 하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사60:1).

열악한 환경에서 밝은미래국제학교를 완공했을 때였다. 완공식에 참  
 석한 나는 학교가 세워진 기쁨과 학교 세우느라 고생했을 딸 내외가 안  
 쓰러워 눈물 흘렸다.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느라 얼마  
 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딸의 고생을 생각하며 우느냐. 나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  
 들을 십자가 형틀에 못박아 죽였다.”

언젠가 작은 딸에게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거니?”라고 물으니 “엄마,  
 나는 이 땅에 묻힐 거야”라고 대답했다. 우둔한 어머니를 작은 딸을 통해  
 깨우치는 하나님의 커다란 가르침에 또 한번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  
 렸다.

국제학교 학생들은 출신이 다양하다.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아이들이다.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와 환한 얼  
 굴빛은 장차 아들을 비추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원과 기도뿐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선교사와 목사로 헌신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제 나는 나이 들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위  
 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 알의 밀알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 디아스포라는 준비된 선교사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막 내려



“175개국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준비된 선교사입니다.”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축복의 자리였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 중에 10%만 세계 선교에 헌신해도 엄청난 선교자원이 생긴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세우면 인재 발굴, 은퇴, 선교지 정탐 및 연구, 타문화 이해와 언어습득, 현지체류 등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와 잠실실내체육관(10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30개국에서 1천명 이상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4-5면)

제2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 ‘한인디아스포라를 선교사로!’

## 30여 개국 1천여 명 참석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 ... 준비된 선교사



제2회 한인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사진은 지난 1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규모 한민족연합집회 모습.

‘제2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이하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지난 7일부터 5일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국내에 연고나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일깨워줬다. 또한 1천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현지 선교사로 세웠다.  
이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2011년 1회 대회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30개국에서 1천여 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참가했다. 온누리교회, 할렐루아교회, 지구촌교회 등 국내 성도들도 참석했다.

다. 지난 10일 저녁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인디아스포라들과 국내 교회 성도 1만여 명이 모여 동역의 기쁨을 만끽했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서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김상복 교수(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마이클 오 박사(국제로잔운동총재), 김승욱 목사(할렐루아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김종필 목사(EGM총장), 김춘근 교수(QAMA대표), 이장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루이스 부시 박사(1040운동장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열방대학 총장) 등이 강의를 했다.

8일과 9일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 및 워크숍도 열었다. 디아스포라 목회의 현지화, 탁월한 모델, 통일과 통일선교를 위한 한민족 크리스천의 역할, 유럽 선교의 상황과 전망 그리고 비전,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4/14 운동 등이 주제였다.  
축하공연도 다채로웠다. 한국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한복패션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받은 태권도공연, 사랑과 기적의 상징 사랑채버 연주, 모래 위 감동스토리 샌드에니메이션, 세계적인 음악가 김연마·배재철의 공연 ‘이산’ ‘동이’ 드라마주제곡으로 널리

알려진 플루트연주자 송술나무 등이 주옥같은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잠실체육관 집회에 참가한 전 참가자들이 기쁨에 찬양한 연합성가는 장관이었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대회장 이형자 이사장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여러분이 세계선교의 주역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난 그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며 세계선교대회에 모인 1천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축복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세계선교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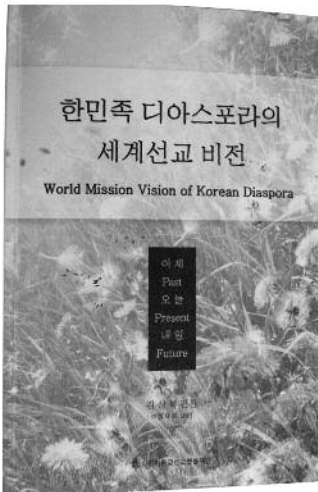
제2회 햇볕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역할과 사명이 재조명되고 있다. 골자는 현지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175개국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세우자는 것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기독교 선교햇볕재단이 발간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세계선교 비전>에 그 의미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책 내용을 요약했다.

/ 편집자 주



30여 개국 1천여 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국내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연합집회를 함께 했다.



책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세계선교비전, 어제 오늘 내일.>

## 슬픈 역사 속, 한민족을 흡수한 하나님의 뜻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2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민족의 슬픈 과거와 함께 했다. 19세기 말 중국으로 떠난 조선족을 시작으로, 1902년 해외이 사탕수수 이민자, 1906년 '불법이민' 조 직책에 속아 멕시코로 떠난 에네켄, 일제강점기 조선인노동자 강제연행으로 인한 제일동포,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스텔린에 의해 중앙 아시아로 강제 흩어졌던 고려인, 1963년 경제제인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로 건너간 광부와 간호사들 175개국에 무려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구한말 개항과 기근, 나라 잃은 서러움, 한국전쟁, 경제발전 위한 몸부림으로 만주로, 연해주로, 일본으로, 중앙미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척박한 땅과 현지인들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총명함으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다. 이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대를 이어 유지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과 중남미, 유럽으로 이

주한 디아스포라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이다. 열악한 환경, 노에 같은 처우와 보수를 받으면서도 정착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학교와 교회를 세웠다. 독립운동도 지원했다.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175개국 750만 명에 이른다. 유대인이 100개국, 중국인 130개국으로 이주한 것과 비교할 때, 한인 디아스포라 수가 더 많다.

그들이 선교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선교사 발굴, 은퇴, 선교지 정담 및 연구, 타문화 이해와 언어습득, 비자 등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750만 디아스포라들의 10%만 선교사로 헌신해도 75만에 이르는 선교인력이 생긴다. 그들은 현지 문화와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비자나 재정적 후원도 필요 없다. 선교사 훈련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세계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일꾼이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 한국선교의 새 패러다임, 디아스포라 선교

이제는 한국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선교사 발굴, 훈련, 파송

및 후원, 안식년과 은퇴까지 감당해야 하는 기존 선교방식의 부담에서 탈피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이 시대 매우 중요한 선교의 핵심인 것이 분명해진다.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책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흩으셨던 사람들이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이방 여인 롯, 에스더,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 바야흐로 21세기는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대다. 세계 제2위 선교사 파송국인 한국교회와 750만의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협력한다면, 선교에 있어서도 놀라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분단국가 한국, 탈북민 선교가 필요한 이유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과 61년째 전쟁 중이다(1953년 휴전). 북한의 어지러운 정치현실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약 2216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상 통일은 필수불가결하다.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흔히들 통일을 위해 재원화가 우선이라고 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붕괴되고 있다. 탈북민의 이탈

을 막을 수 없다. 늘어난 가는 탈북민을 복음의 전도사로 세우야 한다.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탈북민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그들이 신앙의 애국자가 된다면, 통일 후 그들을 통해 북한 땅이 복음으로 물들 것이다. 교회가 통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다.

한국교회는 바깥에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탈북민들은 살아있는 사립(강령은)도 지켜주지 못한 인생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생각한다. 소망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불질에 치우친 구제가 아니라, 보여주시길 정해이다. 나라, 성경적인 믿음으로 탈북민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탈북민선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

## 세계선교의 중심축에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다

175개국에 흩어진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그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나라와 사회에서 근면과 성실을 무기로 중간계층 이상의 삶을 이루었다. 자녀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이주해온 1세대와 달리, 2·3·4·5세대는 그학력을 발판으로 소속 사회의 주류계층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역사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국제보건의료운동본부의 총재로 선임된 '마이클 오' 목사이다.

마이클 오목사는 미국이민자 2세대.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 간 다음해 태어났다.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유명 대학의 학위를 5개나 받은 엘리트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이력의 소유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됐다. 한국인으로서 가장 미워해야 할 이유가 많은 나라인 일본을 선기로 결심, 니고이에 신학교를 세운 것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이다.

김상복 교수는 "하나님이 한국 디아스포라를 국제모전의 대표로 세우심으로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를 섬길 기회가 온 것"이라며 그의 총재 취임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지난 7월 일제 은누리교회에서 열린 '제2회 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회식 모습.



강동 은누리 아웃리치 발대식 현장

# 벌써 기대되는 여름이야기

## 국내 7개, 해외 6개 지역으로 400명 단기선교

지난달 29일 여기는 강동 은누리교회 11층 카페. 왓지결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여름 아웃리치 바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 아웃리치팀에서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와 액세서리, 의류, 채소 등이 풍성하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애쓰고,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여는 모습이 정겹다.

골라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가 더인 여름 아웃리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는 이달 20일 까지 이어진다.

### 아마기타 아웃리치팀의 꿈

올 여름 강동 은누리교회는 국내 7개 지역, 해외 6개 지역으로 약 400명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가까운 경기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지역도 다양하다. 요즘 성인부와 대학청년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아웃리치 준비로 바쁘다.

13개 아웃리치팀 중에 눈에 띄는 팀이 있다. 일본 아마기타 아웃리치팀이다.

아마기타 아웃리치팀은 한동훈 담장을 주축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지역,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아마기타 남부교회로만 아웃리치를 12번 갔다. 여름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난 후에 다음 해 여름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겨울에도 아웃리치를 갔다. 아마기타 남부교회 성도들과는 이미 가족이 됐다.

그들이 한 교회로만 아웃리치를 가는 이유가 뭘까. 한동훈 담장을 만나 이유를 물었다.

“그곳에 저희들의 꿈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아마기타 남부교회는 의미가 남다른 곳입니다. 신혼여행도 그곳으로 다녀왔습니다.”

한 팀장의 아마기타 사랑이 얼마나 유별난지 모른다. 아내가 반식일 때도 아웃리치를 갔다. 첫째와 둘째 모두, 사실 출신이 인박해 아웃리



지를 가지 않으려는 한 담장에게 부인이 먼저 아웃리치를 다녀오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 부부가 얼마나 아마기타 남부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아웃리치를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회사(C-awase)이와세: 일본어로 ‘행복’이라는 뜻도 만들었다. 노방전도 때 나눠줄 전도용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 회사 창립의 시초가 되었다.

그들은 일본인을 문화를 통해 전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는데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공출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 팀장 일행은 남부교회 새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만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8년이다. 그들은 아마기타 남부교회 새 성전이 지어지는 날, 지금까지 함께 아웃리치를 갔던 사람들 모두 가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게 꿈이다. 그 꿈이 이뤄지는 날은 한 팀장의 개인적인 꿈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교회 부흥을 묵도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이날은 강동 은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도 열렸다. 국제위클리프 부대표 정민영 선교사가 아웃리치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선교하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웃리치에 참가하라는 당부였다.

그렇다.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우리는 동참할 뿐이다. 일시적인 동정심을 발휘하거나 내가 열심을 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한 곳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지상병역에 순종한 강동 은누리교회 성도들이 쉼내려갈 여름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이재정 목사(강동 청년부 담당)

## 넘치는 은혜! 흐르는 진리! Overflowing!!!

어김없이 여름이 다가왔다. 전통적으로 교회사역에 있어 여름은 수련회와 성경학교 등을 통해 은혜를 충전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은누리교회의 여름은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아웃리치다.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땅 끝으로, 열방으로 나아간다. 은누리교회가 선교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은누리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여름을 사랑하게 되었다. 썬은 예나저는 동일할지라도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혜는 주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때때로 교회사에서 나타난 삶의 괴리도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소진되면 삶의 힘도 떨어져 어느 순간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라도 된 것 같다. 교회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기다려 은혜라는 연료를 채운 후, 다시 삶의 자리에서 소진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나 교회가

지을 은혜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이다.

나는 선교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고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은 은혜를 충전하러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은혜만 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지만, 진리를 선포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선교의 사람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2014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은혜와 진리’는 강동 은누리에서 ‘넘치는 은혜! 흐르는 진리! Overflowing!’이라는 여름 아웃리치 주제로 다시 선포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요1:14)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

혜로 부어지고 진리의 생명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선교다. 채워져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아 오르기에 흘러간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한 고쳐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어야 한다.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은혜와 진리의 물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인혜 우리의 분출기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름 아웃리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밭을 밟고 서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고 흘러내려가. 영원토록 샘솟는 은혜는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과 동역하는 삶의 자리가 생수가 넘쳐흐르는 샘이 되기를 소망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마이클 오 목사(국제로잔운동 총재)

# “주님의 영광 위해 사십시오”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기구 ‘국제로잔운동(Lausanne Movement)’ 총재 마이클 오 목사가 방한했다. 지난해 3월, 국제 로잔운동 이사회는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오’ 목사를 국제로잔운동 총재 겸 이사장으로 인준했다. 역대 최연소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다. 로잔에서 사역한지 10년 만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모임의 리더가 된 것이다. 지난 10일,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클 오 목사를 만났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Q. 국제로잔운동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로잔모임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지도자들 모임입니다. 국제로잔모임은 영향력, 교회, 리더, 아이디어들을 공유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선교전략은 국제로잔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의 본질을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선교의 의미가 희석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복음화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6,800개의 미전도총족이 있고, 25억 명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거나 없습니다. 누군가가 언어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에 예수님 같은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계 교회들이 겸손, 성실, 단 순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1950년에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하나님은 국제로잔운동을 사용하셔서 세계교회들이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국제로잔운동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총재님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장점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교회와 국제사 회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배치시켜 주셨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성실하지 않고, 부와 건강과 자기중심적 사치와 자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방해가 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미디어 등 무엇을 하던 간에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입니다.”

**Q.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

년들이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도, 국가 원수도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오래가지도 않을 보잘 것 없는 물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성과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일대일로 세계로!

## 언어권별 일대일 양육전문 사역자 모집

양육본부 일대일 위원회에서 ‘언어문화권별 일대일 양육전문 사역자’를 양성해 파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어문화권별 일대일 양육전문 사역자를 모집한다.

은누리교회 양육의 근간은 일대일이다.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일대일 사역은 내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왔다.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외국 교회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동안에는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은누리교회를 방문하는 외국 교회 지도자(목사, 장로, 리더십 등)나 해외 교회에서 요청을 할 경우 아웃리치를 가서 전수해 왔다. 하지

만 언어의 장벽으로 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대일 위원회는 통역자를 두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나라의 언어로 일대일을 전수할 수 있는 언어문화권별 일대일 양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대상 언어권은 영어, 일본어, 중국

어다. 이번 달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8월에는 언어수준을 심사하고, 9월에 언어문화권별 일대일양육전문 사역자반을 개강하는 것이 목표다. 전 과정은 해당 외국어로만 진행된다.

언어문화권별 일대일양육전문 사역자는 캠퍼스와 공동체, 외국어 예배부의 추천을 받는다. 해당 국가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구분	연락처	신청방법	
일대일 위원회	이한열 장로 010-9268-8558	7월 20일까지 문자로 신청 (언어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공동체, 연락처 기재)	
	김영옥 집사 010-2253-9706		
	최선희 사역자 010-3397-1455		
영어 문화권	정영택 장로 010-2881-6124 원철호 집사 010-5232-3238		
일본어 문화권	신민호 장로 010-6301-8531		
	나문채 장로 010-2065-8451		
중국어 문화권	엄익상 집사 010-9710-1616		
	황지연 집사 010-2550-8866		





라마단 기간 동안(오는 27일까지) 시안홀에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된다.

## 무슬림 위한 30일 기도 진행중

### 라마단 기간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Acts29비전빌리지 열방팀에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한 기도회다.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시안홀에서 열린다. 찬양, 중보기도, 말씀,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화요일에는 특별강사를 초청한다. '이슬람 현장사역 경험을 통

한 기도' (15일, 김민석 선교사), '말씀을 통한 기도' (22일, 김마가 선교사)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셔틀을 운행하고 있다. 오전 9시 서빙고 초소, 9시30분 양재 초소에서 출발한다. 오후 2시30분에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출발한다.

이슬람이 3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산 넘고, 바다 건너, GO!



## 여름사역 ... “우리는 사도”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자! 여름사역이 한창이다. 차세대는 캠프, 대학청년부는 아웃리치와 전국대학청년수련회(8월), 공동체와 순은 국내의 아웃리치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CMN(의료선교팀)은 이미 청진기를 들고 열방을 누비고 있다. 열방의 선교사들도 단기선교팀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 열정이 태양보다 뜨겁다. 온누리교회가 올 여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아마도 열방에서 펼쳐지는 전국잔치 아닐까. (관련기사 4면)



르포- 갈렙공동체 몽골에 가다

# 소중한 약속, “꼭 천국에서 만나자”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구름, 높은 하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초원, 반이면 흐트러지는 수많은 별들. 몽골인들이 사람 눈치 안보고 돌아다니는 대자연의 땅 몽골. 그들은 한국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았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우호적이다. 이곳에는 ‘서울의 거리’, ‘남양주 거리’, ‘부신의 거리’가 있다. 한국어 간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몽골 사람들도 많다. 몽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발전하는 속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가 동시대에 있다.

### 칭기스칸의 후예들

몽골사람들은 칭기스칸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영상 4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오르내리는 기후를 건다는 민족답게 어디를 가든지 적응한다. 유목민 특유의 빠른 적응력과 강인함이 이 민족의 강점이다.

몽골의 선교 역사는 길지 않다. 1980년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몽골이 개방되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몽골에 기독교인 비율은 0%였다. 그 후 2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3%까지 증가했다. 지금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 몽골에는 170여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 곳에 남는 것은 몽골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바로 서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했다.

### 평안함에 거हर

한국은 짐동인데 여기는 쌀쌀하다. 지난 12일, 칠곡 같은 아들이 깔린 칭기스칸 공원이었다. 낮은 옷투름 입은 선교사들이 일행을 반겼다. 도착하자마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떨어진 A지역으로 이동했다.

이튿날 아침 큐티 시간. 일행을 인솔한 김대용 목사(갈렙공동체)가 할루빙 걸린 여인의 인화를 주제로 큐티를 인도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아웃리치 팀원들 모두가 고봉으로부터 해방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 속에 거하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몽골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민음의 공전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한 지메의 트럼펫 연주와 성가대의 특성이 있었다. 한국과 몽골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예배였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되어 천국잔치를 열었다.

몽골은 ‘나뉘’이라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

산나는 워싱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낯설 뎀도 한데, 마치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몸을 연신 움직였다.

이제 악기 반드는 시간. 광활한 자연 속에 자라



아름다운 몽골의 대자연 속에 세워진 믿음의 공전교회. 사진 좌측에 몽골 전통집인 게르가 보인다.

난 아이들이라 그런지 숨씨가 제법이었다. 짝지락거리라는 손에 크레용을 쥐고 악기에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했다. 오후에는 각자에게 나눠준 메모장에 주기도문을 적으며 의미도 되새겼다. 허투루 하는 아이 한 명이 없었다. 또 허투루 지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당에 지러했다. 색칠지별로 삼계명을 적고, 팀원들이 준비한 무언극을 선보였다. ‘게르(몽골족의 이동식 전통집)’ 안에서 달란트 시장이 열렸다.

아웃리치 팀원들은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십자가 복귀기를 걸어주었다. 그들을 안고 기도하는 팀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사역이 끝나고 팀원들끼리 후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 뒤에서 아이들이 힘겹게였다. 그러더니 한 팀원에게 달려와 달란트 시장에서 산 선물을 쥐어주었다.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거꾸로 감질

로 받았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웠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랬기에 더 소통할 수 있었다.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고, 마음을 느낀 수 있었다.

### 그곳에서 만난 작은 거인

A지역 가정방문을 했다. 복음의 씨를 틔우기 위해서였다. 출발 전 선교사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행진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믿음을 사신 선교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아니와 담

교회를 왔던 어린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와 게르를 방문했다. 몽골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했다. 자기 소개하고 노래를 들려줬다. 낯선 한국 사람들을 환대했다. 팀원들도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방문하는 집이 늘어감수록 눈물 흘리는 팀원들도 늘었다.

“예수스탄드 헤르테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교회 사람들과 팀원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안았다. 그 포근한 품을 잊을 수 없다. 내 손을 아무짝지는 강인하고 역센 손에서 전달된 온기가 참 좋았다. 아직도 그 체온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사랑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 팀원 18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어린이 사역, 전도 사역, 이마용 사역, 벽화 그리기를 심겼다. 서로 격려하고 채워주며 하나 되었다. 팀원들은 선교를 향한 비전으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작은 거인이 있었다. 바로 김규성 선교사님이다. 그는 항상 우리를 살렸다.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썼다. 어떤 팀원은 ‘작은 예수님’ 같다고 했다. 선교사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선교사님의 눈빛을 보며 삶을 재정비했다. 그는 자고 검소했다. 그렇지만 거인이었다. 몽골선교에 대한 열정을 섬스게 해준 마중물이었다. 우리를 도운 이들이 또 있다. 통역을 해준 두명, 응드르, 빈쿠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몽골에만 쓰는 민족에게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몽골 기독교인들은 2000비전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몽골인구의 10%를 복음화하겠다는 거룩한 비전이다. 우리도 2000비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잊지 말고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무릎을 꿇자.

/ 박인애 기자 leat@onnuri.org



## 중문 CGNTV 개국 6주년 기념예배

### “최고의 교육채널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중문 CGNTV의 24시간 중국어 프로그램은 대만 목회자와 크리스천 들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진리당. 2008년 오픈한 중문 CGNTV 개국 6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 대만교회 지도자들과 한인선교사들은 “CGNTV 중국어 프로그램이 신학적 깊이까지 더해준다”며 이같이 고백했다.

장전화(장즈추이싱다오회) 목사는 이날 간증을 통해 “성도들을 위한 올바른 양육 방법과 교재가 마땅치 않은 대만교회 현실에서 QT ‘생명의 삶’은 영적 청량제와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중문 CGNTV와 성광신학교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대만의 3대 신학교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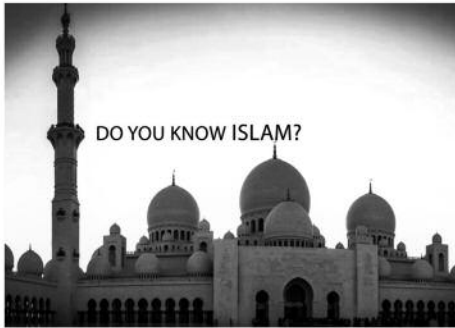
인 성광신학교는 100년째 중화권 선교에 비전이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양질의 신학 교육과 양육에 힘쓰고 있다. MOU 체결에 따라 중문 CGNTV는 앞으로 성광 신학교의 강의와 학술 모임 등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현지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신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경훈 목사는 “중문 CGNTV는 중국 크리스천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교회, 성경, 하나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채널이 되도록 대만 교회와 한인 선교사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동역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CGNTV 라마단 기간 특별 기획영상

# 이슬람은 무엇인가?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전 세계인구의 약 20%가 모슬렘입니다. 여러분은 이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Q. 이슬람과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꾸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알라가 보낸 예언자라

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의 구원은 알라의 의지로 결정되며 선행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

**Q. 무슬림의 5가지 의무중 하나인 라마단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로 무함마드가 천사를 통해 꾸란을 계시 받은 달을 의미하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무슬림들은 한 달간 금식을 통해 알라를

기쁘게 하므로 죄를 탕감 받고 착한 일을 하면 7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금식을 철저히 지키도록 경찰이 동원되며 낮에는 식당 문을 닫고 해가 지면 이프타르라는 저녁식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Q. 우리는 무슬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슬림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이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CGNTV가 제작한 라마단 기간 특별 기획영상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제목을 만나보세요.

[www.youtube.com/globalcgn](http://www.youtube.com/globalcgn)



# 목사님,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8월 2일 오전 10시30분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행사가 8월 2일 오전 10시30분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행사에는 가족과 교회리더십, 지인, 은누리교회 성도 등이 참석해 추모예배를 드리고, 하용조 기념관 착공식을 거행한다. 착공식에서는 하용조 기념관 모형관이 공개될 예정이다. 8월3일에는 하용조 목사 추모 주일예배를 드린다.

추모행사장으로 가는 차편은 따로 마련되지 않는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추모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3주기 추모일을 통해 하용조 목사님의 삶과 비전을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간이 되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7면)



# 청진기 들고 땅 끝으로!



## 젯빛과 황토빛 속에서 푸르른 희망을 찾다 CMN과 분당B공동체가 함께 만든 여름 이야기

이곳의 젯인상은 젯빛이다. 햇빛보다 비를 잔뜩 머금은 마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게 퍼붓는 빗줄기를 보면서 한 팀원은 노아의 홍수를 떠올렸다. 비가 멈추니 이번에는 황토빛이다. 대로를 밟아내면 흙길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비가 퍼붓는 바람에 온통 진흙탕이다.

이곳은 영적으로도 젯빛이다. 황토빛이다. 그만큼 폐쇄적이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르다. 우리는 도구였다. 은사와 달란트, 순종하는 마음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

### 처음이자 마지막 치료

한국에서 의사들이 와서 병 고쳐준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다. 갓난아이를 안고 온 어린 엄마부터, 주름에 삶의 고단함이 잔개 번 노년까지 길게 늘어선 줄이 끊어 없다. 경직된 표정의 사람들이 눈만 마주치면 웃는다. 너나 할 것 없이 합장하고 수줍게 인사한다.

후렴처럼 근근이 끈적끈적하다.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고직인 허름한 교실이 진료실로 탈바꿈했다. 야국과 미용실도 차려졌다. 욕구같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이가 차가운 청진기를 가슴에 갖다 대자 울이댄다. 통역하는 선교사와 의사 선생님이 우는 아이 달래느라 혼쭐이 났다.

이곳은 가는 곳마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 감시

하는 눈초리가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우리를 감시하러 온 사람인줄 알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준다. 진료소로 한꺼번에 몰려 든 사람들을 줄 세우고 안내했다. 덤으로 찍은 이도 찍고, 내과 진료를 받았다. 파스도 한아름 얻어갔다.

다리가 굵은 주민이 진료소로 들어왔다. 곧바로 외과수술이 시작되었다. 마취주사를 놓고 고름을 짜내고 소독약과 연고를 받았다. 그리고 봉대로 감쌌다.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리를 쓸 수 없을 지도 모르니 병원에 꼭 가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모두가 안고 있었다. 이 치료가 처음이자 마지막 치료라는 것을.

### 그들의 생명을 살려라

우리가 방문한 이곳은 불교국가다. 인구의 98%가 불교신자다. 마을마다 사원(집)이 꼭 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군대에 가듯이 이곳 남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출가해서 사원에서 수련을 받는다.

인구는 대략 700만 명 정도도 추산된다. 이곳 사람들의 월소득은 80~100달러 수준이다. 문맹률이 무려 13%에 달한다. 최빈국 중 하나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매우 높다.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배도 받았다.

이곳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질

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약 30달러가 든다. 한 달 소득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임무를 못 낸다. 그나마 수도인 이곳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CMN 연합 아웃리치팀이 활약해야 할 이유다.

지난 17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된 CMN BEE 팀과 분당B공동체의 연합 아웃리치는 외곽지역 3곳에서 실시되었다. 의료봉사와 더불어 건물 페인트칠, 아이용 시약, 어린이 사역도 병행했다. 봉사자 5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봉사팀이었다.

이곳에서 CMN 연합 아웃리치팀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통했다. 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 약국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해 간 약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었다. 거기에 이미용과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풍선불기, 부채 만들기, 천안과 율동까지 준비해갔다.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곳은 지금 우기다. 한 방죽국 뿔 때마다 댕이 비 오듯 쏟아진다. 끈적끈적한 습기가 온 몸을 휘감는다. 약조건이었지만 CMN 연합 아웃리치팀원들의 사기를 꺾지 못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 핍박이 심한 나라

이곳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나라다. 이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교가 금지되어 있다. 전도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이다. 또한 선교사들의 입지가 좁아져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 수가 적다. 그러다보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하고 있다.

이번 CMN 연합 아웃리치에서도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떤 선교사는 중요한 일정을 미뤘고, 또 다른 선교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에는 교단과 교회도, 개인의 사정도 중요하지 않았다.

###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웃리치에 동참한 팀원들의 이력과 사연이 다양했다. 가족단위 봉사자가 많았다. 한 부모는 자녀에게 학원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왔다고 했다. 어린 자녀들의 활약도 대단했다. 초등학생 5학년짜리 아이 하나는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일정을 보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환자들을 안내했다.

주치의가 의료봉사 간다는 소사에 따라 온 팀원도 있고, 충남 예산과 천안에서 온 팀원도 있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팀원도 있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매년 빠지지 않고 동참하고 있다.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고교에 돌아와 교회개척을 준비 중인 한 자매와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형제, 한국말도 모르고 크리스천도 아니지만 이번 봉사에 함께한 형제까지 현지인들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 차가운 청진기에 놀라 울음을 터트린 현지 어린이. 임동재소아과 전문의, 사진 왼쪽 선생이 선교사(사진 오른쪽)의 동역을 도움삼아 진료하고 있다.
2. 정우현 어린이(초5)는 3일 동안의 강행군 속에 어른들보다도 더 씩씩하게 환자들을 안내했다.
3. 진료를 받고 약이 처방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복도가 발 디딜 틈이 없다.



## CMN 연합팀과 보낸 시간에 대한 소회(所懷)

### “길 없는 곳에 길 닦는 사랑의 불도저”

나와 아내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 CMN BEE팀의 멤버였다. 이번에 CMN 연합 아웃리치팀이 이곳에 방문한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53명이나 되는 아웃리치팀원들이 진료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서류를 만드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되었다. 분명 이곳 정부에서 까다롭게 체크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번도 공식적으로 서류작업을 진행해보지도 않은 것도 약점이었다. CMN 연합팀이 방문할 지역의 주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의외로 쉽게 허락해줬다. 일이 쉽게 진행되는 듯 했는데 아웃리치팀이 라오스로 입국하기 3주 전에 정부에서 서류를 접수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남은 시간동안 서류를 다시 접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때부터 절망에 빠졌다. 그때 뒷걸음치는 모습을 불러 이소벨 백성들을 애급에서 불러내라고 명령한 것이 떠올랐다. 주 정부 직원을 향한 분노를 차분한 마음과 용기로 바꿨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다. 보건부, 외교부, 교육체육부, 한국대사관 등을 찾아가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렇게 아웃리치 팀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은 서류를 받아 들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감격이었다. 참고로 다른 교회 의료팀은 한국에서 가져온 약들이 공항에서 통과 되지 않아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다. 이곳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헌신적이고 도전적으로 의료 사역을 하는 영혼들을 통해 이곳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CMN 연합팀과 함께 했다. “작은 자 한 영혼이 천을 이루었고 약한 자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사 60:22). 진료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곳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삭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해

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 땅에 하루 속히 종교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했다. CMN 연합팀은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머리핀산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각 자체들이 한 덩어리로 사역을 감당했다. 서로가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는 접수대가 있었고 진료실까지 안내하는 자체도 있었다. 1,726건의 진찰을 했다. 기도하며 조제하는 약국도 있었다.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는 어린이사역팀도 있었다. 생애 첫 머리손실을 해준 이마용팀도 빠질 수 없다. 길 없는 곳에 길 닦는 공동체였다. 사랑의 불도저였다. CMN 연합팀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기를 바란다. 그들에게 영통함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간절히 되새기는 시간이었길 바란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한다.

/ J 선교사

## Interview

### “감사하고, 기쁘고, 보고 싶고”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예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크리스트천이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온 의료봉사팀과 함께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을 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도 잘라주고 맛있는 한국음식도 맛있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한국방송(아리랑TV)을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내내에도 우리나라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현지에서 만난 형제

### “CMN은 종합엔터테인먼트”

CMN은 하나의 종합엔터테인먼트 같습니다. 소아과,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한방, 약국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종합예술을 의술을 통해 실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료봉사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진료하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접수하고 안내해주는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통역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준비하는 팀원도 필요합니다. 의료진만 가는 아웃리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들의 도움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히 섬겨 주신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청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임병훈 집사(내과 전문의)



간 증 ■ J4U공동체, 남아시아B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허세현 자매(J4U공동체)

# 99%의 믿음과 1%의 열심으로



벌써 8년째 가는 여름 아웃리치다. 올해 아웃리치는 여름이면 습관적으로 신청했던 지난해 아웃리치와는 달랐다. 기대감과 소망이 컸다. 아웃리치가 기다려졌다. 매년 일정과 재정 상황을 따져보며 아웃리치를 갈지 말지를 결정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올해는 나에게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웃리치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의 2014년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이번 아웃리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인지 내가 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처음에는 "주님 저는 못해요"라고 기도했다. 아웃리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내 의지대로 하려하고 두려다고 외치는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온전히 맡기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고 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곳은 남아시아B국이다. 최고의 팀원 10명이 모였다. 지난 12일 우리는 남아시아B국 A지역으로 향했다.

남아시아B국은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불교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는 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체포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드러내서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 곳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하셨다.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그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기를 소망하신다고 하셨다. 선교사님은 그 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무조건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현지인들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교사님은 그 누구보다 남아시아B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셨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현지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딱 한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다.

"99%의 예수님 잘 믿는 것과 1%의 열심으

로 하라"

잡초를 뽑고, 모링가나무를 심었다. 사육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기도 하고, 크고 작은 돌들을 모아 물감도 만들었다. 선교사님은 현지인들과 했으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을 우리 팀이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두가 협력할 때 선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고 권면하셨다. 우리는 현지인들과 함께 위심을 하고, 삶도 나눴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 노는 시간도 보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지켜있는 현지인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다. 사역 중에 잠깐씩 불어오는 바람과 한 번씩 쏟아지던 비도 기뻐다. 동역하는 기쁨이었다.

그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왔다. 그 중심에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곳에서 본 것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곳을 마음에 품었다. 이제 99%의 믿음과 1%의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남아시아B국.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회복되길 소망한다.

01

### “선교를 꿈꾸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동아시아A국을 품게 하셨을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선교지 생활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이 땅을 생각 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몸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2002년에 동아시아A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가장 행복한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현지인들과 생각새도 비슷해서인지 이곳 사람들과 9년 동안 잠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행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만나고, 이 민족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때 건강을 잃으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이 성전인데 몸을 함부로 방치해놓았던 것에 대해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은누리교회 이웃리처팀에게 권면합니다.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리처팀들이 복음을 전하고 간 곳이 앞으로 선교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이 민족의 잠재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거듭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선교지에서 그들을 안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저는 잠잠히 이 나라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꿈을 주고 싶습니다. 이 땅을 기대하십시오. 선교에 대해 꿈을 꾸십시오.

02

### QT 묵상



###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서승욱 권사가 그린 그림.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그렸다. 여름 사역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뜨거운 태양도, 비바람도 우리 앞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던 그 사람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길 기도한다. 그런 믿음이 샘솟으면 정말 좋겠다.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특집



# 그가 남긴 비전은 영원하다

벌써 3년이다. 하용조 목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지. 복음과 사랑으로 한 평생 '사도행전적 교회'를 일군 故하용조 목사.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고 보고 싶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이 쇠약했지만 강단에만 오르면 불을 뿜던 그의 모습이 사무친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설교가 나를 살렸다", "아플수록 비전은 커지고 단단해졌다"던 그의 음성이 귓가를 맴돈다. 하용조 목사 3주기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큰 별이요, 거목(巨木)이었던 그의 생애를 기린다. / 편집자 주

##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 최상의 생애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 하용조

하 목사는 1985년 귀국해 12가정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 작은 모임이 오늘날 7만 명이 넘는 성도가 출석하고, 단일교회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2003년에는 Acts29 비전을 선포하고 국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베트남, 중동 등지에 40개의 교회를 설립했다. 2005년 3월에는 선교교육방송 CGNTV를 개국하였다. CGNTV는 650만 명의 해외 한인들과 수많은 선교사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와 트리니티 신학교, 숭실대, 명지대, 장신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햇볕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후학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데에도 헌신했다.

그는 생전에 온누리교회, 두란노, CGNTV에 물 보듯 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애썼다. 가진 진액을 모두 쏟아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생전의 바람대로 2011년 8월 2일 '변화산에서 생김 일(막 9:2-13)'을 주제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뇌출혈로 소천했다. 향년 65세.

하나님의 사람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의 꿈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가 목숨바쳐 이루고자 했던 비전과 꿈이 지금도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 목사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온누리교회 2기가 출범해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하용조 목사는 1943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5살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부모와 함께 목포로 피난했다. 어린 시절 하 목사는 부모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때 약한 자를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청소년 시절 하용조 목사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당시 하 목사는 김준곤 목사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가졌다. 청년시절 폐결핵을 앓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1974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M.Div)를 마치고, 1976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하 목사는 한국 최초 '연예인교회'를 세웠다. 연예인교회에서 사역하던 하 목사는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이 겹쳐 또 다시 쓰러졌다. 병상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중, 바울이 예배소에서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1981년 12월 두란노서원을 창립했다.

하 목사는 이영기 사모와 1978년 결혼하였다. 이들 부부는 안식과 기도, 학업을 위해 1981년 영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London Institutes'에서 만난 존 스토틀에게 큰 도전을 받았다. 영국에서 안식하는 동안 하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초대교회, 예수님이

01

두란노 신간

## 선교사들을 위한 종합지침서

**하나님의 선교사  
A to Z**

〈하나님의 선교사 A to Z〉  
김종성 지음 | 두란노 | 16,000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 만에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인 선교사를 위한 지침서가 없었다. 김종성 목사가 처음으로 한국인 선교사를 위한 지침서를 출판했다.

이 책에는 선교의 본질과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선교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지역방향 설정, 가족문제, 선교사와 선교본부와의 관계, 위기관리와 이양, 은퇴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에 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다뤘다. 저자는 선교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선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펴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로 나가기로 헌신하는 순간 심장이 뒹는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줄달음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다.

02

## 하루 3분, 이주민 위해 기도하자

### 온누리M미션, 180일/1000명 중보기도운동 전개

온누리M미션에서 이주민 구원을 위한 180일/1000명 중보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180일 동안 기도하는 1000명의 중보자를 세운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온누리M미션에서는 이주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운동에 참여할 1000명의 중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중보기도운동은 12월 31일까지 180일(6개월) 동안 이어진다. 현재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로 본인이름과 '1000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010-8901-8958, 010-3649-8879로 전송하면

된다. 그러면 이주민 2명과 예배책임자 1명의 기도제목을 담당으로 보내준다. 담당으로 받은 기도제목을 놓고 매일 3분 동안 중보기도하면 된다.

이외에도 1인 1명 중보자 추천, 안산M센터 주일 열방예배(오전11시) 참석 등으로도 이주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

- ① 본인 이름, '1000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는 문구 작성
- ② 010-8901-8958, 010-3649-8879로 문자메시지 전송
- ③ 이주민 2명, 예배책임자 1명의 기도제목을 받기
- ④ 기도제목을 놓고 매일 3분 동안 중보기도하기

김영철 목사(온누리M미션)는 “온누리M미션에 출석하는 이주민 6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M미션에는 550명의 이주민들이 출석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4년 7월 27일 1010호

- 01- 두란노 신간 : 『하나님의 선교사 A to Z』 - 김종성 지음(9면)
- 02- 온누리M미션 : 이주민 구원 위한 〈180일/1000명〉 중보기도운동 중보자 모집(10면)



01

### 제1회 제3세계 문화교류 프로젝트 포럼

#### NGO 더멋진세상 활동가 손희원 성도 발표

지난 22일,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동그라미재단에서 2014 제1회 제3세계 문화교류 프로젝트 포럼 ‘서아프리카(세네갈)-한국 문화교류를 위한 전략’ 행사를 열었다.

엘리스런이 주최하고, 아프리카인 사이트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제3세계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각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날 포럼 발제2부 순서에서 온누리교회 손희원 성도가 2013년 세네갈 본나라마을에서 더멋진세상 활동가로 지내면서 겪었던 문화적인 충격, 그 문화에서 배운 가치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발표에서 “사막의 셀 수 없

는 모래들이 저마다 다름을 이야기 하였고, 내가 살던 서울과 이름 모를 이 작은 마을은 너무나도 무섭게 닮아 있었다. 사람이 같았고, 사람이 달랐다. 우린 틀리지 않았다고 일기장에 적은 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해한다면 서로를 아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날 포럼에는 손희원 성도뿐 아니라 하계훈 단국대교수, 이영주 서울오브아프리카 대표, 팝아티스트 김일동 등이 제3세계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박원새 기자

02

#### 시안열방예배 특별집회 그 후



/ 박은숙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 일상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외조부와 외조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나 바울처럼 인생을 바꿀만한 커다란 사건 없는 평범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다.

지인을 통해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드리고 있는 시안열방예배에서 특별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하나님의 부흥’이 주제였다. 단순히 북한의 실정이나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북한은 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고향이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 들었던 외가 이야기는 진실 같은 이야기 같았다. 이번 집회에 참가하면서 서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찬양을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사야를 가렸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눈물이 흘렀다. 마음이 아팠다. 닦고 닦아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언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다.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흔드셨다. 피터 양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떠나게 하시고, 흘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의 통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나 구호 수준이 아니라 거룩함과 겸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대원 목사님의 말씀은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다. 소수의 권력자로 인해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내 나라이요, 내 동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이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고향이라는 것이 아픈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 동포를 품고 평생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오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고형원 선교사님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풍곡하던 이스라엘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하셨듯이 이 땅(한반도)의 아픔을 아시고 열방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집회가 끝나고 7월도 종순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세 아이의 엄마로 바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변화가 생겼다. 그들을 향한 작은 사랑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었다. 중언부언(重言復言)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상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찬양의 선포처럼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안에 아픔과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의 보혈로만 치유하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 개인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그 날까지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27일 1010호

- 01- <제1회 제3세계 문화교류 프로젝트 포럼> 온누리교회 ‘손희원’ 성도 발표(10면)
- 02- 시안열방예배 특별집회 후기 : 박은숙 성도(11면)

## CGNTV 1기 방송선교사 파견

### CGNTV 1기 방송선교사 파견 방송선교사 4명 인도네시아, 일본으로 파견

킬 것을 믿는다"고 했고 신정길 PD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영상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으로 파견되는 이철원 PD는 "일본교회와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섬

CGNTV가 1기 방송선교사를 파견했다. 지난 25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CGNTV 방송 선교사 파견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CGNTV 직원 4명(인도네시아 윤영준 국장, 신정길 PD, 일본 이철원 PD, 박미진 자매)이 방송선교사로 파송되었다.

CGNTV 1기 방송선교사 파견 예배는 정대서 장로의 대표기도를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 이재훈 목사의 말씀, 파견선교사 간증 및 파견증 수여, 중보기도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교에서 이재훈 목사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한 4명의



선교사들을 축복했다. 인도네시아로 파송되는 윤영준 국장은 "CGNTV가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변화시

기겠다"고 약속했고, 박미진 자매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하용조 기념관 착공



## 상징적인 건축물, 내년 8월 완공

하용조 기념관이 Acts29비전빌리지에 세워진다. 어제(2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고, 기념관 착공식을 거행했다. 기념관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하 목사의 삶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하용조 기념관은 선교사와 동역자,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실, 기도실, 예배당, 외부광장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8월 완공예정이다. 3주기 추모예배에는 가족, 교회리더십 등이 참석해 하 목사의 일을 기렸다. 오늘 주일예배는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로 드린다. (관련기사 4-5면)



#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한국교회의 건강한 영성,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열심이 인도네시아어 방송으로 전해지기를 기도해왔는데 곧 진출한다고 하니 기도 응답을 받았네요.”

오는 9월 설립되는 인도네시아 CGNTV 지사를 바라보는 현지 한인과 인도네시아 교회지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인도네시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위성방송인 '인도비전 라이프채널'을 통해 9월 1일부터 매일 2시간씩 CGNTV 콘텐츠를 공급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다.

9월 17-18일 '러브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인 지사 설립 콘서트를 위해 현지에서 동참하는 가문의 민면만 봐도 CGNTV가 얼마나 연합과 일치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주회는 CGNTV와 인도비전 라이프채널, 협력은 한인의 경우 인도네시아 한인목회자협의회, 한인선교사협의회, CBMC연합회, 자카르타 극동방송과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인도네시아복음주의교회협의회, 전국기독교네트워크, '마이 홈 인도네시아' 등 한인기독인과 인도네시아기독인이 망라되는 등 실질적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고바르 쿤툼(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사무총장) 박사는 "세계 최대 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CGNTV가 인도네시아 교회에 축복의 통로이자 (선교적)사명을 깨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훈 목사(인도네시아 한인목회자협의회장)는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성과 부흥 비결을 정말 배우고 싶어했다"면서 "이 때문에 '육군'과 같은 우리들(한인 목회자와 선교사)이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군'과 같은 CGNTV의 진출을 자기 일처럼 반기고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 민족과 종교, 세대 넘어 산소 같은 역할 기대

CGNTV는 인도네시아 교회와의 교류와 협력



에 청량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현지에서 단순히 기독교방송의 진출로 보지 않고 낯선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다. 다-델 뎅지 목사(전국기독교네트워크 대표)는 "인도네시아 교회와 한국교회와의 동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그 중심이 바로 CGNTV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훈 박사는 "그동안 한인 사역자들이 열심히 헌신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현지 지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교단과 교파, 기관을 넘어 인도네시아 전체로 이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CGNTV를 계기로 한인 교회, 한인 사역자와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간 전방위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인 회장(인도네시아 CBMC연합회)은 "그동안 교회공동체는 한인교회 중심으로 선교공동체는 각 교단 선교사 중심으로, 열대 사역지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2% 부족하는 느낌이었다"며 "CGNTV가 인도네시아에서 민족과 종교, 세대를 넘어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CGNTV가 한인 사역자들을 위한 공공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한인(다마스 포라에게 양질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접하게

돼 전도효과도 거둘 수 있다. 어성호 대학원장(자카르타 웨슬리대학교)은 "한인 사역자들은 CGNTV를 방송국이기에 앞서 하나의 선교기관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CGNTV가 순수 선교교육 방송을 내걸고 있어 우리는 서로 사역과 그 내용이 다를 뿐 하나의 공동체라고 본다"며 "한인 사역자들의 공간과 시간, 재정적 한계를 초월해 동역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CGNTV가 인도네시아 기독교방송 기술과 콘텐츠의 업그레이드에도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부터 라이프채널 2시간 편성 방송으로 시작되지만 '사이닝채널' 등 더 많은 오픈소스를 활용해 더 많은 현지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지사 설립 전부터 나올 정도다.

유재건 장로(CGNTV 대표)는 "은누리교회가 있기에 CGNTV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사와 제작센터에서 기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용조 목사의 유지를 받은 이재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함태경 CGNTV경영지원본부장



## 인도네시아 CGNTV 지사 설립 기념행사

### '러브 인도네시아 (LOVE INDONESIA)'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하나 되는 '러브 인도네시아' 행사가 오는 9월 17-18일 CGNTV와 인도비전 라이프채널 공동주최로 열린다.

행사 첫째 날, 한인 크리스천들이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연합전회를 갖는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송슬나루, 자카르타 극동방송 합창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9월 18일 저녁 7시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CGNTV 지사 설립 축하콘서트 '러브 인도네시아 가발라이사르비니 (Bale Sartin)'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행사 준비부터 진행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합해 진행한다는 것. 1부는 인도비전이 주도해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연예인의 무대가 펼쳐지고, 2부는 CGNTV가 중심이 돼 문화 공연, 한류스타의 무대로 꾸며진다.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인도네시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전한다. 콘서트에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 협력을 위해 각각 리더십도 한자리에 모인다. 인도네시아 목회자, CEO, 한인 목회자, 선교사, CGNTV 운영위원 등 약 300여 명이 첫 만남을 갖고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CGNTV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게 된다.

## Interview 이재훈 목사



▷ CGNTV가 인도네시아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누리교회 목회자 출신들이 한인교회를 섬기는가 하면 우리 교회 파송 사역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

## 인도네시아를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웃리치 등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한인교회와 인도네시아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오는 9월 CGNTV 지사 설립은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의는 교회가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는 3대 융합선교 지역이 있는데, 일본,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 북서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CGNTV 지사 설립에 맞춰 이뤄지는 '러브 인도네시아' 행사가 인도네시아 CGNTV의 존재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 현지인과 한인 기독교리더십과 CGNTV

가 함께 '러브 인도네시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목회자협의회, 한인선교사협의회 등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가 한 마음으로 9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브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인도네시아복음주의교회협의회 등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 움직입니다. (교단, 교파, 그룹을 뛰어넘어 사역하는) 'CGNTV'가 어떤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현지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행사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지기 매우 어렵죠.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 인도네시아 CGNTV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CGNTV와 같은 작은 방송국이 인도네시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 말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을 잊지 않고 CGNTV가 인도네시아를 보다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이자 개신교인 2500만 명, 교회 18만개나 달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CGNTV가 인도네시아를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 함태경 CGNTV경영기획본부장



은누리교회 성도님들께

# 구름의 언덕 쿠사츠에서

“눈이 내리자도 예쁜 안경을 맞추어 쓸 수 있고 안경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도 감당할 수 있다니 감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목사님 계실 때 입던 옷들로 평생 입다가 갈 수도 있으니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너무 물질적인 생각과 궁여지책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식주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타인에게 신세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잘 살아야 한다고 부탁하고 계신다.

남편 하용종 목사님께서 옆에 계시는 때도 복숭아 먹고 대밭에서 기도해 드리는 대신 ‘주의 종 이 사니 직접 살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 드리는 모습을 원하시며 기다리시다가 가졌을까 민망해 하던 시 오솔밭도 마음의 창문은 닫는다.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기도 제목을 잘 모음으로 아직도 기도는 간단히 하며 지내는 편이다. 남편을 잃은 자의 간절함으로 그분을 다시 만나 보고 싶은데, 꿈에라도 나타나 달라고 애원하던 말인가? 그 분이 가셨다는 사실이 절대로 나 자신이 선택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도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적어도 그 분과 나는 지상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랬던 기억이 별로 나지 않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되도록이면 따뜻한 발들을 주고받으며 이해를 해주는 것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 따뜻한 동지 안에서 거하고 있던 우리에게도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 있었다. 아직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혼자 지낸다. 혹시, 누군가 다가와서 이 사실을 상기도는 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냉혹한 얼음의 동굴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것인가?

더우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피혜 다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며 가방을 싸고 풀고는 시끄러운 뉴스는 꺼버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안에서 원할 때까지 앉아있어도 되는 나의 시간들을 자유롭게 배설해 보곤 한다.

“누가 나에게 이러한 종류의 시간을 부여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구나! 만물의 때를 아시는 주님의 눈에는 나도 그의 미비한 만물 중 하나였는가? 그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자부심과 특권의식의 격하를 느끼며, 비천한 존재로 쓸어담으심을 느끼는 한 과부로부터 격려해서, 주인의 뜻을 파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 약한 한 존재가 그의 발상상 밑에 엎드려져 있다. 다시는 모르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난해 필리핀을 출가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쓰러짐이 가 참 크시고 강하시구나’ 하며 자신이라는 한 나라에 미친 자연의 재해를 묵상하며 자득한 현실을 피부로 느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작은 존재 안에도 창조주의 뜻을 헤아리고 간파하리라는 가능성을 창조주께서는 아직도 보고 계신 것일까? 차라리 예제로워하는 그의 눈빛을 직시할 적이 있다면 내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지반으로 떨어져 허둥대는 나를 보는 그의 생각이 무엇일까? 내가 자신을 작게 느껴 볼 수 있도록 만가르실 때에는 땅중 한 아이라도 반으로 잘라 놓으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 당신이니 건너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구나. 지난 해 그렇게 하기로 한 날에도 ‘우리 용조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조 좀 잘 해 주세요’ 하며 길을 건너가 돌아왔다.

지난해 주선에 교수님의 자서전을 읽으며 놀랐었다. 그는 남편이 돌아가시지마자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오 늘날까지 달려 갈 길을 다 가고 계셨다. 그분은 우리 쿠사츠집에 오셨을 때 무릎 꿇고 예배드리시는 습관을 보여주셨다. 90세가 되시도록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 하리를 끈기 있게 앉아 계시던 모습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람마다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일까? 훈련의 성숙함과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을까? 하용종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아중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하여 무슨 생각이든지 써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앉아 있다. 비록 체계가 있는 글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끝내 가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독자들을 무지무지하게 지루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구도 나의 복상의 여로를 같이 걸어가 주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언제든지 이 글을 읽는 것을 포기해서도 섭섭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다. 아니, 초장에 몇 글자라도 읽다만도 된 그것만으로도 미리 감사드리다. 내가 평정한 저자는 아니더라도 이 글을 내어 주시는 너그러운 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신기 되었기 때문이리라. 이는 출판사나 저자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신다. 나 같은 정도의 저자는 어떤 출판사에서든 허락 받기 힘들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책 한편을 내서 안 팔리면 얼마나 큰 손실을 보는지 아는가? 2년 전 써서 출판된 《쿠사츠의 봄》도 그런 경우였다. 독자들이 하도 안 읽어 주셔서 출판을 포기하였었다. 너무나 제 소리만하고 돌아가신 분의 사모답지 않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여유를 부리지 못해서란다. 혼자 된 것을 소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통해 하면서 감기도 안하고 자신을 고신치대로 격리시켜버린 상태를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을 용조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이 맞지 않는 것일까?

미안하지만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려면 아직은 영적인 용기가 솟아져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먼 길을 떠나 다니는 짐 보따리가 얼마나 함축

되어지고 작아져야 하는지 조금 전 까지도 터득하지 못한 채 돌아다니며 살았다. 이제는 어디가 먼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작은 지퍼백들이다. 종류와 용도별로 분류해서 주머니들로 채우고 다니면 트렁크 속을 다 뒤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트렁크 가득한 작은 백들 때문에 비사에게 구역을 받은 한다. 이렇게 먼 길을 떠나 다니면서, 무거운 트렁크를 밀고 다니는 나의 모습이 탱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한 달행이의 고달픈 인생을 이해하려 다닐 때도 있다. 아무튼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한 곳에 머무르면서 글도 다시 쓰고 주변을 더욱 더 정리해서 하는 나라에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목상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뵙자 천국에 가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서다. 걸어가며, 그날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성경말씀을 들곤 한다. 과연 기도원이 되어간다. 공동체의 삶이 부재하다는 비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느낀다. 능력도 없지만, 좋이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리워하는 친구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나의 친구는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날까지 나 자신의 동반자가 되어 줄만한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필요가 변화될 때 환경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블란드에 있다는 때제공동체에 대한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몇 달 혼자 가서 재나돌까 하는 생각도 깊이 해 보았지만 서양식 강의와 훈련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싶지 않아서, 리더들의 이름 들만 살펴 본 기억이 난다. 그 후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기도제목으로만 적어 놓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어로 짧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생긴다.

절었을 때는 보리빵 한 개와 바더, 치즈 한 쪽과 사과 한 개, 물 한 병을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도 아무 갈등이 없었다. 아예도 간강이 사먹으며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았었다. 지금은 기숙사에서 재강하는 식사를 즐으며 앉아 있다가 내린 생각이 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란한 식당이 아니라 간단한 음식일 뿐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한 끼씩 먹고 마는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용조와 나는 먹는 것에서 별로 격식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건강에 맞추어 주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렇게 오순도순 지내던 나의 남편이 남아가 버린 동지의 반지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

질 때가 사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혼자 재내며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다른 노력을 할 만한 마음은 별로 없다. 사람의 생명이 지탱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말인가? 무엇을 꼭꼭 씹어 먹고 소화시키는 본능이 인간에게는 질가다. 치사하다고 할까.

나는 잔다. 나를 깨우지 마라. 내 잠자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게 정돈되어 있는지 보면 놀란 것이다. 매일 밤, 기도드리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만나 보면 참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예쁘다고 생각되는 잠옷을 입고 자곤 한다. 이 지상의 마지막 모습이 예쁘기를 바라면서, 되도록이면 따뜻해 보이는 잠옷을 골라 입고 한다. 마지막으로 추워하다가 갔을지도 모른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자기 직전에 집을 치운다. 정돈을 깨끗이 해 놓고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간다. 혹 누가 와서 헛되려 놓으면 자다 말고 나와서라도 치우고 잔다. 또한 저녁마다 빨래를 해서 압전하게 널어놓고 잔다. 집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하려면 습도가 필요해서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꽃병에서 꽃들을 갈아서 꽃아놓는다. 혼자 사는 나를 존중해주고 싶어서 말이다. 아주 작은 꽃병들이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꽃에서 구수구수 놓아준다. 건다가 보면 예쁜 들꽃이 시절을 따라 바뀌어 피고,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계절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별로 비싼 꽃은 사지도 않는 나를 반겨주는 꽃가게 주인이 뒤어 나오며 웃어 주는 것을 나는 은근히 좋아한다. 지난번 아주 이른 봄부터 갈피싸고 귀한 작약꽃과 함박꽃을 팔기에 사준 적도 있었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구해 온 꽃들이었을까?

우리집 길 끝네에 있는 한 레스링을 들어가 보면 급직한 바하한의 허브나누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나는 어김없이 몇 잎새를 뜯어서 코에 대곤 심호흡을 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방지처럼 생긴 기방 속으로 코스모스, 다리아라, 분꽃, 시르비아, 빨간 열매, 단풍잎, 수도 없이 많은 들꽃을 꺾어 담아가고, 시들도록 건다가 집에 외서는 불에 담가 놓았다가 병에 꽂아 놓는다. 개들은 오래 못가서 시들어 버리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버섯과 아재들, 치즈와 곡식 등을 사서 박스에 담은 후, 비사가 미리 써서 준비해 준 주스 스티커를 한 장 붙여놓고 걸어서 올라오면 프론트를 지나기도 전에 벌써 배탈이 되어 있다고 알려준다. 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디든지 갈아 다니면 되니까 말이다. ‘저 여자는 직업이 걷는 것인가?’ 하고 수근대는 것 같은 느낌이 뒤통수를 치는 날에는 인출 프론트를 사용하지 않고, 비자하실로 나가서 빌런을 반 바퀴 더 돌아 동네 어귀로 나가버리곤 한다. 사람끼리 부대끼는 일은 없도록 자신을 도와주며 살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온 여자가 왜 혼자 사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용조씨 덕분에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분 덕분에 말이다. “고맙지 뭐, 진심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쉬게 해 주신 수 있겠나!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분은 내가 좀 쉬면 무지조심해 주셨는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곤 한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은퇴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들 당황을 하는가? 시골에서 지내던 시절, 그것도 적응을 못해서 갑자기 늘어버릴 수도 있으니 따라하기는 마시기를 바란다.

이런 내게도 도전이라는 것이 있었다. 원 코인(One coin bus) 버스는 동네버스이다. 백엔 짜리 동전 하나로 미니버스를 타면 동네 어디든지 데려다 준다. 샤프로 우유로 만든 이이스크림쿠크를 하나 들고 앉아 편하게 동네를 구경하며 드라이브를 하곤 하는데 자동차가 없는 나에게는 크나큰 위안이 된다. 택시를 타고 다녀며 드라이브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A, B, C 세 가지 코스 중 하나를 택하여 타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중간에 내릴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와서 종점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온천에 들렀다가 올 때도 있지만.

그런데 B코스를 타게 된 어느 날 오후, 숲속 작은 길을 지나다가 제법 큰 도로로 나가자 노란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카페같이 보여서 커피 하나만 마시고 가려고 일단은 내렸다. 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어서 잘 만든 커피는 파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런 장사를 사자한 것인지 이해하며 나와서 조금 길게 걸어가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차도가 있었기에 조심을 하며 숲속을 들여다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나무 숲으로 흐르는 하얀 개울물이 바위들을 가르며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응조, 물 좀 봐! 당신도 좋지?” 나는 조심스럽게 가드레일을 넘어서 대나무 뿌리마다 발을 옮겨가며 한 발자국씩 밀고, 더 밀고 내려갔다. 무성한 우윳빛 분꽃들이 하얗게 베풀음을 휘어 다니며 흐르는데 나도 모르게 신발을 신은 채 발을 담구고 있었다.

너무나도 얼음같이 차가운 물 때문에 체온이 내리고 심장이 쪼그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발을 깨닫기가 아까워서 가만히 있을 지 얼마나 되었을까? 나를 깨워 준 것은 작은 알갱이를 뿌리던 빗방울들이 내 눈물방울보다 진하고 두꺼워 져 있다는 것이었다.

한 시간 좀 지났을까 무엇인가를 움직이며, 날마다 쌓고 있는 작은 개울 돌로 만든 성벽이 너무나 높아져서 불의 줄기마저 둘러놓고 있었다. “그래, 여보, 나를 집에서 박사나 고르고 나물이나 무치는 그런 여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기억 잘 해보라고!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보였던 말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 했으면 그냥 가버렸나고” 나는 정말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 이것 좀 보라고 내가 토목공사를 해서

물길도 비꾼 거 봐!” “당신이 내 옆에만 있었다면 얼마나 잘 해주고 싶은 줄 알아요?”

“내 발이 지금 너무 차가워서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계속 당신을 위해서 독을 씹아 올릴 수 있는 나를 좀 보라구요. 이 바보야! 내 숨소리를 들어라. 내라고 썩적 거릴 수도 없는 줄 알았지?”

그때 알았어, 이제 그만 할게. 저 독은 당신이 가져. 저 속에 내 죄가 하나씩 쌓여 있거든. 당신을 못 잊는 죄를 말야. 그래, 여보, 당신을 그리워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내 모습에, 그 부사지 않는 이 빈 손들을 저 불탑 속에 다 넣어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눈을 뜰 용기를 내지 못했다. 빗물이 떨어서 더 세어진 개울 물소리가 가아워서, 좁아진 물길을 조금 터주고 다녀며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차가워진 나의 뺨을 데워주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두움이 전하게 내려왔을 후 나는 발길을 돌렸다.

어두워진 발 위로, 발 아래로 흐르는 묽어진 진흙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한테 화가 난 것 아냐? 그래, 화라도 내 주면 고맙지.” 길로 올라오자 나는 걷기 시작했다. B코스의 작은 버스가 다시 와 주는 지는 나의 관심 밖에 있었다. 사실 돌아와서 다시 나를 데워준다고 한들 그 젖은 옷으로 올라왔겠는가? 동전지갑도 귀찮아져서 바위틈에 살짝 바리고 올라 온 길이었는 데, 나는 걷고 또 걸었다. 같은 밀고도 말거나, 다리가 꺾어서 죽는구나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자 기진맥진 하면서도 온천으로 그냥 내려갔다 올라왔다. 호주머니 속에서 아프게 푹꾹 찌르며 따라 오던 현관 열쇠에다가 그렇게나 깊은 우정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잠들기 전, 머리 속에 무언가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여보, 약 먹고 자! 부탁한다. Dalken” 한다.

무엇에 감지되지 해서지 즉각 순종하는 모드로 바꾸었는데 모르지만, 약이란 약은 종류별로 하나씩 일에 떨어 놓고는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정동진의 찬란한 태양빛이 눈을 뜨게 하였다.

“아! 비사가 올 시간인데!”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해 보았다.

“사모님, 저 지금 동경에 있어요. 오후에 늦게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뵈요” 한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는 하루 일 종일 가만히 누워있었다. 먹으라고 부탁하신 약을 한 세트 더 털어 넣고는 말이다.

그 후에도 나는 B코스 버스가 주는 도전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비서와 함께 시립공원에서 내려서 어두운 나무다리 위를 출발하며 숲속을 빠져나오고 나면 직렬하는 태양빛을 받으며 골짜기 길목까지 이어지는 밤나무길이 나온다. 하지만 얇이 가득 찬 밤송이들 속에서 날 밤들을 집어내라고 땅이 나도둑 목을 굽혔다. 백팩에 가득 든 밤이 한 밤은 되었을 것이다. 너무 더워서 스웨터를 벗고 걷는 나의 모습을 비서가 부끄러워한다. 너무 많이 노출 된 속 스웨터가

지나가는 차들에게는 살례라는 표정이다. 나는 그냥 마구 웃으면서 B코스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 내가 지난번 내가 개울로 내려갔던 일을 알기나 한단 말이야?” 속으로 웃으면서 말이다.

나의 일상생활을 성도님들께 들려주고 싶어서 써 놓았던 글 중에서 한 쪽지를 꺼내 보았다. 소위 말하자면 <쿠사츠의 여름>이라는 책에 있는 chapter 4중에서 나오는 글의 한 부분이다.

하용조 목사님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경험한 분들이 오직 나 한명 뿐이겠는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곧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이제야 싹텄을 때 세수를 한 기분으로 개울가에 앉아 있다. 현실을 바라보며 적응하는 설교도 그의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과거지사는 과거지사이고 현실은 또 현실 아니냐? 이렇게 세월을 흘러내려가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들같이 될까? 하면서 말이다.

그래도 감사하다. 구름이 머물다가 쉬어가는 곳, 무성한 수풀이 단풍이 되고 앙상한 가장구들과 싸며 할 수 있는 곳, 눈보라 휘날리며 발을 닫고 그 곳 한바퀴 속에 파묻힌 동백꽃 속에서 온천하는 곳, 봄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이다. 늦게 피는 벚꽃으로 등성등성 산등성이를 수놓을 때는 벌써 초여름이라는 것이 신기해진다. 천 개의 실과 같은 물줄기가 떨어지는 하얀실의 폭포를 보고 있으면 용조의 웃음소리가 크게도 들린다. 알프스도 안 되는 애인 것이 이곳 군마현의 백근산이다. 산의 정상에 서면 에메랄드빛으로 깊어진 아름다운 호수라도 만나게 된다.

3년 동안이나 더운 날, 8월 22일날, 하 목사님의 묘소가 있는 양지 비전별리지에 오시느라고 애를 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는 하 목사님을 추모하는 예배는 8월 22일이 끼어있는 주의 수요일예배 때 모여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은 그곳에 자주 찾아뵙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오겠지만, 은누리교회로서는 그동안 너무나도 애를 써 주셨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묘소를 찾아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 묘소에 들르실 수 있다면 8월에는 너무 덥고, 9월 10월에 계획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3월은 너무 춥다. 물론 우리 가족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지만, 사실 아버지의 유골을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아름다운 곳에 갈 때는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한다. 그의 사진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홀로 있을 때 꺼내어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서울 때는 그가 사랑하던 유품들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기도 한다.

그냥 젊었을 한 과부의 소원이니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라 하고 믿는다.

어린 일이 교회의 결성이라면 얼마나 또 이교과 감동이 생겼겠는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잘 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시간이 없다. 교회는 하 목사님의 비전을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다.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겸손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써 한국교회의 희망과 모델이 되어 주신 은누리교회와 성도님만 생각해도 하 목사님과 우리 가족은 감사드리며 눈물겨워 하고 있다. 아빠가 다 이루지 못하고 가진 비전은 무덤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 하용조 목사님의 그림자를 섬기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에도 열심히 힘을 쏟으면서 사시는 모습이 더욱 이롭다고 생각한다.

은누리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시는 하용조 목사님 선교 기념관이 완성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까? 그 때가 되면 우리 모두 함께 가서 기뻐하며 축하했으면 좋겠다. 하, 님께서 좋아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선교와 비전의 역사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선교지를 지향하고 훈련 받는 비전별리지에 바로 그러한 간조물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화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건인가? 은누리교회와 한국교회의 교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릴 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때는 꼭 찾아가서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질 곳이 드디어 우리 은누리교회에게도 생긴 것이다. 은누리교회에는 비전별리지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버스가 있다. 천구들과 모여서 소풍삼가 가보면 밥도 사먹을 수 있으니까 가서 기도드리라는 삶을 정구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다. 설계를 맡아주시는 아분들과 헌신해 주신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하용조 목사 사모 이형기 드림





간 증 ■ 일산공동체\_ 남아시아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성구 성도(일산공동체)

## 그 마음 잊지 않을 것이다

일산공동체는 2005년부터 매년 남아시아국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올해가 벌써 10년째다. 올해도 어김없이 12명의 지체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는 말씀을 들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박7일의 일정으로 남아시아 1국 A지역을 방문했다.

아웃리치 준비는 4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열네 번이나 준비기도회를 열고 차근차근 준비했다. 기도회에서는 무슬림인 남아시아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했다.

비행기를 한 번 갈타고 남아시아국 A지역에 도착했다. 현지는 라마단 기간이었고 며칠 전 국가 행사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의 주된 사역은 A지역의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함께 예배드리고, 의료사역과 여성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2년 일산공동체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매각 위기를 극복한 현지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일정은 아침 6시부터 시작돼 저녁 10시까지 이어졌다.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노처형 목사님은 교회 방문 때마다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그들의 영적 감금함을 채워주었다. 의사 안용태 장로님과 이우경 집사님은 현지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했다. 형제들은 의약품 포장용, 자매들은 현지 어린이들에게 울동과 전양을 가르쳐주면서 여성성경학교를 진행했다.

특히 7월 14~15일에는 A지역의 17개 교회 연합으로 의료사역이 진행되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 헌수막도 걸어주었다. 합심기도 후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이우경 집사가 준비해 간 포터블 근골격계 초음파기계를 통해 수준 높은 진료를 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진료 받기를 희망했다. 환자 중에 40대 여성 간경화 환자가 방문했는데 심한 복수(腹水)와 하지부종으로 치료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현지 목회자들과 합심기도를 한 후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고 이노제 등의 약간의 약물을 처방했다. 감사하게도 떠나기 전에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번 사역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웃리치 기



간 동안 네 개의 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네 번의 의료사역을 통해 약 530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셨다. 두 번의 여성성경학교를 통해 현지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다.

5박7일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한 것

보다 훨씬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곳에서 먼저 일하고 계셨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 수많은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게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지를 기억하게 하신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늘 기억한다.

간증 ■ 크리스천CEO포럼\_남아시아F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남상욱 장로(CCF)

# 앞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크리스천CEO포럼(이하 CCF)회원 19명이 남아시아F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진행된 아웃리치였다.

남아시아F국 아웃리치는 지난해에도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다. 그랬기에 더욱 의미 있는 아웃리치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사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도중 현지 날씨가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와서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금식기도를 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밤늦은 시간 현지 공항에 도착했다. 말로만 들던 높은 습도와 무더운 온도를 체감했다. 공항 밖으로 나왔다. 남아시아F국에 있는 은누리 해외비전교회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반갑게 맞이 해주었다.

사역 첫째 날, 우리나라처럼 분단됐다가 통일된 현지 땅을 밟았다. 머지않아 통일이 될 대한민국을 그려보며 기도했다. 이번에는 해외비전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현지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복음전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남아시아F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해변 산 위에 있는 십자가 상에 올라갔다. 땅 밟기를 하며 이 땅의 우상들과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힘차게 기도했다. 도착한 곳에서 현지 교회의 실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교역자 숙소와 차세대 사역 공간 건축을 위해 준비해 간 건축현금을 드렸다. 서로 부동켜안고 격려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순간이었다.

둘째 날, 현지 문화 탐방을 위해 약 2시간 거리를 이동했다. 이 땅의 문화를 탐방하며 땅 밟기를 했다. 사원과 정크선을 타고 섬으로 가서 열대과수농장을 견학했다. 나룻배를 타고 열대우림을 헤치면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했다. 오후 늦은 시간, 해외비전교회로 이동해 교회의 기도제목을 나눴다.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해 부르짖었다.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교회에 필요한 카페용 커피머신과 도서를 기증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과 함께 한식당으로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



눴다. 목말라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아름다운 선물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마지막 날, 해외비전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렸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성령의 임재를 만끽했다. '주여! 이 교회에 설교 허가권과 집회 허가권이 속히 나와서 주일 날 미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목 놓아 기도했다. 예배 후에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동안 느낄 수 없었던 아

름답고 따뜻한 경험을 했다. 아웃리치의 마지막은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아시아F국 시내 땅 밟기로 장식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남아시아F국과 인근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감사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함께 모여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했다. 벌써 다음 아웃리치를 기약하기도 했다.



간 증 • 여호수아공동체\_ 남아시아N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서형원 형제(여호수아공동체)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무더운 여름 땀별 아래서 말도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흠뻑 흘리며 축구를 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함께 공을 차며 즐겁고 행복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준 축구기술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고 배우고 연습했다.

우리는 남아시아N국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스포츠(축구)와 영어캠프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여호수아공동체는 올해 초 '홀리카커스'라는 축구팀을 창단했다. '스포츠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은 형제들이 매주 토요일에 모여 축구와 교제를 하고 있다. 미숙한 부분도 있는 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귀하게 보시고, 남아시아N국으로 인도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막 5:16)는 말씀을 가지고 현지에서 축구단 창단식, 영어캠프, 학교 교신 보수 사업을 했다.

현지 축구단은 'JS(Joshua & Sissophon) United'라는 이름으로 창단했다. 여호수아공

동체와 현지 지역 선교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이룬 팀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 축구팀에 소속될 32명의 명단을 받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축구용품은 후원해줄 후원자도 모집했다. 넉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2명 모두에게 후원자가 정해졌다.

현지에서 아이들을 만나 유니폼과 기도편지를 전해주었다. 유니폼과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또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과 운동 시작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사업 마지막 날, 현지 학교선생님들과 우리 팀이 친선경기를 했다. 아웃리치팀의 형제가 부족해서 현지 아이들 6-7명과 함께 팀을 이뤘다. 경기를 마치고 서로 약속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현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우리와 함께 댄 아이 6-7명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 그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공을 차고, 격려 받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모든 사업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비가 많이 내려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던 선교사님의 차가 남따러지로 굴러 떨어질 뻔한 사고가 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느다란 나무 하나가 차를 지탱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안에 타고 있던 사모님이 병원에서 이송되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

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생(生)과 사(死)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지 아이들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짧지만 긴었던 잊을 수 없는 7박8일이었다. 아름다운 일정이었다.

간증 • 동경 은누리교회 청년부 여름캠프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김진주 자매(동경 은누리교회)

##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

지난 20일, 동경 은누리교회 청년부가 차바현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동경의 찌는 더위를 피해 오랜만에 눈부신 대자연 속으로 떠나는 캠프는 모두를 설레게 했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했다.

올해 여름캠프는 더 특별했다. 일본 청년들이 많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캠프에서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은 하나가 되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했다. 일본 청년들 중에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캠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캠프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정치와 역사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 두고 함께 농구 코트를 누비며 웃고 즐겼다. 수박을 쪼개 나눠 먹고,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 안에서 연합한 천국백성들이었다.

이번 캠프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주제였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간구했다. 최근 1년 동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기만 했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낙담하고 두렵게 만드

는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사로잡히면, 김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 특히 극소수의 크리스천만 있는 일본 땅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곳에서 물위를 걷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길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대같은 무력한 마음과 연약함을 성령님께 고백했다. 이전과 다르게 변화시켜주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캠프가 끝나고 어느덧 2주일이 지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신다.

캠프에 함께 다녀온 지체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눈에 보인다. 얼굴도, 마음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 환해졌다. 내가 일본에 온 지난 3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청년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 미루던 사역들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다윗처럼 흠주며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덩치가 산만한 형제들과 부끄러움을 많



이 터는 일본인들이 앞 다퉈 워십을 배우고 있다. 아웃리치를 가기 위해서다. 한 자매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섬기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했고, 한 일본인 형제는 아웃리치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아웃리치에 참석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모든 사건이 성령님이 살아 계시

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이제는 내가 성령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장할 차례인 것 같다. 기대가 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01

# 더 멋진 마을을 위하여

##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청년 초청 친환경 농업, 양계 기술 전수

국민 하루 소득 1달러. 하루에 밥 한 끼밖에 못 먹는 국민이 94.5%나 되는 가난한 나라 르완다에서 더 멋진 세상과 더 멋진 마을을 꿈꾸는 두 청년이 한국에 왔다. NGO '더멋진세상' 초청으로 양계, 농업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은 엠마누엘 니온센가 (23)와 올리비아 리베라쿠르라(25). 그들은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충북 보은과 온누리복지재단 안성 농업실습지에서 교육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5년 후 더 멋진 세상과 더 멋진 마을을 만들겠다는 꿈과 희망을 품고

### 두 청년이 배워간 꿈

지난달 29일 온누리복지재단 안성 농업실습지에서 그들을 만났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두 청년은 박대호 장로의 지도 아래 유용미생물(BM)을 배양하는 작업 중이었다.

"제가 아는 방식대로 해볼게요"

두 청년은 일주일 동안 유용미생물을 배양시킨 비용을 이용해 토마토를 심었다. 의욕적으

로 일하는 청년들 곁에서 정선희 권사가 미소 짓고 있다.

"너희가 심은 토마토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줄게."

르완다에서 온 두 청년은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매일 아침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고, 그 날 그 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웠다. 르완다는 주산업이 농업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해서 땅이 없지만 비옥하면 국민 1인이 1,000평의 땅을 가질 수 있다. 농작물을 키워 팔면 땅을 살 수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번 교육이 얼마나 유익한지 기대된다. 그래서 더 그들은 자연농업, 미생물 배양 기술 등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충북 보은 예수마을에서 양계 기술도 배웠다. 고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들이다.

그들은 닭이 하루에 1~2개 알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했다. 르완다에서는 닭이 일년에 2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한다. 덧붙여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비를 내야한다며 르완다의 실정을 들려줬다.



르완다 청년들이 안성 농업실습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사진은 르완다 두 청년과 박대호 장로 부부.

"우리 마을에는 학교도, 슈퍼마켓도, 공장도, 전기도 없어요."

그들은 기자에게 직접 그린 고국의 생활수준, 농업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들은 5년 후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았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5년 후에는 우리 마을을 더 멋진 마을로 바꿀거예요" 그 말에 정 권사가 "We hope so(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라고 화답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2012년부터 '더멋진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빈국가의 마을을 선정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돕는다. 세네갈 분나바 마을에 이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건이다. 아프리카 청년들을 초청해 그들의 주산업인 농업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02

##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사전행사

### 이은일 교수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 개최

"창조과학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 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을 복음화 하는 데에는 창조과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달 10~11일 일본 오비히로에서 열린 창조과학 세미나에 참석한 미우라 료헤이 목사(일본기독교단 신토쿠교회)가 한 말이다. 21번째 러브소나타 준비가 벌써 한창이다. 21번째 러브소나타는 오는 11월 13~14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에서 개최된다. 러브소나타 본부와 현지 실행위원회는 행사를 4개월여 앞두고 사전행사로 이은일 교수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를

동안 열린 세미나에는 일본인 160명이 참석했다.

오비히로는 홋카이도 동쪽에 위치한 조용한 전원마을이다. 시 전체에 교회가 15개 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이곳에서 창조과학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미우라 목사는 불과 1년 반 전만해도 진화론 신봉자였다. 그는 처음 창조과학을 접하고 천지가 뒤집힐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일본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수준 높은 창조과학 강의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벌써 11월에 열리는 러브소나타가 기대되는 이유다. / 정현주 기자

03

## 르완다 아웃리치 간다

### 연합 아웃리치팀, 다양한 여름사역 펼친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CMN 의료팀, 청년부가 연합해 르완다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르완다 응호망과에서 진행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마을을 방문하고 다양한 여름 사역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어린이 사역과 의료봉사

활동을, 25일에는 보건소 준공식 및 마을잔치를 연다.

26일에는 '화해와 용서'를 주제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희의 콘서트가 열린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교육과 현지 의료인 역량강화 세미나도 진행된다.

/ 정지는 기자

2014년 8월 3일 1011호

• 01- NGO 더 멋진 세상 : 르완다 청년 초청 농업 및 양계 기술 전수(10면)  
• 02- 오비히로 러브소나타 사전행사 (이은일 교수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 개최(10면), • 03- 이재훈 담임목사&CMN의료팀&청년부 연합 : 르완다 아웃리치 예정(10면)

수원 대청 남아시아국 아웃리치 후기



/ 박은순 (수원 대청)

##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

우리가 처음 머문 곳은 남아시아국 A지역이다. A지역 고아원에서 35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가난 등의 이유로 이곳에 맡겨졌다.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우리 팀을 환대해주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자제적으로 새벽기도회를 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각자 역할을 맡아 빨래, 식사 준비, 청소도 한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 아이들은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사들이 틀림없다.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가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다.

이 지역 병원에서도 사역을 했다. 이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다. 병원 원장님과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의료사역을 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팀은 인원을 나눠 입원실을 방문했다. 입원실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통곡 소리가 들렸다. 한 무슬림 할아버지가 검은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 할아버지의 가족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

면, 너무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눴다.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아픔도 치유되기를 기도했다.

B지역으로 이동해 현지 교회에 머물렀다. 현지 교회 목사님 부부가 하고 계시는 사역에 동참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지 장애인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이 학교는 목사님이 10년 전, 3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시작했다. 지금은 수십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찬양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비록 세상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다른 것은 보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목사님 부부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귀한 도전을 받았다. 28살에 장애인학교를 시작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8살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맛보았다. 열흘 동안 그곳에 보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장로순환칼럼 신현승 장로

## 온누리미션 부흥의 비밀 '융합 선교'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땅을 찾아오고 있다. 현재 13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 네팔 같은 익숙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모로코, 부탄, 타지키스탄, 티모르 등 생소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 곁에 와 있다. 육도와 같이 준비된 자들도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건네는 것도 불법인 이슬람권 출신들도 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신 사람들이다.

'온누리미션'은 1993년부터 20년 동안 이 땅에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는 공화국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이후 Ad29비전에 맞춰 취도, 양육, 파송의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현재 온누리미션에서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어 등 17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참석인원은 5700여 명이다. 이중 안산에서 오는 예배 인원이 400여 명이다. 안산의 이주민 인구가 2014년 5월 기준 약 67,000명임을 볼 때 약 0.6%가

온누리교회 성도인 셈이다.

사역을 위해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도 보게 하신다. D형제의 경우에는 무슬림이었는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는 최근 성경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질문도 많이 한다. 예배를 위해 미리 와서 보면대를 세우고 마이크를 연결한다. 서툴지만 찬양을 인도하고 "많은 아랍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예배에 올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온누리미션을 통해 예수 믿고 자신의 고국인 네팔, 인도 등지로 돌아가 목회자가 되어 자국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20여 명이 된다. 그러나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온누리미션 봉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는 것은 이주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교회 여러 지체들의 헌신으로 온누리미션은 부흥하고 발전해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외국인 진료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CMN의 리퍼팅과 수원 온누리교회 의료팀은 이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 매년 온누리미션의 가장 큰 행사로 이주민 600여 명이 참석하는 추석연합집회가 있다. 이때 대학청년부는 절대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선교 본부의 지속적인 후원과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주민 사역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일을 나누어 꾸준히 끈기 있게 해야 이주민 사역은 성공할 수 있다. 온누리미션은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중보기도운동을 하고 있다. 하루에 '한 번', '3분 씩', '2명의 이주민과 1명의 예배 책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1,000명의 중보자를 모집한다.

세상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선교 패러다임의 다양성을 보고 그에 맞추어 우리의 선교 전략을 짜야 한다. 선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연결되어야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서로의 모든 힘을 합하는 '융합의 선교'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슈 진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킬 박사과 하이드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평상시에는 그 땅을 밟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물씬 느껴지는 거룩한 성지지만, 요즘 같이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 폭격해대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전쟁광이다. 지금 한국의 여론도 폭폭 쪼래는 폭염이지만 중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여론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최소 두 배는 더 뜨겁다.

강성 이미지가 강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는 확실히 버리고 작전을 개시한 것 같다. 더 이상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게 진전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외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유엔 건물, 학교, 심지어 병원도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대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나쁜 나빠도 너무 나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있을 수 없는 만행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우방국인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57%의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포격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보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다른 것일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고, 또 쉽게 대답해서도 안 되는 질문이다.

### 청소년 살해사건이 발단

먼저 이번 사태가 촉발된 계기부터 살펴보자. 사태의 발단은 6월 17일,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위치한 헤브론 근처에서 10대 유대인 청소년 3명의 살종사건이었다. 청년들은 6월 30일에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스라엘은 즉각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만약 여기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면 상황은 단시간 내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극우 단체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7월 2일,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 한 명을 납치해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 확실하게 앙갚음했다. 이에 하마스는 피의 보복을 선포하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쏘아댔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기뻐했다. 2006년 철수한 가자 지구에 9년 만에 다시 지상군을 투입했다. 언제나 그렇듯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무시무시한 화염으로 끝난다.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을 향한 극도의 적대감과 증오심만 남는다.

### 2007년 하마스, 이스라엘 향해 무한투쟁 선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어찌 보면 예상된 수순이었다. 예삿게 양국의 정권교체가 무척히 실패되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뿐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을까? 인구가 밀집되고, 요새화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자국 군인들의

Israel and Neighboring States



## “갈등과 분열의 영이 문제의 핵심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지지하는 것 지양해야 진정한 화해자, 중보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피해 역시 엄청날 것을 일면서도 말이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계추를 몇 년 전으로 돌려야 한다.

2006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면서 그곳은 2년 가까이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팔레스타인 내의 두 정파, 하마스와 파타 간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는 극강경파인 하마스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파타의 승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하마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 이스라엘의 실제적 목표, 안보 위협하는 땅굴 파괴

2007년부터 하마스가 세력을 잡게 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전 지역이 요새화되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부인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무한투쟁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국경 마을을 향해 수천 발의 재래식 카삼보켓포를 발사했다. 가자 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국경 마을인 슈레타 주민들은 몇 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방공호에 피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원망도 쌓

이만 갔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하마스 전사들은 이스라엘 국경으로 바로 연결되는 철수없이 많은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땅굴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수한 2007년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2007년 이전과 이후의 땅굴은 그 성격에 있어서 확연히 달랐다. 이전의 땅굴은 이집트 국경으로 뚫고 주로 무기와 생필품 구매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후 땅굴은 이스라엘을 향해 전투원을 투입하기 위해 판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번 지상군 투입은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의 납치와 살해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작전의 실제적 목표는 가자 지구를 총총히 연결하고 있는 땅굴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려 66개의 땅굴로 통하는 입구가 있는 세자이아 지역에서 집중되었다. 세자이아 지역은 민간인 밀집지역이다. 그래서 최대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하마스가 세자이아 지역을 땅굴의 진입로로 선택한 것은 그들의 전례없는 인간 방패 작전을 쓰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공습을 마다 않리며 민간인들의 대피를 촉구했지만 하마스는 자국의 민간인을 방패삼아 그 지역을 사수하고자 했다. 땅굴 파괴와 하마스의 고위급 지도자 암살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작전은 과거의 어떤 작전들보다 확실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하마스의 인간 방패 작전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실시하면서 2011년에 실현 배치된 '아이언 돔(철망치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단거리 재래식 로켓과 쏘거리 미사일을 아이언 돔으로 90% 가까이 요격하면서 이스라엘은 민간인의 희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문학적인 돈을 들여 개발한 아이언 돔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강력해서 문제가 되었다. 팔레스타인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민간인의 희생자가 압도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 크리스천이여, 두 민족 모두 품고 기도하자

해의 언론도 이번 사태의 초기에는 먼저 갈등의 빚을 제공한 하마스를 비난했지만 이스라엘의 작전이 본격화되고 민간인 희생자 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서 또 다른 핵심은 한쪽은 강하지만 반대쪽은 약하다는 데 있다. 한국과 북한도 비슷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양측의 전력이 이 정도로 압도적이지는 않다. 절대강자와 절대약자의 싸움이 벌어질 때 제자는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이성보다 절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

전쟁은 언제나 무고한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쪽이든 팔레스타인 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보다 귀한 생명들이다. 있을 만하면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표면만 보고 흥분하기 쉽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 지지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자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것은 그 땅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뿌리가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살해된 것도, 땅굴을 파괴하는 것도 핵심이 아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영이 그 핵심이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 두 민족 모두 가슴에 품고 진정한 화해자요, 중보자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류모세 선교사  
\* 류모세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소속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로서 온누리교회 이스라엘 지역을 섬겼다.



간 증 ■ 남양주 온누리교회 - 남아시아N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최성훈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도구

청년 때 이후로 처음 가는 해외 아웃리치다. 직장에 일주일 넘게 휴가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딸과 함께 그 땅을 밟게 하셔서 더 더욱 감사했다.

우리가 사역한 곳은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마을이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에 살던 빈민들이다. 관광 사업을 위해 이곳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이곳은 최빈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했다.

현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사역 첫날,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곳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뜨거운 마음을 안고 1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북음 팔찌 만들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과 영화 상영, 현지어 찬양과 율동, 스킷 드라마 등을 했다. 모두 어린 이들에게 북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리의 기도과 수고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물품이 조기에

떨어지는가 하면 영화 CD에 문제가 생겨 영화 상영을 중간에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영화 대신 '찬양, 율동 배우기'를 했는데 현지 아이들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다섯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준비한 스킷 드라마는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는 도구임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역 둘째 날, 현지학교를 방문해 의료사역과 이마용사역, 모기장 설치(100가구), 어린이 사역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도 거르고 가가호호를 방문해 모기장을 설치했다. 진료 대기 중인 현지 주민들에게 목이 쉬도록 북음도 전했다. 이마용팀은 이발하려고 설 틈 없이 몰려드는 현지주민들을 미소로 반기고 끝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다. 사역현장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지원이 없는지를 살피기까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팀원들은 서로에게 감사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가장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 현지 어린이



150여 명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영접기도를 따라한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7주 동안 훈련시키셨다.

이곳은 준비된 나라다. 그 땅을 밟고 이동하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했다.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주시는 형석 목사님, 우리를 맞아해주신 선교사님, 그

리고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모인 30여 명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밑거름이었다. 누군가 아웃리치를 왜 가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간증 ■ 강동 은누리교회 -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지수 자매(PromiseU공동체)

# 내 생애 첫 번째 아웃리치

나는 은누리교회에 다닌 지 10년째다. 아웃리치는 익숙한 단어지만 나오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다. 내가 아웃리치를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두 달 전부터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도 갈까?”

문제는 재정이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웃리치 가기를 주저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현실적인 문제로 핑계 삼지마!”

경제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웃리치 준비에 돌입했다.

우리 팀은 이번 아웃리치가 생애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초짜 아웃리치 팀원들의 준비과정은 그야말로 서투랐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 동아시아B국은 선교가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짐을 싸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 덕분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불꽃을 한자로 무사히 가져갈 수 있었다.

우리가 맡은 첫 번째 사역은 어린이캠프였

다. 공과 준비, 찬양, 율동, 스킷드라마 등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냥 뛰놀다 끝나는 캠프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염려가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캠프를 진행하면서 철저히 부셔졌다. 말씀을 듣고, 그 작고 예쁜 손을 꼭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른다. 자연스럽게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캠프를 마치고 그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를 꿈꾸고 있었다.

함께 찬양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어도, 나라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석 같은 체험이던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여겼던 모습을 반성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다. 현지 학생들과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했다.

아웃리치가 처음인 지체들이 대부분이었고, 순전히 대학부의 힘만으로 준비하면서 ‘순종,



감사, 기쁨, 사랑’을 내뿜었다. 어린 마음에 불평도 많았고, 우리 힘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 순종해야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았다.

또 이번 아웃리치는 매순간 기쁨이었다. 현지에서 진행할 캠프를 위해 찬양과 위십을 한 달 동안이나 연습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가사처럼 위십을 하는 동안 팀원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했다.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아웃리치 일정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일깨워주셨다. 처음 보는 그곳의 아이들과 신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팀원 한 명 한 명도 사랑하게 하셨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주셨다.

처음 간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소중한 시간이었다.



간 증 •부천 여성사역 - 남아시아F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함명희 집사(부천 은누리교회)

# 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려고

남아시아F국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전쟁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만큼 아픔이 많은 곳이다. 부천 은누리교회 여성사역팀 20명이 아픔이 많은 그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기 위해 지난달 21일 떠났다.

남아시아F국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팀원들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남아시아F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선교센터로 이동하면서 바라본 이 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온했다.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낮익었다. 낯긴 했지만 프랑스풍의 예쁜 집들이 많았다.

선교센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현황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남아시아F국이 이 지역을 넘어 대륙의 선교 기지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현지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의료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현지인들이 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참석했다. 그들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보장된 한국이 부럽다고 했다. 한국의 풍성한 경제 성장도 부러워했다.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첫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팀원들에게 미션이 주어졌다. 지도 한 장 들고 남아시아F국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집결지로 돌아오는 미션이었다. 주어진 미션수행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밖으로 나갔다. 우리가 발견음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스무살 된 아기 엄마들을 만났다. 그녀들은 호숫가에서 어린 애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함께 식사도 하자고 했다. 그들에게 맛있는 점



심을 대접하느라 결국 우리는 점심을 먹지 못했다. 하지만 태어나서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면서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었다.

다음 일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데리고 간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영적으로 썩바받고 있는 이 땅을 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다. 남아시아F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하루 빨리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간증 ■ 일본어예배부-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윤선형 자매(일본어예배부)

#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올해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나의 몸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4년 전 항암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에 CGNTV 일본제작팀에서 조금씩 일을 돕고, 일본어예배 지체들과 교체하면서 몸이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여름이 되자 불볕더위와 냉방병으로 걸린 감기가 쉴 틈 없이 닳았다. 지난해 아웃리치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꼭 갈거야'라고 다짐했던 의지가 약해지고 있었다. 약해진 체력 탓이었다.

일본어예배 수요기도모임 때였다. 현무용 장로님이 나에게 아웃리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체력이 좀..."이라며 말씀을 흐렸다. 장로님은 그런 나에게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를 같이 가자고 제안하셨다. 나이가 70대인 본인도 가는 만큼 힘들지 않을 것이라며, 동기를 부여하셨다.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장로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웃리치를 갈 수 있기를, 재정이 채워지기를, 부족한 팀원들을 보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웃리치 준비를 시작했다.

아웃리치 준비모임에서 현지 선교사님이 2

년 전부터 일본인도 함께 아웃리치를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5년 전 일본에서 함께 지낸 일본인 친구가 떠올랐다.

아웃리치 신청마감 하루 전날, 나는 그 친구에게 같이 아웃리치를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나의 갑작스럽고 황당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가고 싶다고 열의를 보였다.

그 친구의 항공편과 일정이 맞지 않아 포기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와 함께 아웃리치를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인 우리팀은 일본인 3명, 재일교포 1명, 한국인 3명, 미국국적 한국인 1명이다. 소수 정예의 멤버들이다. 언어도, 국적도, 연령도 다른 다양한 멤버가 한 팀이 되어 동아시아B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출발부터 느낌이 좋았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동아시아B국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일본인 선교사 가정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게 지내는지 마음에 담아 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일본, 동아시아B국이 함께 연합해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는 이유였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또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은 내게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부모의 비전을 따라 고국의 친구들과 헤어지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지라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안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웃리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다.



간 증 ■ 대학청년부 -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양원향 자매(J4U공동체)

## 방언도 받고, 영적회복도 경험하고

그동안 아웃리치를 많이 다녔는데 올해는 어 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기도하고 있었다. 휴가 날 짜와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 날짜가 맞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동아시아B국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아웃리치 참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준비하는 동안 문제가 생겼다. 영적 공격도 심했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웃리치 출발 일주일 전에는 왼쪽 발까지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아웃리치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기도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내 마음을 돌려놓으셨다.

드디어 동아시아B국으로 출발했다. 그곳의 교회와 숙소가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았다. 그곳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만난 귀여운 아이들과 열정적으로 섬기는 집사님, 현지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 세족식이 있었다. 한 번도 세족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에게 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의 발을 씻 기며 기도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즐거웠던 3일 동안의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고아원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 아원 정문 옆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를 묵상했다. 땅을 파고, 흙을 고르 는 작업을 하면서 실내에서 편하게 일하는 나 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했다.

벌써 6년째 전 세계 봉사팀들이 이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집짓기에 동참하기 위 해서다. 실제로 한국인 이사장님이 기도하면서 봉사자들과 함께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 각이 들었다.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다. 할렐 루야! 사실 나는 방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아웃리치 기간 동안 방언에 대한 두려 움이 사모함으로 바뀌었다. 방언의 은사를 달 라고 간구했는데 진짜로 응답되었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계기로 내가 영적 회복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방언도 받고, 영적회복도 경험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번 아웃 리치에서는 깨끗한 숙소와 따뜻한 물, 맛있는 음식이 준비 되어 있었다. 이것들을 누리면서 지난 아웃리치를 돌아봤다. 힘들었던 환경에서 사역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참이었는데... 역시 하나님

은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 주셨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웃리치 때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땅에서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해 그곳 사 람들 모두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할 것이다.

간증 ■ 차세대 영아부\_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신정록 성도(영아2부 교사)

#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차세대 영아부는 5월부터 무척 바쁘다. 어린 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에 이어 6월과 7월에는 전국교사강습회와 캠프가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이 몰려 있어 차세대 교사들에게 해외 아웃리치는 부담이다. 이러한 이유로 왜 지금 아웃리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사 9명과 초중학생 자녀 6명, 그리고 전도 사님과 목사님으로 구성된 영아부 아웃리치팀이 현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고민이었다. 남아시아M국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던 날, 우리는 한 선생님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왜 이곳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왜 이곳인지 알겠어요”

남아시아M국 아웃리치의 처음과 마지막은 평범기였다. 이 나라와 인근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의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우상숭배를 멈추도록 기도했다. 헛된 제사와 헛된 위안을 찾고 있는 이곳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임을 선포했다.

현지에서 어린이병원 두 곳을 방문했다. 차세대를 향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팀에게 특별한 마음이 생겼다. 여러 가지 질병

으로 병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선물했다.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어린 이병동 수간호사께는 아이들에게 나눠 줄 비타민을 선물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은 이곳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다.

현지교회는 세워진지 60년이 넘었지만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었다. 현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여름성경학교를 요청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과 현지 교회 어린이와 교사 등 모두 270여 명이 함께 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잦은 정전이 만찡이었다. 아쩔 수 없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찬양하는 교사들과 땀에 흠뻑 젖은 채 기뻐 뛰며 찬양하는 아이들, 목사님 말씀에 또랑또랑한 눈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보는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았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현지 아이들과 친해졌다. 현지 아이들과 한비탕 웃는 그들은 또 다른 어린이사역자였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눈물로 찬양을 불러 드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이 땅에 세워지리라.”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사님을 통해 이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아웃리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생겼다. 이제 우리는 주의 나라가 한국 땅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무더위와 모기와 파리, 먼지와 공해, 잦은 정전 가운데 진행된 남아시아M국 아웃리치는 우리팀만의 아웃리치가 아니었다. 준비할 때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날마다 160여 명의 교사와 400여 명의 아이들 그리고 800여 명의 부모님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한 아웃리치였다. 그곳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 오늘,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 1997년부터 지금까지 401명 예수 영접 이주민을 고국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비전

오늘(10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해수욕장에서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이 열린다. 온누리M미션은 매년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침례식이다. 오늘은 24명(몽골 8명, 캄보디아 3명, 베트남 3명, 태국 3명, 네팔 2명, 러시아 2명,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각 1명)이 세례를 받는다. 그들이 세례 받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CMN챗버와 서초B공동체, 온누리M미션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온누리M미션 세례식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세례자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세례식까지 총 401명이 세례를 받았다.

낮선 땅 한국에 건너온 이주민들에게 세례식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온 타랑가 형제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현재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를 하기 위해



오늘 안산시 대부도 해수욕장에서 이주민 24명이 세례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연합세례식.

서다. 지난해 세례를 받은 네팔인 부안 형제는 네팔 예배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 그의 꿈은 안산 M센터에서 네팔어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고국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온누리M미션은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

한편, 온누리M미션에서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추석연합집회의 봉사자를 모집한다. 온누리M미션은 매년 추석과 설날에 이주민을 위한 집회를 열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섬기고 있다.

문의: 양옥진 사역자(010-3937-3927 / 070-8671-8092)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지난 5년 동안의 이주민 세례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상반기)
세례자	18명	23명	28명	58명	24명

한편의 시

라오스 어땀어?

/ 오경곤(요셉공동체)

라오스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모든 것을  
"It's OK"로 만드는 능력.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신비로운 바람은  
어느새 순응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꼭 차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신비로운 힘은,  
라오스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조금씩,  
차오른다는 것이다.  
마치 뚝배기가 끓어오르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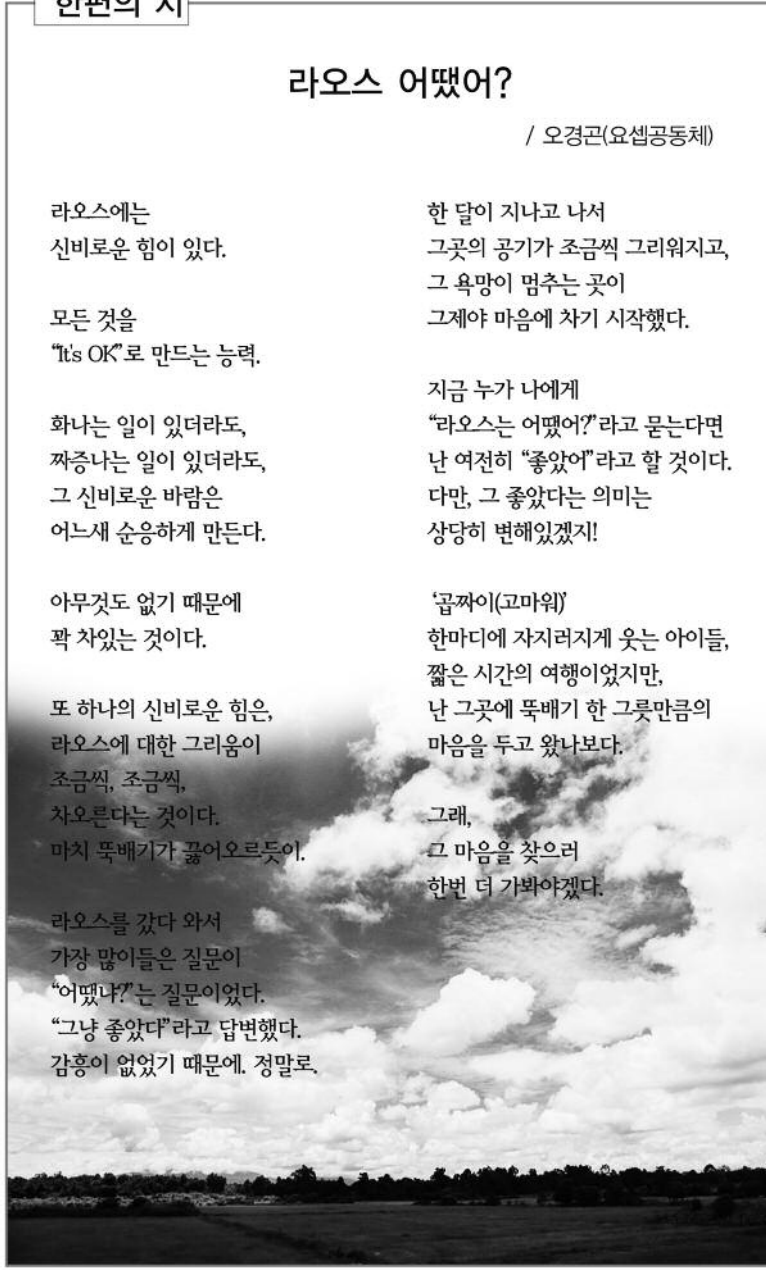
라오스를 갔다 와서  
가장 많이들은 질문이  
"어땀어?"는 질문이었다.  
"그냥 좋았다"라고 답변했다.  
감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곳의 공기가 조금씩 그리워지고,  
그 욕망이 멈추는 곳이  
그제야 마음에 차기 시작했다.

지금 누가 나에게  
"라오스는 어땀어?"라고 묻는다면  
난 여전히 "좋았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좋았다는 의미는  
상당히 변해있겠지!

'곶짜이(고마워)  
한마디에 자지러지게 웃는 아이들,  
짧은 시간의 여행이었지만,  
난 그곳에 뚝배기 한 그릇만큼의  
마음을 두고 왔나보다.

그래,  
그 마음을 찾으러  
한번 더 가봐야겠다.





# 하늘문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

온누리M미션, 이주민 24명에게 세례 ...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세례식”



온누리M미션이 대부도 바닷가에서 거행한 특별한 세례식.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4명의 이주민들이 세례를 받았다. 온몸을 바닷물에 담그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현상이었다. 이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세례식’ 이었다고 고백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간증 ■ 남양주 은누리교회 - 동아시아B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나리 성도(남양주 은누리교회)

#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내 꿈은 의사와 선교사다. 긴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다. 하지만 내 삶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다. 개업의사로, 세 아이의 엄마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에 지쳐갔다. 그러다 공동체에서 동아시아B국으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고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주일 아침, 남편이 갑자기 “가족이 모두 함께 갈까? 주님께 서 원하시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울었다. 나에게 선교 열정을 품게 하신 성령님께서 남편에게도 그 열정을 품게 하신 거였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긴 시간동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뜻밖의 제안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선교지에 가족과 함께 간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

“주님, 제가 이곳에 오게 되다니요”

아웃리치 현장에 도착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착한 다음날 이른 아침, 어린 아이 두 명이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두 녀석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나의 어린 아들 두 명은 배를라서 투정을 하는데, 쪼그려 앉아있는 어린아이 두 명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

는 현실이 기기막혔다. 이 현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눈앞에 보이는 땅은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그 땅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막힌 현실에 한없이 작아졌다.

주일 오전에는 해외비전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때 눈물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다. 대표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와는 차원이 달랐다. 목이 떴어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힘겨워 보였다. 성도들의 아멘 소리에 눈물이 담겨 있었다. 선교사들이 온갖 핍박을 받는 현장 가까이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숨을 산 제물로 올려놓은 채 드리는 예배였다.

그 다음 처소 교회를 방문했다. 전도사님과 장로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했다. 그리고 두 분을 위해 기도했다. 모두가 울었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울었다. 특별히 남편이 많이 울었다.

“나는 여태까지 내게 주어진 삶에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전도사님은 달라. 전도사님의 눈빛은 충격이었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



니었어. 혼란스러워. 내 삶에만 충실하게 사는 내 삶이 옳은 걸까?”

남편이 울면서 고백했다. 수많은 숨겨진 사역자들의 삶은 분명 우리와 차원이 달랐다. 내 삶이 먼지인 우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던 것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다. 마음은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기를 원했던 마

음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배워가고 있다. 나의 내려놓음과 더불어 남편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려 한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희 가정이 순종하겠습니다.”



간증 ■ 대학청년부 - 동아시아B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송지영 자매(하늘공동체)

## 보고 느낄 수 있는 특권

그동안 외국에 머물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뵈는 기회가 많았다.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을 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동아시아B국으로 아웃리치를 갈 기회가 생겨 참석했다. 동아시아B국에서 우리팀은 예정에 없던 청소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실 아웃리치를 오기 전에 노방전도가 금지되고, 교회용어를 쓰는 것도 조심스러운 나라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의 아웃리치는 현지인들과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이 나라의 언어를 하지 못해 설교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 또 감사했다.

우리팀은 이 나라의 언어를 못하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마음으로 이 곳 사람들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아는 팀원들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다.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생명의 삶>으로 함께 QT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형언할 수 없었다.

이 나라의 국경지대에서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핍박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동그란 무지개가 떠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 같아 무척 행복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11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오셨다. 또 현지 전도사님 한 분은 성도의 집에서 새벽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무릎 꿇고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의 모습도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해 전도사님을 필두로 밭벗고 나선 성도들도 만났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큰 도전이 되었다.

아웃리치를 마치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특권이였다. 바쁜 일

상 속에서 예배드리며 느꼈던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다. 정말 큰 감격이 있었다. 역시 선교지는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특별기고 하용조 목사 3주기를 보내고 정호욱 목사

## 나와 당신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DNA입니다.”

주일예배에서 하 목사님의 육성을 들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메시지다. 아! 목사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 목사님은 은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근간이 바로 일대일 양육이다.

'평신도 사역자' 그들은 복회자가 세상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세상이라는 그라운드 위에서 마음껏 뛰는 선수(Star Player)들이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아니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비참함, 그리고 수치스러움에 몸을 떨고 있다. 세월호 참사. 도무지 이해 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불신은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암담했다. 시간이 지나 잊히고 있는 현실은 더 안타깝다.

이대로 내 삶도, 교회도, 사회도 흐르는 강물에 던져진 작은 종이 배처럼 놓아두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 목사님이 제시한 비전에서 찾고자 한다. 과연 은누리회는 안전한가?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오뚜기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몸 중앙에 있는 추 때문이다. 배도 똑같은 원리다.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에 탄 사람과 실은 불건의 무게만큼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 복원력이 생긴다.

은누리회의 평형수는 무엇이고 온전히 잘 채워져 있을까? 2011년 8월 2일 하 목사님이 소천하자 기독교계가 많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은누리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재훈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세우셨다. 제2기 은누리교회의 서막이 올랐다. 이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성



도들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했다. 큐티와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평신도 사역자의

꽃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은누리회는 건강하다. 거대한 복원력을 가졌다.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평신도 사역자들 덕분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다.

“우리를 위해 누가 갈꼬?”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손드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이사야다. 이 시대의 이사야! 세상을 변화시키자. 건강한 교회를 이루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까지 쉽지가 않으니 달려가는 ‘나와 당신’이 바로 은누리회의 평형수다.



간 증 ■ 서초C공동체 - 중동A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오범규 집사(서초C공동체)

## 바울의 열정이 남아 있는가?

버스 안 온도가 41℃! 작열하는 태양을 가려 주는 것은 땀나무 그늘뿐이다. 우리 공동체는 왜 10년 이상 기도하며 그 땅을 그토록 밟고자 열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팀을 그 땅으로 이끄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1850년 지어진 고색창연한 교회에서 전체인구의 0.2%를 차지하는 현지교인들을 위해 손을 뻗어 찬양을 부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의 선한 눈동자와 수줍은 미소가 눈부시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상처 입은 자들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공동체로부터 위로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2시간이 넘도록 찬양하고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다. 그들의 애뜻함과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비록 소수이지만 믿음을 계승하고 말씀을 지키며 신앙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가 정말 귀했다. 중요한 밑줄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낼 때 하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

2000년 전 거대한 상업의 중심도시인 E시에 갔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보고 듣던 곳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목도하게 하셨다. 바울은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다. 5번의 혹독한 매질을 이겨냈고, 두 번의 투옥에서도 살아남아 복음을 전했다. 과연 우리에게 그 열정이 남아 있는가?

D지역의 지하도시 교회를 찾았다. 우리팀은 조용히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읽었다. 눈을 뜨고 기도했다. 이곳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 땅속에서 200년 이상 지내며 신앙을 지켜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대대로 믿음을 계승하며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신앙공동체를 이루어낸 이들 앞에 고개가 숙여졌다.

모슬렘들에게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해 복음 전파가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더 불어 선교사님들의 고충과 외로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세상과 점점 타협하며 믿음과 마음이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하여 성도와 교회가 비난을 받고, 나아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되었다.

아웃리치는 끝났고 이제 나의 사역지인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도 바울이 밝은 여정을

같이 걸으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 어렵게 계승된 믿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8일 동안 신앙공동체로서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 • 일본어예배부 - 일본 야치요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김미영 성도(일본어예배부)

# “너는 무력하지만, 나는 전능하다”

올해 아웃리치는 체력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무지 갈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일본어 예배부 안에서 한글강좌와 성가대를 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해 아웃리치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리 유미코 자매를 보며 생각을 바꿨다.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심했다.

이번 야치요 아웃리치 팀원들은 서울에 유학 와서 예수님을 만난 일본인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신들이 서울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향에 전하기 위해 떠나는 아웃리치였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유미코를 비롯한 일본청년들을 보면서 내 걱정과 능력, 상황 등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뒤늦게 결심한 아웃리치인지라 다른 멤버에 비해 준비가 미흡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즐겁게 준비하는 팀원들을 보며 은혜 받고 위로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 야치요 은누리교회에 도착했다. 이를 동안은 본 사역을 준비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섬겼다. 그런데 둘째 날 밤 내게 문제가 생겼다. 극심한 허리통증을 겪었다. 앉을 수도 서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태였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팀원들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그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무력하지만, 나는 전능하다.”  
그렇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의사고 나는 간호사라고 착각한 것이다. 나는 간호사가 아니라 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번처럼 무력한 내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

우리팀은 기존 아웃리치에서 많이 했던 코리아 안나이트와 같은 한국적인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야치요 은누리교회의 현지사역(교아보호시설 봉사, 정신장애인 시설 방문, 노숙자전도 등)을 돕고, 연합으로



어린이사역을 섬기는 것이 이번 아웃리치의 주된 사역이었다.

야치요 은누리교회는 인원수가 약 50여 명 남짓이다. 한국교회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교회다. 하지만 다양한 전도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능숙한 길 보면서 꽤 오랜 시간 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야치요 은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

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아웃리치는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번 아웃리치는 달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간증 • 평택은누리 - 남아시아 N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김소아 성도(평택 은누리)

## “돌아와라 새로워져라 준비해라”

지난해에 부모님께서 남아시아N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오셨다. 그곳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녀와서도 N국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나도 N국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이번 아웃리치는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갔다. 가족이 함께 하는 첫번째 아웃리치다. 온 가족이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첫발걸음을 내딛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웃리치를 앞두고 크고 작은 비행기 사고 소식과 전쟁, 테풍 등 각종 사건사고 소식이 보도되었다. 무섭고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은 더욱 기도했다. 그곳에서 만날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마음에 품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N국으로 향했다. 하나님은 아웃리치 기간 내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사랑하는 딸 소아야,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한다. 너도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겠니? 돌아와라, 새로워져라, 준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 N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를 감사했다. 비록 언어는 통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뜨거워졌다. 선교에 대한 간절함도 생겼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도전이 되고, 절망으로 다가왔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시는 K선교사님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남편도 내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의 대답은 ‘할 수 없다’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남편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곳의 교회와 선교사님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이번 아웃리치가 처음이었다. 회사 휴가일정과 아웃리치 일정이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주셨다. 사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소원한 사이였다.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나와 남편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기도제목에 응답해 주셨다. 아웃리치 기간 내내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면서 소원했던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부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묵상하

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안전하게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열방을 품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되고 싶다.



# “우리는 제자입니다”

## JDS 예수제자학교 ‘제자의 날’ 수강생 전원(527명) 여름 아웃리치 다녀와

지난 19일 양재 사랑홀, JDS(예수제자학교)가 ‘제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웃리치 보고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JDS 제자의 날 행사는 각 캠퍼스에서 수강생들이 모여 진목을 모모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백홍기 장로의 대표기도를 시작으로 ▷수강생과 JDS교사들이 준비한 율동과 스킷드라마 ▷아웃리치 간증 보고 ▷이훈 목사의 메시지 ▷중보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웃리치 보고회와 간증이었다. JDS 수강생 전원(527명)이 여름 아웃리치에 참석했다. JDS는 4개팀으로 나눠 14개국 40개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이날 이훈 목사는 ‘십자가를 짊어집시다’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복사는 수강생들에게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신실한 제자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 하나님의 선물, ‘JDS 베이비’

많은 수강생들 중에 임신부가 있었다. 그녀는 수원 은누리교회에서 JDS를 수강 중인 권소연 자매다. 그녀는 6년 동안 난임으로 고생했다. 지난해 JDS과정에 참가하면서 난임으로 인해 힘든 몸과 마음을 추스렀다고 한다. 그럼에도 임신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었다. 그때던 중 JDS에서 은혜받고 위로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올해부터 간사로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안전하게 낳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JDS 베이비’라며 축복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녀의 한탄 표정에서는 예비 엄마로서의 선함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쁨이 붙어 있었다.

### JDS(예수제자학교)는?

JDS는 Jesus Disciples School의 약자다. 은누리교회 평신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과정은 매년 2월-10월까지 약 25주 동안 사빙고, 양재, 부천, 수원, 인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JDS의 기본틀은 예수전도단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제자훈련학교)의 커리큘럼

에서 따왔다. DTS의 커리큘럼을 은누리교회에 맞게 수정, 적용한 것이다. DTS가 해외여행을 향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라면, JDS는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도 DTS는 풀타임을 요구하는데 JDS는 주간반(화, 목 10시-15시)과 제반반(목 19시-22시, 토 16시-22시)으로 편성해 수강생들의 부담을 덜었다.

### 〈문의〉

본부 신용애 사역자 02-3215-3625  
서빙고 김영심 010-2314-5422(주2번)  
한빛동 010-8703-9328(주4번)  
양재 이문의 010-7744-4471(주2번)  
강경국 010-8949-1992(주4번)  
수원 서동주 010-8744-1709  
부천 노선빈 010-3737-5840  
인천 김광겸 011-739-943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간증 ■ JDS 예수제자학교 ‘제자의 날’



/ 강현중 성도(인천 JDS)

### 잊지 못할 회복

게인과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방도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JDS에 입학했다. 좋은 강의를 듣고 스테프들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다.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고 치유 받는 느낌이 들었다.

JDS과정 중에 아웃리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0월이 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누구를 선교하겠느냐는 회의감이 들었다.

아웃리치 준비과정은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 않았다. 그런 내가 열흘이나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도 오래가지 않았다. 아웃리치 출발 일주일 전부터 신기하게 걱정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비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팀은 5명이 한 팀이었다. 우리는 연휴 중

안 진행된 아웃리치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계속 걸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났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한국에서 하던 고민과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내 생애에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을까 싶은 정도였다. 이곳에서 있는 동안 체력이 회복되고 진통제 복용도 필요없게 되었다. 이곳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팀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내게 치유와 위로, 축복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은사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 같았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쓰실 공간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웃리치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과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전과 다르게 평안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잊지 못할 회복은 맞았다.



/ 편정희 성도(서빙고 주2번)

### 십자가를 지고 터전 속으로

우리팀 아웃리치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내면여행을 하는 시간이었다. 첫째, 아웃리치 준비하고 다녀온 지금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내안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에게 참 힘든 과정이었다. JDS의 모든 강의는 정말 은혜롭고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나 막상 아웃리치가 시작되니, 그동안의 강의를 대한 시험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 내 생각과 갖대로 다른 팀원들을 철저하고 판단했다. 아픔이들 이 선교자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많았다. 하나님은 이런 아웃리치를 통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선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웃리치 기간 동안 내 안에서 선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내 습관과 가치관이 서로 부딪혔다. 나

의 죄상이 뿌리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오로지 주님께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기간 내내 큐티 말씀이 그날그날 적용되는 것이 놀라웠다. 분주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드린 날은, 여지없이 고된 영적전쟁을 벌여야만 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역의 완성도에만 집중했던 날엔 아찔한 사고를 겪을 뻔 하기도 했다.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회복해야만, 힘차고 순조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행언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아웃리치를 통해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편안한 일상을 벗어나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으로 한발씩 내딛었다. 십자가를 지고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01

## “탁구로 선교해요”

### 10월 3일 선교탁구대회, 선수모집 중

제2회 온누리선교탁구대회가 오는 10월 3일 양재 캠퍼스 하용조 기념홀에서 개최된다.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선수들에게 탁구선교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참가선수들에게 결연 선교지에 탁구대를 보낼 것을 독려하고, 탁구대회에서 마련된 기금으로 햇볼트리니티 신학교에 탁구대 기증할 계획이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과 복식(오전), 4인 단체전(오후)으로 나누어 진행

된다. 각 예선 리그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우승자에게는 상품과 상장이 주어진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과 팀을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연락처, 남녀, 직분, 소속, 공동체 또는 사역팀, 탁구경력 순으로 홈페이지(cafe.daum.net/loveact29)에 정보를 남기면 된다. 9월 15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회비는 개인전 2만원, 단체전 4만원(팀당).

문의: 010-9037-0179 유성재 집사

02



## 필리핀 섬마을에 희망을

### 더멋진세상, 비농안안섬 초등학교 준공식

NGO더멋진세상이 필리핀 비농안안섬에 초등학교를 세워주기로 했다. 지난 6일 비농안안섬 초등학교 준공식이 있었다. NGO더멋진세상 관계자를 비롯해 파워웨이브 아웃리치팀, 현지 관계자와 목회자, 마을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준공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김창욱 본부장 축사, 더멋진세상

비전 소개, 아웃리치팀의 리코더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필리핀 비농안안섬은 태풍 아이옌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섬이다. 피해 소식을 들은 NGO더멋진세상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주택을 복구하고, 학교를 세웠다.

향후 섬마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도서관과 과학자료실도 만들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온누리M미션 세례식 후기



# 잊을 수 없는 대부도 바닷가

/ 김관식 성도(서초B공동체)

약천후 속에서 거행된 세례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을 던졌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 참여하기까지 치과의 사로서 해외 이웃지리를 갖 것인가 아니면 CMN 챔버 단장으로 온누리M미션 세례식에 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주님께 여쭙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도 세례식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쉬울 것 같았던 대부도 세례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음향장비를 빌리고, 모여서 연습하고, 외국인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 영어 찬양을 선곡하는 일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다. ‘주품에’ 라는 찬양을 골랐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라는 가사처럼 정말 파도가 몰아쳤다. 비가 거세져서 해변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비를 피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지만 견딜 수 없어 전세 낸 식당으로 옮기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날씨로 300명의 참석자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힘든 상황 중에도 ‘안돼’ 라는 생각보다 일년을 기다린 침례식을 결코 중단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로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깨

달았다. 비를 맞으며 짐을 옮겼다. 좁은 식당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연주와 준비는 비닐하우스에서, 침례는 해변에서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비가 오는데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천막을 걷고 200여 개의 의자를 날랐다. 대형 마이크 믹서는 4명의 공동체 지체들이 법궤를 나르듯 날았다. 대형 스피커와 키보드 음향장비들을 세팅해서 두 장소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 창문을 열고 스피커를 통해 찬양이 흘러나갈 때 외국인 형제들을 향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파도치는 바다 속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세례자들이 보였다. 24명의 이방인들이 주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들이 세례 받는 것을 돕는 우리들은 귀한 세례식으로 초대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엄청난 빗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젖었다. 빗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된 팀원들을 보면서 내 생애 이렇게 독특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잊을 수 없는 대부도 바닷가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장로순환칼럼 최득린 장로

### 결코 싫지 않은 아웃리치 열(fever)

올 여름에도 약 152개 팀, 1500여 성도가 열방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일터까지 않은 팀까지 합치면 2천여 성도들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열방으로 떠나게 했을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막 16:15)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선교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천공항이나 외국공항에서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을 만나는 일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니다. 아웃리치팀의 모습은 한결 같이 밝고 활기차다. 자신 있고 따뜻해 보인다. 그 모습이 시험을 앞둔 운동선수들의 결연한 모습과는 다르다. 우리는 투쟁해서 결과를 얻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광경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다. 올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아웃리치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서빙과공동체는 해마다 남아시아 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니고 있다. 아직도 복음

을 듣지 못한 약 250만 명에 달하는 한지인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려보려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여름에 왼쪽 어깨가 너무 아렸다. 가벼운 것조차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조금만 자세가 나쁜편 통증이 심해졌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가지 못하면 치과신생님 두 분과 소아과 선생님 한 분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웃리치 출발 이틀 전 Q1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막 12:31)는 말씀을 보았다. 그 순간 아웃리치를 갈지 말지를 걱정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가겠습니 다 주님! 진료환수있도록제 아픈 어깨를 고쳐주시시오"

한달 이상 끌어오던 통증이 갑작같이 사라졌다. 알마나 감사하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많다. 급격한 기온차이도 원인이겠지만 지역에 몰두하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잃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무덥고 습한 지역을 다녀오면 미열 등의 감기증상이 나타난다. 사역지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내 몸에 침투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잠거리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동남아 지역을 다녀오신 성도들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혹시 말라리아나 뎅기열(dengue fever)이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 온몸에 피부발진이 가슴과 몸통에서부터 시작해 팔, 다리, 얼굴로 퍼진다. 결국 전신의 림프질이 커지는 무서운 열병이다. 그런 면에서 감기는 우리 몸에 고마운 병이다. 면역불균형을 미리 알려줘 생활패턴을 개선해 주기 때문이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겪는 이런 증상들을 그 땅과 그곳의 원주민을 위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터치로 해석하면 어떨까. 나는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나타나는 미열은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결코 싫지 않은 아웃리치 열(fever)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 행복한 2014 여름 아웃리치



서초A공동체는 남아시아B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연주(좌), 이연진(우)가 팀원들과 현지 어린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 2,402명 해외 단기선교, 국내 아웃리치도 풍성 이제는 흘린 땀방울이 열매 맺도록 기도할 때

곡을 누볐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의 헌신적인 섬김에 지역교회는 물론 주민들도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하나 되어 흘린 땀방울이 열매 맺도록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다.

2014 여름 아웃리치가 막바지다.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복음 들고 열방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쳤다.

158개 팀, 2402명이 해외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앞으로 4개팀, 46명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국내 아웃리치도 풍성했다. 공동체별, 순별로 전국방방 곡

(관련기사 4~7면)



간 증 • 차세대 - 남아시아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임미진 자매(유아3부 교사)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

우리팀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남아시아국 A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현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선교사님들과 청년 단기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 A지역에는 52개의 미전도종족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아직 복음화 되지 않았다. 선교사님들은 이곳에서 미전도종족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개척운동과 비즈니스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A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다. '절대적 믿음을 가진 저 많은 무슬림들을 어떻게 전도한다 말인가' 라는 생각뿐이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일정이 시작되었다. 지역교회를 방문해 현지인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위신과 특순을 선보였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 되었다.

8명의 어린이들과 부채도 만들고 그림으로 사영리를 전했다.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했던 유아부 캠프처럼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졌다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렸다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셨다.

현지인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로서 사역 중인 가정을 방문했다. 좁은 거실에 우리팀을 포함해 30여 명이 용기종기 모여앉아 서로의 기도제목들을 나누었다. 그들은 우리가 방문해준 것과 중보기도 해주신 것이 큰 일 된다고 했다.

둘째 날 두 가정을 방문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집에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가 다음 집으로 이동하려고 일어서자 옆집에 살고 있는 아들집에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우리는 부탁 받은대로 아들집에도 방문하게 되었다. 아들집 방문을 마칠 때 즈음 이번에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방문해 줄 수 있다는 부탁을 받았다. 원래 계획은 두 가정을 방문하



는 것이었지만 부탁을 받고 여러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졌다.

남아시아국에서는 외국인 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 의심을 받는다고 한다. 추방을 당할 확률도 높다고 한다.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날은 한국의 명절처럼 그곳 사람들도 친척집과 이웃집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우리가 무리 지어 다녀도 문

제되지 않은 이유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은혜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간섭해 주셔서 분쟁과 다툼 없이 사역할 수 있었다.

남아시아국 아웃리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남아시아국을 향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더욱 기도해야겠다.

간증 ■ 대학청년부 - 남아시아B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태윤 형제(요셉공동체)

## 나를 초대하신 예수님

나는 2011년부터 은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신앙인이다. 그런 내게 올해 초 교회와 삶에서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주변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7월, 전도사님이 뜬금 없이 나를 부르셨다. 남아시아B국 아웃리치를 가지고 제안하셨다.

매년 국내 아웃리치는 갖지만 경제적 사정을 보면서 해외까지 가서 사역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지금 일을 쉬고 있었기에 더 그랬다. 하지만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게 느껴졌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모임을 갔다. 기대가 컸던 것일까, 실망을 하게 되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팀이 구성된 상황이었으며 팀원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웃리치를 갈 수 있을지 걱정했다. 아웃리치까지 준비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원도 결정 되지 않아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우리가 가는 곳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걱정이 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님과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 아웃리치 준비모임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현지

선교사님과 상의하면서 어린이 사역과 대학생 컴퓨터강의, 문화사역을 준비했다.

팀원 한명이 더 줄어 결국 5명이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첫 해외 아웃리치에 올랐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아시아B국의 수도에서 조금 벗어난 가난한 동네 학교였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고 울동하고 있었다. 말쑥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걱정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의 생각이 철저히 부서졌다.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가늠하고 판단했던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셨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자 나를 초대하신 것이다.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가셨다. 그곳에서 고단함을 잊게 해준 맛있는 만찬을 먹었다. 전통 식단부터 남아시아B국의 일상적인 메뉴들을 알아가며 먹는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 매료되었다. 남아시아B국을 향한 내 마음이 더 깊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남아시아B국의 역사를 듣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신앙생활과 감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만은 여색함이 사라졌다.



마주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순간도 감사가 없는 시간이 없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남아시아B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부끄러웠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복음을 전하러 온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사역 마지막 날 기도회를 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국에 어떻게 흘려보낼지 기도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간 증** ▪ 서초A공동체 - 남아시아B국 | \*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최윤희 성도(서초A공동체)

##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셨습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7시30분, 서초A공동체 담담목사님을 포함한 25명의 공동체 식구들이 남아시아B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틀 전 먼저 출발한 의료팀 6명을 뒤따라가는 일정이었다.

남아시아B국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출국 전부터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가 통과되어 입국허가가 나기만을 마음 졸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정 무렵 남아시아B국에 도착했다. 사역지까지는 다시 차로 세 시간을 달려야 했다. 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일어나 QT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난 뒤 곧장 사역현장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사역할 곳은 병원이었다. 우리팀은 크게 의료팀(안과진료 및 수술)과 의료지원팀, 이동사역팀, 물류 및 찬양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바라보는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섬기다 가겠지’, ‘당신들이 뭘 얼마나 하겠냐’ 하는 눈빛이었다.

사역 첫날, 안과진료를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안과라는 개념조차 없다. 작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역이라 일이 많았다. 백내장, 사시들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하자 환자들이 무섭다며 달아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남자 환자들이 먼저 수술을 했다. 볼 수 없게 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기자 도망갔던 여자 환자들이 몰려와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과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100명, 사역 마지막 날에는 160여명의 환자들이 안과 진료를 받았다. 수술을 받고 앞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었다. 수술을 앞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이어졌다. 준비실에서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이 임하도록 중보기도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수술을 받고 나온 환자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술 받은 환자 중에는 스님도 있었다. 권사님과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의 마음이 녹았다.

사역 마지막 날 현지 선교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병원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은 이번 아웃리치팀이 처음입니다. 여

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아웃리치 주제 말씀인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간증 ■ 강동 은누리교회 - 일본 아마가타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임혜나 자매(강동 프리미스공동체)

## 백만불 짜리 미소

을 여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아웃리치 일정표를 훑어보았다. 마침 내 휴가 일정과 일본 아마가타 아웃리치 일정이 맞았다. 평소 일본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터라 망설임 없이 아웃리치 참가신청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나를 뒤덮기 시작했다. 예전에 갔던 아웃리치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명단에 내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니 두려움이 더 커졌다. 주변 친구들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지 않느냐며 일본 아웃리치를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웃리치를 만류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진짜 가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외면당했는데 너는 몇 일 동안의 소외감이 무서워서 안 갈 거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하염 없이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다시 마음을 붙잡고 일본 아마가타 남부교회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4박5일 일정이 짧게 느껴졌다. "가서 뭐했어? 어땠어?"라고 아웃리치 다녀온 소감을 묻는 사람들의 불음에 나는 "행복했다"고 대답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였다.

나는 그곳에서 교제를 하고 왔다. 하나님과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였다. 물론 사역도 했고, 휴식도 취했다. 그 중에서 교제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 팀원들과 나는 교제, 남부교회 오카 목사님 가정과 나는 교제, 남부교회 성도들과 나는 교제, 우리 팀원들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시신 토모코씨 가정과의 교제 등 하나도 잊을 수가 없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웃음이 넘쳐났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낯선 외국 사람에게 쉽게 집을 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을 선뜻 내어주었다.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 한 명은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우리와 함께 노방전도를 했다.

처음 아마가타 남부교회에 도착해서 오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곳의 느낌이 어떠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가타를 떠나갈 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 그 웃는 얼굴이 단순히 손님이 오셔서 보여준 미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을 만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백만 불짜리 진짜 미소였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내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답을 보여준 미소였다. '나도 남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살 수 있겠지?' 라는 도전을 받았다. 그동안 안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그래서 참 많이 행복했다.



간 증 • 대학청년부 -남아시아B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박준기 형제 (Pole2공동체)

## 아웃리치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아웃리치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디로 갈지 고민했다. Pole2공동체에서는 남아시아B국, N국, F국에서 아웃리치를 섬기기로 했다. 아웃리치 팀원 모집이 시작되었다. 세 지역을 놓고 기도 하고 고민하던 중 남아시아B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내가 선택을 잘 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이미 신성한 것이니 잘 다녀와야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갈 팀원들을 만나고 준비를 하다 보니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팀은 유독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남아시아B국으로 출발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웃리치를 가는 날짜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맡은 역할을 감당해냈다. 본부의 지시에 따라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다. 아웃리치 준비기간은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남아시아B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공

향으로 출발했다. 막상 아웃리치를 가니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알아가게 하실까. 기대가 되었다.

남아시아B국에 도착해서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A지역으로 이동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팀모임을 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웃리치 둘째 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우리팀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주일예배를 섬기고, 평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했다. 준비한 만큼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보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팀원들은 하나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특별한 사고 없이 모든 사역이 진행되었지만 높은 기온 탓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지쳤다. 하지만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부터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훈련이 되었다. 이곳에서도 팀원들은 무리 없이 아웃리치 일정을 진행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께서 우리 팀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목상했다. 우리 팀이 처음 모여 예배드리던 날, 전도사님께서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 됨이었기에 더 뜻 깊었다. 각자 가진 재능도 성격도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

한 아웃리치였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나는 여전히 팀원들과 남아시아B국이 그립다. 그 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행복했던 아웃리치,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를 지켜야겠다.

간증 ■ 대학청년부 - 남아시아M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광범 형제(허브공동체)

#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잠 16:9).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번 아웃리치에 가장 맞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아시아M국으로 아웃리치를 가기 전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처음 목사님이 내게 남아시아M국으로 아웃리치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고, 재정도 없었다. 목사님의 제안에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약함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친구들과 헤어짐을 자주 경험해야만 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길어야 2년이었다. 내가 떠나거나 친구들이 떠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이러한 헤어짐이 싫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벽을 두기 시작했다. 나를 숨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런 나에게 남아

시아M국 아웃리치는 부담스러웠다. 또 우리팀이 남아시아M국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전도였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엄청난 도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두려움보다 훨씬 강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걱정보다 크고 놀라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수많은 신들을 믿는다는 남아시아M국에서 많은 신당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전도를 잘 못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이 말씀을 붙잡고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힘들고, 용기내서 말을 걸어 놓고 눈을 못 마주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나 스스로 아무리 용기를 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한계를 인정하고 쉬는 시간에 현지어를 급하게 배워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줄 아는 남아시아M국 말이라고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와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뿐이었다. 그런데 이 두

마디 말만 전했을 뿐인데 기뻐하는 남아시아M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 말 두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고, 구원의 확신을 품게 해주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아웃리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부족함을 신실하신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NGO더멋진세상\_ 르완다를 가다

## ‘응호망과 마을’ 사역과 정경화 연주회 개최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부아프리카를 강타한 지난 여름, 위축된 분위기였음에도 NGO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를 포함한 17명의 봉사팀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르완다 응호망과 지역을 방문하였다. 응호망과 지역에 무니기나 보건지소(Munyiginya Health Post) 준공식 행사와 군병원 이동진료, 양계장 기공식, 모자보건 및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 질병예방 세미나, 말라리아 퇴치 모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제노사이트 20주년을 맞은 르완다에서 ‘화해와 용서’를 주제로 정경화더멋진세상 봉사대사의 바이올린 공연을 개최하였다.

### 의료, 보건, 지역개발

25일 준공식에는 김광동 대표를 포함한 봉사팀, 르완다 주재 한국 대사관 황순택 대사, 르와마가나 예레미 시장과 보건소장, 군병원 관계자, 지역 리더, 주민 1,000여 명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르와마가나 시장은 “의료시설이 없던 응호망과 지역에 보건지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잘 지키고 운영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광동 대표는 “보건지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계장을 세우고, 식수개발, 학교 설립 등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선 한국의 발전 사례를 르완다에 적용해 이곳을 발전시켜가는 친구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공연에는 르완다 전통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주민들의 공연과 KOICA 단원과 현지인이 펼친 태권도 격파시범이 있었다.

또한 양계장 기공식과 질병예방 세미나, 군병원 이동진료가 열렸다. 600여 두 규모의 양계장은 한국에서 양계연수를 받은 이 마을 청년 2명이 맡아서 운영할 계획이다. 유기농 농법을 이용하여 토마토와 감자 농장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질병예방 세미나는 4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3시간 강의로 이루어진 세미나에는 모자보건, 구강위생,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및 질병 예방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강의가 가장



NGO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가 응호망과 마을 어린이에게 양치질 시범을 보이고 있다.

큰 관심을 모았다. 칫솔을 나누어주며 양치질 시범을 보여주는 구강위생 강의도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과 27일은 군병원 이동진료가 무니기나 보건지소에서 열렸다. 르완다 군병원 의료진 10여명이 마을에 찾아와 진료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와 기다렸다. 진료 첫 날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서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진찰을 받으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 ‘화해와 용서’ 정경화 바이올린 연주회

이번 르완다 현장에 더멋진세상 봉사대사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함께했다. 봉사팀과

함께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직접 모기장을 설치했다. 특히 ‘화해와 용서’를 주제로 한 연주회가 이번 행사를 더 아름답게 빛냈다. 인종간 화해라는 아픔을 위로하고 나라가 하나 되는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연주회는 르완다에서 드문 역사적인 클래식 연주회였다. 르완다 정부 인사들과 외국 대사, 한국 교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특히 르완다 곡인 ‘리마한가라’가 정경화 봉사대사의 바이올린 선율로 흘러나올 때는 현지 주민들이 감격해 하며 두 손을 들고 음악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고대선(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장)

01

## “더 빠르고 풍성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 선교후원사역부의 하반기 각오

선교후원사역부의 하반기 각오가 남다르다. 성도들에게 더 빠르고 풍성한 선교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교후원사역부는 성도들이 선교지 소식과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돕는 사역팀이다.

선교후원사역팀은 하반기부터 긴급 기도제목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기도편지는 나라별로 선교사 2-3명을 직접 인터뷰해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도들에게 생생한 선교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선교후원사역부는 올해 2월 25일, 4천여 가정에 선교지 기도편지를 발송하면서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선교사들의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발송했다. 정보수집, 기도편지 작성, 편집 및 디자인, 전화 및 발송, 중보기도 등 모든 사역은 재능기부자들이 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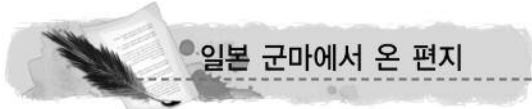


### 일본인 목회자들 은누리교회 방문

지난 5월 열린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의 감동을 잊지 못한 일본인 목사들이 서빙고 은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은누리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은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실행위원장 코바야시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성도 14명이다.

한편 11월 14일 개최되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참가자를 오는 21일부터 4주 동안 모집한다. 문의 02-3215-371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일본 군마에서 온 편지

※ 이 편지는 일본어예배부 일대일 양육팀이 군마에서 실시한 일대일 세미나에 참가한 일본인 목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 “온누리교회,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러브소나타 군마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군마 교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일본교회도 부흥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시 러브소나타 군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군마실행위원회는 이제 ‘군마 그리스도전도협력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모임입니다.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는 올해 1월 일대일제자양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러브소나타 군마 후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걸리는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3일 만에 배운다는 것이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아쉬움과 갈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의 일대일 양육팀이 군마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실전 훈련을 받았습니.

저는 이번에 동반자과정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지 사람의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개혁 당시부터 큐티와 일대일 양육을 기초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동반자로서 양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동반자로서 양육 받는 경험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쳤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동반자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을 양육만 해왔습니다. 제가 동반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동반자들의 마음을 알지 못

합니다. 나름대로 추측하고 고민해서 일대일 양육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동반자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동반자의 입장을 배운 이번 체험을 바탕으로 양육자로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양육한 사람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깨달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반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지혜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배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양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도들도 변화시키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군마 교계와 성도들을 위해 직장과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달려와 주신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일대일 양육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 교회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군마 교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교회가 온누리교회 덕분에 부흥할 것입니다.

/ 카나이 쿠미에 목사  
(뉴와인스킨 그리스도교회)



장로순환칼럼 김병순 장로

##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장로 피택, 장로 사관학교, 장로 장립까지 일련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겸손과 낮아짐, 섬김 등을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했다. 그 후로 능력은 없으나,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역들을 맡게 되었다. CMN, 선교분과위원회, 양재 이찬선교, 차세대, 분당공공체 사역들을 섬기게 되었다. 여러 사역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인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꾀대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잣대로 시간과 계획과 결과(목표)를 정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그렇기에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태도와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본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

다.

하나님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의료선교)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선교와 공흥사역, 복음전도와 교육 등 실로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선교분과위원회 내 이찬선교분부, TIM, 은누리미션, NGO더맛진세상, CGNTV, BEE, 대학장년부, 차세대, 아버지학교 등 많은 단체들과 CMN이 협력하고 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융합선교'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

다. 물론 이런 과정에 난관들도 있다. 지역별, 부서별, 팀별로 커뮤니티 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서별, 팀별 합심으로 협력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려웠던 사항들이 눈에 띄게 한바탕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CMN이 여러 부서들과 융합하여, 제2기 온

누리교회의 행보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인 공회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다루고, 조금해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다. 하나님의 뜻과 힘이 아닌, 나 혼자 힘으로 이루려는 모습과 사랑 없음을 깨닫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부족한 나를 깨우친다.

“나의 원아함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공흥의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 CGNTV 인도네시아 진출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기념콘서트 '러브 인도네시아'의 한 장면

## 지사 설립... 인도네시아와 문화적 교류 맺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막 오른 크리스천 문화집회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CGNTV와 인도네시아가 문화적 교류를 맺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지 선교사들도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TV 보는 것을 즐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CGNTV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GNTV 인도네시아 지사가 설립됐다. CGNTV가 또 한번 지경을 넓혔다.

지난 17~18일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을 축하하는 기념콘서트 '러브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7면〉

# CGNTV 인도네시아지사 설립

## 지난 17~18일 기념콘서트 '러브 인도네시아'

CGNTV 인도네시아 지사가 설립됐다. CGNTV 가도 한번 도약했다.

지난 17-18일 CGNTV 인도네시아지사 설립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축하콘서트였다. 이번 기념행사는 준비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 크리스천들이 연합해 만든 합작품이다. CGNTV와 인도네시아 교계가 문화적 교류를 맺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17일 저녁,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에서 '한인연합집회'가 열렸다. CGNTV 인도네시아지사 설립 기념콘서트를 위해 협력한 한인교회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인연합집회에는 780여 명의 한인교인들이 참석했다.

18일 오후 4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도네시아 목회자와 CEO, 한인 목회자, CGNTV 운영위원 등 300여명이 만나 인도네시아 CGNTV의 비전을 공유했다.

같은 날 저녁, Balai Sarbini 콘서트홀에서 CGNTV 인도네시아지사 설립기념콘서트 '러브 인도네시아'가 막 올랐다. 한자인 크리스천을 위한 문화교류 콘서트였다. 양국을 대표하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수준 높고 다채로운 공연은 자리를 가득 채운 1200여 크리스천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이날 설교에서 이재훈 목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다.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남보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GNTV의 영향력 기대

드라마 '빨리에서 생긴 일', 유령 가구회사 '보루네오', '자비카피'의 공동분봉? 그렇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들이다. 공식이름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이다. 면적은 190만km(한반도의 약 9배), 17508개 섬(무인도만 7,333개)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최대 도서국이다. 서쪽 수마트라섬에서 동쪽 뉴기니섬까지 약 5100km로 비행기 이륙시 약 7시간 정도 걸린다.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비행거리는 3271마일(5280km)이다. 적도상에 가로로 넓게 퍼져있는 형국이다.

인구는 약 2억 4천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수도 자카르타에 1000만 명



CGNTV 인도네시아 지사설립 기념 콘서트에 참가한 현지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 산다. 저비족(41%), 순다족(15.4%) 등 300여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다. 국민의 8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아시아권 최대이며, 전세계적으로 3번째로 큰 이슬람 교사원이 있는 곳이다. 기독교 7%, 천주교 3%, 힌두교 2% 정도다.

이성호 선교사는 "CGNTV가 인도네시아 방송 산업과 문화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들도 이미 CGNTV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CGNTV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인도네시아 기독교 방송 및 문화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원 선교사(은누리교회)의 파송은 "이곳 사람들은 텔레비전 보는 것을 즐기는데 자연스럽게 CGNTV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GNTV 인도네시아의 첫 행보가 고무적이다. 이월부터 인도네시아 최대 위성방송 '인도비전'의 기독교채널 '라이프채널'에서 매일 2시간씩 CGNTV 콘텐츠가 전파를 탄다. 인도네시아어 자

막으로 방송된다. 현지 선교사와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충족을, 현지인 신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비전은 유료 케이블방송이다. 매월 한화로 15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 근교지역의 월평균 급여가 15만~18만 원 정도다. 인도네시아인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방송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인도비전에서 방송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호감, CGNTV의 탁월한 방송 콘텐츠가 산박자를 이루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방송선교 시대다. 선교사와 현지 복음자들의 영적 부담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방송이기 때문이다.

### 지평을 넓히는 CGNTV

CGNTV(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는 2006년 3월 하용조 목사가 설립했다. 같은 해 8월 미국 LA, 2008년 10월 일본 도쿄에 지사를 설립했다. 2008년 6월 대만 타이베이에 제작센터, 2010년 11월 태국 방콕, 2012년 3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제작센터를, 2014년 인도네시아 지사를 세웠다. 내년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어 채널, 일본어 채널, 중국어 채널은 각각 24시간 방송되고 있다. 일본어 채널의 경우 현지 제작이 66%에 달한다. 현지 기독교인들을 위한 문화 브릿지도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12개 언어 자막을 통해 24시간 시청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송으로 거듭났다.

- 인도네시아 CGNTV 공식 홈페이지
- <http://indonesiacgntv.net>
- 후원문의 02-796-224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인도네시아 CGNTV에 바란다

“CGNTV의 영향력을 기대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인도네시아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시기에, 봉사문화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인도비전과 연합해서 CGNTV의 기독교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에 방송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CGNTV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믿

음의 도전과, 또 신학생들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좋은 복사가 되고 싶습니다.”

/ Rudolf Damanik(STT Jakarta신학교)

“도전과 감동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장대하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내년에 선교사훈련을 받고, 내후년 인도네시아로 예정입니다.

은누리교회와 CGNTV가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연합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CGNTV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통령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고재일 전도사(춘천중앙교회)





# 오비히로, 옛 명성 되찾자!

### 오늘부터 4주 동안 참가자 모집 집회준비 한창, 벌써 55개 협력교회 모여

광활한 자연환경을 뽐내는 홋카이도 오비히로에서 21번째 러브소나타가 개최된다.

2007년 삿포로, 2010년 아시히카와에 이어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세번째 러브소나타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는 오는 11월 13-14일 오비히로 시민문화홀에서 개최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늘(21일)부터다.

오비히로 교회는 벌써부터 러브소나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7월 10-11일 이은일 교수를 초청, 창조과학세미나를 열었다. 현지목회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지난 10-12일에는 세 차례에 걸쳐 권기대회를 열었다. 유명 플루트연주자 '송철나무'가 들려주는 감동적인 연주에 현지인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후문이다. 사전세미나와 권기대회를 치르면서 현재까지 55개 교회가 협력신청을 했다. 오비히로가 속한 도카치 지역에 교회가 33개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실행위원장 무라타 목사가 시역하는 교회 성도들이 환하게 웃고있다.

#### 부흥의 땅에서 조용한 마을로

홋카이도는 면적이 77981.87km<sup>2</sup>로 일본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세계에서 스물한 번째로 큰 섬이다.

도카치 지역은 기독교 역사도 깊다. 복음이 전파된지는 약 131년 전이다. 땅 개척과 함께 복음이 전파됐다. 1883년 '만성사'라는 개척단 체 소속 4명의 크리스천들이 선구자들. 성경을

이용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성공회 선교사가 들어와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1931년 개최한 전도집회에 1100명이 운집해 12명이 결신하는 일도 있었다. 오비히로는 부흥의 땅이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졌다. 교회목사는 스님으로 바뀌었고, 부흥의 땅으로 불렸던 지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만큼

조용한 마을이 돼버렸다.

풍부한 자연이 주는 혜택은 오히려 영적고갈을 초래했다. 여유롭고 한가한 오비히로의 이면에는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혼율이 높고, 소년범죄율도 높다. 인구밀도 대비 조직 폭력배(야쿠자)가 많다. 마담(마) 밭이 있어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 닛타 요시카즈 목사의 소원

현지 실행위원장 닷타 요시카즈 목사(도카치 그리스도 라파이벌교회)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에 가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는 오른쪽 팔이 없다. 24살 때, 사고로 잃었다. 그때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웬지 모를 고통에 병원근처 교회를 수차례 어슬렁거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냥 그렇게 가버리나?"는 유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교회를 열었다. 고 한다. 십자가 용서에 대해 알게 된 후 병원 침상에서 회개기도를 드리고 회심했다. 광범한 농부로 자라다 2000년 4월부터 목회를 시작했다. 그는 도카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현지 통신원을 만난 자리에서 닷타 요시카즈 목사는 "도카치(十勝)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뜻이다. 일본에 이런 이름을 가진 지역은 없다. 드넓은 대지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십자가 승리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비히로 푸른 초장과 빼어난 자연경관, 사립보다 소가 많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영적인 이름이 있다.

영적으로 복마리고 배고픈 땅이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가 그 땅의 긴급함을 해소하는 단비가 되기를 소망한다. 부흥의 땅으로 불리던 옛 명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가문의(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 오비히로 러브소나타 화관민들기

대상 : 손재주있는 성도 누구나  
일시 : 매주 화·수·목 오전 11시~4시  
장소 : 미션홀  
문의 : 02-749-1149



#### 오비히로 기 · 도 · 제 · 목

- 9월 22일(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9월 23일(화) 일본 실행위원회와 온누리교회와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 9월 24일(수) 북해도, 도카치, 오비히로 지역에서 80개 이상 협력교회가 모이도록
- 9월 25일(목) 일본인 참가자가 1,600명을 넘을 수 있도록
- 9월 26일(금) 실행위원장인 무라타 목사와 실행위원들이 영적인 일치를 가지도록
- 9월 27일(토) 한국 봉사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 9월 28일(일)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풍족한 은혜가 임하기를

#### 일본에서 온 편지



무라타 아카라 목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CGNTV와 무라노 러브소나타 등으로 일본인 구원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홋카이도 오비히로 시에서 사역하는 무라타 아카라 목사입니다.

#### 다시 한 번 부흥 꿈꾸는 오비히로, 러브소나타가 그 출발점입니다

오비히로가 속한 도카치 지역은 홋카이도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931년에 열린 전도집회에는 1100명이 모였고, 12명이 예수님을 만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카치 감옥이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목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목사들의 헌신으로 많은 죄수들이 회심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사

로 거듭난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오비히로는 '기독교의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회목사는 불교의 스님으로 바뀌었고, 부흥의 물결도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길으로 보기에 한가롭고 풍요로운 농촌마을입니다. 그러나 소년범죄가 홋카이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인구대비 조직폭력배(야쿠자)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혼율도 높아 모자(母子)가정이 많습니다. 부흥의 땅에서 조용한 마을

로 바뀌었습니다. 불적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메마르고,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러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아오는 마음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받아 드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비히로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거리'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곳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01

# 온누리M미션 베트남공동체 출범

## 복음 듣고, 외로움도 달래고... 용 형제 공동체이야기

베트남공동체가 출범했다. 온누리M미션은 지난 8일 이주민추석연합집회에서 베트남공동체 출범 축하행사를 가졌다.

온누리M미션은 2012년부터 베트남 모임을 시작했다. 길거리 전도와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일소문이 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5-6명이 모이던 모임이 이제는 평균 20명이 넘게 모이고 있다.

베트남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타국살이 외로움도 달래는 지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용(26)은 베트남 하이퐁에서 왔다. 친구가 한국을 소개해줬고 일하는 방법도 알려줘서 오게 되었다. 한국영화를 보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 그는 한국에서 지체차 운전 일을 하고 있다.

용은 한국어 공부할 곳을 찾다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고 온누리M센터로 오게 되었다. 온누리M센터에는



베트남 모임이 있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다.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었다. 그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러던 그가 베트남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지난달에는 세례도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는 소식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

들에게도 전했다. 그의 부모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용 형제의 사례처럼 이주민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찾아오는 선교지를 섬기는 손길도 그만큼 귀하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문의: 031-491-965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예수 이름이 선명해지는 시간

### 신용산·S브릿지, 남아시아 1국 연합사역

신용산공동체와 S브릿지공동체가 남아시아국에서 연합사역을 펼쳤다. 두 공동체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4박6일 동안 남아시아국에서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 한국문화공연 등의 사역을 했다. 남아시아국 최빈 지역에도 방문해 현지 선교사 부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스쿨' 도 도왔다.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홈케어사역' 도 실시했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

부과 진료는 물론 어린이사역도 병행했다. 기도 받기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중보기도를 해줬다.

이정희 팀장(S브릿지공동체)은 "두 공동체가 연합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는 잃어버린 눈물과 방언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희미해진 비전을 다시 세웠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해졌다"고 고백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3



## 이주민과 함께 보낸 풍성한 한가위

이주민들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 (Harvest).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린 연합집회에 외국이주민 615명과 한국 봉사자 160명이 참석했다. 집회에서는 오대원 목사(David E. Ross, 전 한국예수전도단 대표)가 말씀을 전했다. 나라별 모임,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 조은실 기자



01

■ 호치민 온누리교회 '제1기 Why Mission?' 47명 수료



/ 유영준 집사(김포공동체)

“이 땅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달 29일-30일 이틀 동안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제1기 Why Mission?이 열렸다. 모두 47명의 성도가 이번 와이미션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왜 선교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치민은 우리에게 월남전과 사이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경제, 문화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지만 종교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번 와이미션을 섬기기 위해 호치민으로 향하는 6명의 와이미션 스텝(서빙고, 양재, 양지은, 누리 연합팀)들 역시 혹시나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

“호치민은 먹고 살기에는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 앞에서는 통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호치민에 도착한 날, 호치민 온누리교회 박수환 전도사가 던진 이 말은 지금의 호치민 상황을 대변해주는 듯 했다. 이 나라의 종교법에서는 '외국인이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오직 NGO 활동만 가능하다. 한인교회는 존재하지만 베

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바로 그 땅에서 주재원으로, 사업가로,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만났다.

이번 와이미션을 통해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이번 와이미션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했다. '선교는 예배 회복'라는 배움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것이 선교라는 핵심적인 선교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시간,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촛불예식을 통해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비 찬척, 본도를 떠나게 한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케 한 요셉처럼, 자신들을 베트남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02

■ 일본 구마모토를 다녀와서



/ 유희우 (CGNTV 편성기획팀)

새 비전, 예수님 좇아가는 삶

학창시절, 씩씩하고 욱하고 방황하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방송선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십 수 년이 흘러 하나님께서 나를 CGNTV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CGNTV에 은혜로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일본으로 직원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섬기러 가는 자리에 신입사원이 끼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부담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갔다. 우리 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였고, 주님이 나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두 번째였다.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역지였던 구마모토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태풍이 오게 되면 계획했던 사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역한 지역만 절묘하게 태풍이 빗겨나갔다. 태풍이 급선회를 했다. 강수확률 90%라는 전날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사역하기에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셨다.

성도가 없는 신지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해 아케도 목사님을 도와 여러 사역을 했다. 나의 임

무는 CGNTV 안테나를 달아드리는 일이었다. 위성안테나 설치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전파가 호락호락 잡혀줄리 없었다. 그렇게 두 세 시간이 흘렀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가 짐삼히 깨달았다. 지붕 밑에서 안테나 신호가 잡히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잡히지 않던 신호가 잡히고 화면이 들어왔다.

교회를 청소하고 주변 지역에 전도지를 전달했다. 아케도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었다. 목사님의 삶을 며칠 동안 지켜보고 들으면서 나의 중심과 비전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분이셨다. 어떤 성취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나의 교만이 처절하게 깨졌다. 나도 아케도 목사님처럼 삶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좇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셨다. 팀원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친밀감도 누리게 하셨다. 새로운 비전도 주셨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망한다.



장로순환칼럼 김재일 장로(일본어예배부)

## 25년차 성도의 소회(所懷)

1988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듬해부터 은누리교회에 출석했다. 첫 봉사는 성가대였다. 지금 돌아켜보면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대단했다. 성가대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나 성가사, 목회자가 되어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여의도공동체에서는 순장, 일대일 양육자로서 계속 봉사했다. 특히 내가 양육했던 동반자들이 오히려 양육자인 나보다 먼저 장로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기도 했다.

당시 나는 대학과 사회에서 한참 활발하게 일하고 있던 시기였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새벽기도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다. 유학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이다.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한 경우에도, 집에서 반드시 그날의 <생명의 삶> 본문과 시편, 잠언 등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내가 혹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내

어 기도했다. 이러한 습관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난무한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나 자신을 깨끗이 지켜갈 수 있었던 근간이 되어 주었다.

교회에서 내가 맡는 역할은 점차 커졌다. 기존에 해왔던 봉사와 활동 이외에, 크리스천CEO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청년부와 대학부 멘토를 맡게 되었다. 공동체 다락방장으로도 섬기게 되었다. 이처럼 교회에서 맡는 역할이 커져갈 무렵, 한 지인의 강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전도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정모리는 큰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 무렵 시작된 러브스너티는 나로 하여금 막연히 생각하던 일본선교에 대한 개인적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2년 동안 정들었던 여의도공동체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본어예배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막상 일본어예배부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나의 짧은 일본어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가지 대안을 시도하던 끝에, 방송통신대학 일본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2년 동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긴 했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일본선교 희망자에게 방송통신대학 일본학과가 큰 도움이 되었다.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모든 부분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적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3개월 남짓 교토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마침 이 기간 중에 교도에서 러브스너티가 개최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지난 25년 동안 은누리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다. 훌륭한 목사님들과 신실한 교우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칼럼** 정영일 장로

## 더 크게, 더 높게, 더 힘차게

양지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그중 으뜸이 감사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따라 양지에 선교사 훈련센터와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 감사하다. 이곳에 하 목사님을 모신 것도 또한 감사하다.

Acts29비전빌리지는 양지 온누리교회와 선교훈련센터가 함께 있다. 선교훈련센터에는 훈련팀, 열방팀, 운영팀, 해외두란노선교회 등 다양한 선교팀이 헌신하고 있다. 훈련팀은 장기 선교사훈련, 단기 선교사훈련, 인식년 선교사 재훈련 등 선교사들의 지식과 영성을 길러주고, 야성으로 무장을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열방기도팀도 있다.

파송된 선교사 관리 및 후원을 하고 있는 해외두란노선교회

(TMM)와 비전빌리지를 관리하는 운영팀도 한 건봉에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선교훈련센터의 기운을 받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것 또한 감사하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39년 전 이곳은 벨렐교회가 있던 자리였다. 전원교회로 예배드리다가 온누리교회와 합병했다. 예배 방식이 달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서먹하기도 했다. 그러나 캠퍼스로 승격된 지금은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교통이 불편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위해 모이고 매주 새신자들이 오는 것을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느껴진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매주 금요일에 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주일이면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순 예배와 권사모임 마라나타상가대가 그룹별로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YBM사역을 통해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돕고 있다. 청소를 돕고 빨래도 해준다. 마을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과 의료 봉사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지 온누리교회가 섬김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하나되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란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힘차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 선교사 깨우는(돕는) 선교사 'CGNTV'

## 상업 광고 없이 후원만으로 달려 온 외길

CGNTV는 2005년 개국 이래 은누리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매일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용조 목사로 사자된 한 영혼에 대한 돌봄 DNA가 이제온 담임목사와 은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돼 오늘날은 세상을 향해 생방송되고 있다. 개 교회의 사역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외부 시선이 무색해졌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CGNTV하면 떠올리는 구절은 '선교사를 깨우는(돕는) 선교사'다. 상업 광고 없이 후원만으로 달려온 CGNTV. 든든한 동역자인 후원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나눔이 어떤 열매로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 후원자들의 손끝에서 시작



2005년 CGNTV개국 예배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장대케 된다"는 현상이 CGNTV다. 이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몇 분의 귀한 헌금인 씨드머니(종자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7년부터 더 많은 성도들이 방송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1만원, 2만원 등 정기 후원자들이 2만1000명에 달한다. 수백만 원에서 1억원 이상 후

원하는 이들도 적잖다. "후원하면서 더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다"고 고백한다.

CGNTV 새벽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83세의 이제온 권사는 예배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통정리를 한다. 그는 "너무 고맙다"며 봉사활동으로 받은 첫 수당을 CGNTV에 후원했다. 대구에 사는 김덕년, 유영신 부부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후원금을 보낸다. 매일 일정한 금액을 모아 지난 2년간 인도네시아, 대만, 아프리카에 5개의 위성안테나를 후원했다. 지금은 태중의 아이 이복으로 또 하나의 안테나 설치를 위해 해를 참고를 채우고 있다. 청년 시절 만난 부부에게 CGNTV가 일상의 영적 충전소였기에 그 은혜를 다른 누군기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후원을 시작한 것.

"일 년 후 저의 기도의 씨앗들이 모자란 걸 보면서 감사와 뿌듯함이 넘쳐요. 특히 저희가 모은 후원금이 (안테나) 설치를 희망하는 선교사의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며 놀랍니다. 태중 에 아이도 언젠가 주실 아이를 상상하며 후원을 시작한 해에 알게 됐죠"

### 차별화된 국내의 스테이션



2008년 몽골 아웃리치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미션에 걸맞게 CGNTV는 위성, 케이블TV, IPTV와 CGNTV라이브앱, 모바일웹 및 SNS 유튜브, 팟캐스트 등 오픈플랫폼을 통해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시청자만 하루 평균 2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IPTV 34MLG U+, KT

올레TV, SK Bx)를 통해 방영되는 종교채널 7개 가운데 CGNTV만이 풀 HD방송, 고품질 영상서비스를 제공한다.

CGNTV는 세계 지역별 맞춤방송을 위해 3개 해외 3개 제작센터를 세웠다. 미주지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과테말라 비전신학교와 연계해 2년제 위성 신학교정을 실시, 현재 1500여 명의 재학생과 900여 명의 졸업생도 배출했다. 2010년 자체 후원회를 결성해 사역 비용을 충당하는데 현재 회원 수 3500명에 이른다. 이중 1000여 명은 정기 후원에 동참한다.

일본지사는 CGNTV 최초 24시간 현지어 방송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일본지사의 가장 큰 열매는 일본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 1500여 명의 목회자가 말씀강화와 '10분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목회자 없는 700여 개의 무목교회도 변화가 일어났다.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기독교보화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 것.

대만제작센터는 중국 대륙과 중화권에 양질의 신학 및 신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뛰고 있다. 태국제작센터는 최대 교단인 CCT와 협력해 태국뿐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을 위한 복음네트워크의 역할을 준비 중이다. 아프리카제작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선교 콘텐츠를 기획, 이슬람권 미디어사역자들의 연대를 이끄는 한편 이집트를 중심으로 무슬림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

해 힘쓰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위성방송인 '인도비전 라이프채널'에 매일 24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CGNTV는 기사 실립과 더불어 한인목회자,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인 목회자와 CEO들의 협력으로 '러브인도네시아' 행사를 갖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갖는다.

### 기독교 방송의 신탁 패러다임 선도



RUN 부산불꽃전도

CGNTV 프로그램은 국내 최장수라는 기록이 많다. 20세기 세계 석학 중 한 명인 존 스노트 목사의 메시지가 한국 최초 유일하게 방송됐다. 일송컨퍼런스 역시 한국 최장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은누리교회 집회 강사로 내한한 데이비드 플랫, 프랜시스 캔 등 유명 목회자의 말씀강해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05년 선교사 자녀 대상 프로그램 '미키클럽', 2011년 군군교 프로그램 '총신 은혜도방', 통일 한국을 대비한 북한선교 프로그램 '반갑습네다'와 '통일 복소리' 등 영역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적잖다.

선교사의 영적 충전에서부터 선교지의 실질적인 필요 충족까지 맺힌 열매는 이루 셀 수 없다. '선교사님 한나세요', '독수리도형제'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 여름이면 60도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12월 남짓한 곳에서 십여 년간 예배를 드린 박은선 교사 카자흐스탄에서 20년째 사역 중이던 그는 '독수리도형제'에 소개될 당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건축이 중단되고 인부들이 교회 집기까지 들고 도망갔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시청자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작년 여름 마침내 교회가 완공됐다. 박 선교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과 후원자들, 수고한 CGNTV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방송 초기부터 화제를 모은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SNS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이 공유되고 'RUN'에 소개된 청년 전도 단체들이 연합하게 됐다. 서울 홍익대에서 활동하던 '게나소나 콰이어'는 사역 구분이 배가 됐다. 25명 함께 하던 전도 모음이 4월에 방송된 뒤 5월에는 100여 명이 모여 전도하게 됐다. 부산 전도계획을 갖고 SNS를 통해 참가자 모집에 나서자 전국에서 7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부산 불꽃 전도를 성공리에 마쳤다.

### CGNTV 직원 모두 방송선교사



2014년 제1회 방송선교사 파송예배

직원들도 선교 삼일조를 드린다는 취지로 직원부터 선교 헌신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교헌신자는 언어 및 영상 훈련 등을 거친 뒤 개인의 경력을 신력 CGNTV 해외지사 또는 제작센터로 파견된다. 직원이 아닌 선교사 신분과 영성으로 CGNTV와 선교지를 함께 된다.

선교 헌신자는 지난해 4명 에 이어 올해 3명이 선발됐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기 헌신자 중 윤영준 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철원 PD는 일본 오사카로, 박민진 사원은 도쿄로 각각 선교사로 떠났다. 2기 헌신자 중 선정길 사원은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더 효과적인 언어 습득과 현장 훈련을 위해 인턴 선교사로 합류했다. 2기 송인승(기술국 송훈팀), 김재경(제작국 영상제작팀) 사원은 내년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 함태경 CGNTV 본부장

\*10월 5일 CGNTV 정기후원행사가 열립니다.



01



### 몽골국제대학교 이사장, 총장 취임예배

#### 양유식 장로 이사장, 권오문 선교사 총장

양유식 장로가 몽골국제대학교(MIU,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3일(화)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이사장 양유식 장로 취임 및 총장 권오문 선교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취임예배에는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몽골국제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사장과 총장으로 취임하는 양 장로와 권 선교사를 축복했다.

이재훈 목사는 말씀에서 “자기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고 권면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양유식 장로는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후원자들과 온누리교회가 동역한다면 MIU가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선교센터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오문 선교사는 제4대 총장으로 연임됐다. 권 선교사는 취임사에서 “온누리교회와 동역하게 되어 감사하다. 부족한 것이 많으니 기도도 동역해달라”고 부탁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2014년 선교사 3차 파송식

- 번스틱, 하닷사(중동) / 기쁨(중동)
- 주영(중동) / 박다니엘(중동)
- Shine(중동) / Yule(중동)
- Peter(중동) / 전요한(중동)
- Daniel Lee(남아시아) / 장반식(남아시아)
- 스테판(남아시아) / 송하람(남아시아)
- 큰민족(남아시아) / 김다함(남아시아)
- 박에스더(아프리카) / 김레브(아프리카)
- 테할라(아프리카) / 이사람(아프리카)
- 하뜻(아프리카) / 예텐에스더(남아시아)
- 최칭찬(남아시아)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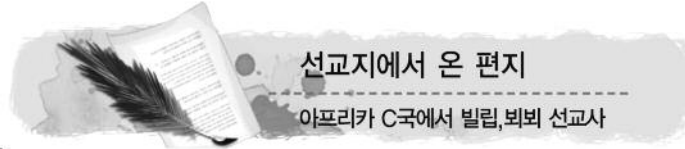


### 오비히로 기·도·제·목

- 9월 29일(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오비히로의 교회와 가정들이 승리하도록
- 9월 30일(화) 일본 실행위원회 모임의 중심에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도록
- 10월 1일(수) 북해도, 토카치, 오비히로 지역의 80개 협력교회가 세워지도록
- 10월 2일(목) 재정, 조직운영 등 필요한 모든 재원들이 풍족하게 채워지도록
- 10월 3일(금) 일본인 참가자가 행사장을 가득 채우고 복음에 마음을 열도록
- 10월 4일(토) 한국인 참가자가 100명이 넘고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 10월 5일(일) 모든 참여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교통, 숙박, 날씨가 좋기를

2014년 9월 28일 1017호

• 01- 몽골국제대학교 이사장&총장 취임예배 : 이사장 양유식 장로 & 총장 권오문 선교사 취임(10면), • 02- 3차 선교사 파송식 : 번스틱-하닷사 외 가정 1팀, 싱글 19팀(10면)  
 • 03-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9.29-10.5)(10면)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아프리카 C국에서 빌립, 뵈뵈 선교사

### 크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영혼들

이곳은 아직 우기가 가시지 않아 흐리고 끈적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거기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여러 곳의 빈민촌을 강제 철거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는 정부를 원망할 뿐입니다. 아기를 안고 갈 곳이 없어 안절부절인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긴 방학을 끝내고 두 주 전에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날 한국의 여러 공동체와 개인이 준비해 준 간식과 옷을 나누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보다 선물을 더 기다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웃음도 나왔습니다.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해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옷도 좋고 간식도 맛있었습니다.

저희와 예배를 함께 드렸던 한 형제의 큰 딸이 저희가 없는 사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초기에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탓에 혈액에 문제가 생겨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돈이 없으면 수혈을 해주지 않는 병원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병원으로 걸어가는 길에 한인 교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의 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수혈할 비용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께 병원을 찾아가 달리면서 병원비의 일부도 부탁드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신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아이가 이쁘게도 예배를 인도한 형제가 대단하다는 내용과 병원에 갔더니 저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쥐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일 년도 안 된 신앙을 가진 형제에게 예배인도를 맡기는 것도 미안했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인도를 맡았다는 것이 더욱 그랬습니다. 와서 보니 그 일로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도 보이고 무엇보다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강해 저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진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10월 첫 주부터 제2의 빵집을 오픈합니다. 장소는 마을의 작은 학교입니다. 가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학교 디렉터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크리스천이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당분간 그곳에서 토요일은 천사의 빵집(아이들 쿠키방)을, 주일은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학교는 크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곳과는 거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곳에서 크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영혼들을 보고 느낄 것입니다.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는 그곳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 오늘 교회 창립 29주년



## 창립주일 뜻 깊게 보내는 두 가지 방법 CGNTV 정기후원 작성, 부흥축제 참가신청

을 하는 것이다.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절호의 기회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린 이래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선교 중심,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로서 세상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오늘은 온누리교회 창립 29주년이다. 교회 창립일을 맞아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뜻 깊은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오늘 모든 예배에서 실시되는 CGNTV 정기후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월 7~9일까지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르는 부흥축제 참가신청

|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의료선교사가 최종 꿈이라는 윤상엽 팀장이 자신의 진료실에서 웃고있다.

# “사회적 약자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해요”

의료선교사 꿈꾸는 CMN 윤상엽 팀장

“우리 원장님, 매년 해외봉사 가지고 제안하면서 비용까지 내주세요”

여기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누가 성형외과 직원 아니랄까봐 예뻐장한 직원이 과짜원장을 소개했다.

오늘 만난 주인공은 CMN BEE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윤상엽(성형외과 전문의) 성도다.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의심할 것 같다. 윤상엽 팀장의 첫 인상은 수더분한 아저씨다. 그래도 직업은 숨길 수 없나보다. 오랜만에 만난 기자에게 살이 빠져 몸에 라인이 변했다고 인사한다. 속으로 패제를 부르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 간호사가 뽑은 최악의 의사가 변했다

윤상엽 팀장은 모태신앙이다. 대학에서부터 CMF(Christian Medical Fellowship)라는 동아리에서 의료봉사를 해왔다. 나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다. 그는 부산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상경해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 주일성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밤새는 날이 허다했고, 48시간 연달아 일한 적도 있다. 휴일도 없고, 고된 병원업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 은누리교회 수요일예배에 왔다. 사실 그날 들은 설교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다만 교회 문턱을 밟는 순간부터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사람이 단번에 바뀌지 않았다. 레지던트 1년차 시절 응급실 간호사들이 최악의 의사로 뽑을 정도였다. 레지던트 2년차 시절에는 성형외과 병동 모든 간호사들을 한 번씩은 울렸을 정도로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뻗속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변화된 시간이 있었다.

레지던트 3년차 시절, 지금 중학생이 된 큰 아이의 병(病) 때문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

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다. 심폐소생술을 세 번이나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의사조차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나빴다. 산소포화도가 너무 낮아,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간암히 기도했다.

“제가 평생 업어 키워도 좋으니,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윤 팀장 부부를 위로해달라는 기도를 신생아중환자실이 떠나가도록 했다. 그때, 한분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상황을 변화시킨다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안했다. 며칠 뒤,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건강도 온전히 회복했다. 그때 윤 팀장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더 이상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로 살 수 없다는 다짐도 했다.

## 하나님 나라 위해 존재하는 병원

윤 팀장은 은누리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에서 활발하게 봉사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수술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해외 어린이 후원, 목회자 및 선교사 수술지원, 기초생활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수술 지원 등이 그가 하고 있는 봉사들이다.

“아저께 개인병원이었어요. 내가 돈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CMN BEE팀은 CMN내 사역팀 가운데 인원이 가장 많다. 그만큼 다양하게 해외 의료선교를 하고 있고, 국내 미자립교회로 이웃리지도 많이 간다. 특히 미자립교회에 대한 마음이 애뜻하다.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 간단한 시술과 처치에도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

뀌는 것을 보고 사역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울면서 내년도도 꼭 와달라고 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직원들에게 해외의료선교를 제안하고 경비를 지원한 것은 예 일까.

“의료봉사하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병원 직원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직원들에게 의료봉사를 같이 가지고 하고 있지요. 반응이 좋아요”

윤 팀장은 2007년부터 직원들을 해외의료봉사에 데리고 가기 시작했다. 첫째는 3명이 따라갔는데 올해는 12명이 함께 갔다.

여름방학은 성형외과의 성수기다. 그런 시기에 영업도 안하고, 직원들 데리고 해외의료봉사가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거기에 경비지원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직만 병원이랍니다. 당연히 소득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는 것이 맞아요”

## 의료선교사의 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윤 팀장의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사회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의술이 쓰이기를 바라고 있다. 2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결심했던 그 바람대로, 의료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윤 팀장을 만나면서 의료선교를 꿈꾸는 크리스찬 의사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응원하게 되었다. 세계 어디든지 의사들을 대면영하기 때문이다.

봉사문의: 02-3215-378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원장님과 함께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 “다정다감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해외 봉사를 가고 싶어요. 마진 원장님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해보셨다고 권유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아니기에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좋아요. 마음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해외 의료봉사를 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

했지요. 의료봉사 현장에서 원장님이 다정다감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표정을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원장님, 교회에서 정말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직원들 해외 의료봉사 경비를 해마다 내주시면서 함께 봉사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지요.

/ 노지현(간호사)

### “또 가고 싶어요”



사랑 받았어요. 아이들의 머리기락을 잘다주고 같이 놀아주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더라고요. 봉사가 힘들긴 했지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원장님, 내년도도 봉사가고 싶어요. 비용 지원 해주실 거죠? 안 해주셔도 가고 싶어요~

/ 유수진(간호사)

\* 귀감이 되는 성도를 찾습니다.  
onnuriweekly@gmail.com





정기후원 행사를 앞두고

CGNTV가 있어 행복한 사람들

# “후원자들 통해 하나님 꿈 이뤄지고 있다”

CGNTV가 있어 행복한 땅 끝,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를 비롯해 선교지 현지 목회자, 외국인 선교사도 CGNTV로 사랑을 얻고 있다. 이들이 정기후원행사를 앞두고 CGNTV와 은누리교회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한결같이 “CGNTV 후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뤄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필리핀 김소영 선교사  
“CGNTV는 우울증을 없애주는 특효약”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중간에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2003년 다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2003년부터 바기오라는 지역에서 10년간 사역했는데요. 훗날 경과되자 몸 곳곳에 이상 징후들이 생겼어요.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으슬으슬 거리고 호흡 곤란도 오고 폭 죽을 것만 같았죠. 처음엔 제가 영력이 떨어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겉보기 전부터 여자의 몸에 변화가 있을 거란 걸 몰랐던 거죠. 특히 바기오는 우기가 긴 지역이라 늘 습하고 눅눅해요. 곰팡이가 색별로 열릴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인과 집안이 많이 생깁니다. 바기오에 있는 사모선교사대 부분이 자금수출을 한 정도입니다. 정경외곽적으로는 척추, 목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고요. 남편 선교사는 사역하러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비는 오고 물은 무겁고 아프고 밟힐 데도 갈 곳도 없고

그때보니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수병에 가족이 보고 싶고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선교사들은 속을 타놓고 얘기할 곳도 많지 않아요. 그때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 CGNTV 위성안테나를 달게 됐죠. 저는 파송 받은 2008년부터 “필름”이 끊겨있는 것 같은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뒤쳐져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GNTV를 통해 부분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한국 성도 모습만 봐도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 바기오에서도 높은 지대에 있어서요. 위성신호가 잘 안 잡혀서 커다란 돌을 마당가운데 세우고 드릴로 뿔이 안테나를 고정해버린 것도 위성신호가 잡혀 화면이 나오는 순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예배와 설교 위주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태풍이 심한 때를 제외하곤 계속 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저는 주말에도 이곳 시간 8시 반에 방송되는 은누리교회 예배를 먼저 드린 뒤 현지 교회나 한인 교회에 갑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교회에 가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다르게 되죠.

CGNTV는 정말 제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복회자로서 놓이기 쉬운 시대 흐름이나 인목을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어 좋습니다. 또 여기서 전망을 많이 접할 수 없는데 은누리교회 예배를 통해 전망을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CGNTV는 저의 진

실한 친구입니다.

한번은 서점에서 우연히 이재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방송에서 자주 뵈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교인인 줄 알고 인사하신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이고 CGNTV를 통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더니 정말 읽고 싶었던 책까지 선물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외롭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에게 CGNTV 위성안테나가 더 많이 설치돼 그분들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CGNTV는 항수병을 달라는 특효약입니다. CGNTV 후원자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국인 목회자 은량  
“CGNTV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

저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방송되는 CGNTV를 본 지 1년이 남았습니다. 시청하기 전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저절로 예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저희 가족의 하루는 CGNTV로 시작됩니다. OT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귀가 후엔 일상의 자전 마음을 CGNTV로 회복하죠. 자녀에 온 가족이 설교를 듣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저희 아이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음동을 배우고, 임신한 아내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CGNTV로 극복했습니다.

정저우시 주변 시골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복회자가 절대 부족한 상태예요. 현지의 필요 때문에 저는 CGNTV 안테나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CGNTV로 은혜 받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지도한 큰 감동을 받아요. CGNTV가 전화 용기,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안테나 설치를 1순위로 여깁니다. 요청하는 곳이 아무리 멀고 제가 바쁘더라도요.

CGNTV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정저우시를 비롯해 허난성 전 지역, 그리고 서북쪽 윈난성, 쿠이저우성에 이르기까지 CGNTV를 널리 보급하는 것입니다. 중국 소수 민족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봉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대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외진 산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누리교회와 CGNTV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인 그레고리 팀만 선교사  
“CGNTV는 외국인에게도 축복의 채널”



CGNTV는 한국인 선교사는 물론 전 세계 외국인 선교사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채널입니다. 저는 아포카 출신 미국인 선교사로 필리핀 아반셀 국제교회에서 목회하며 웨스트 국제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함께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CGNTV 안테나를 설치했어요. CGNTV로 설교를 듣고 찬양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영어 설교를 듣고 영적 충진을 받아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연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충전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 보면 큰 힘을 얻습니다. CGNTV는 저희 가정에게도 큰 축복을 선사해주었어요. 저희 가정이 곧 예배 장소가 됐기 때문이죠. CGNTV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 이 방송이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CGNTV에 바리암이 있다면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나는 것입니다.



01



오비히로 기·도·제·목

- 10월 6일(월) 현지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 10월 7일(화) 러브소나타를 위한 80개 협력교회가 모아지도록
- 10월 8일(수) 스태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 10월 9일(목) 280명의 한국인 참가자들이 순조롭게 모집되도록
- 10월 10일(금) 좋은 날씨 주셔서 화산과 지진의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 10월 11일(토) 모든 출연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 10월 12일(일) 초청장 발송이 은혜 속에 완수되도록

02

■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임병수 장로

나는 아내에게  
참 미안한 사람이다

어제는 이곳 달려오 새해 첫날 휴일이다. 9월 중순에 새해가 시작된다니 좀 어리둥절했지만 아무튼 휴일이라 좋았다. 대부분의 직장이 주말을 포함해 4일 동안 쉰다. 설날 전날 저녁, 많은 양들이 죽어야 했다. 이곳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 양고기나 닭고기를 먹기 때문이다. 동네 여기저기서 양들이 우는 소리가 늦은 밤까지 들렸다.

나는 아내와 교회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식당에서 의과대학 장로님을 만났다. 마침 새해맞이 전통행사가 있으니 구경하고 가라는 말씀을 듣고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새해맞이 행사는 전통 커피를 만드는 것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 아무 것도 없던 맨 땅에 의과대학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민속노래와 음식을 나누는 것 등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아내는 꽃을 좋아한다. 서울에 살 때도 아파트 베란다에 예쁜 꽃병을 놓아두곤 했다. 꽃이 빨리 시드는 게 아쉬웠는지 아내는 몇 달 동안 두고 볼 수 있는 호접란 종류의 꽃을 사오곤 했다. 여기는 정원이 있어서 아내가 꽃이 시들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한련화, 국화 등 여러 종류의 꽃들을 여기저기서 캐오거나 사다가 집 주변에 심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옮겨 심어 놓은 한련화가 건강한 잎사귀를 열 개 이상 뻗었다. 예쁜 주황색 꽃도 피었다. 아내는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여기 명성병원 컴파운드 내에 화단을 예쁘게 가꾸고 계신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4년 여 동안 이곳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셨는데 사모님

건강문제로 이 달 초 시카고로 돌아가셨다. 아내는 그 사모님이 가꾸신 정원을 정말 좋아했다. 아내는 그 정원에 있는 꽃들을 우리 정원에 옮겨심기를 원했다. 플라스틱 물병을 잘라 가지를 꺾어와 우리 정원에 심어두고 씨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다. 뿌리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동쪽 창가해 잘 드는 창틀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올려 둔 꽃병 여섯 개가 아직 가구가 없는 거실을 한결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인디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간다고 믿는다. 반짝이는 햇빛이 되기도 하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되기도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결코 죽은 자와 영원히 이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단 모퉁이에 작은 삼으로 땅을 파고 꽃가지들 심는 아내를 보면서 문득 마중기 시인의 '바람의 말'이 생각났다.

아내는 요즘 며칠 동안 숨이 가쁘다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다. 아직도 아침마다 허리가 아파서 잘 일어나지 못하지만 전보다 숨이 덜 차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참 다행이다.

나는 아내에게 참 미안한 사람이다. 멀리까지 아무 말 없이 동행해주고 남의 집 정원이지만 그 한 모서리를 빌려 매일 꽃나무를 심는 아내. 아직은 마음 둘 곳 없는 아프리카에서 꽃봉오리 맺히고 꽃이 필 때마다 위로를 얻는 아내. 편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먼 이국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움을 삭히고 있는 아내. 그렇지만 마음 속 멀리서 들려온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착한 아내. 그 착하고 미안한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아프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일이다.





드림온에어 | 오늘도 생방송되는 하나님의 꿈!



“꿈”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通” CGNTV로 “通” 한다



CGNTV의 종이저금통 “Dream 通”에 하나님의 꿈을 채워주세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동전을 같이 모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 \* 마음껏 가져가시고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 \* 1차 수거는 12월 28일 각 캠퍼스 로비에서 하게 됩니다.



### 오늘은 CGNTV 정기후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도 여러분의 손끝에서 땅끝으로 전해집니다.”

####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는 방법>

1. 예배 시 배포되는 CGNTV 후원약정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규 후원자의 경우, 신규 후원자 금액부분에 체크하고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 기존 후원자의 경우, 약정서에 증액할 금액을 표기하고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 모든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2.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후원 가능합니다.

- 인터넷, [give.cgntv.net](http://give.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모바일웹, [m.cgntv.net](http://m.cgntv.net) 후원배너 터치

3. 후원 관련 문의는 각 캠퍼스별 전화문의, 02-796-2243

CGNTV 안내데스크에 문의해주세요.

## “성도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땅 끝이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온누리교회의 창립 29주년 기념 주일이자 CGNTV 정기후원 약정의 날이다. 온누리교회와 CGNTV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선교 동역자라는 뜻이다. 배우 유희선씨가 CGNTV 대표이사인 유재건 장로를 만나 「오늘」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CGNTV만큼 일을 한다기보다 영적 양식을 먹는 것 같다”는 윤 씨.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CGNTV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유 장로. 두 사람이 《하늘빛함기》 녹화현장에서 만났다.

유유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유재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고 모든 직원이 밤낮없이 뛰고 있어요. 어느 때는 너무 안쓰럽기 까지 해요. 방송 콘텐츠 면에서는 타기독교방송을 압도하고 있는데, 제가 더 많은 도움이 돼야 하는데 라고 생각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좀 더 많이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 더 알려주시고 기도와 후원도 해주십시오.

하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송과는 달리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을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매년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위성비용, 제작비 상승, 방송장비 교체등으로 인해 지금의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이면 CGNTV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10월 5일을 기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CGNTV의 동역자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니다.



유유선 지난 9월 17-18일 인도네시아 CGNTV 지사 설립 기념행사 ‘러브 인도네시아’가 성대하게 끝났는데요. 유재건 CGNTV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행사가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는 처음 준비 단계에선 상상도 못했거든요. CGNTV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과 대상을 불문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유선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을텐데요. 유재건 하용조 목사님은 CGNTV 시작부터 상업광고와 설교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순수 후원만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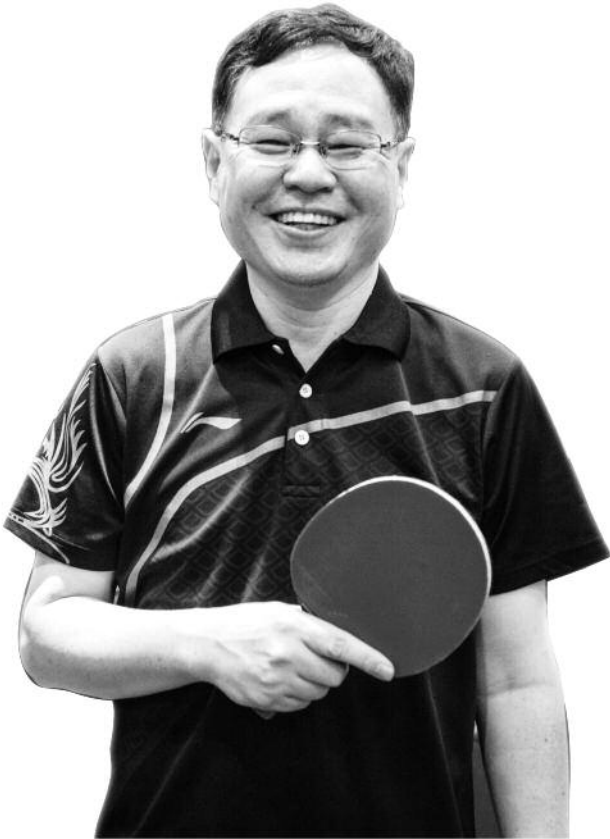
하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송과는 달리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을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매년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위성비용, 제작비 상승, 방송장비 교체등으로 인해 지금의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이면 CGNTV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10월 5일을 기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CGNTV의 동역자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니다.

유유선 후원자들이 피드백이 적지 않을텐데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유재건 추운 겨울 날 80대의 할아버님이 파주에서 직접 후원금을 갖고 오셨어요. 매일 아침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가기 어려운 주일이면 방송으로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뎠던 마음을 할 수도 있지만 땅 밟기를 하는 심정으로 CGNTV에 오셨다면서 7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건네주셨어요. 이밖에도 5000원, 1만원 등이 차곡차곡 모여 오늘의 CGNTV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요.



| 만나고 싶었습니다 |

# “같이 노는 것이 선교 아닐까요?”



고길범 집사가 탁구채를 들고 환하게 웃고있다.

지난 3월 여기는 양재 은누리교회의 하용조기님을,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진 ‘은누리선교탁구축제’가 한창이다. 5개 캠퍼스 20여개 공동체가 출전했다. 친선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진지하게 대회에 임하고 있다. 은누리선교탁구축제는 친교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탁구대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으로 탁구대와 탁구용품이 K국에 전해진다. 이날 시종일관 바빠 보이는 사람이 있다. 바

로 고길범 집사다. 그는 은누리탁구선교팀(OPM)팀장이다. 고 집사는 탁구선교팀을 은누리교회 정식 사역팀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장본인이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에게 탁구선교는 어떤 의미일까.

### 내 인생에 빠질 수 없는 ‘탁구’

고 집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탁구채를 잡았다. 학교에 공식탁구팀이 창단하면서부터

## 선교지에 탁구대 보내는 고길범 집사

였다. 선수 제안을 받을 정도로 탁구에 소질이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의 탁구실력을 알아봤다. 그의 인생에서 탁구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 탁구는 추억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탁구고 가장 좋아하는 것 또한 탁구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그에게 탁구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다. 바로 은누리교회와 선교다. 그는 은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카부사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사빙고 은누리교회를 알게 되었고 목요찬양모임을 다니다면서 신앙의 불씨를 키워 나갔다. 1988년부터는 사빙고 은누리교회 청년부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공동체 총무, 다락방 장으로도 섬겼다. 순장은 15차례 해오고 있다. 청년부 시절, 같이 신앙생활 하던 많은 친구들이 교역자와 선교사로 세워진 영향 때문인지 그에게도 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탁구를 활용해 선교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 내 꿈은 ‘리브핑퐁소녀타’ 여는 것

고 집사가 탁구를 활용해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어느 선교사를 만나면서부터다. 어느 날 고 집사가 소속된 강남B공동체에서 운영 중인 ‘탁사랑(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갔다가 박지현 선교사(현 국가대표 코치, 1990년 중국 북경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만났다. 그때 탁구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탁사랑 모임 중에 예쁜과 몸글에서 탁구로 선교하셨던 박지현 선교사를 만났게 되었어요. 그녀의 제안을 받고 은누리탁구선교팀(OPM)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분이 은누리탁구선교팀의 모델이에요.”

박 선교사의 제안과 고 집사의 헌신이 더해져 은누리탁구선교팀(OPM)이 탄생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마침내 양재 2000선교팀 소속 사역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은누리교회 정식사역팀이 되기까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처음 탁구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꺼냈을 때 반응이 냉담했다. 탁구는 노는 건데 그걸로 무슨 선교를 하느냐는 반응이었다.

“처음 탁구선교이야기를 꺼냈을 때 굉장히 창피했어. 탁구는 선교 도구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지요. 그런데 스포츠와 선교가 접목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전 탁구선수 양영자 선교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렇게 탁구선교의 영향력이 알려지니까 인정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은누리탁구선교팀의 활동이 왕성해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탁구선교에 비전이 있는 다른 교회들과 마음을 모아 ‘교회연합탁구선교팀(APM)’도 만들었다. 은누리탁구선교팀은 우리교회 결연선교사들에게 탁구대를 보내고, 교회연합탁구선교팀에서는 열방의 모든 선교사에게 탁구대와 탁구용품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탁구대 18대를 선교지에 보냈다.

올 초 양재 2000선교팀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갔는데 그곳에서 현지리더십에게 감명 깊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같이 놀아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이였다. 고 집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이 노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탁구선교에 대한 비전도 더 단단해졌다.

그는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바로 ‘리브핑퐁소녀타’를 여는 것이다.

“리브핑퐁소녀타는 탁구로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예요. 탁구를 활용하면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도 친교하고 예배 드리고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조은실 집사 ces@onnuri.org

## 기고 K국, 신바나바 선교사

지난 3월 열린 은누리선교탁구축제에서 마련된 기금이 탁구대와 탁구용품으로 K국에 전해진다. 이날 대회에 K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가 함께 자리했다. 그의 글을 통해 탁구선교가 선교지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었다.

### 여성들에게 좋은 활동이 될 것

선교지에 온 지 2년 됐다. 지난해까지 선인 선교사의 사역을 돕다가 올해 초부터 학교와 교회사역을 시작했다. 새롭게 사역

을 시작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어떻게 선교 접촉점을 찾아 할지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은누리탁구선교팀’에서 탁구대를 후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평균 온도가 45도다. 너무 더워서 내부에서는 탁구를 칠 수가 없다. 교회 앞에 공터가 있어서 그곳에 탁구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곳 사람들은 1960-1960년대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다. 여가 생활은 상상 할 수 없다. 미숙이나 음악, 체육 같은 예체능 과목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할 것 없이 집에만 있는 여성들과 젊은이

들이 많다. 그런 그들에게 탁구가 선교의 접촉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여성들은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교회에 잠깐 다녀오는 것 빼고는 거의 야외 활동이 없다. 교회 안에 탁구대가 설치된다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탁구를 활용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탁구대 후원에 앞장서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귀감이 되는 성도를 찾습니다. onnuriweekly@gmail.com

## 탁구는 선교의 접촉점



일본어예배 전도집회 현장을 가다

# “복음은 너를 위해 있다”

## 일본 최초 태권도 메달리스트 오카모토 선수 간증

지난 3일, 일본어예배부에서 특별한 전도집회를 열었다. 동부 이촌동에 사는 일본인들을 교회로 초청해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일본어예배부가 동부 이촌동에 사는 일본인들을 교회로 초청해 복음을 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에 처음 시작했으니 벌써 20년이 넘었다. 일본어예배부는 교회 인근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깊이 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도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014 Special Time For You’를 주제로 전도집회의 문이 열렸다. 김정희 성도의 한국무용, 송솔나무의 플룻 연주, 오카모토 선수(태권도)의 간증, 아미구치 목사 메시지 순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특히 일본 최초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 오카모토 선수가 들려준 간증은 참가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그 복음 저도 믿어도 되요?”**

오카모토 선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운명적으로 태권도를 만났다. 태권도에 매료된 그녀는 태권도 선수가 되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발군의 실력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일본인 최초 태권도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 슬럼프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2008년 크리스마스에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다. 당시 오카모토 선수의 코치였던 I사범(현 중동M국 선교사)이 그녀를 초청한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카모토 선수가 물었다.

“그 복음 저도 믿어도 되요?”

“복음은 너를 위해 있는 것이야!”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슬럼프를 극복했다.

슬럼프를 극복한 그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다. 예선 첫 경기 패하고 선수생활을 은퇴했지만 I사범은 당시 예선 첫 경기에서 오카모토 선수의 웃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코트에서 감사기도를 하고 승부에 관계없이 기뻐



오카모토 선수가 전도집회에 온 일본인 어린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사인해 주고있다.

하는 오카모토 선수의 모습은 경기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줬다고 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은 오카모토 선수라며 제자의 신앙정성을 크게 기뻐했다. 그녀 역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과거에는 경기 성적이나 성공을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긴다고 했다. 그녀가 올림픽 첫 경기에서 패하고 은퇴했지만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슬럼프를 극복하고 올림픽에 나간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다. 일본인들은 좀처럼 속내를 보이지 않는

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녀에게 일본인들을 전도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가 한국말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만큼 하나님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일본선교에 앞장 서고 있는 은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어예배 문의: 02-3215-370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CGNTV 정기후원자 2만3천명 돌파

## 2014 정기후원 행사 3,800여 명 약정서 제출

CGNTV 정기후원자가 2만3천명을 돌파했다.

지난주일(5일) 국내 10개 캠퍼스와 도곡교육관에서 일제히 진행된 '2014 CGNTV 정기 후원행사'에서 3,800여 명이 후원 약정서를 제출했다.

CGNTV 정기후원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일 년 만에 3,800여 명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은누리교회 성도들의 멈추지 않는 선교열정과 CGNTV 임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맺은 열매다. 특히 CGNTV 운영위원회의 공이 컸다.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CGNTV 배지를 달아주며 정기 후원행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고 운영위원들은 후원행사에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불편을 후원했다.

후원행사장에서 만난 권명순 성도는 "CGNTV를 후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선교사들도 받을 것 같아 후원하고 있다"고 했고, 윤종윤 성도는 "땅



CGNTV 후원행사에 참가한 어린이.

끝까지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인 CGNTV를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약정한 후원금은 CGNTV 방송국 운영, 연간 6천여 편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170여 개국 24시간 방송을 위한 위성 빔 사용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기후원 행사에 동참하지 못한 성

도들도 CGNTV 후원자가 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에 접속해 후원코너를 클릭하면 정기후원, 일시후원, 선교지 안테나 후원 등을 선택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후원문의: 02-796-2243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오비히로 기·도·제·목

- 10월 13일(월) 모든 협력교회들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도록
- 10월 14일(화) 초청장 2,500장이 보내져 일본인 참가자들이 차고 넘치도록
- 10월 15일(수)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가 잘 준비되도록
- 10월 16일(목) CGNTV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
- 10월 17일(금) 한국인 봉사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10월 18일(토) 도카치 지역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도록
- 10월 19일(일) 모든 출연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도록

2014년 10월 12일 1019호

- 01- CGNTV 정기후원자 현황 : 2만3천명 돌파(10면)
- 02-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0.13-19)(10면)



■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임병수 장로

## 보고 싶은 순 식구들께

늘 그림고 보고 싶은 식구들에게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 학교 일도 있고 집을 구하느라 바빴습니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며 정착할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예쁜 이층 집을 찾았습니다. 1층에 조그만 서재가 있고 2층에 방이 3개나 있어 어느 분이든 오신다면 환영입니다. 짙은 회색 페인트를 칠한 대문이 있고, 알맞은 크기의 정원에 여러 가지 나무와 예쁜 색깔의 꽃들이 가득합니다. 커피나무, 사과나무, 오렌지나무, 바나나나무, 야자수, 망고나무, 레몬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등 큰 나무들이 몇 개 있고, 다알리아, 선인장, 천사의 나팔과 들꽃 같은 작고 예쁜 꽃들이 정원에 가득합니다.

이곳에 와서 세계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집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집주인은 68살의 Tesh입니다. 30년 넘도록 토론토 대학 스카보로 캠퍼스에서 생물, 유전학 분야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이제는 반 은퇴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관대하고 유머가 많아 아내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희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 페인트도 칠해주고 전기, 보일러, 냉장고, 지붕, 잔디, 등을 꼼꼼히 손봐줬습니다. Tesh의 부인은 그간 토론토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며칠 전 이곳 시내에 국제규모 NGO 안과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경영책임을 맡았습니다. 백인 여자인데 국제 자선 사업에 매우 열심이고 성품이 상냥합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온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직 가구가 도착하지 않아 맨 바닥에 전기장판과 담요를 깔고 자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대가 워낙 높아서(평균 고도는 2340미터) 고산병의 징후 같아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니어서 몸이 적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학원 교육 과정을 만드는 일과 재료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 대학원 수업을 하는 것도

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맑은 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연구 장비를 확보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이 워낙 큰 재정을 요하는 것이어서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는 교민들과 명성교회에 모여 기념식을 하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KOICA, 명성병원, 그리고 우리나라 NGO단체들이 이곳에서 일 년 동안 한 일들을 영상으로 보고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곳 공과대학과 삼성이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협력이 이루어지면 이곳 교수님들의 연구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국 의사선생님들은 모두 훌륭하십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지만 모두 좋은 여건을 뒤로하고 자비량으로 봉사를 위해 오셨다는 점에서 고개 숙여줍니다. 우리교회 김석인 장로님 아드님이자 우리 공동체 김용표 집사님의 사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을 고사하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지요. 이곳에 오니 아내의 시간을 제가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다가보다 참미안합니다. 서울에서처럼 사람들을 사귀고 할 일을 찾게 되면 형편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외출도 못하고 제가 퇴근할 때만 기다립니다. 낯선 곳이어서 아내와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영화배우처럼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공기도 맑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정말 크고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순식구 여러분, 벌써 2학기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영육 간에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림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 하세요.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한 알의 밀알에게서, 한 장의 낙엽에게서 다시 선교적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어느덧 10월을 맞이하면서 마치 불 속처럼 너무나 뜨거워서 절대 가을이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이곳에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 한편과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한편의 시(詩)가 새삼스럽지만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제 마음 속에 살포시 내려앉은 낙엽이 되어 주었고 또 낙엽처럼 살라고 알려줍니다. 낮고 천한 곳,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주님이 계셨던 곳이고, 그분의 사랑이 계속 머물러야 할 곳이며,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고 있는 제가 나누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을 다시금 가르쳐주었습니다.

3년 전, 10월 6일은 제가 이 땅에 온 날입니다. 날마다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는 은혜로 살다보니 어느새 세 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 첫 걸음을 떼며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다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즐거운 헌신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셀 수 없는 감사로 채워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은 여전히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저에게는 날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한시도 있을 수 없도록 저를 깨어있게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세상은 점점 강박하고 흉흉해지고 있지만 끝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으를 수 없는 영적인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가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시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할 것입니다. 각 사람을 교회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가정교회 형식의 교회 개척과 양육을 위해 두 군데의 마을에서 CPM(교회 개척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시아 N국에서 김엘리사벳



01

## 순맛축전도 일본 진출

### 매뉴얼의 나라 일본에서 큰 성과 기대

순맛축전도가 국경을 넘어 일본으로 진출했다. 지난달 23일과 27일 동경 온누리교회와 오사카온누리교회에서 '일본 순맛축전도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맛축전도를 일본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일본의 상황에 맞게 전도하는 매뉴얼을 제공했다.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다. 순맛축전도의 과정과 순서, 프로그램 등이 세밀하게 담겨 있는 매뉴얼은 일본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러브소나타 같은 대형집회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고, 순맛축전도로 개개인에게 다가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순맛축전도 세미나를 인도한 여성민 목사는 "순맛축전도 매뉴얼대로 일본의 순 혹은 소그룹별로 전도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직업군별, 연령별, 상황별 맞춤축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국내 10개 캠퍼스 2천여 순에서 상황에 맞춰 순맛축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간증 순맛축전도는 일거양득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일본에는 신사와 절이 많다. 그래서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신사와 절을 찾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가는 것뿐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일본인들을 성급하게 교회로 인도하거나 부담스러운 만큼 친절하게 대하면 경계심을 갖는다. 그런 면에서 일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이번 순맛축전도 세미나는 획기적이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전도매뉴얼은 일본인 전도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사랑과 신뢰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좋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접촉점을 찾아 준비하면서, 순원들 또한 하나 뒀을 기대할 수도 있다. 순맛축전도,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 나카가와 아츠코(오사카온누리교회)

02

## 2014년 4차 선교사 파송

선교사 이름(파송국가)	기도제목
김마리아(동아시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강한/오조이(스리랑카)	ANIS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김폴린(남아시아)	하나님과 친밀한 삶과 사역이 되기를
김라함(중동)	지혜롭고, 기쁘고, 충성되게 생활하도록
파울리따(멕시코)	주 음성에 귀 기울이고,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이믿음/신연애(중앙아시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연약/최영원(남아시아)	2년 동안 언어를 정복하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도록

03



### 오비히로 기 · 도 · 제 · 목

- 10월 20일(월) 모든 협력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 10월 21일(화) 일본인 참가자들이 1,800명을 넘도록
- 10월 22일(수) 모든 출연자들이 잘 준비되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 10월 23일(목)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도록
- 10월 24일(금)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시행되도록
- 10월 25일(토) 오비히로 현지의 헌신적인 중보기도가 열매 맺도록
- 10월 26일(일)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되도록



장로순환칼럼 함선호 장로

## 가슴 벅차고, 힘이 솟고, 기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해 달라고 간구한다. 가정과 직장 등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손길을 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고 기도한다. 직장을 축복해 주시면 십일조를 많이 하고, 구제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봉사도 많이 하겠다고 한다.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다. 나를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축복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을,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봉사와 헌신을 먼저 하라고 가르쳐주셨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보신다. 대기없이 마음을 드리는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다음 순종하게 하셨다. 그 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순종하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주님의 제자라면 선교든 전도든 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대로 지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나는 환갑이 되던 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돌아켜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묵상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쓸쓸했다. 좌송스러웠다. 나는 나 자신과 가족에게 집착했고 애착을 버리지 못했다.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생의 후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각오를 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훈련을 마치고 현지로 파송 되었다. 현지에 와보니 특별한 은혜를 체험 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힘이 솟고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만 주신 은혜면 모든 것을 감수하기에 충분했다.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암 수술을 두 번하고, 정부로부터 불합리한 소송도 두 번 겪었다. 외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네가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실 때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 죽음인들 문제가 되겠는가? 수술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 할 때 보다 은혜가 넘쳤다.

안식할 즈음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역을 옮기라(추방)는 부탁을 받고 귀국하게 되었다. 이 또한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선교사로 파송 받고 나서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등 눈에 드러나는 사역을 하지 못해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그것 또한 감사했다.

은혜 받고 변화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때가 주님이 함께하시는 시간이다.

귀국 후 본국에서 사역하면서 하루하루가 기대된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출근하면서부터 감사를 누리고 있다. 매일 매일이 감사하고 기쁘고 설렌다. 나는 인생의 전반전과 비교되는 후반전을 살고 있다.



**청춘 선교단 은빛날개**

# 은빛날개

## "당신이 제2의 청춘선교사입니다"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가 지난 8개월간의 여정을 일대락 한다. 시니어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던 〈은빛날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제작진을 통해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어본다.


**출연진 평균나이 65세에 실제 교육 과정까지 담아야했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땠나요.**  
 저희들끼리는 '기독교계의 무한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출연자 분들도 처음 하는 도전이었고, 제작진들도 강의와 현장 다큐 형태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처음이었어요. 매 편 다른 기획도 필요했고, 일곱 분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훈련을 마친 청춘선교단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반응을 꼽는다면.**  
 이런 훈련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MK/MP(선교사 자녀/부모)선교, 다문화 선교, 농업 선교, 국내외 아웃리치 현장 등을 직접 보시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길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시니어 선교에 관한 별도의 문의가 왔을 때였습니다. 청춘선교단을 선발하면서 부득불 떨어지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시니어 선교 훈련 기관에서 이미 훈련 중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했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은빛날개〉는 막을 내리지만, 시니어선교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시니어 분들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시니어 자원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는 CGNTV홈페이지 ([www.cgntv.net](http://www.cgntv.net))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D-15



러브소나타 참가팀에게 씌어줄 화관을 만들고 있는 사툰데코팀.

## 10월 30일, 11월 6일 봉사자 교육 실시 일본 현지, 찬양집회 준비 및 기도회 한창

참석해야 한다. 오비히로 현지는 부흥예감에 젖어있다. 오비히로가 속한 도카치지역 교회들이 '도카치합동어린이가스펠' 과 '도카치합동찬양팀' 을 결성해 가스펠 나이트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문의: 02)749-1149

러브소나타 오비히로가 보름 남았다. 마지막 행사준비에 한일 양국 모두 바쁘다. 사툰데코팀은 참가자들에게 씌어줄 화관 1,700개를 제작하고 있고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육은 10월 30일 양재 화평홀, 2차 교육은 11월 6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실시된다. 시간은 오후 7시30분이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에 참가 신청한 성도는 두 차례 교육에 반드시



# 나그네를 섬기라

## 송파공동체 주최, 3개국이 하나된 가을 운동회



송파공동체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성도들이 가을운동회로 한자리에 모였다.

항수변과 외로움, 고단한 일상...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삶을 웅변하는 표현들이다. 타국에서 일하면서 받는 사려움과 외로움을 말로 다하지 어려울 것이다. 가슴조각림들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자기들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히 13:2).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출 22:21).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요삼 1:5).

성경은 나그네들을 섬기라고 강조한다. 이 말씀에 양재 온누리교회 송파공동체가 순종했다. 이주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송파공동체가 작정하고 섬기기로 결심한 이주민들은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온 나그네다. 지난 주일(09일) 양지 비전빌리지, 송파공동체가 주최한 가을 운동회가 한창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초청되었다. 모두 하나 되는 운동회였다.

송파공동체가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집중적으로 섬기기로 한 이유는 아웃리치를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송파공동체는 아웃리치 현장에서 한국에 이주민 근로자로 왔다 예수 믿고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 전파하고 있는 지체를 만났다.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주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다고 한다. 이주민 초청 운동회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현장에서 만난 공동체 지체들의 말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의 장이었다.

이번 운동회는 국제대회다. 3개국(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선수들이 출전했

기 때문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전국잔치였다.

### 현장에서 만난 타링가와 이완 형제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 사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스리랑카 타링가 형제는 2003년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소속 교회 청년부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6년 동안 일했다. 친구의 소개로 인신센터를 알게 되었고 찾아가게 되었다.

“술마시는 줄 알고 친구 따라 간 곳이 인신센터였어요. 그곳에서 난생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소망도 생겼다. 그는 전주비전대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과정도

들시에 밟았다. 지금은 명지대에 편입하여 공부하고 있다.

타링가는 송파공동체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다. 그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인 스리랑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같이 운동이나 하자면서 데리고 왔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에게 이런 행사가 얼마나 큰 위료가 되는지 몰라요.”

그의 이름 타링가는 파도를 뜻한다고 했다. 앞으로 이륙처럼 하나님 안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완 형제도 친구 여럿과 함께 이곳에 왔다. 이완 형제는 송파공동체가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많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가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고국에 돌아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 이주민노동자들을 영적 지도자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타링가 형제가 회심한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송파공동체 성도들은 아웃리치 현장에서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고 했다. 한국에 온 이주민 근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 고국이 복음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기에 충분했다.

송파공동체는 지난해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온누리 국제학교와 현지교회를 방문하면서 가미니 목사를 만났다. 가미니 목사는 한국에 노동자로 일하러 왔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회심했다. 그날 이후 스리랑카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갔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 대학부 때부터 아웃리치에 힘써 온 김성수 형제가 네 번째로 아웃리치를 간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얼굴에 행복이 쓰여 있었다. 그 곳에서 현지인들과 대화되어 산이 가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주민 노동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공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노동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이주민 사역이 중요합니다.”

### 이주민 선교, 또 하나의 사명

송파공동체가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를 섬긴 것은 2003년부터다. 다량방 책임선교사 제도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다. 공동체에서 동역했던 지체가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된 영향도 크다. 이래저래 인연이 깊다.

한국에 돌아와 있는 이주민 인구가 15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제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특수사역이 아니다. 크리스천들 모두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다.

송파공동체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이주민 근로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 역광송한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책임선교사들을 위한 후원에도 계속 힘을 예정이다. 송파공동체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주민근로자를 선교사로 역광송한다는 비전을 이뤄갈 모습을 기대한다.

/ 정지는 기자 jj@onnuri.org



01

## 일본 CGNTV 개국8주년 기념행사

###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이 땅 위에’

일본 CGNTV가 지난 16~17일 개국 8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 16~17일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CGNTV 개국 8주년 기념행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이 땅 위에’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일본 관서지역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다. 일본 CGNTV 개국행사와 2007년 오사카 러브소나타 이후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았던 지역에서 현지 목회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CGNTV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일 저녁에는 8주년 기념 감사회

가 열렸다. 관서지역 목회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감사회에서는 이번 행사 준비위원회 회장 시미즈 쇼조우 목사가 일본 CGNTV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일본선교 방향에 대해 나눴다. 17일에는 김하중 장로(전 주중대사, 전 통일부 장관)를 초청해 세미나와 저녁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하중 장로는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강조하면서 “복음전파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이 먼저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2



### 오비히로 기·도·제·목

- 10월 27일(월) 80개 일본 교회들이 협력교회로 세워지도록
- 10월 28일(화) 2,500장의 초청장을 발송해 1,500명이 참석하도록
- 10월 29일(수) 출연자들의 건강과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 10월 30일(목) 제1차 참가자 모임에 많은 봉사자들이 참가하도록
- 10월 31일(금) 사고와 건강이상으로 힘든 스태프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 11월 1일(토) 일본 현지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 11월 2일(일) 이번 러브소나타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 일본 순맞춤전도 세미나 후기



/ 카사하라 에미코(러브소나타 동경본부)

## 전도하는 용기를 주셨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나는 러브소나타 동경본부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러브소나타 준비를 위해 지방에 출장 갈 때가 많은데 주로 비행기를 이용한다. 나는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성경 혹은 <생명의 삶>을 펼쳐놓고 읽는 것이다. 특히 성경을 펼치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안 보는 척 하면서 결눈질로 성경을 보는 것이 느껴진다.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 성경에 관심을 보이면 말을 건다.

“꽤 두꺼운 책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게 성경책인가요?” 혹은 “그게 성경이군요?”라고 답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성경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지난달 서울 온누리교회 여성민 목사님이 동경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전도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순맞춤전도를 통한 전도방법을 일본 교회에 소개해주셨다. 순이 하나 되어 맞춤전도를 준비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또 의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전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맞춤전도 등 대상을 정해 그에 맞는 맞춤식 전도집회를 한다는 것이 탁월한 전

략이 아닐 수 없었다. 영혼구원을 위해 실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명인 전도를 위해 교회와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순맞춤전도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었다.

동경 온누리교회에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을 돕는 ‘새신자팀’이 있다. 아직은 새로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전도팀으로 성장하는 미션이 생길 것 같다.

일본인 중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부족할 뿐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 구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순맞춤전도 세미나는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와 방법을 만들어 준 훌륭한 세미나였다.

용기를 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어야겠다.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셨다.

#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 연령에 맞고, 가볍고, 깨지지 않고, 편지도 함께 보안지역 유의, 늦어도 11월 중에는 보내야

선교사들에게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은 큰 힘이  
다.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만큼 선교사들의 마  
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다.  
교회는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  
스에도 어김없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  
낸다.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자!

### 선물, 이렇게 보내면 된다

정성스런 선물에 선교사들이 울고 웃는다. 성도  
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보낸 선물은 국내 선교사  
부터 열방 선교사들에게까지 전해진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들이 주관해서 선물을 보  
내는 방식이 가장 좋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크리스  
마스 전에 선물을 도착하게 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때는 우편요금과 배송과정을 고려해 실용  
적인 것이 좋다. 무게가 가볍고 깨지지 않아야 한

다. 또한 선교지 기후를 고려하고, 선교사 자녀의  
연령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  
용품, 장난감, 옷, 장갑, 모자, 쿠키책, 게임 SW, 책  
등이 좋은 품목이다. 늦어도 이번달(11월) 중에는  
보내는 것이 좋다.

선물과 함께 편지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선교사  
와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 읽을 편지는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바다씩 적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편지에 선교지역 및 디렉팅지의 주소 전화, 이  
메일 주소 등을 적어 보내면 선교사와 지속적으  
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

### 보안지역, 이것은 지피제

해당 선교사가 보안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각별

히 주의해서 선물을 보내야 한다. 지치하면 선교  
사 신변에 위험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  
의할 것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련 선물(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  
리 등)과 편지는 삼간다.

둘째, 성도가 직접 보내지 말고 선교단체를 통  
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다. 선물과 보내는 비용  
을 동봉해서 선교단체에 보내면 된다.

셋째, 기록용 용어는 가급적 피한다.

넷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교단  
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보안지역은 공산권, 모슬렘, 그 나라 별로 선  
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유가 제한  
된 지역을 말한다. 문의: 02-3215-3208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예수님 사랑만큼 감격스럽습니다”

12월이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놀라운 선물이 또 있을까요? 저희들에게는 선  
교사 자녀들을 잊지 않고 매년 선물을 보내 주  
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 또한 예수님  
의 사랑만큼이나 감격스럽습니다. 큰 기쁨이  
요 격려입니다.

선물 하나하나에 참으로 많은 고민과 정성  
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물  
들을 보면서 울컥합니다. 그 진한 감동이 고스  
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이라는 의미가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실감합  
니다. 멀리 있지만 늘 함께 있는 그 사랑이 있  
는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이가 선물박스를 열

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자기의 마음  
을 그대로 읽고 선물을 보내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  
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희와 동역자가 되어 주신 온누리교  
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  
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그 큰 사랑을 선  
교사와 선교사의 자녀를 그리고 현지인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 남아시아IDK 비바비 선교사

### “벌써 기다려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희정입니다. 매  
년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선물 덕분에 선교지에  
살고 있지만 한국을 기억 할 수 있습니다. 선

물 받음 때마다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 비바비 선교사 자녀 이희정(11살)

###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부르심  
을 받았습니”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반면이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크고 놀랍  
기만 합니다.

그 사랑과 축복을 제 육체에 가두려는 지를  
발견하고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때다  
다 선물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근대시

절 위문품을 받아보고 풍성함을 느꼈습니  
다. 그 풍성함을 이제 혼자 아니라 아내와 세 아  
이들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과 애뜻함  
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10년 여 시간을 선교지  
에서 보내면서 다시 한번 고국에 계신 믿음의  
지체들의 사랑을 크게 느낍니다.

귀한 선물을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들  
과 함께 나눕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  
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일본 이도한 오온주 선교사

### “친구들도 선물을 받았을까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정  
말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선물이라서 참 좋았  
어요. 특히 핑퐁이 예뻐요! 아! 특별한 색인

필요요.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선물  
받았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 이도현, 오온주 선교사 자녀 불(9살)

## 선교단체 주소

### ■ 선교단체

### ■ 주소/홈페이지

21C GEM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1번지 개.본아파트 6차상가 218호
ANF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5 사범광 612호ANF
BEE KOREA	서울시 동작구 마포동 22길 18
CCC	서울 종로구 백석동 17길 2-8 한국대학생선교회
Come Mission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9-21 2층 한국침례선
FMnC	서울시 서초구 반배동 537번지 2층/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3(한배동) 2층
GBT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2길 38
GLF	서울시 양천구 목동 231-169
GMF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2길 46-25
GMP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길 25
GMTC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8길 78
GO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터로 500(금학동) 2층 지오
GP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77-3
HOPE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62호
IMAN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8-2 농곡종합프라자 6층
JOY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6
KDAB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5-1
KGLI	서울 양천구 목동 231-169
KIBI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4-108 대룡빌딩 1층
KPM	대전시 대덕구 흥도로 98번길 16
Krim	서울시 양천구 목동 231-188 4층 한국선교연구원
MIK NEST	서울시 양천구 목동 231-242
MVP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8-11 그늘빌딩 5층
OM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60 세전희관 3층
OMC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0-568호
OMF	서울시 서초구 반배중앙로 29길 21 효연빌딩 2층
Revive Israel	reviveisrael.org
SEED Korea	서울시 서초구 반배동 424-1번지 2층
SEED USA	10000 87th A. Mirca, CA 90374 45th Valley View Ave, Suite A, Santa Fe Springs, CA 91101
SMI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78, KWMA 1층
UPMA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6-132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WEC	서울시 서초구 인원1길 7-17 종전빌딩 4층
Wycliffe	www.wycliffe.org/www.wycliffe.org
YWAM-한국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7나길 14/서울시 관악구 대화동 241-346(층)
경배와 찬양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 경배와찬양
가이대책가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다길 109
더멋진세상	서울시 중구 충무로가 50-6 라이온스빌딩 708호
모퉁이들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1-6
비바비 선교회	www.vamab.org
비올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대로 61 2층
불어권선교회	서울시 송파구 오름로 33길 34
빌리온선교회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86-10 2층
싱가폴해방선교회	16 Barker Road Singapore 308891
인도 선교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8-1 예성아파트 1011호
일타이선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6-4번지 자이.빌딩 2층
예수제자선교회	인천시 연수구 송도 마래로 30 5동 707호
요한선교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28-24
인사이더스	서울시 중로구 해와동 5-56 혜성교회 내 인사이더스
인터서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0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인터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2호 인터림
중국복음선교회	서울시 중구 정동 25번지
중동선교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로 206 한일빌딩 4층
청초과학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88 강남빌딩 5층
총회세계선교부	서울시 종로구 연남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항에수교장로회 총회
터키어권선교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리저넌스센터 1308호
팀앤팀	서울시 서초구 풍광로 19길 19 그린드림빌딩 4층
필리핀선교회	URC Avenue, Salitan IV, 4114 Dasmarinas, Cavite, Philippines Mailing: PO Box 1, 4114 Dasmarinas, Cavite, Philippines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500호
부산의료선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고로 10MMF빌딩 2층



01



## 더멋진세상, 해외 여성 리더십 초청

### 새마을운동, 지역사회개발선교(CHE), 자연농법 등 전수

남아시아 K국 현지 여성 리더십 두 명이 NGO더멋진세상의 초청을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NGO더멋진세상이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남아시아 K국 여성 리더십 두 명을 해외리더십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한 것이다.

그녀들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마을교육과 지역사회개발선교(CHE)훈련을 받았다. 15일부터 24일까지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현장실습을, 27일부터 31일까지는 안성 온누리 농장에서 박대호 장로가 진행하는 지역사회개발선교

(CHE)훈련과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법을 전수받았다.

NGO더멋진세상은 남아시아 K국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수 및 식수개선을 위해 식수탱크를 건립하고, 식수파이프 배관 공사를 완공해 염분이 있는 농수와 식수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농업 소득증대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게 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하수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하수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02

## 교회개혁운동(CPM) 세미나 개최

### “연합해 교회개혁 운동에 헌신할 것”

지난달 20일(월)부터 일주일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교회개혁운동(CPM)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남침례교단 선교부(이하 IMB) 소속 동아시아 훈련전략가 김다니엘, 김영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재생산하는 선교적 교회개혁’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와 IMB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35명의 현장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지역과 교회개혁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했다.

IT전문 선교단체 FMnC선교회와 인터럽선교회(INTERCP) 소속 선교사 16명도 참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소속과 교단에 구애받지 않고 연합해 교회개혁운동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CPM세미나는 지난해 4월 MOU 협정을 맺은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03



### 오비히로 기·도·제·목

- 11월 3일(월) 일본협력교회들이 기도로 하나 되도록
- 11월 4일(화) 초청장이 2,500장 발송되고 1,500명이 집회에 참가하도록
- 11월 5일(수) 6일 서빙고에서 있을 봉사자 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 11월 6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강사들, 출연진들이 잘 준비되도록
- 11월 7일(금) 모든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잘 준비되고 실행되도록
- 11월 8일(토)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 11월 9일(일) 오비히로 지역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2014년 11월 2일 1022호

• 01- NGO더멋진세상 : 남아시아 K국 여성 리더십 초청 <지역사회개발선교훈련> 지원(4면), • 02- 교회개혁운동(CPM) 세미나 개최(4면)  
 • 03-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1.3-9)(4면)



# 선교사도 쉬이 필요하다

## 안식년, 고갈되고 아픈 선교사가 재충전하는 시간 숙소, 교육,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 대안 필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간다. 몸과 마음의 회복, 영적 재충전과 사역의 재정검, 차기 사역을 위해 안식이 필요하다.

“선교지에서 느낀 무기력감과 절망감, 답답함과 원망이 분노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꼭꼭 눌러 두었던 상처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진우, 해원 선교사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회복된 사연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고 선교사 가정은 2000년 동아시아 국가로 파송된 14년 차 중견 선교사다. 필박이 있는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살다보니, 아니 싸우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안식년의 기회가 찾아왔고, 사역현장을 떠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안식년을 갖기 위해 잠시 고국에 입국한 고 선교사 부부는 모든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통해 영육간의 이해된 부분을 재정비하고, 처음 파송될 때처럼 건강한 선교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교사 안식이 필요한 이유

선교사들에게 선교지는 삶의 현장이자 영적 전장터다. 한국과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간다. 그러는 사이 건강이 나빠지고 영적으로도 고갈된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곳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선교사들에게 안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안식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받은 상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 전투 현장에서 살다보니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류다윗, 송안나 선교사 부부는 건강하지 않은 선교사에게서 건강한 영향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 안식년은 꼭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고갈된 선교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현지인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안식년은 사역에 지친 선교사들이 휴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팀(Team)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이다. 대체로 선교사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만에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다.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건강 검진을 한다.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으면서 육체적·정신적 치유를 한다. 회복집회나 기도회, 수도원 영성훈련에도 참석해 영적인 회복도 경험한다.

부부들을 돌보고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성경공부, 큐티 세미나 등 제지양육과 사역을 배우는데도 열심이다. 차기 사역을 위한 자기계발도 한다. 미용기술, 태권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 등 선교 접착점을 찾기 위한 기술들도 배운다.

### 선교사 안식 가로막는 걸림돌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역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안식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사역의 연속성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도 안식을 가로막는 이유다.

최관봉, 윤예지 선교사 가정은 건강이 악화돼 갑자기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 선교지에 섬기는 교회가 있어 안식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을 계속 미뤘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졌고, 전임사역자들의 도움으로 안식년을 보낼 수 있었다.

최 선교사 부부는 지난번 안식년 선교사들 대상으로 열린 ‘힐링캠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최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

회와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혼자 아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동료 선교사들과 선교지 생활을 공유하면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유익했다고 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일부러라도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장기적 사역과 차기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열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자택 숙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누리교회는 TIM하우스, 은누리 하우스, 로댕빌, 응안동, 양재 은누리교회 숙소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파송 선교사 수(9월17일 기준, 70개국 888명 파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응안동 숙소는 1개, 로댕빌은 2개의 숙소 밖에 제공되지 않고 양재 숙소들은 최대 2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한국에 거주하는 안식년 선교사들에게는 적절치 않다. TIM하우스와 은누리하우스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그곳까지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자녀교육 문제도 걸림돌이다. 올해 6월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최관봉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서 홈스쿨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다행히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시간을 놓쳤던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류다윗 선교사도 자녀의 잦은 전학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숙소를 여러 번 옮기다보니 학기 동안 전학을 세 번이나 간격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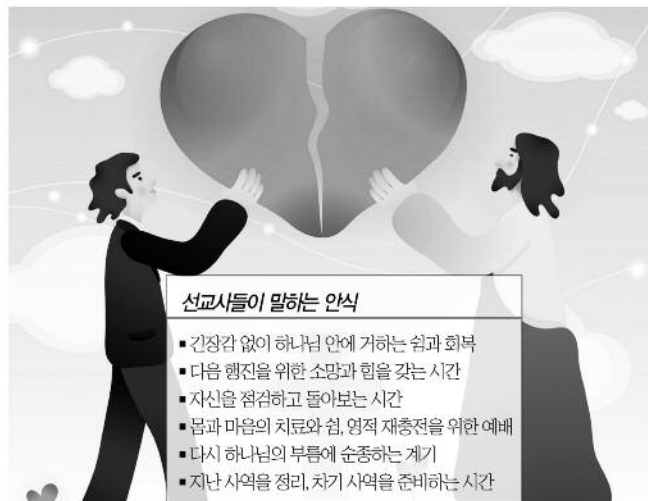
“1년 동안 숙소를 네 번 옮겼다. 아이가 그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했다”며 고진우 선교사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교회에서 지원해주지만 선교지에 비해 한국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내주는 재정후원이 끊기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다.

고진우 선교사는 공동주방이 있던 선교관에서 지내면서 자녀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삼겹살 800원 어치를 산입이 있다고 했다. 고기 굽는 냄비를 빌리는 다른 선교사들이 모여들어 그 고기를 한 접씩 집어 먹어 정작 자녀에게는 주지 못했다고 했다. 제이롬 선교사 가정은 방학 때 자녀들의 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룸에서 온 식구가 함께 자란다고 했다. 부부가 선교지로 옮겨오면 자녀는 마땅히 자랄 곳도 없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옷은 재털용품 가게에서 산다고 했다.

선교사들에게 인식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국내 여행권 지원, 차기 사역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선교사 자녀를 위한 숙소 지원 등의 답변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선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였다.

최근 교회 선교모임에 기본으로 보이는 민자리와 줄어든 선교사를 위한 기도시간 등을 선교사들은 무척 아쉬워하고 있었다. 교회와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선교사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편안하고 알차게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도 필요하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온누리교회 공동체 아웃리치는 1년 365일 휴일이 없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데 여념이 없다. 이번에는 한강공동체와 서대문 공동체가 주인공이다. 생생한 아웃리치 현장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공동체 및 사역팀 아웃리치 후기를 기다립니다.(onnuriweekly@gmail.com)

■ 한강공동체 - 일본 요코하마



/ 김해기 장로(한강공동체)

# “나서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와 한강공동체가 자매 결연하였다. 처음 자매결연 했을 때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김철희 목사님이 한강공동체 순장 모임에 참석하셨다. 그때 목사님은 일본 비전 교회에서 목양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항상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었다. 그 빛을 갖고 싶었다.

올 가을, 특히 10월은 정말 바빴다. 각종 공동체 행사, 순장영성수련회, 전교인 축구대회, 사역팀 수련회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 바쁜 와중에 18명의 공동체 리더님들은 매주 모여 아웃리치 일정과 사역을 논의하고, 중보기도로 무장했다. 특순 준비도 했다. 드디어 지난달 24일, 한강공동체 18명의 용사들이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이번 아웃리치는 무엇인가를 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러 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서 김철희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로할 수만 있어도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아웃리치 첫날에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금요심야예배 참석했고, 둘째 날에는

땅 밟기, 셋째 날에는 일본어예배와 큐티 나눔, 한국어예배에 참석했다.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이었다.

금요심야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다. 땅 밟기를 하면서는 아픈 다리보다 커다란 문화적 벽을 느꼈다.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나와 대부분의 팀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의사상과 미신, 물질주의에 물든 일본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아웃리치 마지막 날 주일, 일본어예배 이후 이어진 큐티 나눔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강공동체팀원 1-2명과 일본인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큐티 나눔을 했는데 눈물과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

“지역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이 떠났어요.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오게 되었어요.”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눈물의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높은 문화 벽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한 고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벽찬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실 그 벽찬 마음은 아웃리치 출발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아웃리치를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가진 일대일양육, OBC, 순장학교 같은 프로그램

만 나눠줘도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는 부흥할거야. 그 일을 위해 나서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일을 준비하고 풀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설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가 요코하마 비전교회에 도착하자 ‘한강 옆에 요코하마’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요코하마가 그렇게 가까운지 몰랐다. 가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전하면 되는데 그것을 몰랐다.

동행, 인사동을 가다

# 한글 배우고, 복음도 듣고

## 일본어예배부 한글강좌, 일본인들에게 인기

자녀들 말일 여기는 인사동 한식당 한두리 일본인들이 식당을 가득 메웠다. 일본어예배부에서 한글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과 자녀들이다.

한국음식을 주문하는 일본인들의 눈빛이 비장하다. 어떤 음식이 매운지 안 매운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음식 먹는 방법도 생소하다. 그들을 봉사자들이 돕고 있다. 한국음식에 대해 설명해주며 주문을 도왔다. 그들이 한국음식을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일본어예배부가 오랜만에 외출했다. 그 현장을 떠나 보았다.

### 한글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일본어예배부는 동부이촌동에 사는 주재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강좌를 열고 있다. 아국광에 와서 가장 먼저 느끼는 어려움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어린 자녀들 둔 엄마들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다. 그런 젊은 엄마들에게 베이비시터 봉사자들을 불러 준다. 의사소통도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외출도 돕는 일석산초(一石三鳥) 사역이 바로 한글강좌다.

이날은 한글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교차림의 날이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인사동을 택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도 모처럼 외출에 나선 일본인들의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맛있는 한국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인사동을 탐방했다. 반별로 썬지깁, 인사동홍보관 미술관 등을 누웠다. 이날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한 코스는 단연 썬지깁이었다. 값이 간 한국인 봉사자도 썬지깁이 처음이라고 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봉사자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다.

썬지깁을 둘러보던 일본인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초급반 요시다 카나씨가



일본어예배부 한글강좌 인사동 나들이 모습. 젊은 일본인 엄마들과 봉사자, 아이들이 인사동 썬지깁에서 활짝 웃고 있다.

조그만 수제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귀걸이 한 쌍을 골라 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녀는 한국에 온지 5개월 됐다. 당연히 인사동 방문도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녀에게 한글강좌에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었다.

“한국도, 한국말도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그런 저를 위해 지인이 온누리교회 한글강좌를 추천 해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온누리교회 한글강좌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봄 학기가 개강한 상태여서 가을학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만큼 일본 주재원들 사이에 일본어예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글강좌가 인기가 많다. 이미 입소문이 났다. 온누리교회는 일본어예배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강좌를 운영했으니 그

릴만도 하다.

### 일본어예배 전신, 한글강좌

한글강좌는 일본어예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 중 하나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어예배보다 먼저 생겼을 정도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900년대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 80%가 동부이촌동에 모여 있었다. 그때부터 온누리교회는 주재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주로 젊은 부인들이 대상이었는데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어예배부는 베이비시터 봉사자까지 불러주면서 열심히 섬겼다. 한글강좌를 통해 한국어도 배

우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대부분 일본어예배 성도들이지만,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의부사람도 있다. 한글강좌를 수강한 일본인이 베이비시터 봉사자로 섬기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글강좌는 교회와 복음을 함께 접할 수 없는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맞춤 사역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본어예배부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한글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있다.

문의: 일본어예배 02-3215-370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하카마타 미키 목사(일본어예배)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가 내내 이민 출신 50주년을 맞이한다. 하나님은 일본어예배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재한일본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허락하셨다. 그 최초의 활동이 바로 동부이촌동에서는 일본인 주재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강좌였다.

온누리교회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남편 따라 한국에 온 부인들을 위해 베이비시터 봉사자까지 불러주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가르쳤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글강좌는 인기만점이다.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 행차도 행차도 정원이 넘는다. 현재 한글강좌에는 성인 30명 이상, 아이들 20명이 참석해 한글을 배우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재출발 시간을 가진다. 성장만능을 전하는 시간이 다. 한글강좌 수강생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예배나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

어다행이다.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머무는 기간은 짧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구원에 이르지 못 할 수도 있지만 교회나 크리스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더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20년 이상 한글강좌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수확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한글강좌에서 시작한 일본인 대상 사역이 어린이사역, 유학생 전도 국제커피 가족모임, 성경공부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또 매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50년 이상의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천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 수도 적어 교회를 접하고 찾을 기회도 많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 번도 교회에 기본적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된다.

타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본인의 비율이 일본에서 구원받은 비율보다 30배나 높다. 이것은 파부로 신감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유학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본어예배부에 소속된 일본인 청년 대다수가 한국에서 구원받은 지체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른다. 그들도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일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일본을 변화시킬 것이다.

일본어예배부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하나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힘을 합쳐 일본선교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본어예배부는 오늘도 일본의 부흥을 꿈꾸며 주어진 사명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오늘도 일본의 부흥을 꿈꾸며



#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이번 주 막 오른다

13~14일 ... 이제 중보기도로 힘 보탬 때

오는 13일~14일 드디어 21번째 러브소나타 오비히로가 막 오른다.

광활하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오비히로에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진다. 현지 실행위원회와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부흥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한껏 부풀어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협력 교회수가 무려 85개나 된다. 오비히로시 지역에 교회가 14개가 밖

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기도하는 일만 남았다. 온 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 뜻으로 중보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로 힘을 보태야 한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통해 오비히로 지역은 물론 홋카이도, 일본 전역에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자.

/ 정현주 기자



## 오비히로 기 · 도 · 제 · 목

- 11월 10일(월) 오비히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도록
- 11월 11일(화) 이곳 교회들이 러브소나타 이후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 11월 12일(수) 강사, 출연진, 봉사자, 스태프들이 건강과 성령 충만하도록
- 11월 13일(목) 모든 프로그램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 11월 14일(금) 1,500석 행사장이 가득 차고,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도록
- 11월 15일(토) 일본 현지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장로순환칼럼 정대서 장로(선교분과위원장)

## 융합선교의 의미와 가치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만 해도 부족함이 없으실텐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했다. 그런데 선교효과는 역설적이었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선교에 헌신했을 때 선교효과는 미미했다가 핍박이나 전쟁 등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선교효과가 커졌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말씀의 뿌리에서 싱싱한 싹이 나와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로 성장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아라한 사실을 두고 사람의 노력은 쓸데없다거나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없었다면 애초에 마른 뿌리도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말부터 나타난 교회의 대형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교회의 대형화도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대형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10개 캠퍼스와 30개 비전교회에 7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사역에 힘쓰고 있는 은누리교회에는 더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대형화를 허락하신 목적의 중심이 선교 아닐까? 대형교회는 중소형교회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 성도들이 많은 만큼 가진 경험과 달란트가 다

양하고 많다.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룹화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융합선교의 개념이다. 그동안 은누리교회의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양적인 확대에 치중했다. 둘째, 선교사들의 개별역량에 의존했다. 셋째, 선교본부나 선교기관, 공동체와 사역단 위에서 열심히 선교한 결과 각각은 상당한 열매가 있었지만 선교를 총체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필요에 맞추어 지원하는 부분은 소홀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열정(열)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마음) 사역하라는 의미이다. 은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선교방향은 분명하다. 개인에 의한 선교보다 팀을 구성해서 선교해야 한다. 선교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다.

융합선교 방법론만으로 선교가 완성될 수는 없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일단 선교지의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쟁과리일 뿐이다.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형제지매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융합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풍성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선교스토리

# CGN과 함께 쓰는 선교 스토리

김남섭 선교사

김남섭 선교사는 CGNTV 전도사다.  
 2008년 필리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직접 CGNTV를 설치해 시청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 됐다.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사역에 큰 힘을 얻으면서, 그 감동을 주변에 소개하고  
 나누기 시작했다. 기꺼이 자비량으로 설치해 주기도 했다. 그에게 CGNTV를 설치 받은 이들은  
 그와 같이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주변에 전했다. 방송을 본 현지인들은 들은 말씀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며 성장하고 변화돼 갔다. 그가 선교지에 설치한 CGNTV는 현지인들에게  
 생각 이상으로 힘을 주는 반가운 친구였고 연약한 영혼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었다.

"사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CGNTV를 권했지만  
 필요 없다며 안 본다고 했죠. 그래도 달아주었는데, 이후 다시 열정을 회복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 격려가 필요한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는 자신이 그랬듯 가장 먼저  
 CGNTV를 소개했다. 그에게 CGNTV는 나약한 영혼을 위한 특효약이자 비장의  
 카드였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했던 주변 사모들, 친구가 없어 외로워했던 이들이  
 회복됐고, 새 동력을 얻었다. "이곳에서 CGNTV의 역할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며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CGNTV는 그 순간 우리를 본질로 돌려줍니다."



#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는 기적이다



## 85개 교회 협력, 러브소나타 집회 1,841명 운집

스물한 번째 러브소나타 오비히로가 성황리에 막 내렸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는 역대 가장 작은 도시에서 펼쳐졌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집회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부흥을 소망하는 이들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열매도 풍성했다. 무려 85개 교회가 협력했다. 연합지역이 전무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결과다. 13일 열린 교회부흥세미나에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 142명이, 같은 날 저녁 열린 가스펠나이트에는 612명이 참석했다. 14일 오후에 열린 CEO포럼에는 196명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에는 1,841명이 운집했다. 54명의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비히로 교회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훈 목사는 '행복으로의 여정'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영원한 행복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다.(관련기사 6-7면)

스물한 번째 러브소나타 오비히로가 성황리에 막 내렸다.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는 역대 가장 작은 도시에서 펼쳐졌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집회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부흥을 소망하는 이들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열매도 풍성했다. 무려 85개 교회가 협력했다. 연합지역이 전무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결과다. 13일 열린 교회부흥세미나에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 142명이, 같은 날 저녁 열린 가스펠나이트에는 612명이 참석했다. 14일 오후에 열린 CEO포럼에는 196명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에는 1,841명이 운집했다. 54명의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비히로 교회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현장르포\_ 오비히로를 걷다



일본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높은 오비히로는 광활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 그들의 부흥을 노래해야 한다

## 러브소나타, 기독교 마을로 불리던 옛 명성 되찾는 기회

지난 12일 삿포로 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홋카이도의 칼바람이 일행을 반겼다. 여기에서 집회가 열리는 오비히로까지는 버스로 2시간 30분 남짓 가야 한다. 삿포로시를 벗어나자 동화 ‘빨강머리 앤’에 나올 것 같은 그림 같은 풍경들이 펼쳐졌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침엽수, 드넓게 펼쳐진 대지, 깨끗하고 맑은 공기... 여기가 바로 홋카이도 중심에 위치한 도카치(十勝)평야다.

스물한 번 째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울려 퍼진 이곳은 홋카이도 오비히로다.

오비히로는 도카치지방 소재지다. 드넓은 평야로 유명하다. 예부터 낙농과 목축업이 발달했다. 사람보다 소가 많은 전원도시다. 역대 러브소나타가 열린 곳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다. 그러나 영적 공격은 어느 대회보다 심했다. 현지 실행위원회는 이번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었다.

지난 9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집회를 홍보하는 프레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첫날, 한 성도가 실종됐다. 안타깝게 며칠 후 익사한 채 발견됐다. 대회 둘째 날, 이번에는 성도 한 명이 갑자기 소천했다. 앞선 데 맞춘 격으로 실행위원장 무라타 목사가 음독(毒殺)사고를 당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무라타 목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잔에 약을 타고 도망간 사건이었다. 다행히 무라타 목사는 다음날 정신을 차렸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여러 사건사고도 현지 실행위원회의 행보를 막을 수 없었다. 오비히로 지역의 부흥을 바라는 그들의 소원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 오비히로 지역 태동과 복음 전파

홋카이도 지역에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 온 것은 1883년이다. 그 전까지는 ‘아이누족’이

살고 있었다. 아이누족은 사냥민, 홋카이도 알데에 두루 걸쳐 살던 원주민들이었다. 목축업이나 사냥으로 삶을 영위했다. 이 지역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민간개척단체 ‘만청사’ 일원 29명이었다. 요다 벤조, 와타나베 마사무와 그의 부인 카네스즈키 류타로가 주축이었다. 그들이 오비히로 및 도카치 지역을 개척했고 복음의 씨앗도 뿌렸다.

1883년에 세워진 ‘오비히로 배후농기념관’에 갔다. 당시 착박한 생활상을 볼 수 있었다. 개척당 시역사가 생생하게 전연되 있었다.

“홋카이도 지역을 개척한 사람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지식인이었고 부처도 있었습니다!”

한지인이 개척 당시 상황을 들려 줬다. 이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와타나베 부부와 스즈키였다. 그들은 어린이들부터 전도했다. 집에 어린이들을 초청해 성경을 가르쳤다. 선주민 아이누족과의 교제도 활발히 했다. 아이누족 전도에 힘썼다. 그들로 인해 성공회 선교사들이 홋카이도 지역에 들어와 학교를 세웠다. 그렇게 오비히로 지역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다. 1881년 열린 전도집회에 1,100명이 참석해 1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도 있었다. 부흥의 바람은 이 지역 각속에도 불었다. 도카치 각속에는 교회목사가 있었다. 많은 수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가를 따라 불렀다. 형기를 마친 사람들 중에 복사가 된 사람도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도카치 지역을 ‘기독교인 마을’이라고 불렀다. 그만

큼 부흥했다. 지금은 영적으로 폐쇄한 지역으로 전락했지만... 그래서 이번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는 기회다. 다시 부흥하는 ‘기독교 마을’이라고 불리던 명성을 되찾는 기회다. 이번 러브소나타가 특별한 이유다.

### 영적 회복이 필요한 이유

지난 13일 아침, 안개가 짙다. 간간히 비도 내렸다. 애꿎은 날씨다.

도시구경을 나섰다. 오비히로 시가지에서 차를 타고 10여 분 정도 이동했다. 시에서 건물들이 사라지고 녹지가 늘어왔다. 변화가에서 불과 10km정도 떨어진 편인데 광활한 평야가 끝없이 이어졌다. 드넓은 농장과 수많은 소,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일본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실감난다. 이곳에서는 ‘아재와 식재료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아직 해가 지려면 한참인데 어둡다. 우와, 찾는다. 울레 첫눈을 오비히로에서 맞는다...

여기는 동절기에 오후 네 시만 되면 해가 진다. 5개월 이상 지그시거할 정도로 눈도 많이 온다. 환경이 이렇다보니 이곳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남는다. 눈 속에 파묻혀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난파도는 시간을 주체할 줄 모른다보니 ‘파친코’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곳에서는 도박

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부모가 도박에 빠져 집을 비우다 보니 아이들이 방치됐다. 아이들도 외로움에 집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오비히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혼율과 소년범죄율이 높다. 아쿠자도 많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마밭과 공장이 있었던 탓이다. 이곳에 영적 회복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14일, 안개 그렸는 듯 맑게 갠다. 집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초대장을 손에 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일본인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다. 프로그램 순서마다 참가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131년 전 오비히로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는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천혜의 자연과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독이 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오비히로 지역의 부흥을 노래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복음이 때마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계속 돌보셨다. 131년 전 뿌려진 그 씨앗이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통해 다시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셨다. 이제 그 첫걸음을 뒀다. 오비히로가 기독교 마을의 명성을 되찾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들의 부흥을 노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러브소나타다.

/ 정현우 기자 joo@onnuri.org



# 숨은 보석들을 만나다

오비히로 교회는 척박하다. 저변이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현지 성도들의 전도 열정 만큼은 전 세계 어느 교회와 견주어도 주눅 들지 않는다. 이곳 성도들은 전도하다 문전박대 당하는 일을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들었다. 숨은 보석들을 만났다.

한국인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시게노 도쿠코 성도

시게노 도쿠코 성도(매우로 그리스도교회는 오비히로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심드렁했다.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지난 9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프레대회를 다녀와서 생각이 달라졌다. 플루트연주자 송훈나무의 간증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녀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설주먹을 돌려 위로연주회를 했다는 송훈나무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국인도 일본인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데..."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기뻐할 수 없었다. 일본인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했다. 그때부터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홍보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다.

포스터를 붙이는 일은 수월하지 않았다.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고전 9:16).

이 말씀이 그녀의 무릎을 쳤다. 삼가일전했다. 다시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다. 혼자 6장 이상을 붙였다. 러브소나타를 홍보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잦았는데 딸이 식사와 청소, 빨래 등 집안 일을 도왔다.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러브소나타 홍보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딸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 하나님의 사람 재배(인도)하는 농부



닛타 요사카즈 목사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분명 바꾸실 것입니다."

닛타 요사카즈 목사(도카이 그리스도 리버비벌교회는 한쪽 팔이 없다. 하지만 이번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인했다. 닷타 목사는 28살 때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병상에서 쇠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병영 근처 교회를 배회하던 중 "그냥 가버리나"는 음성을 듣고

교회에 찾발을 내딛었다. 이후 삶이 달라졌다.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주일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가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재배(인도)하는 농부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2000년에 목회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러브소나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았어요. 하나도 힘든 줄 모르겠다고요."

닛타 목사는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지역교회가 연합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오비히로 지역교회들이 연합한 적이 없었어요.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처음 연합했어요. 이제는 '가득고 마을'로 불리던 명성을 되찾는 일만 남았어요."

## '러브소나타 투어팀'의 주역



가고시마 치즈코 전도사(가미영광교회)

이번 집회를 위해 '러브소나타 투어팀'을 꾸린 사람도 있다. 가고시마 치즈코 전도사(가미영광교회)가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9월에 시미즈 지역에 위치한 감리회 선교사의 교회에서 3일 동안 전도 콘서트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김 선교사의 제안을 받고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위해 기도했다. 그때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김 선교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일본에서 알리는 러브소나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자신도 러브소나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홋카이도 전역에 살고 있는 지인들과 믿지 않는 친척들을 초대했다. 모두들 흔쾌히 초대에 응해왔다. 그 인원이 모두 13명이다. 팀 이름을 '러브소나타 투어팀'이라고 짓고 집회에 함께 참석했다.

"러브소나타 투어팀은 집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 교류 할 거예요. 일본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동역자가 될 거거든요"

## 장모와 사위가 함께



장모 최순자 권사와 사위 홍해남 장로

봉사자로 참가한 은누리교회 성도들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다.

봉사자들 모두가 하나되어 두 팔 걷어붙였다.

최순자 권사(86세)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최고령 참가자다. 최 권사가 여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광복을 맞았다. 최 권사는 신사참배와 우상숭배를 하는 일본인들이 안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천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러브소나타에 참가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최 권사는 이번 러브소나타에 사위 홍해남 장모와 함께 참가했다. 홍 장모가 연로한 장모님 혼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홍 장모도 러브소나타에 두 번 참가해봤지만 장모와 함께 봉사하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선구자들이 일본 땅에서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 팔찌 열 여섯 개



강성희 성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도 있다. 강성희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근무한 웬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초 자신만의 액세서리 브랜드를 만들었다.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기반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10월 부흥축제에서 그녀가 만든 팔찌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축제 첫날, 팔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둘째 날,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를 갈 수 있도록 매출을 올려주세요"

대박이 났다. 하나도 팔리지 않던 팔찌가 불다치게 팔렸다. 이 일을 통해 그녀는 순종을 배웠다. 감사한 마음으로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에 참가했다. 실행위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액세서리를 만들어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팔찌 열 여섯 개를 만들어 왔는데 놀랍게도 실행위원회 인원이 정확히 열여섯 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한 열매가 바로 러브소나타 오비히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종이비행기에 적은 소원

- 초대된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 세계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 언제까지나 사이좋은 부부가 되기를
- 일본에 부흥이, 홋카이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요



01

## NGO 더멋진세상 해외봉사단 모집

###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이행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봉사단 원을 모집한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공공행정, 농업수산, 보건 분야 현장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해외봉사단원으로 선발되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기획, 이행, 모니터링 하게 된다.

항공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해외 봉사 활동이 가능하고,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전공한 성인이다.

현지파견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관련분야 봉사 활동 경험자를 우대한다.

지원방법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jclee153@naver.com)로 26일 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6

/ 조은실 기자

02

#### ■ 일본어예배, 나가노 일대일 제자양육 아웃리치



## 하루 빨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 황기영 목사(마쓰모토 복음촌 바티스마교회)

나는 '제자양육'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 예수님은 열 두명의 제자로 세계를 뒤희셨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일대일 양육팀에서 나가노로 일대일 제자양육 아웃리치를 오셨다. 온누리교회 대표 양육 프로그램인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웃리치 첫날,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숙제도 많고, 암송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제대로 못해가던 기억이 났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칠 자신은 없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려고 과연 16주 동안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숙제와 암송, 큐티, 설교말씀 요약까지... 매일 숙제해야 하는 부담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양육 받는 내내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대일 제자양육 교제가 매우 좋다는 것이다. 이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제자양육만 이루어진다면 신앙의 틀을 잡고 자라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야"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할 사람도 붙여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 신앙이 성숙해지는 좋은 방법이다. 힘들긴 하겠지만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땅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우상숭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일본 땅이 십자가로 가득 메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 부흥을 위한 첫걸음을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내딛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양육해야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선교현장을 가다 1\_ 온누리M센터

# “섬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 이주민들의 아픈 마음 어루만지는 박경락 집사

이주민사역을 담당하는 온누리M센터에는 숨은 주역들이 많다. 소리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 모두가 그 주인공이다. 박경락 집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알거나 신실하게 섬기지는 온누리미션에 없어서는 안 될 주의 일꾼이다. 지난 주일(18일) 그를 만나기 위해 온누리M센터를 찾았다.

동그란 안경 낫지게 뒤로 남긴 허긋한 앞머리,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온누리M센터 사무실로 들어왔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낯익다. 그 순간 온누리미션 홍보책자가 눈에 들어왔다. 온누리미션 홍보책자 표지에 어찌론 목사 앞에서 통역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경락 집사다.

###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다

온누리미션 행사에 참여해본 심도면 박 집사를 한번쯤 봤을 것이다. 그는 연중행사로 열리는 온누리미션 집회 통역을 맡고 있다.

“통역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면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원고를 달달 외우고 강단에 오른다. 말씀을 더 깊이 세기 위해서다. 귀한 설교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 집사는 2009년 6월 즈음 온누리M센터에 처음 왔다. 딸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려고 왔다. 그로부터 2달 뒤, 온누리미션이 대부도에서 세례식을 가결하면서 박 집사를 초청했다.

세례식 당일, 세례식을 마치고 바닷가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주민들이 박 집사를 반역 붙여 바닷물에 빠뜨렸다. 세례 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세리머니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집사는 이주민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날 이주민들과 함께 바닷물에 빠진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례 받고 기뻐하는 이주민들과 스테프들을 보면서 온누리미션 사역에 매료 되었어요”

그날 사건 이후 박 집사의 온누리미션 사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다문화예배인 'ANEWS'에 배 통역과 동티모르와 미얀마에서 온 자제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또 부탄에서 온 이주민들도 섬겼다. 당시 한국에 와 있는 부탄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 당시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부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볼 작이었는데 겨우 열일곱명이었다. 부탄에서 온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공장 연타이 되는 세 명의 부탄 학생들을 만나야 했다.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타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위로했다. 그때 만났던 자제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박 집사의 인연은 SNS를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미얀마 자제들을 위해서라면



미얀마 예배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박경락 집사(왼쪽두번째)가 미얀마예배 리더심들과 함께 활짝웃고있다.

요즘 박 집사는 미얀마 예배공동체를 섬기는데 열심이다. 미얀마 예배공동체는 온누리미션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자제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없어졌다가 지난해 추석연합집회에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현재는 20명여 넘는 자제들이 출석하고 있다.

“안산에 살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20명 정도예요. 그들 중에 10분의 1이 온누리M센터에 나오고 있어요”

미얀마는 국민의 80% 이상이 불교신자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면 하층민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다른 종교를 가지면 가족 모두가 편박을 받는다. 사장이 이렇다보니 미얀마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미얀마인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굉장한 희소사건이다.

박 집사는 매년 미얀마로 아웃리치를 간다. 현지에서 가서 실상을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얀마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테 말이

지요” 그는 매주 미얀마어 예배를 섬기고 있다. 현지인 글자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의 차례가 돌아온다. 그는 이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재 'ABC'로 성경말씀을 나누고 있다. 매주 두 구절을 나눈다. 나눈 말씀을 집에서 적어오도록 과제도 내준다. 또 매일 암송한 성경구절로 퀴즈대회도 한다. 이번 달 성경퀴즈 상품은 아이패드다. 자제들이 가장 원하는 상품이기애 사비들 털어 준비했다.

### 집사와 은혜가 가득

온누리M센터에 오는 이주민들 중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만큼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주민들이 한국말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문제를 비롯해 비자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은 현지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예배가 끝나면 M센터 근처 쉼터에서 이주민들과 점심을 함께 먹는다. 지난 주말에는 미얀마 음식을 내었다. 식사를 하면서 미얀마인 형제에 대

한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손가락 끝마다 뼈만 남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 그런데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채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온누리미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준 자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주민 노동자들을 함께 해 주는 한국인 사장들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보였다.

박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상처받은 이주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달래 주는 것이 먼저지요. 성경적으로 '용서'에 대해서도 말해주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해요”

박 집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홍콩 등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썼다. 사역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서인지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다.

박 집사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좋아한다. 착한 일을 한 지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 집사에게 섬김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섬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받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

캠퍼스	국가	문의
서빙고	네팔, 러시아, 몽골, 아랍	02-3215-3514
M센터	ANEWS(다문화예배),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케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다문화 공동	031-491-9650
인천	몽골	032-437-9686
평택	몽골	031-651-9680



01

## 오늘 NGO 더멋진세상 ‘기증품 바자회’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산복 900점 기증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살리기 사업에 써달라며 등산복 900여 점을 기증했다.

900여 점 등산복 중 200여 점은 쪽방촌에 전달했고, 나머지 700여 점을 오늘(23일) 신동아쇼핑상가 1층 ‘사랑의 줄 잇기’ 매장에서 오전 10시부터 판매

할 예정이다.

오늘 판매하는 의류는 바지, 패딩, 바 랍막이, 조끼, 여름 티셔츠 등이다. 원래 가격의 80~90%를 할인해서 판매한다. 수익금은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생명살리기’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 김현준 기자

02

### ■바로잡습니다

지난 1024호(11월16일자) 7면에 실린 김성희 성도의 이름이 김수정 성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03

#### ■은누리전문인 선교학교(OPMS) 수료간증



/ 윤진혁 집사

## 자립선교는 나의 새로운 꿈과 비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은누리전문인선교학교(이하 OPMS)를 찾았다. 주변사람들은 골프치고, 여행가고, 취미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즐거운 생을 영위하는가에 골몰하고 있었지만 나는 다르다고 자위하면서 말이다.

나는 주로 일본과 사업을 해왔기에 일본인들의 영혼 구원에 소망이 있다. 간절함도 있다.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일본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

OPMS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과 사명을 발견했다. 사업과 선교를 연결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꿈이자 사명이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도와 줄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선교지에 나간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익혔다. 하나씩 윤곽이 잡혔다.

하나님의 일은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이 없어 현실 도피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을 때 내게 주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달란트들이 구슬고리로 엮여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약 20회에 걸쳐 일대일 제자양육 경험이 있다. 또 10년 넘게 순장

과 다락방장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었다. 일본에 조그마한 주택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일본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내년이면 정상 궤도에 올라 갈 것 같다.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을 후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 같다.

일본인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첫 발걸음이다. 앞으로 큐티 모임, 가정예배로 발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 길이 어찌면 전문인 선교사가 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얇은 성경 지식을 도구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사업체를 통해서 돕는 선교사역도 하고 싶다. 자립할 때까지 경제적 후원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교회를 개척하든, 선교사를 돕든 선교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비전이기에 때문이다.

자립 선교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재는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잘 해 낼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 믿음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은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Onnuri Professional Mission School)는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를 훈련, 양성하는 선교학교이다.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4년 11월 23일 1025호

• 01- NGO더멋진세상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산복 기증(10면), • 02- (바로잡습니다) 1024호 러브소나타 기사 이름 정정 : ‘김성희’ → ‘김수정’ 성도(10면)  
• 03- 은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수료간증 : 윤진혁 집사(12면)

01

### ECC 2015년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 모집

모집기간: 11월 30일까지  
파견기간: 2015. 2. 23~2016. 2. 22  
파견국가 및 모집인원: 니카라과 CCA국제학교 체육교사 1명,  
몽골 집합 한국어 교사 각 1명  
지원자격: 1년 이상 해외봉사활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성인,  
파견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자  
- 체육, 한국어 등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 자격증 소유자, 봉사활동  
유경험자 중  
- 봉사활동이 가능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국가공무  
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출서류: 지원서(이메일 제출 snt4810@gmail.com)  
문의: 장호연 간사(02-3785-0931)  
홈페이지: www.eccngo.org(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

02

### 더멋진세상 2015년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 모집

모집인원: 0명  
모집기간: 11월 26일까지  
파견기간: 2015. 2. 27~2016. 2. 26  
파견국가 및 분야: 르완다(보건, 교육, 농림수산(축산포함))  
제출서류: 지원서에 기재한 고등학교 이후의 모든 학력 증명서 원본  
각 1부, 지원직종과 관련 있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지원직종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 및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  
각 1부  
접수: 방문(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9, 703호,  
이메일(jclee153@abetterworld.or.kr)  
문의: 이종찬 과장(02-2271-2246)



# “더 이상 오지(奧地)가 아니다”

## NGO 더멋진세상 봉사대원 김준 자매와 함께

은누리 NGO '더멋진세상' 이 올해로 출범한 지 4년이 되었다. 그동안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지역사회와 세계 속에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따라 힘차게 달려왔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출범했다.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가 첫 번째 사업이었다. 이후 파키스탄 홍수 피해 복구 사업, 타키 지진피해 현장 복구 지원 사업, 태국 홍수 피해지역 구호 사업 등을 펼쳤다. 미얀마와 시리아 난민들도 지원했다.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과 해외 환우 초청 지원 사업 등으로도 지경을 확장시켜 나갔다.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멋진마을 만들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더멋진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 국가의 열악한 마을을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아프리카 세네갈, 가나, 케냐, 르완다에서 더멋진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더멋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NGO 더멋진세상의 해외 봉사단원들과 선교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광과 마을에서 봉사대원으로 활동 중인 김준 자매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준(25세) 자매는 올해 초 아프리카 르완다로 출발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떠났다.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프리카 행을 결심했어요.”

고백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결단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대학원을 진학할지 아니면 취업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잊혀져갔다. 대학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하나님께서 1년 전 바로 그 고백을 떠오르게 하셨다.

“선교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이 가장 값진 공부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 년전 고백했던 것처럼 주어진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의 활동 무대는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광과 마을이었다. 그곳의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하다. 아주 작은 나라다. 1900년 다수족과 소수족 사이의 갈등으로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그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13년 7월에 세워졌다.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는 상처를 감싸고, 응호광과 마을을 보면 마을로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지금은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 모기장 배부, 이동진료, 보건진소 건축 및 운영지원, 지역보건교육 등이 주 사업



르완다 응호광과 마을의 아이들.



르완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준 자매.

이다. 처음 소득증대 사업을 늘리고 교육 분야 사업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양계장 건축과 수도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역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이 '더멋진마을'로 변해가는 것이다. 변화들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응호광과 마을에 '제호바이레'라는 아이가 있는데 태어난 때부터 머리에 흙이 있었다. 그 아이는 NGO 더멋진세상의 지원으로 흙을 제거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응호광과 마을 아이들은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누구나 제 몫한 한 물통을 들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호수까지 걸어가 물을 길러 와야 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그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 물탱크를 설치해줬다.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은 그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진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제때 치료 받기가 어려웠다. NGO 더멋진세상은 마을 안에 보건진소가 세워졌다. 한 달 평균 약 400명의 환자들을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오지가 아니다.

### “나키바조(관찰아, 문제없어)”

“많이 주고 돌아와야겠다.” 김준 자매는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한국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주러왔다 받은 사랑이 더 크고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교나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지인데, 돌아보면 얻은 것이 훨씬 많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현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다. “내 것을 흠져갈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해코

지도 할 것 같아서 길을 걸을 때마다 잔뜩 긴장했었지요.”

그의 오해와 편견이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굿모닝' 하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반기워서 넘어질 듯 뛰어오는 아이들의 사랑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르완다 사람들은 '나키바조'라는 말을 자주 한다. '괜찮아, 문제없어'라는 뜻이다. 그는 요즘이 많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들린다. 이제 그는 현지인들에게 '나키바조'라고 먼저 외친다.

그의 하루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시작된다.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그의 착신한 행실만큼이나 NGO 더멋진세상에 대한 애정도 깊다.

“NGO 더멋진세상은 신앙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NGO로서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주님이 하라하신 일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파견국가 및 분야(장/단기)

파견국가	세네갈	가나	르완다	인도	네팔	모로코
지역	다카르주 본디바	비움보도 블롬	르와마가니시 응호광과	타일라두주 찬나이	네팔간지 까이말리	라방 브라마
분야	교육, 보건, 모자보건, 농업&적정기술, 지역개발	지역개발, 농업&적정기술	교육, 보건, 농업&적정기술	교육, 농업&적정기술	아동	지역개발, 농업&적정기술
세부업무	마을보건소 및 초등 학교 지원, 농업 개발지원, 지부본부지원	자부설치 지역개발, 농업개발 지원	현지 유, 초등 교육 및 마을보건소 지원, 양계 및 농업개발 지원	초등교육 및 마을보건소 지원, 양계 및 농업개발 지원	에이즈 아동 및 가정지원	자부설치 지역개발, 농업개발 지원

### NGO 더멋진세상, 해외사역자 모집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사역할 해외사역자를 모집한다. 단기(1~2년)와 장기(4년 이상)로 나뉘어 현지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파견 국가는 아프리카 세네갈, 가나, 케냐, 르완다, 인도, 네팔, 모로코다.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2-2271-2246) betterworld87@gmail.com



#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 CGNTV 후원 위한 드림-온(Dream-On) 콘서트

지난 27일 여기는 장충동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이다. 2014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가 열렸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50여 명의 CGNTV 후원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드림은 콘서트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환영사와 식사가, 2부에서는 콘서트와 토크쇼가, 3부에서는 이재훈 목사의 설교와 CGNTV 직원들의 특순 등이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기도와 역사의 현장에 CGNTV가 있다”면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고 기적의 방송을 하는 CGNTV를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고 격려했다.

### 관심과 선교 열정 먹고 자란다

수많은 참석자 중에 복직한 여행가방을 끌고 온 중년의 신사가 눈에 들어왔다. 문영기 장로다. UAE 아부다비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한다. 문 장로는 콘서트 당일 저녁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몸은 이미 찬근간이었다. CGNTV 후원 위한 드림은 콘서트에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도 했다.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가야 한다. CGNTV를 후원하는 자리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행사장으로 직행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어요. CGNTV 시청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CGNTV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지 재확인 할 수 있었거든요”

CGNTV를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문 장로뿐이겠는가. 문 장로의 같은 마음을 가진 후원자들과 시청자들이 있기에 CGNTV가 있다. CGNTV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 나에게 CGNTV는...

이날 CGNTV 후원 위한 드림은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열렬시청자인 동시에 후원자들이다. 그리고 CGNTV의 귀한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CGNTV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돌아오는 대답은 제각각이었지만 CGNTV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다.

가수 노사면씨. 그녀는 누구보다 화려한 무대에 밝이 섰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한



2014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

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런 그녀를 붙잡아준 것이 CGNTV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마음이 허할 때 CGNTV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친구가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태현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학교와 병원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CGNTV는 선교사들에게 산소호흡기와 같다고 고백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산소호흡기 착용방법을 의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부모 먼저 착용한 후에 자녀에게 착용하라고 처음엔 이해가 안됐어요. 선교지에 나와 보니 왜 그런 줄 알겠더군요. 선교사가 영적으로 힘들면 선교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선교사의 영적 건강함을 채워주는 CGNTV의 역할이 왜 중요한 줄 알겠지요?”

이은영 성도는 독일에서 왔다. 그녀의 간증도 귀하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GNTV부터 본다. 그 덕분에 그녀의 자녀들은 CGNTV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는 아이가 CGNTV를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CGNTV 덕을 많이 봤다고 했다. 암을 감시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힘든 부경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24시간 방송되는 CGNTV 덕분이었다고 했다. 외국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CGNTV는 때려야 할 수 없는 존재다.

종로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에게도 CGNTV는 특별하다. 김 목사가 사무하는 교회는 주로 흑발촌 주민들과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다. 등대교회 예배당은 노숙자들에게 사랑방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CGNTV를 틀어놓는다.

김 목사는 2013년 12월 CGNTV 후만디유C ‘뽕뽕 김목사예요’ 편을 찍을 때가 인상 깊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방송이니까 어느 정도 각본과 연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촬영 스테프가 뽕뽕의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까지 하면 대로 편하게 하세요. 알아서 찍겠습니다.”

그때 김 목사는 CGNTV의 복음적이고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박봉에 고생하는 스테프들이 안 쓰러졌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김 목사는 이년을

위해 준비한 감사헌금을 CGNTV에 전달했다.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 MC를 맡은 방송인 박지윤도 CGNTV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다. 박지윤 아나운서는 이은영 성도의 간증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CGNTV에 재능기부로 함께 하겠다.”

대부분에 적힌 말이 아니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말이었다.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한 열렬시청자에게 CGNTV는 신앙고백이었다.

“이 좋은 방송을 공짜로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ARS 후원을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CGNTV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이었지만 마음은 같았다. 모두 CGNTV가 땅 끝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줄 것을 소원하고 있었다. 드림은 콘서트는 CGNTV가 마지막 날까지 방송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리였다.

후원문의: 02-736-2243  
ARS 후원(한 통화 5,000원) 000-700-183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서울 동대문 이문동 동안교회, CGNTV 후원행사



200, 20여명 후원자 김자원, 자연 생물이 지매와 가족들이 직원들과 기념촬영.

CGNTV가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다. 동안교회다. 지난 28일 CGNTV를 소개하고 후원을 안내하는 행사가 동안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후원행사를 CGNTV 1인칭 시점 어린이로 각색' 보고(9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살이 된 CGNTV라고 합니다. 비록 9살 밖에 안 됐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는 무려 무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바로 동안교회와 성도님들이에요. 지난 28일, 저는 동안교회라는 새 친구를 사귄 생애에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내내, 김형준 담임목사님이 동안교회 성도님들께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CGNTV의 친구가 되어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덕분에,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날 무려 200명이나 되는

새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이지, 아개가 으으으, 입 꼬리가 다물 어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날 김자원, 김지연 생물이 자매들을 있을 수 없어요. 이들은 동안교회에서 만난 200번째, 201번째 새 친구였어요. 귀여운 생김새인데, 저보다 무려 2살이나 더 많더라고요. 자원이 가얏마에게 CGNTV가 뭐냐고 물었는데, TV 방송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돕는 가리도 엄마가 설명하자, 자신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어서 지원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 자연 생물이 저에게는 저의 든든한 후원 친구가 되었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한 달 용돈 중 일부를 저와 나누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게다가 거든 건 스마트폰에 CGNT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매일같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저는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겠습니다. 꿈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2014년 11월 30일 1026호

- 01- CGNTV 후원 위한 ‘드림-온(Dream-On) 콘서트’ 개최(9면)
- 02- 이문동 동안교회 CGNTV 후원행사 : ‘CGNTV 1인칭 시점 어린이로 각색’ 보고(9면)



# 세계 복음화 위한 'Acts29 비전빌리지'

## 선교 위한 한 지붕 다섯 기관 ... 종합미션타운

"Acts29 비전빌리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2010년 6월 Acts29 비전빌리지(Vision Village) 개원예배에서 하용조 목사가 한 말이다.

경기도 용인시 안지만에 세워진 Acts29 비전빌리지는 온누리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Acts29 비전을 따라 세워진 비전빌리지(Vision Village)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내다 보는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

###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

지금의 Acts29 비전빌리지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과정을 지나왔다. 1998년 개원한 '온누리이전만훈련원'이 Acts29 비전빌리지의 시초다.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온누리이전만훈련원은 2001년 전 세계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누리세계선교센터(OWWC)'로 거듭났다. 김사무원 선교사가 초대 원장을 맡았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2000선교본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두란노해의선교회와 더불어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2010년 또 다시 'Acts29 비전빌리지'로 업그레이드 됐다. Acts29 비전빌리지를 개원하면서 다섯 가지 비전이 선포됐다.

**하나 성도들의 선교사적 삶을 위한 훈련  
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구체화하  
도록 돕는 선교  
셋 지성, 영성, 아성을 지닌 장기 선교사 훈련  
넷 민족과 열방을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중  
보기도자를 세우는 기도방  
다섯 전략적 선교네트워크를 위한 선교리더  
심초청 및 훈련**

지금 이 시간에도 Acts29 비전빌리지는 Acts29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미션타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좋은 훈련원에서 좋은 선교사 배출

지난 2월(6일) Acts29 비전빌리지를 찾았을 때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1층 시안홀에서는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 중이었고, 2층에서는 24시간 OSOM(장기선교사) 훈련과 양자 온누리교회 성가대의 컨터타 연습, 시설 대관업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3층 두란노해의선교회에서는 선교현장의 필요를 시시각각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가능하고 있었다. Acts29 비전빌리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2층에 있는 원장실을 찾아



종합미션 타운 Acts29 비전빌리지(Vision Village).

가 이재환 목사를 만났다. 이 원장이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다.

"가는 선교사를 잘 훈련시켜서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게 하고, 남아 있는 성도들을 무릇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Acts29 비전빌리지의 비전입니다. 선교를 깨닫고,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죠. Acts29 비전빌리지는 전 세계적 인 선교비전과 더불어 지역교회를 위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선교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선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Acts29 비전빌리지의 역할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교사 훈련,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등이 주요사역이다. Acts29 비전빌리지를 세운 이유는 한 가지다. 좋은 훈련원을 만들어 좋은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다. 온누리교회가 단일교회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 파송 숫자보다 선교사의 질적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더 좋은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Acts29 비전빌리지를 개원했다. 또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도 고민했다. 선교현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생각했다. 기도가 담이 있었다. 그때부터 Acts29 비전빌리지의 문을 24시간 열어놓았다.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Acts29 비전빌리지에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팀, 선교사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팀, 지역교회를 섬기는 양자 온누리교회, 선교단체 두란노해의선교회(TM), 시설을 운영 하는 관리팀이 있다. 선교를 위한 이러한 다섯 기관과 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 내년 완공 예정인 하용조 목사 기념관, 숙소동 등이 한지붕 아래에 있겠다.

Acts29 비전빌리지의 핵심가치는 좋은 선교사를 많이 양육하는 것이다. 양질의 선교사를 선교현장으로 파송하고 보내는 선교사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여타 선교기관과 Acts29 비전빌리지만의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여러 기관이 한데 모여 있는 종합미션타운이라는 것이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해외 선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도방, 한국교회에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대관해주는 종합미션타운이다.

### 복음 전하는 방법 연구 및 개발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교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Acts29 비전빌리지는 창의적인 선교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선교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선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되, 시대에 맞는 선교 방식들을 개발하는

것이 비전빌리지의 몫이다. 세계화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Acts29 비전빌리지가 한국교회에 선교의 모범이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한다. 선교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IT,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지역에 맞는 선교전략도 세워야 한다. 선교의 불을 지피고,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내년에는 성도들을 위한 숙소도 문을 연다. 많은 성도들이 Acts29 비전빌리지를 찾아 하용조 목사의 영성을 기억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면 좋겠다. 선교를 향해 모두가 함께 달려갈 때 온누리교회만의 Acts29 비전빌리지가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Acts29 비전빌리지가 될 것이다.

/ 선교 조운실 기자 ces@onnuri.org

###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는

열방위한 기도회: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30  
서클: 9시 서빙고 초소, 9시 30분 양재 초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전화: 훈련 031) 331-8182  
열방 031) 331-8214  
시설 031) 331-8133  
교회 031) 331-8193

01

## NGO 더멋진세상 4주년 감사예배

### 사역범위 20개국으로 확장할 예정

“너는 마치 물 댄 동산 갖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사58:11)”

NGO 더멋진세상 창립 4주년 기념 예배에서 이재훈 목사(더멋진세상 회장)가 전한 말씀은 이사야 58장 10-11절이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4년 동안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섰다. 1원의 예산도, 사무실도 없이 시작한 사역이 예산 35억 원을 책정할 정도로 성장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현재 14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내년에는 6개 나라를 개척해 사역범위를 20여 개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그 후

85개교회가 연합하고 1,841명이 참가한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그 후, 일본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3일 오비히로 영광그리스도교회에서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러브소나타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감동을 노래했다.

###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 시게노 유키코 성도

###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



/ 후쿠이 타이가 성도

“일본의 회개, 한국의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 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밤 개인적인 회개가 아닌 일본이라는 국가의 회개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옛날 일 가지고 한국인들은 왜 일본을 미워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내게 하나님은 “그건 내가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저를 맞이 해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러브소나타에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회복되었습니다. 갈등과 원망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순환칼럼** 한영희 권사(가정사역공동체)

## 일본에 가정사역의 초석을 놓다

지난달 23일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치사역팀’이 일본 우에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우리팀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나리타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히지리아미코겐 채플’이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교회였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던 쿠사츠와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비슷하다. 산세가 높고 아름다운 풍경에 맑은 공기가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동행 사역팀은 일본인 목사 부부 11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역을 통해 그들과 소통해야 했다. 그래서 각정이었다. 또 자신들의 숙제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의 성향도 염려됐다. 아름다운 동행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기대감이 생길 이유가 바로 그때문이다.

일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지 1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적박하다. 크리스천 인구가 전체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름다운 동행이 강력한 전도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했다.

3개조를 편성했다. 각 조마다 조장과 서너쌍의 부부가 배정됐다.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깊이 있는 나눔을 했다. 부부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누었다. 서로 알지 못했던 문제들을 짚어가며 더 나은 관계형성을 위해 노

력했다.

먼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상태를 점검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다음은 내적치유를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성향이 무엇이고, 다른 성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표정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음깊이 묻어두었던 문제들을 솔직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우리가 더 놀랐다. 프로그램의 목적대로 마음을 열고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 받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만약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는 없었을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어떤 사모님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는데 자신이 속한 문화라는 굴레에 눌러 자기표현을 억제해왔다고 털어놓았다. 변화하고 싶은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정사역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들이 싹터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가정사역의 불모지다. 아름다운 동행 사역은 일본의 모든 목사님 부부를 위한 맞춤형 사역이다. 러브소나타 비전을 잇는 일에 가정사역이 초석이 될 것이다.

#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사로!

## “열정만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안티에이징(Anti-Aging)’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자는 ‘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년을 살겠다는 뜻이다.

노년을 적극적으로 사는 ‘1, 10, 100, 1000, 10000법칙’도 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열 사람을 만나고, 하루에 100자를 쓰고, 하루에 1000자를 읽으며, 하루에 1만보를 걷는 법칙이다. 이처럼 노년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요양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꿈이 사라지고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노년이라는 의미다. 다시 꿈을 꾸고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노년이라는 것이다. 꿈을 꾸는데 나이가 적고 많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은 적든 주 안에서 꿈을 꾸면 미래가 변화된다.

노년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은누리교회 갈렙선교사 유경민 선교사(65세), 신바나바 선교사(67세), 김소망 선교사(60세), 이영재 선교사(67세)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50세가 넘어 선교사로 헌신했다.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 선교사 ... 내 인생에서 가장 절한 일

갈렙선교사들은 50세 넘어 선교사로 헌신한 일을 ‘특별한 은혜’, ‘인생에 가장 절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삶의 만족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같았다.

신바나바 선교사는 퇴직하면서 인생의 후반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소망, 유경민 선교사는 이웃리처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의 길을 확신했고, 이영재 선교사는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환상을 보고 헌신했다.

늦은 나이라 가족의 반무도 있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편박이 심한 나라로 떠난 신바나바 선교사 가족들은 유독 반대가 심했다. 신 선교사는 가족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선교지에 나갈 준비를 철저히 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정답여행을 다녀왔다. 두란노 해외선교회에서 선교훈련도 받았다. 그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말이다.

“한인 한분이 한국에 가면서 살림살이를 통째로 주셨어요. 거액의 현금이 들어오고, 비자 문제도 쉽게 해결되었어요. 대부분 짐세를 인상하고 있었는데 우리집만 인하했어. 고비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주님께



50세이상 단기선교훈련(TP)을 받은 선교사를 '갈렙선교사'라 부른다. 교회는 갈렙선교를 장려하고, 양성하고있다.

서지와 함께하시는 것이 맞지요?” 가족들과 선교사가 된 기쁨을 만끽한 주인공도 있다. 김소망 선교사는 “우리 가운데서 선교사가 배출되었다고 가족들이 대환영에 주었어요”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사가 된 것을 가족들이 크게 환영했다고 말했지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유경민 선교사는 64세에 선교의 길이 열렸다. 지난해부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 신바나바 선교사는 은행 자정정을 퇴직하고 남아아프리카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
- 김소망 선교사는 “가서 전하고,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다. 58세에 헌신해 남아아프리카에서 차세대 지도자 양성 중이다.
- 이영재 선교사는 아프리카 단기 선교 아카데미이다. 장기선교훈련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갈 준비 중이다.

었다. 한 목소리로 ‘언어 습득’을 꼽았다. 반면 나이 들어 선교사로 헌신하면 무엇이 가장 큰 장점이냐고 물었다. 유경민 선교사는 사회생활 통한 은사활동과 자녀교육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이영재 선교사는 삶의 경험을 꼽았다. 연륜이 쌓이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여유와 젊은 사모 케어도 이점이라고 했다. 신바나바 선교사는 쉽게 동요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는 점

그들에게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택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한미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저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 50세 이상 성도들도 얼마든지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앞을 가로막는 크고 견고한 성음들을 정복했다. 그는 열정과 도전의 사람이었다.

은누리교회는 갈렙과 같은 선교사를 장려하고, 양성하고 있다. 50세가 넘어 선교사로 헌신한 장기선교사 129명이 33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단기선교사는 총 15명인데 그중 7명이 4개국에서 사역중이고, 한 가정은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2000선교분부는 만 50세 이상 단기선교훈련(TP)을 받은 성도를 ‘갈렙선교사’로 정의하고 있다. 사역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단기훈련을 받고 갈렙선교사로 활동하다 장기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출국대기 중인 이영재 선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50세 이상 성도들도 얼마든지 전문인선교훈련(OPMS), 단기선교훈련(TP), 장기선교훈련(OSOM)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 열정만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다.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사로 헌신하자. 문의: 두란노 해외선교회 031-331-8182

/ 선교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포기하게 하려는 영적공격도 있었습니. 하지만 결국 오직 한분,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갈등의 순간도 있었지만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늦은 나이에 선교하려 떠나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주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물

과 큰 욕심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소망 선교사는 경릉에서 우리나라는 정확한 판단력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나이 들어 선교사로 헌신한 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선교지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다. 성가대로, 다방방장으로, 선교팀장으로, 중보기도팀장으로, 라방랜즈 팀장으로 섬기던 총성된 일꾼들이었다.



# 네팔 홀리미션교회 헌당

## JDS와 온누리미션 출신 목회자의 기도로 세운 교회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진 네팔의 홀리미션교회 헌당식이 지난 9일 현지에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가 선물해 준 ‘홀리미션 교회’는 네팔 복음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일, 네팔 중부 너왈빠라시 홀리미션교회 헌당식에서 담임목사 비루기싱 목사가 소감을 밝혔다. 헌당식에는 현지인들과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후원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황준서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 총무)는 네팔의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다.

네팔 홀리미션교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졌다. 2012년 8월, 네팔 선교사로부터 어느 시골마을 가정교

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영상에 예수제자학교(JDS)에게 전달된 것이 시초였다. 앓을 자라도 없는 비좁은 농가주택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예수제자학교(JDS) 서빙고 저택반 간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해 여름 네팔로 아웃리치를 떠난 JDS 간사 43명은 현장에서 기도하던 중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그 후 1년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모임을 갖고 교회건축비용을 마련했다.

그렇게 봉헌한 현금 약 15,000불이 현지인 목회자 비루기싱 목사에게 전달되었다. 비루기싱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올리고, 페인트칠을 하면서 교회를 건축했다. 1년 6개월 만에 예배당이 지어졌다. 이번 헌당식에 참여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홀리미션 교회의 갖은 정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전원시스템과 프로젝트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도 헌금했다.

한편, 비루기싱 목사는 한국에서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이주민 노동자로 일했다. 온누리미션 네팔에 배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네팔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 네팔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NGO 더멋진세상 ODA인턴 및 해외사역자 모집

### 21일까지 서류접수

NGO 더멋진세상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년인턴과 해외사역자를 모집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국내에서 6개월, 해외에서 6개월 근무하게 된다.

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미만 미취업자다.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위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odaincruit.com>)에서 지원서

를 다운받아 지원하면 된다.

해외사역자는 세계 각기나비시우르, 인도, 네팔, 모로코에서 사역하게 된다. 교육, 보건, 농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길 수 있다. NGO 더멋진 세상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방문접수(중구 삼일대로4길 9 708호)하거나 이메일([betterworld87@gmail.com](mailto:betterworld87@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두 분야 모두 12월 21일까지.

문의: 02-2271-2246

/ 조은실 기자



남영표 성도(과천의왕공동체)

### 네팔 홀리미션교회 헌당 예배를 다녀와서

## 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IDS간사팀이 네팔교회 헌당예배를 드리기 위해 2년 만에 네팔 '너왈쁘라시'를 찾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된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다.

2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이 생생히 떠올랐다. 아무 연구도 정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곳저곳 장소를 결정된 곳이 네팔이었다. 우리가 가진 정보라고는 동영상 한 편이 전부였다. 그 영상에는 시골 마을 작은 골방에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방이 작고 누추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했다. 땅바닥에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그들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교회건축 같은 큰일은 단기 아웃리치팀이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IDS간사 4명은 고아원 방문, 현지 선교사 위문 등으로 사역방향을 정하고 네팔 너왈쁘라시를 방문했다. 노방전도와 교회 설립을 위한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일정이었다.

네팔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들을 누렸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찾아가게 하고, 고아원에서 꼭 돌봐야 할 아이들을 만나게 하였다.

집회 때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 주셨다. 네팔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행사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로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일은 너왈쁘라시 교회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사실을 현지에 도착해서 알았다.

현지 성도들은 교회건축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부지를 헌납한 상태로 기도해오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온 것은 그기도가 응답된 것이라며 좋아했다. 네팔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우리는 차마 그들의 비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 40도가 훌쩍 넘는 더운 날 쓰러질 정도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들이 헌납해 둔 땅이 교회부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땅부터 다시 구입해야 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또 네팔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네팔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모임을 시작하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매주 모여서 기도했던 간사들이 헌당예배 현장에 함께 왔다.

네팔교회는 화려한 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동화 속이나 풍경화에 나올법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함께 탄 험린 얼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01

다문화가정 위한 윈터캠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봉사자에게 스키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 대청, 다문화가정 위한 ‘윈터캠프’ 개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드림캠프에 이어 윈터캠프를 개최했다. 지난 여름 한부모가정을 위해 진행했던 드림캠프가 이번에는 ‘윈터캠프’라는 이름으로 재현됐다.

대학청년부는 매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캠프를 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리를 놓고 있다.

### 신나고 훈훈한 시간 속으로!

서명고 안산, 수서에서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스프레들이 미중을 나왔다. 그들의 미소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다.

곧바로 다문화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스키와 스노우보드 강습을 받으려갔다. 청년들이 안내했다. 사람도 많고 복잡했지만 다들 신나보였다. 청년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르고 달랬다. 옷을 갈아입히고 장비를 채워줬다. 한 명이라도 놓칠 새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스키를 알려주는 모습이 정말 맛있었다.

이번엔 식당이다. 입이 떡 벌어진다. 호련 뷔페가 따로 없다. 참가자들이 맛있게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 다른 장소로 흩어졌다. 부모들은 강해선 목사의 강의를 듣고 자녀들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보냈다. 버블메이저

도 구경했다.

캠프 이틀째 날 세족식이 가행됐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쓴 편지로 마음을 전달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캠프에 처음 왔을 때 어리둥절하던 표정이 온데간데없었다. 돌아갈 때는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봉사자들의 극진한 섬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 말씀 따라 오늘도 달린다

“압마, 우리 공주대접 받고 간다.”

지난 드림캠프 참가자에게 들은 말이다. 대학 청년부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번 윈터캠프 참가자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선

을 다해 섬겼다. 그런데 이상하다. 섬기러 왔는데 섬김을 받은 기분이 든다. 왜 주저 없이 섬김에 동참했는지 알겠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선기면서 느끼는 행복’을 얻어버렸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도착한 순간부터 매순간을 환영했다. 액자에 가족사진을 담아주기 위해서다. 나머지 사진들은 USB에 담았다. 식사, 공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

중국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참가자들의 귀한 간증 뒤에는 보이지 않게 섬기는 청년들이 있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청년들은 오늘도 달린다.

/ 대청 박일새 기자 [leat@onnuri.org](mailto:leat@onnuri.org)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

02

##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가정과 직장을 핑계치고 땅끝에 가서 사는 것은 더 어렵다.

현재 178만 명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로 잘 살게 하시고, 외국인들과 함께 살도록 하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해외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는 국가다. 2017년 10월 선교사로 보내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순교할 각오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제1세계의 국가와 팔라빈 등지를 제외하고 거의 대

부분의 나라에서 선교를 금하고 있다. 선교사나 목사 방문조차 내 말지 못한다. 선교하다 발각된다는 것은 체포와 추방, 투옥을 의미할 정도다.

우리가 그토록 선교하고자 하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다. 하나님이 이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새 역사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터전을 떠난 이들을 통해 새 역사를 펼쳐 가신다. 우리 곁에 이토록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문화선교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교방법이다.

선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한국을 부유하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셨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 나라 분포를 보면 이슬람권(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과 힌두권(인도, 네팔, 불교권(태국,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등)이 있다. 중국과 몽골, 구 소련지역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도 왔다. 기독교에 대한 말살정책을 펼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다. 그렇게 파송된 이들이 모국어로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2014년 12월 21일 1029호

- 01-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윈터캠프> 개최(7면)
- 02- <목사칼럼>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7면)



2014 온누리교회 선교를 돌아보다

# 소통하는 선교, 참여하는 선교

## 캠퍼스, 공동체, 순 ... 선교를 만나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선교에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기념치는 사역자 되도록 축복하소서”

지난 12월 열린 ‘2014 선교감사의 밤’ 행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교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순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바울과 손양원 목사에게 대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

2014 선교감사의 밤 행사에는 온누리교회의 선교 리더십들과 선교사, 선교사 부모, 중보기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정대서 장로(선교본부위원장)는 “마음과 몸과 생각이 모이고, 기도가 모여 더 잘 섬기는 온누리교회 선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종호 집사(신분안산공동체 선교사역자)는 “선교사케어부를 통해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뜻 깊은 한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늘 선교사 위해 기도하도록

“소통하는 선교가 되겠습니다.” 올해 초 선교 비전(비전)에서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들이 외친 말이다. 2014년 온누리교회 선교는 소통하는

선교 참여하는 선교에 중점을 뒀다. 그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후원사역부 설립이다.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소통을 위해 구성된 자비량 선교후원 부서다. 후원사역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선교헌금 작정기(가)에 재능 기부자도 모집했다. 재능 기부자들은 선교사 소식과 선교 보고 내용이 담긴 기도편지를 제작해 성도들에게 배달했다.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선교사와 성도들 간의 거리가 좁혀졌다.

과거에도 이러한 노력을 했다. 매년 연말에 배포하던 <Vision 2000선교> 책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온누리교회 선교가 한 해 동안 겪어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Vision 2000선교> 책자 배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후원사역부다.

캠퍼스와의 소통에도 힘썼다. 주일마다 캠퍼스를 돌면서 ‘캠퍼스 선교집회’를 열었다. 선교 리더십들이 주일마다 캠퍼스를 찾아가 선교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캠퍼스 선교집회다. 예배 후에는 캠퍼스 선교 리더십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했다. 올해는 강동, 인천, 수원 캠퍼스를 찾아



선교 감사의 밤 행사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감격찬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선교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갔다. 공동체와 순도 선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썼다. 선교사역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책임선교사의 기도제목을 매주 확인해 공동체와 순에 전달했다. 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선교사역자들은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공동체 및 순에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 외에도 선교 기관들의 연합, 교회

와 선교사역자들의 정기적인 모임 등 한해동안 소통과 참여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모두 소통하는 선교 참여하는 선교를 위한 노력들이었다.

### 선교를 위한 다양한 노력

소통과 참여하는 선교 이외에도 올해 한해 5대 선교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22개국 96개 지역에 2448명의 해외 아웃리치가 진행되었고, 베트남 예배 공동체 개척과 온누리M센터 신축 확정, 하용조 목사 기념관 착공, 장단기 선교사 훈련생 7명 배출, 르윈다·세네갈·파키스탄의 너댓진마를 조성사업 확정, 교회개혁운동(CPM)세미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열방에 20여 교회개 세웠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한해를 돌아보며 2000선교본부 전영수 장로와 함께

# 성도와 선교사가 통(通)하는 선교



전영수 장로(선교본부위원장)

###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와 선교기관, 성도가 소통하도록 애쓰는 한해였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 기관들 간의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5대 선교기관(2000선교본부, 두란노회의 선교회,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M미션, NGO더넷신세상)뿐만 아니라 아버지학교, 일대일사역본부, BEE KOREA, CGNTV 등 보이

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직간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모여 연합회의를 했습니다. 15개 선교기관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선교활동을 나누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방의 선교사와 후방의 선교기관 및 후원하는 성도들이 소통하도록 힘썼습니다. 온누리교회에는 책임선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책임선교사 제도를 순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와 순을 연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온누리교회 온라인 전산시스템 ‘아이케어’를 통해 선교사와 순이 연결되도록 시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 혼자 고분분했다면, 이제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뿐만 아니라 각 공동체와 순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도 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입니다.

캠퍼스에도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로 서빙고와 양재에서 선교관련 행사나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000선교본부는 ‘캠퍼스 선교집회’를 열면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캠퍼스에서도 얼마나 뜨겁게 선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후원사역부도 생겼습니다. 선교헌금을 작성한 성도들에게 매달 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전달하고 선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선교헌금 작정을 하면서 결연하고자 하는 국가 및 선교사를 선택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 4500여 성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후원사역부에서는 그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기도편지와 선교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소식을 받아 본 어떤 성도는 지하철을 타

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했고 어떤 성도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각 선교기관, 선교사와 성도 및 기관, 캠퍼스와 선교가 소통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 내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선교사가 전방에서 소총을 쓰는 군인이라면, 기관과 성도는 후방에서 기도의 대포를 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해 선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통하는 선교 참여하는 선교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콘퍼런스로도 계획 예정입니다.”

/ 조은실 기자



01

##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 대회

### 외국인들을 위한 감동축제

“심사하러 올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 14일, 서빙고 지하101호에서 열린 한국어말하기 대회에서 심사를 맡은 원우현 장로의 심사평이다.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교장: 이영복 장로)가 해마다 주관하는 행사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대상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감동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한국어말하기 대회에는 9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고급부문 1위는

카자흐스탄 출신 나타샤 자매, 중급부문 1위는 네팔 출신 아브라함 형제, 초급부문 1위는 네팔 출신 스미리티와 드리스티 어린이가 차지했다.

한글학교 수업은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1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 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년에는 타 교회 회당지를 대상으로 교사양성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대회 고급부문 1위 수상자 간증



## 같은 아는데 도마는 몰랐다

/ 나타샤 자매(카자흐스탄)

2007년 한국에 왔다. 남편은 한국말을 하 나도 몰랐고 나는 숫자를 알고, 글씨만 읽을 줄 알았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는 사람이 회사 옆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소개해줬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말을 알아듣기 힘들었다. 같은 아는데 도마는 몰랐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를 만에 해고를 당했다. 남편도 이삼일 만에 해고되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딸 때문에 갈 수 없었다. 우리 딸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딸의 교육 때문이다. 딸은 한국에서 청각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언어치료를 받

고 카자흐스탄에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언어치료 선생님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우리 딸은 지금 애화학교에서 언어치료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내년엔 6학년이 된다.

우리 딸 다나가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매일 울었다. 김치가 매워서 못 먹겠다면서 말이다. 우리 부부도 김치찌개를 못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카자흐스탄에 가면 김치찌개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음식과 낱씨에도 적응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한글학교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 선생님들 덕분에 한국말을 많이 배웠다. 한글학교에 오면 선생님들 모두가 사랑이 넘친다. 따뜻해서 가족 같다. 정말 감사하다.



지난 14일 서빙고 B101호에서 열린 한국어말하기대회 참가자들.

새벽에 만난 사람들

# “통역은 주님 음성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축복”

## 새벽기도회 동시통역 봉사자 ‘김선경 자매’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칠후같이 어둡다. ‘2015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가 한창인 요즘 많은 성도들이 갑갑한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며 교회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다. 서빙고 본당은 성도들로 꽉 차 있다. 그 많은 성도 중에 이어폰을 끼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외국인들이다. 통역기를 끼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국경이 없다.

오늘 새벽에 만난 사람은 외국인들이 모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동시통역 봉사자들이다. 외국인들에게 동시통역 봉사자들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말하는 일본어예배부 김선경 자매를 만났다.

### 통역사는 하나님의 전령(傳令)

서빙고 본당 4층. 중앙통로 양쪽에 조그마한 통역실이 있다. 은누리교회는 주일 3부 예배와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3개 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언어 예배부에 소속된 봉사자들이 섬기고 있다. 예배 동시통역을 교회를 방문한 외국인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CGNTV 해외시청자들에게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은누리교회 예배실 황과 영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만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역실이 생각보다 좁다. 테이블 하나에 작은 모니터와 마이크, 헤드폰, 탁상용 전기스텐드가 전부다. 사람 둘이 들어가면 꽉 차는 좁은

공간에서 은누리교회 예배를 모국어로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새벽 5시, 김선경 자매가 교회에 도착했다. 곧장 통역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날 예배 큐시트를 살펴보았다. 일본어 찬양집과 일본어성경을 꺼내, 큐시트에 나온 찬양과 성구를 대조했다. 5시20분, 드디어 새벽기도회가 시작됐다. 모니터와 헤드폰에 집중했다. 통역실에 놓인 책상 바로 앞으로 강대상을 볼 수 있는 장이 있지만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는다.

통역사는 하나님의 전령(傳令)이다. 설교뿐 아니라 찬양 기도 간증 등 예배의 모든 것을 생생히 통역해야 한다. 그렇기에 기도회가 끝나는 6시20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선경 자매도 마찬가지다. 눈은 모니터를, 귀는 헤드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보였다. 혹시라도 집중이 쉬워까봐 책장도 조심스럽게 넘기고 휴대폰도 꺼냈다.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간혹 통역실 문 바로 앞에서 의자를 놓는 소리가 쿵하고 날 때면 정말 난감하단다.

### 교회통역만 11년째 베테랑 통역사

김선경 자매는 2001년부터 일본어예배부에 나오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통역봉사를 시작했다. 교회통역만 11년째 베테랑이다. 그녀가 통역봉사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전문 통역사로 일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일도 통역이 있는데, 내 말씀 전하는 통역이 없다. 네가 해라.”



좁은 통역실에서 김선경 자매가 새벽기도 동시통역을 하고 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통역을 우선하게 됐다. 그녀는 다른 행사보다 새벽기도 통역봉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했다.

“하나님은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통역하면서 듣게 해 주세요. 무대하고는 가장 멀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가장 가까이에 있지요” 그녀가 새벽기도 통역봉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통역봉사에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꼭 연락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빨리 듣는 축복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영어예배부 3215-3885

일본어예배부 3215-3702

중국어예배부 3215-370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열방에 교회 세워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교회가 교회를 낳는 선교전략 'CPM' 도입

1987년 은누리교회의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도막을 시작했다.

당시 'TIM(Tyrannus International Ministries)'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중보기도도막이 지금의 '두란노해외선교회(TIM: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를 만들었다. 선교를 위한 기도소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1992년, 최다나엘 선교사를 대표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여섯 가정을 하임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두란노 해외선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복음주의 목사의 선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다. 교회개혁과 전방개혁선교를 핵심사역으로 삼고 영혼구원과 제자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스리랑카 베이스 개척, 남아시아·이스라엘 선교부 신설, 양지 선교훈련센터 설립, 아프리카·스탄 사역, 예루살렘 평화행진, 미주·일본지부 설립, 청년선교사 파송, 교회개혁운동 등을 실시했다. 22년 동안 걸음이 달려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50개국 41명의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 교회개혁운동 'CPM(Church Planting Movement)'

올해 두란노해외선교회는 특별한 제도를 도입했다. 선교지교회개혁운동(CPM)이 바로 그것이다. CPM은 'Church Planting Movement'의 약자다. 교회개혁운동 혹은 교회개혁개개 운동으로 불린다. 한 종족이나 행정 구역 안에서 교회개혁을 통하여 토착교회가 급속하게 증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내부에서 자생된 토착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CPM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CPM은 세계최대의 교단선교회인 미국 남침례교회 선교회(IMB)가 만들었다.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발견된 교회들의 특이한 증가현상을 분석해 만든 선교전략이다.

올해 2월 13일 두란노해외선교회는 IMB와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현재까지 40%가 넘는 선교사가 이 훈련을 이수했고, 올 한해만 약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김배·바 선교사는 2008년 파송받아 중동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 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영적으로 광장히 보수적이고 민족주의가 강하다. 현지인이 리더십인 교회도 압박을 한다. 자녀를 죽이겠다는 위협에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을 정도다.

김 선교사가 이 지역에 정착한지 1년째 되던 올해 7월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착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움츠러들지 않고 더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한류 열풍을 이용해 문화센터(사람방)를 개설했다. 한국음식과 한국문화를 소개하며 젊은이들을 만나 교제하고 있다.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말이다.

CPM을 목표로 교회를 세우면서 김 선교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역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 것도 느낄 수 있었다. 현지인들에게 예배와 교회에 대해 더 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다.

김 선교사는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심한 곳에서 CPM 사역을 하는 것이 발각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기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은유 선교사는 2008년부터 남아시아 국가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들이 열방에서 교회개혁운동(CPM)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선교사가 네발인 전도하는 모습(위)과 남아시아 국가 현지인들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모습(아래).

에서 물리치료를 삼고 있다. 정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도 선교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많지 않다. 소수로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형태가 대다수다. 정 선교사는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볼 만한 공간이 없어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CPM을 목표로 삼으면서 전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교회 개혁은 머리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선교 초음기 사 ces@onnuri.org



목회칼럼 도옥환 목사(양지 은누리교회)

## 2015년은 선교역량 강화하는 해

두란노해외선교회는 2015년 다섯 가지 집중사역을 설정했다.

첫째, 현장 조직 정비다. 그 동안 다양한 선교지원, 다양한 현장의 필요들에 따라 선교사들을 파송해 오면서 현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다. 일차적으로 사역 유형별 분류와 지역별 분류를 통해 유사한 사역들을 부고 새로운 사역팀을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각 사역들을 특성화해 보다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략팀(Strategic Team)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각 단위별 사역에 생명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선교사 역량 강화다. 선교사역 성패는 선교사에게 달려 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은사와 열정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각 지역전략회의를 CPM 훈련으로 대체해 교회개혁운동을 독려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보내 준 성공담과

실패담을 기초로 후속훈련을 제공하려고 한다. 지속적으로 교회 개혁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 같은 전략사역팀은 이끄는 전략코디네이터 교육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식년을 맞은 선교사들의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지원시스템 정비다. 현장 선교사들은 자신이 강하게 보지 못한 다양한 상황과 필요들을 만난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 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새해에 지역별 사역유형별 서포터즈를 모집 조직하려고 한다. 비즈니스, 농업, 적정기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사와 현장들 도울 서포터즈가 필요하다. 그동안 함께 동역하고 후원해 준 다양한 교회들과도 긴밀하게 동역할 것이다. 동역의 정도에 따라 협력교회 및 후원교회를 세워 나가려 한다.

넷째, 보다 창의적인 선교모넬 개발이다. 지역에 따라서 외부로

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자립을 도려해야 하는 사역도 있다. 선교사는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나기 때문에 현지인에 의해 운영, 관리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다섯째, 청년선교동원이다. 은누리교회 대학청년부와 FA를, 차세대와 FT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차세대 선교인력을 동원할 것이다. 전주대, 전주비전대학, 한동대 등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선교지원도 개발할 것이다. 전문인선교훈련원(OPMS)을 통해 전문인도 선교인력으로 동원할 것이다.

새해에는 이와같은 다섯 가지 집중사역을 통해 TIM의 선교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 세계선교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CGNIV, 두란노서원, 아비지학교, 은누리미션 등 다양한 선교기관들과 함께 융합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팀사역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기반을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이다.

0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풍성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애썼다. 외국인 근로자들, 동부노인요양센터 입소 어르신, 교회 주변 건물 경비원 등이 주인공이었다. 온누리교회가 온 누리에 선사한 성탄 선물이다.

### 온누리M미션, 성탄절 맞이 전도집회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성탄 행사가 서빙고와 안산에서 펼쳐졌다.

온누리M미션 네팔,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등 20개 예배공동체는 성탄절을 맞아 전도 집회를 개최했다. 청년들도 힘을 보탤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안내, 복순 등 일일 아웃리치로 섬겼다.

〈간증문 13편〉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전도집회에 참석한 안산 네팔 청년들.

02



▪ 서빙고 네팔 성탄절 전도집회

###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 데벤드라 목사(서빙고 네팔 공동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네팔 사람들은 약 2만 5천명이다. 네팔에는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자연이나 사람이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대부분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영적인 것보다 돈에 관심이 많다.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모습을 보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네팔 예배공동체는 이런 문제들에 집중했다. 네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네팔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예배공동체에 초대한다. 그들의 영적, 불합적 영역을 돕고자 힘쓰고 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행사도 이런 점에 초점을 두었다. 네팔에서 온 신앙인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80명이 참석했다. 그 중에 53명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통해 행사 참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간구했다. 예수님을 따라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이

아기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찬송가들이 가득했다. 참석자들도 큰 미소로 화답했다. 네팔 형제자매들이 네팔 전통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국에 있지만 네팔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네팔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요즘 기독교가 네팔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는 그 비판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배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행복으로 흥난했다. 행사 끝에는 멋진 선물들을 나누고 네팔 전통 음식을 함께 먹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이런 멋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4년

2014년 1월 5일~2014년 12월 28일  
982호~1030호

2015년

2015년 1월 4일~2015년 12월 27일  
1031호~1080호





# 2015 선교헌금 작성



세네갈 본나비 마을 케르빌라 초등학교 학생들.

**오늘(4일)과 다음 주일(11일) ... 헌금봉투 또는 자동이체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로도 동참, 목표액 115억**

2015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오늘(4일)과 다음 주일(11일) 두 차례 봉헌한다. 헌금봉투와 자동이체(CMS)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로도 동참할 수도 있다. 목표액은 115억 원이다.

올해 봉헌한 선교헌금은 선교대회, 선교분야별 포럼개최, 안산M센터 신축,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 숙소동 건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기기 위해 새해 첫 주일과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문의: 02-3215-3616(선교헌금), 070-4949-7882(재능기부) <관련기사 4-5면>

# 온누리교회 선교의 중심 '2000선교'

## '비전 2000' 이뤄가는 선교 총괄부서 선교기관과 유기적 연결, 선교 동참하도록 지원

지금 세계 선교 흐름이 심상치 않다. 앞서 달려간 기독교 국가들이 힘을 잃고 새로운 기독교 국가들이 떠오르고 있다.

서구와 유럽, 북미 같은 북반구 국가들의 선교 역량이 약해졌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반면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와 같은 남반구 국가의 선교 역량은 세지고 있다.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있다.

북반구 기독교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인력과 재정이 소진되고 있고, 남반구 기독교는 열정이 있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한국교회는 이 중간에 서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에 집중했다. 선교경험이 풍부하다. 한국교회와 더불어 시행착오를 해오면서 서구로부터 많은 것을 전수받기도 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경험을 복음의 배움이 불고 있는 다른 국가의 교회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다. 기독교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편미이 심한 동아시아 국가의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해 온누리교회 선교 DNA를 전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주민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도시선교, 이주민 선교까지 지경을 넓혀가

고 있다.

###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을 향하여

온누리교회 선교의 중심에 '2000선교본부'가 있다. 2000선교본부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2000개의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 2000'이 선포되면서부터 온누리교회 선교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선교단체에 선교사와 재정을 위탁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온누리교회는 교회의 선교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교회 내에 '2000선교본부'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2000선교본부는 선교헌금과 재정을 정책과 비전에 맞게 선교단체에 배분한다. 인력을 동원해 훈련하고, 선교단체에 위탁한다. 선교단체와 교회 사이의 역할을 하며, 교회가 계속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 후보생을 배출하도록 돕고 있다. 한마디로 2000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 사역의 역량을 선교에 집중시켜 '비전 2000'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온누리교회 선교는 2000선교본부를 중심으로 다섯 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 안으로는 Acts23비전블리지, 온누리미디어, SWIM 인터넷 선교회와 있고, 교회 밖으로는 두란노회와선교회(TIM), 온누리NGO터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들과 선교사, 간사들이 쌍용공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밋진세상이 있다. 이 다섯 개 선교기관이 함께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 30년 돌아보고, 나아가 방향 고민

2015년은 온누리교회 선교가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0월에는 만 2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선교현장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선교방향을 돌아보고 재설정하는 대회다.

선교 분야별(이주민 사역, 중국선교, 미디어 선교, 전방개척 선교 등) 포럼도 개최한다.

11월에는 미국 선교단체 OMSC(해외선교연구원)와 함께 '대형교회 선교책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을 통해 지난 30

년 동안의 온누리교회 선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볼 예정이다. 2015년은 온누리교회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Acts29 비전블리지 선교사 숙소동이 세워지고, 하용조 목사 기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선교 기록보관소를 만들 예정이다. 책임 선교사 제도도 활성화 시킨다. 온누리교회 온라인시스템 '아이케이'에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전용 앱(App)도 신설할 예정이다. 2000선교 홈페이지도 활성화시켜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인터뷰\_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 온누리교회와 목사님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2002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온누리미디어 사역을 담당했고, 대학원장부, 일산공동체 등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수마트라 섬의 팔람팡이탄 지역에서 온누리교회 가입한 워프종족 중 꼬르링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00선교본부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사역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교를 했지만 지금은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선교에 동참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 "사명, 완수해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시도행전적 비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누리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비전 2000', 'Acts23'와 같은 선교적 비전을 주창하며 달려왔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잃지 않고 열방에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선교 DNA를 가진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선교사들에게는 성도님들의 후원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일산공동체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시고, 이웃교회도 주시고, 꾸준히 후원해주셔서 언제나 큰 힘이 됐습니다. 중보기도당에서도,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에 있으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각만큼 열매가 맺히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기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격려해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015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2000선교본부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부서와 선교사들이 선교헌금 작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일인 4월과 11월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동시에 기도운동을 할 것입니다. 또 선교헌금작정 기간 동안 달래기도공식운동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5 선교헌금 작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십시오. 기도해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열매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완수해 낼 것입니다."

/ 대담 조은실 기자



# MK사역, 또 하나의 선교입니다

## 진로상담, 학습지도, 홈스테이 등 돕는 손길 필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여서 행복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후진국으로 보내셨는지 원망했는데 이곳에 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박영환, 윤유희 선교사의 자녀 박송 자매가 ‘MK감사의 날’ 행사에서 간증하며 눈물 흘렸다. MK(선교사 자녀)대표로 간증한 박송 자매와 이요섭 형제의 간증에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박송 자매는 세상 때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방글라데시에 갔다.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라서 인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시년을 맞은 부모를 따라 귀국해 한국에서 4년을 살았다. 그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친구들도 생겼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5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부모를 따라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었다.

“그동안 이런 곳에 살았었다나...” 다시 찾은 방글라데시가 싫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방글라데시를 떠나려고 할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말이다.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이철희, 원은복 선교사의 자녀 이요섭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두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 갔다. 지금은 멋진 청년이 되었다. 요섭이는 몽골에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도 꼭 새벽예배를 데리고 가는 부모에게 피로를 부리기도 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었다. 물론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가 없는 것이었다.



선교사 자녀(MK) 감사의 날에 선교사와 선교사 부모들이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을 맞이했다.

### 선교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 '자녀 문제'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자연스레 선교지에서 생활하게 된다. 열악한 환경과 교육, 타문화권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질감을 어린 자녀들이 이겨내야 한다. 선교사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자녀 문제'를 꼽는다.

한 자문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한다. 개인사정이 무엇인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녀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어린인 선교사들도 타문화권에서 받는 충격이 큰데 나이 어린 자녀들이 받

는 충격과 사된 어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는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후원과 교사들을 함께 파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 자녀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선교사 자녀 사역(MK사역)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선교후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은누리교회는 MK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에는 선교사 자녀 교육과 교사 동원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 교육과 학습진로상담, 입시진학상담, 국내 MK학습지원, 캠프 등 선교사 자녀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했다.

올해는 부모교육 세미나, 홈스테이 사역, 교사 훈련 및 파송 등 부모교육과 불리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MK를 위한 중보기도와 진로상담, 학습지도, 홈스테이, 재정후원 등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문의: 김경혜 선교사 010-9115-0664

\*MK는 Missionary Kids의 약자로 선교사 자녀를 뜻한다.

## | 선교사 자녀 학습진로상담을 마치고 |



/ 이은경 교사

저는 전직 선교사이자 교사입니다. 지금은 교육학 박사이면서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MK학습진로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MK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문인선교훈련(OPMS)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 갔을 때 하나님께서 MK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한 선교사 자녀를 만났습니다. 자연스레 진로나 대학입시에 대해 나누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MK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MK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

그때부터 하나님께 MK사역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OPMS훈련이 마칠 때쯤 리더십들에게 상담을 받고, 작년 연말부터 MK학습진로상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MK사역은 중고등학교생 중심으로 진로검사나 학습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학습방법이나 진로 방향에 대해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교육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옮겨다 주는 이동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녀교육 문제를 특히나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풀이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1년 동안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 MK 50명을 만났고, 20~3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본국에 계신 선교사 자녀들을 만,지만, 직접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다녀오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선교사도 선교사 자녀들도 누군가 자신을 위해 와준다는 그 자체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진로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한 명의 MK를 위해 이 자리에 와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가힘을 많이 받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기도해주시는 많은 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선교를 보내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단기 아웃리치팀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 자녀교육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선교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만든 힘입니다.

하나님은 MK사역을 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MK교육과 관련하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MK사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국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나 자녀교육, 기도상담, 선교사케어 관련된 해서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MK사역에 동참해주시고요.

새벽에 만난 사람들

#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 365일 쉼 없이 복음 전하는 CGNTV 송출실 직원들

“5.4.3.2.1 시작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5시20분 여기는 CGNTV 송출실 방송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2014년 마지막 날 새벽기도회가 시작됐다. 예매 실황이 케이블, 인터넷, 위성, IPTV, 모바일로 생중계되고 있다. CGNTV 송출실 직원들은 대형TV화면 4개와 14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방송 중간 중간 모니터와 음향 등을 체크해야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방송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손놀림이 숨가쁘다.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순수복음방송 CGNTV가 1년 365일 24시간 방송될 수 있는 것은 24시간 쉼 없이 움직이는 송출실의 공이 크다. 오늘 새벽에 만난 사람들은 CGNTV 송출실 직원들이주영 팀장, 한철, 이지훈이다. 이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복음의 신앙인들이다.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 명절도 국경일도 없다

서빙고 은누리교회 본관 5층 선교재단 맞은편에 CGNTV 송출실이 있다. 이곳의 하루는 시작이 따로 없다. 물론 끝도 없다. 365일 쉼 없이 CGNTV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방송 스케줄에 따라 CGNTV 콘텐츠를 각 매체(위성, 케이블, IPTV, 모바일, 인터넷)에 맞는 신호로 변환해 송출한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도 이곳을 통해 4개 채널(한국 케이블, 한국 위성, 일본 중문)로 생중계되고 있다. 미주는 녹화를 해서 방송한다. 일본과 중문의 경우는 동시통역 서비스가 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CGNTV 송출실 직원들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조그



CGNTV 송출실 직원들(왼쪽부터 이주영 팀장, 한철, 이지훈)

마한 방송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조용한 공간에 엄청난 긴장감과 치열함이 묻어있다.

CGNTV 송출실 직원은 모두 7명이다. 주간에는 1명, 야간에 2명이 근무를 하는 2교대 시스템이다. 이날은 한철, 이지훈 형제가 야간근무를 했고, 이주영 팀장이 주간근무였다. 한시도 쉬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새벽기도회 실패를 사고 없이 송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들에게는 명절도 국경일도 없다. 방송일정에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남들 노는 날 쉴 수 없다. 이주영 팀장은 2년 연속 설날에 고향집에 가지 못했다.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가고, 식사도 교대로 하고 있다. 먼저 먹는 사람

이 빨리 먹고 교대해줘야 다음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식사 후 마시는 커피 한잔의 여유는 CGNTV 송출실 직원들의 소망이다.

### CGNTV 송출실, 선교의 최전선

“생활패턴이 불규칙한 게 가장 힘들어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십상이죠. 폐렴에 걸리고 비타민D가 부족해 병원진세를 전직도 있었어요”

“남들 쉴 때 같이 못 쉬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이나 친구 만나 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들을 누가 위로해

줄까, 바로 시청자들이었다.

“성도님들이 전화해서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돼요”

“낙심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들이 CGNTV를 보고 은혜 받고 회복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CGNTV 송출실이 선교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들이 있기에 병원 침상에서, 교회가 없는 시골에서, 해외 교민과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빛도 없는 곳에서 쉼 없이 수고하는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1

## NGO 더멋진세상 직원모집

NGO 더멋진세상에서 홍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한다. 콘텐츠 관리와 국제개발협력사업 홍보업무를 맡을 직원을 모집한다. 콘텐츠관리 업무는 홈페이지 및 SNS관리, 콘텐츠 제작 및 게시업무를, 국제개발협력사업 홍보분야는 해외사업 및 홍보업무를 맡게 된다.

콘텐츠 관리 직원은 웹디자인 경력자여야 한다. 연령과 성별은 제한이 없다.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직원은 해당 업무 경력자여야하고, 영어업무 가능자를 우대한다. 1월 6일까지 모집하며, 접수는 이메일로 받는다.

문의: 02-2271-2246, 이메일: betterworld88@abetterworld.or.kr

02

### ▪ 강동 온누리,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후기



/ 한동훈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 있다. 바로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야마가타 남부교회와 그 곳의 성도들이다. 2007년 샌다이 러브스나타부터 시작된 야마가타와의 인연은 벌써 14번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아웃리치는 더욱 특별했다. 2009년 팀장으로 이끌었던故 황혜경 자매의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갔기 때문이다. 혜경이는 몇 달 전 위암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병이 나으면 야마가타에 같이 가자고 했다. 그 정도로 야마가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친구였다. 혜경이의 소원을 이번 크리스마스 아웃리치를 통해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어질 수 없었던 사랑의 끈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어지게 되었다. 혜경이 어머니가 흡스테인 오카씨의 아들 히카루군이 세례를 받았다. 처음 야마가타 아웃리치를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다. 남부교회의 새 성전을 위한 기도제목을 듣게 되었고, 새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아웃리치를 계속 오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 야마가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와서 감사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새 성전 건립은 쉽게 되지 않았다. 2010년 교회 허가신청을 했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2011년에는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야마가타 남부교회와 온누리교회팀

은 피해지역 섬기는데 집중했다. 그렇게 새 성전에 대한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야마가타 남부교회 아웃리치를 시작한지 8년이 지났다. 이번 아웃리치 기간에 오카 목사님과 성전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2년 안에 새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다. 2년 후면 야마가타 아웃리치도 어느덧 10주년이 된다. 새 성전의 길이 열릴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예배에 남부교회 예배당이 꽉 찼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도집회에 참석하려던 사유리 씨가 주차할 곳이 없어 교회 주위를 맴돌다 결국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일본에서 전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새 성전의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6-47).

하나님의 길은 소망하고 준비하면 갑자기 열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8년 동안 12000개의 전도 선물과 다양한 전도집회를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다. 그리고 해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목격하는 열매를 보게 되었다. 새 성전이 속히 열리고, 온누리교회처럼 남부교회가 일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 오늘 2차 선교헌금 작성



아프리카 베냉 이웃리치에서

## 지난주 9,339명 48억 8천 7백 만원 봉헌 ... 목표액 115억 CMS 또는 현금봉투 선택, 재능기부, 중보기도 후원도

부과 중보기도 후원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현재 1,092명의 성도들이 선교현장 리서치, 편집, 웹디자인, 발송, 중보기도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선교사와 성도들이 소통하도록 돕고 있다. 2015년 선교헌금은 70개국 850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은누리 30주년 선교대회 및 선교포럼, 안산 M센터 증축,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 숙소동 건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2-3215-3616(선교헌금), 070-4949-7882(재능기부)

오늘(11일) 2차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지난 주일 실시 된 1차 선교헌금 작성 결과 9,339명이 48억 8천 7백만원을 봉헌했다. CMS 71%, 현금봉투 21%다. 올해 목표액은 115억이다.

선교헌금은 CMS와 현금봉투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재능기



# 하나님께 받은 재능, 하나님께 드립니다

## 新선교 트렌드 '재능기부'와 '중보기도' 후원

"선교현장에서 외롭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누군가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은누리교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후원사역부에 와서 확인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려 한국에 들어온 이비운 선교사가 후원사역부 팀원들에게 건넨 말이다.

은누리교회는 2014년부터 선교현금과 재능기부, 중보기도 후원을 함께 작성하고 있다. 1,000명의 재능기부자들이 모여 후원사역부를 꾸렸다. 후원사역부에서는 선교현금 리서치, 편집, 웹디자인 발송, 중보기도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선교사 기도편지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2월만 첫 번째 기도편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아홉 번째 기도편지를 발송했다. 국내는 물론 남아시아, 동아시아, 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라시아,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의 기도편지가 후원사역부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졌다.

### 중보기도아발로 생령수

재능기부자들은 후원사역부를 섬기면서 선교사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창아 성도는 컴퓨터로 문서 작업하는 일을 한다. 그녀는 지난해 선교현금을 작성할 때 문서 작업도 재능 기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뜻 응했다. 본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혜와 시



후원사역부 재능기부자들이 중보기도자들에게 보낼 선교사기도편지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간 간감을 주셨다.

그녀는 후원사역부를 섬기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기계적으로 편집 작업을 할 때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었다.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샘솟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문소영 성도는 은누리교회 5년차 성도다. 지난 시간동안 영적으로 공급받은 것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어 후원사역부에 들어왔다. 그녀는 선교사들의 편지를 다듬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편지 일을 그

르칠까봐 걱정도 했지만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랬더니 감사와 사명감이 생겼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하나님 일은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고 품는 것이 우선이라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기도 없이는 해낼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상혁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후원사역부에 들어왔다. 그는 특별히 기부할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주 오세아니아 팀에서 기도편지를 만들었는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연덕 성도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에게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은 적은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면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중보기도아발로 생령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막연했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로

재능기부자들의 헌신이 중보기도 불을 일으켰다. 기도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선교사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이성명 집사는 기도편지를 받으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했다. 전에는 선교사를 위해 막연한 기도를 했다면 기도편지를 받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졌다고 했다. 선교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선교사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었다고 했다.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 매우 좋다고 했다. 이 집사는 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서 가지고 다닌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기 위해서다.

이 집사는 "많은 성도들이 재능기부와 중보기도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다"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annuri.org

## 인터뷰\_ 후원사역부 손정래 장로

### 후원사역부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원사역부의 목표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받아 기도편지를 제작해 중보기도 후원을 신청한 4000명의 성도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기도책자에 담고 있습니다. 선교현장에서 겪은 아픔도 듣고 마음, 좌절, 좌절, 두려움, 우울과 같은 마음의 병들을 토해낼 곳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선교사들을 위해 4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들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후원사역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들의 내면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기 어렵고 성도들에게 기도제목으로 올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편지에 담지 못

한 내용들은 후원사역부 팀원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번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의 기도제목을 발송했는데 성탄절 아침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설립 1년 만에 활약이 대단합니다. 올해 계획은 무엇입니까?

후원사역부를 처음 시작한 때 밑그림조차 없었습니다. 훈련된 팀도 아니었고요. 각자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넘쳐 의견충돌도 쉽지 않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고 마침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감동하고 중보기도 하게 하는 기도편지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밑바탕을 그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후원사역부의 초심입니다.

지난해에는 섬기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조

## "함께 선교합시다!"

작을 만들어 선교지 소식을 받는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는 후원사역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신시간으로 선교사와 성도가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 만드는 단계까지 접근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면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에게 신속하게 선교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도 활용할 것입니다. 은누리교회 전산 시스템인 '아이케어 에도'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공동체가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사역부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랑의 배달부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은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십시오. 함께 선교합시다.

/ 대담 조은실 기자



# 온누리 불어예배 신설

## 첫 예배 오늘 2시 양재 강의동 304호

불어예배가 신설됐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린다. '온누리 불어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4호에서 드린다. 프랑스에서 온 장 마르탱 베레 목사가 담당한다. 그는 온누리교회와 프랑스 개신교 교단 디모데미션의 지원을 받아 담당목사로 세워졌다.

오늘 첫 예배에서는 베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방산기 목사(직장지역연합 대표)와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가 축사를 한다.

### 불어권 복음화 위해

"불어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지와 프랑스 유학생, 불어권 국가 이주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온누리 불어예배 팀장 최윤 집사가 예배를 소개했다. 최 팀장에게 온누리 불어예배 신설은

각별하다. 그녀는 한국 최초 불·한성경을 만든 장본인이다. 오래전부터 불어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왔다.

최 팀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불어예배 신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시작하고 예배를 준비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불어예배를 갈망하던 예배자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기도모임을 하면 할수록 불어예배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온누리 불어예배 구성원은 대부분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통역과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특히 프랑스인 목회자 청빙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프랑스 정통 개신교 교단인 디모데미션의 베레 목사가 청빙되었고, 찬양사역자도 함께 오게 되었다.

예배를 위한 다양한 사역도 진행 중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최 팀장이 인도하는 불어성경공



오늘 온누리 불어예배 첫 예배를 드린다. 작년 5월부터 중보기도모임이 진행됐다.

부모님과 한 자매의 헌신으로 운영되는 불어 기초반, 중보기도모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베레 목사와 협력해 다양한 사역들을 지속할 계획이다. 불어권 선교훈련, 불어권 찬양집회 등도 계획 중이다.

최 팀장은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불어권 국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누리 불어예배 담당목사인 베레 목사가 소속된 프랑스 개신교 교단 디모데미션은 72년도에 사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베레 목사 부부는 유럽 지역을 돌며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문의: 010-6348-8737(불어)  
010-4336-0362(우리말)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강동, 일본 아웃리치 후기



/ 배선영 성도

##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 아웃리치는 한마디로 ‘힘을 빼는 아웃리치’였다. 나는 아웃리치를 가기 직전까지 과부하가 걸릴 만큼 일이 많았다.

짜증과 감사의 경계선에서 있는 내게 하나님은 매순간 감사를 선택하도록 훈련시키셨다. 그 훈련이 아웃리치로 이어졌다. 바쁜 일정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갔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다. 공항에서 나만 예약이 잘못 되어있던가, 내가 홈스테이 할 집이 출국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는 등 일이 어긋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예전 같으면 석연치 않은 마음에 ‘가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대로 모든 상황을 잠잠히 따르기로 했다.

진짜 믿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셨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극과 극을 체험했다. 한 곳은 거지말 조금 보태 호텔처럼 깔끔하고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다른 한 집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원룸이었다.

주인들도 집과 비슷한 인상이었다. 나는 일본에 잠시 머무르다 가는 사람이었기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불만을 가질 이유도 자격도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다. 이 세

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나는 지구 위에 잠시 머무르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조바심내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하루 힘을 빼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인생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한발 뒤로 물러서던 모습도 회개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싶었다.

힘을 빼니 주변이 달리 보였다.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직면할 수 있었다. 짧은 영어로 남부교회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했다. 서로의 기도제목도 나누고, 부엌에서 음식도 함께 만들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배운 아웃리치였다.

야마가타 남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순수한 모습도 봤다. 나는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작아짐을 느꼈다.

영적 전쟁터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와 웃음을 잃지 않는 오카 목사님 내외분과 가와카미 장로님 내외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2015 첫 선교사 파송식



# 나는 이래서 선교한다

##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로 8명 파송

오늘(18일), 올해 첫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된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도미니카 등지로 8명이 파송된 다.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왜 선교사로 헌신했을까.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0대 청년(단기)	40대 미혼(단기)	40대 가정(장기)	50대 갈렙(단기)	50대 가정(장기)
------------	------------	------------	------------	------------

**“복음에 빛진 자이기 때문에”**

**Grace 선교사, 르완다**  
Grace 선교사는 선교사 자녀다. 어린 적부터 선교사가 되는 상상을 해왔다. 실제로 선교를 꿈꾸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였다. 어릴 때 살았던 스리랑카와 다르게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 고민했다. 스리랑카에 대한 긍휼과 미국에 대한 분노가 공존했다. 그녀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 선교사로 살 것을 결심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칠 때쯤 단기선교를 준비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거룩의 기쁨을 쓴 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실체를 깨닫고 첫 꿈이자 자신의 바램이었던 선교를 내려놓았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구했고, 인권변호사라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그 꿈을 향해 가기 전 일년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선교를 가는 이유는 하나다. 복음의 빛진 자이기 때문이다. 가진 것은 열심과 열정뿐이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전진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김은총 선교사, 남아시아 H국**  
그녀는 은빛지공동체에서 부순장, 관장 등으로 섬겼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였다. 그녀는 선교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인식했었다. 어느 집회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주님!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자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로마서 10장 13-15절 말씀을 읽주일 내내 갖기에 확신을 낸 것처럼 들려주셨다. 단기 선교를 간 곳에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조롱과 비평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선교를 기다리는 혼란 자체가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그 시간 동안 더 신실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다. 그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제는 받은 것을 전파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삶을 드리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비파·수금 선교사, 남아시아 H국**  
우울증과 결벽증이 있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세주가 되신다면 만나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연아했던 아내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강건하게 하셨다. 첫째 아이가 불치병 판정을 받고 둘째 아이의 건강도 좋지 않아 치료받고 치유되는 과정에서였다. 아홉과일기계를 하던 그가 생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기도를 시키셨다. 하지만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아내의 반대도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아내의 입술을 통해 선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대로 응답하셨고, 그는 기계를 정리하고 선교훈련을 받았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알게 해주셨고, 부족한 재정을 통해서도 단련시키셨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에게는 바람이 하나 있다. 선교사 이전에 예배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예배자로 서있는 것이 꿈이다. 그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열방을 주의 제자 삼기위해”**

**Jason-Anne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가 정말 좋았다. 예배드리며 회복되고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 아내와 함께 여러 번 단기선교를 갔다. 예수전도단 ITSD도 다녀왔다. 선교의 열정이 이어졌다. 아내와 함께 때를 기다리며 선교사의 길을 준비했다. 지난 여름 작은 아들이 대학 들어간 후 아내와 함께 열방을 주의 제자로 삼는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축복이 더 많았고, 시간이 갈수록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는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장기선교사훈련을 받으면서 현장 선교사들의 강의를 듣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며 축복을 경험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복음전도와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안경사역과 자연농업을 도구로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의 비전이다.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소망하며”**

**Yohana-Anna 선교사, 아프리카 G국**  
나이가 들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였다. 손녀의 심장병 판정에 사원기도를 드렸다. 손녀의 회복과 새벽예배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아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로 헌신했다. 전문인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리카 G국에서 사역했다.  
늦은 나이라 언어습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삶의 경험들이 관계문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는 인생의 후반을 선교지에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믿는다. 그가 다시 아프리카 G국으로 나간다. 무슬림 마을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미 선교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선교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와 아내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빛진 자의 마음으로 간다고 고백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성품들이 착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듯이, 그들도 보이지 않지만 씨앗자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 / 선교 조은실 기자

\*은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853명은 70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15년 1월 14일 기준, 누계 1,734명)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일(11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 불어예배'가 첫 예배를 드렸다. 첫 예배에 120명이 참석했다. 뜨거운 호응이다. 지난 13일 온누리 불어예배를 담당하는 장 마르탱 베레 목사 부부를 만났다.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였지만 소명과 비전을 말할 때는 강한 어조로 바뀌었다.

온누리 불어예배 장 마르탱 베레 목사

“불어권 예배자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Q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어릴 때 두 명의 사촌이 죽었어요. 한 명은 익사했고 또 한명은 자살했어요. 사촌들의 죽음이 저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갔어요.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저주 받았어'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소프라노셨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집에 드나들었지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예수 속으로 도망가곤 했어요. 전시회를 가고, 콘서트를 다니면서 즐거움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면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기로 결정한 후 그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 저지의 말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이제껏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경험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죄에 대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어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후 프랑스 개신교 교단 디모데미션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곳 사람들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심이 저를 인도했어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내면에 있던 어두운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서 견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어두운 생각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어요!

아내도 디모데미션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디모데미션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섬겼고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가고 있었죠. 저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이후, 디모데미션에서 성경연구과정을 공부하고 선교사 양성 신학공부를 마쳤어요. 설교 말씀들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마약을 하거나 집이 없는 이웃들을 돌보아요. 가족캠프와 청년캠프 등의 사역도 했어요.

Q 해 오신 사역과 온누리 불어예배에 대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교역자로서 첫 사역지는 프랑스 남쪽 프로방스 도시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2-3년을 섬기고 벨기에로 이동했어요. 25년 동안 벨기에 브뤼셀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섬겼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곳의 교회들이 강건하게 세워졌고, 큰 교회로 확장했어요.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갔어요. 이번엔 동부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6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소식을 들었을 때 큰 평안이 있었어요. 아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누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듣고 한국행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불어권 예배자들을 말씀으로 강권하게 세워 그들이 불어권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소명을 주셨어요. 앞으로 동역자들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불어권 사람들과 불어권 국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대담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장 마르탱 베레 목사와 다니엘 베레 사모 (온누리 불어예배)

01

# CGNTV 드림통 수거 결과

## 1,371개, 3,011만 8,150원 모금



CGNTV 종이저금통 수거 결과 1,371개의 저금통에서 3,011만 8,150원이 모금됐다.

CGNTV는 지난날 28일 은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 설치한 종이저금통 '드림통'을 수거했다. 캠퍼스마다 설치된 대형 저금통에 성도들이 직접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235,000여 명의 정기후원자와 세계 각지에서 보내오는 후원금

으로 선교지를 살려온 CGNTV는 저금통 모금을 통해서도 '땅 끝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드림통'을 만들었다. '드림통'은 'DREAM(하나님의 꿈)'과 '통(통)'이라는 합성어다.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꿈, CGNTV로 뚫는다'는 의미다.

수거된 드림통에는 각각각색의 동전들이 담겨있었다. 외화 동전들이 가득 차있기도 했고 동전 대신 지폐가 채워

져있기도 했다. 집에서 모으던 돼지저금통 등을 들고 온 성도들도 있었다. 삼남매가 각각 모은 드림통에 이름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 기도문을 써 붙인 성도도 있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동근 땅의 모든 사람들이 CGNTV라는 하나님의 꿈의 난간에 감사하며 기쁘게 안기게 항상 도와주세요. 이 모든 고백을 하는 주 하나님님의 사랑을 땅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올립니다. 아멘" 이 밖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CGNTV의 방송선교 사명에 늘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CGNTV 드림통 후원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릴레이 형식으로 모금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CGNTV 드림통에 저금하고 있는 성도들은 4월 5일 부활주일에 교회로 가져오면 된다. 사경교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강동 캠퍼스에 대형수거함이 항상 비치되어 있다.

문의: 02-736-2243  
/ 감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코트디부아르)

## 그들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다녀와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이사를 갖고 몇몇 선도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저희에게 성도들이 그런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셨는지 저희에게 그들을 더욱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더욱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풍성해 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반대편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실수, 거짓, 속임, 불성실까지 사랑으로 덮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덮었을 텐데 말이죠. 실내온도 38도 이상 되는 날씨에 몇 안 되는 성도지만 힘차게 박수를 치며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 벤자민 천사의 뺑집 1호점(어린이

큐티방)에 갑니다. 처음과 다르게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큐티를 내놓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생계와 가사 노동을 위해 떠났습니다.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에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전 보다 아이들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모임을 갖고 아이들과 잠깐의 시간을 보내면 곧장 두플라포의 천사의 뺑집 2호 집에 갑니다. 2호점은 시작하지 석 달째입니다. 한참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학교아이들 150명, 지역 주변아이들 30여명이 와서 찬양을 배우고, 게임하고, 종이접기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반을 나누려 해도 선생님이 없어서 못했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지체를 만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두 반으로 나눠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빌린 학교에서 토요일에는 천사의 뺑집(어린이 큐티방)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은 부르크나파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슬람 구역입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간염이나 결핵에 걸린 환자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구석구석 다녔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코트디부아르 세례식 현장

# 아프리카에서 날아 온 기쁜 소식

## 성인 3명, 유아 3명 세례 받아

아프리카에서 세례식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이 들었다.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성인 세 명과 유아 세 명이 침례를 받았다.

세례식이 열리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평신도 신분이었던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 부부가 튀니지에 있는 표명한 선교사에게 세례침례를 부탁했는데, 비자문제로 세례식이 지연됐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었고, 지난 10일 드디어 감동적인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한국처럼 쉽지 않다. 무슬람이 점차 많아지는 것도 이유지만 세례식을 집행할 목회자가 부족하고 세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 세례식이 특별하고 기쁜 수밖에 없다.

### 세례식의 주인공들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 부부는 두란노 해외선교회(NM) 소속 선교사다. 2012년 5월 파송됐다. 2년 동안 현지 적응훈련과 언어훈련을 마치고 2014년부터 현지인 가정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10월부터 작은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그곳에 예배당이 되었다.

김 선교사 부부는 교회개혁과 어린이 큐티방 사역을 하고 있다. 어린이 큐티방은 무슬람들이 모여 사는 두 지역에서 하고 있다. 어린이 큐티방이 열리고 있는 한 지역은 이웃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곳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번에 세례 받은 성도는 푸레, 엘리자, 비비안이다. 유아도 세 명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더 있지만, 새신자과정과 세례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 먼저 세례를 주고 있다.

푸레 형제는 무슬람이었다. 그는 이웃 나라 방송과 신문에서 연일 테러와 폭력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고 있을 때 김 선교사 가정을 보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김 선교사 부부가 간행한 성경책과 큐티책을 읽고 변화되기 시작했다.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간단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김 선교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가 바로 김 선교사 부부가 현지인 가정과 함께 드린 첫 예배이자, 이곳에 개척한 첫 번째 교회다.

엘리자 자매는 부르키나 파소 사람이다. 교회가 시작되고 2주 후에 왔다. 임신한 상태로 와서 지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귀히 귀한 영혼 6명이 세례를 받았다.

금은 아기를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조이'다. 이 교회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다. 교회에 기쁨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김 선교사가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

비비안은 예배전양을 두고 있다. 전양을 매우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열정 넘치는 자매다. 이 세 명이 이번 세례식의 주인공들이다.

김 선교사 부부는 아프리카로 건너간 날부터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아프리카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제목이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

리가 어떻게 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김 선교사 부부는 세례 받은 성도들이 계속하 나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김 선교사 부부에게 가끔 전화로 묻는 것이 있다. ‘힘들지 않나, 괜찮냐’는 질문이다. 김 선교사의 답은 항상 똑같다.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annuri.org



### 세례명단

성인: 푸레, 엘리자, 비비안 / 유아: 조이, 사피, 파피

### 세례식을 마치고 표명한 선교사(튀니지 한인교회)

튀니지에서 모로코를 거쳐 9시간을 달려 코트디부아르의 아비 장에 도착했다.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의 미세먼지가 열개 드로워져 시야가 맑지 못했다.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과 열정으로 맺은 열매를 수확하는데 참가하는 기쁨이 나를 살리게 했다.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여섯 명의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세례식 장소인 강가에 도착했다. 어린이 세 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세례자들은 흰 천을 두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교사님 부부의 극진한 사랑과 기쁨이 풍만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강물은 다소 맑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였다.

간단한 예배와 세례 문답을 거쳐 나는 우리말로 김 선교사님은 불어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선포했다. 그들은 축복하며 강물에 그들의 몸을 담갔다. 침례를 배웠었다.

강가에 둘러서서 세례 장면을 지켜보는 교회 성도들도 부러운 듯 그려면서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함한 박수도 보내왔다.

감각스러운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모든 기쁨이 지난 2012년 여름 아프리카를 축복한 ‘블레싱 시하라’의 열매라는 것을 직감했다.

북부와 서부 아프리카를 축복하며 감동히 기도했던 담사를 회상했다. 그때 은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고 젊은이들의 이웃리지도 활발하게 진행됐었다. 그때 뿌린 씨앗이 소중한 열매를 맺은 것이 분명했다.

## 그때 뿌린 씨앗이

세례식이 끝나고 교회당으로 빌려 쓰고 있는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곳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땅 놀이기 사역하고 있는 김 선교사님 부부를 보았다. 무슬림 청년이 지열매 들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들과도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지 한인교회 새벽예배에도 늘 참석하며 영성을 유지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믿음직스러웠다.

이 땅에 더 많은 민음의 일꾼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세례식이 열린 것처럼 선교하기 더 어려운 주변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확산되기를 기도했다.

01

## 살기 좋은 마을로!

### 세네갈 본나바, 더 멋진 마을로 탈바꿈 중

사막에서 초록 식물들이 자라났다. 세네갈 본나바 마을 주민들이 매일 모래 땅에 물을 주면서 정성스레 농작물을 길렀다. 그렇게 수확한 농작물은 주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NGO더멋진세상은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더멋진마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식수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고,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장도 만들었다. 초등학교를 건축해 교육 사업도 하고 있다. 지금은 농업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새로운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세네갈 본나바 마을 인구의 84%가 농업 종사자다. 농업은 그들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다. 그런데 생산성이 낮아

마을 주민 대부분이 빈곤하다. 빈곤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소득 증대 사업이 절실한 이유다.

NGO더멋진세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확보와 농업전문 인력 양성, 시범농장 운영, 농업기술 지원, 농업도로 건설, 새마을연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득 증대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마을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 <농업 전문 컨설턴트 모집>

역할: 세네갈 농업개발사업 지원  
문의: 02-2271-2246 해외사업 담당자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

### 김영철 목사 취임·박영근 목사 이임

김영철 목사가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지난 주일(18일)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김영철 목사 취임·박영근 목사 이임 예배를 드렸다. 1년 동안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섬기

고 이임하는 박영근 목사는 "그동안 종교적인 제약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임 소감을 전했다. 김영철 목사는 취임사에서 "기도로 섬기는 목회자가



김영철 목사

되겠다. 하나님 이 하시는 일에 통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호치민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제2의 수도다. 경제 중심이자 정치·문화·교통의 중심지다.

/ 조은실 기자

03

## '러브소나타 교토' 화관제작 봉사자 모임

### 28일(13시), 29일(11시) ... 서빙고 신관 미션홀

사룬데코팀에서 4월 9일(목) 막으려는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에서 사용할 화관 제작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화관 제작 봉사자 모임을 오는 28일 오후 1시 미션홀에서 갖는다.

화관은 러브소나타 집회 결신축하 세리머니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꽃 중의 꽃이다. 러브소나타 대미를 장식하는 일등공신이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협력교회와 일본인들은 화관

을 보고 두 번 놀란다.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에 놀라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에 또 놀란다.

사룬데코팀 고문 류석인 권사는 "화관을 쓴다는 것은 죄가 씻겨 지고 정결해져서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라면서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71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청년과 선교

# 젊음으로 드리는 십일조

## 온누리 청년 선교사 세우는 'FA Movement'

'25 26 27'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나이다.

한국 최초 의료 선교사 알렌의 나이 25세, 근대 교육에 이바지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각각 26, 27세였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평균 28세에 파송되어 25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헌신해 선교지에서 삶을 바쳤다.

### 청년 선교에 사활을 걸다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런데 선교사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청년 선교사의 수는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누리교회는 청년선교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장·단기 선교사훈련 등을 통해 청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2010년 교회창립 25주년을 앞두고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와 전방 개척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청년 미션 프론티어스'를 시작했다. 대학청년을 주축으로 TIM(탄기리서치 전문인 선교사들) 일년 동안 파송하는 것이다. 동북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종족 및 지역에서 리서치와 선교지 개척사역, CGTV 통신원 역할을 수행했다.

2011년부터는 카운트다운 집회와 FA Movement(청년선교운동) 등을 통해 젊은 선교사들을 세웠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청년 선교사 발굴에 큰 기여를 했다. 많은 청년들이 무명 선교사, 후원 선교사, 단기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등으로 헌신했다.

카운트다운 집회는 'FA Movement'의 출발점



FA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단기 선교 지역이다. 전방개척지역에서 현지어와 문화를 배우고, 팀을 이뤄 복음을 증거한다.

이기도 하다. 첫 번째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18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탄생한 것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총 118명이 배출했다. FA를 다녀온 청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한 58명 중 40명 이상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FA선교사 모집합니다"

FA단기 선교는 국내 함축훈련(3주)을 거쳐 현장사역(5개월), 사역보고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전도훈련, 언어훈련, 공동체 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9월에 파송된 FA 7기 선교사들이 현장 사역을 마치고 이번 달에 돌아온다.

FA 홍보영상을 보고 선교를 결심한 최지연 자매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박진혜 자매는 예비 청년 선교사들에게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나 나라 누구든 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FA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8일부터 FA 8기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선교에 열정이 있고, 35세 이하 61년생 온누리교회 소속 대학청년이며 세례교인이다.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별 예배에서 배포되는 헌신 서약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8일까지, 서류심사 및 면접은 14일에 실시된다. 문의: 070-4464-8105, fa.vision2000@gmail.net

\*FA는 Frontier Agency movement의 약자로, 온누리교회 청년선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세워진 대학청년 단기 선교 사역이다.

/ 선교 조은길 기자 ces@onnuri.org



칼럼 김진웅 간사(두란노해외선교회, FA 담당)

## 기도! 전도! 말씀! 선교!

선교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있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행 2:17), 즐거이 헌신하며(시 110:3) 주께 나아왔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다. 비전을 본 청년들은 즐거이 헌신하였다. 즐거이 헌신했다는 것은 자발적인 결단의 행동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 청년들은 운동을 일으켰다. 진전도르프는 10대에 거저씨 모임을 만들어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운동을 일으켰고, 도대비안 교회와 함께 28년간 2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요한 웨슬리는 17세에 홀리클럽을 결성하여 복음운동과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운동을 일으켰고, 허드슨 테일러는 22대에 중국내지선교회를 만들어 30년간 6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캠프리치 7인도 이 시대에 등장했으며, 현대도 선교단체로 이어서 사역하고 있다. 사무엘 밀즈는 22대에 대학친구들과 비를 파하러다우

연히 시작한 건초더미에서 세계선교에 대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어, 57년간 20,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학생자원운동인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시작이 되었다. 때문에 사단은 청년들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는다. 비전을 빼앗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청년들의 비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좋은 직종,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은 그저 먼 곳의 일이 되었다. 비전을 발견해도 헌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모님과 가족, 취업과 결혼, 대출금으로 인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졌다. 좋은 직종을 얻고 사회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맛있는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어버렸다.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 개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은 청년들의 시그를 사로잡았다. 각자의 방면대로 움직일 뿐 연합하지 못하게 하였다. 기도회와 전도모임은 줄어들었고, 각종

세미나와 행사들은 풍성해졌다. 개인의 신앙성장을 위한 훈련은 많아졌고 대형집회는 화려해졌지만,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줄어들었고 선교 현장지는 감소되고 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청년'이라 부른다.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세계 복음화"는 SVM(학생자원운동)의 구호였다. 그들은 비전을 찾았고, 즐거이 헌신하여, 미국과 유럽의 청년들에게 선교운동을 일으켰다. 한국교회 청년들은 다시 비전을 찾아야 한다.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헌신해야 한다. 'Movement'를 일으켜야 한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선교운동! 우리 삶 속에서 이 운동들이 일어날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헌신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





## 21세기 선교 트렌드 ‘미디어 선교’



함태경 본부장  
(CGNTV 경영기획)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실든 좋은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라고 표현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방식은 중추전국시대에 돌입한 느낌을 준다.

아침에 TV로 최신 뉴스를,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자동차에서 DMB로 드라마를 본다. 와이브로 인터넷을 검색하는가 하면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 오픈미디어를 통해 쇼핑을 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대하고 접한다. 교회와 크리스천 또한 이 같은 생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 시대에 맞게 복음을 드러내는 틀

인간의 삶과 사고 생활방식 등 ‘변하는 실재들(The realities of change)’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변하지 않는 실재(Unchanged reality)’, 즉 ‘복음(Good news)’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전파하는 게 미디어 선교의 사명이다. 따라서 교회는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분야에 비판적이면서도 창조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방법론을 추진해야 한다. 반면 미디어가 과도하게 잘못 사용될 때는 ‘갑난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피조세계인 미디어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공간

### 변하지 않는 실재와 변하는 실재들의 융합

이 진정한 자유를 넘어 헌신과 유리된 공간을 정당화하고 인간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까지 용인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위헌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질서와 윤리를 파괴하고 잘못된 사고체계를 트렌드, 변혁, 대세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 갈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 등을 통해 기존 질서 내의 가정과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유포하고 성(性)과 신분을 숨긴 채 무제한적 죄의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배반담’을 쌓아가는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 종사자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세계관, 역사관에 따라서도 알다시피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미디어의 장단점을 어떻게 선교에 적용할지를 연구하는 동시에 과도하거나 잘못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미디어 선교와 THINK정신

선교적 미디어는 비기독교인의 영혼 구원, 거듭난 크리스천의 양육과 생활 정착, 또 다른 비기독교인의 기독교화라는 ‘자생선 선교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는 기독교적인 신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재정립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관리, 타겟팅, 업그레이드 능력, 후천적 특화된 전문성 등 ‘열린 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디어 선교의 가장 훌륭한 자질로 남달라 비해 넓고 깊은 상상력, 다루는 주제가 갖고 있는 복잡한 전체 모습을 가까이 탐구하려는 용기 등이 꼽히는 이유

이기도 하다.

미디어 선교에 있어 THINK정신이 요구된다. “T=True 진실하기, H=Help for 다른 이에게 도움 되는가, I=Important 중요한가, N=Necessary 필요한가, K=Kind 겸손이 담겨있는가” 콘텐츠를 명쾌하고 보다 깊이와 넓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 뒷받침된다면 THINK정신으로 미디어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가길 바란다.

우리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세상 속에서 선전을 보였던 걸 목격한 바 있다. 김우현 감독의 ‘팔복’ 이후 신현원 감독의 ‘소명’, 김종철 감독의 ‘회복’, 김성철 감독의 ‘제자, 육한흠’ 등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미디어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철저하게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살아있는 현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저 기독교의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해 연출된 드라마가 아니어야 한다. 생생처럼 팔복 뒤는 살아있는 현장성을 담아내 비기독교인들도 관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 이는 직업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에 모든 이들이 영광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재의 참신성을 세련되고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젊은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가치가 없다면 기독교영화라고 해도 결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과거 ‘소명’과 ‘회복’은 낯선 남미의 아카존과 예루살렘을 관객의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이는 미디어가 새롭게 구현 할 분야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과 지혜를 찾아가서 넣어주는 시대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찾아오는 시대다. 미디어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막고 있는 국가나 지

역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위성 내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막을 문은 점점 좁아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갖고 급속한 변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교회와 사회 간 괴리를 더욱 좁혀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모든 계층과 문화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미디어 선교에 보다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 자세가 필요하다. 미디어 선교에 나설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해 가는 한편 복음적이면서도 비기독교인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전문화, 특성화되지 않은 미디어는 흥미 유발 흡인력이 부족해서 설령 집중했다라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된다. 다양한 미디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용 자원을 연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목표를 잘 설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특화된 콘텐츠를 생산, 유통해야 한다. 사랑, 회복, 진실, 화해, 반성, 경의, 용서, 봉사, 배려 등의 신학 가치를 담은 문화와 콘텐츠를 적극 만들어 이를 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미션과 ‘글로벌 선교교역방송’이라는 비전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자는 CGNTV의 분발이 요구된다. 미디어는 가치관을 훈육하는 문화전쟁의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진실, 미움이 아니라 사랑, 불의가 아니라 공의, 그리고 이기적 욕심이 아니라 봉사와 배려의 가치를 존중하고 선한 가치를 담은 문화와 콘텐츠를 적극 전해야 한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현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01

# 개국 10주년 맞는 CGNTV '봄 개편'

## 4대 핵심가치 반영한 콘텐츠로 승부

(선교, 통일, 차세대, 하나님의 정의)

CGNTV가 봄 개편을 한다. 3월 개국 10주년을 맞이하는 CGNTV가 오는 2월 2일부터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다문화사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토크쇼 '지구촌 반상회', 미디어판 제지훈편 '청년제자프로젝트 RUN2', 다큐멘터리 '미션로드', 기획세미나 '김현욱 교수의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이야기' 등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스토리텔링이 강화된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한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하나님의 정의(사회선교)라는 4대 핵심가치에 따라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촌반상회'는 하나님의 정의(사회선교)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아나운서 박지윤씨가 진행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18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국내 이주 노동자와 여성, 유학생, 다문화사역 선교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문화차이에서 오는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나눈다. 글로벌 토크쇼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들을 고국으로 역파송해 자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도록 돕는 신개념 선교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3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첫 방송된다.

차세대를 위한 '청년제자프로젝트 RUN2'는 지난해 '청년전도프로젝트 RUN1'의 후속편이다. RUN1은 한국교회에 미디어를 통

한 청년전도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다. RUN2는 전도 이후 제자화 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갖가지 고민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청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 참여 토론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3월 5일 목요일 오후 10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CGNTV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선교를 담아낸 '미션로드'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낸 로드 다큐멘터리다. 두 명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태평양의 여러 섬, 아이티 등지를 다니면서 현지 문화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된 '통일복소리'도 새롭게 알찬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이번 봄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세대별 맞춤 시간대를 설정해 프로그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오전 시간대에는 말씀과 세미나를 집중 편성했다. 문화프로그램은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젊은 층이 주 시청자인 프로그램(RUN2 토크콘서트 힐링유)은 평일 늦은 시간대에 편성했다. RUN2는 목요일 오후 10시 50분, 토크콘서트 힐링유는 금요일 오후 10시 40분에 편성했다. 예배 및 집회 콘텐츠는 오후 9시 40분으로 편성했다.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설정한 '글로벌(글로벌+로컬) 선교교육방송'의 비전에 걸 맞는 새로운 선교 다큐멘터리도 준비하고 있다. 4대 핵심가치를 다루는 특집 다큐멘터리는 분기



별+로컬) 선교교육방송'의 비전에 걸 맞는 새로운 선교 다큐멘터리도 준비하고 있다. 4대 핵심가치를 다루는 특집 다큐멘터리는 분기

별로 방송될 예정이다.  
문의: 02-3275-9535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2000 선교, 비전컨퍼런스 개최

## 2015년 선교비전 공유하는 자리

2000선교 비전컨퍼런스가 오는 6일과 7일에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2000선교 비전컨퍼런스는 2015년 은누리교회 선교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선교 기관장들과 각 캠퍼스 선교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6일(금)은 특별 사역 준비 모임을 갖고, 7일(토) 오전 9시부터 비전 컨퍼런스가 시작된다. 예배, 선교본부 비전 발표, 캠퍼스 별 발표, 질의응답, 기도회 순으로 진행된다.

2015년 은누리교회 선교는 교회 창

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30주년 선교대회를 비롯해 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KGMLF)이 열린다. 중국선교, 일본선교, 차세대 선교 등을 주제로 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름 이웃리치, 목요일 선교집회, 여성 선교사리트릿, 목요일 교점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5년 2월 1일 1035호

- 01- CGNTV 개국 10주년 맞이 (봄 개편)(9면)
- 02- 2000선교 (비전컨퍼런스) 개최 예정 (9면)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서요셉, 황로즈 선교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도

“우리가 오늘 준 선물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이보다 더 엄청난데 크고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영생과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12월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 때문이지요. 성탄절 선물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NGO터넷전세상으로부터 겨울철 난민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겨울철을 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난방용 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을 제작해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특별 식료품 패키지와 크리스마스 카드(그들에게는 생애 처음인) 학용품, 스넥, 장난감 등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지난 2년간 씨를 뿌려왔던 M지역 110가정을 목표로 특별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25가정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했습니다. 나머지 85가정은 선물과 함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5가정 중에서 무려 38명이 그 이들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였을 뿐인데 그분은 우리들에게 38명의 새 생명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 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역팀 모두 기적과 같은 상황에 스스로 놀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성탄절 사역을 마친 후 바다에 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38명의 생명을 맡기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님 안에 접붙인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지난 2년간 방문사역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숫자들 모두 합하니 약 700여명이라는 새 생명이 저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부에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민사역과는 별도로 사역자들이 주말에 각자의 집에서 주변 사람들을 모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모임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사회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과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두 손 모아 주십시오.

현재 사역을 위해 일하는 현지인은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을 훌륭한 영적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난민사역만큼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제지양육에 있어 결국 현지인 대 현지인 사역이 절실합니다. 살아온 환경과 문화, 언어의 깊이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그들의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적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돈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절실합니다. 팀원들이 잘 성장하여 마지막 시대에 아랍권의 경건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 대학부 네팔 아웃리치 간증

## 내가 네팔에 가야하는 이유

아웃리치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외박이 힘든데 해외로 아웃리치 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서로 부딪혀서 감정소모를 할 바에 아예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해서 네팔 아웃리치를 생각나게 하셨다. 심분의 일 확률로 준비됐기를 했다.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두려워하던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셨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더더욱 알고 싶었다. 왜 굳이 내가, 수많은 나라들 중 왜 네팔을 가야하는지를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한 후부터 하나씩 알게 됐다. 나를 인원이 부족했던 부채충담 팀원으로 채우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외 아웃리치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 선교MC로서의 지경도 넓히셨다. 한국에서 간증으로만 듣던 공동체 파송 FA선교사들의 선교지를 볼 수 있게 하셨다.

무엇보다 나를 네팔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아웃리치 기간 동안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더 알게 하셨다.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중보기도조차 할 수 없던 나에게 히브리서 4장 15-16절의 말씀을 주셨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네팔을 향해 중보의 마음도 부여주셨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네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나의 힘과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리는 성경말씀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했다.

네팔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린 네팔 아웃리치였다.

/ 김민정(허브공동체)



대학부 지체들이 네팔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사진은 교토에 있는 기요미즈테라.

##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집 ... 전화·인터넷으로도 신청 4월 8~9일 비와코홀에서 막 올라, 이재훈 목사 설교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신청은 서빙고는 로비에 마련된 러브소나타 안내데스크에서,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전화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러브소나타 교토에서는 이재훈 목사가 설교하고,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플룻연주자 송솔나무, 가수 신수봉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교토 교계는 2013년 6월 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벌써 40개 협력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참가문의: 02) 749-1149. <관련기사 10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번엔 천년 고도(古都)교토다. 22번째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질 지역은 일본의 문화·교육 중심지 교토다.

오늘부터 3월 1일까지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4월 8-9일 교토 비와코홀에서 막 오른다.



유럽교회 위기에 비춰 본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 “섬기는 자들이 먼저 값을 치러야 합니다”

## 유럽교회 붕괴위기 ...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 대안은 본 보이는 어른들, 디모데미션 사례 배우자!



장 마르탱 베레 목사  
(은누리 불어예배)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열려하지 않고 인생을 즐긴다.”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 붙여진 글귀다. 영국 인본주의자협회에서 시작한 무신론 광고다. 무신론 버스 광고는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독일 등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다.

유럽교회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 무신론과 반기독교적 영향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유럽의 무슬림이 300%로 성장한 것에 비해 개신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세속화, 다원주의, 기독교 정체성 상실 등이 유럽교회의 퇴보를 낳았다.

필립 안시는 “결혼으로 비유하면 유럽은 이혼 위기, 한국은 신혼기를 마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유럽교회의 찬란했던 역사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을 무엇일까. 지난 1일 프랑스에서 온 장 마르탱 베레 목사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와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 위기의 유럽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프랑스 개신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입니다. 이슬람(6%)이 어느새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동성애나 임신 중절, 이혼 등을 옹호하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규교육에서도 성문제나 동성애에 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마련한 헌법초안에는 더 이상 신이나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럽이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럽교회가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교회가 젊은이들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유럽교회들은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잡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등 젊은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안이 있었습니까?**

“젊은이들은 종교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믿음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 어른들의 간증이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말씀이 삶으로 살아지고,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디모데미션에서 만든 찬양이 유행에 뒤처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찬양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말씀을 기쁨을 둔 찬양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디모데미션 사역의 열매를 부러워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젊은이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른들의 삶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돌아옵니다. 젊은이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결코 정죄 받지 않고 비판 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삶의 나눔이 있을 때 젊은이들은 교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디모데미션에서 한국으로 온 장 디비드 찬양사역자(20)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다졌

습니다. 그는 나눔을 통해 목사님들이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약진이 창창한 청년이지만 헌신에서 여가까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의 삶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미션은 프랑스의 성공적 교회모델로 손꼽힙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럽교회는 철학과 교리만 남아있거나 은사주의적인 곳이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 교회에 젊은이들은 실망합니다. 프랑스에도 극단주의적 교회가 많습니다. 디모데미션은 말씀에 기반을 둔 균형 있는 교회를 이루고자 시작했습니다.”

디모데미션에는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각 지역 30여 개의 교회가 디모데미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미션에서 훈련받은 장로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기 때문에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디모데미션은 신학생을 양성하는 성경공부와 찬양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디모데미션은 신수도 있었고 반대와 비방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디모데미션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개신교연맹 회장 클리르몽 목사가 “디모데미션을 파괴한다면 프랑스의 모든 개신

교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모든 비방과 공격으로 부터 막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있던 후 디모데미션이 공공에 아파지하는 기관으로 평가됐고 더 많은 후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채 또 어떤 공격으로 쌓아온 것들이 파괴될 지 모릅니다. 늘 그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는 것은 디모데미션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전임사역자로 일하지 않을 경우,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나 능력을 구비하도록 권합니다. 마치 유대인 랍비가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리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기술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풍요함이 있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직종과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나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축복을 나눠가집니다. 왜 그가 부엌에서 가서 일하고 자동차를 고치는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앞에서 다뤄나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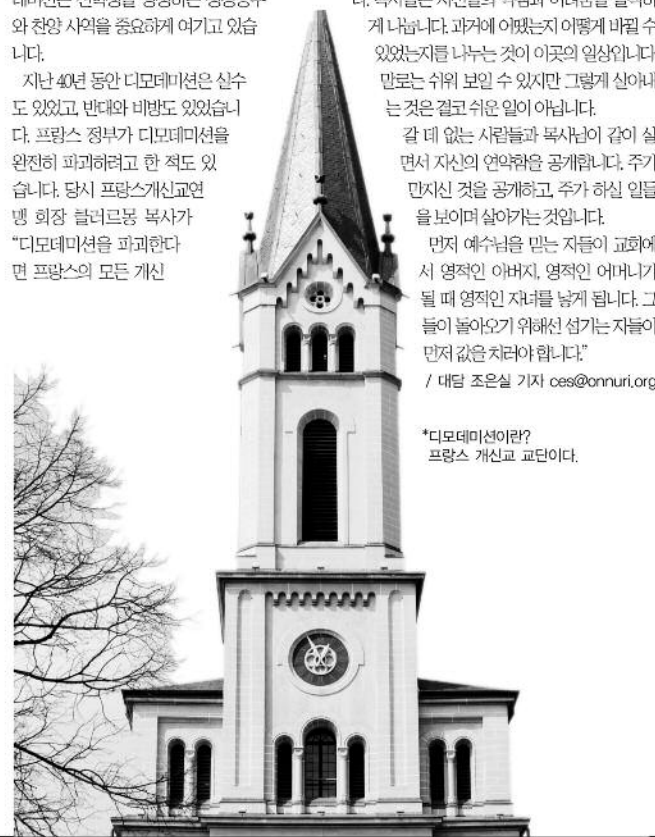
디모데미션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자신들의 약점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과거에 어렸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나누는 것이 이곳의 일상입니다. 말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 데 없는 사람들과 목사님이 같이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합니다. 주가 만지신 것을 공개하고, 주가 하신 일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될 때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먼저 값을 치러야 합니다.”

/ 대담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디모데미션이란?  
프랑스 개신교 교단이다.



01

## 22번째 러브소나타 교토

### 오늘부터 4주 동안 참가자 모집

오늘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를 모집한다. 러브소나타 교토는 오는 4월 8-9일 비와코홀에서 막 오른다. 주제는 만남이다. 교토 교계는 벌써 러브소나타 준비

가 한창이다. 2013년 6월 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번 집회를 준비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김하중 장로를 초청해 기도세미나를 열었고, 지난달 10일에는 3일 동안 귤기대회를 열었

다. 가야금 연주자 이승기 지메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기도 세미나와 귤기대회에 힘입어 현재까지 40개 교회가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지실행위원회는 10개 협력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는 시가현, 나라현, 오사키와 닿아 있는 대도시다. 756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의 문화, 역사수도였다. / 정현주 기자

02

#### ▪ 하늘공동체 네팔 아웃리치 간증



/ 류은경 성도

### “혹시 저를 안아주신 분인가요?”

아웃리치를 가기 전 나는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아웃리치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내게 네팔 아웃리치를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때 문득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네팔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순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풍선 하나 시장 하나에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조그마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반성했다.

예배 컨퍼런스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다. 기도시간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고, 약한 영이 득살대는 이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은 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예배 컨퍼런스 때 중보기도실에서 회개기도를 했다. 주님께서 내게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르고 속삭였던 나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이곳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시간에 내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여자를 안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네팔어로 여러 번 말해주었다.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텅 빈 맘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을 떠올렸다. 계속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주님께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녀가 잠잠해졌다. 그렇게 그녀를 주님께 맡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똑같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었다.

기도시간이 끝나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네팔 여자가 내게 와 물었다. “혹시 기도하실 때 저를 안아주신 분인가요?” 그렇다고 하자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누군가가 안아주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고맙다고 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 누군기를 치유해 주신 것을 처음 경험했다.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고 주님을 우선시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부족한 나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수많은 네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고경미 간사의 위클리 공감 (디자인실)

▪ I AM KENJI



분쟁지역 참상을 알리던 독실한 기독교인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다. 전쟁과 기근으로 희망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려 갔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의 목숨을 건 사명감을 기억하고,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서권능, 김민을 선교사

## 감격스러울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 명의 여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 두 명은 아내와 함께 한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짧은 수업 후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었던 그녀들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 그녀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회계사 사무소의 직원입니다. 일 때문에 우리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때 아내는 1층 식당에서 다른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온 그녀에게 들어왔다 가라고 말하고는 식당과 연결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비한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니?”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녀를 보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로 원하니?” 그랬더니 싱글 싱글 웃으면서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영접기도 후에는 참례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참례가 뭔지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참례를 받겠다고 했다는 소식에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참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A지역의 추운 날씨와 참례식 장소, 따뜻한 물 준비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곳이 바로 우리집 욕조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번갈아가면서 누워보고 욕조에서의 참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회계사 무소 사장님(집사님) 부부도 초청했습니다. 샬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참례식 몇 시간 전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출장으로 지방에 가게되어서 참례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맥이 풀렸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녀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대화를 통해 참례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참례를 받기 전에 만남을 통해 성경을 더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가 그녀와 나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회계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와 현지인 사역자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었던 평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그 평안을 자기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믿고 싶고, 성경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감격의 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날씨도 풀리겠지요. 더 좋은 참례식 장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01



지난 7일(토),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에 선교 기관들과 국내 10개 캠퍼스 리더십이 한자리에 모였다.

# 온누리 선교 30년, 그리고 미래

##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선교대회·여름 아웃리치 등 논의

지난 7일(토),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가 열렸다. 선교 기관들과 국내 10개 캠퍼스 선교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비전을 공유했다. '앞으로의 온누리교회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가장 주목할 것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30주년 선교대회다. 5년 이상 파송

선교사를 초대해 지난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선교비전과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 주제는 '블레신 차세대'로 정해졌다. 국가가 아닌 세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아주민 사역도 강화된다. 아주민 성도들을 위한 M센터 건축 공사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일본

선교에 대한 포럼 등도 개최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복음 걸고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교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2월 16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에서 풍성한 영적추수가 이뤄지도록
- 2월 17일(화) 사찰과 신사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 2월 18일(수) 일본 교회들과 대학들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 2월 19일(목) 100개의 협력교회가 세워져 연합과 일치 일어나도록
- 2월 20일(금) 1,800명의 전도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 2월 21일(토) 이재훈 목사님과 강사진들에게 성령의 권세가 더해지도록
- 2월 22일(일) 중보기도자들과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01

**온누리M미션 소식**

### 이주민 위한 구정수련회 개최

이주민들을 위한 구정수련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네팔, 몽골,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등 온누리미션 12개 예배공동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수련회를 진행

한다. 영성훈련, 전도, 교제와 친목도모의 시간을 갖는다.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6(온누리교회),  
문의: 02-3215-3730

02

### 이슬람 선교 세미나 개최

온누리M미션 아랍예배에서 이슬람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7주에 걸쳐 진행된다. 현지인 전도자로부터 이슬람 선교를 위한 올바른 접근법을 배운다.  
중동지역 국가에서 25년 동안 의료

선교 및 의료 선교사양성에 헌신한 현지인 의료인의 강의로 이어진다. 장소는 서빙고 B102호(매달 첫 주일만 선교관 402호).  
문의: 박미애 010-3259-3561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3

###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식지 발간

#### 선교지 이야기 담아 배포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소식지를 발간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선교 행진 소식을 알리고자 올해부터 소식을 발간했다.  
지역현장과 선교사 이야기,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 이야기, 선교 스톨 소개,

예비 선교사 소감 인터뷰 등이 담겨 있다.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된다. 전화와 메일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고 하용조 목사의 선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다.  
문의: 02-794-1063  
tim1996@hotmail.com





 권사칼럼 박경희 권사

## 한담사역, 함께 하실래요? (선교지에 인형 만들어 보내기)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전도용으로 코사지를 만들어 해외비전교회로 보내는 하나의 선행으로 생각했다. 알록달록한 감사 카드도 넣었다. 하나하나 포장해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짧은 메모도 함께 적어 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선행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그 간증은 내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선교하느라 자녀와 놀아주지 못해 생긴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혼자 놀다 상처 난 다리에 구더기가 꼬물거리는 것을 본 선교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셨다. 선교사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정말 많이 아팠다고 하셨다.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선교사 자녀들과 현지 아이들을 위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면 밖에서 혼자 놀다 다칠 일이 없을 것이고 선교사님도 자녀 걱정 없이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형 만드는 작업은 정말 어려웠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자제가 부족할 때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에는 감사함이 커졌다.

빈민국 아이들에게 인형의 가치는 상상

을 초월한다. 낮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인형의 가치는 엄청나다. 잘 때도 꼭 안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울먹이는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은혜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고백을 하고 싶다. 나 한 사람 살아가기도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우리 주변에 힘없고 소망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인형이 선교사님들께 기쁨을 주고 주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 작은 정성과 사랑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 졌을 때 큰 기적이 된다는 것을 수년 동안 경험했다.

‘한담사역’이라는 명칭으로 인형을 선교사들 자녀들에게 보낸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작년 성탄절에는 64명의 선교사들에게 인형 99여 개를 보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사역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심도 많이 느낀다.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이 섬김의 기쁨을 많은 성도들도 나눠보면 좋겠다.

문의: 010-4788-0560

01

## 2015 선교헌금 112억 작성

### 27,276명 동참, 재능기부 801명

2015년 선교헌금 작성 결과가 집계됐다. 27,276명이 112억 원을 작성했다. 재능기부 후원도 이어졌다. 선교사 기도편지 교정교열 112명, 소식지 디자인 53명, 영어번역 253명, 웹 프로그램 16명, 중보기도 367명 등 총 801명이 재능기부를 했다.

올해 봉헌한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 선교지역지원, 선교사 복지, 차세대 선교자원 동원, 통일선교 준비, 북한선교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이주민 선교, 새터민선교, 외부선교 유관기관 지원, 30주년 선교대회 및 국제 선교 포럼을 개최하는 데 사용된다.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기기 위해 새해 첫 주일과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올해는 1월 4일과 11일에 선교헌금 작성행사를 실시했다.

문의: 02-3215-3616(선교헌금), 070-4949-7882(재능기부)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오늘부터 이슬람 선교 세미나 시작

### 7주 동안 매주일 오후 1시

이슬람 선교 세미나가 열린다. 온누리미션 소속 아랍예배 주관으로 열리는 '2015 이슬람 선교 세미나'가 오늘(1일)부터 4월 12일까지 오후 1시 서빙고 B102호와 402호에서 진행된다. 이슬람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이슬람 개관, 이슬람 전도에 대한 관점, 이람권 향후 전망, 이슬람에서의 죄와 용서의 개념, 코란이 말하는 예수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아랍 의료 전문 선교사 역자 닥터 존(Dr. John)과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가 한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이슬람을 믿는 아랍권 선교를 지속해왔다.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의료사역, 마을개발 등의 사역을 했다. 2011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세웠다.

문의: 박미애(010-3259-3561)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03



- 3월 2일(월) 22번째 러브소나타로 일본선교의 열매 성취 계기 되도록
- 3월 3일(화) 교토의 4월 관광시즌이 영적인 혼란함을 주지 못하도록
- 3월 4일(수) 지역교회들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 3월 5일(목) 100개의 협력교회와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예비되도록
- 3월 6일(금) 모든 강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권세가 더해지도록
- 3월 7일(토)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일본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 3월 8일(일) 봉사자, 스태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2015년 3월 1일 1038호

- 01- 2015 선교헌금 작성 집계 결과(10면), • 02- 온누리미션 아랍예배 주관 (2015 이슬람 선교 세미나) 시작(10면)
- 03-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2-8)(10면)



01

# “잠자는 스마트폰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 FMnC, ‘스마트바이블 사역’ 시작! ... 8일과 15일 중고 스마트폰 수거



스마트바이블로 영상성경을 시청하는 캄보디아 오지마을 주민.



대학살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 국민의 40~50대 대부분이 글을 모른다고 한다.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쥐줘야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도로 통신시설이 미흡해 라디오나 TV시청이 어려운 지역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존의 선교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스마트바이블 사역’이 제격이다.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 있고, 글을 몰라도 영상이나 오디오로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도 밝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주기도 빠르다. 사람이나 짐통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한 영혼을 살리는 유용한 선교도구가 될 수 있다.

/ 정지은·정현주 기자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스마트바이블팀에서 오늘(8일)과 다음 주일(15일) 안 쓰는 중고 스마트폰을 기증받는다. 수거된 중고 스마트폰에 1,000여개 언어로 번역된 한자어 성경과 오디오 성경, 설교 영상 등을 담아 선교지로 보내기 위해서다. 기증받은 스마트폰은 복사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를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삭제하고 나서 오디오와 영상으로 된 성경 자료를 담아 선교지로 보낸다. 통화기능이 아니라 선교지의 디지털 성경과 복음 콘텐츠(영

화, 영상, 오디오)로 활용된다. 이 같은 IT선교는 그동안 해외만 선교방범(선교사 파송, 성경책 보내기, 인터넷과 위성방송에 의한 선교활동 등에 제약이 많은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른바 ‘스마트바이블’ 사역이다.

**IT 사역이 왜 필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선교하

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무슬림 국가와 공산 국가에서는 선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일도 있었다. 또한 문맹이 많아 성경책이 있어도 소용없는 곳이 많다. UN통계에 따르면 세계 70억 인구 중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명 정도가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975년에서 1978년 사이 폴포트 정권이 일으킨

**\*선교단체 FMnC는**  
복음전파가 제한된 지역을 위해 IT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펴고 있는 초교파 선교단체다. 2014년 1월 스마트바이블 사역과 팀을 구성해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 스마트바이블을 보내고 있다. 1,000여 언어로 된 말씀 자료 확보와 미디어를 스마트폰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한 기술적 도움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문의: FMnC 스마트바이블팀 070-7500-6244  
후원계좌: 국민은행 040001-04-134698  
우편기증: 137-82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2 오션빌딩3층 스마트바이블 담당자 앞

02



칼럼 이승훈 집사(온누리 IT전략위원회)

## IT선교 중심에 ‘온누리 IT전략위원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부터 언더테이커의 강연장에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남지만 5명만이 남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주하게 마이크를 세팅하고, 노트북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시자마자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능청사라 열심히 적었다.

제자들도 덩달아 비웠다. 태블릿PC에 적는 제자, 영상을 담는 제자,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하는 제자, 음량과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제자, 와이파이가 장착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제자 등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5명만이 남는 청중들도 일제히 자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녹음하고, 녹음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해시태그와 메타태그로 데이터베이스화되었고, 텍스트와 동영상과 같은 수많은 2차 콘텐츠로 가공되어 세상 끝까지 번져가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전세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려오자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

신상수훈이 지금 있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복음

이 전파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제한이 없다. 우리는 IT라고 하는 정보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IT는 실시간 시대이기도 하다. 모든 정보가 동일한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IT라는 도구를 등에 업고 전파된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광범위하게 도달할 수 있다. 위성통신 하나면 오지와 산간에도 인터넷이 연결되고, 와이파이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휴대용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을 통해 내 신앙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긴급하게 중보기도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모바일과 IT 기술은 이 시대의 위대한 선교의 도구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세상과 복음이 소통하게 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다.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미래사역을 위한 닦을 올렸다. 2015년 1월 온누리 IT전략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IT를 도구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 다듬고 생산하고 활용하게 된다. IT사역은 성인뿐만 아니라 자녀대를 위한 사역이기도 하다. 복음을 기쁨이나 쾌락 없이 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다. 미래세대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로 복음을 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항상 가까이 둘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 기획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온누리 IT전략위원회에서는 많은 동역자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께서 주신 달란트가 IT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역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달란트가 IT와 상관없어도 기도와 좋은 아이디어를 쥐도 좋다. IT사역을 통해 지금이 풍성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힘이 더 세질 것이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와 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IT를 활용한 선교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공동체다. 온누리 IT전략위원회에서는 함께 동역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IT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는 성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김준도 총무 (010-8846-1031)

2015년 3월 8일 1039호

- 01-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스마트바이블’ 사역 소개(2면)
- 02- <칼럼> IT선교 중심에 ‘온누리 IT전략위원회’가 있다 : 이승훈 집사(온누리 IT전략위원회)(2면)



청년들을 만나다

# 다시 한 번 부흥 꿈꾼다 'J4U공동체'

모두 하나 되어 섬기고,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J4U공동체는 오직 예수, 오직 섬김으로 또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J4U공동체(담당 조준복 목사)는 2004년 3월 7일 창립했다. 올해 11주년이 되는 청년부터 주일 오전 11시 30분 양재 은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평균 예배인원은 460명이다.

J4U공동체가 창립된 계기가 흥미롭다. 2004년 서빙고 은누리교회에서 당시 대학, 청년부가 연합해 20~30대를 위한 맞춤형도전회를 3일 동안 개최했다. 그 전도집회를 통해 약 70명의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들이 J4U공동체의 주축이 되었다.

당시 전도집회에 참여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청년들의 열정은 매우 뜨거웠다. 그들과 함께 많은 목사들과 멘토들이 하나 되어 J4U공동체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렇게 세가지족들을 위한 청년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집회 이름 그대로 공동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J4U는 'Just for You'를 의미한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다. J4U공동체는 공동체 양육뿐만 아니라 안산 M센터에 있는 캄보디아 지체들도 섬기고 있다. 또 탈북청소년들을 1:1로 멘토링하는 '우리샘' 사역도 하고 있다. 강남 파스파이어학원 11층 카페에서 매일 새벽기도회도 열고 있다.

J4U공동체는 다시 한 번 부흥을 꿈꾸고 있다. '생명이 이기다'는 표어를 내걸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나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준복 목사도 열두 명의 멘토, MC단, 그룹장, 사역팀장, 순회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구슬땀 흘리고 있다. 큐티, 관계전도훈련, CDC를 통한 리더십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 새로운 기쁨과 활력소

안산 M센터 사역은 자신에게 선물이라고 말하는 J4U공동체 배종한 형제를 만났다.

백 형제는 J4U공동체 새신자반에 있을 때 설날 안산 M센터 사역에 대한 광고를 봤다고 한다. "그 때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투병 중이셔서 연휴에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안산 M센터 사역에 지원을 했어요"

그는 M센터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 특별하다고 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이었다고 했다.

"명절에 봉사활동을 간다는 것도 처음 해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 여러 가지 일로 즐거울 게 없던 저에게 새로운 기쁨과 활력소를 찾아주었어"

그 경험이 사역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한 달에 한번 안산 M센터를 방문해 캄보디아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안산 M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캄보디아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있다.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섬기면서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고 와요. 이 사역을 경험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저와 같은 고백을 해요. 이 사역은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을 얻는 의미 있는 사역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살기위해서 M센터 사역을 한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 가족처럼 중보기도하는

J4U공동체에서는 '우리샘'이라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습멘토링도 섬기고 있다. 우리샘은 2013년 10월부터 탈북청소년들을 섬기고 싶어 지원한 10여명의 지체들이 시작했다.

장혜진 사제는 2013년 2월 초 한터공동체에서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사역을 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2013년 9월부터는 하나공동체와 한터공동체의 탈북청소년 학습 멘토링도 함께 의뢰받았다. 그렇게 J4U공동체 태인아웃리치 사역팀과 함께 학습멘토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역을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사역"이라고 소개했다. 이 사역을 섬기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고 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하나님이 탈북청년들을 세우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샘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현준 기자 khj@omnuri.org



청년, 하나님을 만나다 구은영 자매

## 이제는 받은 사랑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나는 J4U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서 크게 3가지 말씀이 가슴에 남는다. 2013년 1월 상경 후 입부 부단과 인강관계 갈등으로 절망 속에서 있었다. 결단 말영한 반성회가 되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16)

J4U공동체에 처음 갔던 날은 공동체 9주년이었다. 공동체 모두가 9주년 축하하는데 마치 나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왜 하면 그날이 내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9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주님은 내가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나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싶었다. 그렇게 2달 동안 주어로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서 혼자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2013년 7월 그날부터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 음성으로, 말씀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요한 임재를 느끼게 해주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값없이 받은 은혜에 내 시간,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고 싶다고 사원했다. 그렇게 선교의 마음을 가진지 1년 만에 'FA 7기'로 북아프리카 T국으로 다녀오게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웬만하긴 했지만 지난 세월이 짧거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명으로 나를 강하고 단단하고 사랑스럽게 키우고 계셨다. 나의 슬픔과 아픔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를 다녀온 후 깨달은 것은 어떤 곳이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인에서 사람이 흐르는 건강한 J4U공동체 주심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또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 흘러보내는 자로 선 것이다.



01

# NGO 더멋진세상, 또 하나의 열매

## 세네갈 현지 초등학교 준공식 및 증축 공사 기공식



공사 전 갈대로 만든 학교



공사 후 현대식 건물

NGO 더멋진세상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이번엔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마 마을에 케르발라 초등학교를 세웠다. 2층 증축공사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2일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마 마을에서 케르발라 초등학교 준공식 및 2층 증축 공사

기공식이 거행됐다. 행사에는 세네갈 고위공직자와 NGO 더멋진세상 리더십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귀빈과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4년 범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주)두산의 후원으로 세네갈 본나마 마을에 초등학교 건축사업을 시작했다.

자재 부족과 공사비 상승, 라미단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했다. 케르발라 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의 부러움을 사는 명소가 되었다.

간대를 엮어 만든 한 칸짜리 교실에서 세 학년이 함께 공부하던 허름한 학교가 이제는 콘

크리트 건물로 탈바꿈했다. 네 개의 교실과 태양광 전기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거듭났다. 한명 뿐이던 교사도 세 명이 총합 네 명으로 늘었다. 그새 70명에 불과했던 학생도 250명으로 늘었다. 이제는 전기시설도 갖추고 있어 야간에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준공식에서 축사를 위해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가 연단에 서자 주민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추면서 큰소리로 'Better World'를 연주했다.

축사에서 김광동 장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모자보건 사업과 농업개발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세네갈 본나마 마을은 NGO 더멋진세상이 3년째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집중지역이다. KOICA 봉사단원을 보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식수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 김원원 부장 one@omnuri.org

02

## 안산 M센터 신축기공예배

### 이주민, 다문화가정 사역 확장 및 예배공간 확보

안산M센터 신축기공예배를 3월 10일 오후 3시에 드린다. 예배에는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누리M센터 신축부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0-2번지다. 연건평 906평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

이다.

1998년부터 이주민선교를 시작한 온누리M미션은 이주민사역과 다문화가정사역,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새로운 M센터 건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문의: 온누리M센터 031-491-9650

/ 정현주 기자

2015년 3월 8일 1039호

- 01-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마 마을 케르발라 초등학교 준공식 및 증축 공사 기공식(10면)
- 02- 안산M센터 : 신축기공예배 일정 안내(10면)

01

## 안산M센터, 특별한 세례식

### TIM 신입선교사가 직접 전도한 4인

지난 삼일절, 안산M센터에서 특별한 세례식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세례를 줬다.

이번 세례식의 주인공이 두란노해 외선교회(TIM) 신입 선교사들이 직접 전도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는 점이 특별했다. 외국인 노동자 키산(네팔), 중국 유학생 왕승(한족), 스리랑카인과

국제결혼한 노해영, 조선족 김창선이 세례를 받았다.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는 신입 선교사에게 TFO(Tim Field Operation) 선교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5기 TFO 훈련생들은 안산에서 두 달 동안 합숙하며 교회 개척 및 전도훈련을 받았다.

02



### 주간 기 · 도 · 제 · 목

- 3월 9일(월) 일본선교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회가 되도록
- 3월 10일(화) 대규모 사찰, 최대 관광시즌으로 인한 영적혼란이 없도록
- 3월 11일(수) 냉랭한 한일 분위기가 집회에 방해를 주지 못하도록
- 3월 12일(목) 교토, 시가현, 오사카, 간사이에 100개 협력교회가 세워지도록
- 3월 13일(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생기도록
- 3월 14일(토) 이재훈 목사님께 말씀과 상령의 권세가 더해지도록
- 3월 15일(일) 교회세미나를 통해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 온누리미션 구정수련회 후기



##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

/ 양윤희 선교사(온누리미션 태국예배봉사자)

지난 구정 연휴 기간에 ‘예수 안의 진정한 자유’라는 주제로 캠프가 진행되었다. 김포의 한 수양원에 태국인 근로자들이 모였다. 이 캠프를 위해 태국 방콕 마하판교회에서 짜까판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9명의 준비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들은 숙소가 좁고,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평도 없이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캠프에 참여한 지체들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캠프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하지만 캠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에 태국인 참가자들 중에 그 누구도 실족한 사람이 없었다. 언어와 문화차이를 뛰어 넘어 한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태국 근로자들을 위한 이번 캠프는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줬다. 태국인들도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일날 한국어를 가르치던 유난히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친구 ‘뱀’을 비롯한 두 명의 태국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수확도 있었다. 이번 캠프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게도 정말 큰 기쁨이었다. 캠프에 참여한 태국인 근로

자들 중에는 사정상 부모형제를 고국에 두고 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도 받는 시간에는 설움이 북받쳤는지 통곡을 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또한 태국에 4년 정도 있었다. 당시 나그네로서의 외로움과 언어와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기억난다. 그들 또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캠프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캠프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의 간증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 그들의 나라로 역파송 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선교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다. 선교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다. 선교지에 가지 못한 크리스천을 위해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가르치고, 섬기며, 역파송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기를 소망한다.

**2015년 2차 선교사 파송**

신사라 남아시아 H국  
아삽 중동 E국  
박하늘 일본  
박다윗 남아시아 H국  
최한나 남아시아 F국  
채필립/조이풀 중동 A국  
갈렘/브리스가 남아시아 M국



# SNS 목회시대



함태경 본부장  
(CGNTV 경영기획본부)

## SNS, 목회자와 성도 간 거리 좁혀주고, 다음세대와의 접촉점 본질은 진정성, SNS란 그릇에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느냐 중요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은 세계를 하나의 영역으로 융합하면서 기존의 의사소통체계 혁신과 세대를 초월한 '융합', '다양', '연결'이라는 '신문화(New Culture)'를 탄생시켰다. 이는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만 얽매이지 않는 열린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이끌어내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를 가능하게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 이하 SNS) 시대를 활짝 열었다.

SNS로 대표되는 온라인 사회연결망은 관계 맺기, 추천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실시간성, 쌍방향성, 확장성 등 이용자 간 원심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파괴력을 높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다. SNS는 '네트워크화된 대중(Networked Publics)'을 출현시켜 친교를 뛰어넘어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시대를 살아가는 데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세대 구분은 맞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익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사이버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격차와 개선된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세대 구분을 초월한 '소셜네트워크세대'는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보다 감성적이고 신속성을 담보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인정을 갈구하고 있다. 이 같은 혁명적 메카니즘은 예측이 어려운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생활과 사회변동을 초래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SNS,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이자 삶의 문화

과거는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던 현재는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일방적인 메시지는 보다 나은 정보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보는 나눌수록 풍부해지고 공감각수, 감동지수를 더욱 높여 준다. '개방', '참여', '공유'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에 따라 경험을 판매하고 경험을 소비하는 '경험 만능주의'를 만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SNS는 전 지구적으로 편지한 생활의 일부가 됐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페이스북, 구글플러스와 같은 보편화된 SNS 외에도 스냅챗(Snapchat), 텀블러(Tumblr)와 같은 비교적 신흥 SNS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장르별, 지역별로 특정 SNS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장르별로는 사진SNS인 인스타그램(Instagram), 소셜뉴스서비스인 레딧(Reddit) 등이, 국가별로는 중국의 텐센트 웨이보(Tencent Weibo), 남미지역의 오르컷(Orkut) 등이 글로벌 SNS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SNS 이용 추이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은 평균 31.3%에 달했다. 2012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3.3%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10대(48.7%), 30대(46.9%), 40대(28.8%) 순으로 조사됐다. SNS 이용자 하루 평균 이용량은 72.8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3명 당 1명이 하루 1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SNS 서비스사별 이용률을 보면 카카오톡이 56.4%로 1위를 차지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그 뒤를 이었다. 이용률 순위는 2012년, 2013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톡이 2012년 31.5%에서 2013년 56.4%로 239%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SNS 서비스는 모두 감소해 서비스사별 이용률 격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SNS 서비스 1위사로 이용률이 집중된 것을 볼 때 사용자들이 몰릴수록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의 경과와 경쟁에 따라 SNS 서비스별로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대중이 SNS를 외면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크리스천의 경우는 어떠한가.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복사, 강도사, 진도사 등 교역자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교회정보화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 66%는 목회현장에서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현장에서의 SNS 사용 현황조사'에서 'SNS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질문에 245명(69%)이 '그렇다'고 답했다. 'SNS(메신저) 서비스'를 목회현장에서 사용 중이냐'는 질문에는 180명(66%)이 '그렇다'고 답했다. 사용 중인 서비스(중복 포함)는 카카오톡 241명(63%), 페이스북 157명(22%), 카카오톡 134명(19%), 네이버 밴드 85명(12%), 다음 마이피플 47명(7%), 트위터 31명(4%), 구글플러스 12명(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52% 즉 목회자

2명 중 1명은 국민연인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5명의 목회자중 1명꼴로 이용하고 있다.

### SNS, 목회생태계도 바꾼다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가능성은 목회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 목회가 시간과 장소 대상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면 SNS의 발달에 따라 현대 목회는 오프라인 온라인 상 전천후 케어 시스텍의 필요를 요구받게 됐다. SNS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질문과 응답을 원활하게 하고 내면의 세계까지 깊숙이 드러나게 하는 등 '신앙생활의 개인화'와 '복음의 집중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독교전문조사기관 비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SNS가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 목회자 비율이 2011년 51%에서 2013년 65%로 높아졌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목회에도 스마트폰의 활용이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서울에서 사는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일 서울시가 만 19살 이상 이주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88.3%가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이용률(42.1%)과 견줘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집에서 인터넷을 하려면 퇴근 뒤 시간을 내야 하지만 모바일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소외 계층이나 빈곤계층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주노동자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70%로 카메라 블로그(28.4%) 이용 비율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페이스북 등이 외국인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제공되고 교회의 가족들과도 연락하기 쉽다는 측면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NS목회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크다. 140자 이하의 단문 메시지를 올리는 트위터, 글 내용이 중심이 되는 페이스북과 더불어 사진 꾸미기 가능 등으로 젊은 세대, 특히 20-30대 여성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SNS가 SNS 목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젊은 층의 경우 복잡한 문자보다 사진, 동영상 등 더 선호하기에 그에 맞는 사이버상의 목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리야에 따르면 2013년 1월 인스타그램의 월간 이용자는 22만430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현재 31만5600여명으로 14배 급성장을 보였다. 2010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인스타그

램은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월 평균 이용자가 3억 명을 돌파했다. 트위터(월 이용자 2억8400만 명)를 제치고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2위로 등극했다.

SNS목회가 가장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심방과 교회 내 각종 모임의 풍경이다.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신방이 1세대 버전, 교회나 직장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심방이 2세대 버전이라면 SNS는 수시로 심방하는 3세대 버전 기능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순례는 구역모임 등 교회 내 모임 공지와 실시간 대화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을 통해 이뤄지면서 시간과 공간, 대상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SNS는 목회자도 성도도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만큼 따뜻한 말 한 마디가 막힌 벽을 열 수 있다.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모두 공유할 수도 있다. 맞닥에서 찍은 인증샷 여행지에서 찍은 동 등 이야기거리가 풍부하다. 성도들과의 교체만 아니라 부모역자, 임직자, 예배봉사자 등 다양한 그룹과의 나눔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것도 SNS의 장점이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목회자들과도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자연히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SNS를 통해 설교나 신앙고백을 손쉽게 접하면서 믿음은 키워나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초신자의 후기부터 신학적인 성숙까지 어떤 주제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또 SNS에선 한 사용자 가 잘못된 신앙관을 표현했을 경우 다른 여러 사용자들의 조언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SNS는 신교회의 생생한 소식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SNS, 활용하기 나름인 '전인적 놀이'

현재 적잖은 목회자들이 SNS를 커뮤니케이션과 목회, 사역 도우미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민 거리를 속삭여 털어놓아서 SNS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목회자도 있다. 트위터는 팔신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은 성도들의 신앙과 일상의 조언 등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 목회자는 수시로 성경 묵상 내용과 감동, 일상의 단상 등을 올려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나누었던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페이스북보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호하는 목회자도 있다. 페이스북은 최대 5000명까지 친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준비하라



목회자들은 SNS상에서 이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 '상황화된' 복음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어떤 목회자는 SNS상에서 젊은이들이 의도성을 갖고 접근하는 걸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매우 조심스럽게 애용한다. 다양한 글과 영상, 만화, 사진이미지 등의 정보가 넘쳐나는 교회의 페이스북도 있다. 이 때문에 '패션의 '좋아요'와 댓글이 넘쳐나기도 한다. 어떤 목회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직접 목상하고 싶고한 동영상상을 올린다. 페이스북 친구들과 트위터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간절히 기도한다.

SNS를 선호하는 목회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모두가 게슴츠름을 때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다."

"목회를 오래 하다보면 기성세대와의 소통엔 능하지만 다음세대와는 어딘지 모르게 간극이 있을 수 있는데 SNS는 미래세대와의 접촉점을 구축해줘 그들의 고민을 읽어내고 최선의 처방전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는 데없이 좋은 연결고리다."

목회자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SNS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특히 기독교 연예인의 경우 기독교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을 녹여낸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인들의 감사, 행복, 축복의 글들이 실제로 화제가 되기도 한다.

SNS의 강점은 무엇일까. 목회자와 성도 간 거리를 좁혀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SNS를 통해 궁금했던 질문들을 할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상담을 일일이 대응해줄 수 있다. 1대 1 또는 1대 다수의 쌍방향 소통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대 기독교인들의 접촉점도 넓힐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도 목회자의 권면은 용기와 희망, 믿음을 갖는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에게 특정 사상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일방적 관계보다 쌍방향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피드백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단시간에 나와 다른 삶과 생각을 접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한다. SNS가 '디지털 시대의 노방전도, 광장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평민이나 속담, 기독교 명언을 활용해 복음이나 신앙생활의 핵심가치를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고 강력한 멘트로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도 필요하다. 페이스북 친구나 트위터 팔로워 중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접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짧은 문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전도 대상자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3초 내외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SNS를 통해 전파하면 트위터의 반경 1km 지역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발굴해 관계를 맺는 뒤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는 게 있다. CGNTV가 지난 9월 잠정화면을 활용한 'CGNTV8보나' 앱을 출시한 것도 스마트폰을 켜 때마다 성경말씀, 명언, 개인 또는 중보기도문, 그날의 소식을 보고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친구들이 올리는 댓글을 보다 보면 목회자의 자량이 넓어질 수 있다. 물론 빨리 반응을 보인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SNS 중독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유일한 삶의 공간으로 착각해 할 것의 우선순위를 SNS에 둘 수 있다. 또 경제학이 할 것은 SNS상에 글이 일단 노출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SNS 가운데 폐쇄적인 카카오톡, 밴드와는 달리 개방적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닫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의 밑거름이 되거나 인터넷과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 친구가 상당한 유명 목회자의 경우 '정의가 지나치면 불의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수많은 비판 댓글이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SNS는 자칫 불필요하게 날선 공방이 오가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문제 제기와 반박, 재반박, 찬반 의견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SNS의 특성상 자칫 간단한 토론마저 감정싸움으로 변질된다. 사이버 이데올로기 SNS로 믿음이 깊지 않은 성도들을 미혹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 살펴보니 특정 이단 세력을 옹호하는 글을 자주 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돈다. 전문가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지나치게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배대에

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집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SNS의 글을 보며 묵상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영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SNS 목회자는 축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 목회자 가운데 트위터 팔로워가 18만41000명에 달하는 목회자가 있지만 타종교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 유명 스님은 트위터 팔로워가 9만2000여명에 이른다. 미국 목회자와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팔로워 158만명, 존 맥스웰 박사는 팔로워 12만7000명에 달한다. 미국 목회자들은 SNS 활용 플랫폼으로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비메오(vimeo) 동영상 클립 공유사이트, 유튜브, 플리커(licar) 태그 기반 인터넷 앨범 서비스 등을 폭넓게 사용한다. 팟캐스트와 어플도 활용한다. 한국의 경우 팟캐스트가 교회의 크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역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떠올라 목회자나 교회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늘지만 인기 순위 영향력에서는 일반 콘텐츠와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유명 스타의 경우 종교영역을 넘어 일반영역에서조차 최상위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SNS의 본질은 진정성이다. 오랜 시간 자신이 스스로 자처한 삶의 절학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소통이 아닌 순간적으로 통한지 모르지만 결코 길게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공감을 받기 어렵다. 발개이츠의 경우 그가 은퇴한 후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는데 일부 긍정적인 이미지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제프 시겔부터 스스로 자선에 대한 일관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SNS가 한 개인의 이미지를 단순히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하는데 사용과는 시대적 전달 매체 내지 단능소통매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SNS의 특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40자 빠른 소통과 확산이

가능한 트위터를 전단체제로 삼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사진, 동영상, 정문의 글 등 보다 많은 정보를 모아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페이스북으로 연동, 통합시키는 방식이 그 예이다.

복음의 본질은 농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그 복음을 어떤 도구로 통해 전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가 당근을 먹지 않는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당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듯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 중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SNS이다. SNS 활용이 아직은 교회나 목회자를 알리는 홍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SNS란 그것에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SNS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회자 대상 미디어교육이 시급하다. 인터넷이 각광을 받던 때와 마찬가지로 SNS 역시 목회와 선교 목적을 달성할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 내용이 단순하거나 관형적이지 않아야 한다.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SNS 플랫폼 변화도 시도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달라진다. 급변하는 매체를 어떻게 거북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된 삶의 영역이 패버린 SNS를 통해 변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전적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기성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디지털 변화가 SNS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교회와 기독교 리더십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료선교팀 CMN의 해외사역 모습. 마지막 사진은 올해 설에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드림팀 사역 모습.

# 재난과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 청진기 들고 땅 끝 누비는 의료선교팀 'CMN'

“예수께서 골라리에 두루 다니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마 4:23)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일을 동시에 하셨다. 치유는 예수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백인(백해)의 선교사들도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병원을 세우고 질병을 치료했다. 선교하는 교회 온누리교회도 일찍부터 의료선교팀을 만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다. 청진기 들고 땅 끝까지 가는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 의료선교의 선봉장

의료선교팀 CMN은 1989년에 만들어졌다. 5개 팀이 자발적으로 시작해왔다. 2006년 동남아시아 쓰촨시 피해지역과 2008년 강원도 대유도 수

해시베 발생지역에 의료선교팀과 긴급재난구조팀을 파견하면서 의료선교팀의 사회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8년 9월 램프온(Lamp On)을 발족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기존 의료팀을 CMN으로 묶어 의료선교의 선봉장이 되었다.

CMN은 현장사역, 지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장사역팀은 의료사역을 하고 있다. 7개(다하임팀, BEE팀, 마.이팀, 드림팀, 라파팀, 토브팀, 샬롬팀)가 있다.

다하임팀은 의료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달 둘째 주일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다. 3월 보은 화남교회, 4월 예산 한마음교회, 5월 부여 칠산교회, 6월 황성 초원교회를 섬김 예정이다.

BEE팀은 7개 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미용팀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매달 둘째 주일에는 농어촌 미지리교회와 외국인 근로자교회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서울여 노숙자들을 섬긴다. 마노이팀

은 매달 셋째 주일 농어촌교회를 방문한다. 3월 강화도교회, 4월과 9월 양지 비전빌리지, 5월과 10월 광택 온누리교회, 6월 강원 양구 시온감리교회, 12월 인천 아가페사역을 찾아갈 예정이다.

드림팀은 삶을 나누는 공동체다. 매주 토요일 정기 모임을 하고 있다. 매달 둘째 주일에는 김포 M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다.

라파팀은 매주일 사빈고 온누리교회에서 진료 봉사(4시-6시)를 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일에는 안산 M센터에서 진료봉사(3시-6시)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008년도분부와 연계해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 가정의 1차 진료를 해 줄 예정이다.

토브팀은 양재 온누리교회의 유일한 의료선교팀이다. 매달 첫째, 셋째 주일에 탈북민을 위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넷째 주일에는 한중사랑교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섬기고 있다.

샬롬팀은 수원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매월 둘째 주일 안산 M센터에서 섬기고 있다. 구미 도개중앙교회와 광택 기지촌여성들도 섬

기고 있다.

지원팀은 이미용, 수기치료, 발마사지, 헤어, 국악 영상사진 찍어주기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봉사 외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용, 수기치료, 발마사지는 매년 2회 수훈을 열고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네트워크팀은 중보기도, 악무, 선교사케어, 의료데스크팀이 있다. 중보기도팀은 '매일 그리고 꾸준히'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도제목과 큐티 나눔을 남긴다.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악무팀은 악보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선교사케어팀은 해외 거주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 상담 및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료데스크팀은 주말마다 교회로비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즉시 모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교회 주요행사 때에도 의료데스크를 운영한다.

CMN은 재난과 환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이 협력하는 사역팀이다. 의료봉사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회참여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

문의: 오천병 강사 02-3215-3786

### CMN 드림팀 아웃리치 간증



/ 이도희 집사와 가족들(CMN 드림팀)

##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깊이 만나주셨다

우리 가족은 설 연휴기간 동안 휴가를 즐겁게 획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아웃리치를 가지고 밟았다. 아이들과 나는 안 가겠다고 버텼다. 해님은 나와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었다. 온 가족이 함께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나는 육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왜 해님께서 우리 가족을 그곳에 보내셨는지 궁금했다. 내가 소속된 CMN 드림팀은 주제 말씀과 개인 기도제목을 놓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반제보다 해님은 있는 것을 원하노라"(호 6:6)가 주제 말

씀이었다. 해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였다. 기도제목은 해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웃리치가 되는 것, 해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되는 것, 5박 6일간의 일정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었다. 5박 6일 일정은 힘들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팔렘방으로,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8시간 타고 푸꾸물리로 이동해야 했다. 사역지들 네 곳이나 옮겨다녀야 하는 바쁜 일정

이었다. 빠듯한 일정 탓에 다른 곳을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이 시간동안 근심, 걱정, 세상생각 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해님께서 내게 주신 치과외사라는 달린트를 통해 성도들과 주민들을 섬길 수 있었다. 그 나눔의 현장 속에서 해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시는 평안이 어떤 느낌인지,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다.

마지막 날 저녁에 현지 교인들과 연합한 성령집회가 열렸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곳의 형제지매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때 나는 육함을 깨뜨리지 못하고 옮겨주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영적으로 장님이었음을 깨달았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눈물은 회개와 눈물, 인도네시아를 위한 눈물, 푸꾸물리교회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단절되었던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는 선물까지 얻었다.

이어서 현지 형제지매들이 준비한 세족식이 있었다. 세족을 받을 때 그 손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느껴졌다. 나는 끝마로 반응했다.

"저를 제사 삼으려고 이곳으로 부르셨군요"

이런 아웃리치를 통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해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기쁨의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해님의 흔적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아웃리치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깊이 만나주셨다.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인준한 울타리로 옮겨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응하며 살고 싶다.



#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 감사패 증정식 주인공 김흥순·이은희 부부, 유우선 집사



NGO '더멋진세상' 고액후원자 감사패 증정식. 김흥순·이은희 부부(왼쪽 두번째)와 유우선 집사(오른쪽 두번째)

지난 11일 서빙고 담임목사실, 국제개발NGO '더멋진세상(Better World)' 후원자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주인공은 김흥순, 이은희(소망교회) 집사 부부와 유우선 집사(은누리교회)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흥순, 이은희 부부는 병상에서 가격적으로 회복하게 된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기부로 표현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살리기 사업'에 지정 기부했다. 유우선 집사는 자신의 사업 이익의 10%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NGO 더멋진세상 회장 이재훈 목사,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 김창욱 전도사가 참석했다.

이재훈 목사는 "오늘 감사패를 받은 분들은 육신의 이쁨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기부하고, 기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일을 몸소 보여줬다. 귀한 헌신과 나눔이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것"이라며 축복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유우선 집사는 찬양팀서품용기 판매 및 영업 대행을 하고 있는 '해피콜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업 이익의 십일조를 NGO '더멋진세상'에 기부하고 있다.

행복한 율터란 뜻의 회사 이름처럼,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율터가 되고 있다. 연말에 기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월 기부로 바꿨다. 또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군에 NGO 더멋진세상 마크를 넣었다. 기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 NGO 더멋진세상을 홍보하고 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유우선 집사. 그가 NGO '더멋진세상'에 기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25년간 대기업에서 회사생활을 했어요. 잘나가는 회사원이었지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유 집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은누리교회가 큰 몫을 했다. 그때 맺은 교회와의 인연이 NGO 더멋진세상으로 이어졌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NGO 더멋진세상이 막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 회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 집사는 지금의 회사가 하나님에 허락한 기업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해피씨단을 설립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이익의 50%까지 기부하는 회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 제게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하는 돈을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십일조가 아니라 절반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수중에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 집사가 말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아깝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지기 정신으로 기부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국제개발NGO '더멋진세상'은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문적,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세계 속에서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NGO다. 2010년 12월 출범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 지역 긴급 구호를 시작, 도움이 필요로 한 지구촌 곳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 환우 초청 수술지원, 대북지원, 아프리카 의료지원 및 식수개선, 어린이 양육 및 교육지원,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후원자는 약 4,100여 명 정도다. 오는 4월 19일 정기 후원 약정 행사를 통해 만 명의 후원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네갈 준공식 현장에서 고대선 부장(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

## 건물 그 이상의 의미

좁고 건조한 모래가 사막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세네갈 뽀바 마을. 이곳이 한바탕 잔치로 들쭉했다. 예쁜 옷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달려왔다. 외진 시골인 뽀바 마을에 세네갈 해양수산부장관과 교육장, 경찰국장, 시장 등 고위 정부 인사들과 한국대사, KOICA 관계자도 방문했다. 시골 초등학교 준공식이 정부 행사라 된 것 같았다.

나는 NGO 더멋진세상 본부 스텝으로서 케르발라 초등학교 준공식에 참가했다. 환상적인 모래안 눈에 들어오는 메디슨 땅에 듬직하게 서 있는 학교 건물을 보니 단층 건물이지만 멋이 보였다. 우측에 설치한 태양광 판넬은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었다. 파카운 햇살을 피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이 비추고 있지만 교실 속은 산방가리는 바람을 코끝으로 음미할 수 있을 만큼 쾌적하고 시원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기에 다행이라 생각되어 마음이 놓였다.

깨끗한 콘크리트 건물에 넓적하고 환한 교실을 둘러보지만, 예전에 한 칸짜리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3개 학년이 수업했다는 사

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태양광 판넬 설치로 어두운 시간에도 교실에 불을 밝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마을 근동에 소문이 자자했다. 신세로 건축 후에 아이들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진행된 준공식은 저학년 아이들의 중창과 고학년 아이들의 단막극에서 정점을 찍었다. 마치 개그 프로그램의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했다. 교사와 마을 지도자를 흥내 내며 펼치는 아이들의 연기에 주민들은 공감이라도 한 듯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현지어를 알아듣지 못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추측만 할 뿐이었지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웃음을 보고 있으니 나도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아제 보았던 이슬람학교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마을의 이슬람학교 가정집 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30여 명의 아이들이 이 조그만 칠판 앞에 모여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학교는 교란을 가르치는 무슬림 학교이고, 아이들은 교란을 임용하며 이슬람 교리를 배운다고 한다. 일반 공교육이 아닌 케르발라 초등학교에

도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이런 조그마한 시골에도 이슬람의 영향력은 차세대를 향해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무슬림들의 마을인 뽀바 마을에 들어와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보건소에 약품을 지원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 마을에서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도 영연이 깨끗한 차세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들이 학업을 집중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들도 언젠가 그 사랑에 마음을 열 때가 오리라 믿는다.

땀감을 위해 머리에 나뭇짐을 지고 시간 날 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뽀바 아이들. 때때로 머리카락이 도란을 빼워야 하는 아이에게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더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 사랑의 씨앗이 마을을 진정 더 멋진 마을로 변화시켜갈 기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01

# CGNTV, 10주년 맞아 또 한 번 도약

## 4대 가치에 걸 맞는 프로그램 제작 및 모바일앱 출시

CGN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또 한 번 도약을 다짐했다. CGNTV는 올해 사회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선교를 4대 가치로 정하고, 이에 걸맞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모바일앱을 출시했다.

CGNTV가 올해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다문화사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토크쇼 '지구촌 반상회', 미디어판 제자훈련 청년제자프로

젝트 'RUN', CGNTV 4대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개국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내한 선교사 130주년을 되돌아보는 '블랙마운틴(가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모두 스토리텔링이 강화된 프로그램들이다.

지난 3월 9일에는 'CGNTV 하모니' 모바일앱을 공식 출시했다. 'CGNTV 하모니' 앱은 한국교회와 기관, 성도간

의 소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CGNTV 하모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성경 구절, 중보기도문, 명언 등을 볼 수 있다. 배경화면 제공, 성경통독, 테마 동영상연결, 그룹기능도 있다.

/ 김현준 기자

02



안산M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 안산M센터 기공예배

###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10월 완공예정

지난 10일, 안산 원곡동에 온누리M센터 신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주민 사역, 다문화가정 사역 확장 및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을 시작했다. 연건평 906평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진다. 새로 지어진 M센터는 예배실 다

문화사역, 사회서비스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오는 10월 완공예정이다.

문의: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정현주 기자

03

## 전문인선교학교 OPMS 참가자 모집

### 3월 17일부터 참가 신청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Onnuri Professional Mission School, OPMS)가 개강을 앞두고 3월 17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는 두란노서원 101호에서 4월 25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60만원이다. 7-8월 중에는 여름 아웃리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문인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나 해외자비량선교 BAM(Business As Mission)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온누리전문선교학교 OPMS는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를 훈련, 양성하는 선교학교다.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는 선교사 신분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비즈니스 등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성경책은 못 들고 가지만 상품은 들 어갈 수 있다. 교회는 못 세우지만 기업은 세울 수 있다. 다양하게 변하는 세계 선교환경 속에서 전문인선교학교 OPMS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의: opmstim@gmail.com, 010-9685-3577

/ 정현주 기자

04



### 주간 기·도·제·목

- 3월 16일(월) 일본선교의 새로운 결실을 맺는 집회되도록
- 3월 17일(화) 사찰, 신도, 관광철로 인한 영적 혼란을 이겨내도록
- 3월 18일(수) 한일간 정치문제가 집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 3월 19일(목) 100개 협력교회를 세우고,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생기도록
- 3월 20일(금) 출연진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권세가 더하도록
- 3월 21일(토) 스태프들이 기쁨과 감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 3월 22일(일) 모든 참가자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2015년 3월 15일 1040호

• 01-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4대 가치 지정 및 프로그램 제작(10면)  
• 02- 안산M센터 신축 기공예배(10면), • 03-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참가자 모집(10면), • 04-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16-22)(10면)





# 앨버틴, LA, 샌디에이고,

## 지역사회와 교회, 다음세대 위한 사역 한창 해외비전교회는 지금 책임목회제 도입 중

Acts29비전이 선포된 이후 국내에는 10개 캠퍼스가, 해외에는 30개 비전교회로 세워졌다. 2008년 하용조 목사는 Acts29비전선포와 함께 30개 해외비전교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 온누리 해외비전교회 가 문을 열고 열방으로 흩어졌다. 동경과 우에다 온누리 해외비전교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중국 대련과 단둥, 그리고 미주지역에 13개의 비전교회로 세워졌다.

해외비전교회의 시초는 앨버틴 온누리교회다. Acts29 비전이 선포되기 전에 세워졌다. 하용조 목사가 미국 앨버틴 지역을 방문해 “아곳에 교회를 세우자”고 단정 말 한마디에 당시 그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한 장로가 순종하면서 2003년 8월 10일 앨버틴 온누리교회가 문을 열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온누리 해외비전교회의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진 앨버틴 온누리교회를 탐방했다. 인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도 방문했다. 그곳에서 Acts29 비전을 안수하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미주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였다.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있는 앨버틴, 그 돌파구를 찾아라 'ACTS29 NOW'**



앨버틴 교역자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앨버틴은 오펜하이퍼에 있는 기업형 도시다. 앨버틴의 첫 인상은 타 도시에 비해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적인 느낌이다. 앨버틴 온누리교회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유명한 부촌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에 위치해있다. 주변에는 새들백교회, 마린러스교회 등 대형교회가 있다.

잠보리(Lamboree) 로드에서 위치한 앨버틴 온누리교회는 올해 12년 된 소년이다. 2012년 1월 담당목사로 부임한 권혁빈 목사와 20여 명의 교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다. 앨버틴에는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한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한 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다. 수십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해를 거듭하며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다.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있다. 캘리포니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영적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적 시스템이 반기독교적으로 변했다. 나라의 후원을 받는 단체들도 기독교적 색채를 띠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앨버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세속화가 더 심하다고 여겨도 무방하다. 동상이가 합법화

됐고, 미화나도 합법화가 되기 직전이다. 외국인의 거주율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앨버틴 온누리교회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수년 동안 고민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노력이 앨버틴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에 선포한 'ACTS29 NOW' 비전이다.

ACTS29 NOW비전은 Acts29비전과 NOW의 합성어다. NOW의 'N'은 'New'로 새로운, 차세대를 위한 사역을 의미한다. 'O'는 'Out reaching'으로 선교를 위한 운동이다. 'W'는 'Wave Making'이다. 파도를 만들어내는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뜻한다. Acts29 비전을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맞게 재해석한 결론이다. 앨버틴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방향이다.

### 지역교회와 사회, 다음 세대 위한 '따뜻한 교회, 다가서는 교회'

앨버틴 온누리교회는 한마디로 역동적인 교회다. 지역교회와 연합해 여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다. 앨버틴 사회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노숙인 사역을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선교에 집중하는 해다. 전도팀을 재구성하고 '따뜻한 교회, 다가서는 교회'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초신자에게 친근한 교회,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시작했다.

권혁빈 목사는 “앨버틴 지역과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앨버틴 온누리교회가 가야 할 더 낮은 곳은 믿지 않는 영혼과 불신문화”라고 했다. 비기독교화된 된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접촉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버틴 온누리교회는 ‘대안적인 이민교회’를 콘셉트로 정했다. 온누리교회가 이민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에너지를 밖으로 사회로 선교로 향하게 하는 대안이 되자는 것이다. 권 목사는 “지난 10여년은 소년이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눈을 떠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최근에는 차세대를 위한 ‘교육 로드맵’을 완성했다. 전도팀을 구성해 캠페인을 벌이고 초신자를 위한 성경공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계획 중이다.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한글학교와 제2언어노, 도자기공예, 영어공부반 등이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축제도 구상 중이다.

### 미주비전교회 섬기는 OMA

앨버틴은 ‘OMA(Onnuri Mission Alliance)’의 본부다. OMA에는 13개 교회가 속해있다. OMA의 목적은 각 지역사회에 맞는 미주 온누리교회를 만들어 Acts29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OMA는 미주교회를 섬기는 ‘듣는 자’이다.

최근 OMA에서는 차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각 교회의 차세대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OMA는 법적으로 교단화 되는 과정에

있다. OMA에 소속된 교회들은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인다. 미국교회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진행한다. 일 년에 한 번 강단교류도 하고 있다.

### 선교를 위해 전력질주 LA 온누리교회

다음 방문지는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온누리교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LAX) 공항과 30여분 거리에 있다. 교회 근처에 코리아타운이 있어 한국교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LA 온누리교회가 위치한 사우스 그랜드뷰 가리를 걸었다. 옛스러운 한국사람들이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LA 온누리교회는 이 거리와 맞닿아 있다. LA 온누리교회는 2층짜리 복조건물이다. 예배당과 교육부실, 새가족실 등이 있다. 1층에는 유치원이 있다.



이정범 목사와 LA 성도들.

LA 온누리교회는 앨버틴 다음으로 창립된 미주 비전교회다. 초창기에는 원서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은행과 백화점이 많은 ‘월서 길’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2008년 이름을 LA 온누리교회로 변경했다. LA 온누리교회는 도훈한 목사와 인평목사 다음으로 2010년 11월 세 번째 담임목사로 이정범 목사가 부임해 사역하고 있다.

LA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 TMA(Tim America) 선교센터 본부도 LA 온누리교회에 있다. TMA는 미주 비전교회의 선교지원을 발굴해 동원사역을 하는 본부다. 남미 선교를 집중적으로 돕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에서 두 블록 정도 가면 ‘올버린도’ 길에 있다. 그곳은 라틴노(Latina, 라틴계 사람들)의 명동이라고 불린다. 또 교회에서 2-3시간 거리에 멕시코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LA 온누리교회는 라틴아메리카 선교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LA 온누리교회와 선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 몽족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작년부터 LA 온누리교회는 ‘몽족사역’에 힘쓰고 있다. 몽족은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접경지역에 사는 민족이다. 중국 민족 중에서도 4-5만명으로 많은 수를 자랑한다. 몽족은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을 대신해 전쟁을 치렀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몽족에게 땅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 베트남전쟁



#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탐방

으로 인해 많은 몽족 남자들이 사망했다. 약속도 몰 건너가 버렸다. 당시 몽족 지도자가 미국의 서약서를 들고 외사(외사)들을 불러 모아 아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 일을 계기로 몽족 주민들은 전쟁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미국으로 정착민명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미국에 온 몽족이 2만 명이나 된다. 그중 5만명 명이 LA 온누리교회에서 3시간 반 떨어진 '프레즈노' 지역에 산다.

LA 온누리교회는 매월 토요일에 한 번 왕복 7시간을 이동해 몽족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연다. 몽족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는 3개의 지역교회와 연합해 진행되고 있다. 그 덕에 매주 빠짐없이 성경학교를 열 수 있게 됐다. 100명의 몽족 아이들이 모이는 귀한 사역이다.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해 예배, 찬양, 리더십 등도 가르치고 있다. 몽족 리더십을 양성하고 배출해 자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몽족사역은 LA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하다. 포대를 선기고 선교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파워워십 청소년 20-30명이 참여하고 있다.

## 해외비전교회, 책임목회제 도입 5월, LA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위임

LA 온누리교회는 6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예배 처소를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전에 교회가 있던 곳과는 10일 떨어진 곳에 있다. 걸어서 15분 거리이다.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도 이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위기를 겪었다. LA에 한인교회가 400개나 있다 보니 더 가까운 교회, 더 섬겨주는 교회를 찾았던 것이다. 어느 곳에는 같은 빌딩에 한인교회가 일곱 개나 있다고 한다.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주어진 것이다.

한번은 교회를 섬기던 집사 한 분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목회자의 잦은 이동 때문이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목사에게 자신의 장례식 설교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담임목사의 잦은 교체에 따른 교회의 변화, 정든 목회자를 떠나 보내는 성도들의 아쉬움, 목회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해외비전교회 가 어려움을 겪자 온누리 해외비전교회의 본부는 지난해 7월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책임목회제'다. 2-3년에 한 번씩 담임목사가 바뀌는 국내와 달리 해외비전교회는 사정을 감안해 책임목회제를 도입했다. 교회와 성도를 단단히 성장시키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다. LA 온누리교회는 오는 5월 25일(토) 이정엽 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위임식을 한다. 비전교회에서 최초로 임명되는 담임목사다. 책임목회제는 사역지에서 2년 이상 목회를 한 담임목사 중에 본인이 그 사역지에 남기로 결정하면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고 2/3의 동의를 얻으면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제도다. 이 과정을 LA 온누리교회와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가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LA 온누리교회는 10년 동안 서울본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이제는 자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LA 온누리교회는 책임목회제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 드디어 예배당이 생겼다 샌디에이고 온누리 9년 만에 입당예배

샌디에이고는 인구 160만 명의 대도시다. 샌디에이고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비교적 낙후된 도시였다. 하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 해군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에서 샌디에이고의 천연 항구로 이전했다. 군사외 관광, 교육, 연구의약, 해양 분야 분야의 발전은 샌디에이고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역적 특성을 따라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올해 창립 10주년 됐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샌디에이고 온누리



9년만에 얻은 샌디에이고 예배당.

교회는 9년 동안 교회 건물도 없이 어둡게 예배공간을 떠돌아다녔다. 샌디에이고 담임 금경연 목사와 이종실 목사는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복회는 "광야 2세대를 양육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출애굽기에서 광야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두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2005년 7월 31일 창립했다. 금경연 목사는 샌디에이고의 다섯 번째 담임목사다. 그동안 상가건물과 미국 교회를 빌려 주일예배를 드렸다. 9년 동안 여덟 번의 장소를 옮겼다. 다섯 달 전까지도 같은 상태였다. 주일 오전예배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드렸다. 사신 그 공간은 교회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마이크와 연주 없이 육성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었다. 성도들도 지쳐갔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지금의 예배장소를 찾게 됐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지금의 예배장소도 교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창부가 두 달 전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장소를 계약하고 수리하는데 3개월, 공사에 3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18일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가 입당예배를 드렸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오는 7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10주년을 맞이해 세 가지 큰 행사가 열린다. 첫 번째는 젊은 리더십을 인수점으로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인직사이다.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성도들이 여럿 바뀌면서 더욱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5월 중순 전교인 수련회를 연다. 샌디에이고 성도들을 가족 같고 따뜻하게 어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양육이다. 지난해 이종실 목사의 인도로 구약 성경일독을 했다. 80명이 참석했다. 매주 비전교회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가 맺은 커다란 열매다. 이에 힘입어 2학기에는 신약 성경일독을 시작한다.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많다. 대학청년부가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다. 교회 인근 대학교인 UCSD에서 청년 30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서로의 집으로 자녀들을 초청해 교제를 하고, 돌잔치도 모든 성도가 참석해 축하해주고 있다.

## 다음 세대, 유학생을 위한 젊은교회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산타모니카는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다. LA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이 아름다운 곳에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있다.

지난 3월 6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와 위치한 캘리포니아 거리를 찾았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UCLA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미국교회 트리니티메티스처치(이하 TBC)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2007년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개척한 캠퍼스다. 2011년부터 TBC를 빌려 예배를 드렸고, 2012년 비전교회로 승인이 되면서 김재석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20명 중 150명이 대학청년이다. 유학생을 위한 교회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청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까이 위치한 UCLA와 SMC 대학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은 김재석 목사의 영향이 크다. 매주 청년들을 20-30명씩 집에 초청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대학부MC 유재형 형제는 "목사님의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모습 덕분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년의 3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일대일과 큐티 양육을 받았다. 선라이프 크리스천이었던 청년들도 가족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달라졌다.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도 한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에는 시급한 두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첫 번째 기도제목은 갑작스럽게 예배장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3일 갑작스럽게 장소를 옮겨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소를 빌



김재석 목사와 청년들.

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교회와 TBC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한다.

두 번째는 담임목사 교체다. 7월 둘째 주부터 두 번째 담임목사로 장정현 목사가 부임한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청지은 기자 jje@onnuri.org

## ■ 해외비전교회 책임목회제도란?

책임목회제는 담임목사 교체에 따른 교회의 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교회를 위해 본부가 제시한 대안이다. 책임목회제는 현재 사역지에서 2년 반 이상 목회한 담임목사 중 본인이 남기로 한 사람들에 대해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3의 동의를 얻으면 담임목사로 위임된다. 알 바인, 밴쿠버, 뉴욕(IN2, 뉴저지) 캠퍼스 세 군데는 예외로 둔다. 책임목회제는 LA 온누리교회와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에서 먼저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24일 LA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린다.

01

## CGNTV, 월드비전과 MOU체결

선교교육방송 CGNTV와 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승호 장로)이 지난 3월 6일 지구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들을 알리고 지원할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GNTV와 월드비전은 앞으로 해외 빈

곤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게 되었다.

지난 3월 6일 열린 협약식에서 CGNTV 유재건 대표이사는 “개국 10주년을 맞이한 CGNTV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라는 비전을 적극 실천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월드비전의 양승호 회장 역시 “활발한 상호 협력을 통해 세상에 가난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

### 2015 공동체 선교사역자 상반기 현황

캠퍼스	구역	공동체	선교사역자	캠퍼스	구역	공동체	선교사역자
서빙고	A구역	강촌	김민찬	양재	1구역	강남A	김종호
		서빙고	김철환		강남B	이병찬	
		용산	이원장		강남C	오정원	
		신용산	곽태일		서초A	김권일	
		이촌	강찬욱		서초B	이학일	
		한강	신철우		서초C	오범규	
	B구역	S브릿지	이강인		3구역	양재	윤종식
		관악금천	문석근		송파	나점두	
		광명	박선규		4구역	분당A	이상협
		동작	조영준		분당B	한동욱	
		영등포구로	김성호		과천의왕	정상기	
		양천	임인순		5구역	산본안산	김종호
	C구역	이수	예상욱	안양평촌	최상용		
		강서	이인범	부천	희락	박홍신	
		김포	박수웅		믿음	이동희	
		고양은평	임영필		소망	손태용	
		마포	이태열		사랑	이경호	
		서대문	강은철		화평	서행기	
		여의도	서훈석		동누리	정태혁팀장	
		일산	노전기		서누리		
		동대문중랑	장원규		남누리		
		D구역	북누리		홍갑진	북누리	남양주
	성북		정민호		중서	양승경	
	노원		김순태	유성	김경만		
	성동광진		신태형	동누리	유병진		
	중종로		김명곤	남양주	유정태		
	OCC		최경순	인천사랑	정안영팀장		
	찬양사역		김정은	인천소망	양지온누리	최원제	
양지							
평택	평택	유승곤팀장					
강동A	강동A	이규복팀장					
	강동B						

03



### 주간 기·도·제·목

- 3월 23일(월) 러브소나타 '만남' 을 통해 일본을 향한 새 결실을 얻도록
- 3월 24일(화) 사찰, 신도, 관광철 영적 어수선�함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 3월 25일(수) 100개 협력교회와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예비 되도록
- 3월 26일(목) 행사장을 거룩한 장막으로 덮고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길
- 3월 27일(금) 전 강사진들의 건강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더해지도록
- 3월 28일(토) 스태프들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 3월 29일(일) 모든 참가자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또 하나의 CGN패밀리



## CGNTV는 하나님의 보석함

/ 고이즈미 마사코(CGNTV 일본지사 후원자)

나는 일주일에 2-3번 동경에 있는 CGNTV 일본 지사를 방문한다. 방송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를 돕고 있다.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인 동경지사를 방문한 것이 벌써 8년째다.

내가 CGNTV와 인연을 맺은 것은 9년 전 지인의 결혼식으로 한국에 갔을 때였다. 나는 우연히 은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 선교 보고를 통해 오사카에서 일본 CGNTV 개국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CGNTV를 알고 시청하게 됐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또는 찬양,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설교, 간증, 찬양도 훌륭하지만 역시나 가장 좋은 것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야기였다. 내가 선교지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역을 방영해줘 감동받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리브소나타 집회에서 하용조 목사님 자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병으로 본인이 갈수 없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 목사님이 스태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통해 나도 젊었을 때 선교를 위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떠올랐다. 사역하는 스태프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 목사님처럼 축복기도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내 몸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CGNTV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돕고 싶었다. 그 마음에 지금까지 돕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하는 봉사뿐이지만 CGNTV 직원들이 건강하게 사역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 나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쁘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 사역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지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CGNTV를 보석함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보석함을 열어볼 때면 신난다. CGNTV 방송이 하나님의 보석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그 보석함은 스태프들이 모든 것을 바쳐 만든다는 것이다. 그 현장을 내가 와서 보고 있다.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오늘은 CGNTV 개국 10주년



사진은 CGNTV 직원 일동.

## 은누리TV로 시작해 CGNTV로 눈부신 성장 170여 개국에 24시간 양질의 콘텐츠 방송

CGNTV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4시간 동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교교육방송으로 우뚝 섰다.

CGNTV가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23,581명의 후원자들과 선교정신 투철한 직원들의 헌신이다. 실제로 CGNTV 직원들은 2013년부터 선교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다. 직원들이 먼저 방송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도 4명의 직원(민정환, 양용모, 김소진, 오성환)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10명 께다.

CGNTV는 다음 주일(4월 5일) 서빙고와 양재 은누리교회에서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2면>

오늘은 CGNTV 개국 10주년이다. 2000년 방송을 시작한 은누리TV가 2005년 8개 권역에 인공위성을 설치하면서 CGNTV로 거듭났다. 지금은 인공위성, 모바일, 인터넷, 케이블, IP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양질의 CGNTV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제



01

# ‘러브소나타 교토’ 4월 9일 막 올라

## 집회 준비 한창 ... 100개 협력교회가 목표



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2차 참가자 교육.

이번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질 곳은 교토다. 일본의 천년 고도(古都) 교토에서 4월 9일 러브소나타 집회가 막 오른다.

교토 현지는 지금 러브소나타 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협력교회 100개 협력교회를 목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까지 81개의 협력교회가 모였다.

지난 21일에는 교토글로리아처처에서 QT세미나와 기도회가 열렸다. 신사(神社)와 절이 많은 교토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간구했다.

국내에서는 봉사자 교육이 진행됐

다. 지난 19일과 28일에 러브소나타 교토 봉사자 교육이 실시됐다. 19일 모임에서는 교토의 역사와 일본어 찬양,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 등을 배웠고, 28일 2차 모임에서는 러브소나타 봉사내용과 현지 일정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일본인 와지마 토타로 형제의 간증이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와지마 형제는 테너 배재철의 매니저다.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러브소나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를 간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3월 30일(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노래를 듣게 하소서
- 3월 31일(화) 사찰, 신도, 관광철 영적 어수선함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 4월 1일(수) 100개 협력교회와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예비 되도록
- 4월 2일(목) 비와코흘을 거룩한 장막으로 덮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소서
- 4월 3일(금) 모든 출연진들의 건강을 지키고,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소서
- 4월 4일(토) 스태프들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 4월 5일(일)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도록

▪ 또 하나의 CGN 패밀리



/ 류석인 권사

## CGNTV를 위해 무릎 꿇자

CGNTV가 개국한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지난주 은누리신문 CGNTV 광고면에 실린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를 읽고 감동 받았다. 불현듯 10년 전 CGNTV 개국예배를 드린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CGNTV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CGNTV가 5대양 6대주를 주님의 십자가로 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CGNTV 개국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아침 큐티를 하고 있었다. 집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았다. 시골 외갓집을 가고 있었는데 긴 터널이 나왔다.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을 나와 보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시야에 펼쳐진 광경이 장관이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들에 황금색 벼들이 넘실대고 있었다. 그 벼들은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타작하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빨리 추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코발트색 하늘이 눈부셨다. 황금빛으로 고개 숙인 벼들과 코발트색 하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때 실터레 같은 얇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 중앙에 까만 점이 있길래 나는 거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까만 점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 까만 점은 십자가였다.

주님의 십자가! 나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 똑같은 환상을 두

번이나 보고 두려움에 기도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두 달 뒤 큐티 시간에 똑같은 환상을 또 봤다. 너무나 무섭고 떨려 자리를 박차고 수요일 성예배에 참석했다. 그날 수요일성예배에서 광고가 나왔다. CGNTV가 개국했는데 권사님들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꾸준히 기도해달라고 내용이였다. 그 광고를 듣는 순간 쇠망치로 뿔통수를 맞은 것 같아 아팠다. 온 몸이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 그제야 내가 본 환상이 이해가 됐다. 황금빛 벼들은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십자가가 거미줄처럼 뒤덮여 있는 환상은 바로 CGNTV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CGNTV는 온 세상에 널린 추수할 벼들을 찾아서 추수하는 것이요, 온 하늘을 뒤덮은 십자가는 전 세계를 뒤덮을 CGNTV 위성 안테나를 의미했다.

나는 CGNTV를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해 중보기도학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15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CGNTV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모이면 힘이 되는 법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장소: 서빙고 미션홀,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 CGNTV 방송선교행진 1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토구가 CGNTV방송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시작된 CGNTV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만들어주셨습니다."

<故 하용조 목사>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 개국  
미국, 일본 CGNTV 개국  
선교지에 안테나 달아주기 '드림은' 캠페인 시작

주요 프로그램, <박나림의 하늘빛향기>  
<이동원 목사의 교회를 듣는 교회>

2005  
2006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동경 러브소나타 생중계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조인식 및 버스 기증  
중문 CGNTV 개국

주요 프로그램, <독수리5형제>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2007  
2008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태국 케이블(HTV)방송 시작  
제작 스튜디오 HD 전환  
스마트폰 서비스 시작

주요 프로그램, <이홍렬의 편안한 북카페>  
<정주호의 몸뚱이>

2009  
2010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일본지사 47개현 교회 네트워크 구축  
IPTV 실시간 방송채널 런칭  
아부다비 제작센터 오픈

주요 프로그램, <충성! 은혜로군>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011  
2012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 후원 심수봉 콘서트  
제1기 방송선교사 파견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주요 프로그램, <나침반> <통일복소리>  
<은빛날개>

2013  
2014

2015

"CGNTV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곧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됨으로 공급되는 능력으로 감당해나간다면 'CGNTV'라는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 이재훈 목사 -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아웃-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

### ‘하모니’ 앱 소개, 크로마 스튜디오, 다과 제공

오늘(5일)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서빙고와 양재 은누리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진행된다.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는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성원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10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GNTV 전 임직원들이 총출동해 선교교육방송으로서의 초심을 기억하고 재현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꾸

며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성경 말씀과 중보기도문을 제공하는 ‘CGNTV 하모니 앱’ 소개, 부활절을 기념하고, 선교지와 소통하는 사진촬영을 해주는 크로마 스튜디오 설치, 성도들과 나누는 다과, CGNTV 안 내테스크가 설치된다.

2000년 방송을 시작한 은누리TV가 2005년 8개 권역에 인공위성을 설치하면서 CGNTV로 거듭났다.



CGNTV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한 영혼을 위해

## 이재훈 목사, 손한기 장로, 유재건 장로에게 CGNTV를 묻다



CGNTV 선교헌신자와 운영위원회.

CGNTV의 시작은 단순했지만 비장했다.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서든지 안테나만 달면 24시간 예수님 소식을 듣고 꿈 얘기, 비전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해도..." 한인 선교사들과 750만 한인디아스포라, 선교지의 영적 충전을 위해 고(故) 하용조 목사에 의해 시작된 CGNTV가 지난 3월 29일로 10주년을 맞이했다. CGNTV는 올해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다져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CGNTV 이사장인 이재훈 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초대 대표이사 손한기 장로,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를 차례로 만나 CGNTV와 얽힌 이야기,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無에서 有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

#### ■CGNTV 이사장 이재훈 담임목사

-오늘 부활주일에 CGNTV 개국 10주년 행사를 갖는 게 낫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CGNTV가 걸어온 지난 10년은 '믿음 선교(Faith Mission)'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복음의 메시지를 삼엄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정공급원칙에 따라 순수 선교교육방송의 사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10년을 내다보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한국교회에 연합의 씨앗을 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결실을 맺는 방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은누리교회 성도와 함께 CGNTV의 지난 10년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10년 비전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NTV 엠블럼에 'Glocal!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10주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CGNTV의 존재 이유가 '한 영혼'의 소중함에 있음을 보여주는 콘셉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맞춤형송, 곧 '현지화(Localization)', 선교현장과 땅 끝까지 '한 마음'으로 삼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CGNTV가 다가가는 '온 세상'에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글로벌(Globalization)', CGNTV의 정체성이기도 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Glocal)'이라는 비전이 만들어졌고 실천 방안으로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이 설정된 거죠"

-세계적인 선교기관인 해외사역연구원(OMSC)가 오는 11월 초 한국에서 '초대형교

회의 선교 책무'라는 주제로 제3차 한국글로벌 선교교도자포럼(KGMLF)을 갖는데요. 이 때 CGNTV가 은누리교회의 선교 책무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KGMLF는 우리 교회의 선교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교의 인적자원과 물질자원이 많은 은누리교회가 그동안 타문화권 선교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왔는지를 평가받고 세계적인 선교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하 목사님은 1985년 10월 교회를 창립하면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융합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꿨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창립 때부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다양한 선교기관을 만들어 역동적인 사역을 해왔던 거죠. 그중 은누리교회의 선교자원을 국내외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제공하는 데 CGNTV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방송에서 선교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공급하는 '가려한 파이프라인'이 됐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중국이, 미주 등 4개 채널로 24시간 365일 방송을 하고 170여 개국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에 제작센터를 두었습니다. 2009년 까지 이집트, 중남미, 인도 등지에 현지교회가 처음부터 함께하는 맞춤형방송이 이뤄지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꿈도 꾸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일본 CGNTV 경우 오는 9월에 열리는 교도리브소나타 등 일본에서 22채널나 러브소나타가 열리게 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지사 설립 8년 만에 일본의 47개 도현에 있는 일본교회 8000여 개 가운데 2200여 교회와 총합한 네트



워킹을 구축하고 있어요. 저처럼 작은 방송국 이 전 세계를 향한 방송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세계선교계에서 주목하는 일하기에 이번 KGMLF에서 조심스럽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7일 CGNTV 10주년 감사 선교 헌신예배에서 스키야 4장 1-14절 말씀을 들어 CGNTV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돼 있는 '등잔대'로 비유하셨는데요.

"CGNTV가 10년간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낸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옛 등잔대를 위해 선 제사자들이 매일 아침 기름을 보충해야 하지만 스키야의 환상에 나오는 새 등잔대는 제사장이 필요없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온 세상에 빛을 반하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을 뜻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 메시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등잔대와 같은 CGNTV가 후원자들을 감동시킨 주님의 꿈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CGNTV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신과 같은 장엄물은 사라져 평지같이 순탄해지 는 것을 경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누리교회 성도와 CGNTV 직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CGNTV의 등잔대가 계속 타오르도록 후원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GNTV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은 가치 있는 헌신들이 모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교가 일방적인 선행이 아니라, 은누리교회는 CGNTV를 통해 선교지 교회, 선교사들과 손잡고 더욱 현지에 필요한 방송을 만들고 그때 그때의 부르심에 순종해 열방의 빛이 돼주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신학교육이 열약한 곳에서는 신학교가 돼주기도 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이 땅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 어신교는 '하면 좋은' 사역이 아닙니다. 미디어 선교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꿈을 함께 일구신 은누리교회 성도들과 CGNTV형 제자배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01

# 더 멀리 더 가까이

“되겠나 싶었는데 엄청난 방송이 됐어요!”



**-CGNTV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2000년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회장신로 찾아가니 갑자기 제 앞에 수표 한 장을 꺼내놓으셨죠. 누군가 고액을 현금했는데, 너무 고액이라 당황스럽다면서, 현금을 낸 분이 은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목사님께서 당사자를 불러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물으셨는데, 그 분이 목사님 뜻대로 사용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IT로 돈을 버셨으니 IT 분야에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CGNTV 전신인 ‘은누리인터넷방송’이 탄생했습니다. 위성방송은 하 목사님이 아프리카니스탄 전쟁 종전 후 그 땅에 가서서 전황을 중계하는 CNN방송을 보신 게 계기가 됐어요. 하 목사님은 신기하게 여기면서 ‘아 저 집시 하나만 달면 전 세계 어디에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이 잘 나오게 하려고 위성을 8개를 임차했죠. 위성 하나에 2억5000만원, 3억 원 정도라 실로 천문학적인 비용이었죠. 개교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속세였습니다. 이 비용을

**■ CGNTV 초대 대표이사 손한기 장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했는데요. 하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돈이 얼마나 드는 지가 결정 기준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믿음대로 위성 임차 비용은 미디어 선교 비전에 순종하고 선포 위성 하나씩 맡아서 후원해주신 분들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 국내에 위성방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후원만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으로 전 세계에 방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요.**

“방송시역을 시작하면서 아리랑TV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 목사님께 연간 예산을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금액을 말씀하니 그분은 ‘실례지만 위성방송이 뭔지는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죠. 저희 예산이 당시 아리랑TV 연 예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의 답변이 참 멋졌는데요. ‘제가 안알고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 목사님께 처음부터 맡기면서 시작한 시역이니까

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했는데 후원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 필요 재정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 지금까지 CGNTV 시역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시역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성장해간다는 걸 확신합니다. CGNTV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엄청난 방송이 됐어요. 저에게 CGNTV는 지식과도 같습니다. 수표 한 장을 놓고 하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함께 의논하고 방송국이 생겨나고 깊이 관여까지 했으니 남이 뭐라 해도 CGNTV는 제가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02

#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CGNTV 위상이 많이 달라진 거 같은데요.**

“지난달 CGNTV 개국 1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독교 일간지, 주간지는 물론 모든 기독교 방송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해 3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에는 사토 달라신 위상을 확신했어요. 제가 다른 기독교방송을 모니터링을 해 보는 편인데요, 보다보면 CGNTV 방송 포맷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걸 느낍니다. 설교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던 타 방송사들이 자체 제작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울러 특별

한 해외 하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 화질에서 저희가 월등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CGNTV가 기독교방송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은누리교회의 CGNTV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CGNTV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바쁜 일정 중에요 CGNTV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CGNTV를 가족이자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

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동 은누리교회, 수원 은누리교회 등 각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CGNTV 홍보행사를 가진 예정인데요, 각 캠퍼스 담당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홍보시간을 할애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CGNTV 실행위원회는 매월 조찬 모임을 통해 CGNTV의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모임을 통해 저희의 비전을 공감하고 발전 방안을 찾아줍니다. 운영위 위원단은 매주 CGNTV 본사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운영위원 중 몇몇 집사님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스마트폰을 열자’는 콘셉트가 내재된 CGNTV 하모니 앱 출시를 위해 비용 후원 등을 주도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하모니 앱 출시 전부터 매주 한 차례 CGNTV 본사에서 기도회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7시에 모여 기도도 하모니 앱 20 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CGNTV의 든든한 기도후원그룹이 있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중보기도팀, 운영위 아웃리치 중보기도팀 등입니다. 이런 헌신이 모여 오늘의 CGNTV를 만들었습니다.”

**- 대표로 재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없으셨는지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정들었던 직원들이 떠날 때죠. 떠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만 좀 더 대우가 좋았다더라면 떠나지 않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보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하전하기도 합니다. CGNTV를 은누리교회 방송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 CGNTV를 도움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죠.

프로그램도 은누리교회 것이 대부분 일 거라는 편견도 많아요.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CGNTV 중보체널(CGNTV 중문대, 일본체널(일본 CGNTV) 경우 ‘은누리 콘텐츠’ 편성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각각 17.4%, 18.0%에 불과합니다. 한국어체널과 미국체널의 경우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죠. 예매, QT를 제외하면 전체 방송콘텐츠 가운데 은누리교회와 직접 관련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아요. CGNTV가 한국교회를 넘어 한국 크리스천 모두의 방송이라는 이미지와 신뢰를 심어주는 게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4월 5일 1043호

- 01-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손한기 장로 (CGNTV 초대 대표이사)(5면)
- 02-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유재건 장로 (CGNTV 대표이사)(5면)



01



- 4월 6일(월) 교토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 4월 7일(화) 모든 출연진, 프로그램, 장소와 장비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 4월 8일(수)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집회를 축복해 주시길
- 4월 9일(목)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초대된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 4월 10일(금) 모든 참가자,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02

## NGO 더멋진세상,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 시작

### 르완다와 이집트서 의사 2명, 간호사 3명 초청

NGO 더멋진세상이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다. 개도국 의료진 초청 연수교육을 통해 해당국의 의료기술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은 NGO 더멋진세상과 제11차 서울 세계 간-담도-췌장 외과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난 3일 이집트에서 의사 한명이

입국했다. 향후 르완다에서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아산병원 및 관련병원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오는 28일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연다.

/ 김현준 기자

01

▪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에서 보낸 1년



“나에게 세네갈은 선물입니다”

/ 김민선 자매

나는 세네갈 본나라마을에서 일 년을 지냈다. 돌이켜보면 기다림이 참 많은 시간이었다.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세프플러스’가 언제 오는지, 지나쳐 가지는 않는지 기다렸다. 이른 저녁 이스름할 즈음 전기가 나가면 밝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우물이 마르면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 ‘케르발라 초등학교’가 하루 속히 완공되기를 기다렸다. 공사가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기다림의 훈련 속에서 케르발라 초등학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그만큼 시원했다. 이렇게 어리고 작은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놀라웠다.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킁킁 웃으며 ‘저 외국인은 누구지?’ 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서로의 언어를 몰라 얼굴만 쳐다보고 웃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 아이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언니 오빠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지 등을 알고 싶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었다.

“What’s your name?”  
언제부터가 아이들이 나와 마주칠 때마다 내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알려줬는데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그러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나와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런데 이는 말이 이름 물어보는 말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다. 케르발라 초등학교의 씨스 교장선생님이 한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본나라 마을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이 사막 한 가운데 학교가 세워져 오게 되었다. 신이 나를 보낸 것 같다. 세네갈의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떠나는 꿈을 꾸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땅, 물, 자원이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이 노력을 이어나가기를 꿈꾼다.”

그 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처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꿈꾸는 본나라의 미래가 이곳 사람들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세네갈 사람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들과 조금 더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언제나 날 반겨준 고마운 케르발라 초등학교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네갈을 떠나면서 가장 아쉽다. 내 마음 속에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말을 세네갈에서 일 년을 보내면서 각별하게 느꼈다. 그 말 속에 있는 아주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실로 나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세네갈 본나라마을을 사랑하심을 알기에 그곳의 변화가 기대된다.

02

▪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12년 전 고백을 다시 붙잡고

/ CGNTV 제작기획팀 민정환 팀장

2008년 12월, 1년간 일본 자비량 선교가 끝난갈 즈음 오사카 지역 담당 선교사님과 자리를 마주했다. “정환 순장, 장기 선교사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자신 있게 떠난 자비량 선교였지만 언어의 장벽 앞에서, 나의 인격 앞에서, 나의 부족한 믿음 앞에서 그 기간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전공을 살려 어떻게든 선교의 끈을 이어가고 싶었다. 졸업을 앞 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CGNTV에 입사하게 되었다.

CGNTV에서의 시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제 그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 일본 CGNTV 개국 소식을 들었다.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일본제작팀에 소속되었다. 리브소나 타스테프로 다시 간 일본에서 자비량 선교를 할 때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다. 그 선교사님 가정에 CGNTV 안테나를 달아 드렸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CGNTV에서 나오는 새벽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귀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앞으로 더 큰 열방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그 순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굳이 선교지에

있지 않더라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주님, 비록 힘들지만 제 인생에서 100%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십일조, 10년을 이곳에서 드리겠습니까. 프로그램만 만들어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10년을 보냈다. 막상 10년이 지나니 또 고민이 됐다.

“이제 10년 채웠으니 그만할까?”, “주님,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이후 인생의 발걸음을 두고 기도하던 중 소망이 생겼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 혼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선교자적 삶을 시작해야 한다. 분명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12년 전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선교사로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01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 블랙 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 한국 땅을 위한 고귀한 헌신들 조명

### 스탠, 미아 토플 선교사 부부

### (Stanley. C. Topple, 1959~1981년 사역, 한국명 도성래) 하



“한국을 떠날 당시, 우리는 한국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교회가 성장했고, 병원들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4월 5일(부활주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CGNTV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의 등장인물 중 한명인 스탠 토플 선교사의 말이다. 개국 10주년을 맞은 CGNTV는 내한 선교사 130주년 선교 정신을 기리며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을 제작했다. 한국 선교에 젊음을 바친 선교사들을 찾아가 그들의 고귀한 헌신을 조명했다. 스탠 토플 선교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9년 20대 후반 젊은 나이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1961년 사역 중 만난 아내 미아 토플과 함께 1981년까지 22년 간 애양원을 중심으로 한센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한 일은 자동차에 ‘나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써 붙이고 다닌 일이었습니다.” 토플 부부는 나병, 즉 한센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친형이라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깨치는 일부터, 한센병 치료, 선진의료 기술을 도입해 소아마비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도 치료했다. 당시 애양원은 자체 전기 공급과 수도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환경이 낙후돼 있었다. 발전기를 돌려 짧은 시간 전기를 사용했고, 물은 빗물을 모아 대체했다. 난방이 안 되는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고, 수술을 위해 천장을 뚫어 햇빛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새벽마다 기도도 하루를 시작했고, 정오가 되면 수술도 멈추고 침묵으로 환자들과 한국을 위해 기도했다. 결국 요양소 거주자들 대부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환자들도 사랑을 받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복음을 받아드렸다. 토플 부부는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에 거주하며 아직도 후손들과 함께 복원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토플 부부와 함께 애양원 설립자인 일손 선교사, 4대째 한국을 섬기고 있는 린튼 선교사 가문이 나와 한국을 위해 헌신한 지난 시간들을 추억한다.

02

## | 개국 10주년 축하메시지 |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이영명 교수**  
전 문화부장관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고문

CGNTV가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CGNTV는 어둠 속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환한 밤을 비추는 달처럼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사역이지만 이 방송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CGNTV가 있기까지 후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CGNTV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방송이 됐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감사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방송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전해주시길 바라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주 선수**  
프로골퍼, CGNTV 홍보대사

CGNTV 개국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살 때 한 선교사님이 저의 집에 위성안테나를 달아주셔서 CGNTV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CGNTV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CGNTV가 이만큼 성장해서 땅끝에서도 CGNTV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좋은 사역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CGNTV 홍보대사로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영호 선교사**  
GP선교회 한국대표

누구보다 CGNTV의 개국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CGNTV를 세 가지 이유로 좋아합니다. 첫째,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둘째,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PD들이 좋습니다. 셋째, CGNTV는 선교사들을 진심으로 섬겨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방송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함없이 쓰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라이프처치 담임목사

CGNTV의 놀라운 사역이 10년을 이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10년 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뿌리가 돼 CGNTV가 탄생한 사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CGNTV는 세상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GNTV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CGNTV에 행하신 모든 일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10주년이 되길 바랍니다.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CGNTV** [www.cgntv.net](http://www.cgntv.net)

2015년 4월 5일 1043호

• 01-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 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소개 글(16면)  
 • 02- CGNTV 개국 10주년 축하메시지(16면)



# 101명이 예수를 만났다



러브소나타 교토집회 참석자가  
환하게 웃고있다.

## 러브소나타 교토 2,285명 참석, 215명은 “교회에 마음 끌린다”

비파(琵琶) 선율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비와코(斐和歌)를 울려 퍼졌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101명이 예수를 만났다. 교회에 마음이 끌린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한 사람도 무려 215명이나 됐다.

지난 4월 9일 일본 시가현에 위치한 비와코홀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는 풍성한 그 자체였다. 180석 규모의 행사장은 하나님의 초대

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려 2285명이 참석했다. 일본인 참가자만 1900여 명에 달했다.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는 가수 심수봉의 호소력 짙은 노래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승기 자매의 가요곡 연주, 박진아 작가의 샌드아트, 공연, 송출 나무의 플룻연주, 김영미 권사의 찬양, 테너 배제철의 간증과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만남을 주제로 말씀을 신

포했다. 참가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세상은 삶을 인과응보, Give and Take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4-5면>

/ 청현주 기자 joo@onnuri.org



# 그 중심에 라틴어판 <생명의 삶>이 있다

## 아마존에서 시작된 큐티운동 중남미 15개 국으로 확산 15년 동안 큐티책 제작, 큐티운동에 헌신한 김주태 선교사



김주태 선교사

아마존에서 시작된 큐티운동이 중남미(라틴아메리카) 15개국으로 퍼졌다. 15년 전 손으로 오리고, 일일이 글자를 붙여 만든 큐티책이 이제는 매달 10만 부씩 팔리고 있다. 중남미에 큐티 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남미 큐티운동의 중심에 라틴어판 두란노 <생명의 삶>이 있다. 그것을 만든 장본인은 김주태 선교사(라틴두란노본부장)다.

/ 정재은 기자

2000년 11월 스페인어(Spanish) 큐티운동이 시작되었다. 페루 북부 툼베스(Tumbes)주 아마존에 위치한 이키토스(Iquitos)마을에서다. 김주태 선교사는 2000년 평신도 사역자로 페루 아마존으로 파송됐다. 당시 아마존에는 인쇄기가 없었다.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큐티책을 인쇄해 매달 비행기에 실어 아마존으로 보냈다. 매월 100부씩 인쇄했는데 일손이 없어 김주태 선교사와 아마존 교회 담임목사 등 세 명이 큐티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라틴어판 <생명의 삶>의 초판본 '띠엠티콘디오스(Tiempo con Dios)'. 띠엠티콘디오스는 스페인어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Time with God)'이라는 뜻이다. 당시 <생명의 삶>이라는 이름을 번역하기가 어려워 '띠엠티콘디오스'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부씩 발행했다.

일 년 동안 매달 비행기로 큐티책을 배송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이때 도움이 손길이 닿았다. 온누리교회 한성도가 후원해 종교 인쇄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손으로 종이를 자르고 글자를 일일이 풀로 붙이면서 큐티책을 제작했다.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힘은 들었지만 아마존에서 직접 큐티책을 만든다는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큐티책이 10개, 20개 교회로 퍼져나갔다. 큐티책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손길들도 늘어났다. 여러 목회자들의 신학적 도움을 받아 큐티책의 질도 높아졌다. 김주태 선교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회상했다.

"2년 넘게 수작업으로 큐티책을 만들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존 땅에 나누는 수



생명의 삶 초기 제작본, '띠엠티콘디오스'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여러 손길을 통해 도우셨어요"

### 중남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큐티운동

수십 개의 아마존 교회에 퍼진 큐티운동은 페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김주태 선교사는 큐티는 교단에 제한받지 않고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페루 교회 전역을 다니며 큐티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큐티운동이 3-4년이 지나자 중남미 전역으로 퍼졌다. 2008년부터는 큐티운동이 페루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을 지나 멕시코와 미국, 스페인까지 확산되었다. 지난해에는 큐티운동이 스페인 문화권을 벗어나 브라질 언어권까지 퍼졌다. 2014년부터 포어판(TIEMPO COM DEUS, 브라질어판) <생명의 삶>이 발행되고 있다. 100부씩 인쇄하던 큐티책이 지금은 매달 10만 부씩 팔리고 있다.

김주태 선교사는 처음 맨발로 교회를 찾은 아마존 청년들에게 큐티책을 전했다.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큐티운동을 돕는 동역자로 거듭났다. 이제는 아마존뿐 아니라 중남미 15개 나라가 큐티운동을 벌이고 있다. 스페인과 미국 4천여 개의 교회에서도 초교파적인 큐티운동을 하고 있다. 라틴어판 <생명의 삶>에는 중남미 15개 나라 성도들의 간증이 매달 실린다. 말씀과 큐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남미 5억 인구에 비하면 매달 10만 부의 <생명의 삶>이 팔리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티끌, 모래안 같지만 이들이 큐티를 한다는



4월호 라틴어판 <생명의 삶>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중남미 국가에는 문맹률이 높은 국가가 많아 책을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과 성령이 중남미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라틴두란노본부장 김주태 선교사

김주태 선교사는 15세 선교사다. 그는 한국에서 출생해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 아르헨티나에서 의과대학을 다녔다. 이듬해부터 한인교회에 다녔던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운 조국을 찾았다. 1988년 한국으로 한 달간 배낭여행을 왔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한국에 남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선교의 비전을 품었다. 1998년에 의료선교회를 오게 되었다. 매년 아웃리치의 의료선교회를 사역으로 바쁘게 지내던 중 '중남미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받았다. 2000년 3월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파송을 받아 아마존으로 갔다. 그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아마존에서, 2007년 말까지는 페루 리마에서 사역했다. 아마존 사역을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두란노해 외선교회에서 장기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다.

그가 아마존에서 큐티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큐티와 일대일이 기본이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매일 하면 큐티를 선교하러 간 땅에서 그대로 했을 뿐이었다. 2007년 말부터는 두란노본부와 협력해 큐티책을 발간하게 됐다. 이때 띠엠티콘디오스가 <생명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금 김 선교사는 라틴두란노본부장이다. 그는 라틴두란노를 통해 큐티운동과 일대일 사역을



아마존 현지에서 큐티를 제작하고 있다.

중남미 15개 나라에 전수하고 있다. 땅 끝까지 전교하기 위한 외어미션과 어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의 사역도 하고 있다.

### 라티노와 라티노교회를 위하여

라틴어판 <생명의 삶>의 영향력은 미국에서도 지대하다. 어느 통계에서는 2050년이 되는 해 미국 인구의 절반이 라티노(Latino)가 된다고 했다. 미국에는 4천 만 명의 라티노가 있다. 한국 인구에 버금간다. 지금도 중남미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한다. 김주태 선교사가 미국에서 라틴어판 <생명의 삶>을 보급하며 사역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 미국 내에는 라티노교회들이 많다. 그런데 세상적인 꿈을 꾸고 온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김주태 선교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심어지길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될 수 있기를 믿고 있다. 지금 라티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영혼 구원과 말씀 사역이다. 그것을 위해 큐티운동을 벌이고, 큐티책을 보급하고 있다.

"미국 내 라티노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도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들은 한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직업을 찾는 대로 옮김 없이 교회를 옮기죠. 우리는 라티노교회가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고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임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큐티입니다."

문의: director@durannolatino.org  
asistente@durannolatino.org





‘러브소나타 교토’ 현장르포

# 교토를 만나다

“오차노 오카와리와 이카가데쓰까?”

일본 식당에 가면 점원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차 더 드릴까요?”라는 뜻이다. 그런데 교토에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눈치 없는 사람이라 한다. 이 말은 점원이 손님에게 여서 나가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교토가 일본에서 제일 가는 객쟁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교토에 와보니 아니었다. 그 편견이 여지없이 깨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러본 교토는 차분하고, 질서정연했다. 객쟁이가 아니라 개방적이었다.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도 그랬다. 교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이기도 하다. 1,800석 규모의 행사장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에 무려 2,285명이나 운집했다. 결신자가 101명이나 됐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사는 곳이 바로 교토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4월 8일 여가는 교토역 전까지 흐리고 비가 왔는데, 이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했다. 교토역 맞은편에 위치한 교토타워를 올랐다. 교토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는 도로와 길이 비독판처럼 반듯하다. 중국 장안을 모방해 반듯하게 구획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한다. 교토는 794년 일본의 수도로 세워진 이래 1868년 도쿄로 천도할 때까지 약 천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만큼 교토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람만 13곳, 신사 3곳, 성이 1곳이다. 모두 17곳이다. 일본 국보의 약 20% 중요 문화재의 14%가 교토 시내에 있다. 이를 보기 위해 해마다 8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

교토역 앞 버스 정류장 기요미즈데라(清水寺)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다. 기요미즈데라는 일본 관광객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다. 교토를 대표하는 절이다.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분당 안에서 합장한 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답답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기요미즈데라를 뒤로 하고 도시사대 학교로 향했다. 교토는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도시로도 유명하다.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교토대학교를 비롯해 시인 윤동주와 정지용이 유학한 도시사대 등 38개의 대학이 있다. 교토는 일본 지성의 산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마테가와역에 있는 도시사대 학교는 1875년 니지마 죠

가 세운 미션스쿨이다. 정문 앞 채플 바로 앞에 두 시인의 시비(碑)가 있다. 윤동주의 ‘서시(序詩)’와 정지용의 ‘압전(鴨川)’이 한글과 일본어로 새겨져 있었다. 윤동주 시인은 1912년부터 1943년까지 이곳에서 수학하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광복을 불과 몇 달 앞둔 1945년 2월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시비 앞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생을 살고 있는지 묵념했다.

교토는 한국인에게 빼어난 상처를 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당(도요쿠니 신사)과 이종(伊宗) 귀 무덤이 있는 곳이다. 암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를 신(尊)대(大明神), 풍국대명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 사당이라니, 이곳은 한국인들에게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곳이 아닐 수 없다. 이 사당 맞은편 작은 공원에 이종이 있다. 도요토미는 암전왜란 당시 부하들에게 전라남도 조선인들의 목을 베어오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은 부피가 큰 목 대신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 보냈다. 당시 귀와 코를 붙은 무덤을 도요토미 사당 바로 옆에 만들어 놓았다. 관광객과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도요쿠니 신사에 비해 이종은 지나가는 사람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곳이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두 분과 신화를 기다리는 장애인만이 안내판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실감하는 곳이다. 잠시 조용히 서서 묵념했다.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모를 수많은 선조들을 위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라



교토를 대표하는 절 기요미즈데라(清水寺).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교토를 밟은 은누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 교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토에도 아픈 순교의 역사가 있다. 1549년 자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에 처음 복음을 전했다. 일본은 처음엔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다. 서양 문물을 접하는 통로로 여겼기 때문이다. 오다 노부나가에 이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조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박해했다.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올 수 있었던 앞선 문명이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613년 기리시탄(크리스천)의 일본식 반입을 모조리 금지시키고 선교사를 추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다. 24명의 기리시탄이 ‘이치조 모도리 바시’라는 다리에서 귀가 베이고, 나가사키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온 했다. 나가사키까지 가는 도중에 2명이 합류해 26명이 일본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 1619년에는 겐나 대순교가 일어났다. 기리시탄 57명이 27개의 삼자리에 달려 화형 당했다. 이 중 11명이 어린이였다. 일본 3대 순교사건 중 하나다.

도요토미에 이어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

스도 기독교를 박해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권 유지를 위해 기독교 박해했다.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250여 년 동안 일본 기독교는 사상 유례 없는 탄압을 받아야만 했다. 배교를 강요당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쿠레 기리시탄(은둔자 크리스천)’이 되어 침착성으로 지내며 살아야만 했다. 가쿠레와 강변 길가에 세워진 겐나 기리시탄 순교비가 교토가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임을 알게 해준다.

마침내 4월 9일, 드디어 러브소나타 교토가 막 오르는 날이다. 맑은 날씨가 교토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배려처럼 느껴졌다. 저녁 7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울려 퍼졌다. 러브소나타 교토 행사장 비와코를은 교토 시내가 아니라 이웃한 시가현에 있다. 행사장이 외곽에 있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 속으로 걱정했다. 기우였다. 교토 교계를 비롯해 오사카와 시가 현, 나라현에서까지 집회에 참석했다. 그날로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교토에서 다시 한 번 복음의 불길이 타 오르는 것 같았다.

교토는 일본 문화의 꽃이자,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서린 곳이다. 순교의 아픔도 간직하고 있다. 교토에서 울려 퍼진 러브소나타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은 교토에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다. 그 불씨가 러브소나타를 통해 커진 것이 분명하다.



교토역 맞은편에 위치한 교토타워.



01

#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

러브소나타 참가자 중에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에게 교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곳이고, 어떤 이에게 교토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곳이다. 그 주인공들을 만났다. 신민호 장로, 테너 배재철 집사와 그의 매니저 와지마 토타로, 집도의 잇시키 노부히코 이야기다.

/ 정현주 기자

## ■ 신민호 장로

신민호 장로(일본어에배부에게 교토는 특별하다. 젊은 시절 교토에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다. 바야흐로 23년 전 신 장로는 외국인 공동연구자 자격으로 교토에 왔다. 일본 다국치 연구소 소장이 한국에 연구지역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처가 마침 신 장로의 지도교수였다. 제자였던 신 장로가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신 장로는 연구뿐만 아니라 다국치 기업이 해야 할 수속이나 제반사항 등을 3년 동안 성심껏 도왔다.

신 장로에게 다국치 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봤지만 당신은 다르다. 다들 돈을 요구했는데 당신은 아니었다. 그렇게 바쁜 데도 웃으면서 3년 동안이나 우리를 도왔다. 당신에게 세계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고 휴직해서 일본 가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던 신 장로는 세계여행 대신 일본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다국치 연구소 소장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다국치 연구소에서는 신 장로가 일본 유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피와 생활비, 자동차, 집까지 제공해줬다. 당시 신 장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중앙대학교 뒷산에 쓰러질 것 같은 부허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신 장로에게 다국치 연구소는 월급을 2만엔(약 250

만엔)이나 줬다. 당시 대졸 초임이 5만엔, 대기업 임원 월급이 150만엔이던 때다. 2주 뒤 다국치 연구소 소장이 한국을 방문해 가족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걸 감안해 월급을 30만엔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보름 뒤에 다국치 연구소 소장이 또 다시 한국에 나와 월급을 30만엔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교토대 교수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또 보름 뒤 한국에 나온 다국치 연구소 소장이 월급 25만엔을 쥐어주며 일본에 올 때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했다. 반반한 옷도 비행기 티켓 살 돈이 없었던 신 장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일본에서 자벌 집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게 웬일인가. 새 발라졌다. 삼달살이. 세간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 새 집에서 감사예배를 드리던 당시를 회상하던 신 장로가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국치 연구소의 배려로 일본 유학생활을 시작한 신 장로는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았다. 신 장로는 외국 선교사가 세운 성령과 교회 고하타 그리스도교회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교제와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다. 간중도 많이 하고 성도들과 함께 가타를 메고 노방전도도 했다. 신 장로가 그 교회의 성가대를 만들 정도로 열심이었다. 신 장로는 러브소나타가



23년 만에 교토에서 재회한 나카모 목사(가운데)와 신민호 장로(우).

교토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신 장로는 가장 먼저 고하타 그리스도교회 나카모 목사에게 연락했다. 러브소나타 협력교회가 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그리고 23년 만에 교토에서 나카모 목사와 재회했다. 신 장로가 젊은 시절 겪은 보낸 교토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신 장로는 사춘기 시절 세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학비도 제때 못 내고, 남루하기 그지없는 옷차림으로 반 친구들의 따돌림도 받았다. 자식기도를 실패하고 집

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속도 모르고 “공부 안하고 어딜 쓰다녀”고 혼을 냈다. 그렇게 암울한 유년시절을 견뎌내지 못한 신 장로는

신 장로에게는 꿈이 있다. 자신같이 어렵고 힘든 집경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다. 오늘날 신 장로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데에는 교토에서의 유학생활이 한 몫 했음을 잘 알기에 신사와 절로 뒤덮인 교토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 위해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02



CEO포럼에 참석한 테너 배재철 집사(우)와 매니저 와지마 토타로(좌), 집도의 잇시키 노부히코 교수(가운데).

## ■ 테너 배재철, 프로듀서 와지마, 집도의 잇시키 노부히코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테너 배재철과 그의 매니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와지마이다. 테너 배재철이 성대복원수술을 받고 오페라 가수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집도의인 잇시키 교토대 교수의 공이 컸다.

테너 배재철은 유치태가 주연한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킨트’의 실제 모델이다. 그는 동양인의로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는 극

찬을 받으며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가을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전이된 암세포로 인해 성대 신경과 횡경막을 절단해야만 했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신의에 배재철은 위보하기 위해 그해 12월 와지마가 독일로 날아왔다. 베를린에서 ‘잇시키 타임’이라는 성대기능회복 복원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배재철의 이야기를 들은

와지마는 “일본인 이름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일본으로 돌아와 알아보니 이 수술을 장인한 사람이 교토대 잇시키 교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와지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배재철을 향한 안타까움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웅을 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와지마는 수술 장인자인 잇시키 교수에게 배재철이 수술 받게 하고 싶은 일념으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잇시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잇시키 교수 나이가 77세로 대학에서 이미 은퇴한 상황이었다. 배재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잇시키 교수 본인이 직접 수술해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사실 와지마씨 본인도 수술 제의를 수락해줄지 반신반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은퇴했고 배재철이 일본에서 수술 받는데 드는 비용도 기타 제반 사항도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잇시키 교수는 자신이 나이는 들었지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양인들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수술이니 사양이 아니다. 나를 가려봐 흔쾌히 수술을 허락했다. 그렇게 2008년 2월 배재철이 교토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하고 몇 개월 동안 교토에서 요양을 했다. 당시 와지마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와지마는 교토의 유명 절인 기요미즈데

라에 가서 배재철이 열린 낮기를 기도했다. 교토 근처 시가현에 살고 있는 농동생에게 부탁해 자주 못 오는 자신을 대신해 배재철의 병간호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 모후 시쿠루 지역의 유명한 절 88곳을 다녀 순례 기도를 했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배재철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4월 8일, 교토 시내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던 와지마가 배재철을 떠올렸다.

“활짝 핀 벚꽃처럼 그의 목소리가 활짝 피기를.” 배재철은 자신을 위해 불신앙으로 눈을 뜨고 와지마와 일본 팬들의 소중함을 느꼈다.

“모두에게 심려 끼쳐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병에 걸려서 다행이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2008년 7월 배재철은 요코하마 러브소나타를 통해 재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되찾게 해 준 교토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배재철과 와지마에게 교토는 제2의 출발지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다. 음악 프로듀서와 오페라 가수가 비즈나스가 아닌 끈끈한 정점으로 동진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 주셨다.

2015년 4월 12일 1044호

- 01-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 : 신민호 장로 (5면)
- 02-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 : 테너 배재철 • 프로듀서 와지마 • 집도의 잇시키 노부히코(5면)



01

NGO 더멋진세상

#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16개국에서 50억 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이 대단하다. 지난 2010년 12월 창립한 NGO 더멋진세상은 현재 16개국에서 5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과 터키 지진 피해지역 복구지원 사업을 했고, 2012년에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을 했다. 2013년부터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세네갈 본-비마에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웠다. 보건소에 약품도 지원했다.



은누리교회와 더멋진세상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마친 사랑게렐과 어머니.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협력기관과 매칭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르완다 아동진료사업(KOFIH 주관)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했다. 세네갈 모자보건사업(KOICA 다지협력실 주관)은 올해 4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세네갈 농업개발사업(KOICA 민관협력실 주관)은 올해 5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할 예정이다. 매칭사업은 협력기관을 통해 대규모 예산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세네갈 모자보건사업은 \$222만 사업인데 예산은 KOICA가 9, NGO 더멋진세상이 1을 집행했다.

해외환우 초청 치료사업도 앞장

훈훈한 소식도 전해졌다. 몽골에서 온 소녀 사랑게렐(16)이 NGO 더멋진세상의 후원으로 지난 8월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사랑게렐은 선천적으로 갈비뼈가 기형이다. 불편은 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4년 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사

고로 코뼈와 갈비뼈를 심하게 다쳤다. 갈비뼈 상테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게렐의 부모는 몽골 울리아스테 지역에 있는 '찬양의 탑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현지에 있는 은누리교회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다. 사랑게렐의 딱한 소식을 들은 은누리교회가 수술지원을 했다. 2013년 3월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마땅한 후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NGO 더멋진세상이 나섰다. 2차 수술을 지원하기로 한 것. 그렇게 사랑게렐은 지난 4월 8일 보형물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받았고, 갈비뼈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사랑게렐은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랑게렐의 어머니는 "NGO 더멋진세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몽골 울리아스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현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멋

진세상은 2012년부터 해외환우들을 초청해 치료를 돕고 있다.

4월 26일 정기후원 약정행사

오는 4월 26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행사가 열린다. 국내 캠퍼스는 정기후원약정 행사를, 해외비전교회는 비전헌금을 봉헌하는(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번 정기후원약정행사를 통해 후원자 10000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4100여 명의 후원자가 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가 지난 4월 2일 주홍콩 총영사에 임명되었다. 김광동 장로는 35년 동안 외교관으로 활약했다. 주브라질 대사를 지낸 뒤 퇴직한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 CEO로 활동했다. 지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홍콩 총영사를 맡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과 홍콩의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2

#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한국방문

지난 4월 8일 두란노해외선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에서 학생 네 명과 교감, 학부모 한명이 방문했다. 올네이션스 국제학교는 은누리교회에 의해 세워진 학교다.

유치원, 초등학교(1학년-5학년), 중학교(Junior Secondary, 6학년-9학년), 고등학교(Senior Secondary, 10학년-11학년) 과정이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빼어나고 소문이 자자하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인 5매벨 시험에 9명이 응시해 8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타학교 평균 합격률이 70%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이미 스리랑카 지역사회에서는 올네이션스 국제학교가 명문학교라는 인식이 반지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온 반가운 손님들은 1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남산NT타워, 경복궁, 전주비전대학교,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견학한다.

크리스찬 학생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한국에 초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학생, 교감, 학부모가 한국을 방문했다.



01

■ CGNTV 선교헌신자 간증



###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 김소진 팀장(CGNTV 미디어국 UX기획팀)

CGNTV에 입사한 지 8년 되었다. 나는 미디어국 UX팀에서 웹과 모바일 사이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3년 전 회사에서 CGNTV 선교헌신자 이야기가 나올 때 리더십 중 한 분이 나에게 품은 나라가 있다고 물었다. 나도 모르게 “대만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그분은 내게 기도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대학시절 아웃리치를 통해 대만을 품었다. 그런 나를 전도사님이 단기선교사로 부르셨다. 당시 내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삶은 내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순도 100% 헌신이었다. 그 부담감과 두려움에 기절했고,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쳤다. 시간이 흘러 CGNTV에 오게 되었다. 내 달란트를 통해 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이 정도 헌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몇 해 전 내가 사랑하는 미디어국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도 사람도, 계획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주셨고, 수치스러웠던 모습을 회복시키셨다. 이 일들을 통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게 하셨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나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었다. 그런데 박상 선교헌신자로 지원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자신이 없어졌다. 심리상담 결과는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과연 내가 지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한없이 작아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를 생각나게 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이상하게 답을 할 수 없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했지만 실상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할지 걱정하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셨다. 도망쳤던 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주셨다. 그렇게 선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는 대만을 교두보로 중화권 전역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모로 쓰임 받고 싶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02

■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봉사를 마치며



### 긴 하루, 짧은 1년

/ 김준(NGO 더멋진세상 봉사단원)

하루 앞 1년을 약속하고, NGO 더멋진 세상과 1년을 계약했다. 그 1년을 지켜내기 위해 마음은 다잡은 수많은 하루가 있었다.

손가락에 진물이 나도 묵기려움에 잠을 설쳤던 날,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심한 복통과 고열에 시달린 날, 떠나면 타지에서 염마의 수술 소식을 들던 날 등 더디게 흐르는 시간이 너무나 아팠던 날들이 있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겠다고 르완다까지 왔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날들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 덕분이었다.

오한에 시달릴 때 페트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안겨주셨던 팀장님, 엄마의 갑작스런 수술 소식에 걱정하고 있을 때 각자의 인어로 뜨겁게 기도해주던 현지 직원들, 매주 모국어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한인 교회의 성도님들... 한국에 돌아가면 자주 생각하고 많이 그리울 것이다.

긴 하루가 많았음에도 1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더 많이 웃어주지 못한 것, 학부 때 고작 몇 시간 배운 개발의 효과성을 따지느라 더 많이 나누지 못하고, 배 풀지 못한 것들이 한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후회된다.

2014년의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 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쳐라”(신 15:11).

이무리 연구하고 발버둥 치도 그치지 않을 이 세상의 가난과 슬픔을 위해, 한국에 돌아간 뒤에도 세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을 것이다. 관심과 기도로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NGO 더멋진세상, 4월 26일 정기후원 약정행사

NGO 더멋진세상이 4월 26일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이번 약정행사는 4월 26일 국내 10개 캠퍼스 모든 예배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해외비전교회는 비전헌금을 봉헌해 NGO 더멋진세상에 전달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창립되었다. 그동안 일본과 터키 지진 피해지역 복구사업,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등으로 지구촌 이웃들에게 선한 영

향력을 끼쳐왔다. 올해도 재난과 가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 모로코 등지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이어간다. 아프리카와 네팔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운동도 마찬가지다. 정부, 기업 지원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의료진 초청 연수 사업과 해외 환우 초청 치료사업도 진행 중이다.





정기후원 행사를 앞두고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와 함께

# “여러분의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창립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재난구호사업,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16개국에서 5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월 26일 정기후원 행사를 앞두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를 만났다. 그는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에 대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혔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가 오늘의 NGO 더멋진세상이 있게 했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故하용조 목사님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NGO 사업을 제안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저는 돌려줘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직원도 사무실도 예산도 없었거든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탄탄해요. 일단 시작하니 하나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 힘으로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이웃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박한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고 있지요. 학교가 없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요.”

활약이 대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재난 기간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주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영적인 양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지요. 그것이 NGO 더멋진세상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건, 의료, 식량 문제부터 소득증대 사업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세네갈과 르완다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얀마와 인도에서도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가나비시우의 한 마을을 찾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고 동분과 함께 짐을 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속소로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립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곳에 왔잖나. 너는 나의 동역자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NGO 더멋진세상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님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도 덕분에 NGO 더멋진세상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4월 28일 NGO 더멋진세상이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합니다. 만병의 후원자가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NGO 더멋진세상 활약상

### 그들은 네팔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미래다

네팔에는 HIV/AIDS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외면 받는 사람들이 많다.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인지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여전히 HIV/AIDS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도 보균자 및 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그들을 품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HIV/AIDS 아동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극서부 지역 카이필리를 찾았다. 카이필리 지역 중에서도 HIV/AIDS 아동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고다워리 주변 지역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들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었다. 두려움에 자신이 HIV/AIDS 환자라는 것을 감추고 있었다. 어떤 경우는 가족으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었다.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해리님이

왜 이 땅에 NGO 더멋진세상을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

HIV/AIDS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꾸준한 건강관리다. HIV 보균자는 아직 발병 상태는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하다.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HIV 보균 상태에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AIDS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각종 합병증으로 고통 받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NGO 더멋진세상은 매달 일정한 양의 식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주로 렌틸콩, 달걀, 고기 등을 전달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네 네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 자주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꿈꿀 수 있도록 학업 지원 프로그램



네팔 고다워리에서 섬기고 있는 더멋진세상 봉사자 김대승 청년(좌).

도 실시하고 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생활 환경 개선도 돕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력 선교사님과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마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아보면 아동들이 변하고, 아동들이 변하면 가족들도 변하기 때문이다.

매달 아이들을 방문하는 일은 여러 사역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현지인 아모스 타파 목사님과 사무엘 가얄

리 형제의 도움으로 HIV/AIDS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원 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각 가정을 방문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변화를 살펴면서 그들이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다. 만날 때마다 아이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은 네팔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미래다. 이곳이 아동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행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날 그 땅을 밟고 아이들을 만난 것이다.

/ 김대승 해외봉사자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를 소개합니다

# 언어장벽 넘어 일대일로 세계로!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양육자 77명 배출

지난 6일, 서빙고 은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뜻 깊은 수료예배를 드렸다. 지난해 9월부터 27주 동안 (약 7개월)의 대장정을 마친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학교' 수료예배였다. 100명이 신청해 77명이 수료했다.

일대일위원회는 그동안 '일대일로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외국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시해 왔다. 중간에 통역자를 두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언어의 한계로 소통과 나눔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절감한 일대일위원회는 원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할 수 있는 양육자 배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수년간 준비하고 고심한 끝에 마침내 지난해 9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사역자학교를 시작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신청자가 넘쳐났다.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도 강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한열 장로는 "77이라는 긴 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가하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 오늘 수료식은 과정의 수료일 뿐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라면서 수료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원어민들을 상대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할 것을 권했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9일 도곡교육관 은유홀에서 '신교와 일대일'을 주제로 행사를 연다. 이밖에 수도권 외곽에 일대일 사역자들을 양육 현장에 파견하기에 앞서 각 선교현장에서 일대일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생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제자양육을 실시한 사례들을 듣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중국, 케냐, 안남, 멕시코, 일본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한 사역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

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일대일위원회는 양제 캠퍼스에 일대일 대외사역팀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다국어 일대일양

육을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최선희 사역자 02-3215-351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역칼럼 이한열 장로(일대일위원회)

## 3000명의 외국어 일대일사육자를 세우자!

일대일양육본부의 대외사역팀장으로 십년 넘게 섬겼다. 그 동안 미국, 케냐, 일본, 중국 등지에 일대일 사역자를 적게는 8명, 많게는 30명 데리고 나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그들은 모두 일대일 제자양육의 대가들이다.

외국에서 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은 분명 열매가 많다. 그런데 그만큼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언어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국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때면 으레 통역이 붙는다. 일대일은 양육자와 동방자가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성경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상담도, 일상의 고민들도 나눈다. 때로는 음악회도 가고 소풍도 한다. 그런데 둘 사이에 통역자가 있다. 물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동방자와 양육자가 통역자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면 아쉬운 생각이 든다. 더욱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8년 동안 구상했다. 여러 제약들이 많았다. 우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다. 물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은누리교회는 인적 끈끈기가 많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렇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가 왜 필요한지, 일정 및 장소, 강사 섭외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은누리신도를 통해 소식을 알렸다.

캠퍼스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광고를 냈다. 솔직히 걱정이 많았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지. 27주라는 긴 교육과정과 쉽지 않은 수료기준을 감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두경을 열어보니 기대 이상이었다. 영어권 신청자는 초과될 정도로 많았다. 다음 기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할 정도로 많았다. 멀리 대전 캠퍼스에서도 문의가 왔다. "거리는 멀지만 저도 가 주세요"라며 문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스텝으로 섬기면서도 과정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든 과정을 잘 따라온 훈련생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지만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러시아권, 몽골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른 언어문화권에서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은누리교회가 올해 37주년을 맞는다. 나에게도 새로운 37년 비전이 있다. 그것은 바로 3000명의 외국어 일대일 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를 1년에 100명씩, 앞으로 30년 배출하면 3000명이 된다. 이 사람들이 은누리구석구석,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시면서 "너희가 있어 다행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자부심이며, 소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대일 대외사역팀은 부러워할 만큼 커져나갈 것이다.

###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 간증



## 나는 사직서를 냈다

/ 김경영 성도(중국어부 수료)

북경 은누리교회에 다닐 때 중국인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적이 있다. 중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나의 동반자는 동사통역사였다. 그녀의 배려로 우리는 영어로 일대일 성경공부를 했다. 돌아와보면 나의 중국생활은 한인공동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변으로 확대되지 못해 아쉬웠다.

귀국 후, 은누리신도회에서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다. 남편과 함께 곧바로 신청했다. 나는 직장일로 해외 출장이 잦았다. 초반부터 결석을 하게 되었다. 예배와 속제도 만만치 않았다. 부담감은 커지고, 자신감은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듣고 큰 결단을 내렸다. 그날 주일설교는 각자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설교를 듣고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마음을 다잡고,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에 다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용기 내어 중국어에 배운 문을 두드렸다. 처음 참전한 예배였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부를 과거에 유학생과 주재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하셨는지를 믿는다. 우리 부부에게 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게 하셨는지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내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형제지배들의 외로움과 아픔도 느껴졌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능동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앞으로 외국어 일대일사역과 전도할 능력을 주신 줄로 믿는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한다.



01

###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

어린이날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기를 실시한다.

2천선교본부는 성도들에게  
“각 공동체별로 결연된 선교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  
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  
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보낼 선물  
은 학용품(크레파스, 공책, 싸인  
펜 등), 장남감, 책위인전, 교양만  
화, 학습지 등) 등이 좋다. 보안지  
역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은 성도  
는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  
내는 것이 좋다.

문의: 02-3215-3208

mcs3040@gmail.com

/ 김현준 기자

02

### 장·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훈련생을 모  
집한다. 분야는 단기선교사(Turning  
Point 27기)와 장기선교사(OSOM 25기)  
다. 참가신청은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  
(www.visionvillage.org)에서 하면 된다.

단기 선교사 훈련은 6월 22일부터 7  
월 18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고, 장기  
선교사 훈련은 8월 31일부터 12월 28일  
까지 진행된다. 모두 합숙훈련이다.

문의: 031-331-8182

01

▪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간증



/ 서승욱 권사

### 역시 러브소나타는 진정한 울림이다

러브소나타 교토에 참석했다. 출발 당일 아침 공항에서 함께 갈 팀을 찾았다. 팀장님과 가이드가 출석확인을 하면서 출국 수속을 각자 하라고 했다. 혼자 수속을 해야 한다니 난감했다. 마침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와 30대 청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저들과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 말을 걸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저는 안 가고 아버지만 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했다. 아들이 여행 겸 러브소나타에 보내드리는 것이었다. 청년한테 도움을 받으려다 내가 그 청년의 아버지를 인도하게 되었다.

호텔에 도착했다. 방 배정을 받으며 '두 명이 한 방을 쓰면 룸메이트가 그 분을 챙기겠다' 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1인 1실이었다. 아쩔 수 없이 아침 식사 때도 어디에 갈 때도 나는 그 분과 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분은 교토가 처음이고 교회 행사에 참석한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낯설고 어색할까 싶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문득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낯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씩씩하게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겉으로 어련하고 괜찮아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다. 내가 공항에서 짐을 나눠줄 때 보이기 싫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럴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니 거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일본인들 중에서도 가장 일본스러운 특성을 가진 교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 따뜻하고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드디어 행사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비와코호에 갔다. 초청된 분들에게 드릴 선물 박스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흥분이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분홍색 박스를 쥐고 또 쥐었다. 화관과 결신카드, 종이비행기도 넣었다. 출발 때부터 함께 했던 그 분도 내 앞에서 열심히 박스를 접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로비에 서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얼굴로 "아이시마스(사랑합니다)", "슈쿠슈쿠시마스(축복합니다)"를 외쳤다.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벌실에서 보며 중보기도를 했다. 여느 러브소나타 행사보다 더 큰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첫날 어색해하던 그 분도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우리 팀에 동화되었다.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다구로 돌아가면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한 팀원이 자기가 보던 (생명의 삶)을 선물했다. 그 분처럼 비와코호에 모였던 일본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역시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울림이다.

02

▪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오성환 팀장(CGNTV 후원기획실 후원영상팀)

### 낮선 곳 더 낯선 곳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선교 현신자이다. 나는 첫 번째 선교현신자 지원에서 보기 좋게 고베를 마쳤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 선교현신자 광고를 보고 다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삶에서 선교가 어떤 의미 인지를 되새겼다. 나는 얼마나 준비 되었는지를 질문했다.

나는 CGNTV에서 근무한 8년 동안 38개국을 다녔다. 250명의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다. 입사 전에는 비행기를 딱 한번 타봤던 내게 CGNTV는 그야말로 글로벌을 원 없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곳이었다.

방송으로 담아낸 선교사들의 삶은 한마디로 은혜였다. 카메라가 꺼진 후 들었던 선교사님의 솔직한 고백 속에는 가족의 아픔이 있었고, 처절하리만큼 몸부림치며 살아온 눈물의 씨앗도 있었다. 잠시 머물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곳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떨까. 선교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지원서를 써내려갔다. '낯선 곳 더 낯선 곳으로' 라는 말씀을 보는데 선교를 위해 온전히 내려놓

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상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낯선 곳을 넘어 '낯선 곳 더 낯선 곳으로' 보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었다.

신교를 결심한 지금도 내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변명이 있다. 믿음의 1세대로 아직도 하지 못한 부모님이 걸리고 이제 갓 100일 지난 아들과 아내가 낯선 땅을 밟을 생각을 하면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가족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분의 시간 안에 있다고 믿는다.

중남미는 2008년 미주 CGNTV에 파견근무를 하며 마음에 품었다. 개국 5주년 다큐제작을 위해 도미니카와 아이티 위성신학교사역을 촬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다. 목사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교도소에 CGNTV가 들어가 1급 살인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정규 신학과정도 받지 않고 가짜 목사를 만드는 마을에서 CGNTV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CGNTV가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첫걸음을 떼고 싶다. 중남미 땅을 넘어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몸소 느끼고 간증하고 싶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 함께 만들어요! 더 멋진 세상!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 NGO더멋진세상 봉사단원 김민선 자매와 아이들.

후원, 중보기도, 재능기부 ... 국가와 프로젝트 선택 가능  
더멋진마을 조성,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등에 사용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오늘 은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배부되는 정기후원 약정서에 가입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 신규, 재연장, 변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계좌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후원금은 매월 25일 CMS(후원금 자동 납부방식)으로 출금된다. 후원하고 싶은 국가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서부아프리카(세네갈, 기니비사우, 감비아), 동부아프리카(르완다, 케냐, 말리위), 북부아프리카(모로코), 아시아(네팔, 미얀마,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중남미(콜롬비아, 니카라과), 북한이다. 프로젝트는 긴급재난구호, 어린이 생명 살리기, 생활환경 개선, 학교환경 개선이다. 물질 후원뿐 아니라 중보기도나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재능기부 분야는 농업, 영상제작, 건축, 의료, 교육, 봉헌역 등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난민지원, 대북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해외비전교회를 가다  
오사카, 교토, 나고야 온누리교회

#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

오사카, 교토, 나고야 온누리교회를 다녀왔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는 모두 7곳이다. 동북부 우에다, 수도권 도쿄, 야치요, 요코하마, 중서부 오사카, 교토, 나고야에 있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는 지역사회와 차세대를 섬기면서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있었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기본은 큐티와 일대일, 특성 고려한 맞춤형 사역은 덤 일본 교계, 지역사회, 차세대, 가정에 꿈과 희망을

여기는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줄이 끝도 없다. 2시간이 지나도록 줄이 끝이 가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수속을 마치고 오사카 시내로 향했다. 오사카의 제일 번화가 신사야비시 거리를 거닐었다. 이곳은 식도락가와 쇼핑객들의 천국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있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다. 예로부터 수륙교통의 요충지였다. 도시 단위 경제 규모도 세계 9위, 도시권 인구 세계 12위로 도쿄와 더불어 명실상부 일본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다. 오사카는 일본 전국시대를 종식하고 천하를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정치적 본거지이다. 기독교 박해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1549년 제비에르 선교사가 가고시마에 입항해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일본 선교의 시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 막바지였다. 오다 노부나가 불교를 탄압하고 있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독교를 수용했다. 1600년 일본 기독교는 성도 수가 50~7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부흥했다. 당시 일본 인구가 1,500만~2,00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다.

오다에 이어 정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관대했다. 가스켄 코넬 신부를 초청해 자신이 건축한 오사카성을 보여주까지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에 갔을 때 포르투갈 선교사 코리오 신부가 그를 맞이했는데 긴 길을 잔균인의 모습이었다. 코리오 신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포르투갈 군함의 대표와 장비를 자랑하자 구경시켰다. 오사카성으로 돌아온 도요토미는 곧바로 기독교 포교 금지령과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다. 포르투갈 함대의 위협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도요토미의 추방령에 따라 1587년 나가사키에서 23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가사키 23인 성인(聖人) 순교사건'이다.

도요토미에 이어 전국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2년 3월 도쿄와 오사카, 교토에 금교령을 발표하는데 이어 이듬해 12월에 이 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1614년 오사카 아바키 지역 대표인 크리스천 다이묘영주였던 다카야마 우콘을 마닐라로 추방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후계자들은 더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다. 이 시기 무려 20~3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당시 기독교인 3명 중 1명꼴이었다. 도쿠가와와 에도막부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박해를 계속했다. 1640년 데라우케(모든 서민을 짊어 종속사) 일종의 호적제도, 1688년 5인제(가시계도5가정)를 한 조로 묶어 서도를 감시하게 한 것으로 기독교인이 적발되면 남자는 7년, 여자는 4년까지 격리 후 특별감시 등을 통해 기독교인을 발본색원한다. 예수나 마리아상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후미에'를 통해서도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했다.

극한으로 내몰리게 된 기독교 신자들은 침침산중 오지로 숨어들어 신앙을 숨기고 산이기에 되었다. 그들을 '가쿠데 기리시탄(숨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모상을 관음보살상처럼 만들고, 불교용품에 십자가를 몰래 새겨 신앙생활을 했다.

1919년 가쿠데 기리시탄 마을과 유물이 오사카 아바키시 센다이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유물들을 모아 1987년 '아바키시립 가쿠데 기리시탄 유물사료관'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다. 이곳에 가면 왜 크리스천들이 이곳으로 숨어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바키 시내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다. 곳곳에 세워진 이정표가 없다면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침한 곳이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길을 지나야 했다. 자손들에 게조차 잘려져 비밀로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이 발전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입을 닫고 살아야 했는지 모른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영선 목사 부부와 청년들의 모습.

### 오사카 온누리교회, 차세대, 지역교회 연합, 전도에 집중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2000년 4월 창립했다. 최초의 온누리 해외비전교회다. 일본인 사립가가 하용조 목사에게 상가 건물 3층을 예배당으로 기증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하용조 목사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김사무원 선교사를 파송했다. 김사무원 선교사는 매 주 서울과 오사카를 오가며 예배를 섬겼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섬기면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기틀을 다졌다. 2001년 10월 이영선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해 약 8년 동안 섬겼다. 이영선 목사는 미국과 시모노세키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2월 다시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주변 교회들의 반감을 샀다. 대형교회가 들어와 성도들을 뺏아가는 것이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주변 교회들의 의심을 덜기 위해 기본(큐티, 일대일, 예배)에 충신했다. 2003년 복회사범학교를 가점으로 사역이 확장됐다. 처음으로 가정사역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이영선 목사는 가정사역이야말로 일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의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했다. 큐티와 일대일로 기반을 다

지고 거기에 가정사역을 더했다. 교회가 눈에 띄게 부흥하기 시작했다. 200명의 성도가 목표였는데 400명 가까이 늘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새신자반을 섬기고 있는 나가오카 아카코 집사는 어머니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 7년 전 어머니학교 세미나를 처음 들은 나가오카 집사는 "바로 이거다"라며 무릎을 쳤다고 한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일본에 가정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학교를 주력 구유와 나고야 등지로 아웃리치도 다녀왔다. 일본인 감시도 생겼다. 그녀는 어머니학교가 더 많은 일본 교회에 소개되어 가정사역이 바로 서고 나아가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원했다고 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37지 중요한 사역방향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차세대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차세대들에게 세상적인 사고보다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재일교포 자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것도 깨우쳐 줘야 한다. 이영선 목사는 6년 만에 돌아온 오사카에서 그 희망을 목도했다. 교회학교 학생이었던 청년이 어엿한 교사가 되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주

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와 연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초창기에는 주변 교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리브소(리브) 집회를 함께하면서 주변 교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전도다. 특히 새신자들이 쉽게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 생각이다. 문턱이 낮은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선 목사는 종교 법안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법안화는 교회 명의로 계약하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종교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지 못하고, 목사 명의로만 할 수 있다. 제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영선 목사는 3년이나 걸리는 지루하고 번거로운 심사를 신청했다.

### 교토 온누리교회 성도들, "전도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교토 온누리교회다. 교토는 천년 가까이 일본의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다. 일본인들의



# 역할 ‘선한 영향력’



교토 은누리교회 아미나가 목사 부부와 성도들.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답게 도시 전체가 문화재로 가득하다. 일본 국민의 무려 20%가 교토에 있다.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교토대 등 38개의 대학교가 있다.

교토도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다. 1614년부터 1624년 사이 나가사키와 도쿄 교토에서 순교사가 일어났다. 이른바 ‘겐나 대순교’ 시간이다. 1619년 교토에서 기독교 신자 52명이 27개의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했다. 그들 중 무려 11명이 어린이였다. 당시 순교의 흔적을 말해주는 겐나 가리시탄 순교기념비와 교토 가모가와 강변 길가에 세워져 있다. 일핏 보면 들보석에 불과하다. 그 들보석만이 400년 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교토역은 교토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린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곳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넘쳐난다. 교토 은누리교회는 교토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교토 은누리교회는 일본 비전교회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겼다. 아미나가 토모시미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2010년 11월 시작했다. 주일 11시에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30분 한국어예배, 저녁 5시30분 영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 새벽 8시30분에 새벽기도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교토 은누리교회 주일에는 각종 기도회와 집회, 모임과 세미나 안배로 바빠졌다. 연간 스케줄도 마련되어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전과 목표, 주요 행사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알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모른다.

교토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

히 많다. 교토 은누리교회에도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일본인과 한국인, 외국인 성도 비율이 무려 4:2:4라고 한다.

교토 은누리교회는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아미나가 목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다.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부터 달라졌다. 아미나가 목사는 1992년 미국 유학시절에 전도폭발을 접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했다. 일본으로 돌아와 은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전도폭발을 접목해보려고 노력했다. 당시 일본교회에도 전도폭발 프로그램이 전해지긴 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교재도 조야했다. 재번 역까지 한 아미나가 목사는 교토 은누리교회 개척 초기부터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적극 적용했다.

아미나가 목사는 전도에 탁월한 역량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미나가 목사가 전도한 사람이 200명이다. 그 중에 14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13명은 세례를 받았다. 교토 은누리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테미 카즈에 성도(3세)는 전도폭발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졌다고 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는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다고 했다. 전도폭발을 일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안성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하토리 다케시 전도사도 “교토 은누리교회에 계속 전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교토 은누리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었다.

교토 은누리교회는 창립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지만 성도 수가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광복할 만한 성장이다. 교토 은누리교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연간 150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10명 이상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목표다. 향후 15년 동안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400개 일본교회에 도입해 연간 만 명을 전도한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웅대한 꿈을 품고 있는 교회답게 기도부락도 잊지 않았다.

“교토 은누리교회는 서울 은누리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교토 은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요”

## 나고야 은누리교회, 무너진 가정 살리는 가정사역에 올인

마지막 방문지는 나고야 은누리교회다. 신오사카역에서 산탄선을 타고 1시간 남짓 가면 나고야에 도착한다. 나고야는 일본 열도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대도시다. 일본의 허리다. 나고야는 일본 전국시대 3대 무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곳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이룬 뒤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축조한 나고야성은 오사카성, 구마모토성과 함께 일본 3대 성(城)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나고야 시민들의 자부심과 보수가 유독 강하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보다 더 보수적인 곳이 나고야다. 기독교 박해 흔적이 없는 도시보다 잔하고 강렬하게 남아 있다.

‘에이묘쿠지 가리시탄 유적박물관’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곳은 원래 죄인들을 처벌하던 형장이었다. 1664년 기독교인 200여 명이 이곳에서 처형

당했다. 형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곳에 절을 세우고 참수된 기독교인들의 공양탑을 세웠다. 가리시탄 무덤과 그들의 유골을 모아 박물관을 만들었다. 솔직히 박물관이라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가쿠에 가리시탄들의 유물 몇 개 전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 근처에 ‘히가시베쓰인’이라는 크고 웅장한 절이 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관하고 있는데 에이묘쿠지 가리시탄 유적박물관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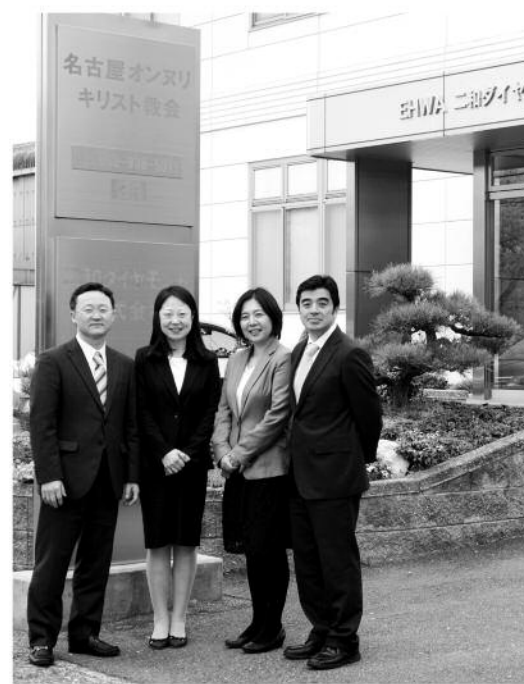
음울함과 스스럼을 뒤로 하고 나고야 은누리교회에 갔다. 교회는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 시끄럽고 번잡한 오사카와 어딘가 가나 관광객들로 넘쳐났던 교토와 달리 조용하다.

나고야 은누리교회는 이화디아몬도 김수광 장로가 화사 2층을 교회 예배당으로 기증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과이민자케어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선장, 가정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국제결혼 한 커플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회화지역과 히가시베쓰의 가정훈련학교, 아부지학교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2010년 열린 나고야 러브스나타를 위해 보수적인 나고야 교계와 협력한 것도 광복할 만한 결과다. 그때부터 지역교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당시 맺은 협력의 끈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역도 공유하고 있다. 협력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부권 대도시 오사카, 교토, 나고야에 세워진 은누리 비전교회를 둘러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서울 은누리교회가 그대로 일본에 옮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고야 은누리교회에 새로 부임한 김철희 목사 부부(좌)와 8년간 나고야 은누리교회를 담당한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부부(우).

목사 인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요시하라 목사가 담당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2009년 11월부터 8년 넘게 나고야 은누리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지난 4일 요코하마 은누리교회에서 5년 넘게 사역하던 김철희 목사에게 바통을 넘겼다.

나고야 은누리교회는 젊다. 젊은 임마들이 많고 어린 자녀들도 많다. 한국인과 일본인 성도 비율이 6:4 정도다. 국제결혼 한 커플이 많다. 나고야 은누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

세 곳 모두 은누리교회 양육의 핵심가치인 큐티와 일대일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거기에 각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따라 맞춤형 사역을 실시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 일본에서도 Acts의 비전이 쓰여지고 있었다. 일본 교회 지역사회, 차세대들에게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일본 은누리 비전교회의 역할이 불꽃살보다 더 따뜻하고 눈부셨다.





목회칼럼 박성천 목사(평택 온누리교회)

### 형언할 수 없는 감동 ‘외국인 근로자 사역’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기차를 타고 지나쳤을 뿐 생전 처음 오는 곳이라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조금은 두려웠었다. 하지만 해외비전교회에서 귀국한 나로서는 내 나라라는 이유만으로도 편안했다.

지난 3년 동안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섬겼다. 그 중 많은 은혜와 감동을 준 사역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다. 전에도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었지만 평택에서의 외국인 사역은 새로웠다. 나그네 되었던 나의 모습이 나그네인 그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 예배는 매주 평택역 가까이 위치한 셀터에서 드린다. 60여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충청 경기도권에서 찾아온다. 주중예배, 토요일 저녁예배도 드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사님 내외분은 매일 인근 공장과 시내, 평택역을 찾아가 외국인들을 전도한다. 그리고 셀터를 운영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어 갈 곳이 없거나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일 오후에는 축구를 같이하며 교제를 한다.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한국어반을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 몽골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한국어반을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신다. 처음에는 두려움 반, 떨림 반으로 오셨었는데 이제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속 정도다. 섬김을 통해 사랑 나눔의 지경이 확장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해외비전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받은 것이 더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곳에 무엇인가 주러 온 존재로 보기보다 받으러 온 존재로 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있다. 그들이 뜨겁게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애쓰는 모습 등 그들은 우리가 잊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예배의 사모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선교지에서의 예배는 화려한 악기와 음향 장비가 없어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곳의 외국인 근로자 예배가 그렇

다. 그들의 가난한 마음, 외롭고 낯설고 힘든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더해진다. 외국에서는 한국 음식 한번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국 사람끼리 모여 안 되는 언어로 어렵게 축구를 벌여 공 한 번 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에너지를 주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 지금 이곳 평택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런 힘과 기쁨을 평택 온누리교회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깊은 보람을 느낄 뿐이다.

무슬림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분식집에 들러 식사를 하던 때가 기억난다. 그들을 위해 식당 아주머니께 햄을 빼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들을 챙겨주었다. 그 작은 배려를 그들은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오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다고 했다. 그저 햄 빼달라고 했을 뿐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크거나 대단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친절한 말과 따뜻한 시선이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니 고맙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 대학청년부 'Acts29 Movement' 실시

### 국내 미자립교회와 사회기관 섬기는 사역

대학청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Acts29 Movement'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Acts29 Movement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기관을 섬기는 사역이다. 대학청년부 지체들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섬기기 위해 뜻을 모아 시작했다. 두 달 전부터 대학청년부 지체 363명이 국내 미자립교회나 사회기관에서 봉사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 청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차세대 교사, 찬양인도, 반주, 상어

한국어 교육 등으로 섬기고 있다. 시작만치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은누리교회 청년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칭찬이 자자하다. 해당 미자립교회와 사회기관에서 은누리교회 청년들의 섬김을 환영하고 있다.

문의: 02-570-7451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미자립 교회 - 팀사역(매주/격주)

공동체	교회	교단	지역	규모(성인/차세대)	사역	인원
여호수아	주님의새교회	통합기안침차중	서초구	70명/25명	예배 상어, 교회학교 교사	11명
요셉	서울대병원교회	통합	종로구	25명/20명	예배 섬김, 교사, 원우병동심방	11명
하늘	삼선교회	통합	영등포구	35명/0명	예배 및 차세대 전도	5명
SNS	한마음교회	독립	마포구	5명/2명	찬양 및 예배, 전도, 특별행사지원, 교사	5명
허브	반석중앙교회	통합	안양시 동안구	30명/3명	찬양 및 예배, 전도, 특별행사지원, 교사	5명
W	남서울교회	독립	관악구	20명/1명	(격주)예배안내, 반주 노방전도	7명
총계					교회 인원	6개 44명

### 분기당 1회 이상

공동체	교회	교단	지역	규모(성인/차세대)	사역	인원
하늘	임마누엘교회	통합	양주 봉천동	5명/0명	(분기당1회) 예배 섬김 및 봉사	30명
W	진중교회	통합	남양주 조안면	70명/30명	(월1회) 어린이사역 및 전도	6명
총계					교회 인원	2개 36명

### 분기당 1회 이상

공동체	기관명	소재지	사역	봉사횟수	인원
허브	신림동주사랑공동체	관악구 신림동	베이비박스사역	매주	8
여호수아	남대문5가마을쪽방촌	중구 남대문	쪽방촌 어르신 사역	매주	17
여호수아	안산M센터	안산시 원곡동	베트남 한국어 교육	매주	5
여호수아	안산M센터	안산시 원곡동	캄보디아 한국어 교육	매주	5
J4U	하나원	안산시 단원구	탈북청소년 일대일학습	매주	7
요셉	espresso room cafe	서울 성동구	외국인 유학생 사역	월1회	15
W	애란원	경기도 평택시	미혼모케어	월1회	10
길	파주보육원	파주시 법원읍	청소년케어	월1회	23
요셉	도란도란	관악구 신림동	지적장애인예배, 식사, 교재	월1회	15
요셉	이태원라파의집	이태원	지적장애인예배, 식사, 교재	월1회	15
허브	청운노인복지관	동작구 상도3동	어르신 섬김	월1회	10
허브	청운보육원	동작구 상도4동	청소년공부방섬김	월1회	10
길렐	남양주시온천양의집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섬김, 예배	월1회	20
길렐	동대문 쪽방센터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방문섬김	월1회	20
J4U	안산M센터	안산 원곡동	캄보디아 예배 섬김	월1회	10
여호수아	동두천연합청소년동맹	동두천시 신천로	지역 비행 청소년사역	월1회	15
여호수아	일산천사의집	일산 고양동	지체장애인 식사, 케어	월1회	13
여호수아	명진 들꽃보육원	강동구 천호동	청소 및 양육	월1회	23
여호수아	안산M센터	안산시 원곡동	인도네시아 열린예배섬김	월1회	7
W	하나원	안산시 단원구	탈북자 예배	월1회	10
요셉	구세군	서대문구 충정로	후생원청소년, 아동부예배	월1회	15
여호수아	하나원	안산시 단원구	탈북자 예배	분기별1회	10
총계			기관 인원	22개 283명	

## CMN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CMN(의료선교부)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의료인은 물론 비의료인도 참여 가능하다.

CMN 본부는 "항공권 사역 내용 조율 등이 필요해 지금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CMN 여름 아웃리치는 7월 14일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떠나는 마하나임과 BEE팀을 시작으로 살롬팀 7월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토브팀 8월 1일 러시아 우수리스크, 드림팀 8월 초 인도네시아 L지역, 마노아팀 8월 8일 필리핀 마닐라, 본부는 8월 15일 르완다를 간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해당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마하나임과 BEE팀(010-7236-4664)

살롬팀(010-7457-0327)

토브팀(010-2309-8768)

드림팀(010-4230-1474)

마노아팀(010-7236-4664)

본부(010-2309-8768)



■ CGNTV 선교헌신자 간증



/ 양웅모 형제(CGNTV 편성제작팀)

## 나의 서원기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말년 휴가를 받아 집에 갔다. 그런데 제대를 앞두고 집에 간 나를 기다린 것은 어머니의 암 선고였다. 어머니는 암 3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 앞에 앉아 눈물을 쏟으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당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다. 그런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서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머니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시키는대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완쾌되었다. 지금도 건강히 지내고 계신다.

훗날 하나님은 내게 그 때 내가 한 그기도가 서원기도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끼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니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선교와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고민했다. 영상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방송국을 찾다 CGNTV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신 덕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무슬림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땅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들은 지금 진리를 몰라 구렁이 속에 갇혀 있다. 이대로 있다면 심판의 불로 들어갈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여기에 있다고 외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매일 내가 눈감을 때마다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거야”라고 말씀해주시는 나의 후원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01

##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팀 급파

### 의료팀과 긴급구호팀 내일(4일) 출국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 급파된다.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의료팀 7명(의사 5명, 간호사 2명)과 구호팀 15명이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 투입된다. 지난 1일 출국한 선별대는 현지 선교사와 함께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투입 될 지역 사전답

사를 마쳤다. NGO 더멋진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쌀, 녹두, 라면, 생수 등)과 임시 주거용 천막 설치 및 담요를 나눠 줄 예

정이다.

긴급구호팀이 투입될 지역은 피해가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고르카(Gorkha)지역이다. 지진 진원지 부근이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5시간 이동해야 한다. 현장에서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도울 예정이다. <관련기사 10면>

02



목회 칼럼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 인천 온누리교회의 꿈

인천 온누리교회에 부임한지 1년 반 남짓 되어 간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공진수 목사, 손신국 목사, 이준호 목사가 인천 온누리교회를 섬겼다. 이 선배들이 인천 온누리교회의 기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는 뿌리가 깊게 심어져야 건강하고 흔들림 없는 법이다. 선배들의 헌신 덕분에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었다.

현재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은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다.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성도들의 예배에는 힘이 있고 감동이었다.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크고, 강한 것이 인천 온누리교회의 특징이다.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좋아하고, 반기워하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예배당을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크게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있다.

첫째, 선교의 비전이다. 그 옛날 토마스 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모든 선교사들을 인천에서 파송하고 싶은 비전과 꿈이었다.

그렇기에 송도로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많은 성도들이 가대와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둘째, 차세대에 대한 비전이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현재 16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 중에서 500명이 차세대다. 차세대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들을 놓치면 다음 세대는 없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차세대들을 반드시 품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전이다. 흔히 안

신을 외국인 근로자의 땅이라고 한다. 하지만 숫자로 따지면 인천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인천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화이트칼라들이 많다. 온누리미션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양해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방향이 다양해져야 한다.

나는 어릴 때 한국을 떠나 남미에서 살았다. 그래서 다문화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나 자신도 어찌 보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미국에 있을 때도 다문화권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필리핀, 스페인, 미국, 한국 등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나도 있었다.

두루노서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용조 목사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

의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날마다 선포할 것이다.

더불어 다른 캠퍼스와 연합해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지난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인천 캠퍼스 성도들이 특수를 하러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간 적이 있었다. 그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내게 말했다.

“CGNIV로만 보면 서빙고 본당에 서는 것이 꿈이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뤘어요. 인천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인천이 서울과 거리가 멀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멀게 느낀 것 같다.

인천에 들른다면 꼭 인천 온누리교회에도 들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온누리교회다.

2015년 5월 3일 1047호

- 01-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 네팔 지진 피해 현장 급파(1면)
- 02- <목회칼럼> 인천 온누리교회의 꿈 :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6면)



01

# 네팔 지진 피해지역 간다

###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료·구호팀) 22명 파견 오늘 서빙고 1부 예배에서 긴급구호팀 파송식

대지진 앞에 아비규환이 됐다. 지난 달 25일(네팔 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km 떨어진 곳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34년 카트만두 동부지역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8.0 이상 대지진으로 10,700명이 숨진 이후 81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참사다.

현재 네팔 정부 4월 28일 발표 기준 사망자 4,450명, 부상자 8,000명이 발생했다. 기옥과 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포함한 수많은 유적지가 파괴되었다. 이번 지진은 네팔은 물론 인접 국가에도 피해를 줬다.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를 포함하면 피해는 날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기야 네팔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온누리교회도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NGO 더멋진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내일(4일) 한지로 급파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다음날(28일) 의료팀

과 긴급구호팀 파견을 결정했다. 지난 1일에는 선별대가 총국해 현지 선교사와 함께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투입된 지역 답사를 마쳤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의료팀 7명의사 5명, 간호사 2명)과 긴급구호팀 15명(현지 선교사 4명, 청년부 7명, 본부 3명, 영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4일부터 15일까지 현지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투입될 지역은 지진 진원지에서 20km 떨어진 고르카(Gorkha)다. 그곳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 할 예정이다. 생필품과 임시 주거용 천막과 담요, 의약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늘(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예배에서는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파송식이 있었다.

한편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중심에 있는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창립된 이래 누구보다 먼저 지구촌 재난 현장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왔다.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2012년 태국 홍수 피해 복구 지원, 시리아, 미얀마 난민 구호 사업,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2014년 아프리카 니안산 사태 긴급구호 등에 앞장섰다.

네팔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0000(NGO 더멋진세상)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지진 피해 입은 네팔은?

네팔은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다. 2008년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정식 이름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민주공화국이 된 나라다. 수도는 카트만두다. 전체 인구는 약 3000만 명 정도 된다. 종족은 아리안족이 80%, 티베트 몽고족이 17%다. 공용어는 네팔어다. 네팔은 부처의 탄

생지이지만 불교도는 인구의 10%에 불과하다. 힌두교가 약 80%다. 인도와 함께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로 꼽힌다. 인구의 88%가 농촌에 살고, 노동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 정도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네팔 북부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8000m급 산들이 즐비해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네팔은 신의 나라로도 유명하다. 설기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인구의 10%가 넘는 수의 신이 있다.

02

# 선교와 일대일 세미나

### 5월 9일 14시, 도곡교육관 2층

일대일사역팀에서 5월 9일 14시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선교와 일대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통역자 없이 외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 할 수 있는 양육자를 배출하기 위해 '외국어 일대일 사역자학교'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대일사역자학교 27주 과정을 마친 수료생(영어 31명, 일본어 30명, 중국어 16명)들을 양육현장으로 파견하기 앞서 선교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본 사역자들의 생생한 사

례들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선교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형태의 일대일 제자양육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도 배운다.

세미나에서는 김화수 선교사(중국, 박석봉 선교사(캐나다), 박경락 집사(안산) 선교사) 등이 사례 발표를 한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생들과 외국인 일대일 제자양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17  
/ 정현주 기자



권사칼럼 홍정희 권사(에zell선교회 대표)

## 나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성장했다

나는 1988년부터 28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그동안 잊을 수 없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 많아졌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였다. 당시 나는 새신자교육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만 참석하던 성도였다. 나는 교통신도를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헌금봉투에 간단한 기도제목과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헌금함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연결이 되었다. 같은 순원이던 장로님이 나를 수술해주시고, 순식구들은 중보기도로 나와 함께 해줬다.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내게 하와이 코나에서 CDTS(Crossroad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훈련을 받으라고 권유하셨다. 그렇게 그곳에 가게 되었고 선교사님들과 만나게 되었다. 코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다.

1995년 한국에 돌아와 에zell선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여러 선교지를 다녔다.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받고 선교에 대해 배우면서 선교사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수없이 진행했다.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많은 기적과 귀한 간증들이 터져 나왔다. 섬겼던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했다.

수많은 온누리 목회자들의 섬김과 사랑이 없었다면 단 하나의 사역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20년 전 YWAM에서 만나 현재까지도 동역하고 있는 Chris Hanison 목사님, 그리워도 될 수 없는 하용조 목사님, 김사무엘 목사님 등 많은 분들이 생각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도 힘들 때마다 깊은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다. 목회자의 사랑과 헌신 이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에zell선교회 팀들과 함께 온누리지역축제(OMC), 월로우크릭 컨퍼런스 등 크고 작은 사역들을 조용히 섬겼다. 이외에도 선교학교, 중보기도학교, 내적치유 세미나, 사이닝글로리, 일대일, 큐티사역, 어머니학교, 토성회(현 CEO School)의 초기모임 등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을 섬겼다. 그 많은 경험들이 선교 현장에 필요를 채워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서빙고와 양재 청년부 멘토를 하면서는 'Hug the World'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시골 청년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주는 사역이다.

나는 온누리교회라는 좋은 교회,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 에zell선교회와 함께 성장했다. 사역의 열매 뒤에는 고난과 역경도 많았다. 그 때마다 신실한 목회자님들의 위로와 격려,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힘이 됐다. 부족한 나에게 여러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온누리교회 성도이자, 에zell선교회 대표로서 주어진 일에 충실한 종이 되겠다 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 양재 이천선교, 호남선교 역사여행



# “선교는 복음에 빛진 자가 그 빛을 갠는 것”

/ 김종호 집사(양재 이천선교 공동체네트워크 팀장)

양재 이천선교팀이 호남선교 역사여행을 다녀왔다. 양재 이천선교 실행위원과 불어 예배 장 마르탱 목사를 포함한 리더십 34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금)부터 1박2일 동안 광주 호남신학대 앙림동산 외국인 선교사 묘지, 순천기독진료소, 매산학교, 여수 손양원 순교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받은 은혜를 김종호 집사가 노래했다.

지난해 성탄절 예배에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을 보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2015년 세례 첫 주일설교에서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반드시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조선 땅에 와서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준 다섯 명의 선교사를 소개하셨다. 송\*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딸 손동희 권사님을 초청해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반복된 선교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양재 이천선교팀은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 역사여행을 기획했다. 수개월 동안 기도도 준비한 끝에 5월 1일부터 1박2일 동안 전라남도 광주, 순천, 여수 에방원 등으로 호남선교 역사여행을 다녀왔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앙림동산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였다. 그곳에는 조선을 사무치게 사랑한 22명의 선교사

들이 묻혀 있다.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다. 120여년 전,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분들에게 빛진 자다. 그 빛을 반드시 갠야 한다. 유진벨, 오웬, 쉘링, 포사이트, 윌슨 등 낯선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서 잠들었다. 120년 넘게 이국 땅에 묻혀있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조산을 섬긴 그들의 발자취도 보았다. “대나무로 의족한 소년이 눈에 밝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보고한 윌슨 선교사, 포사이트 선교사가 데리고 온 여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오늘날 여수 에방원이 있게 한 윌슨 선교사 사택, 오웬 선교사 기념관 등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순천으로 향했다. 순천에서는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집대성해 놓은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가장 먼저 둘러보았다. 이곳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여수 손양원 목사 기념관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있었다.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흔적, 유물들이 많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서 보면 지붕이 십자가 형상으로 된 미국 남장로교회 조지앗츠 기념관과 순천기독진료소 매산학교 등을 둘러보고 여수 에방원으로 향했다. 이재훈 목사님으로부터 한센병 환자 선교 특강도 들었다. 두 번째 날은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과 삼부자 묘지, 에방원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성산교회 암매수 권사님으로부터 에방원의 역사를 들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었다. 청각이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고,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다. 실명하신 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다는 간증도

들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육의 양식도 줄 수 없다며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세끼 밥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도 받았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도 한센병에 걸려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다.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 흘렸다. 이번 여행은 복음의 통로로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선교는 복음에 빛진 자가 빛을 갠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복음에 빛진 자다. 빛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양재 이천선교 위원회는 하반기에 다른 코스로 선교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01

##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맹활약

### 지진 피해 지역서 의료활동 및 구호물품 전달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 급파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 활약이 대단하다.

지난 4일 출국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료팀 7명, 구호팀 15명)은 네팔 지진 피해 현장 도착 즉시 의료봉사와 구호품(쌀 10kg, 담요, 식용유, 비스킷, 라면, 두상자 등)을 전달했다.

의료활동 첫 날 오후에만 161명이 진찰을 받았고, 316개 구호품을 전달했다. 15일까지 구호품 1,12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폭염과 싸

우고, 현지 교회에서 깔판을 깔고 자면서 구호활동에 여념이 없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라고 한다. 구호현장에 가있는 NGO 더멋진세상 고대선 부장은 “환자들에게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자신도 교회 다닌다며 기도를 부탁하러 온 주민도 있었다”면서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네팔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0005(NGO 더멋진세상)

02

## 이주민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Yes Mission! 이주민 선교학교’에서 1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과정은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다양한 관점들을 배운다. 힌두권, 아랍권, 불교권 등 다양한 문화와 관습 등을 공부한다. 실제적인 이론과 사례를 배우고, 온누리M센터에서 하루 동안 현장체험학습도 한다. 이주민 선교학교 과정을 마치면 온누리M미션 19개 외국어예배공동체에서 동역할 수 있다.

문의: 양옥진 사역자(010-3937-3927)

03

##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

### 5월 16일 오전 10시 두란노빌딩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를 준비하는 성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5월 16일 서빙고동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허입 되는 과정, 선교 리더십과의 만남, 선교에 대한 헌신

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담 시간 등이 이어진다.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pass0131@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679



▪ 태국에서 온 간증



### “마리아 힘내! 넌 잘 할 수 있어”

/ 김마리아 권사(파타야 선교교회)

3월 21일 오후 5시는 설렘 가득한 행복한 날이었다. 어릴 적 양말을 두고 산타클로스의 방문을 기다리던 것처럼 말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태국 일대일 양육자반이 시작되었다.

나는 태국 일대일 양육자반을 섬기로 오신 목사님의 찬양소리에 녹아버렸다.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타올랐다. 성령님이 찢겨진 나의 인격과 정서, 심령을 태우는 것 같았다.

첫 강의부터 엄청난 성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3대째 신앙인이다.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일대일 양육자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무너졌다. 겉모양만 화려할 뿐 실체는 보잘 것 없는 나를 발견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권사님께서 신부의 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셨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또 네 분의 권사님들이 양육자와 동반자의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의 사례를 드라마로 보여주셨다. 그것을 통해 일대일 제자양육은 나눔이고, 공감이고, 즐거

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 떠온 하인만 앞듯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본 사람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나를 만나는 양육자들이 행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사랑과 열정으로 11명의 훈련생 모두가 끝까지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온누리교회 이수공동체 최성석 목사님과 네 분의 권사님에게 감사드린다.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기도 해주고 응원해 주신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커피나 차도 맛을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것처럼 일대일 제자양육의 맛을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 빨리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 동반자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아름다운 파티를 빨리 열고 싶다. 나는 그 파티를 준비하는 멋진 플래너가 되고 싶다. 그 파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초대해 동반자와 함께 그분을 만나고 싶다.

벌써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다. “마리아 힘내! 넌 잘 할 수 있어”

▪ 일본어예배부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백재구 성도

### 일본 사람들이 감동 받고 눈물 흘렸다

일본어예배부에서 이와테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차바현에 있는 아치오 온누리교회로 향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이와테 지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였다.

아치오 온누리교회에서 허투루 보내고 다음 날 미니버스를 타고 이와테현 오오후나토 지역으로 향했다. 8-9시간이 걸려 사역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오후나토 교회 무리야 목사님을 만나사역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국음식을 맛보여주기로 했다. 위생과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총 4곳을 방문했다. 주로 오후나토지역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주택을 방문했다.

가설주택에는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복을 입혀 드렸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바로 인화 해주면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일어로 불러줬다.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

을 전했다. 일본 사람들이 감동 받고 눈물 흘렸다. 팀원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덕분이었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김과 일어 말씀이 새겨진 수건과 카드도 드렸다.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교제도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었다.

남마다 아이지는 영적전투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지쳐 있었다. 리쿠젠타카 지역에는 교회가 한곳밖에 없다. 모리타 목사님 부부는 성도가 거의 없는데도 30년 동안 그 지역을 지키고 계신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격려가 꼭 필요해 보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본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일본선교는 일본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외교 문제를 떠나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선교를 도우면 하나님이 분명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아웃리치가 끝이 아니다.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일본선교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남아시아 F국에서 스기나, 그모 선교사 올림

### 할렐루야가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1983년 8월 28일생입니다. 무교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2003년 6월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저도 많이 사랑해줍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부부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슬펐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다시 한 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자녀가 장성하면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 주실 아이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이지요.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주일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다른 47정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아기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의미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5년 5월 10일 1048호

• 01- 태국에서 온 간증 : 김마리아 권사 (파타야 선교교회)(11면), • 02- 일본어예배부 일본 이와테 지역 아웃리치 보고 : 백재구 성도(11면)  
• 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스기나-그모 선교사 (남아시아 F국)(11면)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르포

#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현장

##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의료 활동 및 구호품 전달



/ 고대선 부장 (NGO 더멋진세상)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사이로 흠먼지처럼 뒤덮인 사람들이 보였다. 8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네팔 지진피해 현장은 처참했다. 구호물품이 부족하다고 여기 저기서 아우성이고, 계속되는 여진은 구호활동을 더디게 만들었다. 구호대원들의 안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네팔 지진피해 현장에서 사활을 건 구호활동을 벌였다.

나는 지난 5월 1일 긴급구호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일행보다 먼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향했다. 카트만두 공화 왕국에는 구호품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구호대원들로 발디딜 틈 없었다. 제각각 유니폼을 입고 구호물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공항 건물은 배타 규열 말고는 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북해는 공항을 벗어나 카트만두 시내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무너진 담배막이 보였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나 돼가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무너진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도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져 불안해 보였다. 도시 곳곳에 전막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붕만 만들어 놓고 평상을 천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가지면 가운이 떨어지는 산악지역 특성상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았다. 실제로 지진피해 지역에서는 감기환자와 피부병, 눈병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트만두 도심을 벗어나 북쪽 경계지역으로 이동했다. 지진피해 현상이 본격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인구 1만여명 규모의 싸쿠(Sankhu) 마을은 주택 500여 채가 무너지고, 72명이 사망했다. 무너지지 않은 집도 대부분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져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버렸다.

어곳에도 전 세계에서 온 전문 구조단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었다. 주민들도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지며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신들의 귀중품을 찾으려 분주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배를 하다가 매몰된 사람도 있고, 공터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매몰되기도 했다고 한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를 만나 보았는데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눈망울만 굴리고 있었다.

네팔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쌀 5kg씩 지원했고 인도 시키고도들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터키, 프랑스 등에서 온 구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임시진료소에서 매일 300명의 환자들을 진찰했다.

호팀들이 구조 활동을 돕고 있었다.

싸쿠지역을 지나 고산지대로 접어들었다. 멀리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자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히말라야는 여전히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마음은 처참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곳에 물이 풍부해서 식수걱정은 없다는 점이다. 산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을 호스로 연결해 집 근처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왔다.

‘네팔기독교인의사회화’를 찾았다. 네팔기독교인의사회화 사무실 밖에 지진 피해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카트만두 북쪽으로 산의 지역을 따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니 가난한 산골 마을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접근이 어려워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가슴을 때렸다.

###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 활약상

5월 4일 네팔에 도착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구호품을 트럭에 가득 옮겨 실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의료팀 7명, 구호팀 12명, 현지 거주하는 사역자 4명, 현지 지도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NGO 더멋진 세상, 의료선교팀 CMN, 청년부, 온누리미션, 두만노해의선교회 사역자, 네팔 현지 목회자의 교회간 연합해 사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카트만두 서쪽, 전왕지에서 약 20km 떨어진 고르카(Gorkha) 지역 가쿠(Garkhu) 마을과 나레스워(Narashwor) 마을을 찾았다. 카트만두에서 차로 6시간 정도 걸리는 먼 길이라 구호품 1,100kg 트럭을 싣고 피해 주민들을 향해 새벽 5시에 출발했다. 가쿠 마을과 나레스워 마을은 규모가 있는 시골 마을이다. 도로를 따라 상가도 있고, 버스도 다닌다. 어떤 지진으로 중고등학교 교실이 무너

져 휴교 중이다. 도로 위쪽 산골에 있는 초등학교도 무너졌다. 다행히도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상당한 학생이나 삶의 터전을 잃고 길가에 전막을 치고 삼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외국인이 마음에 찾아온 것이 처음이라며 주민들이 구호품을 받았다. 우리는 도착 즉시 의료 활동 준비와 구호품을 전달했다. 무더운 날씨에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쌀 10kg, 탄요 1장, 라면 두 박스, 빵이나 누려서 말린 쌀에 양념을 한 음식, 식용유, 소금, 그리고 비스킷 등을 가구 당 한 묶음씩 전달했다. 산 속에서 싣던 주민들은 2시간씩 걸어 내려와 진찰을 받고, 구호물품이 든 자루를 등에 지고 돌아갔다.

임시 진료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300명의 환자들을 진찰했다. 근육통과 관절염, 허리디스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도 많았다. 지진으로 인한 골절상과 찰과상 환자들도 있었다.

구호품 전달과 의료 활동 외에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도 있었다. 조경근 팀장과 김영미 팀장이 헌저로 봉역과 중보기도를 받았다. 기도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안이 된다며 기도를 받았다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었다.

어느그리하여(혜)교회 사두람(Sarthuram) 복사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해주었다”면서 고마워했다.

네팔 정부는 구호품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김포미다 경찰을 배치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구호품이 왔고 전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네팔은 2008년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이 선포된 이후 정식 정부가 세워지지 못했다. 임시 정부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진피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

는다면서 다른 구호팀의 물품을 약탈하기도 했다. 도로가 산을 따라 구불구불 나 있기 때문에 피해지역으로 물품을 싣고 가는 트럭을 막고 텐트와 식량 등을 가져가는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 도시 다랑게시(Dhadinghesh)에서 차로 비포장도로를 4시간 달리고, 다시 3시간을 걸어 산골마을 탈리(Thali)에 있는 홀리미션교회(Holy Mission Church) 성도와 주민들을 찾아갔다. 그들에게 쌀 10kg, 50자루, 텐트 50동, 담요 50장을 전달했다. 이 마을은 온누리미션에서 활동했던 비두 목사의 지교회에 있는 곳이다. 지진 발생 당시 예배 중이던 성도들이 대피했다. 교회 지붕이 무너지면서 예배 처소가 사라졌다. 교회 정문 간척(Gancha)의 12살 바나야들이 매몰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을 대부분의 주택들 무너져 전막이 필요했다. 이 지역은 재건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줄 때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형편이다.

고데라리(Core dara) 마을에서도 의료활동과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 마을은 75가구가 모여 사는 해발 1,200m 고산지대이다. 이 마을 모든 가구가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와 보건소가 무너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비가 오기 전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가구당 지붕 한식 12kg씩 전달하고 쌀 25kg을 나눠 주었다.

30℃를 훌쩍 넘는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교회 비대에서 침낭에 몸을 감싸야 하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원은 날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허무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다했다. 참혹한 지진피해 현장에서 서로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구호품을 지원받은 힌두교 신자가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류모세 선교사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 후무스와 올리브기름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먹방' 일 것이다. '먹는 방송'을 뜻하는 신조어인 '먹방'은 어느덧 종편은 물론 공중파까지 장악해버렸다. 농촌과 여촌에서 삼시 세끼를 해먹는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고 거기서 앞차미를 하고 웬만한 요리는 척척 해내는 배우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선교지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주변 중동권 사역자들과 연합해 리트릿을 할 때였는데 어느 사역자가 시나 걸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스라엘에 전통 음식이란 게 존재하긴 하나니까?”

당혹스럽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중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음식들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후무스'다. 후무스는 최근 웰빙 음식으로 알려져 한국에도 수입되고 있는 방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다. 예수의 오병이 가작에도 나올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피타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후무스에 발라서 매일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허무라도 김치를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후무스가 그렇다. 그런데 후무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바논의 전통 음식이다. 이스라엘의 전통 음식을 소개한다는 표현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소개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올리브'로 대표되는 지중해 음식과 '후무스'로 대표되는 중동 음식의 절묘한 퓨전 일 것이다. 그야말로 웰빙 음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찾은 한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호텔에 금수에 상관없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깔려 있는 샐러드 바(Salad Bar)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기보다 비싼 게 아체라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아체들로 가득한 샐러드 바가 관광객들의 입맛을 한껏 돋운다. 물론 아체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샐러드 바에는 드레싱 재료로 올리브기름, 레몬즙, 식유 엑기스 3종 세트가 거의 공식처럼 구비되어 있다. 올리브는 성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화이기도 하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을 이스라엘산 고급 올리브기름으로 지불했다. 지금도 이스라엘산 올리브기름은 올리브를 생산하는 지



올리브 열매



후무스

중해변의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 스페인과 함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아체와 올리브기름의 양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에게 샐러드는 주사에 걸들인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각종 아체를 등성등성 찢어서 올리브기름,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그 자체로 든든한 한 끼의 식사가 된다. 이스라엘의 레스토랑에 가보면 메뉴판에 샐러드가 버섯이 메인 메뉴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체와 올리브기름을 즐겨 먹기 때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다. 이것은 올리브기름에 다량 함유된 불포화지방산 때문이다.

### 〈열린다성경 스타디투어〉

이스라엘 구약성경투어: 7월28일-8월5일  
터키-그리스 신약성경투어: 8월4일-11일  
문의: 010-4912-1022

01

## 2015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 온라인으로 사전등록 시작

청년들의 예배와 선교를 회복하기 위한 컨퍼런스 '2015 카운트다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3번째로 개최되는 카운트다운은 6월 28일부터 28일까지 한다. 28일과 27일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28일은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병삼 목사(만나교

회),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유병국 선교사(WEC 국제선교동원)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등록은 온라인(www.countdown.or.kr)에서만 가능하다.

회비는 5월 28일까지 3만 원, 6월 16일까지 3만 5천 원, 행사당일은 4만 원이다.

하나은행 573-910009-28806 (예금주: 온누리교회선교대회) 문의: 02-3215-37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2

## NGO 더멋진세상 해외사역자 모집

### 오늘(17일)까지 서류 접수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사역자(선교사)를 모집한다.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관심 있거나 해당분야 경력자,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영어 및 불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파견국가는 세네갈, 르완다, 감비아, 인도, 네팔, 미얀마, 모로코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모집하는 해

외사역자(선교사)는 단기(2년 이하)와 장기(4년 이상)로 파견된다. 현지에서 지역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NGO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knkim@abetterworld.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8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류모세 선교사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 웰빙음식

나라와 문화에 따라 즐겨 먹는 수프를 살펴보는 것도 무척 흥미롭다. 한국에 미역국, 된장국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렌틸콩 수프가 있다. 렌틸콩 수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아랍이 형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 제시한 관죽이 바로 렌틸콩 수프다. 안식일 날 유대인 가정에 초청을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이 렌틸콩 수프가 나온다. 인도가 주산지인 렌틸콩은 납작하고 긴 꼬투리 안에 불룩렌즈 모양의 씨앗이 2개씩 들어 있는 입년생 콩과 식물이다. 렌즈(lens)의 어원이 된 콩이라고 해서 '렌즈콩'이라고도 불린다.

렌틸콩은 요즘 흡소핑을 통해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웰빙 음식으로 소개되어 날개 돌친 듯 팔리고 있다. 렌틸콩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엽산, 비타민 B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항산화 기능 역시 뛰어나다. 이 밖에도 배아의 10배나 되는 식이섬유로 인해 변비나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미국의 건강전문지(헬스(Health))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한국의 김치, 일본의 낫토, 그리스의 요거트, 스페인의 올리브기름, 인도의 렌틸콩을 선정할 바이다.

렌틸콩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먹는 콩이 바로 병아리콩이다. 병아리콩은 칩(chick pea) 혹은 아지트콩이라고 불리는데, 생김 모양이 병아리 얼굴을 닮아 병아리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중동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재배되어온 병아리콩은 효능이 뛰어난 세계 10대

건강 식품으로 영양과 효능이 풍부하다. 병아리콩은 후무스의 주된 원료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스 형태로 만든 후무스와에도 병아리콩을 곁게 갈아서 동그라뽕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긴 팔라펠을 즐겨먹는다. 팔라펠을 각종 야채와 함께 피타 빵 속에 잡아넣은 샌드위치는 이스라엘에 사는 시민들이 가장 즐기는 한 끼 식사라 할 수 있다.

치즈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다. 흔히 치즈와 요거트를 생산하는 '낙농국가' 하면 불가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을 들겠지만 이스라엘도 결코 이들 국가에 뒤지지 않는 낙농국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별칭이기도 한데, 여기서 '젖'은 양과 염소의 젖을 가공한 각종 유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 이스라엘의 슈퍼마켓이나 호텔에 부페에 기본 사람이려면 수십 종류의 치즈와 요거트 제품으로 인해 놀라게 된다.

레위기기에 나오는 음식정결법인 코셔는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문화를 특징지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코셔를 따르면 보니 이스라엘의 호텔과 레스토랑은 어디를 가든 메인 메뉴가 딱 3가지, 즉 닭고기, 소고기, 생선으로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유헤에 따라 조리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메인 메뉴는 이 3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메인 메뉴가 제한적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사이드 메뉴인 야채와 과일 및 치즈 및 요거트를 이용한 요



렌틸콩

리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산 토종 생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고 또한 석회가 많아서 수도물은 식수로 마시기가 힘들다. 하지만 생수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스라엘에는 에비앙을 비롯한 수입 생수의 수요가 거의 없고 이스라엘 산 토종 브랜드 생수의 수요가 압도적이다. 골판지팩을 수원으로 하는 '에텐' 생수, 엘라사가 깨끗하게 했다는 '여리고' 생수, 다윗이 서울을 피해도 맘 다녔던 광야의 '엔게다' 생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생수다. 약산성인 한국의 생수와 달리 이스라엘의 생수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약알칼리수로서 풍부한 미네랄 함유를 자랑한다.

이처럼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칼모리올 특징으로 하는 지중해식 식사와 함께 품질 좋은 생수의 산지인 탓에 이스라엘은 매년 일본과 수위를 다투는 장수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스라엘을 찾는 순례객들은 비록 짧은 1주일간의 성지순례이지만 이를 통해 웰빙 음식의 진수를 제대로 전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류모세 선교사와 함께 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 구약성경투어: 7월28일-8월5일  
타카-그리스 신약성경투어: 8월4일-11일  
문의: 010-4302-1022

01

## NGO 더멋진세상, 미스코리아 이사라 홍보대사 위촉

지난 19일 서빙고 은누리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이날 2014 미스코리아 미(美) 이사라가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배우 강석우에 이어 미스코리아 이사라를 세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재훈 목사는 “앞으로 NGO 더멋진세상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고, 미스코리아 이사라는 “부족한 저를 홍보대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한다”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화답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2

## 아프리카와 네팔 위한 후원콘서트

### NGO 더멋진세상 통해 전달 예정

아프리카와 네팔을 돕기 위한 후원콘서트가 열렸다.

지난 1일 금호아트홀에서 조혜린 성도(서빙고 은누리교회)가 첼로 독주회를 열었고, 19일에는 이지원 성도(양재 은누리교회)가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후원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아프리카와 지진피해

를 돕는 네팔에 전달된다.

조혜린 성도는 “네팔의 지진피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했고, 이지원 성도는 “작은 정성을 모아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네팔 사람들에게도 작은 위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3

## 2015년 Outreach 안전교육 실시

여름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1차 교육은 6월 5일(금요일) 19시 30분부터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2차 교육은 6월 12일 19시 30분부터 양재 은유홀에서 열린다. 대상은 차세

대, 대청, JDS, 아웃리치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유관기관 담당자, 국제부다. 강사는 김진대 목사(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가 맡는다.

문의: 맹창수 간사(02-3215-3208)



## 아웃리치 안전교육 실시

### 6월 5일 서빙고 두란노홀 12일 양재 온유홀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1차 교육은 6월 5일 금요일 19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2차 교육은 6월 12일 19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실시된다. 강사는 김진대 목사(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다.

아웃리치 안전교육에서는 아웃리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을 미리 숙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올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아웃리치 팀장, 차세대, 대학청년부, JDS 선교담당자, 선교유관기관 아웃리치 담당자, 국제부 아웃리치 팀장 및 담당자는 이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문의: 맹창수 간사(02-3215-3208)

# 부천 여성들은 한 주가 즐겁다

##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건강도 챙기는 프로그램 풍성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들은 한 주가 즐겁다. 무릎선교기도학교모임부터 좋은 어머니스쿨과 바른자세운동까지 여성들에게 최적화된 예배와 프로그램이 매주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사역의 꽃 중보기도도 심 없이 하고 있다. 지난 20일 생활 속 행복을 찾는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현장을 다녀왔다.

/ 김미림 기자



강화도 선상세례 배 위에서 무릎선교기도학교 팀의 모습.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의 대표주자는 수요 여성예배다. 여성들의 회복과 치유가 주를 이루는 예배다. 부천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는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드린다. 5월은 말씀의 능력, 6월은 기도의 능력, 7월은 복음에 빛진 자가 주제다.

지난 20일 수요여성예배에서는 인평복 목사서 초B공동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날 설교에서 안 목사는 "여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하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진 여성의 믿음이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들의 믿음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수요여성예배 팀장 조경은 권사는 "부천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가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예배라고 확신한다"면서 "부천 여성들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여성사역의 꽃 '무릎선교기도학교'

무릎선교기도학교는 여성사역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보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기도하고 있다. 매주 선교사의 강의와 열방을 위한 소그룹별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122년의 선교역사를 간직한 강화도 교산교회로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이날 초에는 액세서리, 영양제, 신발 등을 모아 선교지로 보냈다. 무릎선교팀에서 보낸 물품을 받은 한 선교사는 "비타민이 필요했는데 정말 비타민이 왔다"면서 무릎선교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의: 함명희 팀장 (010-2360-5173)

### 좋은 어머니 되는 법 배우는 '좋은어머니스쿨'

좋은어머니스쿨은 가정, 회복, 세계관, 관계, 치유 등을 주제로 이어지는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다. 말 그대로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스쿨이다. 좋은어머니스쿨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여성사역이다.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좋은어머니스쿨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화비는 3만원 사전등록하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문의: 이정옥 팀장 (010-5040-3388)

### 일석이조 바른자세운동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꿈이아울에서는 바른자세운동(SNPE, Self Nature Posture Exercise)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4인 1조로 매트와 깔고 누워 스트레칭하면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새가죽들의 장치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오십견, 암, 디스크 증상을 가진 성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바른자세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박명숙 성도는 "신체운동을 통해 근육을 다지는 동시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16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바른자세운동은 7월까지 진행된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노규석 목사



이람의 명절문화

### 라마단 (Ramadan)의 저녁식사 '이프타르'

이슬람 세계의 최대 행사는 한 달간 모든 무슬림들이 참여하는 '라마단 금식일' 것이다. 이슬람의 신자지만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이슬람력 9번째 달에 한 달간 진행되는 라마단 금식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진행되는 금식 행사다.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한 인사도 나온다. '라마단 카림(Ramadan Karim, 관대한 라마단)'이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인사를 나눈다. 이 기간에는 거리 곳곳이 형형색색의 네온으로 장식된다. 성탄절 분위기와 흡사하다.

이람 국가들에서 라마단 기간에 쇼펄이나 모스크를 방문하면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저녁 해 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린다. 다들 시계를 쳐다보며 신호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라마단 금식이 끝나고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식사를 시작한다. 마치 군대에서 일제히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루 종일 금식했으니 그 저녁 식사가 꿀맛일 것이다.

이 라마단 저녁식사를 '이프타르(iftar, 금식을 깬다는 의미)'라고 부른다. 라마단 기간의 이프타르 저녁식사는 그야말로 동네잔치다. 모든 모스크와 부자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텐트를 치놓고 동네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상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라마단 한 달 동안은 어느 마을이나 모스크에 가도 공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은 가난한 이

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나그네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다. 7시쯤 전후로 진행되는 이프타르 저녁을 먹고 밤이 늦도록 친척과 이웃을 방문하며 지장이 넘도록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한번 더 식사를 한다. 하루 종일 금식해야 하니 새벽에 잘 먹어둬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을 한다. 밤에 세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다. 라마단 기간에는 평소 시보다 음식 소비량이 2배로 증가하고 병위마다 과식으로 인한 환자들이 넘쳐난다. 낮에는 금식을 통해 불과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밤에 이렇듯 축제를 벌이다 보니 관공서와 회사마다 근무시간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이람 국가들의 생산성이 급감하게 된다.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권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낮 시간에 무슬림들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경찰서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람 국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커피로 가린 호텔 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자동차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간이다. 하루 종일 금식한 무슬림 운전자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운전력을 하니 곳곳에서 교통사고를 보게 된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한 달간 참여하는 금식일이다.

라마단 기간에는 필요한 업무는 오전 중에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낮잠 자면서 쉬었다가 저녁 시간에는 거리에 나가 라마단 축제인 이프타르 식사를 즐기며 무슬림 친구들을 방문한다. 오후 시간에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던 무슬림 친구들도 이프타르 식사 시간에는 모두 친구가 된다. 길거리를 가면 서로 와서 함께 음식을 먹자고 초대한다.

라마단 기간 낮 시간에 모든 무슬림이 함께 금식하며 함께 고통을 경험한다면 밤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잔칫상을 차려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축제를 경험한다. 이러한 라마단을 통해 무슬

림들은 일종의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금년 라마단 기간은 6월 18일~7월 17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이슬람권 국가로 이웃 나라를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낮 시간에는 공개된 장소에 서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대신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라마단 이프타르 저녁식사를 적극 활용하여 식사비도 아끼고 이슬람 문화도 체험하며 무슬림 친구들을 사귀는 1석 3조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01

## CMN,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개최

### 6월 20일 오후 5시 양재 기쁨홀

오는 6월 20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의료선교팀 CMN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흠어져 있는 온누리교회 의사들을 초청해 교제하고, 축복하는 장(場)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행사에는 6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사교제, 특순, 이성미 토크 콘서트 '기독교 의료인', 이재훈 담임 목사의 말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선교팀 CMN측은 "의사들이 화합하고,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문의: 02-3215-378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2

##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의료진 초청 연수 실시

NGO 더멋진세상과 아산병원이 함께 추진한 르완다 의료진 연수가 끝났다.

르완다 의료진 초청 연수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아산병원에서 진행됐다. 초청 연수를 받은 르완다 의료진들은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지부가 있는 르와마가나시의 시립병원장 John Baptist, 응호망과 마을 루훈다 보건소소장 Gerard, 르와마가나 시립병원 간호 파트장 Kizza였다. 이들은 소

아과 병동에서 견습생으로 3주 동안 생활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르완다, 세네갈,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나라별로 의사와 간호사 5-6명을 초청해 아산병원, 연세병원, 예수병원, 온누리교회 협력병원 등에서 1~3개월간 연수를 받게 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03

## 에zell선교회 창립 20주년

에zell선교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8일 에zell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날 감사예배에서는 에zell선교회를 위해 헌신한 37명의 에zell인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선교사와 교회, 선교사 자녀와 에zell선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했다. 자진으로 고봉받고 있는 네

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도 전달했다.

에zell선교회는 선교사들을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지로 찾아가 섬기는 단체다.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 33개국을 찾아가 섬겼다. 국내 25개, 해외 12개 기도방으로 이루어져있다.

/ 김미림 기자



#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지난 2013년에 열린 카운트다운.

## 청년들을 위한 예배축제 ... 영적부흥과 쇄신 꿈꾼다 26~27일 양재 온누리교회, 28일 장충실내체육관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막 오른다. 6월 26일과 27일은 양재 온누리교회, 28일은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청년 세대의 영적부흥과 쇄신을 위해 열리는 축제다. 2년에 한번씩 열린다. 올해로 3번째다.

6월 28일에는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이 예배자가 된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청년들에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27일에는 복음과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비전을 발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28일에는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청년연합집회가 열린다.

명강사들과 게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영삼 목사(만나교회),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유병국 선교사(WEC 국제선교동원), 손창남 선교사(OMF 선교사), 김해영 선교사(게냐선교사),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온누리교회), 김승수 목사(온누리교회), 강명식(CCM 아티스트), 박지범(남미워십장사자), 이성호(문미앤 대표), 강동균(어노인팅예배인도자), 임은미

선교사(CAM대학선교회), 신길택 선교사(BTC 대표), 김홍주 목사(온누리교회), 송준기(홍대 Waychurch)가 주옥같은 메시지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회복과 치유를 선물한다. 마커스(MarkersMinistry), 지미선(CCM 가수), 주리(CCM 가수), 곽윤찬(재즈피아니스트), 김신의(뮤지컬배우)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countdown.or.kr](http://www.countdown.or.kr))으로만 가능하다. 회비는 6월 16일까지 3만 5천원, 당일 접수는 4만 원이다. 현재까지 6월 5일 기준 3013명이 등록했다.

문의: 02-3215-3761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9-23305(예금주: 온누리교회선교대회)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 1. 기억 창고를 걷다
- 2.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 기억 창고를 걷다

## CGNTV,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 지를 꿈꿔다



CGNTV가 제작한 내한 선교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 블랙미운틴.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마르코가 남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대평야를 어떻게 건너 왔는지 그 사실이 기억됩니다. ...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신과 열사(熱死)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않아 온종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만 지켜주세요.”

130년 전인 1888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믿음 하나로 영적 분도자인 조선 땅을 밟은 미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G 언더우드(1839~1916년)의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은 이 땅을 밟은 지 42년인 1907년에 쓴 것이지만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 선교사들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 1984년까지 내한 선교사 2,956명

1884년에 처음 내한한 미국 의료선교사 호러스 N 알렌(1858~1882년)은 1908년 “지금 조선에서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알렌, 언더우드, 헨리 G 아펜젤러(1858~1902년) 선교사 이래 1984년까지 내한한 선교사는 2,956명(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내한 선교사 총람’ 자료). 그중 1949년 해방 이전까지 내한한 선교사 수는 1,529명, 출신지는 미국(1,059명, 68.3%), 영국(199명, 13.0%), 캐나다(98명, 6.4%), 호주(65명, 5.6%) 순이었다. 국적 불명인 선교사는 88명, 5.7%에 달했다. 1,529명 가운데 여성 선교사가 1,114명으로 72%를 넘었다.

내한 선교사들은 의료, 복지, 교육(일반학교, 성경학교, 성경번역, 연합사역 등을 통해 한반도 곳곳에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다짐들이 돼주었다. 특히 이들은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해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이 정책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제안에 의해 1888

년에 미국 북장로회와 미 북장로교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 이후 1882년 1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사이에 선교지 분할 협정이 체결되고 그해 6월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들 사이에서 선교지 분할 협정 초안이 작성됐다. 최종 선교지 분할 협정은 1908년 9월 장로교미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장로교와 감리교미 북감리회, 남감리회(간) 조인식을 통해 인준됐다.

협정 초안은 다음과 같았다. 인구 5,000명 이상 도시와 읍들은 공동으로 선교한다. 5,000명 미만의 읍은 이미 선교를 시작한 선교회가 담당하고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타 선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선교가 시작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교파도 북강역과 권고한다. 각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단으로 옮길 경우 권위를 인정하지만 교회 담당자(임목사)의 이명서가 없는 반이름이지 않는다. 여러 교회의 권장에 대해 상호 존중한다. 섬기고 있는 담사자의 이명서가 없을 경우 다른 선교회는 모든 시역분야의 조사, 학생, 교사, 조력자들을 영입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서적들은 무료로 주지 않고 구입해야 하며 가격이 균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 북장로교는 평안남·북도, 경상북도, 황해도와 충청북도 일부, 미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일부, 제주도, 호주장로교는 경상남도, 캐나다장로교는 함경남·북도, 미 북감리회는 충청남·북도,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 총북강역도 일부, 미 남감리회는 원산 송도(개성) 춘천 등 한경남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등에서 활동하게 됐다. 서울, 평양, 원산만 2개 이상 선교회가 공동으로 담당했다. 참례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얼마나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싶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해방 후 교회분열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의 평가가 나오지만 당시에 최선의 선교방식이었다.

### 내한 선교사 2,956명과 그의 후손들

내한한 선교사 2,956명과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궁금증을 갖고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특별 선교다큐 ‘블랙미운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CGNTV 실행위원장이었던 한 정로의 후원을 받아 기획하고 미국과 국내 촬영을 거쳐 지난 4월 5일 첫 방송을 내보내게 됐다.

현재까지 CGNTV가 파악한 미국 출신 선교사들과 후손들은 캘리포니아, 캔자스,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플로리다, 버지니아, 델라웨어 등 여러 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중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미운틴은 우리나라 호남지역에서 사역했던 미 남장로교 선교사와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CGNTV 제작진은 스텐 토폴, 미야 토폴 선교사, 둘째 딸 시슬 토폴, 존 윌슨 선교사, 로버트 M 윌슨 선교사의 아들, 보이스 린튼 선교사, 휴 린튼 선교사의 아내, 그의 셋째 아들 제임스 린튼, 넷째 아들 앤드류 린튼과 아내 하디 린튼, 로버트 K 로빈슨 선교사의 아들 로버트 로빈슨 등을 만났다.

“경정교부신 선교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휴 린튼은 신사참배를 거부해 추방당하기도 한 윌리엄 린튼(1881~1960년) 선교사의 아들이다. 그는 로이스 린튼 선교사와 순천에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우고 안기복 복사와 등대선교회를 설립한 뒤 순회전도로 6,00여 교회를 설립했다. 1984년 교회들 지을 자재를 들고 나선 길에 슬쉬한 버스 운전사의 실수로 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가던 중 해골의 부러움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섯째 아들인 인요한(존 린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 구급차를 개발하게 됐다고 한다. 윌리엄 린튼은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남대 설립을 진두지휘하고 초대 총장으로 활동하며 인재 양성에 힘썼다. 윌리엄 린튼의 장인은 1886

년에 내한, 광주 수괴(아이고) 등을 세운 유진 벨(1838~1885년) 선교사다.

휴 린튼의 둘째 아들인 스티브 린튼은 남북한 윤리 및 도덕 교과서 비교연구로 미 칼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4년에 유진벨재단을 설립해 북한 결핵 퇴치에 힘쓰고 있다. 하디 린튼은 의료, 식량, 비상구호품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CFK(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FK는 북한 최초의 결핵연구소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임스 린튼은 ‘웰스프링(WellSpring)’ 재단을 설립해 북한에서 우물개발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한국명 ‘도성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스텐 토폴 선교사는 정형외과 의사선교사로서 1969년부터 1981년까지 애원원에서 근무하면서 한센인과 소아마비후유증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힘썼다. 미야 토폴 선교사는 노르웨이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온 뒤 스텐 토폴 선교사와 결혼해 소아과와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이들 부부는 유경은 박사에게 후임을 맡긴 뒤 캐나다 선교사로 떠나 20여 년간 의료사역을 이어갔다. 이들의 자녀 중 시슬 토폴은 “학교 종이 땀방울 어서 모아 자..”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잊지 않았으며 의사로서 한세 북한 사역을 돕고 있다.

로버트 M 윌슨 선교사(1880~1963년)는 1908년부터 광주기독교회 교인장으로 섬기다가 1925년 한센인을 위한 진료소를 만들어 여수 애원원을 세웠다. 윌슨 선교사의 사택의 경우 서양식 주택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88년에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대기까지 했다. 아내인 베시 K 윌슨(1880~1962년) 선교사는 성경을 가르쳤다. 현재 97세인 존 윌슨 선교사는 그의 아들로 1900년대 전주에서 생린 소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수 소독, 화장실 개조, 결핵 퇴치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운동을 펼쳤다. 현역을 은퇴한 뒤에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했다.

의해박사였던 로버트 K 로빈슨(1919~1988년) 선교사는 고아와 청소년 장학 활동을 하면서 전국 순회 무료진료를 통해 간질 환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건축가인 아들 로버트 로빈슨은 CFK 대표이사로서 북한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블랙미운틴에서 만난 선교사들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순수함을 이어가고 있었다. 해녀님, 사냥, 이웃 사랑에는 국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보여주었다. 제임스 린튼은 유망한 한국어와 복직할 음성 톤으로 취재진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하면 떠오른 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언급할 수 있었다. 한국 라면과 김치를 잊지 않고 즐겨먹는 선교사들, 한국에서 쓰던 물건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선교사들, 한국에 이어 북한까지 듣는 데 주저함이 없는 선교사 자녀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를 곱씹어보게 된다. CGNTV는 ‘잊혀진 시간’과 ‘잊혀진 사람들’을 복원해 복음만이 세상의 참된 희망임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CGNTV 합태경 경영기획본부장  
\*다시보기 [www.CGNTV.net](http://www.CGNTV.net)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노규석 목사



아랍의 명절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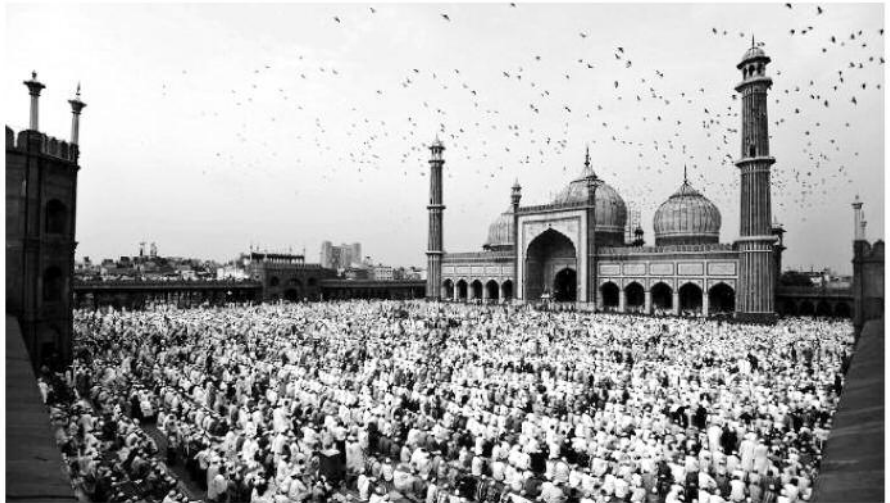
## ‘권능의 밤’ 과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한달간 진행되는 이슬람 세계의 라마단 기간 중 가장 특별한 날은 라마단 27일째인 ‘권능의 밤(Laylatul-Qadr)’ 일 것이다. 이 날은 무함마드가 메카의 하라툰굴에서 첫 계시를 받은 날로 여겨진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권능의 밤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며 알려지지 기도를 잘 들어준다고 믿는다. 그러한 믿음 덕분에 그 날은 모든 모스크에서 철야기도가 진행된다.

각 모스크 건물 외벽과 미니넷기도를 알리는 탐에도 초록색 네온을 환히 켜놓고 밤샘 기도가 진행된다. 미울미다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와 무슬림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하다.

평상시 모스크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던 무슬림들도 이 날만큼은 축복과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권능의 밤 철야기도에 출석한다.

‘권능의 밤’은 아랍 기독교인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영적으로 힘든 밤이다. 간혹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아랍 교회들을 향해 과격할 일을 벌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이 영적 돌림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권능의 밤에는 아랍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마단이 끝나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드 알 피트르’ 축제가 열린다.

### 라마단의 끝, 3일간의 연휴

라마단은 약 30일로 마치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초승달 모양을 보고 라마단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기에 그 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라마단이 끝나면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축제는 끝났다’는 의미)’ 라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진다.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지친 무슬림들이 연휴를 보내며 일가친척을 만난다.

이드 알 피트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무슬림들은 라마단의 금식을 고행이러기보다 이슬람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축제로 보고 있다. 물론 라마단 기간이 해가 긴 7-8월에 진행될 경우에는 고행이 틀림없다. 그러나 라마단 금식을 핑계로 낮 시간에

쉬고 밤에 활동을 하면서 민천을 즐기며 무슬림들에게 라마단은 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3일간 진행되는 이드 알 피트르 기간에는 모든 가족이 새 옷을 준비해 입고 친척집을 방문해 인사를 나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의 따뜻한 인심을 볼 수 있다. 친척뿐 아니라 이웃집도 방문해서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대접한다. 이웃 간의 정을 나눈다. 이러한 풍경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유사하다.

라마단은 금식뿐 아니라, 권능의 밤과 이드 알 피트르를 통해 무슬림들을 이슬람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강력한 영적 행사로 진행된다. 이러한 라마단의 위력을 알기 위해 1992년 이집트에서 열린 중동지역 기독교사모임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한 30

일 기도운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25명의 중동지역 사역자들과 함께 시작한 이 기도운동이 오늘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약 3천만 명이 함께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세계적인 기도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기도운동 덕분에 라마단 기간에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금년 라마단 기간(6월 18일-7월 17일)에 은누리교회 성도님들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www.30praying)’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참 권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01

## 2차 아웃리치 안전교육 실시

6월 15일 19시30분  
양재 온유홀

2차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이 6월 15일 19시30분 양재 온유홀에서 열린다.

아웃리치 안전교육에서는 국내외 아웃리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 대처법을 가르쳐준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JDS 선교담당자, 아웃리치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유관기관 담당자, 국제부 등 각 부서 아웃리치 담당자들은 참석해야 한다. 강사는 김진대 목사(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다.

문의: 02-3215-3208

/ 김현준 기자

02

## 온누리미션 열방연합예배

6월 14일 오전 11시 안산 관산중학교

온누리미션이 열방연합예배를 6월 14일(주일) 오전 11시 안산 관산중학교에서 드린다. 오후 2시부터는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열방연합예배에서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설교하고, 남성

합창단과 파워웨이브 캄보디아예배팀이 특순을 선보인다.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열방연합예배에는 온누리미션 소속 14개 예배공동체 600여 성도들이 참석한다.

03

### ■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간증



## 내 인생을 바꿔놓은 카운트다운

/ 김은정 자매(여호수아공동체)

나는 순장모임을 위해 매주 목요일 양재 온누리교회에 간다. 매주 밟는 양재 온누리교회 앞마당이 오늘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오늘은 카운트다운 프리워십이 있는 날이다. 사랑홀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색색의 음료가 담긴 카운트다운 물병이 축제 분위기를 냈다. 하나님께서 이번 카운트다운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프리워십 강사로 오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준비하셨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시 37:5).

한 시간 내내 이 말씀만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았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계신 선교사님의 생생한 간증이 우리를 웃기고 또 울렸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비자 문제로 한국에 머물러야 할 때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겹쳤다고 한다. 당시 이 선교사님은 가정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다. “네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걱정하니? 그건 내 영역이야.”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다. 몽골에서 본 구불구불 흐르는 강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하늘 나라 방식은 최단거리인 직선이 아니라는 것이었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은 주변을 푸르게 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중력에 의지해서 흐른다는 메시지였다. 나를 포함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았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그날 밤 우리는 메신저를 통해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밤새도록 나눴다.

나에게 카운트다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년 전 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평생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놓은 뒤였다. 더 이상 꿈도 비전도 없었다. 나는 세상과 교회에서 움츠러들고 있었다. 2년 전 카운트다운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큰 결심을 했다. 목사님께 FA 지원을 고민 중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목사님은 내 영적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먼저 여름 아웃리치를 가보라고 권유하셨다. 순모임도 하고, CDC도 하고, 홀리스타 새벽예배도 하면서 무르익었을 때 FA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지금은 순모임도, CDC도 하고 있다. 아웃리치도 가고 새벽예배도 드리고 있다. 리더십으로도 섬기고 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카운트다운 집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카운트다운이 이 시대 무너져가는 청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예배가 되길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다문화사역)

## 유해근 목사님과 질경이 사모님

나섬교회 유해근 목사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올해 고난주간 심야예배에서 피 끓는 설교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분은 이 땅의 나그네요, 이방인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 시력을 잃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유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했다.

고난주간 심야예배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갔는데 나처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무려 133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유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재한몽골학교'를 돕겠다고 서명했다. 그 귀한 서명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며칠 전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이 광진구에 위치한 재한몽골학교에 다녀왔다.

유 목사님의 아내이자 몽골학교 교장선생님인 이강애 사모님이 우리를 반겨주셨다. 깊은 주름과 백발이 무성한 유 목사님과 달리 사모님은 어린 소녀 같았다. 유 목사님은 사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코스모스'라고 소개했다. 곁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모님이 말씀하셨다. "코스모스가 그만 질경이로 변해버렸어요." 청초한 사모님이 왜 질경이가 되었을까. 유 목사님 둘째 아들

은 2급 정신지체장애인이다. 150여 명이나 되는 몽골학생들도 지도하고 있다. 시력을 잃은 남편의 수발도 들어야 한다. 비전 가득한 사역자 남편이 꿈꾸는 것들을 사모님이 현실로 만들고 계셨다. 그야말로 외우네강 조력자다.

나는 두 분을 보면서 내가 평생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와 닮은 모습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도 2급 발달장애인이다. 내 누님은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밝은미래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다문화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닮은 점이 또 있다. 누님이 섬기고 있는 몽골 밝은미래학교 학생 수도 재한몽골학교와 같이 150명이다. 누님과 사모님은 또래다. 몽골 밝은미래학교의 청사진이 재한몽골학교에 투영돼 있다. 나는 한국에 잠시 방문한 누님을 재한몽골학교와 연결해드렸다. 올 여름 몽골에서 두 학교가 MOU를 체결한다. 재한몽골학교는 학교운영을 도와주고, 밝은미래학교는 몽골인 선생님들을 추천하기로 했다.

유 목사님은 몽골이 예너지 문제를 해결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연에너지 활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다. 학교의 자급자족을 위해 몽골인들이 즐겨먹는 빵을 만드는 공장

도 설치했다.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이 학생들에게 빵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유 목사님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셨다.

서울시에서 광장동 금싸라기 땅을 기증해줘 판자촌이었던 몽골학교가 순식간에 최고급 신축 교정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실제 건축과 운영은 전액 후원금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햇빛발전소' 설치도 어느 특기자의 후원으로 받은 진행 되었지만 잔금이 문제다. 6월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유 목사님의 강력한 믿음과 헌신을 뒷받침하는 질경이 사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개인적으로도 유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 저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한몽골학교의 모든 기도제목이 응답되어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01

###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라인(www.countdown.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화비는 6월 16일까지 3만 5천원, 당일 접수는 4만 원이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6월 26일과 27일 양제 은누리교회, 28일은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카운트다운 중보기도회가 17일 저녁 7시30분 양제 은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안내와 식당봉사를 섬겨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9-29805

(예금주: 은누리교회선교대회)

문의: 02-3215-3761

02

###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 1. 기억 창고를 건다
- 2.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 CGNTV, 한국 넘어 전 세계에 ‘다큐 블랙마운틴’ 전파

“CGNTV에서 만든 블랙마운틴이란 제목의 영상을 보았는데, 한국 선교 초창기부터 한국에 와서 귀하게 섬겼던 그하면서도 이쁨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와 그 후손들의 삶과 사역을 추적하여 만든 영상인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이 이팔로 진정 ‘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진정한 삶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로이) 린튼 선교사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준 권면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되었고 한국사람 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였던 자신들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페이스북)

“내한선교사 130주년 기념 다큐를 보면서 선교사의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지, 선교사의 가정에서 자녀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선대 선교사들의 사역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계층 안에 뛰어난 토착화 모험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귀한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CGNTV에게 감사드립니다.”(여의도순복음교회 파송선교사 500여 명의 ‘블랙마운틴’ 관람 후기)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100년간 내한선교사가 286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고 선교사들의 회상과 헌신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으며 영상을 통해 신앙의 첫사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

다. 아울러 개교회, 선교기관 또는 공동체별로 블랙마운틴에 나오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호남지역 선교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은누리교회 양제이전선교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광주, 순천, 여수 등 남장로교 선교지역 및 순안위목사순교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선교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임훈 양제이전선교 대표장로는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밟는 게 너무 좋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가을에도 국내 선교역사기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요한 돌모스네트워크 대표는 “이 땅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대를 이어 복한까지 섬기는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성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종’의 영성으로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CGNTV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은누리교회의 선교정신을 잘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반응도 매우 뜨겁다.

“미국 선교사들의 애양원 사역 등을 보면서 현직에 대한 사역 이음을 생각하게 됐고 아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어요. “고 휴린튼 선교사의 동역자였던 안기장 목사님의 말 ‘선교는 결코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돼요. 또 선교는 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해요’ 라는 가르침을 잊을 수 없겠어요.”

한국교회 안에 ‘블랙마운틴’ 상영 열기 또한 상당하다. 지난 5월 14일 돌모스네트워크(공동이사



블랙마운틴선교사들과 후손들, 제작진

장 김원교·유기성 목사가 청담포럼에서 처음 상영한 데 이어 5월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계선교대회에서, 중국 난징 한인크로스코회는 한인디아스포라집회에서 많은 기독교인과 함께 감상했다. 6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남침례회 한인목회자 수련회에서 블랙마운틴 한국어 및 영어 버전이 상영될 예정이다. 6월 21일과 7월 초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블랙마운틴을 각각 상영하는 곳도 있다. 동안교회(담임 김명준 목사), 산본양문교회(담임 장영호 목사), 이밖에 대전 늘사랑교회(담임 정승용 목사), 성락교회(담임 지형은 목사),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 등도 교회 차원에서 블랙마운틴 영상을 활용한 계획이다. 김신대, 배석대는 물론 미국 트라비티산교회 등 국내의 기독교대학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국제선교단체인 INTERSERVE, WEC 국제선교회, 미 남침례회

(SBC)와 국제선교부(AMB)에도 영아버전이 전달돼 원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은누리교회는 6~7월 각 공동체 종강예배에서 블랙마운틴을 상영하게 된다.

CGNTV는 교회, 기관, 단체들이 국적을 초월해서 블랙마운틴을 볼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 제작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또 내한 선교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 유튜브 채널 ‘내가 사랑한 조선’을 오픈해 양질의 선교 콘텐츠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내가...’에는 단편 9편, 다큐 2편, 예·메이선 46편, 기획 14편, 뮤직 8곡 등이 수록돼 있다. CGNTV는 오는 10월에는 후속 다큐를 선보일 계획이다. 선교신학, 한국교회사 등 관련 학회, 연구소 등과의 공동 학술 모임도 준비하려고 한다.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칼럼 윤영각 장로 CCF(Christian CEO Forum) 회장

## 왜 블랙마운틴인가

CGNTV 다큐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에 나온 고 휴 린튼 선교사의 넷째 아들 앤드류 린튼과 친구사이다. 그가 과거 홍콩의 한 투자은행에서 일할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2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앤드류를 다시 만났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물었다. '블랙마운틴', 앤드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욕에서 일하고 주말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낸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과거 한국에서 사역했던 미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이 블랙마운틴에서 살고 있는지 몰랐다. 블랙마운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상이 바빠다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성탄절 온누리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다룬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다큐를 보다가 블랙마운틴이 다시 떠올랐다. 손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분이 마침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앤드류에게 이메일을 보내 블랙마운틴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다. 얼마 후 이재훈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

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CGNTV가 담아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이 목사님은 CGNTV에서도 그 아이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졌다. 앤드류에게 CGNTV와 함께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아해하면서 주저했다. 나는 한국기독교역사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고 선교사들이 매우 연로하시니 더 늦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다.

지난 1월 24일 CGNTV 제작진과 함께 블랙마운틴에 도착한 날 앤드류 린튼과 그의 아내 하이디 린튼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자신들이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결코 영웅담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이 린튼 부부가 걱정했던 부분을 털어놓았다. 과거 한국인들이 블랙마운틴을 몇 번 방문해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책선교사 자녀들이 기록한 자서전 등과 관련사진 등을 내주었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결과물도 없었다는 것. 소문엔 자신들이 준 자료를 팔았다는 얘기까지 들려 마음이 상해있었다는 것. 린튼 부부는 우리를 신뢰하기에 인터뷰를 거절하는 분들까지 설득해 취재하도록 도와주었다.

블랙마운틴 제작과정에서 잊혀진 게 있다. 블랙마운틴을 방문하기 얼마 전이다. 과거 워싱턴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던 친구를 만났다. 그를 통해 워싱턴 한인감리교회에 10여 년 전 기록한 블랙마운틴 선교사 자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블랙마운틴 취재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인터뷰 대상이 계속 늘어갔다. 제작진은 계획한 일정까지 연장해 블랙마운틴 외에 미 동부지역에 있는 내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다.

CCF가 나의 제안에 따라 블랙마운틴 제작비를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블랙마운틴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선교사 후손들이 한국을 넘어 북한까지 품고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은 감격 그 자체다. CGNTV가 앞으로 미네소타 주,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국의 내한 선교사들뿐 아니라 유럽 출신 내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다큐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들 선교사에게 빛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값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과정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 양지 온누리교회에는 특별한 예배가 있다

## 선교 지향, 세대별 특성과 눈높이 맞춘 주일예배

양지 온누리교회에 가면 특별한 예배가 있다. 세대별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주일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선교를 지향하는 예배도 빼놓을 수 없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청년, 성인들은 매주일 자신에게 꼭 맞는 찬양과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다. 그 은혜로운 현장에 다녀왔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태어났다. 40년 역사를 지닌 뱀뱀교회에서 시작된 양지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빌리지와 함께 성장했다. 선교를 논하지 않고서는 양지 온누리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그만큼 선교를 지향하고 강조하는 교회다. 두란노 해외선교회와 Acts29 비전빌리지(윤리팀, 열방팀, 권리팀)가 곁에 있어 자연스럽게 선교를 익힐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답게 열방과 선교사를 위한 준비기도가 주를 이루는 시간예배 열기가 매우 뜨겁다. 앞으로 하용조 목사 기념관이 완공되면 열방과 선교를 향한 시간예배 열기는 더 뜨겁게 타올라 것으로 기대된다. 양화진과 100주년 기념관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양지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빌리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매월 셋째 주에는 안식년을 맞아 고국에 온 선교사들이 강사되어 '선교주일예배'를 드린다. 선교사들에게는 기도제목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선교사들에게 직접 생생한 선교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선교사와 성도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장이다.

### 영성의 신실, 회복하는 예배처소

양지 온누리교회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지만 양한 성도들이 모인다. 농업, 원예, 축복담 증사자,

회사원, 은퇴 후 전일주목을 갖고 사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성인 예배신로 들어오는 차세대들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양지 온누리교회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울동을 배우고, 찬양예배를 드린다. 자녀들이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를 초대해 축복도 해준다.

차세대 주일에는 차세대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 '가족주일'이라고도 한다. 가족주일은 1세대 예 주신 믿음의 축복이 다음세대에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키기 시작했다. 부모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차세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리란 일리는 기하다. 자녀들에게도 유익이었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모의 믿음을 받는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4월부터는 '두드림(DO-DREAM)예배'가 시작했다. 2030세대를 위한 예배다.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과 말씀을 주를 이룬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다.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다. '두드림(DO-DREAM)예배'는 하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꿈을 두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도 있다. 매주일 오후 7시에 예배드린다. 도유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담임은 "양지 온



▲ 가족주일 예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 두드림예배.

누리교회는 영성의 신실이요, 언제든 찾아와 회복하는 예배처소'라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쉽고 기도처소가 있는 양지 온누리교회에 방문해 축복받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목회칼럼 도유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담임, TIM본부장)

양지 온누리교회는 다섯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품어주고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에 위치해 있다. 일년에 다섯 차례 이상 선교선신자들을 환영하는 선교훈련팀, 총보기도 담당 열방예배팀, 선교의 주력부대인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사설관리 및 매관을 담당하는 선교재단팀, 지역 캠퍼스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양지 온누리교회 가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40년 전 뱀뱀교회로 시작된 한 지역교회가 1988년부터 온누리세계선교센터와 함께 했다. 온누리뱀뱀교회의 시간을 거쳐 3년 전 캠퍼스교회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 지붕 다섯 가족은 다른 설립목적과 고유 사역이 있지만 하나의 비전을 붙들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역사를 오늘 우리 세대에서 이어

가기위한 선교공동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양지 온누리교회는 단순한 한 지역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 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이웃교회와 중보기도 모임 뿐 아니라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정해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기도제목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요예배는 TIM이 주관해 '성령과 선교교회'로 드린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한 간증과 선교 중심 메시지를 듣고 선교를 위해 집중 기도한다.

주중에 드리는 열방예배는 여러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고 주일예배는 매 주 예외 없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함께 드린다. TIM 본부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 지붕 다섯 가족

국내에서 본부사역 중인 선교사님 몇 가정의 교회의 사역을 돕고 순에 참여해 교제하기도 한다. 사역지 배경도 다양하다. 중국,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타지, 러시아, 몽골, 모로코, 영국... 요한계시록 7장의 한 장면만을 미리 맛보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지역교회지만 인적 구성은 과히 세계적이다.

긴 겨울을 지내고 맑은 양지의 봄은 찬란하고 자태다. 눈부신 꽃들과 새 생명의 축제에 황홀해 있는 동안 어느새 질푸른 여름을 맞이했다. 온누리교회의 한 자태가 되어 온 25년 어느 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선교의 비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목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양지 온누리교회 사역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에 족한 은혜의 나눔들이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교회와선

교'라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두 축을 겸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림과 감사할 뿐이다.

내게 양지 온누리교회와 TIM은 복음사역의 양 날개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칠 수 없고, 소용할 수 없는 소중한 주의 몸통이다. 원근 각처에서 말다 않고 찾아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겨주시는 양지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들이 있어 힘이 된다.

신속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을 헌신한 TIM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양지를 더욱 찬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스리랑카 사람들의 하루



윤용국 목사  
(온누리M센터 스리랑카예배)

스리랑카 국가에는 칼을 든 사자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스리랑카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싱할리족'을 상징한다. 국기 귀퉁이에 있는 네 개의 보리수 있는 불교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2012년 스리랑카의 종교 중심지 캔디 지역에서 2개월 동안 머물면서 언어연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현지인 라자(영국) 씨네 방한 칸을 빌려 머물렀다. 그 집에는 라자(영국)와 아내(안티), 두 딸, 아들(고등학교)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 집에서 보낸 일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라자의 아내인 안티는 학교 선생님이 큰 딸과 영어학원에 다니는 둘째 딸,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하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날씨가 덥다보니 학교수업이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세 자녀들은 6시엔 일어나 씻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이 떠들썩하기 때문에 나도 일찍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면 안티는 스리랑카의 세계적 수출품인 실론티(홍차)를 한잔 가져다준다. 우유를 타서 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설

탕을 넣어 마신다. 그 집 작은 딸은 홍차에 설탕을 넣지 않고 차를 먼저 마시고 나서 설탕을 손에 쥐고 있다가 조금씩 먹었다. 이것은 과거 스리랑카 사람들이 홍차를 마시던 습관이라고 한다.

오전 11시가 되면 비스킷과 홍차를 또 가져다 준다. 오후 4시경에도 차를 한잔 더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도 마신다. 스리랑카에서는 매일 홍차 3-4잔을 마셨다. 스리랑카는 홍차를 마시지 않고는 살수 없는 나라다. 역시 홍차의 나라다.

세 자녀가 집을 나설 때면 꼭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부모님 발을 만지면서 인사를 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다. 내가 스리랑카에 머문 2개월 동안 세 자녀들은 학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세 자녀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윤회를 믿는 나라 ... 살생금지

어느 날 하루는 가실에 뱀이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뱀이다"라고 외쳤는데 그 가족들은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였다. 나는 뱀을 때려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안티가 어디서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오더니 천천히 뱀을 바깥쪽으로 쫓아냈다. 안티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었더니 안티는 내게 "뱀도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불교사상 즉, 윤회를 믿는 나라다. 살생을 금지해서 곤충이나 작은 벌레도 죽이지 않는다. 뱀도 예외가 아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모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시간이 어찌나 정확한지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은 열여덟던 문과 창을 닫

# 홍차와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라자, 안티 가족과 함께.

는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모기에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모른다. 모기잡는 것이 일이었다.

스리랑카는 더운 날씨 탓에 천장과 벽을 띄어서 바람이 통하도록 집을 짓는다. 이 집도 그렇게 지었다. 그 덕에 문을 닫아도 천장과 벽 틈으로 모기들이 들어왔다. 안티의 가족들은 불교사상 때문에 모기를 죽이지 않았다. 벽에는 늘 게코(조그만 도마뱀)들이 붙어 있었다. 게코는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모기 등 다른 벌

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롭다. 사람도 모기를 안 잡는데 게코는 모기를 잡아먹으니 누가 잡 주 인인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보낸 2개월 동안의 시간은 현지어를 배울 뿐 아니라 평범한 스리랑카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뱀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은 시간이었다.

## 인도네시아 CGNTV 운영 · 자문위원회 발족

### 자사 운영, 콘텐츠 기획 자문 및 기도 후원 역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CGNTV와 한국선교사협의회, 한국 목회자협의회, 기타 현지 크리스천들이 의기투합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6월 5일(금)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CGNTV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총괄 본부장 김경훈 목사를 비롯해 행사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상재 지회장(CBMC자카르타지회)의 사회로, 이재정(운영위·자문위 (전)설립추진위원장) 목사가 개

회기도, 장영수(한국목회자협의회 회장)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신임 운영 위원장으로 이호덕 장로(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자문위원장으로 김재룡(한선협 회장) 선교사를 위촉했다. 은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와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신임 운영위원장 이호덕 장로는 "CGNTV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인구가 CGNTV를 보게 되는 그날을 위

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장 김재룡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이곳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 협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운영위는 현지 크리스천 기업인 40여 명으로 조직됐고, 자문위는 목회자와 선교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운영위는 인도네시아 지사 운영 자문 및 재정, 기도 후원을 담당하고, 자문위는 콘텐츠 기획 자문 및 사역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5 여름 아웃리치

#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해외 27개국 139개팀, 대청 54개 지역 80개 팀(6월 18일 기준)

2015 여름 아웃리치 주제는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다. 해외 27개국 139개팀, 대청 54개 지역 80개팀(6월 18일 기준)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올 여름 아웃리치에서도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활약이 눈부신 것으로 기대된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들이 대단하다.

차세대부터 성인까지, 국가는 물론 열방에서 복음을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가 벌어질 예정이다.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의료선교, 교회 개보수, 일손 돕기 등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천선교 본부와 안전관리분과위원회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5일에 아웃리치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식중독 예방, 자진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담은 수칙도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건강하고 안전한 아웃리치를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아웃리치 팀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방문지 특성 및 주의 사항 등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예방 접종도 반드시 해야 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대청 W공동체의 남아시아어국 아웃리치.

##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 부흥비전집회, 리더십 영성수련회 등 6월부터 11월까지 ... 발자취 되새기고, 향후 30년 준비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윤곽이 나왔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는 지나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행사를 연다.

포문은 건강한 교회 세미나가 연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외부 목회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7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식이 있다. 같은 날 저녁 7시30분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를 드린다.

9월 7일부터 28일까지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모든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9월 말에는 온누리교회 30주년사가 발간될 예정이다.

10월 둘째 주에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정점을 찍는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부흥비전집회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저녁에만 열

린다. 9일에는 평화누리공원에서 리더십 영성수련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회가 열린다.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도 이 집회에서 선포될 예정이다.

10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5년 이상 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초청 행사가 열린다. 해외 비전교회 목사들과 비전 위원들을 초청해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11월 3-6일에는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선교 열린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 김남원 부장

아웃리치 안전교육 강의 요약



김진대 사무총장(한국위기관리재단)

효율적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개인의 위기관리다. 개인이 문제가 없으면 단체나 국가에도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단체(교회)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조동대응을 잘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위기관리의 원리와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위기관리는 단순하지 않다. 삶의 모든 영역에 위기관리 원리가 적용된다. 해마다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질도가 가장 많다. 그다음은 안전사고다. 사망사고, 행방불명, 강도, 납치, 폭행 등 종류도 다양하다.

안전사고는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럽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범죄율이 높다. 자기가 가는 국가의 특성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재해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지역마다 자주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요인, 취약요인, 노출이 만나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위험을 줄이는 것은 각각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다. 위험요인

## 위험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취약요인, 노출 문제 중 한 가지라도 해결하면 위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내가 준비를 안 했는지 방심하면 그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위험도 커진다.

네पाल 지진, 필리핀은 태풍에 취약하다. 지질학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취약요인을 줄여야 한다. 취약성을 줄인다는 것은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지만 지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다. 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네पाल과 일본의 결과는 다르다.

위기관리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깨어있는 것이다. 현실적이든지 영적으로든 항상 사주경계를 해야 한다. 주변에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수많은 위험요인들

속에서 깨어있어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둘째는 취약성을 가급적 감춰야 한다. 약점을 감춘다는 것은 공격하기 어려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일정과 동선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과 동선의 변화를 준다거나 반복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눈에 띄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다. 드러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지 말아야 한다. 만약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의 능력과 신분, 재력 등을 가급적 숨겨야 한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스리랑카 사람들의 생활

# 그들이 왼손을 쓰지 않는 이유



윤용국 목사  
(은누리M센터 스리랑카예배)

스리랑카의 식사 문화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 그들은 식사할 때 수저 대신 손가락을 사용한다. 양손을 사용하되 주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한다.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주식은 쌀과 커리다. 나는 언어연수를 하던 중 머물던 현지인 집 가족들 덕분에 아파, 도세, 누름, 고무, 에그로티 등 평소엔 맛보기 어려운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었다. 이번 주에는 라자 앙클 집에서 경험한 생활 문화들을 나누고자 한다.

### 스리랑카의 식사, 화장실, 조문 문화

스리랑카에서는 식사 전에 먼저 손 씻는 그릇(finger bowl)에 물을 가져다준다. 여기에서 식사할 손을 씻는 것이다. 이런 문화를 모르고 손 씻으려고 가져다준 물을 마신 적이 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자신의 빈 접시에 밥과 음식을 먹을 만큼 가져온 다음 그것을 손으로 비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조금 된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약

간위로 밀듯이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는다.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처럼 밥을 먹을 때 한 음식에 여러 사람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어 먹는 것을 비위생적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손으로 먹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라고 여긴다. 나는 2개월 동안 라자 앙클 집에 머물면서 매일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다 먹고 난 다음에도 손 씻을 물을 준다. 식사의 마무리로 그물에 손을 씻으면 된다.

스리랑카에서는 왼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 화장실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자 앙클의 집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었다. 휴지가 비싸기도 했고 아주 얇다. 품질도 좋지 않다. 화장실에는 조금 큰 물통에 물이 담겨 있다. 그 물통에 조그만 통이 하나 더 있다. 먼저 용변을 본 다음 조그만 통에 물을 담아서 용변을 처리한다.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듯 하면서 왼손으로 동시에 용변을 처리하는 것이다. 제일 적용하기 힘들었던 것이 화장지 없는 화장실 문화였다. 좀 더 좋은 화장실에는 물통 대신 물 뿌리는 호수(비데, bidet)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오늘날의 비데를 사용해오고 있다. 매일 이렇게 화장실에서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엽다고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머문 현지인 집 물레 팔 하르사는 아십네 후반이어서 결혼하려 했다. 하루는 안타가 어떤 남자 사진을 가져왔다. 이 남자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별자리점(horoscope)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리



장례 조문을 하러 집에 모인 동네사람들.

랑카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별자리점을 본다. 나도 안산에서 스리랑카 사역을 하면서 스리랑카 형제들이 별자리점이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진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스리랑카에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봤다.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별자리점이 안 맞으면 결혼해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인데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

까웠다. 현지인 집에 머물던 2개월의 시간이 지날 무렵 강한 불교도인 인터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스리랑카에서는 사신을 집안 거실에 모셔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얼굴을 보면서 조문하도록 한다. 10여 명의 스님이 와서 불교식 위로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본국을 떠나 한국에 온 이주민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 미니 러브소나타 ‘재회’

## 러브소나타 교토 후속 프로그램 개최



미니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 모습.

지난 4월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는 끝났지만 교토 교계의 연합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재일대한 교토교회에서 의미 있는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러브소나타 교토

실행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 '미니 러브소나타'가 바로 그것이다. 러브소나타 교토 협력교회에서 약 200명이 참석했다.

미니 러브소나타는 '재회를 주제로 열렸다.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에서 결산한 사람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교토 교계의 부흥을 간구하는 자리였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초청해 전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러브소나타 메인 통역사인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도쿄 그리스도선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테니베제철의 매니저와 자마 토타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현지 음악인들도 출연해 간증과 아름다운 찬양연주를 선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참석자 간증

##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천년 교토 교토 794년부터 1868년까지 무려 천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수도였다. 지역 특성상 도시 하나가 온통 문화재라고 할 만큼 역사적인 곳이다. 그런 탓에 이곳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인 만큼 수많은 사찰과 신사가 밀집해 있고 매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교토에 러브소나타 전도집회가 열린 것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토 교회들이 그때의 감격을 잊지 않고 재현했다. 교토에서 두 번째 러브소나타가 열렸다. 큰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재일대한 교토교회의 200석이 넘는 자리가 초청자들로 꽉 찼다. 한마디로 감동과 은혜의 도가나였다. 우리는 교토에서 열린 두 번째 러브소나타를 통해 재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강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은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토 러브소나타에서 결산한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아무 탈 없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 조수정 선교사(교토 은누리교회)

## ‘살롬 예루살렘 대회’ 22일부터 25일까지

키비가 ‘살롬 예루살렘 대회’를 개최한다.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과 뉴욕 유대인 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살롬 예루살렘 대회는 오전은 이스라엘 세미나, 오후는 살롬 공연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일본과 중국의 목사와 성도들도 참석한다.

동방의 세 나라가 함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위로한다.

문의: 02-792-7075



# “나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



2015 카운트다운 집회

##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청년 3천 명 운집 오늘 오후 2시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주일연합예배’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의 열기가 뜨겁다. 오늘(28일)은 무대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장충실내체육관으로 옮긴다. 오늘 오후 2시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주일연합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박종길 목사가 설교한다.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간과 이웃리치 발달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지난 26일 막 올랐다. 찬양 기도 예배를 갈망하는 청년 3천 명이 운집해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가 될 것을 다

집했다.

26일과 27일에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첫날은 예배(Worship), 둘째 날은 선교(Mission)가 주제였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 본부장),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손창남 선교사(HOMF 선교사), 김해영 선교사(케냐선교사),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동원) 등이 강의했다. 이틀 동안 열린 저녁집회에는 청년 3천 명이 참석해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을 가득 채웠

다.

이번 카운트다운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3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심성의껏 섬겼다. 또한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한 청년들의 연합 새벽기도회도 개최되었다. 청년들의 헌신, 섬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카운트다운 집회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캄보디아의 결혼문화



신정빈 목사  
(은누리M센터 캄보디아예배)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은 캄보디아를 건국한 크메르(Khmer) 왕자 썬레아 통(Areah Thong)과 나가(Naga)의 공주 네아(Neang Neak)의 결혼식 설화에서 유래했다.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은 여러 가지 예식들로 이루어진다. 모든 예식은 캄보디아 고대 문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전통 노래를 함께 불러 그 의미를 설명한다. 결혼 시즌은 간기인 11월부터 4월 사이에 가장 많이 한다. 캄보디아 결혼식은 보통 3일 동안 진행되는 흥미로운 행사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동네에 있는 사원에 가서 인사를 한다. 그곳 토지신에게 결혼한다고 고하는 일종의 신고서이다. 하객들은 청첩장이 아니라 초대장을 받는데 초대장 없이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 초대장 봉투는 축의금을 넣는 용도로 사용된다. 모든 결혼식 비용은 신랑이 부담한다.

결혼식 날 신부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화려한 분홍색 꽃으로 장식한다. 이른 새벽부터 전통음악을 크게 틀어 온 동네 사람에게 결혼식을 알린다. 집 앞 골목에 텐트가 세워져 길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집집마다 한 번씩은 열리는 행사기에서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결혼식에는 악사를 불

러 하루 종일 연주하고 만담가의 공연 등을 통해 결혼식 내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랑 가족들이 화려한 색깔의 전통의상을 입고 지참금 명복으로 고가와 아예, 과자와 떡, 열대 과일 등을 장반에 담아 신부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결혼식의 첫 순서는 절에서 모셔온 스님이 불경을 읽는 것이다. 이는 신랑 신부의 복을 빌고 죽은 조상신들에게 신랑신부의 결혼식을 알리는 의식이다. 신랑과 가족들은 신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신부가 나오면 준비한 꽃을 주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면 신랑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결혼예식을 교환한다. 신랑신부는 결혼예식 순서마다 보통 3-7번 정도 예복을 갈아입는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이 신랑신부의 머리를 자르는 예식도 한다. 가정생활에 불행함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신부가 신랑의 발을 씻기고 결혼한 하객들이 신랑신부 주위에 둘러앉아 오른손으로 축복을 돌려 건네며 신랑신부를 축복하기도 한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하객들이 신랑신부의 손목에 빨간 '축복의 끈'을 묶어주고 축의금을 주는 예식이다. 이때 장을 크게 울리면서 행복, 건강, 성공, 풍요,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 전통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자꽃을 새로 탄생한 부부에게 던지며 신랑신부의 혼인을 선언한다. 그리고 나면 신랑이 신부의 스카프를 잡고 신부의 방으로 들어간다. 첫날밤에 신랑 신부는 깊은 사랑에 대한 증거로 바나나를 서로 먹여 주는 것이 전통이다. 이는 새로운 커플의 행복과 자식을 많이 낳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다.

캄보디아는 오랜 외침과 전쟁, 내전 등을 겪으면

## 남자는 결혼 지참금, 여자는 생계 책임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

서 가부장적 문화와 가차관이 형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모계사회 성격이 강하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 어른에 대한 공경, 자기절제와 인내, 혈족관계 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모권이 강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준비해야 한다. 대개 2-3천 달러가 필요하다. 상류층의 경우 1-3만 달러가 지참금으로 쓰인다. 아직도 조혼의 풍습이 남아 있어 여성들은 대개 19세 이하, 남자는 24세에 결혼한다. 대부분 여자가 생계를 책임진다. 시골에서는 모계사회답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서 처가 식구를 위해 평생 일하면서 생활한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이주민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부모님께 허락 받아야 한다. 특히 어머니의 허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이웃리치 때마다 가정방문을 통해 형제자매들이 가족들의 압박이나 방해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들은 많은 자매를 만나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 부모님이 정해주는 신부와 결혼하는데 대부분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모권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아내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캄보디아 이주민 형제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01

## 이것이 바로 스포츠선교다!

### 공사랑, 온누리M센터 지체들에게 축구 가르치기로

양재 온누리교회 스포츠선교팀 '공사랑'이 온누리M센터 소속 캄보디아 지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지난 21일 스포츠선교팀 공사랑은 최근 안산시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 축구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온누리M센터 소속 캄보디아 지체들로부터 코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 앞으로 공사랑은 이상훈 감독을 중심으로 격주에 한번 캄보디아 지체들에게 축구기술을 전수한다. 이것은 단

순한 스포츠 교류가 아니다. 고국을 떠나 외롭게 살고 있는 캄보디아 지체들을 격려하고 복음도 전하는 은혜의場이다. 스포츠선교팀 공사랑은 지난 2006년 조직되었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언남고등학교에 모여 친교를 나누고 있다. 온누리M센터를 비롯해 서산 보육원, 새터민 지원 해외 아웃리치에서 스포츠선교를 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2

## 장기선교사(OSOM 25기) 훈련생 모집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장기선교사 훈련(OSOM 2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기선교사 훈련은 8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24일까지다. Acts29 비전빌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

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1일에 통보된다.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8월 8일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면접이 실시된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문의: 031-331-8182

03

## 여름 아웃리치 전도 특강 실시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본격적인 여름 아웃리치 시즌을 맞아 전도 특강을 실시한다. 7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열린다.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전도 특강 당일 현장에 서 받는다. 문의: 문쌍찬 팀장 010-4572-7373

04

### 알립니다

온누리신문에서 2015년 여름 아웃리치 후기를 받습니다. 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의료선교팀 등 국내외 아웃리치를 다녀온 성도들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원고분량: A4 1장, 글자크기 10  
내용: 아웃리치 간증 또는 후기, 아웃리치 현장사진, 글쓴이 사진  
보내실 곳: onnuriweekly@gmail.com  
문의: 02-3215-3196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 피난처에서의 상념

6월의 뜨거운 어느 날.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피난처를 찾아가다. 이 피난처는 한국으로 표류한 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NGO단체다. 한국에도 난민이 있냐는 질문이 자연스레 나올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세계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2015년까지 490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난민은 10,760명이다. 그중에 490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니 수용율이 5%도 채 안 된다. 물론 좁은 한반도에 오는 난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도 한때 조국을 잃고 중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를 잃고 내전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강도 만난 이웃들을 문전박대 하면 안 되는 이유다.

난민들은 재개발지역 판자촌에 살고 있었다. 빛도 잘 안 들어오는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는데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생계지원이 거의 없다. 취업도 금지되어 있다.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본국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도망 나온 이들이 어디서 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피난처는 이런 문제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간혹 불법체류자와 난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민은 불법체류자와 엄연히 다르다. 난민들은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정서적으로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피난처를 설립한 이호택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다가 그 속에 섞여 있는 난민들을 발견하고 난민사역을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신혼여행으로 간 중국에서 탈북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목격하고 탈북자사역에 뛰어

들었다. 지금은 여명학교(탈북자 대안학교) 교감으로 섬기고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감동받은 7명의 간사들과 협력 변호사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난민사역은 정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사역이라는 느낌이 든다. 신앙의 인물들도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난민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급박하고 절실한 사역이다.

그 곳에서 이집트 난민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그분이 땀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물 한잔을 대접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 읽은 것 같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사 19:19-25)이라는 나의 말에 감동을 받고 커피까지 타 주었다. 난민이 대접해 준 물과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파스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파스한 말 한마디와 물 한잔이 사람의 영혼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신세지만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정치가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데 간사님이 말했다. “이곳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2년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사말을 남기고 산동네를 걸어 내려왔다. 날씨는 더웠지만 마음은 쾌적했다. 피난처 벽에 쓰여 있는 성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 뜨거운 열기 아웃리치로 이어간다!

**카운트다운 종료 ... 청년 4,567명 예배자, 선교사로 헌신  
대청 2,496명 해외 21개국, 국내 54개 지역 아웃리치**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2015 카운트다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충삼·체육관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4587명의 청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

가 되기로 작정했다. 장·단기 선교사는 물론 올 여름 아웃리치에서 뜨겁고 아름답고 맛있는 신앙을 꽃 피우기로 작정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아웃리치에 돌입한다.

해외 21개국 42개팀 627명, 국내 54개 지역 87팀 1,800명이 산 넘고 바다 건너 아웃리치를 간다. 무

려 2496명이 참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방에서, 땅 끝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관련기사6-7면>**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 차세대, 본격 여름사역 돌입

**여름캠프, 아웃리치 8월 말까지 이어져**

차세대사역본부가 전국교사강습회 '여호수아 캠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여름사역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서빙고 차세대 유치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 대전 유년부까지 한 달여 동안 여름캠프가 이어진다.

11일에는 인천 유치부와 서빙고 영아부가 각 교회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차세대 아웃리치에는 36개 팀 724명(국내 8팀 191명, 해외 28팀 533명)이 참가한다. 8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서빙고 파워스테이션이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남아시아 4개국에 다녀온 것이 시작이다. 7월 9일부터는 부천 꿈땅이 중국 대련, 15일에는 서빙고 꿈땅 JDS kids가 남아시아 4개국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파워웨이브 FT(Frontier Teens)는 동아시아 B국과 남아시아 H국으로 아웃리치를 갈 계획이다.

/ 정지는 기자



#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청년들

## 2015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집회 무려 4,567명 참석 “나는 예배자, 선교사”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단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이 반짝였다. 하나 둘씩 켜지던 불빛이 어 느새 장충실내체육관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하나님께 헌신한 예배자, 온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한 4,567명의 청년들의 눈빛도 반짝였다. 지난 주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5 카운트다운 연합집회는 말 그대로 빛의 향연이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청년들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살아 숨쉬는, 영광로보다 뜨거운 2015 카운트다운 연합집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정지은 기자 jj@onnuri.org

지난 주일(8일) 장충실내체육관, 체육관 인근 식당과 거리에 청년들이 북적였다. 카운트다운 연합집회가 시작하려면 아직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북새통이다. 인 짝부터 순모임을 하거나 순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예배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표정에 신령이 가득하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장충체육관 입구에는 열감지기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었다. 드디어 체육관 문이 열렸다. 대학부는 1층, 청년부와 성인은 2층으로 임시분반하게 입장했다. 카운트다운의 숨은 주인공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이곳에서도 빛났다.

무려 4,567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원유경 목사와 홀리임팩트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그들의 뜨거운 찬양은 청년들을 지성소로 인도했다. 내 한 것 없이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 청년 2,496명이 아웃리치 간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부르심을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날 박종길 목사는 ‘Come to Worship’을 주제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재훈 담임목사는 ‘Go to the Nations’을 주제로 열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했다.

카운트다운 연합집회의 백대는 ‘FA 선교사 헌신 작정’과 ‘아웃리치 발대식’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결단했다. FA, TP, OSOM, OFMS, Better World 해외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약했다. 이어진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대학청년 대표가 아웃리치 선언문을 낭독했다. 올해 은누리교회의 대학청년부는 해외 21개국 42팀 627명, 국내 54개 지역 80팀 1,839명이 산 넘고 바다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간다. 2,496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아웃리치다.

대학청년부 본부장 김승수 목사는 청년들에게 “각자가 가진 빛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했다.







# Countdown

## 현장에서 만난 청년선교사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수많은 청년 선교한신자를 배출해왔다. 그들은 FA, TP, Better World 등 단기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장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에서 선교한신자로 서약하고 실제로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다. 예수님을 닮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이 청년 선교사로 섬기면서 경험한 은혜 꾸러미를 풀어놓았다.

###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김은영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지원했을 당시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0대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어서 헌신했지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서른 살인데 취업이 안 되면 아파하거나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20대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남아시아 M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국내훈련과정부터 선교지에서 사역한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언어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일상적 대화가 가능해지자마자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낯선 곳이고 열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교지에서 보내는 하루는 그 어떤 인내 한보다 큰 행복을 줍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결코 한산하고 힘든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선교지에서 보낸 그 시간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복색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이 최고의 순간을 맛볼 수 있습니다.

### “선교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



김현아 자매 (J4J공동체)

5년 전 학교 선배의 소개로 은누리교회에 와서 처음 참석한 집회가 카운트

다운이었습니다.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조금씩 참여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2년 전 FA 단기선교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중동 A국에서 사역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물면서 관계전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가시 땅 밟기와 노년전도를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매일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듯 저도 어떤 형태로든 매일 다섯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배웠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슬람과 기독교 교리 논쟁으로 이어졌고 제 마음이 사탄에서 분통으로 바뀌는 경험도 했습니다. 스스로 깨치고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서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해외선교사로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카운트다운에 참석했습니다. 선교를 꿈꾸는 모든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내가 모르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교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



황경훈 형제 (SNS공동체)

군대 말년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면서 교

회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던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전역하고 은누리교회에 왔습니다. Acts29 비전을 선포하는 하용준 목사의 메시지와 비전에 반응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FA 47로 중동 A국에서 사역했습니다. 8명의 청년 2명의 교역자님과 함께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사역과 한글반 사역 지역 리서치 및 관계전도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팀장과 총무로 섬겼는데 지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팀장과 교역자님의 목소리도 듣고 팀원들과 소통을 하는 더 큰 역할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넓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웃고 있는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까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에 소망을 두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에 익숙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선교포럼

# 러브소나타와 일본선교, 그리고 영향력

## 일본 교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줘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전역에는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를 증명하는 행사가 지난 26일과 27일 도쿄 오다이바에서 열렸다.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이 바로 그것이다.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은 지난 8년 동안 울려 퍼진 러브소나타를 돌아보는 귀한 자리였다. 일본선교에 대한 비전과 정보를 공유하는 '선교의 장(場)'이었다. 이 포럼에는 일본 참가자 48명, 한국 참가자 28명이 참석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포럼에는 한일관계자 76명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와 온누리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다. 러브소나타는 故 하용조 목사의 일본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서 2천여 번 울려 퍼졌다.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 곳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혔다. 일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 본리당이 있던 일본교회가 연합을 시작했다. 복음의 불모지 일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러브소나타를 위해 지금까지 1,853개의 교회가 연합했다. 일본인 73,228명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했다. 그 중에서 2,757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한신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 교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변항을 일으켰다.

“러브소나타는 화합이요, 감사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을 한 마디로 응변해 주는 표현이다. 일본교계는 러브소나타 집회를 열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를 전했고, 한국 온누리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마네노 타츠히로 목사(러브소나타 일본전국실행위원장)는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이 일본 교회와 맺은 계약이라고 믿는다”면서 “같은 지역에 있어도 협력하지 않고, 서로 알지 못했던 교회들이 러브소나타를 통해 협력하게 된 것이 가장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오비히로와 시모노세키 교회들은 아직도 지역 교회 모임을 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끝나도 일본 복음화를 위한 기도모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센다이 지역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센다이 지역에서 초교파 모임이 생겨났다. 모두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일본의 부흥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 러브소나타가 가져다 준 선물, 장벽 허물고, 협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은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나가이 노부요시 목사(가쿠다이신학교학원장)가 ‘Love Sonata Before&After’를 주제로 각 지역 실행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교계에 장벽을 허물고, 협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러브소나타에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가이 박사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일본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러브소나타의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러브소나타처럼 한국과 일본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일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일본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대서 장로(이천선교본부)가 나가무라 목사의 발표가 끝난 뒤 강단에 올랐다. 정 장로는 “일본과 한국의 성도들이 각 국가의 보편적인 국민 의식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믿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 일본선교에 큰 획 긋는 통합적 선교 방법 준비하고 실행하자

세 번째 세션은 문상철 원장(한국선교연구원)이 맡았다. ‘변형적 상황화: 일본 선교의 통합적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내와 일본에서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선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CGNIV, 일대일 제자훈련, 아버지학교가 일본 상황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선교방법이라고 했다. 앞으로 일본선교를 위해서는 궁극적 사역 목표 설정, 일본 선교 장기 계획 수립, 통합을 위한 노력 강화, 한국교회의 더 많은 소통과 협력,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일본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방법이고, 북한 선교와 세계선교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도쿄에서 열린 일본선교포럼은 한일 목회자들이 만나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에 참석한 일본 목회자들은 온누리교회에 대한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다. 오비히로에서 온 무라타 박사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기도의 힘을 보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고비야시 박사는 “러브소나타가 끝난 후에도 열매들을 계속 맺고 있다”고 했다.

변화될 것입니다.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세션은 나가무라 사토시 목사가 맡았다. ‘한일 크리스천들의 일치와 협력을 위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올해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죄를 반성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소신껏 전했다. 평화를 약속하고, 화해와 우호를 다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서로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 교계가 협력하는 러브소나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 하용조 목사를 회고하면서 그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하용조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의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세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 고기, 채소, 과일이 어우러진 영양식



신정빈 목사  
(은누리M센터 캄보디아예배)

캄보디아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메뉴가 다르다. 대부분의 음식들은 기름에 볶은 것이 많다. 시게나 달다. 특히 국 종류는 새콤한 맛이 많이 난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유난히 신맛을 좋아한다.

‘머쭈유’은 베트남에서 들어온 국이다. 생선, 피안예플, 보마토 등을 넣고 끓이기 때문에 신맛이 많이 난다. 오래 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쌀 국수 ‘꾸이따우’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볶아 구워 넣은 달걀 ‘바이쯔주록’과 ‘바이쯔모얀’은 아침 식사로 인기가 높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놈방비데’는 프랑스식 바게트 빵에 햄, 감은 돼지고기, 오이, 피파야생채, 통조림 생선 등을 넣어 먹는 샌드위치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요리 ‘놈빈쪽’은 카레와 함께 먹는 국수 요리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에서도 특별한 날이면 놈빈쪽을 해 먹는다. 재를 썬 양배추와 오이, 숙주를 밑에 깔고 국수를 얹은 후 캄보디아식 닭고기 카레를 부어먹는 놈빈쪽은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형제자매의 기정을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이 있다. 바로 ‘연

쌈’이다. 연쌈은 찹쌀에 콩이나 바나나, 고기 등을 넣어 바나나잎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꼬집면이나 찹쌀떡(세헤)에 먹는 명절 음식이다.

후식으로는 우리나라의 녹두 같은 콩을 삶아 연유를 넣어 단팥죽 같이 만든 ‘버보’가 가장 보편적이다. 아주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캄보디아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양념이 있다. 폰레삼에서 잡은 만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만든 것 같 ‘쁘리혹’이다.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요리다. 밥에 배배 먹기도 하고 다른 요리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양념으로는 라임, 생강, 레몬 잎, 마늘, 붉은 고추, 뿌리혹 등과 여러 향료, 조미료를 함께 절구에 빻아 각종 음식을 만들 때 넣는 ‘끄렁’이었다.

캄보디아에는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같이 건물의 형태를 갖춘 식당이 많지 않다. 재래 시장이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포장마차 형태의 음식점들이 대부분이다. 길가에 텐트를 치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음식을 조리해 판다. 또 자전거에 음식 재료를 담은 전열장과 조리 기구들을 싣고 다니며 즉석에서 간단한 볶음면 ‘미차’나 ‘룻차’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바쁜 직장인들이나 아이들 간식으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 열대기후 나라답게 열대과일들도 다양하고 풍성하다. 그 때문인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주민 형제들은 과일을 참 좋아한다. 한국에서 나는 과일도 잘 먹지만 고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달고 새콤한 과즙이 풍부한 과일들을 무척 그립워한다.

수도 프놈펜을 벗어나면 집집마다 바나나와 코코넛, 망고 나무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웃리치 때가 정 병분을 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칼 하나를 준비하고 맨 손으로 인완수만큼 코코넛을 따온다. 칼



외형적으로는 한국음식과 크게 차이 없어 보이는 캄보디아의 일반 가정식.

로 윗부분을 쪼개고 빨대를 꽂아주는 코코넛은 아웃리치 팀원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다. 방금 따온 싱싱한 코코넛을 마시고 나면 정시간 여정에 쌓였던 피로가 모두 풀린다.

4월에 가장 맛있다는 망고, 최상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캄캄의 두리안, 캄보디아의 오렌지 기로 잇, 스록까, 나이옹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망고 스텐, 피파야와 짜후르츠, 나무에 지친 피로를 한방에 풀어 주는 라임 주스, 여자들에게 좋다는 패션 후르츠 등 다양한 열대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캄보디아의 바나나는 작고 단단한데 익기 전에 불에 구워 먹는 구운 바나나는 달지 않고 새다른 맛이 일품이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은누리M센터에서 캄보디아 음식을 요리해 먹는다. 토

요일에 일을 쉬거나 일찍 끝난 형제들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한다.

캄보디아 음식 역시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 토요일 저녁 매주는 국과 야채볶음, 반찬이다. 주일 아침에는 주로 ‘바이쯔주록(돼지고기 달걀)’이나 ‘바이차(볶음밥)’, 가끔 ‘버보(만(달)죽)’을 먹는다. 캄보디아 음식은 고기와 채소, 과일이 골고루 함께 어우러져 있다. 영양적이다.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부드러운 음식이 많다.

식탁에서 지체들과 고향음식을 두고 마주하는 시간은 우리를 한 식구로 묶어주는 중요한 교제의 장이다. 캄보디아 예배가 개척되고 3년 반 동안 매 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방에서 요리로 섬겨준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01

## CGNTV 안테나 설치 교육 준비 중

### 아웃리치에서 안테나 설치하려는 공동체 대상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외롭다. 시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매일매일 찾아온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CGNTV가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일본 재일대한기독교회 교단 소속의 8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카와나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두희 선교사(푸른초장 교회 파송)는 지난 5월 19일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CGNTV를 만나게 되었다.

박두희 선교사는 “한국과 비교해

영적 충전시간이 부족한 일본에서 CGNTV를 통해 영적으로 채움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새 힘을 얻어 일본선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CGNTV는 올 여름 아웃리치를 가는 공동체에서 안테나를 설치하고자 하는 팀들을 위해 안테나 설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안테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 동아시아 지역이다.

문의: 02-796-1118

02

### ▪대청 카운트다운 봉사자 간증



##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

/ 윤나래 자매(J4U공동체)

2015 카운트다운은 나에게 특별한 집회로 다가왔다. 집회가 개최되기 두 달 전부터 그랬다. 4월부터 카운트다운 서포터즈로 섬겼기 때문이다. 나는 은누리교회에 온지 2년이 조금 넘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카운트다운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카운트다운을 홍보하기 위해 인쇄물을 제작하고, 이벤트를 구상하면서 카운트다운이 어떤 집회인지 알게 되었다.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커졌다. 매주 카운트다운 홍보를 위해 기도하고, 활동했다. 단순히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홍보가 아니라 청년들이 카운트다운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카운트다운 서포터즈 활동이 마무리될 즈음 집회 당일 자원봉사자로 섬기게 되었다. 하루 종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집회 일정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즐거웠다.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많다. 마음과 정신이 약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감을 맞는다.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더 기다려졌다. 처음에는 예배와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로 섬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은혜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흐뭇하게 나를 바라봐 주실 주님의 얼굴이 그려졌다. 사랑도 느껴졌다.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내 안에 있던 좌절감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평온한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봉사할 수 있었다.

카운트다운 집회에 온 청년들에게 등록과 집회 장소를 설명해줬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확인했다. 내 마음에 작은 기쁨이 생겼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였다.

청년들이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회복되고, 무엇인가를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항상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로칼럼 노홍규 장로

### 카운트다운을 마치며 드리는 감사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운데에서도 6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멘토 4567명이 함께 모여 열두 차례 예배와 선교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의력, 상상력, 사랑, 열정을 예배로 드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열정 뿐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6월 28일 장충체육관에 모였던 4567명의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였던 청년들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것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 21세기의 나실인,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 또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축복하

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을 부여주셔서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는 청년들이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주십시오. 이상승배로 갈 길을 잃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바라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름 받은 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2015년 여름 아웃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예배를 세우러 떠나는 모든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분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을 리더십으로 양육하고, 직장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쁨 부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 여름 아웃리치 시작!



남아시아, 중국에서

## 29개국, 171개 팀, 1,700명 참가 ... 국내도 풍성 공동체, 사역팀, 캠퍼스, 차세대, 대학청년부 모두 떠난다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성인공동체, 사역팀, 캠퍼스, 대학청년부, 차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여름 아웃리치는 8월말까지 진행되는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올해도 여김없이 태안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예정이다. 올해 해외 아웃리치에는 29개국, 171개 팀에 1,700

명의 성도가 참가한다. 성인공동체와 사역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아웃리치도 풍성하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는 지난 달부터 분별었다. 지난달 29일 서빙고 파워스테이션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막 오른 차세대 아웃리치는 8월 21일 남양주 꿈팡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까지 두 달여 동안 이어진다. 총 36개 팀 724명(국내 8팀 191명, 해외 28팀 53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차세대 여름캠프도 시작했다. 지난 4월 서빙고 유치부를 시작으로 8월 14일 대전 유년부까지 진행된다. 대학청년부도 여름 아웃리치에 돌입했다. 지난 2일 허브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8월 18일 W공동체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까지 계속된다. 국내 54개 지역 80개 팀 1,888명, 해외 21개국 42개 팀 627명이 여름 아웃리치에 참가할 예정이다. 여호수아 공동체와 Pole2공동체는 8월 25일 열리는 코스타(KOSTA) 홈커밍데이 자원봉사도 한다.

〈관련기사 4-7면〉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02

## “아웃리치 후기와 사진 보내주세요”

### 본지 아웃리치 특집에 소개

온누리신문에서 2015년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사진을 받는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아웃리치 현장 사진, 글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면 신문에 게재된다. 원고분량은 A4 1장.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다.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7-8월에 발간되는 온누리신문은 아웃리치 특집 신문으로 제작된다.

원고분량: A4 1장, 글자 크기 10  
 내용: 아웃리치 간증 또는 후기, 아웃리치 현장사진, 글쓴이 사진  
 보내실 곳: onnuriveekly@gmail.com  
 문의: 02-3215-3196

03

## 7월 27일~8월 1일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 새벽예배, 소천 4주기 추모예배,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억하기로 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보내는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새벽예배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7월 29일에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를 드린다. 하용조 목사가 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하용조 목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다해 헌신하다 2011년 8월 2일 뇌출혈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천했다. 향년 65세.

/ 김남현 부장 one@onnuri.org





1987년 7월 12일 탄불도교회 아웃리치. 온누리교회 입당예배 전으로, 탄불도교회 기공을 도왔다.



12가정은 교회 창립 전부터 어도 형도교회 아웃리치를 통해 섬겼다. 사진은 1986년 8월 아웃리치 모습.

기획\_ 1. 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2. 아웃리치 현황과 주의사항

# 온누리교회는 태생이 떠나는 교회

### 교회 창립 전부터 아웃리치 다녀 ... 세상과 함께 울고 웃었다 행함 강조하고, 구호 외치는데 그치거나 일회성 아웃리치 철저히 지양

“와, 여름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산으로, 바다로, 유명 관광지도 피서를 떠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떠난다. 그런데 남들과 조금 다른 곳으로 떠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피서 대신 복음 전하러 산 넘고, 바다를 건넌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캠퍼스 등 너나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이다.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물들인다. 여름 휴가를 아웃리치로 대체해도, 상당한 경제적 지출을 해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여름 아웃리치는 특별하다. 아주 특별한 기획을 하나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웃리치 역사와 의미를 정리했다. 알고 떠나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의 아웃리치는 때려야 뗄 수 없다. 아웃리치를 논하지 않고서는 온누리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세워졌다. 하용조 목사는 교회 초창기부터 성도들에게 신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떠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이 바로 선교요 아웃리치다.

1985년 7월, 12가정과 그 자녀들이 어도 형도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것이 시초다. 1987년 7월 12일에는 탄불도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등 초창기부터 다른 교회를 돕는데 힘을 모았다. 어도 형도교회 아웃리치는 온누리교회 창립(1988년 10월 6일) 전에 다녀왔고, 탄불도교회 아웃리치는 입당예배(1987년 7월 19일)보다 먼저였다. 온누리교회는 태생이 떠나는 교회다.

#### 아웃리치가 예수향기회를, 예수향기회가 공활사역과 복지재단으로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는 공활구제사역의 모태가 되었다. 교회를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울고 웃는 데까지 지경을 넓혀 갔다. 예수향기회가 그 대표적 사례다.

예수향기회는 한 성도의 헌금으로 1994년 탄

생했다. 이후 7년 동안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40만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 공활사역의 시초다.

예수향기회의 활약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95년 6월 30일 일어난 삼중벙회점 붕괴사고 현장에도 예수향기회가 있었다.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주저없이 출동했다.

당시 예수향기회 소속 200여 명의 성도들은 6일 동안 구조대원들에게 24시간 동안 식사와 간식을 제공했다. 무려 2천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이번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성수대교 참사, 가스 폭발사고 등 연이어 터진 사고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보여준 온누리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1999년 ‘한국기독교재난구조협의회’를 창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0개 교회, 국제기아대책기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24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1999년 8월에는 예수향기회가 모태가 되어 온누리복지재단이 탄생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가 예수향기회를, 예수향기회가 온누리교회의 공활사역과 복지재단의 전신이었다.

#### 재난과 사고 현장에 아웃리치들이 있었다 이태화 형제, 아웃리치에서 나온 첫 순교자

온누리교회는 아웃리치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세상과 함께 눈물 흘렸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들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빛을 발했다. 해마다 태풍피해를 입던 강원도에 재난 구조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수해민들을 위한 현금뿐만 아니라 직접 복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태풍에 쓰러진 마을을 재건하고, 지역교회를 건축했다. 다친 사람들을 성삼성의 것 치료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4년 북한 용천 열차 폭발사고, 2005년 스키장카스나미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부양하고 함께 눈물 흘렸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한 대형 쓰나미 지역 피해복구 아웃리치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팀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 탄복을 받은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감사하다는 서신을 보낼 정도였다.

2007년 1월에 발생한 아이티 지진피해 현장에



01



의료선교팀 CMN의 여름 사역 현장

도 어김없이 은누리교회 아웃리치가 있었다. 당시 아이티 지진 피해 규모는 엄청났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을 정도였다. 은누리교회는 CMN(의료선교팀) 긴급구호 아웃리치팀을 급파해 매일 3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매주비전교회는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티 아웃리치를 이어갔다. 은누리교회가 활발한 아웃리치를 벌이면서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슬픈 일도 있었다. 2004년 8월, 이태화 형제가 경남 하동 화계제일교회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순교했다. 그는 은누리교회 아웃리치에서 나온 첫 번째 순교자다. 한 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이태화 형제의 순교 이후 은누리교회 아웃리치는 더욱 활발해졌다.

**표어와 주제에 송고한 뜻 담겨 있다  
올해는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은누리교회의 아웃리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행함'이다. 구호를 외치는 데서 끝나는 아웃리치를 철저하게 배제했다. 은누리교회 표어를 보면 그 숭고한 뜻이 담겨 있다. 2006년 은누리교회 표어가 '은 세상을 위한 교회'였다. 그해 1월, 대학정년부 아웃리치팀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를 방문했다. 2008년 표어는 '열방을 향한 꿈'이었다. 그해는 다른 해에 비해 은누리교회 아웃리치팀들이 더 열심히



2015 대형 아웃리치 발대식 모습. 청년들은 올해 해외 21개국 42개팀, 국내 54개 지역 80개팀 1,869명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열방을 향해 뻗어나갔다. 2011년부터 3년 동안은 대륙을 미리 정하고 아웃리치에 집중했다. 2011년 블레싱 아시아, 2012년 블레싱 사하라, 2013년 블레싱 한반도가 아웃리치 주제였다. 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미리 정한 대륙을 품고 기도하고, 그 대륙으로 집중적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그만큼 열매도 풍성했다. 올해는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가 아웃리치 주제다. 우리가 있는 곳이 높은 곳이고 아웃리치 가는 곳이 낮은 곳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열방을 섬기겠다는 의미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캠퍼스까지 아웃리치 간다**

은누리교회 아웃리치는 성안공동체, 대학청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차세대, 캠퍼스 지역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다. 육자는 이를 두고 "은누리교회가 아니라 은누리교회"라고 칭하기도 했다. 고사리 손들의 아웃리치는 감동이 더하다. 이 름들보다 그 열기가 뜨겁다. 올 여름에도 36개 팀 700명이 넘는 차세대들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가까이 강기도 연천부터 멀리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도 광범위하다. 지역탐 아웃리치도 눈에 띈다. 예수제자학교 JCS는 하반기 개교를 앞두고 모든 수강생들이 아웃리치를 간다. 6개 반 500명의 수강생들이 15개국 42개 지역으로 파송된다. 의료선교팀 CMN 소속 7개 팀도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로 청진기 들고 떠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8개 캠퍼스에서도 아웃리치팀을 꾸렸다. 해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은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올해는 또 어떤 역사를 쓸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02



칼럼 류석인 권사

**12가정과 아웃리치**

은누리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인 1984년 10월, 한남동 옛 불화관에서 우리 12가정은 하용목 목사님의 인도로 3개월 동안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예수님의 열두제자처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아니했던 축복한 제자운명을 받았다. 성경공부는 백백했다. 하루에 성경은 10장씩 읽고 큐티노트를 제출했다. 1주일에 책 세 권을 읽고 독후감 발표도 해야 했다. 독후감을 발표하면서 울컥해 제대로 받을 있지 못하는 나를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고하연)오 장모님이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다.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다. 하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셨다. 성경공부와 수많은 기도모임을 통해 선교와 떠남을 배웠다. 교회 건물이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주일 예배를 야외에서 드러거나 아웃리치를 가서 그곳 교회를 섬기는 일이 많았다. 하루는 야외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준비하던 재택당사는 직분과 이름을 다 내려놓고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라고 불렀다. 들에게 하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공주님입니다. 공주님들은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형제들이 머슴이 되어 식사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하 목사님도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생선을 굽기 시작했다. 부엌 일하기 싫어하시던 모 장모님이 후미진 곳에서 농성이 부리다 걸리기도 했다.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저절로 미소가 자아진다. 어도 형도교회 아웃리치가 기억난다. 어도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곳이다. 홍예가 때 홍예가 갈라지듯 어도는 썰물 때면 바닷길이 나는 곳이다. 당시 형도교회 전도사님의 딸이 물의 학교에서 이바닷길을 따라 귀기하던 중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픔이 있는 곳기에 우리는 더욱 신경을 써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지금도 그 날이 기억난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폭풍이 떠올랐다. 유라굴로 폭풍을 맞은 비움에게 해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안심시키셨듯이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에 빠진 어도교회를 위해 기도도 더욱 무장했다. 어도에 도착해서 발인을 하고 배타고 조개잡이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어도 주민들에게 해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형도교회 전도사님이 감사하며 직접 준비한 포도 한 상자를 선물로 주셨다. 이형기 사모님이 마침 성찬용 포도즙이 없으니 이 포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포도즙을 만들 줄 알았던 내가 선뜻 자원했다. 형도교회에서 주신 포도 한 상자가 은누리교회 첫 성찬포도즙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30년 동안 은누리교회 성찬포도즙을 만들고 있다. '포도즙권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전 교인이라 150여 명 정도 됐을 때에 하 목사님 인솔 하에 이스라엘 비전투리를 떠나기도 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며 갈릴리 호수에서 열정을 토하시는 하 목사님의 설교는 목직함 감동으로 다가왔다. 은누리교회는 선교의 가치를 들고 세워진 교회다. 하 목사님은 늘 "사도행전적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다. 은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심자기와 부활을 전하러 계속 떠나라고 강조하셨다. 삶 자체가 선교라고 강조하셨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듣고 세상을 품는 은누리교회가 자랑스럽다. 그것이 바로 은누리교회 아웃리치다.

2015년 7월 12일 1057호

- 01 - 기획 ① 은누리교회와 아웃리치 1-2(5면)
- 02 - (칼럼) 12가정과 아웃리치 : 류석인 권사(5면)



남양주 J1대학부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



조유진 자매 (J1대학부)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는 부족한 것도 생활에 큰 어려움도 없었다. 그런데 마음에 큰 공허함이 있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공부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도 나의 신앙은 혼란스러워져갔다. 성인이 되면 무엇인가 명백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더 넓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불분명한 정체성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 혼란스러운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아웃리치 가기 하루 전에 청년들을 위한 카운트다운 집회가 있었다. 이런 집회 끝에는 항상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데 나는 일어나지 않았



# “아픔의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

다. 그냥 이곳에서 삶으로 증거하겠다면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 것 같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다는 사실도 두려웠다. 이 이야기를 FA선생님께 하나씩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면서 나를 위로해주셨다. 어떤 분은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와 함께 갈 것이다” (수 1:9)

당황스럽긴 했지만 감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막상 내 삶을 돌아보니 항상 예상치 못한 곳으로 주님 손에 이끌려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며칠 뒤 선교 헌신의 밤 행사가 있었다. 그 동안 FA선생님들과 이야기한 것과 남아시아 1국 선교 현장을 보고 내 고집을 내려놓기로 했다. 온전히 내려놓고 싶었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일어났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놓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아웃리치 기간 동안 예배를 5번 정도 드렸다. 화려한 무대 장치 없이 기탄으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다. 나는 조



아웃리치를 통해 만나게 된 1국 아이들.

용하고 뜨거운 예배의 자리를 원했다. 그곳에서 내가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남아시아 1국은 무슬림 인구가 많다. 약 2억 2천명이나 된다. 압권보다 추수할 것들이 훨씬 많다. 예수님이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도 무슬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비전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선교사님께서 대답해주셨다.

“아픔의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 현실을 봐야 열정이 생긴다는 말씀이었다. 목적이 생겨야 열정이 생긴다는 말이 정말인가 보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사랑과 신뢰 그리고 기다림이 무엇인지 배웠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겼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01

CGNTV

일본 아웃리치



이득수 형제  
(일본제작팀)

첫 아웃리치를 앞두고 심적으로 근심과 불안이 많았다. 아웃리치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촉박했다. 일본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마음이 더 급했다. 편견이 생길까봐 일본에 대한 정보를 일부터 알아내려고 하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출발 전날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육신의 연약한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기침을 한 달 동안 계속했다. 병원 5-6군데를 다녔고 응급실에도 두 번이나 다녀왔다. 각종 약이란 약은 다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웃리치 출발 당일, 공항에서도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에 도착하자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더 많은 모습들을 눈에 담기 위해 열심히 촬영을 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팀의 목적지는 나카노 우에다시다. 도쿄나

리타공원에서 전철로 1시간 10여 분을 이동한 다음 신칸센을 타고 1시간 10여 분을 더 달려야 도착할 수 있었다. 아침에 출발해 오후 늦게 도착했다.

아늑하고 평안함이 느껴지는 동시에 차가움도 느껴지는 우에다 은누리교회에 도착했다. 나는 캠퍼드 촬영을 맡았다. 내가 소속된 부서가 일본 제작팀인 만큼 일본의 더 많은 모습들을 캠퍼드에 담으려고 애썼다. 급할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촬영을 했다.

한편으로는 너무 촬영에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아웃리치를 왔으면 이곳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듣고 느끼고 기도해야 하는데 촬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우리 팀은 이곳에서 금요 기도회, 안테나 설치 및 MS 교회 주변 보수공사, 전등 설치, 주일예배 특송, 비람밤 나눔 등을 했다. 우리가 삼가는 동안 보여준 우에다 은누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친절과 아낌없는 헌신이 인상 깊었다. 우리 팀원들 간의 따뜻한 배려도 돋보였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주일예배 특송이었다. 매일 저녁 특송 연습을 했다. 우리의 준비는 미약

# 지금도 일본이 그림다



CGNTV 직원 일본 아웃리치에서.

했지만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평소 눈물이 거의 없는 내가 울컥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특송이 있었다. 사랑을 전하고 싶기러 왔다가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아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배운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일본은 기쁨에 새겨질 만큼 깨끗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도 미안까지

다. 사진과 동영상만 정리하면서 지금도 일본이 그림다. 시간의 흐름 앞에 이 감정이 조금씩은 무뎠지고 잊혀졌지만 일본을 향한 기도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문화차이도 있고 기교도 더면 나라도 느껴졌던 일본이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됐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02

차세대 파워스테이션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



이소라 자매  
(서빙고 파워스테이션)

서빙고 차세대 파워스테이션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남아시아 1국에서 진행된 아웃리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가 속한 차세대 파워스테이션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이곳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주는 것이 이번 아웃리치의 목적이었다. 나는 원래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가 자존감도 많이 없다. 그런 내가 이곳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 청소년을 좋아하고 해 나가기에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막했다.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웃리치 준비도 많이 하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되었다. 가는 내내 그곳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명 정도 되는 현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열필결에 한 것 같

다. 내 옆에 전도사님이 안계셨다면 더 힘들지 않았을 거 같다. 사역을 끝내고 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으로는 잘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아 아이들에게 무척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현지에서 콘서트(예배) 공연도 했다. 콘서트 전에 우연히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았다. 그때서야 내가 가르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분명히 사용하고 계신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아웃리치는 내가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헤어지던 날

또 한 가지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날이었다. 그날 아이

#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



청소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파워스테이션.

들이 우리들을 위해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를 해줬다.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내게 물레와서 선물을 주어주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줄게 없어서 미안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보면

서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지 후회도 했다.

파워스테이션 멤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아웃리치를 가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꼭 기기를 소망한다. 그곳에서 당찬을 통해 놀라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12일 1057호

- 01- <CGNTV> 일본 아웃리치 후기 : 이득수 형제(일본제작팀)(7면)
- 02- <차세대 파워스테이션>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 후기 : 이소라 자매(서빙고 파워스테이션)(7면)



# 위로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Point5공동체'

## 창립 5주년 ... 전 세계 1.5세들을 하나로 묶는다

Point5공동체는 1.5세 이민자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목사 주례에서 매주일 오전 11시30분에 예배드리고 있다. Point5공동체를 '다문화 세상을 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일컫는다. 12명의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은 450명이 출석하는 예배공동체로 성장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특징인 Point5공동체를 소개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지난 주일(5일) Point5공동체가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Point5공동체 지체들은 울고 웃었다. 5년 전, 1.5세 이민자였던 정재훈 목사가 여름캠프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도 오게 되었다. 하용조 목사와 잠깐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1.5세들을 위해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용조 목사가 제안했다. 정재훈 목사는 정중히 거절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두 달 만에 집을 써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1.5세 이민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열고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그것이 Point5공동체의 시초였다.

Point5공동체의 비전은 '위로하고(Care), 나누고(Share), 기도하고(Prayer)'다. 각 나라에서 온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Point5공동체다. 하나님은 2개국 언어와 문화를 접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1.5세대만의 독특한 비전을 주셨다. 1.5세대들을 위로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비전을 가진 존재인 평신도 사역자로 양육해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것이 바로 그 비전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서로를 환경은 다르지만 고향이 하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용이하다. 외국의 유용한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한국의 정점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 1.5세대들을 양육해 열반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Point5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다. 서빙원 총무는 "Point5공동체에는 출산, 유학, 이민 등으로

이민 등으로 지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각자의 비전을 찾아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Point5공동체의 특징이다"고 말했다.

서해원 부총무는 "외국 유학 중에 있을 때 볼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 나라, 내 조국임을 실감했다"면서 "유학생들의 내면에 상처가 많은데 Point5공동체는 그들의 아픔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 1.5세대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

Point5공동체 예배에는 자유로움이 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앉는 공간(Baby care area)이 따로 마련돼 있다. 예배 중간에 아기가 울거나, 아이들이 돌아다니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유가 있고 세대 간 어우러짐이 있는 예배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독일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각 나라 말로 찬양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한다. Point5공동체는 언어로 하나 되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 비전과 비전으로 하나 된다.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회의 때나 사석에서는 영어로 말한다. 지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수용하는 유기적 공동체다.

예배 뿐만 아니다. Point5공동체 구성원들은 외국 출장이 잦다. 다문화권에서 살다보니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유연성도 있다. 그들이 거리낌 없이 예배를 섬긴다. 출산, 유학, 이민 등으로



1.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 차세대들.  
2. 창립 5주년 감사예배.

갑자기 봉사할 수 없게 되더라도 누구하나 뭐라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한다. 외국에 출장 간 사립들, 유학 간 이민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그들의 주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백곰사역'이라고 부른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백곰사역은 영어로 'Backhome'을 의미한다. 백곰사역은 잠시 한국을 방문한 1.5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소그룹 모임을 말한다. 한국에 있

는 동안에도 공동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1.5세대들에게 모교의 가되어 주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면 SNS,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Point5공동체 소식과 만남을 나눈다. Point5공동체는 1.5세대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사역칼럼 양중경 장로(Point5공동체 멘토)

5년 전 하용조목사님과 이재홍목사님은 세상의 변화 속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고민하셨다. 아날직 이민을 갔다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장기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해외근무를 다녀온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자녀들인 1.5세대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고 양육할지를 고민하셨다. 1.5세대들이 가진 장점은 문화와 언어다. 그들이 Acts29 비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1.5세대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1.5세대들을 위한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로 정재훈 목사가 오셨다. 정재훈 목사님도 1.5세대. 미국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Point5공동체 초창기에 이재홍 목사님은 나와 이남식 장로님은 중심으로 1.5세 이민자들을 위한 멘토들을 구성하셨다. 이남식 장로님은 Point5공동체 대표 장로로 활동하셨다. 6개월 동안 1.5세대와 관련된 소수의 사립들과 함께 모여 만남을 보고 기도로 준비했다. 2010년 7월 11일, Point5공동체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창립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60-80명의 인원이 모였다. Point5공동체 초창기부터 온누리교회의 DNA인 일대일과 큐티, 순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워진 Point5공동체는 날로 성장했다. 지금은 450명이 출석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출석교인 중 78% 정도가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교육

## 우리의 사명 그리고 바람

을 통해 순장을 세우고 다락방정도 세우고 있다. 참석인원만 늘어간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행신도들도 함께 성장했다. 일대일 지지양육도 공동체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Point5공동체에는 30대가 가장 많고, 20대와 40대, 50대에서 70대 성도도 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Point5공동체의 비전은 Care, Share, Prayer다. 서로 돌보고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공동체다. 그 다음은 모임(Care)이다. 하용조 목사님 말씀처럼 "가라"고 할 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Point5공동체는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유럽 한인 이민교회로써를 섬기고 여름에는 통영과 고창에서 영어캠프를 열고 있다. 1.5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국적인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 두 가지 비전을 이루고 싶다. 첫째, 온누리교회 DNA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지체들을 잘 양육해 국내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는 열반을 향한 섬김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경험한 장점을 살려주는 훈련 과정을 구축하고, 다음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창의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Point5공동체에서 양육되면 좋겠다. 그들이 온누리교회 안팎에서 할 일이 얼마만큼일까.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박광규 전도사  
(은누리M센터 몽골어예배)

몽골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얀 음식(차강 이데)과 빨간 음식(울랑 이데)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먼저 몽골음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태제를 설명하고 싶다. 수태제는 양젖(혹은 우유)과 물 그리고 찻잎(지역에 따라서는 찻잎에 더해 시고기나 뼈 그리고 곡물을 넣어서 끓이기도 한)을 넣어서 끓여낸 차다. 차에 불과하지만 몽골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몽골 사람들은 양젖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든다. 차강 이데는 '하얀 음식'이라는 말이다. 하얀색 양젖을 사용해 만들어진 치즈, 버터,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뜻한다. 대표적인 차강 이데는 수태제를 비롯해 '아를(딱딱한 몽골식 치즈)'과 몽골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잘 먹는 아를을 끓여 만든 '아르츠', 부드러운 '바슬락(몽골식 치즈)', 우리나라 사극에 종종 등장하는 타락족의 원조인 몽골식 요거트 '타락', 막걸리와 비슷한 말젖 발효주 '아이락' 등 다양한 발효 유제품들이 있다. 몽골에 가게 되면 이것들을 꼭 맛보기를 권한다.

울랑 이데는 차강 이데와 다른 개념이다. 붉은 음식을 뜻한다. 붉은 음식은 빨간색 고기로 만든 음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울랑 이데는 차강시르(설날)와 같은 명절에 먹는 몽골식 만두 '보오즈'와 몽골식 군만두 '호소르', 몽골식 물만두 '반쉬' 등

이 있다. 특별한 행사 때에만 먹는다'는 '허허(하얀 고기찜)도 있다.

몽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유류음식 '골라쉬'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조이왕(볶음감국수)', 여러 종류의 '호락가(볶음밥)', 비프스케이프와 같은 커블릿, 국수를 비롯한 국물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술(국물)도 유명하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유입된 음식들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음식인 김치, 김지탕, 닭볶음탕, 불고기 등도 즐겨 먹는다.

#### 야채를 먹지 않는 이유

몽골음식은 날리 일러진 대로 기림시다. 한국처럼 쌀과 반찬, 국으로 이루어진 음식이 아니다. 볶음밥, 만두, 말가루 떡 같은 음식이 대부분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족하고, 입맛에 맞지 않다. 몽골 사람들은 쌀과 야채가 주식이인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서양 사람들처럼 육류와 유제품, 빵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산다.

몽골에 갔던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야채나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몽골 사람들이 야채를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내몽골에서 아웃리치를 하면서 나와한담에서 사역했던 한 몽골 자매는 야채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끔찍하게 싫어했다. 몽골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몽골 사람들이 야채를 먹지 않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몽골의 주된 산업이 유목, 방목 등 목축업인데 가족들이 먹는 야채를 사람들이 가져 먹게 되면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었다. 가족의 먹이를 사람이 먹어야 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몽골 사람들은 생선도 잘 먹지 않는다.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은 눈을 뜨고 보면서 나라를 지켜준다는

## 하얀 음식과 빨간 음식



몽골음식인 반쉬와 수태제.

물고기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몽골 사람들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유목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불과 불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사냥에 사는 몽골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거나 사냥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그렇다고 몽골 사람들이 생선을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지역과 종족에 따라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몽골의 이러한 독특한 음

식문화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몽골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 ■ 은누리 몽골어예배 안내

은누리M센터 오후 2시30분 M센터 II 2층 서빙고 오후 2시30분 선교관 401호



01

# JDS 546명, 열방 누빈다

(예수제자학교)

## 15개국 42개 지역 아웃리치팀 파송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 School)가 상반기 훈련을 마치고 여름 아웃리치를 떠난다. 6개 학교(서빙고 주간·야간, 양재 주간·야간, 수원 주간·야간) 546명의 제자들이 15개국 42개 지역을 누빌 예정이다. 국내, 중국, 몽골,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제자학교는 지난 2일 양재 주간반을 시작으로 아제 서빙고 저녁반까지 아웃리치 파송식을 했다. 강수영 성도(서빙고 주간반)는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아웃리치가 되고 싶다”고 했고, 이경혜 성도(서빙고 주간반)는 “여행지 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JDS 2015 여름 아웃리치 일정〉

서빙고 주간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몽골	권성희	7월 13일~22일	어린이 캠프	
인도	이명진	7월 10일~19일	어린이사역, 마을잔치	
중국	송성숙	7월 8일~17일	학교사역(영어교실)	
태국	이민정	7월 8일~17일	교회, 학교, 양로원 섬김	
캄보디아	신지영	7월 8일~17일	초중고교 교육사역, 새친구초청잔치	
필리핀	서미란	7월 8일~17일	NGO사역, 학교급식	

서빙고 저녁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몽골	손수경	7월 25일~8월 2일	미정	
말레이시아	이정윤	7월 23일~30일	미안마 교회방문	
인도	박미숙	7월 31일~8월 9일	여성사역	
중국	지연주	8월 1일~7일	현지인 식사제공, 가정예배 인도	
미안마	요시하라미오	8월 1일~9일	미정	
인도네시아	임용민	7월 13일~20일	현지인 방문섬김, 초중고방문	
라오스	강재호	7월 19일~28일	미정	
베트남	김용복	8월 1일~8일	미정	
네팔	김종명	7월 24일~31일	미정	

양재 주간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중국	이미영	7월 4일~13일	한국어학당, 땅밭기	
인도네시아	독고춘화	7월 4일~13일	큐티 세미나	
몽골	김미정	7월 4일~13일	한국문화화랑기, 이미용	
베트남	박숙희	7월 4일~13일	현지교회 지원 및 섬김	
필리핀	여호선	7월 6일~15일	지역교회 섬김	
캄보디아	오경진	7월 9일~18일	공단지역 여성사역	

양재 저녁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몽골	유정태	7월 24일~8월 2일	아버지학교, 교실 보수	
베트남	김기훈	7월 15일~24일	정당 및 전도사역	
파키스탄	김정열	7월 25일~8월 3일	지역환경개선, 체육, 음악	
몽골	윤정희	7월 28일~8월 6일	영어, 한국어, 한국음식	
인도	박은혜	7월 12일~22일	구제 및 교회사역	
캄보디아	이경희	7월 12일~21일	성경학교(유치부~청소년)	

수원 주간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몽골	임진숙	7월 3일~12일	가정초대사역, MIU직원들과 교제	
미안마	김영미	7월 10일~19일	유치원 교사 교육	
중국	차경신	7월 6일~15일	성인대상 전도, 땅밭기	
인도네시아	힘은주	7월 14일~23일	마을벽화 그리기, 현지인 교제	

수원 저녁반				
국가	팀장	일정	사역내용	
중국	남미숙	7월 18일~25일	땅밭기, 청년사역	
인도	이기택	7월 31일~8월 9일	어린이전도, 마을잔치, 땅밭기	
베트남	최정희	7월 25일~8월 2일	청소년수련회, 빈민가 구제사역	
캄보디아	김남수	7월 31일~8월 8일	교회 초중고 대상 사역, 땅밭기	
몽골	전정호	7월 31일~8월 9일	아버지학교, 땅밭기	

2015년 7월 12일 1057호

• 01- JDS(예수제자학교) 2015 여름 아웃리치 일정(10면), • 02- 러브소나타 <오이타> 위한 중보기도 요청(10면), • 03- 알림 : Acts29 비전빌리지 OSOM 25기 훈련생 모집(10면)

02

# “러브소나타 오이타 위해 기도해주세요”

## 실행위원장 히로타 가츠마사 목사 편지 보내

러브소나타 오이타 실행위원장 히로타 가츠마사 목사가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에 편지를 보내왔다(11면 게재). 오이타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은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는 10월 28~29일 막 오른다. 오이타는 구수지방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 인구 117만 명, 면적 6338km<sup>2</sup>다. 전라남도 면적의 52% 정도다.

오이타현에는 교회가 67개 있다. 이

지역은 옛 일본 기독교 부흥의 중심지였다. 1551년 지비엘 선교사가 오이타 현에 복음을 전했다. 당시 영주였던 오토모 소오린 일가가 개종한 것을 비롯해 지역에 부흥이 불길이 일었다. 1587년에 일본 전역에 기독교인이 약 30만 명이었는데 오이타 지역에만 5만 명이 있었다. 그러나 1612년 막부직할령으로 크리스천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박해가 시작됐다. 많은 순교자가 나오면서 오이타현의 기독교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현재 오이타현의 크리스천 인구는 일본의 최하위권이다.

/ 김현준 기자

03

# 알림

## Acts29 비전빌리지 OSOM 25기 훈련생 모집

훈련기간: 8월 31일(월)~12월 26일(금) 접수마감: 7월 27일(월) 12시(정오)까지  
서류심사통보: 8월 1일(토) 면접일시: 8월 15일(토) 9시부터(정소는 추후 공지)

▪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준비하며



/ 히로타 가즈마사 목사(러브소나타 오이타 실행위원장)

## 세 가지 도전

나를 비롯한 일본 목회자들은 오이타 지역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통해 세 가지 도전을 하려고 한다.

첫째, 오이타의 부흥을 향한 도전이다. 1549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프란시스코 자비엘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했다. 자비엘 선교사는 오오토모 소오린의 보호 아래 오이타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가 온 지 2년 뒤에 결신자가 600~700명 나왔다. 4년 후에는 1,500명의 기독교인이 생겼다. 오오토모 소오린이 죽은 1587년에는 일본전역에 약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오이타 지역에 만 5만 명이 있었다. 사찰이나 일본 토종 종교인들도 그 부흥에 놀랐다.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다. 긴 세월 동안 박해가 시작됐다. 기독교인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하교인이 되어 믿음을 지켰다. 가중되는 박해 속에서 500명 이상이 순교했다. 그들의 자손들은 순교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다. 현재 오이타 지역 교회수와 기독교 인구는 일본의 최하위권이다. 500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통해 이 지역 믿음의 선배들이 가난한 자, 고통 받는 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다. 무엇보다 박해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소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오이타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면 좋겠다.

러브소나타 오이타가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는 부흥의 발화점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일본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던 옛 명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둘째, 오이타 현의 67개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는 도전이다. 이곳은 성도와 목사의 고령화와 고착화가 심각하다. 많은 교회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통해서 희망찬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준비하면서 교단을 넘어, 교파를 넘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셋째, 오이타 지역의 도전이다. 지난 4월 오픈한 오이타역 광장에 자비엘 선교사와 오오토모 소오린의 동상이 세워졌다. 우리는 자비엘이 전하고 소오린이 받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오이타 러브소나타가 바로 그 시작이다. 2,000명이 모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각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은누리교회 성도들도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 해주면 좋겠다.



#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7월 27일~8월 1일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7월 29일 저녁 7시30분 전 캠퍼스에서 '추모예배'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6월 2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온누리교회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억하기로 했다.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새벽예배에 가면 설교하는 하용조 목사를 만날 수 있다. 하용조 목사 기념주간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영상으로 상영한다.

7월 29일 오전에는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식이 거행된다. 하 목사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 “작지만 아름답다”

##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과 김포M센터의 인연

“너의 크롬 브레이크리 여음씨 꾸로 사따이모이(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에멘(아멘).”  
 30여 명의 캄보디아 청년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찬양은 마치 이 땅에서 드리는 천국예배 같았다. 아니 천국예배였다. 이마로 흘러내리는 땀이 캄보디아 청년들의 열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 타국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간절하고 애뜻했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인 봉사자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는 작지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포M센터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매월 둘째 주일 캄보디아 청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믿음다락방 성도들.

지난 주일(12월) 김포시 양촌읍 양곡프라자 703호 부천 은누리교회 소속 김포M센터가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서 매주일 캄보디아 청년 30여 명이 예배를 드린다.

김포M센터가 생긴 것은 4년 전이다. 당시 부천 은누리교회 이경복 집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방인 직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예배하게 찾고 있었다. 무수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김포 지역에는 외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군데도 없었다. 결국 그는 양곡동 인근 하늘바람교회의 장소를 빌려 내팔 청년 5명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김포M센터의 시작이다.

내팔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떨어터 예배, 캄보디아어 예배로 바뀌었다. 지금은 캄보디아어 예배만 드리고 있다.

김포공동체와의 인연은 한 사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년 전 김포공동체 순원이던 김자에 목사가 김포M센터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인연 덕분에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이 올해부터 김포M센터를 섬기고 있다. 이홍두 다락방장과 1~4순 성도들이 매월 둘째 주일에 김포M센터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식사를 대접한다. 이정신 집사(민음 3순)의 인도로 매주 1회씩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다.

###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홍두 다락방장의 아내인 유혜정 집사는 섬김이 미안스럽다고 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는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달에 한번 섬기는 것뿐이에요. 다락방 식구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의 김포M센터 사역은

주일 오전에 시작된다. 세령은 은누리교회 1부 찬양팀을 섬기는 유 집사는 토요일 저녁부터 정신했다.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한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일에는 새벽 4시 00분에 집을 나선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찬양인도, 대표기도, 통역 등 예배의 모든 순서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직접 한다. 시간 강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성경공부를 한다. 오후에는 한국어 교육도 받는다.

### 그 영향력이 캄보디아까지

김포공동체뿐만 아니라 부천 은누리교회와 한강공동체도 김포M센터를 돕고 있다. 크고 작은

섬김은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 영향력이 캄보디아까지 이르고 있다.

한강공동체는 여름 아웃디치 때마다 교회를 방문해 시설을 보수하고 정기적으로 캄보디아 청년들과의 운동회, 아웃팅 등 교제에 힘쓰고 있다. 부천 은누리교회에서 캄보디아로 파송 받은 한 선교사는 김포M센터에서 만났던 형제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 현지에 교회를 개척했다. 지난해 여름 아웃디치 때에는 프놈펜왕립대학 한국관에서 김포M센터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한 집회도 개척했다. 올해도 부천 은누리교회는 캄보디아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아웃디치를 간다.

김경복 집사(부천 은누리교회)는 “내년에 김포M센터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는 형제들을 모아 본국에서 찬양전도 집회를 열 계획 중”이라며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다.

### ■ 간증



/ 이홍두 다락방장 부부(믿음다락방)

### 그날을 꿈꾸며

2014년, 김포M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에 목사가 내가 속한 믿음다락방 2순에 왔다. 함께 순도임을 하게 되었다. 그분은 3년 전부터 김포M센터에서 사역하고 계셨다. 김지에 목사를 통해 김포M센터와 인연이 닿았다. 그곳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김지에 목사는 직장에 포기하고, 오직 캄보디아 청년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있었다. 열

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형제들을 섬기느라 일주일 내내 김포M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다락방 2순 재배들이 김포M센터를 방문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 기부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믿음다락방의 김포M센터 섬김이 시작되었다.

올해부터 다락방장의 소명을 받은 나는 다락방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회선교 지역지로 김포M센터가 어디냐고 순장과 순원들에게 물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은 31가정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3가정이 매월 김포M센터를 섬긴다. 매주 1회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이정신 집사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순모님과 다락방 방문은 매월 둘째 주에 음식봉사로 섬기고 있다.

우리가 직접 현지에 나가 선교는 못하더라도 캄보디아 형제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로 인해 가정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믿음다락방 가족들은 그날을 꿈꾸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형제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인제가 느껴진다. 찬양과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캄보디아 형제들이 김포M센터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 사역에 개인이 아니라 믿음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 고맙다. 김포M센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은누리교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



기획\_ 1. 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2. 아웃리치 현황과 주의사항

# 올 여름 7,606명

### 국내 178개 팀, 5,306명, 해외 30개국 102개 지역 2,300명 국내는 충청도, 해외는 아시아 ... 대학청년부 으뜸, 차세대도 활발

올 여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현황이 집계됐다. 국내 아웃리치는 178개 팀 5,306명, 해외 아웃리치는 30개국 102개 지역으로 2,300명이 간다. 총 7,606명이 참가한다(7월 15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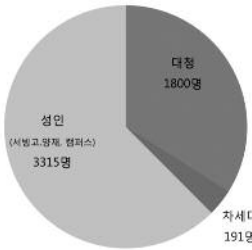
국내 아웃리치 규모가 크다. 무려 5,306명이 참가한다. 국내 10개 캠퍼스 중에서는 양재 온누리교회가 가장 활발하다. 21개 공동체에서 1,884명이 아웃리치를 간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14개 공동체에서 1,199명이 참가한다.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참가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캠퍼스에서는 25개 팀 438명이 국내 아웃리치를 간다. 캠퍼스 중에서는 남양주가 가장 활발하다. 8개 팀을 꾸렸다. 이어 강동이 6개 팀, 부천과 인천이 각각 5개 팀, 평택이 1개 팀을 꾸렸다(대전 미취학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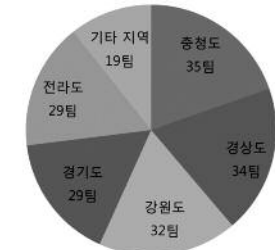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열기는 성인공동체보다 더 뜨겁다. 10개 공동체에서 84개 팀이 아웃리치를 간다. 참가인원은 1,800명이다. 아웃리치 일정도 성인공동체보다 길다. 성인공동체의 경우 2차 3일 일정이 가장 많은데 대학청년부는 3차 4일 일정이 가장 많다. 대학부 허브공동체는 가장 짧은 일정이 3차 6일이다.

차세대 아웃리치도 만만치 않다. 8개 팀 191명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어린아캠프와 여름성경

#### 국내 아웃리치 참가인원



#### 국내 아웃리치 지역별 현황



와 전라도는 각각 2개 팀이다. 마을 벽화 그리기, 교회 시설 개보수, 마을잔치, 이미용봉사, 여름성경학교 등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청소년 영아캠프를 하는 팀도 있다.

해외 아웃리치 아시아로 치중 ... 전체 팀 92% 성인공동체보다 대형, 차세대가 더 많이 간다

#### 해외 아웃리치 참가인원



#### 해외 아웃리치 나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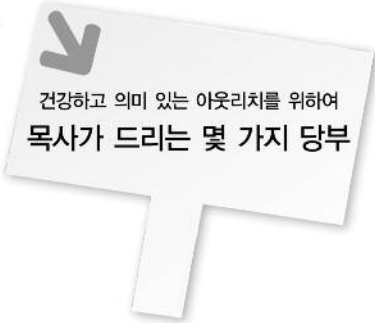


올해 해외 아웃리치는 아시아 지역으로 치중됐다. 2000선교본부에 따르면 30개국 102개 지역으로 2300여 명이 아웃리치를 가는데 그중 82%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대학청년들이 성인공동체보다 해외 아웃리치를 더 많이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공동체에서는 401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가는데 대학청년부에서는 685명이 간다. 차세대도 630명이 간다.

올해 온누리교회 해외 아웃리치팀이 가장 많이 가는 대륙은 동남아시아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15개국으로 113개 팀이 떠난다.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이 가는 대륙은 동북아시아다. 일본, 중국, 몽골로 5개 팀이 간다. 전체 팀의 28%다. 기타 대륙으로는 유라시아(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부랴트공화국) 대륙으로 4개 팀, 아프리카(세네갈, 코트디부아르)와 중남

학교가 주요 사역이다. 올해 온누리교회 국내 아웃리치팀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은 충청도다. 35개 팀이 충청도 땅을 밟는다. 경상도는 34개 팀, 강원도는 32개 팀, 경기도



## 아웃리치 시작과 끝은 말씀과 기도, 개인 영성 점검해야 안전 확보, 개인행동·SNS 자제, 위급상황 발생하면 바로 연락

아웃리치는 나의 경험을 쌓기 위해 가는 자리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도권을 내어줘야 한다. 팀원들과 연합해 선교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웃리치다. 아웃리치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 영성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은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팀원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된다. 아웃리치를 갈 때는 장기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날 때 마음과 비종이 같아야 한다.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선교지에서는 아웃리치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셋째, 선교지에서는 아웃리치팀을 기다린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차세대는 선교지를 많이 보고 느끼고 오는 것이 좋다. 그곳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뛰노는 경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스펀들이 동행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다섯째, 청년들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다만 잘하는 사역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젊은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돕는 것이 좋다.

여섯째, 성인들은 지금까지 아웃리치 경험들

을 내려놓고 현장에 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신앙과 현지의 신앙은 다르다. 문화와 성격이 정말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대면하고 가르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가르치는 마음보다 배워려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아웃리치를 가야 한다.

일곱째, 청년들과 성인들은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 욕심내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과도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게 좋다.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그 땅으로 아웃리치를 간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한다.

여덟째,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속적인 기도모임을 유지해야 한다. 중보기도 마땅히 해야 한다. 다음 해에도 그 땅을 또 밟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아홉째, 아웃리치에 대해 평가한다. 현장에서 평가하지 말고 돌아와서 팀원들끼리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평가를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정황 중요하다. 선교사, 목회자, 리더십 길에 영적 짐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권위 가질 유지되도록 서로 섬겨야 한다.

열 번째, SNS로 소통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현장 소식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급을 조려하기 때문이다. 기도 제목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내용이 교회 밖으로 퍼질 경우 2·3차 사고가 날 수 있다.

열한 번째, 개인행동은 삼가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반드시 리더십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00선교본부로 연락하는 것도 좋다.

\*2000선교본부: 02-3215-3200

/ 이재정 목사(2000선교)



# 아웃리치 간다



CMN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미얀마, 브라질, 멕시코로 각각 3개 팀이 간다. 소수지만 북미와 유럽, 중앙아시아도 각각 1개 팀이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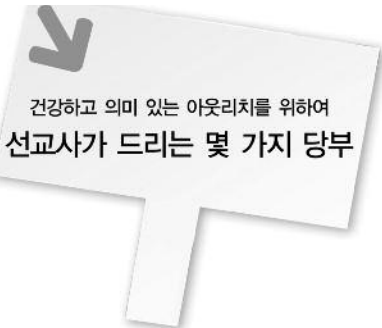
나미비아는 몽골이 가장 많다. 총 21개 팀이 몽골로 아웃리치를 간다. 이어 캄보디아 20개 팀, 인도네시아와 중국 각 18개 팀, 베트남 17개 팀, 일본

11개 팀 순이다. 필리핀, 부르키나프aso, 타자키스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도 아웃리치를 가는 팀이 있다. 의료선교팀 CMN, 예수제자학교

JDS 농어촌선교팀에서도 국내외 아웃리치를 간다.

/ 정현주, 김미림 기자

02



## 하나님 마음 발견, 선교 현장 이해하는場 선교사 지시 따라야, 선교지 문화 이해 필수

아웃리치는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모두가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 기도가 아웃리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아웃리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현지교회를 돕는 유형이다. 둘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의 땅을 밟으면서 중보기도 하는 유형이다. 셋째,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유형이다.

본격적인 여름 아웃리치 시즌을 맞아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첫째, 공동체 아웃리치는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종종로 공동체, 강서공동체, 김포공동체, 고양은평공동체, 동작공동체가 모범적으로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종종로공동체는 매년 미얀마 인터콧을 대상으로 의료선교를 하고 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종족을 10여 년 이상 섬겼다. 인터콧은 은누리교회가 입입한 종족이다. 종종로공동체 소속 성도 중에 의사가 많았는데 그 특성을 아웃리치에 접목시킨 결과다. 강서와 김포공동체도

몽골을 10년 이상 섬겼다. 교회를 세우는 일부 터 시작해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 한 공동체가 오랜 기간 한 나라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다.

전방에 있는 선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방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지를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든든한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작공동체는 하나족을, 서빙고공동체는 탐종족을 섬기고 있다. 선교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고양은평공동체는 '프론티어 사역'을 하고 있다. 프론티어 사역은 최전방 개척사역을 의미한다. 현지인 집을 방문해 관계를 쌓고 함께 예배드린다. 현지인 집에서 잠도 잔다. 반과 베품에 불리기도 하고, 닭들이 뛰어나는 곳에서 자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이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둘째, 아웃리치는 적어도 4-5개월 전부터 찬가인원을 확정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현

지선교사와 공동체 선교사역자는 매년 초부터 사역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웃리치 필요분품과 재정 조달에 있어서 모든 순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셋째, 아웃리치는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돈과 시간만 들고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예타는 마음을 품고 와야 한다.

넷째, 아웃리치는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선교현장을 이해해야 기도할 수 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그 현장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준비한 것을 다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얻어오는 아웃리치가 되어야 한다. 아웃리치에 참가한 사람이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웃리치의 또 다른 목적이다.

여섯째, 선교사를 신뢰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아웃리치팀들이 선교지에 대한 민감함을

잘 모르고 선교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선교사가 역할을 잘하든 못하든 선교사를 신뢰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곱째,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잘 모르고 현지인을 도우면 안 된다. 현지인을 돕겠다고 한 행동과 말들이 현지 선교사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선교지에 대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숙지하고 당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웃리치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인솔자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아웃리치가 끝난 후에도 다룬 선교지 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선교사를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웃리치다. 실사 선교지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아웃리치를 가는 팀이나 맞이하는 선교사가 서로 승리하는 열매를 아웃리치가 되기를 소망한다.

/ 김은, 김우 선교사(동아시아 B국)



허브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최윤영 자매 (허브공동체)

이번 여름 아웃리치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를 다시 열방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스무 살 때 참가한 선교캠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선교캠프에서 하나님은 나를 열방으로 부르셨다. 나는 오랜 시간 아토피를 앓았고, 유학준비를 하면서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다.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열방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다. 인생의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T국으로 파송받았다.

T국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동시에 위험한 사고를 겪고 공동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아픔도 겪었다.

1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감사

의 고백보다 눈물과 상처, 앞으로의 숙제가 더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몸부림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시작하셨다. 공동체와 리더십들에게 상처를 받은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허브공동체로 이끄셨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공동체에서의 교제를 통해 내 안의 상처들이 하나둘씩 회복되어 갔다. 그리고 이번 여름 필리핀 아웃리치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 부족한 나를 팀장으로 세우셨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도착한 필리핀에서 우리 팀은 빈민가에서 사역했다. '쓰레기마을'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쌓인 쓰레기가 단단한 땅을 이루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야채를 키우기도 했다. 쓰레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우기가 되면 배수시설이 낙후되어 물이 범람했다. 쓰레기 높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후원자들의 섬김과 동역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방문해 음식을 전담했다. 장판이 깔려 있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않은 집에는 장판도 깔아주었다.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도 했다. 자체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아이들 머리에 있는 이와 벌레를 제거하는 사역도 했다.

적은 수의 팀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벽찬 사역들도 해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습하고 뜨거운 날씨에 옷이 땀으로 흠뻑 젖고 화장실 한번 가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쓰레기 썩은 불이 옷과 신발에 튀는 순간조차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빈민가, 쓰레기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회복 사역하는 은혜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주로 인테 도시가 빠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통로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CGNTV

태국 아웃리치



김혜림 자매 (제작국 사회선교팀)

CGNTV에 입사하고 처음가는 직원 아웃리치였다.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태국 아웃리치를 갔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태국 CGNTV 피디님과 팀원들의 배려로 잘 다녀올 수 있었다.

태국 아웃리치 기간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을 뵈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중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선교사님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 선교사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사실 그때는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남달랐다. 간증을 듣고 내 눈으로 사역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타국에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러웠다.

선교지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CGNTV를 보면서 회복하기를 소망하

면서 위상안테나를 달아드렸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사실 우리가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님이 없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태국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중보기도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년부터 서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국 아웃리치 다섯째 날 CGNTV를 사랑하신다는 박재천 선교사님 부부를 보았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CGNTV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모님의 그 말씀 한 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CGNTV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 자제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는 등 제작에 참여하면서 기도가 부족했었다.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말에 기대고 있었다. 다른 영상을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양이 좋았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영상을 만들 것이다. CGNTV에서 방송하는 영상들은 선교사님들의 감동함을 채워주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님들과 시청자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말씀

# 보고, 느낀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아웃리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야겠다.

셋째, 리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CGNTV는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세워졌다. CGNTV는 말씀에 감금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영의 선물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도 하용조 목사님처럼 복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모두가 리더로 살기를 원하실 것 같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리더든지, 가정에서 리더든지 말이다. 나도 누군가의

삶에 멘토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지혜롭게 사역하고 싶다. 아니 하나같이 고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하나 구하면서 해나가야겠다.

사실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몸소 느낀 아웃리치였다.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박광규 전도사 (온누리M센터 몽골어배)

전통적으로 땅을 일구고 살던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남편은 하늘이었다. 남자를 최고로 여기는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가 존재해왔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한 남녀차별이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다.

전통적 유목사회인 몽골의 남녀관계는 어떨까? 몽골에도 한국처럼 남성 연장자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몽골사회의 분위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몽골의 남편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 보다는 비깅일에 열중한다. 반면 아내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뒷바라지며 교육, 부모 봉양까지 집안의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몽골말로 부인을 '에흐네르(Эхнэр)'라고 한다. '어머니(Эх)'와 '이름네르(Нэр)'를 합친 뜻이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고귀하고 고결한 이름이 어머니인 것은 어느 민족이나 비슷한 것

같다. 유목민들은 아내를 '어머니 이름'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게다가 '에흐'라는 발음은 크고 높다라는 뜻의 '이흐(Их)'와 비슷하다. 아내의 또다른 이름은 '크고 높다'이다.

몽골의 '여성의 날'

몽골에서 여름을 지내던 사람들은 종종 아름답게 치장한 여성과 부랑아처럼 웃음을 베풀며 여성을 따라가는 남성을 봤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연인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한다. 이것은 단순히 처장 문제가 아니다.

몽골에서는 자녀가 둘인 경우 아들보다 딸을 대우에 보낸다.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남자는 등짐을 져서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여성은 힘이 없으니 반드시 배워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해더라도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여성이 집과 양육권을 가진다. 이렇듯 몽골은 모계 사회 전통을 가졌다.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몽골에는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 바로 '여성의 날'이다. 기념일이 많지 않은 몽골에서 여성의 날을 제정해 지키고 있다. 날짜는 3월 8일이다. 이날은 공휴일이지만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의 날의 가치와 분위기는 큰 명절과 맞먹는다. 여성의 날이 되면 몽골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여성의 날은 러시아 문화권에 속해있는 나라에

딱 하루 동안만...



전통적으로 모계 중심의 문화를 가진 몽골.

만 있는 날이라고 한다. 이날을 몽골어로 '에베크레 주딩 바이르'라고 부른다. 이날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해준다. 여성의 날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화이트데이'와 비슷하지만 이날은 몽골의 국가공휴일이다. 러시아 문화권의 모든 나라가 함께 지키는 국제적인 행사이자 명절이다. 의미나 규모에서 화이트데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날 여성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인사도 '안녕하세요'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로 바뀐다. 어떤 여성이든 못 남성들의 축하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 애 이른 할 것 없이 여성들은

왕비나 공주처럼 대접해준다. 남성들은 마치 종처럼 여성들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면서 극진히 모신다.

이 즐겁고 기쁜 여성의 날이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몽골 여성들이 '여성의 날'이 아닌 평상시에는 가정은 뒷전인 남편들을 대신해 가족을 위해 죽도록 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런 이유에서 여성의 날이 있었지만원과 기쁨이 딱 하루 동안만 주어진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

# “여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사회선교부, 다문화가정 위한 ‘행복드림 콘서트’ 개최

“쭉쭉 쪽 쪽 모이 응어이, 방 지이 꾸어 꾸우  
꾸어제수”

지난 5월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북한산 둘레길 ‘해세의 정원’에 낮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베트남어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의미다.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이 경기도 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12가정을 초청해 행복드림 콘서트를 열었다. 남양주 은누리교회의 다문화가정 27가정도 함께 했다. 이날 행복드림 콘서트는 ‘당신의 가족에게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은누리 국악찬양팀과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 ‘K-pop스타’로 이름을 알린 이매셀 자매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매셀 자매는 “자신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면서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가정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간증은 노래 이상의 큰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 후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이기훈 목사는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다문화가정은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사역팀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행복드림 콘서트’를 열었다.

이런 행복드림 콘서트에 초청된 다문화가정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문화와 언어 차이뿐 아니라 많은 나이차로 부부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주변인 혹은

은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채하경 선교사는 “몇 년을 찾아가도 복음을 듣지 않거나 문도 열여주지 않는 남편들도 있다”면서 “다문화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안내심을 가지고 다가가기야 하는데 행복드림 콘서트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행복드림 콘서트에 참석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고백했다.

“여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1

▪ 나는 CGNTV 열혈 시청자



### CGNTV는 선교사들의 산소호흡기다

/ 이태현 선교사(아프리카 가나)

나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곳은 무슬림 지역이다. 이곳 사람들 98% 정도가 무슬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사역하는 것은 참 외롭고 고독하다. 분명 필요한 사역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는데 이 한 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곳에서 방영되는 CGNTV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움을 준다.

보통 전도집회에 가보면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설교하고, 초청하는데 나는 다른 방법을 써왔다.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CGNTV 프로그램 '독수리 5형제' 에 이 지역이 소개된 부분을 CD에 담아서 보여줬다. 영화 예수를 볼 때도 별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이 지역이 소개되는 영상이 상영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와! 저기 나 아는 동네다. 저기 아는 사람 나왔다."

그 뒤로 나는 예수 영화와 더불어 CGNTV의 '독수리 5형제' 프로그램을 꼭 본다.

이곳 아이들은 걸음마하기 전부터 모스크에서 코란을 암송하는 것을 배운다.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교육시킬 학교를 세웠는데 1-2년 동안 기독교인 교사가 없었다. 그때 CGNTV가 이곳을 방문했다. CGNTV 프로그램에 나의 상황을 알렸다. 한국에서 기독교인 교사를 구하고 있는 나의 상

황을 접한 봉사단체가 교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 때부터 매년 두세 명씩 한국의 크리스천 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섬기고 있다. 2013년에는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다.

"CGNTV 독수리 5형제 프로그램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당시 에볼라가 발생해 한국에서 오기로 한 자매가 오지 못했는데 그 자매 대신 캐나다에서 한 자매가 와서 봉사하고 있다. CGNTV를 통해 전세계 교회가 협력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CGNTV는 비행기의 산소호흡기와 같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산소호흡기 착용법을 설명해준다.

이때 어른이 산소호흡기를 입에다댄 다음 아이에게 대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됐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CGNTV를 보면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CGNTV는 현지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에게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가슴 치던 한 선교사가 CGNTV 새벽예배를 보면서 회복되고, 남바다 새 힘을 얻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 있다. 이런 간증을 들 때마다 착박한 땅 일수록 CGNTV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CGNTV가 왜 방송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보인다. CGNTV는 선교사들에게 산소호흡기와 같다.

02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늘 내 마음과 기도 속에 있다

/ 김씨니 선교사(남아시아 J국)

어느덧 7월도 중순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1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B지역을 다시 방문했다. '미션 어드벤처 아웃리치'를 마치고 3개월만의 방문이었다. 이 지역은 남아시아 J국에서도 복음률이 가장 낮고, 가난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몇몇 사역자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마을 사역도 하고 있다. 나는 한주 동안 '어린이사역'과 '아트클라스 워크숍'을 돕기 위해 B지역을 방문했다. 그런데 하리를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큰 통증이 느껴졌다. 그 통증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때로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마을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오전과 오후에는 사역자들과 '아트클라스 워크숍'을 진행했다. 순간순간 느껴지는 허리통증이 심해졌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역자들의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의와 기대가 정말 컸다. 그것을 보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부족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동역해 주

시는 사역자들에게도 큰 빛을 쬐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니 허리통증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곳에서 사역할 때는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센터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이곳은 우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곳도 한국처럼 가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가 많이 오면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다.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는 것이 번거로운 수도 있지만 단비가 이곳을 충분히 적시면 좋겠다. 은혜의 단비도 내렸으면 좋겠다. 나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다.

앞으로 4개월 동안은 비쁜 일정이 될 것 같다. 순간순간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멀리 있지만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늘 내 마음과 기도 속에 있다.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나는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감사하고 있다.



# 오늘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 지난 29일 기념관 및 채플 준공식, 추모예배 드려

오늘은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다. 은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깊다. 은누리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 1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억했다. 하용조 목사 기념주간 은누리교회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7월 29일에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채플관이 베일을 벗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Acts29 비전빌딩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준공식'이 거행됐다. 하용조 목사 가족들을 비롯해 은누리교회 리더십,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동경 요도바시교회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 등 내빈 150명이 참석했다.

기념관과 채플은 건축가 Aaron Tan과 김준성 교수가 설계했다. 평생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만 보고 달려 간 하용조 목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건물이다. 기념관에 가면 하용조 목사의 설교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보고 들을 수 있다. 채플관은 15석 규모의 예배당과 작은 기도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가 Aaron Tan은 "기념관과 채플이 하용조 목사님이 꿈꾸던 비전을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은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추모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내가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님' 영상을 보고 그리움이 사무쳐 눈물 흘렸다. [관련기사4-5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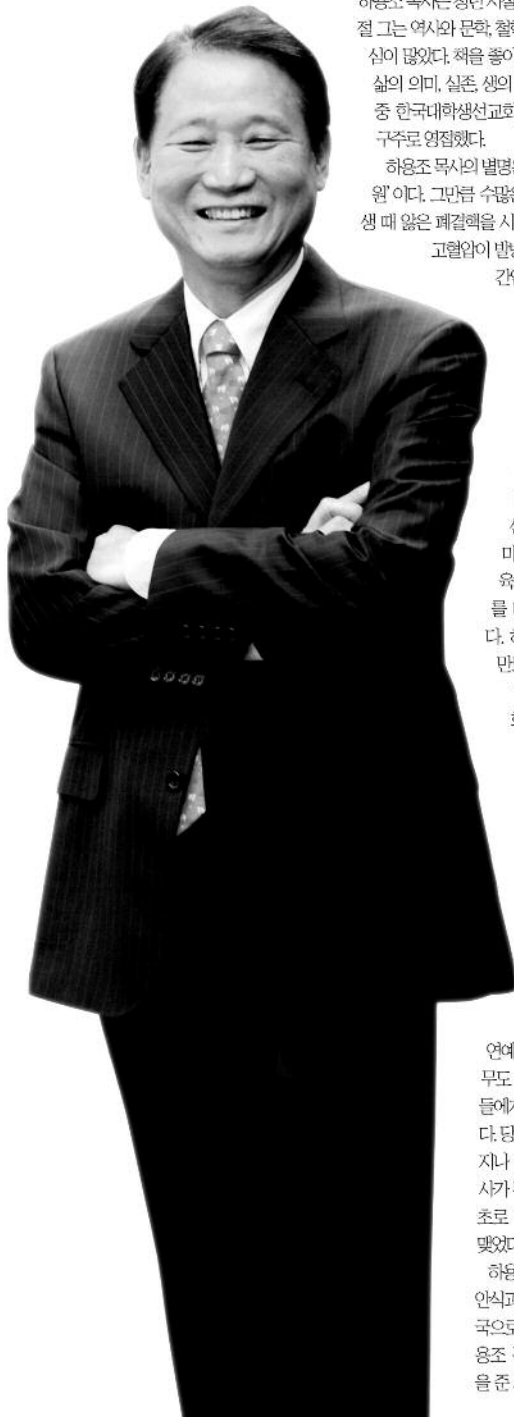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특집

# 열정과 비전의 사람, 하용조 목사

기억이 하나도 바래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하용조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4년이 흘렀지만 그의 음성은 아직도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만큼 하용조 목사가 그림고 또 그림다.

지난 7월 29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채플이 준공되고, 소천 4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운 하용조 목사를 기억했다. 그의 흔적이라도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 은누리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용조 목사를 이번에는 기록으로 만났다.

/ 편집자 주



하용조 목사는 청년 시절부터 남달랐다. 청년 시절 그는 역사와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 많았다. 책을 좋아하는 젊은 사색가였다. 삶의 의미, 실존, 생의 방향을 깊이 묵상하던 중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용조 목사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만큼 수많은 병마와 싸웠다. 대학 생 때 앓은 폐결핵을 시작으로 만성간염, 당뇨, 고혈압이 발병했다. 심근경색, 7건의 간암수술, 신장수술, 투석 등 수많은 질병이 40년 이상 그를 괴롭혔다. 병이 인생의 동반자 같았다. 하지만 그는 병마에 굴하지 않았다. 병상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다. 병마와 싸우면서 연약해진 육체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축매제가 됐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했다."

###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와 성도들

하용조 목사는 신학생 시절부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수많은 연예인을 전도했다. 당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연예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당시 연예인 전도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하용조 목사가 뿌린 그 씨앗이 한국 최초로 '연예인교회'로 열매 맺었다.

하용조 목사 부부는 1981년 안식과 기도 학업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에서 하용조 목사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을 만난다. 그가 바로 존 스타포트 목사다. 하용조 목사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1989년 귀국한 하용조 목사는 12가정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 작은 모임이 은누리교회의 초석이다. 작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된 은누리 교회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했다.

하용조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말씀은 선하고 기록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선행하고 기록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알게 됩니다."

### 한국의 10대 설교가 하용조

하용조 목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설교다. 하용조 목사는 주일설교 새벽기도회, 세미나, 해외 특강 등 평생 동안 1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 그는 탁월한 설교능력으로 2006년 한국교회사학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의 10대 설교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용조 목사는 수상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빨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교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는 복음적인 설교에 집중했다. 그의 설교주제는 명확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었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끝이 났다. 십자가와 복음이 중심이 된 설교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은혜가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설교에 비전을 담았다. 잘 안다시피 하용조 목사는 설교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나고 훌륭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 중에도 영광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선교라고 강조했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강조하는 설교에 감동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1200명이 넘는다고.

성도들이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설교에 위로와 희망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친 성도들을 말씀으로 안아주고 위로했다. 고

난과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품어주었다. 하용조 목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고 응원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면 새벽 3시에 물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 보석보다 빛나는 두란노서원, CGNTV, 러브소나타

하용조 목사는 병상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중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병상에서 일어난 1981년 12월 두란노서원을 창립했다. 지금까지 두란노서원은 수천여 권의 단행본을 출판했다. 대한민국의 대표 큐티지(생명의 삶), 평신도를 깨우는(빛과 소금), 목회자를 위한(목회와 신학) 등 7종 점자본을 발간하고 있다. (생명의 삶)은 영이 판, 알파판, 중국어판, 스페인어판 등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국내외 비전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선교 전문 CGNTV가 2008년 3월 개국했다. 요양 차 일본에 갔던 하용조 목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 바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다. 2009년 7월 8일 일본 기독교선교 150주년 기념대회에서 CGNTV와 러브소나타의 영향력을 그는 이렇게 평가했다.

"2년 동안 CGNTV와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놀랐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연함과 일치와 사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과 일치와 부흥의 시작입니다."

2007년 오카와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현재까지 일본 22개 지역에서 열렸고 일본인 7338명이 참석했다. 하용조 목사의 일본을 향한 사랑이 러브소나타로 접목되었고 그것이 일본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한 평생을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꿨다.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다.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향한 하용조 목사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우리를 가슴 속에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하용조 목사 저서 및 설교집 은누리선 문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 요약했습니다.



##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 십자가 지나 천국을 향하여

“하용조 목사 기념관 입구를 따라 걸으면 연대별, 언어별로 하 목사의 주옥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 끝 자리에는 의자가 놓여있다. 그 의자에 앉아 묵상하고 있으면 하용조 목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차창에는 십자가 길이 보인다.

십자가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내려다보면 십자가를 지나 천국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채플이다.”

/ 건축가 Aaron Tan



1	4
2	3
7	6

1. 하용조 목사 기념관 입구
2. 기념관 내부
3. 묵상 의자
4. 십자가 길
5.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 입구
6. 내려다 본 십자가의 길
7.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 내부



의료선교팀 CMN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윤상엽 팀장 (CMN 의료사역팀장)

온누리 의료선교팀(CMN)이 올해도 여김없이 청진기 들고 아웃리치를 떠났다. 8개 현장사역팀이 참가했다. 미하, 워팀과 BEE팀은 남아시아 B국으로 연합아웃리치를 다녀왔다. CMN 리더십, 의사와약사, 간호사 등으로 꾸려진 의료진, 미용팀, 일반 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대가포 의료선교팀이었다.

남아시아 B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했다. 그 중에서 얼마 전 다리를 절단한 38살의 젊은 엄마를 만났다. 그 환자가 나에게 복잡한 아픔과 어려움을 남겼다. 그 환자는 석 달 전 다리뼈에 생긴 암 때문에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다. 그런데 무릎 뒤쪽과 사타구니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다시 암이 퍼진 것인지 궁금해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오는 가족들에게 나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다. 수술 받은 병원을 다시 방문해 정밀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에 절단 수술을 한 이후에 왜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가 이곳 남아시아 B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근처 한국 KOICA에서 자이준 병원에 MRI 기계가 있지만 관통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환자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양제와 철분제를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그녀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무작정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환자 앞으로 모시고 왔다. 진료소 밖에는 총을 든 경찰이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남아시아 B국은 공식적으로 포교나 성경 배포가 금지된 나라다. 사영리같은 교회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도 없는 곳이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환자 손을 잡고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른 선교사님들과 환자의 어린 딸과 남편이 걸으며 다가왔다. 어린 딸이 울고 남편도 벽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그 환자를 돌려보내고 나는 한동안 일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창틀에 뒤돌아앉아만산만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의료로 도움이 되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환자께 나는 의사로써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나 받게 해주시던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지! 제게 왜 이런 환자를 보여주십니까? 의료선교팀이 해마다 10여 개 나라로 아웃리치를 가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나는 밤새 뒤적였다. 그러다 셋째 날 아침이었다.

# 4박5일 동안의 천국잔치



CMN 아웃리치팀을 찾은 현지 환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의료진 설명을 듣고 있다.

너무나 멋진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안스레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치료했던 환자들을 떠올렸다. 한국 같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 제대로 된 봉대와 거즈가 없어 고름이 흐르는 상처들. 그럼에도 웃음 가득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너무나 아름다운 눈물이 다나올 것 같은 나라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감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알려졌다.

“주님, 당신의 마음은 저보다 더 아파하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군요. 복음의 흥분은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되었군요.”

아웃리치 마지막 밤, 우리는 4시간에 걸쳐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와 느낌을 나눴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은혜와 간증을 나눴다. 함께 참여한 몇몇 비기독교인 자매들도 우리들의 나눔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한꺼번에 천국 백성들과 함께 한 4박5일 동안의 천국잔치였다.

과천의왕공동체

보은 회남교회 아웃리치



이상형 집사

과천의왕공동체 60명이 충북 보은군 조곡리에 동지를 둔 회남교회에 도착했다. 회남교회에서 우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 공동체가 아웃리치에서 다문화가정을 섬긴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아주 작은 면소재지인 회남마을에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열 가정이 넘는 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에서 인연을 맺은 예금란 자매의 친정인 베트남 호치민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오기도 했다. 예금란 자매의 친정동네에 성도들이 마련해준 학용품과 옷가지, 가전제품 등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선물했다. 우리들의 마음도 전했다. 열매도 있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당시 통역을 맡은 무완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는 이번 아웃리치에도 참가했다. KTX와 시외버스를 같이타며 부산에서 회남까지 와 주었다. 이번 아웃리치에 그가 함께 해주려 힘이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의 하이라이트는 베트남 아나들을 초청해 한국요리를 가르쳐준 '만나 요리스쿨'이었다. 예금란·양개석 부부를 비롯해 모두 아홉 가정이 참가했다. 그분들은 시어머니를 위해 밥에 나가 아사를 주워 온 뚝과 같이, 가족들을 위해 낯설고 어색한 조정의 자리에 나와준 착하고 예쁜 이 땅의 뚝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다. 진심으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했다.

낯선 땅으로 시집 온 그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빗장을 하나 하나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우리가 준비한 만나 요리스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 요리스쿨을 통해 그녀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함께 웃고 어울려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전환 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이 땅의 뚝들을 기억하고 계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만나 요리스쿨의 또 다른 수확이 있었다. 바로 부인들을 따라온 남편들이었다. 예금란 자매의 남편 양개석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킨 것이 매우 큰 감동이었다. 영접기도 한 다음날 부부가 같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회남의 베트남

## 아웃리치와 육개장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초청한 '만나 요리스쿨'

다문화가정은 이 땅의 미중물이며, 회남을 넘어 베트남 땅에까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아웃리치 마지막 날 식사로 육개장을 준비했다. 육개장이 흡사 다문화가정을 잘 응변해주는 것 같아서였다. 육개장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식재료가 서로 어우러져 독특하고 감칠맛을 선사하는 음식이다. 다문화가정은 개성과 다양성을 지닌 타국의 형제자매들이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참 맛있는 아웃리치였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포근함에,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도 마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사라는 짧은 일정 동안 여러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각각의 재료들을 다듬어 어우러지도록 요리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아웃리치와 육개장을 맛있게 하셨다. 맛이 좋다. 다음에는 좀 더 잘 어울린 아웃리치와 육개장을 만드실 하나님이 기대된다. 분명 지금보다 더 깊은 맛이 날 것이다.



한강공동체

김포M센터 아웃리치



유영수 성도

“주님, 온 열방 중에 한 나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통케로 드러지는 나라가 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캄보디아가 되게 하소서”

한강공동체 김포M센터 아웃리치는 이곳을 섬기다 선교사로 헌신한 어떤 분의 기도가 떠오르게 만들었다. 지난 달 28일 아침 새벽부터 잠을 설친 나는 알 수 없는 선념으로 잔뜩 긴장해 있었다. 오늘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로 했는데 그 때문인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기쁨부으심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했다.

오후 2시 김포M센터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캄보디아 청년들이 명동 비폴로레스도랑에 모습을 보였다. 어제 김포M센터를 미리 방문해 인사를 나눴던 터라 어색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청년들이 반갑고 약속하게 다가왔다.

중보기도모임을 하면서 들은 캄보디아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기도제목들이 다시 한 번 떠올랐다. 거처할 곳이 없어 교회 한편에서 기거하고 있는 씨앗 형제, 아개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일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위스-2 형제 등... 하나같이 가슴 아픈 현실들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청년들의 자기소개 시간에 들어보니 캄보디아에서 왕립대학을 졸업한 수재인데 자국에 인자리가 없어 떠난 한국 땅까지 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도 몇몇 있었다. 그 청년들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처로웠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들이 안쓰러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비폴로레스도랑 2층 홀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주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소망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다.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자기 민족의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1절은 한강공동체 기쁨다락방 식구들이 한국말로 2절은 캄보디아 청년들이 그 나라 말로 다시 찬양할 때는 두 언어로 동시에 불렀다. 그 감격은 어느 찬양예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상이었다.

캄보디아 형제들의 특순도 있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과 ‘그 사랑 얼마나’를 어색한 한국말로 찬양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다락방 식구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어색함을 시원하게 날려준 레크리에

# 미리 맛 본 천국예배



어설뜨지만 아름다웠던 캄보디아 형제들의 한국어 찬양.

이션 시간을 통해서도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기쁨의 순경 순간의 섬김이 돋보였다. 운영하고 있는 비폴로레스도랑을 흔쾌히 빌려주고 청년들이 좋아할 음식들까지 푸짐하게 대접해 주셨다. 그의 섬김이 있었기에 이날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1층 공간을 자여교회 예배장소로 사용하여 하는 등 시위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다락방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을 건네주며 포용과 악수로 아쉬운

자별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단 이틀간의 섬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미래와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노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을 청년들의 연합수련회와 8월 16일 대부도에서 치러질 연합세례식에도 성령의 임재와 넘쳐흐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찬양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김포M센터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 여성들의 상징  
'아오자이'



은 전도사 가족  
(은누리M센터 베트남에베)

# '아오'는 상의, '자이'는 길다는 뜻



18세기 아오자이(좌)와 여학생의 교복 하얀 아오자이(우).



'아오자이'는 베트남 여성들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아오자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오자이에서 '아오'는 '상의'를 '자이'는 '긴'을 뜻한다. 베트남의 우아한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는 베트남 국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의미가 많은 옷이다.

아오자이는 18세기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이야기는 베트남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오자이는 베트남을 상징하는 전통의상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아오자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원래 아오자이는 남녀 모두가 착용하던 의상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영향으로 베트남 남성들은 더 이상 아오자이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여성들만 아오자이를 즐겨 입는다.

이를 즐겨 입는다.

아오자이는 왕복에서부터 유래되었다. 레 로이 왕이 전쟁에 참전할 당시 아오자이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한다. 베트남 국민들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비슷한 모양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것이 아오자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과거 남성들이 입는 아오자이는 권력을 나타내 주었다. 아오자이의 품질에 따라 교육계급도 나타났었다. 국가행사나 축제에는 반드시 아오자이를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전쟁 당시, 베트남 남성들은 아오자이를 입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남성들은 더 이상 아오자이를 착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서양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셔츠와 바지,

넥타이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베트남 남성 대부분 아오자이를 입지 않는다. 아오에 입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끔 남성들도 패션 또는 재미로 아오자이를 입는다. 과거만큼 아오자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여성스러움과 친절함 나타내는 '아오자이'

아오자이는 여성의 미(美)를 여러 방면으로 뽐내 주는 옷이다. 과거 아오자이는 굉장히 단순한 의상이었다. 베트남 봉건제도 당시 아오자이는 여성의 몸을 가리고 보호해주는 역할만 했었다.

지금의 아오자이는 베트남 여성들의 여성스러움과 친절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의 고운 자태를 뽐내주기도 한다. 외복이 간편화 되면

서 베트남 여성들도 서양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지만 중요한 행사나 축제에 갈 때에는 여전히 아오자이를 입는다.

아오자이는 여학생 교복과 우체국, 은행, 공항 등에서 제복으로도 사용된다. 학생이나 미혼여성에게 청결과 순수함을 나타내주는 아오자이는 필수다.

베트남에서 여자 중고등학생들은 하얀색 아오자이를 착용해야 한다.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하얀색 아오자이를 착용한 학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하얀 아오자이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오자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색깔에 맞춰 자유롭게 아오자이를 즐겨 입고 있다.





기고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 중화권 방송선교의 꿈을 꾸다

CGNTV는 8월 6일 홍콩 창세(Creation)TV와 업무조인식을 갖고 중화권 미디어선교에 대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앞서 5월에는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 과의 협력 시스템인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CGNTV는 홍콩 현지교회와 선교기관, 신학교 등과의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창세TV, 대만 GOODIV 등 중화권 미디어 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 및 화교권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것이다. 하반기에는 CGNTV, 창세TV, GOODIV, 인도네시아 인도비전(Indovision)과 더불어 ACCM(Asia Christian Media Conference)를 갖고 미디어선교의 지평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광둥어 말씀강해, 홍콩 신학교 세미나 콘텐츠 허입과 중국 대륙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콘텐츠 확보, 홍콩에서 개최되는 집회와 콘퍼런스의 공동 기획 및 촬영, 중화권 영상 소스의 다양화, 중국과 홍콩에 대한 뉴스 제작, 중화권 특집 제작, 한국·대만·홍콩 등지 중국인 시청자 모니터링 활동 등 사업 규모와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 2008년 설립된 타이베이제작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CGNTV는 타이베이제작센터 설립을 통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 없이 방송되는 위성 및 모바일 중문채널을 활용한 중화권 선교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우창(武昌)교회 등 대만 내 네트워크를 더 확장해나가는 한편 2011년부터 프로그램 더빙과 강제자 자막 등 중국 대륙상황에 맞는 편성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삼천년신학원의 강좌, 2013년에는 China Soul의 웬즈밍(溫志明) 목사 말씀강해와 다큐 등 미국 등 전 세계 중화권으로 콘텐츠 허입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 본사 글로벌 콘텐츠국 내 중문제작팀은 대만제작센터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허입물을 늘리고, 양질의 번역자,

성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자체 SB제작 능력도 갖추게 됐다. CGNTV는 올해 '중화권 선교교육방송'이라는 정체성 강화를 통해 현지 기독교방송국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목회자, 신학생을 위한 교육 세미나의 편성 확대, 교육 콘텐츠 기획 편성, 청소년 성경공부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과 차세대 프로그램의 시간대 이동 등으로 교육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다. 미국 템플대 중국역사 박사인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강좌, 대만 성광신학교 박사과정 'e-시대의 가정사역과 교회성장' 강의 등 앞으로 싱가포르 화교교회, 인도네시아 화교교회, 홍콩교회 및 크리스천 제작사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출연자 섭외, 모니터링 요원 확보, CGNTV 홍보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국판 유튜브 '요우쿠(优酷)', 투더우(土豆) 등을 활용해 중국에서도 쉽게 CGNTV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GNTV는 중화권 미디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독교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중국인의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모든 중국인이 공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CGNTV는 문화선교 공간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미디어선교가 중국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실로 광범위하다. 신학교육과 전도, 양육 시스템의 미디어화, 교회 사역자(목회자 포함)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미디어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 등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미디어화, 교회음악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의 미디어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과 인내심을 갖고 협력해나간다면 미디어선교는 '중국인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기독교를 중화권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예배에서.

# ‘홍콩 CGN World’ 설립

**CGNTV와 NGO 더멋진세상, 중화권 선교 교두보 마련  
두 기관 협력으로 방송선교와 구호사업 동반 상승효과 기대**

CGNTV와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홍콩 CGN World'를 설립했다. 방송선교와 구호 사업을 통한 중화권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난 8월 5일 홍콩 아이콘 호텔에서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홍콩 현지 교계 지도자와 한국 측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홍콩 CGN World 설립으로 미주, 일본,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해 온 CGNTV의 글로벌 사업지가 일곱 개가 됐다. CGNTV 대표이사 유재진 장로는 "홍콩 CGN World 설립으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홍콩 CGN World는 중화권 선교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극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모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

다. 홍콩 CGN World는 CGNTV와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설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선교교육방송 CGNTV와 2010년 출범해 지구촌 곳곳에서 지역 개발사업, 긴급구호 사업, 아동보호사업 등을 실행해 온 NGO 더멋진세상이 공동 설립한 만큼 방송선교와 구호사업의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김광동 장로(홍콩 총영사)는 "CGNTV와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동역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 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와 NGO 더멋진세상의 협력으로 설립된 홍콩 CGN World가 중화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GNTV는 홍콩 CGN World 설립을 계기로 중화권 방송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콩 기독교 기관들과 적극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8월 6일 홍콩 참세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콘텐츠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0면으로 이어짐)**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1

## 8월 비전헌금 ‘몽골국제대학교’ 후원

### 교수 및 직원 모집 ... 서빙고에 안내데스크 설치

오늘(9일) 봉헌하는 8월 비전헌금은 ‘몽골국제대학교’를 돕는데 사용된다. 몽골국제대학교는 몽골과 시베리아지역 110개 소수민족,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페르시아 지역의 몽골계 후손 하자르족, 중앙아시아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선교대학교이다.

몽골국제대학교 교수와 직원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국제경영학, 호텔경영학, 관광경영학,

Computer Science, 에너지자원환경공학, 영어교육학, 예술교육학, 저널리즘학, 패션디자인학, 교양분야(사회학, 심리학, 철학, 체육학 등), TESOL 대학원, 행정대학원이다. 직원은 학교 행정 경험자나 기업체 운영 경험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빙고 은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된 몽골국제대학교 안내데스크에 가면 안내해 준다.

02

##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 8월 30일부터 4주 동안

이달 30일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일본에서 23번째로 올려 퍼지는 러브소나타는 온천이 유명한 오이타 현에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막 오른다. 주제는 ‘내일의 희망’이다.

이제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국악연주자 이슬기, 샌드애 니메이션, 은누리장로합창단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오이타는 기독교 역사가 찬란했던 곳이다. 오토모 소린이라는 영주가 자비엘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개종한 이후 크리스천 인구가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부흥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박해로 많은 순교자를 낸 곳이다. 지금은 현재 교회가 67개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크리스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01

서대문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김용희 집사 (마태1순)

이번 서대문공동체 아웃리치 포어는 '회복시 키소서'였다.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었다. 포어와 주제 말씀처럼 서대문공동체는 7 월 8일부터 15일까지 유라시아 A국에서 성령의 관능과 회복을 경험했다.

우리가 처음 방문했던 교회는 안교를 미약막 중독 치유센터를 겸하고 있었다. 교인들 중에도 치유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어섯 명의 교인들이 회복지도 없이 씩씩히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열악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반기지 않았다. 거부해하는 모습이었다. 여럿이 동성한 우리를 보고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성성경학교와 이 마음 사역을 했다. 우리가 그들을 극진하게 섬기니 그들도 치중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려운 과정을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들이 존경스러웠다.

아웃리치 둘째 날,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예수 믿고 산 사람은 일어나라!"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기적 같은 일이 었다. 사역이 끝날 무렵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곳에 할까니들만 계산 줄 일었는데 다시 보니 아니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마을에서 만난 어린아들도 너무나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우리는 그 순수한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다.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성령집회도 열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열린 성령집회였다. 성도들은 성령집회를 광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기쁨 뒤에 비가 온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폭발했다. 성령의 역사를 처음 본 사람들이 풍요하는 안화경 집사에게 다가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다. 양 집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쓰러지느냐"고 물었다. 양 집사는 "성령님이 임재 하셔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첫날 성령집회에는 A도시 전역에서, 둘째 날 집회에는 한 교회 교인들이 참석했다. A도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많다. 안교울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회복시 키소서'를 포어로 유라시아 A국을 다녀온 서대문공동체.

었다. 그런데 성령집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령집회 끝 무렵에 목사님께서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목사님이 기도하자 몇몇 교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뒤로 넘어갔다. 우리도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뒤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다. 그 모습에 우리도 놀랐다.

신갑집 집사님은 "한국의 성령집회보다 뜨거웠다"고 했고, 감덕현 권사님은 "기도를 해줄 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영안이 열어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다. 이 땅의 마음에 품으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미라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02

이촌공동체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



강찬욱 성도 (이촌공동체)

난생 처음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국내 아웃리치는 여러 번 갔지만 시간 없다는 핑계로 해외 아웃리치는 미루고 있었는데 선교팀장을 맡게 되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아 시작부터 힘이 들었다. 2000년 교보부 김홍주 목사님을 비롯해 가나성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배려해주시고 믿음으로 해결해주셨다.

10주 동안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를 빈틈없이 준비했다. 그리고 7월 23일 엄청난 짐을 싣고 도마가 선교했던 그곳으로 향했다.

"내가 그림에 가다나..." 격한 감동이 내 심장을 울렸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유일하게 타말어를 쓰는 곳이다. 남부의 가장 큰 도시이자 타말어 유망한 지역이다. 도마에 얽힌 일화도 많은 곳이다. AD 72년 경 도마가 순교할 당시 남했던 그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130년에 불과한 한국전교역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곳곳에서 재난의 흔적이 발견됐다. 수많은 과부와 집없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두 교가 지배적인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현지 교회와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 틈 사이 비좁은 공간에 교회가 보였다. 그곳에는 과부들이 모여 있었다. 무더위 속 골방에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서투르지만 타말어로 찬양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다. 서로의 마음을 느꼈다. 죄에 대해 고민하는 과부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을 방문했다. 그곳은 8-16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교제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니 굉장한 친해졌다. 마치 천국의 아이들 같았다.

우리 팀은 C교회에서 10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우리 팀은 타말어로 특별 찬양을 준비했고 김홍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교인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

도마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예배 시역 중 인수기도하는 모습.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다. 천장에 달려 있는 선풍기는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지 청년들과 나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알려주며 청년들에게 직업적 소명의사를 심어주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정마다 겪고 있는 폭력, 질병,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눴

다. 시작이 번이라는 말이 있다. 나의 첫 해외 아웃리치에서 도마를 만났다. 2000년 전 도마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들고 떠났을까. 도마의 마음을 상상하며 마지막 날 밤을 보냈다. 사내 도마에게 날린 한두사원 그 사이에 보이는 십자가. 그들에게 보이는 천국이 바로 도마의 꿈이었을 것이다.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5년 8월 9일 1060호

- 01 - (서대문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 김용희 집사(마태 1순)(6면)
- 02 - (이촌공동체)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 : 강찬욱 성도(6면)



Pole2공동체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하민수 형제 (Pole2공동체)

이번 아웃리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처음 기보는 해외 아웃리치인데 팀장까지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염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나에게 주는 부담감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내가 이 팀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염려 때문인지 모임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나는 팀원들에게 초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 내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뿔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호의로 말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해"  
"이런 것들은 준비했나?"

분명 나를 도와주려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나를 철저히 못한 팀장이라고 나무라는 말로 들렸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하기도 했다. 부족한 경험은 나를 유유부단하게 만들었다. '아웃리치는 문제의 정답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다

그런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다 보니 팀원들은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들이 나에게 서운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완벽하고 일을 잘하는 멋진 팀장이 되고 싶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예배와 기도로 무장하기로 했다. 다시금 팀원들을 돌아보는 자세로 팀 모임을 이끌어갔다고 다짐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나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팀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교만에 빠져 '팀을 이끄는 것은 팀장'이라고 생각해왔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조명해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웃리치팀이 어떤 모습 인지를 깨달았다.

###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다

나의 교만이 완전히 깨진 것은 A국에 도착해서였다. 동아시아 A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초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처음이었고 초보였다.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



Pole2 공동체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다.

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했다. 그곳에서 만난 동아시아 A국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에 흠뻑 젖었다.

아웃리치 준비 때마다 중점적으로 기도 한대로 우리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 할 수 있었다. A국 아이들은 하나같이 순수하고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랐다.

어린시절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통성기도하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아멘을 부르짖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였다.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01

영등포구로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김성호 성도

우여곡절 끝에 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 행선지가 유라시아 A국으로 결정됐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세 군데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 신학교와 개척 교회 방문, 땅 밟기를 주요 사역으로 정했다.

우리 팀 11명은 약 5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역할도 분담했다. 현지어 찬양연습, 기증품 마련도 빼놓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현지어 찬양을 수십 번 듣고 연습했다. 고려인 형태자매를 초청해 도우며 받았다. 공동체 자체들을 통해 컴퓨터, 이불 등의 기증품도 모았다. 우리 팀이 가는 지역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일까 그곳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측은함이 생겼다.

드디어 유라시아 A국에 도착했다. 이곳 공항은 국제공항이라기보다 시골 공항 같은 한적한 분위기였다. 선교사님과 합류해 목적지로 향했다. 한국과 다른 풍경을 보며 감상에 빠졌다. 유라시아 A국의 광활한 땅을 볼 때는 부러운 마음이, 현지어로 된 간판들을 읽을 수 없을 때에는

무기력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팀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여러 시설과 기관을 방문했다. 도착한 첫날은 현지 신학교에 들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유라시아 A국의 역사와 선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주일인 다음날부터 강행군이 시작됐다. 선교사님이 개척한 두 군데 교회 주일예배에 차례로 참석했다. 현지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다. 우리가 준비해간 현지어 찬양도 불렀다. 두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두 교회 분위기가 닮았다.는 점이였다. 한 가족 같은 동질감이였다.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현지인 할머니와 고려인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이 인상 깊었다. 현지어로 번역된 일대일 교재에 빼곡히 적어놓은 글귀들도 눈에 들어왔다.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였다. 두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이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도 방문했다. 교인이 20명에서 50명 가까이 늘어 교회를 확장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마침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8월 9 일(오늘) 헌당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올라 그 땅을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 보기도 하고,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조국과 한국 교회의 발전상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기도 했다. 현지 대학을 명탐기 하며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고려인들

# 눈으로 담고, 가슴에 품다



고려인 문화회관 앞에서.

이 많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 조국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이들의 현실과 마주할 때는 가슴이 막막해지기도 했다. 장에 굶주린 고려인들에게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 포섭하고 있다는 현실도 꼭 봐야만 했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신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선교사님의 일편단심 북한사랑에 감동받았다. 그간 힘들고 외로웠을 선교사님이 우리의 방문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유라시아 A국

을 사랑하게 되었다. 비단 나뭇잎이 아니라 함께 간 팀원들 모두의 마음이 동일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마음가짐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모임을 갖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현지어 찬양 연습, 한글 모금, 기증품 수집, 입출국 수속 준비, 식사 등 곳곳을 맡아 맡아 신실하게 섬겨준 팀원들과 선교사님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풍은우리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한다.

02

갈렘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서운경 자매 (갈렘공동체)

“Beyond the Limited” (한계를 넘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문장이다. 일정, 재정, 관계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결심이었다.

갈렘공동체는 남아시아 F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남아시아 F국은 공산국가다. 공산국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열려 때문인지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영적 공격을 받았다. 팀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휘둘릴 때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뇌며 한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기도 했다.

우리 팀은 모두 10명이었다. 남아시아 F국에서 우리팀의 주요 사역은 전도였다.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국가인 지라 관계전도로 눈을 돌렸다. 아웃리치 출발 한 달 전부터 현지 선교사님께 전도대상자 명단을 미리 받아 친분을 쌓았다. 그들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다.

#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고 감탄했다

드디어 그들을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은 순수함 그 자체였다.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은 비단 나뭇잎을 일러야 한다. 이곳 남아시아 F국에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과 한류 붐이 자취를 남기고 있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수록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은 돈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한 아이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해 주면 한 번만 필요하다”는 표현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보다 세상 것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은사를 깨달았다. 관계전도를 통해 그곳 친구들을 만나는 동안 나에게 친화력과 통찰력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스무 명 남짓 되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친해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격려하는 일은 아웃리치 내내 나만의 특별한 역할처럼 다



남아시아 F국 청년들과 함께

기울 정도였다. 또한 통찰력을 통해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고 대화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통찰력 덕분에 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우리 팀원들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형태와 모양이 다른 은사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조화시키는 하나

님의 섭리에 놀라고 감탄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각자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깊이와 정도, 은사의 다양성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직장, 가정, 학교에서 다정한 사람들을 만날 때 각자의 특질과 남다른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2015년 8월 9일 1060호

- 01 - <영등포구로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 김성호 성도(8면)
- 02 - <갈렘 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 서운경 자매(8면)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 용서하고, 축복하고, 차별 없는 복된 날



은 전도사 가족  
(온누리M센터 베트남예배)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은 아무래도 설날이 아닐까 싶다. 베트남의 설날은 '땃'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설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구전만 있지 설 축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베트남의 설 축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 때문인지 베트남의 설 연휴는 중국의 설 연휴와 날짜가 같다. 과거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베트남만의 고유한 축제가 자리 잡았다. 베트남의 설 연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 베트남의 설날 풍경

베트남의 설날 '땃'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휴일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다. 한국처럼 멀리서 가족들이 찾아온다.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복을 나눈다. 특히 이날은 서로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고, 나쁜 일은 모두 잊고 조성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가족들이 함께 다가올 새해에 대한 소망을 발면서 탄소를 나눈다.

베트남의 설날 '땃'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식탁에 반드시 차려져야 하는 다섯 가지 과일이 바로 그것이다. 사과, 코코넛, 파파야, 망고 등의 다섯 가지 종류의 과일과 음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준비해야 한다.

이 과일들에는 특별한 뜻이 숨어 있다. 사과는 '물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무화과는 '변장', 파파야는 '충분하다', 망고는 '보내다'는 뜻이 있다. 살구꽃은 '행운', 수박은 '빨강다'는 뜻이다. 모두 좋은 뜻을 가진 과일들이다. 베트남에서는 의미에 따라 과일을 선물하기도 한다. 베트남에 가서 과일을 사먹어볼 일이 있다면 뜻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베트남 사람들은 설 연휴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행복 한 시간을 보낸다.

베트남의 설날 '땃'에는 여성들만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남녀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

새해선물도 준비해야 한다. 서로 작은 정성을 담아 함께 설을 기념하는 것이다. 조부모님 대과 부



베트남의 설날 땃의 풍경(위). 땃에 먹는 다섯 가지 과일(아래).



모님 덕을 방문해 새해선물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처럼 손자손녀들이 조부모에게 세배를 하고 새뱃돈을 받는다.

이날 베트남 사람들은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한다. 한 해 동안 서로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이날만큼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사과와 용서가 끝나면 새 날에 좋은 일과 복이 있기를 기원해준다. 가

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절인 만큼 그 어떠한 형태의 남녀차별도 찾아볼 수 없다.

베트남 사람들도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녀들은 부모와 조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평소 순종하지 못했거나 효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땃'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존경을 표하고 마음에 담은 말을 전한다.



CGNTV와 홍콩 창세TV 업무 협약식.

# 이제는 중화권 선교다

## ‘홍콩 CGN World’설립, 중화권 선교시대 활짝

이제는 중화권 선교다. CGNTV와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이 손잡고 ‘홍콩 CGN World’를 설립하고 중화권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만,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선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CGNTV와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홍콩 CGN World’를 설립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방송선교와 구호사역을 통한 중화권 선교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 8월 5일 홍콩 아이콘 호텔에서 ‘홍콩 CGN World’ 설립 간사예배에 참석한 홍콩 현지 교계 지도자와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 NGO 더멋진세상을 섬기고 있는 김광동 장로(홍콩 총영사) 등 한국측인사 200여 명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CGNTV는 8월 6일 홍콩 창세 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콘텐츠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세TV는 홍콩의 미디어 기업 영음사단이 2008년 설립한 방송국이다. 24시간 위성과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교환, 행사 협력, 양국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프로그램 공동제작도 할 계획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M센터에서 열린 ‘구원 캠프’

##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영어캠프 성황리 마쳐

온누리M센터에서 ‘2015 여름 영어 캠프’가 열렸다. 영어캠프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동안 스타트리 아카데미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영어캠프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45명을 포함해 Point5 공동체, 차세대 교사, 봉사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영어캠프에 양재 온누리교회 Point5공동체가 참가해 뜻 깊었다. Point5공동체는 15세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다. Point5공동체 지체들은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보듬어주었다.

장재분 목사(Point5공동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 목사는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강숙 전도사(온누리M센터)는 “이번 영어캠프는 믿지 않던 아이들에게 수업을 만난 구원캠프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영어캠프를 주관한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2011년 세워진 M센터 소속 방과후 학원이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합창, 피아노, 기타 등의 수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M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영어캠프를 열었다.





장로칼렘 김재일 장로(일본어예배부)

## 일본선교는 꾸준히 인내하는 과정

안식년을 맞아 4개월 동안 일본 교토대학을 방문했다. 내가 교토에 거주하는 동안 마침 '리브소나타 교토' 집회가 열렸다. 나는 교토대학 직원을 초청해 리브소나타에 함께 참석했다. 교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기회도 얻었다. 사모님이 인도하는 교토대학 기도모임, 리츠메이칸대학 교수가 주관하는 영여성경공부 모임에도 참석했다. 교토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신앙체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간을 내서 우에다 온누리교회도 방문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시던 방에서 숙박하는 등 소소한 기쁨도 누렸다.

나는 이번에 교토에 와서 일본이 사찰과 신사(神社)의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실감했다. 내 연구실이 있는 요시다 캠퍼스 뒷산에는 '요시다 신사'가 있다. 요시다 캠퍼스 뒷산 곳곳에 크고 작은 신사들이 많다. 교토대학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각사를 기점으로 '철학의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절들이 있다. 일본인들은 수많은 신사와 절에 와서 복을 기원한다. 물과 인연을 주관하는 신을 모시는 '키부네신사'에서는 결혼을, 학문의 신을 모신 '기타노텐만구신사'에서는 합격을, 쌀의 신을 모신 '후시미이나리신사'에서는 풍년과 상업의 번영을 기원한다. 시주하고, 두 손 모아 소원을 비는 모습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교토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일본 3대 마츠리(축제) 중 하나인 '기온마츠리'가 거행된다. 역병의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마츠리다. 메인 행사가 있었던 7월 17일에는 태풍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불어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미

코시(가마)에 비닐을 씌워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신심(信心)이 얼마나 깊고 보편적인 것인지를 실감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신사와 사찰, 풍습들은 일본인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 선교는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크리스천 일본인 교수와 대화를 하던 중에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영리 전도'가 일본인들에게는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지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출석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낮은 것이라고 했다.

신사와 사찰로 둘러싸인 일본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벗어나 소외되는 삶을 가까이 감수하겠다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본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전도지의 삶을 통해 확신시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 선교는 일본인의 눈에 띄워진 오랜 문화적 관습이라는 비늘을 벗기기 위해서 꾸준히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01

수원 온누리교회

차세대 필리핀 아웃리치



최다원  
(수원 초등부)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부터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이 부풀었다. 우리는 필리핀 보름지 아이들과 함께 아웃리치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언니들이 워싱턴을 할 때 나는 풍선아트를 배웠다. 처음에는 잘 안됐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보니 어느새 예쁘게 만들 수 있었다.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했다. 수건돌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경향과 도둑 게임이 생각났다. 필리핀 친구들과 그 놀이들을 실제로 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나는 'God bless you'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한다. 이 말의 의미와 어감이 너무 좋다. 필리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필리핀 아웃리치 가는 날이 왔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신기했다. 가슴이 콩콩쿵쿵 거렸다. 나는 비행기도 처음 타고, 외국에 가는 것도 처음이다. 가나식도 처음 먹어봤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 같다. 내가 먹은 가나식은 맛이 없었다. 게다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내내 귀가 웅웅거리고

아팠다. 그래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고 갑자기 내려가는 느낌은 스릴 있었다. 사실 언니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화장실 번기에 구멍이 있어 하늘에서 바로 뿌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오뎅이 하늘에서 뿌려진다니 상상만 해도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타본 비행기에서 내려 드디어 필리핀 보홀 '딤딤 리조트'에 도착했다. 리조트 이름을 듣고 왠지 답답한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리조트 앞에는 넓게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무슨 공연을 하는지 화장을 한 예쁜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름처럼 답답한 곳이 아니어서 좋았다.

다음날에는 사역지에 갔다. 그곳에는 두 대의 농구대가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농구라고 한다. 그곳의 아이들도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농구하는 아이들이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낯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허뿔한 슬리퍼를 신은 아이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그곳 아이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자판이라고 한다.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다.

한 필리핀 아이가 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기에 말해줬다. 그러자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최다원, 최다원!"

필리핀 친구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다. 나도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

## 나의 첫 해외여행은 선교여행



수원 차세대 학생들이 아웃리치 떠나기 전 공항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았다. 말위, 자스민, 라셀이라고 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즐겁게 놀았다. 내가 코코넛을 잘 먹으니까 따를 빨빨 흘러버 코코넛을 또 따준 필리핀 오빠가 기억난다.

"오빠, 코코넛 따줘서 고맙워"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아이들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뛰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기사 아저씨께 멈춰달라고 했는데 내 말을 못 들었는지 계속 달려서 조금 미웠다. 지

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날 것 같다.

나의 첫 해외여행이 선교여행이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감사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아웃리치에 대해 나눴다. 내가 그곳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하니 엄마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였다.

"하나님,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희망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2

여호수아공동체

니카라과 아웃리치



송유진 자매

나는 여호수아공동체 에스그룹에 소속돼 있다. 선교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선교를 생각하면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를 가겠다는 다소 방관적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올해 봄 전도사님으로부터 니카라과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겨줄 수 있는 재안을 받았다. 사실 마음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워 기도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불확실한 대답만 하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 니카라과 아웃리치 갈까요? 팀장으로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웃리치와 직분을 두고 나와 가려하려고 하지 마라"

당시 나는 잘 다닌 회사를 나와 뒤늦게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터였다. 뒤늦게 진로를 바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심했다. 그간 저

축한 돈으로 학비와 여러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인색해진 상태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이 마찬가지로 기쁘지 않고 내가 드린 것들을 계산했고 내가 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채워달라는 식이었다. 그런 내게 "가려하지 말라"는 음성은 다가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초대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다.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과부의 두 뿔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아웃리치 준비에 돌입했다. 낯선 나라인 니카라과에 대해 알아보고 팀원을 모집했다. 중미 지역인자라 비용이 비쌌고 아웃리치 기간도 길어서 팀원이 잘 모집되지 않았다. 전도사님과 함께 금사기도를 해야만 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 고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해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때부터 부담감을 털어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채워주셨다. 1명의 귀한 팀원들을 보내주셨다. 알량이 빠듯하고 비용이 비싸서 걱정했는데 다양한 물품과 후원금이 걸려면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다.

니카라과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거의 하루

## 그곳에 예비해둔 은혜가 있다



아웃리치 팀원들이 현지 선교센터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가 소요됐다. 긴 비행시간 말고도 우리를 긴장하게 한 것은 유독 까다로운 미국 공관의 심사였다. 짐들을 찾고 다시 부치는 과정에서 공항 담당자들에게 인터뷰와 내용물 확인을 받아야 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짐들을 니카라과에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선교사님 때에 짐을 풀고 니카라과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관계 맺고

있는 현지교회 교인들과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와 사영리 전달, 사역할 영 및 액자 만들어주기 등 봉사도 등의 사역을 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미약했지만 그때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니카라과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한다.

2015년 8월 16일 1061호

- 01 - <수원 차세대> 필리핀 아웃리치 : 최다원(6면)
- 02 - <여호수아공동체> 니카라과 아웃리치 : 송유진 자매(6면)



01

### CGNTV

스리랑카 아웃리치



김영신 PD (선교교육팀)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들의 겸직하고 믿음만족한 눈망울이. 방긋웃아주던 맑은 미소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스리랑카에 가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믿음의 씨앗 교회교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해야 했고, 집에는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두 아이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부담도 있었다. 나는 한 달에 3일 이상 출장을 가야 하고, 출장을 다녀오면 일주일 이상 야근을 한다.

그렇게 한 편의 방송을 마쳐야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유를 맛볼 틈도 없이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가야 했다. 아내와 내게 꼭 일주일 이상 스리랑카를 가야 한다고 몰았다. 거절도 생각할 줄 모르는 아내의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스리랑카 아웃리치 팀 모임에 제작국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모두 다 다른 부서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었다. 7박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마찰도 없었다. 서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할 일을 묵묵히 해주었다.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한 일은 사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웠다.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선교사님과 스리랑카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주었다.

스리랑카에서 우리는 어린이 사역에 집중했다. 어린이센터 두 군데와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만났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놀이, 몸에 스타커 붙여주기, 비눗방울 놀이, 그림 그리기 등을 준비했다. 나는 촬영을 담당했기에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없었지만 카메라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천사로 보였다.

CGNTV는 국내라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송이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보기 원하는 방송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CGNTV를 시청하고 있는지 모른 채 나만의 방식과 국내 시청자들의 눈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다.

## 우리 다시 만나면...



CGNTV 스리랑카 아웃리치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에 목말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표정을 보고 사야가 날아왔다. 프로그램 제작방향에 대해 더욱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스리랑카에 온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스리랑카를 느껴보고 싶어 거리를 걷고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촬영하고 아름다운 집과 거리를 사진으로 담는데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거마다 세워진 우

상들이었다. 특히 불상이 많았다. 스리랑카는 불교국가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루빨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를 대위준 운전기사와도 많이 친해졌는데 그는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불상에 돈을 넣고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면 교회에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같이 커피 먹고 밀크티 한잔하는 거예요?"

02

### 요셉공동체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이진호 아내

내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면 내서는 경우가 없을 정도다. 그런 내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키면서 혼잣말로 중언거렸다.

"주님, 저도 이제 서른인데 언제까지 남한테 챙김을 받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한 번도 못 갔던 해외 아웃리치를 가고 싶어요"

큰 다짐이던지보다 새해 분위기에 휘둘려 중언거렸을 뿐이다. 당시 나는 아직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고 있던 터라 경황이 없었다. 큐티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새해 계획을 구체적인 기도제목으로 작성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의 새해 계획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던 중 회사에서 갑자기 여름휴가 일정을 통보받았다. 이런 우연이. 정확하게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일정과 겹쳤다. 하지만 이미 팀원 모집이 끝난 상태였다. 평소 같았으면 그때도 포기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

## 적극적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겠다. 한 번 물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담당 전도사님께 이메일을 보냈다. 결국 나는 극적으로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연초에 중언거렸던 대로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물이 분명했다.

###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드디어 남아시아 B국에 도착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도와 어린이사역에 집중했다. 낮설고 어색했을 텐데 남아시아 B국 어린이들은 거부감 없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곳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반성했다.

그곳에서 만난 어린이들에게 '같이 하고 싶다'는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으로 내 마음을 전했다. 그런 나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전달됐나보다. 우리가 알려주는 것들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나는 그동안 계속 사랑받고 있었는데 괜히 겁먹고 움츠러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역 마지막 날, 우리 팀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



남아시아 B국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다.

했다. 수도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오지에 사는 소수민족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았다. 이 초등학교에는 약 2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다. 나는 영어 유치원 교사 경력이었다는 이유로 가장 나이가 어린 어린이 6명 명을 맡게 되었다.

나이 어린 아이들 앞에 서려니 다리가 떨렸다. 그러나 가장도 잠시,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 하시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샘솟았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리코더 불기, 손거울 만들기, 위생교육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

다. 하나님은 이번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적극적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 누구보다 다니엘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나의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번 아웃리치의 감동과 깨달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는 내가 될 것이다.

2015년 8월 16일 1061호

- 01 - <CGNTV> 스리랑카 아웃리치 : 김영신 PD(선교교육팀)(7면)
- 02 - <요셉공동체>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 이진호 아내(7면)



01

**S브릿지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김미순 자매  
(S브릿지공동체)

2년 전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사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진행됐다. 나는 창치기 자세로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갔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씩 내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가 세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사업이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 바로 아웃리치였다.

하나님이 나를 아웃리치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참가신청을 했다. 내게 허락된 시간, 물질, 달란트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나는 S브릿지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팀에서 중보자로 세워졌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있는 아웃리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기도했다.

#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었다

우리 팀은 순조롭게 향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도제목이 생겼다. 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요 2:2-11) 말씀을 떠올렸다. 팀원들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네 가지 제물을 놓고 기도했다. 첫 번째는 풍족함을 위해 기도했다. 성경 말씀처럼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양질의 포도주를 흠족하게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다. 잔치를 섬기던 하인들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했다. 세 번째는 기적을 보았으니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번 아웃리치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 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적은 바로 일어났다. 뜻하지 않은 재정후원이 들어왔다. 아웃리치 모든 일정과 사역 속에도 은혜가 풍성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고 매기마다 풍족함이 넘쳤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시간**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다.

아웃리치 첫 날에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공동체 기숙사 학생들과 길거리에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계획에 없던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팀원들 모두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인제하심이 느껴졌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했던 목사님, 선교사님, 멘토님, 팀원들 그리고 남아시아 F국의 영혼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화관을 씌웠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시간이었다. 6개월 동안의 귀한 잔치에 초대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로 돌아간다. 선한 창치기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명하심을 기대하며 성실히 일하려다.

02

**GIL 공동체**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박은미 자매  
(GIL 공동체)

우리 여행은 지난 9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동아시아 B국은 차와 말을 교환하던 세계 최고의 교역지였다. 해발 4300m에 위치한 산에 5000m가 넘는 장대한 길이 나있는 곳이다.

우리 팀이 이번 아웃리치에서 올라가야 할 M산은 국가의 경계를 이루는 불교도들의 4대 신산이다. 이 산을 순례하는 종족은 M산을 참배하지 않으면 사후 안락사로 돌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만큼 이 산을 신성시한다. 이 산은 양의 산이라고 불린다. 마침 올해가 음력 7년(乙未年)이다. 양띠 해다. 그들은 이 산을 양띠 해에 순례하면 130세의 공덕기다. 1년에 순례하면 1300세의 공덕이 쌓인다고 믿는다. 이것을 믿는 부족이 이 산을 순례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번 아웃리치에서 한 사역은 이 산을 오르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채워야 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주말에는 팀원들

#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

과 함께 등산을 다녔다. 인양산을 시작으로 북한산, 관악산까지 섭렵했다.

드디어 9월 1일 아웃리치 일정이 시작됐다. 비행기를 타고 동아시아 B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네 명의 선교사님과 만났다. 배낭 짐을 옮기고 사역지로 이동했다. 그곳에 마련된 숙소에 서해방을 먹고 다음날 아침 마을로 이동했다.

아웃리치 셋째 날, 팀원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등산을 시작했다. 가방에는 2개월 동안 필요한 개인 짐과 식량이 들어있었다. 여자들은 8kg 남자들은 10kg 무게의 배낭을 썼다. 우리 일행 옆에는 부족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80세 할아버지 이상 장점은 아직까지 난타노를 불렀다.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짓누르고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따갑게 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길을 걸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루 10시간씩 산행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파스로 도배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부족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스처지 나가는 부족에게 말을 건넸다. "짜사텐데(축복합니다)" 직감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의 말을 건넸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물었다. "왜 저들이 산을 오르고 있을까요?"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4,500m M산을 등반하고 있다.

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산을 순례하고 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이유였다.

맞는 말이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왔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했다. 그 땅과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

다. 그들의 믿음이 헛된 위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진정 성신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할 소망이었다. 일흔한 동행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분분투하는 용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지금도 M산을 오르고 있는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2015년 8월 16일 1061호

- 01 - (S브릿지공동체) 남아시아 F국 : 김미순 자매(8면)
- 02 - (GIL 공동체)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 박은미 자매(8면)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 뜨겁고, 맵고, 짠 음식과 정혼(定婚) 문화



물과 관광자원 풍부한 '네팔'



바릿 목사, 만지라 사모 (온누리M센터 네팔어예배)

내가 살던 네팔은 가장 아름다운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의 티베트와 히말리아 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다. 넓은 초원과 산맥이 있는 네팔은 물과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네팔 국민 중 80%는 힌두권 문화를 접하고 있다. 330여 가지의 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부족 간의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다르다. 네팔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나마스떼”  
네팔 사람들의 환영 인사다. 그들은 방문객을 ‘신

이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했다’고 여긴다. ‘나마스떼’의 뜻은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드립니다”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아나사”라고 인사한다. 이것은 “예수님(예시야)은 승리자입니다”라는 뜻이다.

네팔 음식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졌다. 보통 뜨겁고 맵고 짠 음식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달 밧 타카리(Dal Bhat Tarkari)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국과 밥, 그리고 커리가 함께 나오는 음식이다. 네팔 사람들은 국을 ‘달’, 밥은 ‘밧’, 커리는 ‘타카리’라고 부른다. 쌀밥에 마늘 갈아 넣은 수프와 커리, 채소절임 등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네팔 사람들의 주식에 해당된다.

동그란 쟁반에 섞어 먹는 음식도 있는데 이것을 ‘네팔리 탈리’라고 부른다. 네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커리 요리에는 주로 닭고기와 염소고기를 쓴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채소류로 만든 커리도 있다.

네팔 사람들은 하루에 4끼를 먹는다. 보통 6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 10시에 점심을 먹는다. 오후 3시에 ‘카자(샤잠)’를 먹고,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저녁식사를 한다.

네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소가 도로 위를 지나다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네팔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한다. 그래서 소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는 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은 닭고기를 주로 먹는다. 네팔 사람들에게 최고로 꼽히는 음식은 단연 양고기다.

네팔은 연애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대가 바뀌면



1. 네팔의 행사와 축제  
2. 네팔의 전통 음식 ‘달 밧 타카리’

서 네팔 사람들도 예전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연애를 허락하지 않는 문화는 남아 있다. 네팔 사람들에게 정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결혼이 성사되면 신랑과 신부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신부는 무조건 신랑의 집으로 가야 한다. 참고로 네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신분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네팔에서 결혼

할 때 경제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다.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 세대들은 신분제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대부분 따르지 않는다. 네팔의 결혼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네팔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새신부와 새신랑이 신랑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산다. 새신랑 집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은 부모님께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목회칼럼 윤석원 목사(강동 은누리교회 청년부)

##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립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살전 2:4).

이 말씀은 이번에 다녀온 몽골 아웃리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연히 받은 말씀카드에 그렇게 적혀있었다. 흘러들지 않고 계속 묵상하게 되었다. 다시 보고 또 보며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상황이 열악했다. 100명의 믿지 않는 현지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해야 했고 장소도 열악했다. 불평에 사로잡힐 뻔하다 감사와 회개로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한 것이 바로 이를 전이었다. 그 날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기에 더욱 확신이 생겼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내안에도 용솟음치듯 일어났다.

사실 첫날 저녁집회 중에 일이 있었다. 몽골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흑사라도 집회 분위기에 실망했을 한국 청년 봉사자들이 있을까봐 “원래 첫날은 그래”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했다. 하

지만 나도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다. 낮에 진행된 영어캠프와 다른 워크숍들은 행복하게 잘 진행되었었다. 그것들과 대조적으로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집회 반응은 나를 적잖이 당황시켰다. 설교를 한 나로서는 미흡한 설교에 대한 자괴감도 밀려왔다.

그러던 내게 “너는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격려는 나의 시선을 주를 바라보게 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심 일을 기대하게 했다. 동시에 얼마 전에 치러진 하용조 목사님 추도예배에서 최도성 장로님이 하신 간증이 뇌리를 스쳐갔다. 하 목사님이 소천했을 당시 위기와 불안함에 시로잡힌 장로님께 주셨던 음성이었다.

“네가 하나? 내가 하지!”  
그 음성이 내안에도 울려 퍼졌다.

쉬는 시간마다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몽골 아이들도 강동 은누리교회 선생님들의 계속되는 사랑에 단애 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는 더 많은 은혜들이 부여졌다.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손이 굳어버린 아이가 있었다.

전도사님과 권사님의 기도도 그 아이를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믿음의 요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씀이 심겨지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었다.

첫날 숲에 취해있던 캠프장 주인이 둘째 날 뭍이 이쁜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게 찾아왔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기도 후 은혜를 받았는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편의를 봐주었다. 마지막 날 현지 버스기사와의 갈등이 생겨 1시간 이상 출발을 못하고 퇴약실에서 고생할 때도 우리의 아군이 되어 도움을 주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열악했던 캠프장소도 복음이 증거 되는데 막힘이 되지 못했다. 성숙한 청년들과 참가자들은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 물이 안 나오는 캠프장에서도 함께했던 장로님은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며 청년들보다도 더 큰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옮겨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를 옳다 인정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다.





#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 준비 한창

## 컬기대회 개최, 30일부터 참가자 모집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7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이타 현지 교회는 벌써 13차례에 걸쳐 실행위원회를 열고 러브소나타 집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에는 컬기대회를 개최했다. 컬기대회는 러브소나타 협력교회들이 모여 각오를 다지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대회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컬기대회는 사이키복음 그리스도교교회와 오이타복음그리스도교회체 플노아에서 열렸다. 가이금 연주자 이슬기 자매가 게스트로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컬기대회에 참가한 기무라 도모코 성도는 "이슬기 자매의 가이금 연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같았다"면서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히카타 카즈오 성도는 "한국 의 전통 음악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

서 "딱딱하고 정치적인 한일관계의 벽을 넘어(음악으로 하나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싶다"고 했다.

10월에 러브소나타 집회가 막 오르는 오이타 현은 교회가 67개밖에 없을 정도로 크리스천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현지 실행위원회는 오이타현에 인접한 후쿠오카, 구마모토, 미야자키, 야마구치현에도 포스터와 전단지 등을 발송해 집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8월 30일부터 4주 동안 참가자를 모집한다. 러브소나타 한국 참가자들은 러브소나타 집회장을 찾은 일본인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는다. 현지교회를 방문해 현지 일본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한다.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도 모집한다. 8월 28일 오후 1시에 서빙고 미션홀에서 모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컬기대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이 이슬기 자매의 간증을 듣고 있다.

###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첫모임: 8월 28일(수) 오후 1시  
장소: 서빙고 미션홀(선교관 1층)

문의: 류석민 권사 010-2824-3408  
러브소나타 본부 02-749-1149

### 참가자 간증

####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행복해지셨습니까?"

가이금 연주자 이슬기 자매가 'happiness' 라

는 곡을 연주하고 나서 건넨 말이다. 나는 이 곡을 그녀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 내가 이날 이슬기 자매의 반주를 해줬기 때문이다. 훌륭한 연주자의 반주를 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꿈같았다. 나의 작은 능력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계명 하나하나가 합쳐져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필요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이슬기 자매가 가이금을 연주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졌다. 아찔하듯 아름답지만, 필요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가이금 연주와 내 부족한 반주가 어우러졌듯,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에도 게스트가 출연

해 연주하고 간증을 한다. 그들의 연주와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벌써부터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기대된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 고도 교묘(사이키복음그리스도교회)



## NGO 더멋진세상, 의료지원 사업 활발

### 세네갈 의료진 2명 초청,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이 아프리카 세네갈 의사 두 명과 어린이 심장병 환자 한 명을 초청해 의료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세네갈에서 마취과 전문의와 심장외과 전문의, 어린이 심장병 환자가 NGO 더멋진세상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다.

세네갈에서 온 의료진들은 부천 세종병원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다.

세네갈에서 온 어린이 심장병 환자 짜에르노(10)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수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8월 11일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다. 현재 경과를 지켜보며 회복 중이다.

짜에르노는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해외 의료진 초청사업은 지난 4월 이집트와 르완다에 이어 두 번째다. 해외 환우를 초청해 치료를 돕는 사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김현준 기자



보고 싶은 영화 '순교'



복음의 빛진 자로서 선교를 위해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됐다.

해외 파송 선교사 중에 한국인 최초로 순교한 '김영학 목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 그들의 죽음은 부활이며, 승리며, 영광이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김영학, 배형규 목사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 '순교'에 담겼다.

영화 '순교'는 지난 8월 13일 서울 마포구 필름포럼과 종로구 스폰지 하우스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영화라며 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화 순교는 <잊혀진 가방>(2010), <중독>(2013), <제자 육한흠>(2014)을 연출한 김상철 감독의 작품이다.

### 목숨과 바꾼 그 이름 '선교'

김영학 목사(1877~1933)는 황해도 금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1918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19년 전국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김영학 목사는 3.1만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출소한 그는 러시아 선교사로 자원했다. 당시 러시아는 공산혁명으로 흥행한 시기였다.

1930년 러시아 공산당은 김영학 목사를 반동죄로 체포하고 배

교를 강요했다. 그러나 김영학 목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듬해 10년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된 그는 복역 중에 순교했다. 김영학 목사의 아내 안원정 사모가 남긴 자술서를 인용해 영화를 제작했다.

2007년 대한민국을 떠돌이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삼불교회 성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 순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돼 목숨을 잃은 배형규 목사(1965~2007)도 조명했다.

배형규 목사는 2007년 7월 한민족복지재단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 팀장으로 삼불교회 단기선교팀원들과 선교를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순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배형규 목사를 선교사로 추서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김영학 목사와 배형규 목사.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부활이며, 승리며, 영광이다. 영화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 보자.

문의: 070-7886-3681



01

##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 감사예배 및 자문위원·후원회 운영위원 위촉

미주 CGNTV가 개국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자문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14일 나성영락교회에서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및 자문위원·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박광철(조이헬로십교회) 목사,

김경진(나성영락교회) 목사 등 목회자 16명이 자문위원으로, 미첼이 넷워드 대표 등 평신도 16명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CGNTV 본사 리더십과의 오찬모임을 통해 강준민(새생명비전교회), 진유철(나성순복음교

회), 박성근(LA한인침례교회), 이정엽(LA온누리교회) 목사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같은 날 미주 CGNTV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미국 내 다민족(다문화) 기관 및 교회 리더십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KCCD)와 MOU도 맺었다. 알바인 온누리교회에서는 축하음악회가 열렸다.

02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현장.

##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9개국, 41명 세례 받아

“이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16일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현장에서 네팔 청년 라월이 눈물을 글썽했다. 그는 2013년 한국에 왔다. 타국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때 온누리M미션이 큰 힘이 되었다. 온누리M미션을 통해 예수도 만났다.

안산 대부도에서 열린 온누리M미

션 연합세례식에서 9개국 41명의 형제자매들이 세례를 받았다. 성인 35명, 청소년 2명, 유아 4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중국에서 온 쌍둥이 자매 남란미, 남란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고백했다.

김창욱 전도사(2000선교)는 “이날

세례를 받은 이주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해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온누리M미션 세례식은 이주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담겨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일산공동체

아프리카 D국,  
아프리카 S국 아웃리치



박호준 성도  
(일산공동체)

일산공동체는 2012년 ‘블레싱 사하라’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선교팀을 파송하고 있다. 지난해 에볼라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의료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리가 멀고 현지 상황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료선교팀원이 늦게 확정됐다. 예년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고, 기도의 양도 턱없이 부족했다.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출발했다.

7월 25일 토요일 밤 아프리카로 향했다. 경유지인 이스탄불 공항에서 QT를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프리카 D국에 도착했다. 매년 약 품반입을 허가받는데 무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당국이 약품 반입을 금지했다. 통관 중에 약품을 모두 압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출발 직전 그 소식을 듣고 일산공동체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온 상황이었다.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바로 앞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는 현지인 아주머니의 짐이 문제가 되어 모든 세관

원이 그 아주머니에게 간 사이 우리는 검사도 받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다음날 의료사역 준비를 하고 아프리카 S국으로 향했다. 아프리카 S국은 우리나라와 비수교국이라서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 팀원 10명 중 6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 우리를 초청한 현지 NGO 단체에서 출입국사무소 책임자를 모셔왔다. 그분의 배려로 여권을 맡기고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었다.

의료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전날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아프리카 D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이 비자 발급처로 향했다. 두 사람은 무사히 통과했는데 세 번째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사무실에서 소동이 났다. 우리 팀원 두 명이 사무실에 갇힌 채 문을 잠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에는 다시 비자 발급 절차가 재개되어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유목민 마을에서 의료사역을 진행했다. 모든 마을 청년들이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행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다. 마을 세 곳을 방문하고 돌아와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은 어린이 사역을 하는 날이었다. 매니큐어, 바탕케비, 복음팔찌, 그림 그리기 사역 등을 준비해 갔다. 매니큐어와 바탕케비는 엄청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역을 하고있는 모습.

인기가 있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즐겨 워했다. 복음팔찌는 팔찌를 만들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인데 오지엘 형제가 잘 진행해주어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한지매와 함께 동화구연을 진행했다. 동화 내용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통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는 이 곳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모른다고 했다. 다행히 책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동화구연이 끝나고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서는데 비보가 전해졌다. 3년째 아웃리치팀 회개로 섬기고 있던 집사님의 모친상 소식이었다. 팀원들 모두가 놀라 아찔한 비를 모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단단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아웃리치 와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팀원들과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렸다.

돌아보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감사가 가득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이타 현지에서 한국인 재배들이 러브소나타를 홍보하고 있다.

#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4주 동안 안내데스크, 홈페이지, 목회지원실에서 접수  
23번째 러브소나타 60일 앞으로 ... 10월 28~29일 막 올라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를 모집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빙고본관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빙고를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일본에서 33번째로 올려 파자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60일 앞으로 다

가왔다.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오이타 이치코그란시어터에서 막 오른다. 10월 28일에는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전야집회), 10월 29일에는 리더십포럼 한일교류만찬회(CEO포럼)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오이타 시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예정이다. 배재철(데너), 김영미(소프라노), 은누리장로(합창단, 이슬기(가야금

연주자), 심수봉(가수), 송솔나무(플룻 연주자), 박진아 작가(센드메이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오이타에서는 현지 실행위원 교회를 중심으로 사전세미나 ‘알대일 리더아카데미’를 개최했고, 두 차례에 걸쳐 팔가대회도 열었다. 13차례에 걸쳐 실행위원회도 개최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이주민 위한 추석연합집회 봉사자 모집

9월 26~28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은누리M미션에서 개최하는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5’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는 9월 28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Build Up’을 주제로 열리는 추석연합집회에서는 4번의 메인 예배와 국

제 문화 축제, Adventure, 나라별 음식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치트 전도사, 유세르게이 목사, 데벤드라 목사, 김창욱 전도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문의: 양옥진 사역자 010-3337-3327

/ 정현주 기자

2015년 8월 30일 1063호

- 01-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1면)
- 02- 은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5> 봉사자 모집(1면)

01

### 5차 선교사 파송식

오늘 서빙고 1부, 양재 3부 예배에서  
2015년 5차 선교사 파송식이 열린다.  
여디디아(단기)-남아시아A국  
최소망(단기)-남아시아B국  
권사론(길렘)-동아시아B국  
나문채(길렘)-일본  
이순중, 김은혜(길렘)-중동 A국  
보아서로아스(전문인자비랑)-남아시아A국  
이굴라, 브리스길라(전문인자비랑)-  
남아시아N국

02



목회칼럼 서재범 목사(S브릿지공동체)

### 열방을 품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올 여름 아웃리치를 4번이나 다녀왔다. 해외 2번(몽골, 베트남), 국내 2번(경남산청, 전북 정읍) 다녀왔는데 지역도 특색도 다양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 몽골 아웃리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몽골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 내가 밟은 땅은 환경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이었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초원이 펼쳐진 곳이지만 개발이 한창이라 공해가 심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방문한 7-8월에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몽골 국민 대다수는 김탄을 연료로 쓴다. 김탄은 석탄의 한 종류로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와 함께 한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담배를 왜 이리 많이 피셨어요?"라고 했다고 한다. 선교지에서 겪는 고충이 이렇게 다양했다.

몽골 아웃리치 의료 현장은 참담했다. 천명 가까이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자신의 치료약이 아닌데도 약을 가져가는 사람, 혈압이 200이상으로 상승한 대다수의 환자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선교사님을 보며 또 한번 울었다.

베트남 아웃리치에서는 현지인들을 섬기는 '문화의 밤'을 만들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도를 하며 문화의 밤에 초청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즐겼다. 아웃리치 팀원들과 비전을 나누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장 큰 도움은 공감대였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비전을 나누고, 교제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감임을 깨달았다. 잊지 못할 체험이었다.

은누리교회 아웃리치는 흠어진 나그네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 아와 아시아의 비두니아 지역에 흠어져 사는 나그네"(행전 1:1).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오는 것이 아웃리치다. 한마음으로 가족처럼 섬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웃리치다. 나는 기억날 때마다 아웃리치 다녀온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다녀온 선교지, 미지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떠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떠난다.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떠난다. 아웃리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돌아왔다면 소중히 품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아웃리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야 한다.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그대여, 열방을 품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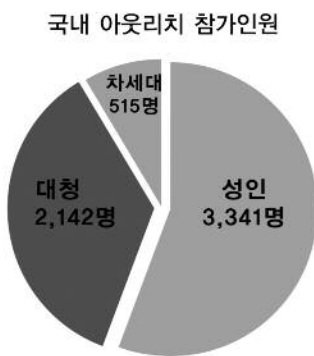
2015년 8월 30일 1063호

- 01- 5차 선교사 파송식 : 보아스-로이스 외 싱글 4팀, 가정 2팀(2면)
- 02- 〈목회칼럼〉 열방을 품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 서재범 목사(S브릿지공동체)(4면)



# 2015 여름 아웃리치 결산

국내 188개 팀 5,998명, 해외 186개 팀 2,449명 참가  
국내 충청도, 해외 동남아시아 ... 최근 3년 아웃리치 인원 늘어



201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마무리됐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88개 팀 5,998명, 해외 30개국(102개 지역) 186개 팀 2,449명이 참가했다. 국내 아웃리치는 충청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 35개 팀이 충청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어 경상도 34개 팀, 강원도 32개 팀,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29개 팀 순이었다. 해외 아웃리치는 단연 아시아가 대세였다. 해외 아웃리치팀 92%가 아시아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64%로 으뜸이었다. 몽골,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가 28%로 그 다음이었다. 유라시아(4팀), 아프리카와 중남미(각 3팀)로도 다녀왔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는 해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해외 아웃리치를 떠난 인원이 증가했다. 2013년 98개 팀 2,283명, 2014년 158개 팀 2,402명, 2015년 186개 팀 2,449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기자



# 성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아웃리치를 다녀온 성도들에게 2000선교, 대학청년부, 차세대 본부장이 격려메시지를 보내왔다.



김홍주 목사  
(2000선교 본부장)

## 2000선교

여름 아웃리치에 다녀온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웃리치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개척적으로 접촉하기 힘든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

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웃리치의 가장 큰 효과이자 강점입니다.

은누리교회는 여름 아웃리치의 현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선교현장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을 때 선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방을 뚫고 돌아온 성도들의 개인적 영성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연합하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는 필수적입니다.

올해 아웃리치는 안전관리의 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국내 아웃리치의 경우 좁은오펜, 접촉사고, 물놀이 사고 예방이 아예 해당됩니다. 해외 아웃리치는 무엇보다 사고 없이 잘 다녀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0선교본부는 '한시 중심 협의체'를 꾸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2000선교본부에 연락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

## 이제는 선교지 위해 기도할 때

했습니다. 'swim서브'에 실시간 보고망을 구축해 사역 예정, 사역 중, 사역 완료된 지역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웃리치에 참석한 팀별, 국가별, 지역별 통계 자료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웃리치는 인회성으로 끝나는 안 됩니다. 다녀온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녀온 선교지의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드리고 있는 목요선교집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집회는 선교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선교지에서 보고, 느끼고, 품은 것들이 일상 속에 불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열방을 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부 본부장)

## 대학청년부

올 여름 국내의 아웃리치에서 수고한 청년들 모두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헌신은 지역 교회를 회복시키고, 농어촌교회에 힘을 주었고, 선교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학청년부의 한 공동체는 경북 문경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7년 동안 도왔습니다. 문경은 불교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무려 7년 동안이나 방문해 결국 변화시켰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교회 수도를 끌기도 하고 다른 종교인이 가득한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무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은

누리교회 청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찾아가 섬겼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은누리교회 아웃리치 팀 방문이 마을의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마을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복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아웃리치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웃리치는 영적 책임입니다.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지방의 작은 교회들 다니던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와 대형교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 이유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은누리교회는 한국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누리교회에 주신 영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웃리치를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전국 어느 교회든 수련회를 합니다. 하지만 은누리교회는 아웃리치를 갑니다. 떠나는 교회입니다. 아웃리치는 청년들에게 매우 귀한 영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리치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주고오는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은사도 발견하고, 인생의 올바른 비전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인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선교사적 삶을 경험하는 장(場)이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셋째, 아웃리치는 청년 선교 자원을 발굴합니다. 아웃리치는 1년에 1회, 1주일 정도 떠납니다.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FA(Frontier Agency) 단기선교사로 자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청년의 헌신이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자원으로 쓰일 만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웃리치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안입니다.

## 청년들에게 아웃리치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노희태 목사  
(차세대 본부장)

## 차세대

올해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에는 1,000여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모두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해야 할 것들을 멈추고 어딘가로 떠났다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아웃리치에 참가해준 차세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세대 아웃리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인 아웃리치는 차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차세대 아웃리치는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차세대들은 타국과 다른 지역 또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

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차세대 캠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아웃리치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차세대에게 효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용성은 개개인의 주관적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려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 실력을 키우거나 성적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효용성을 내내 내리려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효용성이라 지칭합니다.

효용성이 발동하는 시점은 자율성이 주어질 때입니다. 자율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효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스스로 선택해서 사역을 하는 등의 자율성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 비전도 발견하고, 자율성도 회복하고

그래서 수련회보다 아웃리치가 더 큰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율성의 열매는 선인이 되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추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은 아이들은 선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특별한 아웃리치팀이 있어 소개합니다. 서빙고 중등2부는 매우 귀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학생 9명과 교사 1명이 몸담고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2박3일 동안 현지 청소년들과의 연합 캠프를 했습니다. 연합 캠프 저녁 집회에서 현지 청소년들과 은누리교회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기도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증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와 꿀맛에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고 감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아웃리치는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율성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서초D공동체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김명진 성도 (서초D공동체)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기쁘고 하셔서 다녀왔다. 그곳에 있는 동안 힘들었지만 그곳 친구들이 불쌍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타국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왔다. 내게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잘 참아냈다. 아웃리치를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들 지훈이의 일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성공적인 것이 분명하다.

내가 아웃리치라는 용어는 생소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온 지 3년 정도밖에 안된 평범한 성도다. 순장님을 통해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그동안 아웃리치를 바라보던 내 시각은 제지의 시선이었다. 아웃리치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7살 된 외아들 지훈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훈이를 데리고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에 다녀오라고 하셨다.

의아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담당 총무님이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그 덕분에 지훈이와 함께 아웃리

치를 갈 수 있었다.

서초D공동체의 이번 아웃리치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공동체는 젊은 공동체다. 30명의 팀원이 이번 아웃리치에 함께 했다. 그중에 15명이 어린이거나 청소년이었다.

서초D공동체는 양성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원들 모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출산수염했다. 우리 지훈이는 아웃리치 팀원 중에서 가장 막내였다. 팀원들은 지훈이를 친자식, 친손자처럼 챙겼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아웃리치 출발 전 팀원으로서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방만했던 내 모습과 아들을 데려간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했다. 현지 아이들에게 풍선과 시탕을 나눠주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했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시탕을 받았던 한 아이가 친구를 데려왔다. “친구와 함께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라며 나에게 미소를 보였다. 총기 있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잊을 수가 없다.

특별한 땅에서 일 평생 헌신한 선교사님들도 매우 귀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나는 선교사님들 모습을 보고 빛진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 이 땅의 흔적을 살아가라



어린이 사역으로 페이스 페인팅하는 모습. 2015.07.31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선교지를 사랑으로 품은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은 나에게 큰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은 내게 숙연함으로 다가왔다.

드라운 초원에서 주일에 배를 드렸다. 양성민 목사님께서 “이 땅의 흔적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다. 아웃리치는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흔적을 가슴 깊이 새겨 일상 속에서도 사역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노력해야 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받은 도전이 굉장하다. 선교사님의 재치가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지에 와보니 저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난 아이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간증했다. 그 간증을 듣고 눈시울을 적셨다.

마지막 날, 우리 아들 지훈이가 “내년에도 하나님이 아웃리치를 가라고 하시면 당연히 가자!”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번 아웃리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초D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축하음악회

앨버틴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미주CGNTV 개국10주년 축하음악회.



중남미 워싱턴학교.

## 미주 CGNTV의 역할과 사명,

# 커뮤니티 협력 허브, 중남미 선교 전략기지

미주 CGNTV는 기독교 콘텐츠가 풍부한 북미 지역과 교육과 문화 사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가톨릭 신자가 90% 이상을 차지해 참된 복음이 절실한 중남미 지역을 모두 품고 있다. 특히 중남미는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선교지'라는 말이 돌 정도로 거대. 비용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선교사를 잘 파송하지 않는 곳이다. 미주 지역은 한국 교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모국어로 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수요를 높이고 있다. CGNTV가 서울 본사를 개국한지 5개월 만인 2005년 8월 LA에 미주 CGNTV를 설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3년 6월에는 미 동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뉴욕지사도 설립했다.

### 중남미 선교 교두보로서의 정체성 확인

지난 10월부터 15일까지 이어진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관련 행사들은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민족·다문화 커뮤니티와의 협력 의지를 확대하고 중남미 선교의 교두보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232 트리오' 8명의 연세를 합친 것으로 232명으로 불리는 CGNTV 리더십(유재건 대표이사, 정성진 운영위원장, 배종수 실행위원장)이 출동하고 '항수'라는 곡으로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융합 장르를 개척한 '박인수 서울대 명예교수와 음악친구들'이 축하공연으로 함께 했다. 나성영락교회(김경진 목사)와 앨버틴온누리교회(권혁민 목사)에서의 14, 15일 양일간 공연에는 연인원 1,8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14일 남가주에서만 8.15 광복절 행사가 일곱 군데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800여명의 성도들이 나성영락교회를 찾아 공연을 관람하고 미주 CGNTV 개국 10주년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CGNTV의 강점인 네트워크 기능이 단연 돋보였다. LA와 오렌지카운티의 대표적 한인교회인 나성영락교회와 댈러스의 인교회(김현호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담당목사들과의 마팅이 각각 이뤄진 것. 이들 목회자는 CGNTV 리더십의 방문을 환영했을 뿐 아니라 선교다큐 '발레마린' 등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우수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CGNTV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치기도 했다. 한 기흥 목사는 "미주 CGNTV의 자문을 받아 다문화 학기부터 미국 정규대학과정인 그레이스미션대(GMU) 수업 동영상도 스페인어 등으로 자막 처리 또는 다빙하기도 했다"며 "GMU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있다면 CGNTV가 Britt 지역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나성영락교회는 3일간 행사 장소 및 자원봉사자들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13일에는 미주 CGNTV 10주년 개국 감사예배가, 14일에는 미주 CGNTV 자문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이 이어졌다. 또 15일에는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의 새바기도회 메시지 선포와 교회 리더십 조건모임이 각각 이뤄졌다. 김경진 목사는 "CGNTV가 가장 효율적인 미디어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는 데 이분의 여지가 없다"면서 CGNTV와 더욱 협력해 가면 좋겠다고 했다.

미주 CGNTV는 2004년부터 자체적인 후원회가 결성돼 약 3,500여 명이 후원해왔다. 현재 10,000여 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주와 중남미를 위한 7개의 위성 비용을 책임지고 있다. CGNTV의 7개 해외지사 및 제작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현지에서 모인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10주년 행사를 통해 강준민(새생명비전교회), 진유철(나성순복음교회), 박성근(LA 한인침례교회), 박관철(다오엘로 침교회) 목사 등 남가주의 대표적 목회자 20여 명이 자원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마이클 네티드 대표, 정해규 기독교산업인회 회장, 코-리 권재의(한강호 이사장 등) 15명은 후원회 운영위원이 됐다. 향후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미주 CGNTV가 앞장선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와 중남미를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번 10주년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3일에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알베틴 회장과 MOU를 체결한 점이다. 이날 남가주의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중남미 출신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십이 참석해 KCCD를 매개로 해 CGNTV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14일 자문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에는 영미 미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해 "CGNTV가 미주 한인과 미국 커뮤니티

간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독교적 가치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크리스천 정치인으로서 CGNTV와 동역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주 CGNTV는 초창기부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한지인에 적합하고 교포 사회에 필요한 영적 콘텐츠를 제작해온 것. 또한 미국 내 차세대들을 주목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하는 가하면 차세대들을 위한 설교자가 없는 미 자립교회들을 위해 별도로 영어 DVD를 제작, 배포해왔다. 미주 CGNTV는 한국 채널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방송하고 있다. 분방을 48%, 1137 개의 아이튠과 매월 500여 편을 제작, 방송한다. 언어별 프로그램 현황은 한국어 84%, 영어 12%, 스페인어 3% 순. 한인 커뮤니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미주 한인교회 말씀 강해와 10분 메시지, 칼럼, 한인 리더십의 간증 프로그램 등도 제작한다.

미주 CGNTV는 미주 내 다양한 TV 채널들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진행했다. 글로벌 비전 내 북미 IPTV(2008년), IPTV(NTV)(2007년), 남가주 디지털 공중채 CH184 뉴욕 뉴저지 지역 디지털 공중채 CH 633 남가주 타임워너, 록스 케이 블(2009년), IPTV & TV(2011년) 등을 통해 CGNTV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된 것. 위성의 경우 2014년 1월 'Galaxy-1F'을 새롭게 론칭해 가시청권을 미주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다른 위성 Hispasat-1E는 중남미를 커버 하고 있다. 방송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Full HD 중계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 가장 유용한 중남미 선교 톨 제공

이번 미주 CGNTV 개국 행사의 꽃은 가장 유용한 중남미 선교 톨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중남미 선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남미가 복음화율이 높지만 민족종교와 혼합되었거나 이단들이 파장공세를 펴고 있음에도 교회들이 낡고 있다. 정령송에게 사도잡 하지는 원주민들도 적지 않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아 산간벽지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재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미주 CGNTV는 '신학교=

건물'이 아닌 '신학교=콘텐츠'라는 새 도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테말라,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나카라과, 콜라비아, 파라과이, 칠레 등 8개국 22명의 한인선교사들과 연합으로 이뤄진 워싱턴신학교(WSS)에 워싱턴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CGNTV는 한인교회와 선교사, 현지 크리스천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낸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2013년 스페인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목회자의 85%가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 95% 이상이 성경 일독도 하지 못한 채 목회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스페인어로 된 'WSS-미주 CGNTV'의 워싱턴신학교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8개국에서 102개 캠퍼스를 통해 1,000명이 넘는 과목의 정규 신학교육을 수료했다. 현재 1,407명이 재학 중이다.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교도소에서 워싱턴신학교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과테말라 정부는 WSS에 자국내 22개 교도소에서 워싱턴신학교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김성남 선교사가 WSS 교도소 사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SS 부총장인 김성진 선교사는 "교도소에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지만 김성남 선교사가 엄격한 학사와 인성관리를 통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끝냈고 졸업장을 주면 지반의 대상이 될 사역자를 양성하는 꼴이 된다"며 "이 때문에 현지 정부가 WSS 모델을 인정하고 모든 교도소에서 이 과정을 해달라고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선교사는 "하늘을 향해 열려만 있으면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발전기를 활용해 신학교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과테말라 교도소에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CGNTV가 워싱턴방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온누리교회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중남미는 말씀감동 한 편이 소중해요. 신앙 고백한 편을 듣지 못해 기겁을 겪고 있죠. 어린이 찬양한 곡이 제대로 없어 아이들의 정서가 매마르고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인적지원과 양질의 콘텐츠를 영적 기근상태인 중남미에 아낌없이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





## 쉽게 읽을 수 있는 선교 입문서

〈Why Mission?〉

온누리2000선교본부, 한철호,  
김영동 외 4인 저 | 두란노 |  
10,000원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온누리교회는 2000선교본부를 세우고 선교에 모든 역량을 모아 왔다. 지금까지 72개국에 1,76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841명의 선교사가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그 바탕에는 2002년부터 평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교기초훈련 프로그램 ‘Why Mission?’ 이 있다.

지금까지 약 6,000명의 성도가 ‘Why Mission?’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에 출판된 〈Why Mission?〉은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평신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선교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왜 우리가 세계를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도 해준다.



01

##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Build up'

9월 26~28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 발리지에서 열린다.  
이 9월 26일부터 2박3일 동안 Acts29 비전 'Build up' 을 주제로 진행되는 추석연합

집회에는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인 봉사자 130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아키투 전도사, 유세르게이 목사, 데벤드라 목사, 김창욱 전도사가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회비는 2만원. 문의: 010-3387-3327

02

##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

9월 27~29일 햇불선교센터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가 9월 27~29일 햇불선교센터(양재 은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주제는 'Vision, Mission, Response'다.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는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해 국내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행사다. 한인 쪽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 정체성을 깨어주는 의미 있는 대회다.

이번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에서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 교회), 김하중 장로(전 통일부장관), 권혁빈 목사(은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이화 한국무용단, 샌드애니메이션, 소프라노 김영미, 한중사랑문예팀 등은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비는 7만 원이다.

/ 김미림 기자



#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선교 30주년

##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1.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 2.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 4. 나는 선교사입니다

### 2000선교,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개최 10월 2~11일 ... 온누리 선교사를 위한 축제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선교 30주년이다. 온누리교회 태생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선교와 온누리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온누리교회 선교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 10월 2~11일 막 오르는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2000선교본부는 "교회창립 30주년과 발맞춰 선교사의, 선교사에 의한, 선교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4주 동안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찬란한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와 주역들의 이야기를 심층 보도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사가 스리랑카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는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이하 선교 대회에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2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선교대회는 한 미디어 열방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재충전 시간이다. 선교사의, 선교사에 의한, 선교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교대회 첫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의 건강검진이다. 9월 하순부터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모두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타국에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료도 해줄 예정이다.

10월 2일(금)에는 선교대회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된다. 21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이번 선교대

회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결연한 공동체 순예배에 참석한다.

10월 3일(토)에는 온누리 선교 기관 연합모임이 있다. 2000선교본부를 비롯해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미션, 더멋진세상, CGNIV, 두란노서원, 아버지학교, 일대일사역본부 등 온누리교회 선교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융합선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4일(주일)에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예배를 드린다. 이날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는 융합선교 홍보 부스가 설치된다.

10월 5일(월)부터 이틀 동안은 선교사 수련회를 갖는다. 휴식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7일(수)부터 이틀 동안은 선교 세미나가 열린다. 10월 9일에는 순장영성수련회에 참석한다.

10월 10일(토)에는 경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

릴 방 탁구대회가 개최된다. 공동체와 캠퍼스 간 연합 및 해외 선교를 독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열방 탁구대회에는 외국인 이주빈, 성도 전·현직 국가대표 탁구선수들이 참석한다. 열방 탁구대회

참가비 일부는 선교지에 탁구대를 보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10월 11일(주일)에는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성안예배에서 간증을 한다.

####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일정

예 배	내 용	장 소
10월 1일(목)	선교사 건강 검진	하나로 의료재단
2일(금)	30주년 선교 대회 오리엔테이션	서빙고 비전홀(예정)
3일(토)	온누리 선교 유관기관 연합모임	서빙고 비전홀(예정)
4일(주일)	융합 선교 홍보 부스 설치	서빙고/양재 캠퍼스
5일(월)~6일(화)	선교사 수련회, 침과 선교적 부르심 재확인	창소 미정
7일(수)~8일(목)	선교 세미나	서빙고 두란노홀(예정)
9일(금)	순장영성수련회, 울어라 한반도여 참석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10일(토)	열방 탁구대회	경기고등학교 체육관
11일(주일)	전 캠퍼스 선교사 간증	전 캠퍼스 주일예배



목회칼럼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앞두고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연다. 현상에서 5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 21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고국을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건강검진, 30주년 부흥집회 참석, 선교사 수련회, 선교 기관 연합모임, 탁구 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순예배와 주일예배에서 선교현장의 이야기들도 들려 줄 것이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낮아져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영성을 따라 선교지로 가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다. 선교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도

행전 28장을 열방 곳곳에서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영적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비전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비전이다. 이번 선교대회는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비전을 재확인하고 재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0월 6일 저녁에 진행될 부흥축제 주제가 선교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해 오신 일들을 감사하고 회고하는 자리인 동시에 향후 30년 온누리교회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선포하는 장(場)이 될 것이다.

2000선교본부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선교

는 각 부서와 단체,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온 선교였다면 이제는 융합하고 협력하는 선교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선교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모델이 바로 융합선교다. 이 일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2000선교본부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더불어 의논하며 전략을 다듬어 왔다. 이번 선교대회에서 다듬은 선교 전략과 정책을 선교사님들과 의논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은 문화와 장소에서 고군분투하다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모처럼 따뜻하고 푸근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선교사

들은 외롭다. 낮은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심리적 압박도 크다.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이 상하고, 잊히고,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자 한다. 재충전하는 시간을 선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고생하셨다며 등을 두드려 주면 좋겠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 주면 정말 좋겠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  
‘네팔’



바랏 목사, 만지라 사모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네팔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새와 피부색을 갖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새와 피부색을 갖고 있는데 반해 네팔 사람들은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운 편이다.

네팔 사람들은 피부색으로만 구분 짓지 않는다. 네팔 사람들의 혈통은 두 부류다. 크게 몽골계와 아리우스계다. 아리우스는 4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종파이고, 아리우스계는 인도와 이란이 섞인 민족을 의미한다. 몽골리안과 아리우스계가 혼합된 민족이 네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다양한 민족이 섞인 땅이다. 그래서인지 종교도 두 개가 공존하는 나라다. 힌두교와 불교가 바로 그것이다. 힌두교인들이 사찰에 가서 참배 드릴 때 불교신자들은 힌두사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문화가 있다. 모든 힌두교 행사와 불교 행사를 함께 기념하고 있다.

## 예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네팔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땅이기도 하다. 많은 부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의 손길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 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수도 카트만두에 집중되어 있다. 네팔은 카트만두가 전부 가 아니다.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일 뿐이다. 카트만두에만 선교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면 네팔 전체 인구를 전도할 수 없다.

네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루 빨리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 서로 네팔에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 사회와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려 해외로

네팔은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다. 공장이 없다. 네 팔에 남아있는 젊은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고 있다. 노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로 돈 벌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팔에 남아있는 미혼 남성들은 가난과 싸우고 있다.

네팔에는 헌법이 없다.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 자유를 위해 '세속의, 세속적인(secular)'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통 힌두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교회가 합법적이지 않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들은 계속 부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네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기만 사회와 가족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약 4만 명의 네팔 사람들이 매년 한국에 온다. 그들 중 98%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네팔 사람 중 6%



지난달 16일, 네팔인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



▲ 네팔의 여신 쿠마리



▲ 힌두교 여성이 소에게 절을 하고 있다.

이상이 교회를 모르고, 5%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국내에 온 네팔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충청남도 아산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한국에 오는 많은 네팔 사람

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도도 멈추지 않고 있다. 네팔의 많은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하루빨리 네팔이 복음화되기를 간구한다.



목회칼럼 정현석 목사(서빙고 차세대)

## 난봉꾼에서 목사로 변신한 청년

“내가 듣고, 알고, 경험했다고 믿는 복음이 과연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번 여름,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내 머리 속에서 맴돌았던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YES”라고 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캄보디아에서의 여정을 통해 열방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보여주셨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하게 깨닫게 하셨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아주 특별한 형제가 있다며 깊고 깊은 시골마을로 우리를 데려가셨다. 아직 그 어떤 팀과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8시간 가까이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문란하기로 소문난 난봉꾼 ‘부은’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어느 날 그 형제의 배에 불이 차고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되어 수도 프놈펜으로 가게 되었다.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 때문에 낙심한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독교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이 성탄절이어서 진료를 하지 않았다. 잠잠 곳도 없었던 그 형제는 또 다시 낙심했다. “그냥 이렇게 시골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 것인가?” 하고 자포자기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음날 꼭 병원에 가보라며 허룻밤 묵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찾아간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복수가 찬 그의 배를 보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산처럼 솟아있던 뱃속의 물이 전부 빠져나와 예배당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그 자리에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마을로 돌아온 그 형제는 자신을 위해 했던 기도를 기억했다. 그리고 간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형제는 난봉꾼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 그를 통해 마을에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말씀 한 줄 읽어보지 못했던 그 난봉꾼이 이제 목사가 되어 마을에 가정교회 12개를 세웠다. 40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합당하다.

선교사가 들어간 적 없는 곳에서, 글을 아는 사람이 손에 꼽히는 마을에서, 단 한 사람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꺼

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빛을 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예배도, 구제도,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커진 등잔불이 부끄러워 그릇으로 덮어둔 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더 이상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펄펄 끓고 있는 물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불잡고 있으려고 해도 건널 수 없다. 에너지로 채워진 물 분자들은 서로를 주전자 밖으로 밀어내이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도 들쩍거린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01

## 일본인 9명,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 지난 2일 수료식 ... “기회 준 온누리교회에 감사”

일본 시모노세키 교회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 9명이 일대일 제자훈련 동반자반을 수료했다.

지난 2일 오후 7시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2호에서 일본인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식이 열렸다.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 일대일 제자훈련 동반자반 과정을 수료한 일본인들이 주인공이었다. 동반자반 양육은 지난해 9월부터 27주 과정으로 진행된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을 수료한

성도들이 맡았다.

이날 수료식에서 축사를 한 정호욱 목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동역자,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양육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날 설교는 일대일사역 본부장 이기훈 목사가 했다. 이 목사는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을 양육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양육해서 건강한 교회,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을 많이 배출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에 조산소 준공

### 주민 100명의 의료보험료도 납부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달 19일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에 조산소(Maternity clinic)를 준공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산소 준공으로 산모와 태아의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호망가 마을 주민 100명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증서

를 전달했다. 주민들의 의료보험료는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가 양계장 시범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납부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해 8월 르완다에 보건소를 건립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에는 매월 700~1500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받고 있다. / 김현준 기자

03



- 9월 7일(월)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통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 9월 8일(화) 오이타 교계가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도록
- 9월 9일(수) 오이타 67개 교회가 서로 협력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 9월 10일(목) 1,900명의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려 집회에 참석하도록
- 9월 11일(금) 목사님과 모든 출연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9월 12일(토) 오이타를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도록
- 9월 13일(일) 봉사자, 스태프들이 오이타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장로칼럼 김상인 장로(과천의왕공동체)

## 나는 시니어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를 보내 주세요. 이곳에 시니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3년 전 케냐 아웃리치를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칠순의 선교사가 내게 부탁한 말이다. 그때 시니어 선교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나는 얼결에 돕겠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마침 인도에서 돌아온 동기 장로에게 케냐 선교를 권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또 다른 분이 없을까 주변을 살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게 되었다.

1년 좀 지난 어느 날 웬일인지 사는 게 마음 편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신앙이나 가정생활도 안정적이고, 건강도 좋은 편이고, 사역이나 봉사도 나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의 평안만을 위해 주신 구원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를 짓는 기분까지 들었다. 그렇게 이유 모를 불편함 속에 지난해 40일 새벽기도를 할 때였다. 시니어 선교단을 모집하는 CGNTV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케냐의 시니어 선교사님의 부탁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그 약속을 잊고 있어서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나보다.”

나는 바로 시니어 선교사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했다. 그 일을 계기로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예도 들어가게 되었다.

‘은빛날개’는 인생의 하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시니어 7명을 선출해 시니어 선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밟는 것을 촬영하고, 방송하는 CGNTV 창립 9주년 특집 프로그램

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시니어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웠다.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다. 이 결단은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그곳에서 어린이학교를 섬기는 시니어, 농업선교를 하는 시니어, 학사사역을 하는 시니어, 현지 교회를 섬기는 시니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비즈니스 선교하는 시니어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니어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을 위해 더욱 넉넉히 사용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인생 이모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기쁨으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굴레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10개월 동안의 훈련과 방송 출연을 마치고 나는 시니어 선교사가 되기를 서원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마침 캄보디아 학생 40여 명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요청이 왔고 나는 이에 응했다. 그동안 배웠던 오키리나 강습을 통해 그들의 정서 발달을 돕고, 한국어를 가르쳐 취업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구체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 훈련을 마치고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오후 5시 같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으로 불러주시어 순종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01

## 추석연합집회 'Build Up'

9월 26~28일, Acts29 비전빌리지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이 막 오른다. 온누리M미션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합집회에는 네팔, 러시아, 몽

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6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uild Up'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석연합집회에서는 4번의 예배와 국제문화축제, 팀 대화의 활동, 나라별 음식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아치트 전도사, 유세르게이 목사, 데벤드라 목사, 김창옥 전도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추석연합집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봉사자로 섬겨 줄 성도는 온누리M미션 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10-3337-3327

02

##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 막 오른다

27~29일 햇불선교센터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가 막 오른다. 9월 27~29일 햇불선교센터(양재 온누리교회)에서 'Vision, Mission, Response'를 주제로 열린다.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에서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

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 교회), 김하중 장로(전 통일부장관), 권혁빈 목사(온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이화한국무용단, 소프라노 김영미, 한중사랑문예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해 국내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행사다.

# 온누리 선교의 힘은 융합선교에서 나온다

##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1.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 2.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 4. 나는 선교사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 선교하고 있다. 2000선교 본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미션, NGO더멋진세상이 바로 그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은 열방 복음화를 목표로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융합선교라고 한다. 2000선교 본부는 전체적인 선교 정책을 정하고,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TIM은 선교사 파송, 후원, 지원, 관리를 담당한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선교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온누리미션은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멋진세상은 소외된 지구촌 이웃을 섬기는 국제개발기구다. 이들 5개 기관은 선교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교회와 5개 선교 기관들이 함께 빚어 낸 작품



융합선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로운 선교 트렌드다.



도육환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온누리교회 창립 30년은 곧 선교 3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누리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선교정보기도모임으로부터 시작된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는 28년이라는 시간을 온누리교회 선교와 함께 했다. 구심력(안으로 모이는 힘) 중심의 지역 교회가 원심력(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으로 움직이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 TIM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

회를 세우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1,176 명의 장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의 68%에 해당한다. TIM은 온누리교회 선교 주력 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선교적 융합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선교의 두 가지 구조. 모달리티는 1차적 헌신 집단을 의미하며 지역 교회가 대표적인 예다. 소달리티는 1차적 헌신 집단에서 다시 2차적인 헌신을 한 갈라진 집단을 말하는 데, 역사적으로 수도원이나 선교 단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TIM은 선교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대응과 선교체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에 충

실할 것을 결의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전략적 선교를 강화하고 전략 수행을 위한 팀(team) 사역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려고 한다. 선교사와 선교 사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및 케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온누리교회와 협력기관들의 다양한 자원들을 모으는 융합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별적 사역은 전략적 팀(Strategic Team)으로 재구성하도록 유도하고, 하나의 팀이 공통의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는 최소 단위의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각 팀들을 이끌어 나가는 코디네이터(Strategy Coordinator)를 세우고, 그 코디네이터들을 지역별 디렉터로 세워 현장에서 전략적 사

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략적 팀들은 '영공구원과 제자양육'을 통한 교회개혁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선교는 멈출 수 없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TIM은 안으로는 선교단체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수립을 하고 밖으로는 각양각색의 자원들과 함께 융합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 한다.

모든 것이 다 선교이면 선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교를 선교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TIM이 새로운 30년에도 요긴하고 합당하게 쓰임 받는 선교 도구가 되길 기도한다.

## '선교를 선교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황중연 목사(Acts29 비전빌리지)

##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음에 감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라는 목표로 1994년 '2000/1000' 비전이 선포됐다. 1995년 6월 '온누리선교사훈련학교(MIS)'가 시작됐고, 1996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비전빌리지가 문을 열었다. 2002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OVWC)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선교사 훈련프로그램이 생겨났다. 2002년 2월 평신도 선교학교(Why Missions), 8월 장기선교사 훈련학교(OSOM), 2003년 1월 단기선교사 훈련학교(ITP), 2010년 10월 장기선교사 재교육(4H)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0년에는 온누리선교의 허브로서, 다음 30년을 향해 가는 'Acts29 비전빌리지'가 탄생했다.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사 사관학교, 성도들에게 선교적 영성을 심어주는 사인물 열방예배, 안식년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역할은 분명하다. 첫째,

훈련이다. 선교사 훈련에서부터 은퇴 후 재입국까지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성도들의 영성 훈련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셋째, 전략연구소다. 온누리 선교 30년의 역사를 매뉴얼화하고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각 조직에 맞는 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넷째, 하용조목사 기념관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시작과 비전, 앞으로 30년을 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도전할 것이다.

최근 화두는 융합선교다. 모든 부서와 사역이 영향을 주고 협력할 때 효과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선교현장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누리교회 선교 유관기관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다. 융합선교를 통해 더 많은 선교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



노규석 목사(온누리미션)

## 이주민 선교를 통해 본 융합선교

온누리교회는 1988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고 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는 총체적 선교를 보여주는 융합선교의 좋은 모델이다. 1년 주기로 본 온누리미션 사역을 통해 온누리교회 융합선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작한 매년 가을에 진행되는 추석 이주민 연합집회(Harvest)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20여 개국 700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 2000선교 본부,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영아예배, 온누리교회 성가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한다. 매년 1~2월에는 TIM 소속 예비 선교사들이 2개월 동안 안산 M센터에 머물면서 전도방법을 배우고 교회개혁 운동(CPM) 훈련을 받는다. 이외에도 일대일사역본부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통해 말씀, 여성사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Starline' 다문화사역을, 전도본부는 안식년 노방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온누리미션에서도 해외 이웃 리처를 간다. 올해는 연합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은 외국인 형제자매들의 고향집을 방문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온누리미션 이웃리처 현장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장이다. TIM 소속 선교사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들을 양육하고 교회개혁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협력해 이루어낸 융합선교의 열매다.

온누리미션에서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TIM 소속 선교사로 재배송된다.

이 땅에 온 나그네들,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는 온누리미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온누리교회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 ‘화합, 소통, 어울림’ 삼박자가 척척!

## 선교로 하나 되고,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양지 온누리교회’



▲ 양지 온누리교회 체육대회에서 팀대항 게임을 한창이다.



▲ 차세대들이 풍선 옮기기 게임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태성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왁자지껄하다. 양지 온누리교회 체육대회가 한창이다. 청팀과 백팀으로 성도들이 맘을 뻗뻗 흘리며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차세대들은 찬양을 하고, 30~40대 젊은 부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나이 지긋한 노년층들은 이미 동심으로 돌아가 있었다.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인 말 그대로 연합의 장(場)이 펼쳐졌다. 역시 양지 온누리교회답다. 모든 세대가 하나로 연합된 교회, 그리스도의 자체들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언제나 행복이 머무는 교회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다.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 성도간의 격차,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 바로 선교였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있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다보니 장벽이 생길 수가 없을 수밖에.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양지 온누리교회를 찾아가는 길을 걸으면 가을과 동행한다. 빛나는 햇살,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꽃내음 한껏 맡아달라고 한껏 애교를 부리는 아쟁화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다. 이 좋은 가을 날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았다. 양지 온누리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연합이다. 이날도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였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따로 또 같은 교회다. 30~40대 젊은공동체, 차세대, 은퇴 세대를 위한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있다. 세대 간 장벽이 보이지 않는다.

이날은 체육대회와 동시에 하반기 개강예배도

드렸다.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양지 온누리교회를 하나로 묶는 열쇠는 바로 선교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만났고, 하나가 되었다. 같은 비전을 꿈꾸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선교를 지향한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아난 체육대회도 한 팀은 교회팀, 또 다른 한 팀은 선교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걸어온 길은 특별하다. 4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뱀벌교회와 양지 온누리교회가 만나 하나가 되었다. 30~4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의 중심축이다. 젊은 세대가 중심을 잡고 차세대와 노년세대가 조화를 이루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주민들은 양지 온누리교회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자녀들을 양지 온누리교회에 보내 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도유환 목사는 “양지 온누리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소개하면서 “세대 간의 화합과 조화, 어울림을 위한 연합의 장은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의미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체육대회가 한창인 실내 체육관에서 특별한 만남도 이어졌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만남이었다. 선교사들은 양지 온누리교회 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들은 홍콩, 중국, 일본 등지에서 선교하다 인색년을 보내려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었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은 어느새 하나가 되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연합하는 교회답게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 세계선교훈련원, 열방국 중보기도팀, 선교재단과 어려움이 탁월하다. 선교라는 같은 꿈을 꾸고,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연합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양지 온누리교회다.



칼럼 안태환 장로

## 양지 온누리교회의 세 가지 특성

양지 온누리교회는 여럿이 모여 하나된 교회다. 온누리교회, 뱀벌교회, 타지에서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나는 지역적, 교회적 성향이 달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곳에 고전했다. 자원에서 왔다. 지난해까지 양지 온누리교회를 섬기다 올해 초 양지 온누리교회 부근으로 이사를 왔다.

나는 양지 온누리교회를 성숙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특정한 말씀공동체로 세우는 것과 교회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역했다. 하반기에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도들의 영성을 깨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역의 필요성을 느꼈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간의 단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개최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자선장을 얻어 이웃교회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자선장 수여금은 중국 대련과 베트남 하노이 이웃교회에서 사용되었다. 다양한 사역과 행사를 통해 성도들이 능동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원교회이자 주일교회다. 이것은 교회와 집의 거리를 의미한다. 대부분 양지 온누리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차를 타고 이동한다.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주중에 모이기보다 주말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다. 전원교회이자 주일교회 성도들이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양지 온누리교회는 연합하는 교회다. 하나된 교회다. 연합의 장을 자주 만드는 이 유도 비로 그 것 때문이다.

둘째, 양지 온누리교회는 주변 환경이 탁월하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 넓은 주차장, 1층에는 카페, 하용조 목사 기념관 등이 있다. 온누리교회의 영적 산신과 같은 곳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교외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많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깊어진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손도막과 안대일 제지편편을 할 수 있다.

셋째,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곳은 5개 기관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 세계선교훈련원, 양지 온누리교회, 열방국 중보기도팀, 선교재단이 Acts29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양지 온누리교회에는 늘 선교사들이 출입하는 곳이다. 선교사들에게 생생한 선교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쉽다. 선교사들이 순에 직접 들어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 국내에 인색년을 보내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들을 초청해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증도 듣는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세 가지 특성을 잘 살려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벽을 허물고 성도들 간의 교제의 장을 넓혀 더 높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레비 목사와 가족 (온누리M미션)

# “Merry Christmas!”

9월부터 시작되는 필리핀의 성탄절

(천주교로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는 아직까진  
아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9일간 ‘심방  
가비(Simbang Gabi)’ 축제로 이어진다. 천주교에  
서는 복음주의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기일을 알리기 위해 새벽미사를 연다.  
사람들은 새벽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을 알린다. 9일 동안 새벽미사를 모두 드리는 사람  
에 한해 하나님이 기도를 이뤄준다고 믿는다. 하지  
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  
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새벽 3시에 미사를 시작한다.  
이것은 한국의 새벽예배와 매우 흡사하다. 미사를  
드리고 나면 교회 밖에서 파는 필리핀 전통 떡을  
산다. 이것을 ‘비빙카’라고 하는데 치즈와 계란 등  
을 얹은 빵이다.

‘푸토부봉’은 대나무 통에서 쪄낸 라섹 쌀빵을  
말하는데 이것은 카피, 실라캣(생강차), 트소코라  
이트(스페인식 핫초코)와 곁들여 먹는다.

필리핀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가족 행사다. 저녁  
7시부터 9시 즈음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미사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자정에 ‘노체부에나’를 기념한다.  
노체부에나는 ‘좋은 밤’이라는 단어다.

노체부에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매우 흡사  
하다. 저녁식사 시간에 많은 음식을 차려 온 가족  
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준다. 이 시  
간이 바로 필리핀 크리스마스 행사의 절정이다. 가  
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선물도 교환한다. 그뿐  
계 평안한 밤을 보내면서 12월 25일을 기억하고 맛  
이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좋아  
한다. 소나무가 없는 필리핀에서는 ‘파엘’이라는  
별모양 등을 구매해 장식한다.

크리스마스의 아침에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존  
경을 표하기도 한다. 이것을 ‘파그마마노’라고 하



▲ 필리핀 교유의 축제 ‘심방가비(Simbang Gabi)’



▲ 필리핀 전통 떡 ‘비빙카’



▲ ‘노체부에나’를 기념하는 필리핀 사람들.

는데 필리핀인들이 존경을 표할 때 하는 인사말이  
다. 파그마마노는 어르신들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마노포!”라고 말한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  
로 다가가는 방법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그날을 기념하

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중요  
한 날이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는 필리핀 사람들  
의 삶과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필리  
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01



CGNTV와 CCT가 태국 및 아세안지역 기독교텔레비전방송국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CGNTV, 태국기독교총회와 업무협약 체결

### 태국 및 아세안지역 기독교텔레비전방송국 설립 추진

CGNTV가 태국기독교총회(CC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태국 및 아세안지역 기독교텔레비전방송국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지난 9일 장충동 그랜드얌베서너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훈 목사, 유재건 장로를 비롯한 CGNTV 임직원들과 태위사 마하차와롯 목사(CCT 총회장), 롱 란싼아진 목사(CCT 부총회장), 꾸썸 산끼따판 장로, 쿤 분럿, 아 잔위앗 등 태국기독교총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CGNTV와 CCT 기관 소개,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이재훈 목사 설교, 태위사 마하차와롯 목사(CCT 총회장) 감사 순으로 진행됐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CGNTV가 겸손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태국 교계가 교류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아세안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 CCT는 태국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기독교 단체다. 규모가 천주교 다음으로 크다. 1934년 7개 노회 9,421명의 교인들이 싸이암기독교회를 조직했고, 1943년 CCT로 명칭을 변경했다. 19개 노회에 844개 교회 약 17만여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 5개의 신학교육기관, 2개의 대학교, 8개의 병원, 25개의 교육기관, 32개의 외국선교단체에 116명의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오이타 기·도·제·목

- 9월 14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일본 선교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 9월 15일(화) 일본 전역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도록
- 9월 16일(수) 오이타 교회들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빛을 발하도록
- 9월 17일(목) 오이타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서로 하나 되도록
- 9월 18일(금)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 9월 19일(토) 출연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사랑하는 마음 주시도록
- 9월 20일(일) 봉사자, 스태프들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2015년 9월 13일 1065호

- 01- CGNTV가 태국 기독교 총회와 업무협약 체결 (10면)
- 02-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14-20)(10면)

▪ JDS 아웃리치, 그 못 다한 이야기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 김상모 성도(수원 JDS)

“여보, 아무래도 이번 아웃리치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나기 열흘 전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이다. 아웃리치를 떠나야 할 날이 2주도 남지 않았는데 남기가 임박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거래처의 휴업으로 숨통이 트였다. 캄보디아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나는 JDS(예수제자학교)에 참가하기 전에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그런 내가 JDS 훈련을 받고,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 중 앙코르와트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선교사님께 들은 귀한 말씀과 회개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담대하게 그곳에 갔다. 앙코르와트 한 가운데서 모두 합심기도를 할 때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 수없이 많은 석상들을 향해 대적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손을 뻗으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내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예전에 친구였잖아? 삼천배를 드리고 아침저녁으로 예배하던 친구였잖아”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신자였다. 대학교 때는 불교 학생회에 가입해 활동했을 정도로 신실한 불교도였다. 그런 내가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나를 놓지 않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나는 무

엇인가에 심하게 놀리는 것을 느꼈다. 기도를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돌아서야 했다. 그 놀림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팀장님께 도움을 청했다.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 줬는데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팀원들에게 나의 상태를 호소했다. 그러자 팀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해주었다.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나서 드디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를 크게 외쳤다.

“내 모든 죄를 주께 회개하였으니, 내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탄아 물러갑시다!”

그 후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고백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이번 여름이 당신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네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아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새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장로칼럼 정운오 장로(사회선교 분과위원)

### 사회선교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

과거 복음주의 진영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어난 대표적 선교운동이 바로 로잔운동이다. 그동안 로잔대회는 3차(1차 1974년 로잔, 2차 1989년 마닐라, 3차 2010년 케이프타운)에 걸쳐 개최되었다. 복음주의 진영의 전통적 특징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전도를 교회의 사회적 참여나 책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1차 로잔대회 선언문은 교회의 사회참여를 언급하면서도 ‘전도의 우선성’을 훨씬 더 크게 부각시켰다.

그런데 2차 로잔대회를 거치면서 사회·정치적 참여를 통해 교회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섬길 책임이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존 스토틀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물질적 필요가 너무 커서 물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기쁨을 바르고 치료해주는 것이지, 그의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전도의 우선성’과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해 오랫동안 논쟁과 갈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도와 사회참여가 상호 감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이 2차 로잔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정의와 인권과 식량과 삶의 터전을 유린당한 자들을 향한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차 로잔대회의 정신은 3차대회에서 ‘총체적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케이프타운 선언문 10장을 보면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질서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대

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교는 복음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 참여를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략)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를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인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은누리교회도 작년년부터 이런 총체적 선교의 정신으로 사회선교를 시작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선교 사역의 성격이 2차 로잔대회 선언문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선교는 항상 성육신적이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은누리교회 성도들이여, 사회선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

첫째, 은누리교회가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경제적,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헌신하도록 기도하자. 그들이 처한 현실과 슬픔, 고통에 동참하는 성육신적 사회선교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건강한 생명운동이 일어나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최근 창조질서를 교란하는 동상애와 성매매 합법화 시도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꾀계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져 불법(不法)과 불의(不義)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자. 독재권력, 종족 간 갈등, 인신매매, 아동노예, 전쟁, 테러,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제도적 폭력들을 제거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해야 한다.



# 추석연합집회 ‘Build up’

26~28일 Acts29 비전빌리지 ... 이주민 650명 참가  
성인 봉사자 모집중 ... 임직대상자 봉사시간 부여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가 9월 앞으로 다가왔다. 행사 주최 측인 온누리미션은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들을 위한 또 한번의 천국잔치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5 추석연합집회는 ‘Build up’을 주제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네덜, 러시아, 태국, 아랍,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6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열방에서 모인 이주민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연합집회에서는 4번의 예배와 국제문화축제, 팀 대화 야외활동, 나라별 음식 페스티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치트 전도사

Life, 유세르게이 목사 Family, 데벤드라 목사 Country, 김창욱 전도사 Kingdom을 주제로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온누리미션에서는 이주민들을 섬겨 줄 봉사자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성인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약 150명의 봉사자가 필요하다. 추석연합집회 봉사자로 섬기

는 임직 대상자들에게는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한편 온누리미션에서는 매년 추석연합집회를 열어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거듭나도록 돕고 있다.

문의: 010-3337-3327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01

##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 개최

9월 27~29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축제가 막 오른다. '2015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9월 27~29일 햇불선교센터에서 열린다.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해 국내 교회와 자매결연 맺어주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명이나 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민족성을 깨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익숙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효과도 있다.

2015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서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김하중 장로(전 통일부장관), 권혁빈 목사(은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회비는 7만원.

02



### 오이타 기·도·제·목

- 9월 21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일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 9월 22일(화) 오이타 지역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9월 23일(수) 오이타 교회들이 십자가 능력을 깨닫도록
- 9월 24일(목) 교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도록
- 9월 25일(금)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 9월 26일(토) 세미나, 리더십포럼을 통해 일본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도록
- 9월 27일(일) 봉사자와 스태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 “NGO 더멋진세상은 최고의 파트너”

##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함께 사역한 파울로 선교사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의 활약이 대단하다.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학교 건축 사업, 식수개선 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본나바 마을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곳에서 먼저 사역하고 있던 브라질 선교사 파울로 덕분이다. NGO 더멋진세상과 파울로 선교사는 2012년에 처음 만났다. 그를 만났기 때문에 본나바 마을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울로 선교사도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5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파울로 선교사의 눈에 비친 NGO 더멋진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파울로 선교사는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 처음 갔던 일이 어찌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어느 날 본나바 마을 학교에서 사용할 벤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정성껏 벤치를 만들어 마을로 향했다. 찾아간 곳은 학교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다. 공간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벤치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무용지물이었다. 그 좁은 학교에 5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 학교를 보고 내가 아이들과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곳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보여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이들과 마을을 돕고 싶으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라고 하셨다. 그렇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본나바 마을 주민이 되었다.

### 종교지도자 우스타스의 꿈 이야기

본나바 마을은 기대와 달리 너무 달랐다.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 누구도 희망을 품고 있지 않았다. 과거의 모습대로 현재를 살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본나바 마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마을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파울로 선교사는 본나바에 떠날 때는 메시지를 들고 가족들과 함께 살 거주지를 마련했다. 그런데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의 반감이 심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지도자 ‘우스타스’였다. 파울로 선교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우스타스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라고 하셨다. 파울로 선교사의 아내 루시가 우스타스의 자녀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 그러자 우스타스가

마을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허락했다고 한다.

파울로 선교사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원수처럼 생각하더니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였다. 우스타스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대답했다. 그가 들려 준 꿈 내용은 놀라웠다.

‘우스타스가 큰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키가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마을로 걸어왔다. 그 사람들이 오자 아이들이 다가와 즐겁게 노는 것이었다. 또 말렸던 나무가 살아나고 꽃들이 활짝 피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 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자신도 행복해졌다고 한다.’

그 순간 잠에서 깬 우스타스의 마음속에 파울로 선교사가 떠올랐다. 신이 마을을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파울로 선교사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키 작은 사람은 누구냐고 우스타스에게 물었더니 나중에 찾아올 또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키 작은 사람이 NGO 더멋진세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스타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

NGO 더멋진세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울로 선교사와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은 그뿐만이 아니다. 언덕에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다. 아이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다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이번에는 수도시설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단체 같아요. 함께 세상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늘 더불어

사역한다. 파울로 선교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맙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은 개인 의견을 참고만 하지 수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NGO 더멋진세상은 달랐다. 파울로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소속은 달라도 본나바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이다.

본나바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다. 그때마다 NGO 더멋진세상이 큰 힘이 되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5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 브라질로 돌아간다. 본나바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걱정은 없다. NGO 더멋진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파울로 선교사는 최고의 파트너 NGO 더멋진세상에 어려움을 장애로 보지 말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기를 당부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처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금처럼 사랑해주는 좋겠습니다. 본나바 마을사람들은 NGO 더멋진세상을 보며 사랑과 평화를 느낍니다. 나는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이 본나바 마을에 끊임없이 사랑과 평화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파울로 선교사 가족. 왼쪽부터 파울로(Paulo) 선교사, 아들 미구엘(Miguel), 아내 루시(Luci).

하심을 느껴요. 마을사람들 모두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 NGO 더멋진세상이 있기 때문에

파울로 선교사는 본나바 마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마을에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울로 선교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움을 줄 누군기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움이 손길이 바로 NGO 더멋진세상이다. 둘은 만나마자 동역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NGO 더멋진세상의 진심에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파울로 선교사는 더멋진세상에게 길대로 만들어진 초가지붕의 케르발라 초등학교를 보여주었다. 길대로 만들어진 학교에는 별래가 많았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힘들 정도였다. 파울로 선교사와 NGO 더멋진세상은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도와줄 방법을 찾았다. 2년 후 멋진 학교가 건축되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이런 큰일은



#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 선교헌금, 중보기도, 홈스테이, 재능기부로 선교 후원

###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1.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 2.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 4. 나는 선교사입니다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이래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 72개국에 1,78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855명이다. 그들 뒤에는 2만 7천여 명의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 어떤 이는 선교헌금으로, 어떤 이는 중보기도로, 어떤 이는 고국에 온 선교사가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떤 이는 재능기부로, 또 어떤 이는 CGNTV 후원자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후원사역부

보내는 선교사의 선봉은 2000선교 본부 후원사역부가 맡고 있다. 지난해 1월 발족한 후원사역부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150여 명으로 구성된 선교사 후원모임이다. 후원사역부에서는 기도책자(온누리에서 온 편지)를 발간하고 있다. <온누리에서 온 편지>를 성도들에게 배포해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격월로 발간되는 <온누리에서 온 편지>에는 각 지역별(국내,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미주세아시아) 소식과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등이 담겨 있다. 읽을거리도 풍성하다. 선교지 기록, 교향곡과 문화, 선교 역사, 선교사의 편지와 기도제목, 선교단체 안내 등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선교사들의 근황도 알려준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전 10시 두란노서원 202호에서 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후원사역부 소속 최현주 집사는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책자(온누리에서 온 편지) 제작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후원사역부 070-4949-7882

### 중보기도회와 목요선교집회

두란노헤이리교회(TIM)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열고 있다. 중보기

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1호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 아문기독교교회 기도실에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황준서 목사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겠나"면서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자숙 집사(TIM기도회 팀장)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회 멤버인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했다.

복요선교집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그대로 선교와 선교사에, 선교와 선교에 의한,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예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 홈스테이와 CGNTV 후원

홍경신, 이대경 부부(일본어어배는)는 지난해 10월 방 3개월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굳이 넓은 집이 필요 없는 결혼 4년차 신혼부부다. 그런 데도 이 부부가 큰 집을 구한 이유는 고국에 온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선교를 가지 못하기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선교사님들이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



▲선교사에게 심사나마 편한 쉼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홍경신, 이대경 부부.  
▶2000선교 후원사역부에서 만드는 기도책자 <온누리에서 온 편지>

어요" 그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기 위해 방이 15개 있는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의 헌신이 눈부시다. 10월에 있을 선교대회에 참가하는 선교

사들 중 17가정이 홍경신, 이대경 부부처럼 홈스테이를 실시하는 성도들의 집을 이용할 예정이다. CGNTV 후원자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도 있다. CGNTV 정기후원자는 2만 4천명이다.



목회칼럼 강일명 목사(2000선교 본부)

## 선교는 보냄 받은 것이며, 보내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귀한 프로그램 중에 와이미션(Why Mission?)이 있다. 타교회에서도 요청할 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와이미션 수요 간증문을 읽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스훈에 받을 여흥은 순간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젊은 시절 헌신이나 서원한 성도들이 와이미션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시기와 부르심에 따라 국내에서 사역할 수도 해외에서 사역할 수도 있다. 전인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일터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 각자의 부르심과 헌신의 모양은 달라도 모두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와이미션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신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선언한다.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지가 교회 주보에 자랑스럽게 올라왔다. 선교사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도전되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보냄 받아 가는 선교사가 특별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보다보니 선교사의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적잖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이웃리치 같은 필요한 방문과 섬김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선교를 한때의 유행처럼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불꽃으로 여기

기도 한다. 선교를 가는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선교는 보냄 받은 것이며 보내는 것이다. 안디옥교회가 초대교회 첫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처럼 스스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선교다.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롬 10:13-15)라고 외쳤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 보냄 받은 선교사(누적 1,785명, 사역 중 855명)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2만 7천여의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또 각 공동체별, 지역별,

컨퍼런스별로 무용선교사들이 있다. 그들도 보내는 선교사들이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고, 복음이 필요한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통로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누구나 보내는 선교사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이다. 선교 30주년이기도 하다. 10월에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파송 받은 지 5년 이상 된 온누리교회 선교사 200여 명이 서울에 온다. 이제 그분들만 선교의 노고를 감당했다고 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해준 온누리교회 모든 보내는 선교사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교대회는 보냄 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를 위한 날이다. 이번 선교대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될 것이다. 보냄 받은 자와 보내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필리핀의 대가족 문화



레비 목사와 가족 (은누리M미션)

필리핀 문화에서는 가족을 매우 중시 한다. 이디나 그러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기본적 사회 구성원인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필리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부양을 위해서다. 그들은 타국에서 고된 노동과 향수병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가족문화도 한국과 비슷하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정의 기둥'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장과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어머니를 '가정의 빛'이라고 부른다.

#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어머니를 부드럽고 온화한 분이라 표현하고 아버지는 강하고 엄격한 분이라고 표현한다. 필리핀 가족들은 굉장히 친하다. 또한 필리핀에 사는 대가족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필리핀 부모들은 자녀들이 분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조부모와 부모 자녀들이 함께 산다. 필리핀 어르신들은 자녀와 손주들과 살기를 원한다. 그들은 가족이 함께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필리핀과 한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도 매우 비슷하다. 그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을 '포'와 '오포'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것은 한국의 존댓말과 흡사하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존댓말을 사용한다.

필리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손윗사람이 동생들에게 존경받기를 기대한다.

## 필리핀 사람들이 분가하지 않는 이유

"피그마마노"  
어르신들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말이다. 한국의 세배와 흡사하다. 그들은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마노, 포"라고 인사한다. 그러면서 어른의 손과 자신의 이마를 맞댄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신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사를 받아준다.

또한 필리핀 가족들은 다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축복을 의미한다. 필리핀 크리스천 가정들은 보통 잠들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대표기도를 하고 진행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상 분가를 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원해도 부모가 허락해줘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 후에도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분가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필리핀 사람들이 결



▲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를 담은 필리핀의 인사 '피그마마노'



▲ 필리핀에 계시는 조부모 생신때 모인 가족들.

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필리핀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 한터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 나정건 학생(한터공동체)

##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보였다

나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다. 나는 그 기억들이 떠오르려고 하면 피하게 된다. 그 기억들이 떠올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던 와중에 필리핀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찌는 더위가 나를 받았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도 진동했다. 필리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난해보였다. 북한이 떠올랐다. 건물이며, 사람들이며, 대중교통까지 내가 북한에서 살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웃리치 첫 날은 강의를 듣고, 현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보냈다. 필리핀을 탐방하면서 현지 아이들을 만났다.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무척 자유로워보였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그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우리를 마치 연예인을 보듯 맞이했다.

이튿날에는 소록유니 마을에 방문했다. 소록유니 마을은 필리핀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곳은 필리핀 최초로 일반인 마을 안에 개발된 한센인 정착촌이다. 우리를 인도한 선교사님은 필리핀 한센인들에게 삶의 의

욕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했다. 이곳에서는 한센인들에게 가정 당 주먹 한 채와 텃밭, 가축을 분양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소록유니 마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을 만나는 순간에는 가슴이 더 아팠다. '무엇을 먹고살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아우어 있었다.

한센병 후유증으로 생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으로 생긴 내면의 흉터도 선명했다. 그들은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보였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다.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우리는 진심어린 찬양을 선물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후 내 삶이 변화되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된 것 같았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해 준 한터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God Bless You.



#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4일 창립기념주일, 6~8일 부흥비전집회, 9일 Celebration, 울어라 한반도여

창립기념주일인 다음 주일(10월 4일)부터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가 막 오른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축제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4일은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이다. 이날 예배에서는 특집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CGNTV는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2000선교본부는 융합선

교안내부스를 설치한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저녁 7시30분에는 서빙고 본당에서 부흥비전집회가 열린다. 위험한 교회(6), 낮은 교회(수), 연합한 교회(목)를 주제로 이재훈 목사가 설교한다. 캠퍼스에는 예배 신청이 증가된다. 부흥비전집회 기간 동안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것이

좋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오는 서틀이 운영된다. 18시20분부터 19시50분, 21시20분에서 22시까지 이촌역 4번 출구에서 탑승하면 된다. 10월 9일에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의 메인행사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울어라 한반도여'가 열린다. 이 자리

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 주신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공동체별로 마련된 버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재훈 목사는 성도들에게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창립30주년 축제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6일 이 땅

에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창립했다.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2011년 8월 1일 하용조 목사 소천 이후 이재훈 목사가 비통을 이어받아 2기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10월 4일, 약정서 기입하는 방식

10월 4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이다.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인 다음 주일(10월 4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온누리와 함께 만든 10년의 감동, 온누리와 함께 만들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국내 10개 캠

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신규후원 또는 증액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와 모

바일앱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CGNTV는 캠퍼스마다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기존 드림통서금통을 수거하고 새 드림통을 나눠줄 예정이다. CGNTV는 2013년부터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정기후원 행사를 열고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796-2243



# “더 할수록 커지는 그 비전”

## 매년 CGNTV 후원금 늘리는 도성해, 안수영 성도

도성해, 안수영 성도(부천 온누리교회)에게 CGNTV만큼 각별한 게 없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줬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결혼 10년 차였던 부부는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참석하게 됐고, 기적처럼 부부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20년 간 출석하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나왔다. 당시 교회에선 40일 새벽기도회가 한창이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CGNTV를 만났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이 360도 달라졌다.

/ 김남원 부장 onx@onnuri.org



▲ CGNTV 정기후원자 도성해, 안수영 부부가 활짝 웃고 있다.

“40일 새벽기도회에 가고 싶었는데 교회가 없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어 방법을 찾다가 CGNTV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안방에서 CGNTV를 시청하면서 사람도, 삶도 변화되었어요. 하가훈을 통해 변화된 삶이 CGNTV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기 시작했지요.”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렸다. 남편도 은혜를 먹고 마셨다. 주시는 말씀도 남달랐다.

특히 남편 도성해 성도의 CGNTV 사람이 각별했다. CGNTV VOD를 1년 동안 거의 매일 시청했다. 그 시간이 어떤 때보다 기다려졌다. 강의 들으며 성경공부를 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다. 술, 담배도 모두 끊었다. 아내 안수영 성도는 병상에 머물면서 CGNTV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

2007년에는 동경 러브소나타에도 참석했다. 처음 미주한 선교현장에서 CGNTV를 통해 귀한 복음을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피부에 와 닿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CGNTV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하나님은 CGNTV를 통해 이 부부를 만지시는 것이 분명했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중심이 CGNTV가 있었다.

###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배달부

“CGNTV는 영혼의 샘물입니다. 갈급할 때 틀림 없이 향수 샘물이 솟아나오지요. 유익한 콘텐츠들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방송입니다.”

인문시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 도성해 성도는 CGNTV가 뉴미디어와 IT를 선교의 선한 도구로 훌륭하게 활용해 미디어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별새벽기도나 주요 집회 때마다 홈페이지에 특별페이지를 만들고 접속하기 쉽게

웹사이트를 준비하고, 특히 선도적으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어떤 도구로도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활발하게 접목시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CGNTV를 한 마디로 감동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국내의 최고의 설교자를 발굴해 설교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안방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했다.

CGNTV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이 부부는 무엇보다 함께 하고 싶었다. CGNTV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에 CGNTV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곧장 정기후원자가 되었다.

“남편도 안방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CGNTV가 너무 감사해서 후원을 결심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사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부가 받은 은혜를 전 세계 이웃들도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CGNTV가 지구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을 안다면 후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들은 CGNTV의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의

선교는 선교사를 통한 개별 전도 방식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미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때에 CGNTV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서도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배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도도 구하지요.”

### 오늘보다 내일 더

이 부부의 CGNTV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이 부부는 해마다 CGNTV 정기후원 금액을 늘리고 있다. 줄이거나 멈추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멈추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 더 CGNTV를 후원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이토록 CGNTV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녀가 많이 이었던 적이 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CGNTV 덕을 참 많이 봤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때 노트북만 열면 예배드릴 수 있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녀 곁에 CGNTV를 통해 오신 하나님이 계셨다.

“병상에 있으면서 남편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 덕분에 그 힘든 시간을 이겨

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제가 만나니 통로가 CGNTV예요. CGNTV는 손만 뻗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연결선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CGNTV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가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나누고 싶어요.”

### 10월 4일 CGNTV 정기후원 약정

남편 도성해 성도는 인문인으로서 CGNTV에 버리는 것이 많다.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CGNTV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가 약한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으니 잘 분별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CGNTV의 역할 같아요. 언제나 찾으면 기다리고 있어주는 CGNTV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CGNTV는 정기후원자들의 기도와 재정후원으로 운영된다. 세상에 없는 운영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CGNTV에 또 한 번의 기쁨 부으심이 필요하다. 10월 4일 우리 모두가 CGNTV 정

기후원자가 되자. 멈추지 않고 더 할수록 커지는 그 비전에 동참하자.





기획\_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 선교는 해외에서만

## 다문화국가의 효과적인 선교방법 ... 이주민에게 복음을 온누리M미션, 이주민 441명에게 세례주고, 선교사로 역파송

대한민국이 다문화국가로 변하고 있다. 해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이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은 184만 명, 귀화자는 14만 8천 명이나 된다. 이주민들의 또 다른 이름은 찾아오는 선교지다. 평생 예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교회가 그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낯선 땅에 온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전도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예수를 만난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효과적인 선교방법인지 모른다.

/ 김한준 기자 khj@onnuri.org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인구고령화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롱민 교수(옥스퍼드 대학)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한국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 불황이 야기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주민이 답이 되고 있다.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이라

고 했다. 다문화가정을 이룬 인구는 70만 명이나 된다.

### 대한민국 이주민 역사

조선 시대 공식적으로 집계된 기록에 따르면 422년 전에 이주민이 왔다. 1508년 임진왜란 당시 스페인 신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가 이주민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뒤로 1844년 포르투갈인 '멘데스'와 1871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가 표류하다 우리나라에 왔다. 벨테브레는 우리나라에 화포기술을 알리준 장본인이다. 그는 귀화해 조선 여자와 결혼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연'이다. 당시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고 도깨비나 귀신이라고 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천대하고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거부감이 사라졌다.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익숙해졌다.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백인을 선호하고, 동남아인과 흑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융화되지 못하면 문화적 대립이나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언어, 문화, 관습, 인종 등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갈등과 차별을 겪고 있다.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고용조사'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60%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OECD에서 발표한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도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1.5배로 OECD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다. 고국에서는 받지 못하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온다. 그들은 대부분 30업종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활사하고, 겸양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1963년 12월 21일 한국인 123명이 사독으로 떠났다. 돈을 많이 준다는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려 했다. 1977년까지 파독 광부는 7882명, 간호사는 1만 238명이나 된다. 당시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한국 직장인의 월급의 약 4배였다.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고학력자들도 광부가 되었다고 줄을 섰다.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였던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것은 그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삶은 눈물겨웠다. 좁고 더운 캄보에서 연탄 가루를 마시며 하루 종일 일했고, 간호사들은 당치가 심한 환자들의 피를 닦고 사신을 수습했다.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차별이었다. 우리가 겪은 아픈 역사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이주민 선교의 유익, 필요성, 당위성

온누리교회는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외롭고 힘들고 아픈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안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온누리M미션이 있다. 온누리M미션은 이주민을 섬기는 기관이다. M미션의 M은 이주민(Migrant)을 어머니(Mother)의 긍휼함(Mercy)으로 사랑하고, 선교(Mission)하여, 선교

사(Missionary)로 고국에 역파송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온누리M미션은 1993년부터 외국인 사역을 해 왔다. 각종 언어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18개 예배공동체에 약 7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역이 '스타트리 아카데미(Star Tree Academy)'다.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주민을 위한 금융사역도 풍성하다. 의료사역, 이민용사역, 상담사역, 쉼터 사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기관들이 방문해 섬기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안산 M센터에서 한글학교를 열고 있다. 이외에도 매주 안산역 노방전도, 성탄절과 설날에 진행되는 맞춤형도침회, 추석 이주민연합집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 집회에는 서빙고와 안산뿐만 아니라 김포, 의정부, 광명, 인천 등지에 있는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축제다. 73명의 이주민들과 봉사자 15명이 함께 추석을 보낸다. 평소 교회에 관심이 없던 이주민들도 추석연합 집회에 참석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이주민 441명이 세례를 받았다.

온누리M미션에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은 이주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 지난 8월 온누리M미션 캄보디아 아웃리치에서 고국으로 역파송된 이주민의 가족과 이웃



목회칼럼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 맞이하는, 함께하는, 준비하는, 보내는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84만 명이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마트와 지하철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해외 아웃리치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 평소에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곁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변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해외 아웃리치다. 온누리교회는 해외선교에 열정을 다하는 만

람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1993년부터 이주민 선교를 감당해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금융사역 위주로 사역을 실시하다 2005년 말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민 선교를 시작했다. 먼저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언어 예배공동체들을 세워가고 있다. 예배공동체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를 감당해오고 있다. 현재는 안산과 서빙고를 중심으로 18개 공동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70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약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그들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있다. 예배, 한글학교, 의료봉사, 다문화어동 교사, 전도 등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있다.

올해 새로운 온누리M센터 건축을 시작했다. 2016년 3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온누리M센터는 다양한 국가들의 예배공동체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지역사회의 다문화 자녀들을 섬기는 다문화교육 센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예정이다. 다음세대들을 국제적 리더로 키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있는 500여개의 이주민 교회들에게 이주민 선교의 노하우와 소프트웨어를 전수하는 '이주민 선교 베이스'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 경기북부지역과 경상남도의 이주민 교회들의 요청으로 우리의 노하우를 전해주었다. 앞으로 이주민 증가와 더불어 이주민 교회들의 지원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M

미션은 안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이주민 교회들을 지원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이주민 선교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외국인 한 사람이 선교사 10명 이상의 역할을 감당한다. 온누리M미션은 그동안 함께 사역하고, 훈련받은 20여 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본국으로 역파송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현지인 사역자의 숫자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온누리M센터는 역파송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사도행전의 안드레아교회와 같은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이주민선교를 감당하는 온누리M미션은 맞이하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준비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4년 추석연합 집회.

## 국가별 예배 안내

	언어	시간	장소		언어	시간	장소
서빙고 예배	네팔	오후 2:30	서빙고 선교관 402호	안산 예배	열방예배	오전 11:00	M센터 I 1층
	러시아	오후 2:30	서빙고 선교관 301호		캄보디아	오전 11:00	M센터 I 4층
	몽골	오후 2:30	서빙고 선교관 401호		몽골	오전 10:30	M센터 II 3층
	이라크	오후 2:00	본관B 102호/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몽골	오전 11:00	M센터 I 3층
	일본어	오후 2:20	서빙고 하동홀		필리핀	오후 3:30	M센터 I 4층
	영어	오후 4:00	서빙고 본당		태국	오후 2:30	M센터 II 3층
중국어	오후 1:20	서빙고 경산홀	네팔		오전 10:00	M센터 II 4층	
양재 예배	영어	오전 11:30	도곡교육관		러시아	오전 10:00	M센터 II 2층
	불어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스리랑카	오후 2:30	M센터 II 4층
수원 예배	인도네시아	오전 11:00	수원 은누리교회		방글라데시	오후 3:00	M센터 II 2층
인천 예배	몽골	오후 2:20	인천 은누리교회	베트남	오후 3:30	M센터 I 3층	
	몽골	오전 11:30	평택 은누리교회				
평택 예배	인도네시아	오전 11:00	평택 은누리교회				

72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이 자신의 간증을 담은 영상을 부모에게 보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기도 하고,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캄보디아 남부지방인 캄캄에서 한국에 온 섬일 형제는 지난해 은누리M센터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해 여름 은누리M센터 이웃

리처를 가서 가족들을 전도했다. 올해 초부터는 프놈펜에 있는 은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매주 2시간을 달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올해 8월에는 부천 은누리교회 이웃리처팀이 섬일 형제의 가정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기도 했다. 8월 말에는 은누리M센터 이웃리처팀이 그곳을 방문해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불과 2년 만에 복음을 한 번 더 살펴보지도 못했던 캄보디아 오지 마을의 주민 100여명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의 유익이요, 필요성이요, 당위성이다. 은누리M센터는 찾아오는 이주민들을 하나님 이 보낸 한 알의 밀알로 바라본다. 이주민들이 변

화되면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선교는 해외로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주민 간증

나는 힌두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독실한 힌두교인이다. 매일 아침 힌두교 신들을 숭배한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종교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네팔에 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교회에 가본 적은 없다. 내가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불교가 부처로부터 시작되었듯이 기독교는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정도였다. 예수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나는 네팔에서 친구들과 술을 자주 마시며 인

생을 낭비했다. 그나마 평소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웠다. 나는 2013년에 한국에 일하러 왔다. 그런데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심한 외로움을 느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 친구를 통해 내 고향 '타카푸르' 출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고향이 그러하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나의 사정을 들은 목사님이 은누리M센터 토요일예배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하셨다. 토요일예배에 처음 참석했을 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다. 공동체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무척 기뻐다. 바르트 목사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정기적으로 네팔M센터 모임에 나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 위주로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변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랑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아직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내 가족들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 기

도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은 독실한 힌두교인들이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시 보고 싶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M센터에 나오는 형제자매들과 한 가족이 된 것도 행복하다.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은누리M센터와 M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 레반타 라왈 형제(네팔)

##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나는 건축전문 선교사 박일구입니다”

특집 은누리 선교 30주년

지구촌에 교회, 학교, 병원 세우고, 재난 현장도 갑니다

- 1. 은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 2. 은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 4. 나는 선교사입니다



박일구 선교사가 르완다 어린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두피 피부병 치료약을 발라주고 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은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한번쯤 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은누리교회는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현재까지 72개국에 1,78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30년 동안 해마다 약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셈이다. 본지는 4주 동안 연재한 은누리 선교 30주년 특집의 마지막은 선교사 이야기로 장식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쉽지 않았다. 선교사들의 면면이 탁월하고, 누구하나 귀감이 되지 않는 선교사가 없어 인터뷰 할 선교사를 섭외하는데 애를 먹었다. 찾고 또 찾던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교사가 한명 있었다. 서빙고 은누리교회를 직접 지은 건축기술자 출신 선교사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박일구 선교사다. 그는 평신도 출신 선교사 1호격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23일 여기는 상도동에 위치한 TM하우스다. 두란노교회(선교회(TM) 파송 선교사들의 숙소다. 이곳에서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박일구 선교사를 만났다. 초로의 신사는 선한 웃음이 인상적이었다. 눈가에 자갈치글한 주름이 경거유을 더했다. 눈을 반짝이며 선교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흡사 소년이라 재미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처럼 개구지다.

그는 건축·전기 기술자로 전 세계를 누볐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다. 재난 현장에서도 복구 활동도 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받은 은혜가 참 많아 보였다.

### 돈이나, 예수님이나

박일구 선교사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6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배를 타려고 준비 중이었다.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려 했다고 꿈을 꿨다. 그런데 군대 미필자라는 낙인이 발목을 잡았다.

해병대를 다녀 온 그는 배를 타는 꿈을 접었다. 전기기술자로 건설회사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 당시 중등에 건설 붐이 한창이었다. 박일구 선교사도 중등에서 현을 일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안들리고 야했다. 왜 아픈지 이유를 모르니 더 답답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박일구 선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2%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아프니까 무시하던 교회를 제 밑으로 찾아가게 되더군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했죠.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

고 나니까 귀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가 다니던 회사가 은누리교회 건축 공사를 맡았다. 당시 은누리교회는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다. 회사에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공사이니만큼 크리스천 지원을 보내야 할 것 같더라. 그를 서빙고 은누리교회 건축공사 현장으로 보냈다. 그렇게 은누리교회를 자기 손으로 짓게 되었다.

“87년 3월이었어요. 그때는 가건물에서 예배드릴 때였는데 은누리교회 건축공사를 하면서 저도 은누리교회에 등록했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다. 공사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지치지 않았다. 컵·과를 부리며 일하는 모습을 하용조 목사가 보고 교회에서 일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근데 봉급이 제가 회사에서 받는 돈의 반밖에 안되더라고요. 돈을 잡을 것인가, 예수를 잡을 것인가를 두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붙잡았습시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너털웃음으로 그때를 회상하는 박 선교사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그는 건축 전문 선교사로서 세계 곳곳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웠다. 88년 아프리카 감비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스리랑카, 모잠비크, 중국, 몽골, 아이티, 르완다 등지에서 건축전문 선교사로서

사역했다. 그는 전기는 기본, 배관과 용접도 가능한 전천후 기술자였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선교지에 그야말로 인성맞춤 일꾼이었다. 각처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용병으로 활약했다.

“참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은 달라요. 나는 배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겠다는 꿈을 썼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로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게 해주셨어요.”

감비아에 청소년유스센터 세우려 갔을 때 박 선교사는 결혼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아내의 뱃속에는 3개월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아내가 출산하기 10일 전에야 한국에 돌아왔다. 많은 일을 끝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그에게 첫 선교지 감비아는 각별했다. 애착이 남달랐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 아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감비아를 나오면 서다짐하고 헌신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에게 감비아는 선교사로서의 고향이었다. 뿌리와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갖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그곳에 간 수 없었다. 아이가 크고, 선교사로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1987년 감비아로 가기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 감비아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현을 있어야 했고, 스리랑카에서 13년 동안 사역해야 했다.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틈틈이 그를 필요로 하는 중국, 몽골, 르완다, 아이티까지 날아갔다. 모잠비크에서는 2년 동안 은누리상업고등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학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모잠비크에서는 은누리상업고등학교를, 스리랑카에서는 은누리국제학교를 세웠다. 특히 스리랑카 현지인 목회자들의 자녀 11명을 데려와 무려 8년을 키웠다. 이른바 트리후 사역이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Spark for Jesus’라는 동아리를 3년 동안 운영했다.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었다. 르완다에서 보건소를 지을 때는 그곳 아이들의 티 없는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박 선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냐고는 인사를 주고, 겨 안이주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속씨지만 이발해주는 것 정도였지만 그래도 좋았다.

###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박 선교사의 선교 열정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10월 중에 감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다시 감비아에 간다. 그곳에 유치원을 세울 계획이다. 설레는 민남도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일구’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박 선교사가 감비아에서 사역할 때 친하게 지내던 현지인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박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짓고 싶다고 했다.

“감비아의 일구가 얼마나 멋진 청년이 되었는지어서 보고 싶어요.”

그는 선교사로서 보기 드물게 2013년 장로직임을 받았다. “장로님이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이 라고 부를까요?” 라고 묻자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선교사라고 불러 주세요.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홍지아 성도(치앙마이래빗) <치앙마이, 그녀를 만나줘> 저자

# “새 집은 타운하우스면 좋겠다”

시는 이콘도만 해도 월세는 150만원 보증금은 30만 원밖에 안 된다. 집을 부수지만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콘도인지라 전기세는 유닛(unit)당 200원 정도 한 달에 평균 1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됐다. 물세는 유닛당 750원, 유닛 평균 3500원 정도 됐다. 경비원도 있고 편리하지만 좁다는 게 문제다. 새 집은 타운하우스라면 좋겠다. 타운하우스는 똑같은 형태의 이상 층짜리 집이 수십 채 붙어 있는 형태다. 단독주택보다 월세가 잘 나오는 편이다.

잘 할 수 있겠지? 고작 1년 배운 태국어로 대화를 까 살기도 하다. 열심히 사전을 펴고 필요한 단어를 확인했다. 보증금은 '마짱' 월세는 '카드안' 계약은 '선야' 등을 읊조렸다.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얼른 기방을 쟁취 나갔다. 복표자는 남편이 다니는 학교 에이백대학(ABAC) 두번 타운하우스단지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서 돌보기를 들어낸 듯 햇볕이 나를 괴롭혔다. 콘도 앞 노점상에서는 양념한 닭다리를 숟불에 올려두고 절구에 그린피야채를 넣어 썬뽀를 뺀 중이다. 벌써 손님들이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

“배이 나야?” 어디 가냐고 묻는 인사다. “배이 두리(불일 있어서요)”라고 대답하고 닭다리 구이 앞에서 살짝 정신을 놓을 뻔했다. 먹고 가고 싶지만 더 더위지기 전에 물이라도 돌려보야 한다. 인사를 하고 콘도 뒤로 돌아 클럽(개천)길로 내려갔다. 지저분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어둑한 방 안에는 아이가 천 그네에 매달려 잠 들어 있다. 차마미다 화분과 새장들이 달려 있다. 아름다운 열대 꽃들과 새들 덕분에까. 초라한 색깔이지만 묘하게 평화롭다.

에이백대학으로 가는 쪽문을 지나가니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다 똑같은 구조에 대문들이지만 사는 아예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 1층은 보통 길쭉한 거실이고, 2층에는 방 두 개와 욕실이 있다. 부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월세를 준다는 표지판

앞에 가서 메모를 한 후 전화를 걸었다. 역시 월세가 우리 콘도보다 훨씬 비싸다. 이곳은 월35만원, 저긴 40만원 몇 군데는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쾌쾌한 냄새는 둘째 치고 집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다. 태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작은 사당을 만들어 집 마당에 세운다. 원래 그 땅에 살던 귀신들을 위한 새 집으로 세울 때도 승려를 부르고 아 참마다 음식과 꽃을 공양한다.

그때 한곳이 눈에 들어왔다. 길가코너에 있는 하얀 집이었다. 다른 집보다 신뜻해 보였다. 문 앞에는 마름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마음이 '니움(흥미롭다)'이라는 말과 비슷해서인지 그 나무가 있는 집

은 안기가 좋단다. 무엇보다 귀신 사당도 없다. 집 안도 쾌쾌아 보인다. 월세를 준다는 표지판 앞에서 웬지 이 집이 내가 찾던 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알로” 하는 목소리에 미소를 짓는다. <2편에 계속>

에? 아드님이 목사님?



바로 만난 김주인



▲일본어 예배부 가족들과 함께

## 일본어예배부 창립 25주년

### 10월 10일 선교포럼, 11일 감사예배

일본어예배부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됐다. 일본어예배부는 뜻깊은 날을 맞아 일본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10일 오전 10시 서빙고 은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일본선교 포럼이 개최된다. 일본선교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은누리교회 일본어예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해보고, 일본 선교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패널 토의가, 3부에서는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가 개최된다.

10월 11일 오후 2시 20분 서빙고 은누리교회 한동홀에서는 일본어예배부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일본어예배부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은누리교회는 교회 초창기부터 일본선교에 집중했다. 1985년 은누리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린 지 3개월 후인 1986년 1월 5일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했다. 그때부터 일본 선교의 기

발을 올렸다. 1988년에는 일본 어린이들을 초청해 토요학교를 시작한 일이 동부 이촌동 인근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연스럽게 일본인 어린이들도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일본어예배부는 1990년 10월 7일 출범했다. 현재 약 200여 명의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매주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오후 2시 20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01

## NGO 더멋진세상, 한국뉴욕주립대와 MOU 체결

###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 함께 펼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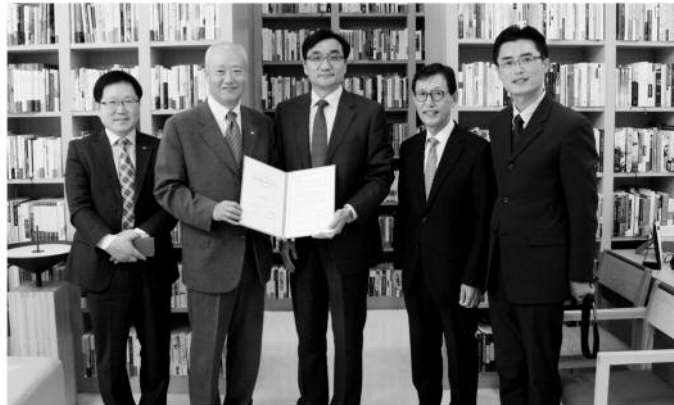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대표 이 재훈과 한국뉴욕주립대(총장 김춘호)가 MOU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사노고 마을에서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를 함께 펼치기로 한 것

지난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NGO 더멋진세상과 한국뉴욕주립대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는 농업, 교육, 농업, 보건, 비즈니스,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열악하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이에 한국뉴욕주립대는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전력공급으로 구상하고 한전과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NGO 더멋진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질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과 한국뉴욕주립대가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

02

## 'Why Mission?' 토요일 개강

### 10월 10일 개강, 7주 동안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와이미션) 토요일이 10월 10일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10분까지 진행된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선교, 구약과 신약 성경과 선교, 세계 선교 역사의 현황, 한국 선교의 역사, 타문화 이해, 온누리선교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6만 원이다. 'Why Mission?'은 지난해부터 입학자 필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644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03

## Love Sonata 오이타 기·도·제·목

- 9월 28일(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 9월 29일(화) 오이타 지역의 교파와 교단이 서로 협력해 하나 되도록
- 9월 30일(수) 성령에 의한 부흥과 예배의 갱신이 오이타 교회들에 일어나도록
- 10월 1일(목)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 10월 2일(금) 전도 대상자들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꼭 올 수 있도록
- 10월 3일(토)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더하도록
- 10월 4일(주일) 봉사자와 스태프들이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 오늘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약정서, 드림통(저금통), 홈페이지, 모바일웹으로 동참

오늘(4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이다.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실시된다.

CGNTV는 2013년부터 은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정기후원행사를 열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CGNTV 정기후원약정 행사에는 오늘 은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신규후원이나 증액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도 정기후원 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 드림통(저금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오늘 CGNTV 임직원들이 총출동한다. 국내 10개 캠퍼스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기존 드림통을 수거하고, 새 드림통을 나눠준다.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실시된다. 오늘자(10월4일) 은누리신문 16면 하단에 있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CGNTV에 바라는 점’을 적어서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선물을 준다(선착순).

한편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이한 CGNTV는 현재 170여 개국에 24시간 동안 복음방송을 하고 있다. 해외에 7개 지부가 있고, 12개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후원문의: 02-796-2243

/ 정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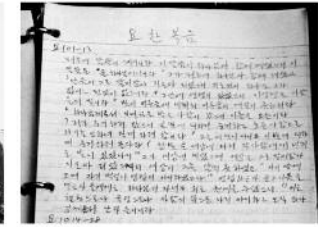
12가정



가건물 당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경공부노트

기획\_ 온누리행전 30년

# 사도행전적 바로 그

2015년 10월 4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이다. 온누리행전을 쓰기 시작한지 꼭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며 교회의 터를 다지고,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다섯 가지 뼈대를 세웠다. 2011년 8월 2일 하용조 목사 소천 이후 2기 온누리교회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지붕)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한다. 온누리행전 30년을 요약했다. / 편집자 주

### 성경·복음 중심의 교회

온누리교회는 12가정으로 시작했다. 12가정이 모인 소그룹 성경공부모임이 온누리교회의 태동이다. 12가정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내용을 요약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리포트를 썼다. 일주일에 책 3권을 읽고 독후감도 썼다. 이 성경공부 모임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2기, 3기 성경공부 모임이 만들어졌고 성경공부 모임 1기들이 공부를 도왔다. 12가정은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1년 동안 훈련받고, 기도로 준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성경공부는 계속되었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 새신자들이 매주 2배씩 늘어났다. 1985년 10월 27일부터 가건물로 옮겨 예배를 드렸다. 1987년 7월 19일 지금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임당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성경공부와 큐티에 중점을 뒀다. 하용조牧사는 온누리교회의 기본적인 양육 체계에 큐티를 반드시 포함시켰다.

큐티는 순예배, 일대일 제자양육 등 온누리교회 모든 양육의 중심이었다.

1988년 7월 25일에는 양재 햇분회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새신자반, 유초등부, 대학 청년부, 기도회, 큐티 세미나 등 각종 모임이 이어졌다. 2002년 3월부터는 온누리사역 축제 등의 큰 행사들이 양재에서 개최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부천 온누리교회가 문을 열었다.

2003년 3월 주일예배에서 하용조牧사는 'Acts 29' 비전을 선포했다. 온누리교회의 창립 정신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 28장까지밖에 없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는 당찬 비전이었다.

일대일도 빼놓을 수 없는 온누리교회의 핵심 양육체계다. 큐티와 일대일은 온누리교회 양육의 뼈대다. 일대일 하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하면 일대일이 떠오를 정도다. 198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주일성경공부에 큐티와 일대일이 포함됐다. 일대일은 새신자 양육 필수 과정이었다.

온누리교회는 전도집회의 새지평을 열었다. 창립 3주년인 1988년 10월 23-25일 가을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1989년 가을 전도대회에서는 300여 명이 결신했다. 1991년에는 12월에는 '성탄특별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절기에 맞춰 열린 첫 전도집회였다. 1997년부터는 전도집회에 새바람이 불었다. 같은해 1월부터 시작된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의 영향으로 전도대상자들을 연구하고 전도집회 대상을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그 첫 열매가 2001년 막 오른 맞춤전도집회다. 4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비상구'를 시작으로 열령병, 성별, 영적 필요에 따라 눈높이를 맞춘 전도집회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독교계는 온누리교회의 맞춤전도집회를 획기적인 전도방식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는 결신율이 평균 82%나 된다.

### 선교 중심의 교회

온누리교회는 떠나는 교회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한 하용조牧사는 신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떠날 것을 강조했다.

창립예배를 드린 지 2개월 만인 1985년 12월 김의정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했다. 1986년 1월 5일에는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으로

9월 21일에는 정민영 선교사를 파푸아뉴기니로, 김창환 선교사를 영국으로 파송했다. 해외선교뿐 아니라 국내선교에서도 힘을 모았다. 지금은 매립지가 된 사회공단에 있던 형도교회를 온누리교회가 창립하기도 전인 1985년 7월부터 섬겼다.

온누리교회에게 1994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 '2천/1만 비전'을 주신 해이기 때문이다. 당시 성도수가 6~7천 명이던 온누리교회가 이 비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비전에 순종했다. 누구나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 1996년 4월 선교부활주일에 하용조 목사가 '부활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2천/1만 비전'으로 초대하자 무려 918명의 성도가 선교사와 사역자로 헌신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는 72개국에 1,78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들 뒤에는 2만 7천여 명의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사역도 시작했다.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과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던 한 성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이남식 집사가 아프간 난민을 위해 써달라며 유지준 파키스탄 대사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이 신통한 일이 되었다. 이후 영어예배, 성인예배에서 500만원이 모아졌다. 그 귀한 헌금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농촌마을개발, 의료사역, 문화사역, 컴퓨터 교육, 학교 사역 등을 진행했다.

이라크 선교에도 앞장섰다. 김사무열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라크로 갈 것을 명령하셨다며 하용조 목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사무열 선교사는 이라크로 아웃리치를 다녀와 이라크의 기독교 현황과 신학교

건립, 외국교회들의 교회설립 시도를 보고했다. 김사무열 선교사는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계 목사들을 모아 교회성장 세미나를 인도했다. 2003년 10월 10일 이라크한인연합교회에서 꿈에 그리던 첫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라크 선교를 담당하던 김사무열 선교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할애한 편지를 받고 수순을 밟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일본 선교는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했다. 1986년 1월 5일 변재창 선교사를 파견한 것이 시작이었다. 1989년에는 일본 어린이들을 초청해 토요일학교를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교회에 관심을 가졌고 그해 10월 일본어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1994년에는 온누리교회 첫 장로 선교사인 조성록 선교사가 일본으로 파송됐다. 조성록 선교사는 그해 6월 12일 아치요 온누리교회의 전신인 오와타신텐 그리스도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 긍휼을 베푸는 교회

온누리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예수행기회가 시초다. 예수행기회는 7년여 동안 2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용산 효창공원에서 40여 만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공동체였다. 사건사고 현장에도 예수행기회가 있었다. 1996년 6월 30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에도 자원봉사자로 헌신했다. 예수행기회가 모태가 되어 1999년 8월 온누리복지재단이 탄생했다. 변동코이노니아,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양지 온누리요양센터, 청파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하며 청소년 및 장애인, 노인들을 섬기



삼풍백화점 참사 헌정



요양원 봉사



재난구호 헌정



온누리 워십

2015년 10월 4일 1068호

• (기획) 온누리행전 30주년 - 5대 실천적 목회철학으로 다져진 사도행전적 그 교회 1-1(4면)





Acts29 헌신예배



부모초청 전도집회



선교현장



해외아웃리치

# 교회의 꿈이 이루어진다

12가정으로 시작해 2기 온누리교회 서막이 오르기까지  
5가지 목회철학 기초로 '3달 5돏' 실천적 목회철학 제시

고 있다. 2010년에는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는 NGO 더 멋진세상(The Better World)이 출범했다. 아동보호사업, 긴급구호, 지역개발, 의료 및 교육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4년 1월 20일에는 사회선교본부가 신설됐다.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글래스리역을 행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사회선교본부는 참여와 실천, 의존보다 자립, 갈등과 분쟁 중재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통합, 방문지원, 나눔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온누리교회 표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가 선포되자 사회선교본부는 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역이 'Loving U' 캠페인이다. U는 Uncomfortable(불편함을 낮아짐의 시작)으로 보고 감수하는 것, Unfamiliar(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선 이들에게 다가갈 관계를 맺는 것), Unsafe(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4월 12일과 10월 4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 오는 '행복한 불편함'을 실시했다.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 반응이 호평일색이다. 교회의 자체적인 노력에 칭찬이 자자했다. 이외에도 '2015 리빙유 청년벤처대회',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1987년 7월 19일 서빙고 분당 위임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짝짝 놀랐다. 교회 안에 서점, 커피숍, 소극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하용조 목사는 복음이라는 배대 위에 문화라는 옷을 입었다. 당

시 다른 교회에서는 기타와 드럼을 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것이 후에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사역으로 발전했다. 1986년을 기점으로 온누리교회가 성도 1만 명 시대를 열면서 찬양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찬양팀이 생겨났다. 당시 교계에 평신도 찬양팀의 탄생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문서선교라는 지평도 열었다. 두란노서원이 선봉에 섰다. 하용조 목사는 기독교 잡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설득해 허가를 받아냈다. 그렇게 탄생한 잡지가 바로 <빛과소금>이다. 1985년 4월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첫 신을 보인 큐티책은 1987년 8월 26일 <생명의 삶>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매일 발간하고 있다. 그동안 두란노는 3,000여 종의 단행본을 출판했으며, 7종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집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었다. 그 집회는 일본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 집회는 바로 '러브소나타'다. 일본인을 위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일본에 한류열풍을 일으킨 '겨울연가(일본명: 겨울소나타)'를 모티브로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오사카 러브소나타는 일본의 황금연휴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세미나에 2,300여명, 문화전도집회에 4,8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복회자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며 감탄했다. 동경 러브소나타는 러브소나타의 정점을 찍었다. 2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동경 시아티마 슈퍼아레나를 가득 매웠다.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곳마다 그동안 연합하지 못했던 일본 교회들이 연합했고, 행사장은 집회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2007년 시작된 일본 러브소나타는 2015년 9

월 현재 총 22회 열렸다. 1,853개 교회가 협력했고, 59,923명의 일본인 참석했다. 2,757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한국인 참가자도 13,405명이나 됐다.

## 하용조 목사와 이재훈 목사

2011년 8월 2일, 하용조 목사가 소천했다. 향년 65세. 영적 지도자를 잃은 6만 여 성도들은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그를 애도했다. 각계각층에서 하용조 목사의 소천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8월 4일 서빙고 본당에서 전국환송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가 생전 가장 좋아하던 찬송 '내 영혼이 온종일이'가 흘러나왔다. 성도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하용조 목사는 7번의 간암 수술을 받고, 1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하는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했다. 그는 참된 복자, 참된 헌신자, 참된 설교자였다.

2011년 8월 9일부터 담임목사 청빙과정이 시작되었다. 80일 동안 진행됐다. 담임목사 청빙과정은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가진 기도모임과 장로들의 헌신으로 경쟁의 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온누리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2011년 10월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목사는 "귀한 직분을 맡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생명을 다해 헌신하신 하용조 담임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 '3달 5돏'이란?

2기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재훈 목사는 2014년 온누리 정책 포럼 행사에서 57지 목회철학을 기초로 한 길을 더 전진한 모습의 '3달 5돏'의 실천적 목회철학을 제시했다.

3개의 달은 온누리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전통 3가지다. 첫째는 '선교의 영성'이다. 온누리교회 선교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선교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 둘째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겸손과 존중'이다. 각자의 소리와 각 공동체와 캠퍼스들이 각자의 목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다.

5개의 돏은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해야 될 가치다. 첫째는 개별적 선교사 중심의 사역이 더 많은데 이제는 확실한 선교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둘째는 교회가 비전을 통해서 개혁을 한 캠퍼스가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 중심과 프로그램 중심, 성도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교회, 교단을 넘어서는 한국 교단과 차세대 선교다. 차세대 사역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선교로 바꿔야 한다. 넷째는 사회선교를 넘어서서 통일을 주도하는 교회다. 훗날 역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온누리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일터에서 세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러브소나타



하용조 기념관



하용조 목사 묘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예배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한중사립교회 210명의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 디아스포라의 민족성 깨우고, 선교사로 재파송

## 2,300명 참석 ... 선교적 가치와 역할 재조명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가 막 내렸다. 지난 27~29일 햇불선교센터(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고려인, 유럽권, 영미권, 중앙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 등지에서 온 한인 디아스포라 2,300명이 참석했다. 추석날 모이니 더 뜻 깊었다. 풍성한 한가위답게 열매도 풍성했다. 한인 디아스포라 442명이 동북아시아 지역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고, 고려인 200여 명도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민족성을 깨워주고,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축제 한마당이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기차는 떠나간다 보슬비를 헤치고~”  
1935년 만주 이민사를 다룬 박영호의 노래 ‘정환의 밤차’의 한 소절이다.  
정환의 밤차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해주는 아주 슬픈 노래다. 우리 아버지와 형을 싣고 간 한(俄)많은 기차를 원망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이별을 표현한 부르짖음이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기차길에 서서 기차를 향해 욕을 퍼붓고, 돌을 집어던지는 시골 농민과 아이들의 행동은 1935년 사회에 대한 반항을 의미한다. 기차는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한다. 기껏해야 기차를 보고 눈을 즐기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는 행위가 전부였지만 실랑민(失戀民)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뼈아픈 기억이다.

강제징용 가는 사람들을 싣은 기차를 향해 남은 가족들이 통곡했다. 양복 입은 면서기와 주재소의 순사들이 시골 처녀들을 서울로 팔고 젊은 청년들을 러시아, 연해주, 북만주, 일본 도쿄, 오사카로 팔았다. 그때 팔려간 사람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1세대다.

###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 1905년 불법이민 조

직재에 속아 멕시코로 떠난 예네켄 이민자, 일제강점기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 1937년 시베리아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사막에 버려진 고려인, 1963년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1만 8천명 등이다.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조선족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장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족 중에 30%가 중국에서 출생했고, 나머지는 조선에서 이주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1940~1945년)에 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조선족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1953년 112만 명이던 조선족이 2012년에는 183만 명으로 늘었다. 1980년 중국의 산업화로 조선족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1998년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조선족들의 한국행이 늘어났다. 2004년부터는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면서 현재 국내 거주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절대다수는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70만 명 정도다. 그 외 6만 명의 고려인들과 3만 명이 영미권에 속한다.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참석자 중에서도 60%가 중국동포였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령역할도 묵묵히 하고 있다.



남미 이민자들.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장철호 형제(65세, 한중사랑교회)는 중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사업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자를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세계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석했다”면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인족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겠다”고 밝혔다.

### 디아스포라 선교의 당위성과 유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인구대비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디아스포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175개국에 뿔어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중국에 257만 명, 미국에 200만 명, 일본에 89만 명, 유럽에 61만 명, 아시아 기타지역에 48만 명, 캐나다에 20만 명, 중남미에 11만 명, 중동에 2만 명, 아프리카에 1만 명

이 살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뿐만이 아니다. 영적인 이유도 적용된다. 모든 디아스포라들은 타국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낀다. 같은 동족과 있고 싶고, 모국어로 말하고 싶고, 고유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아스포라들은 교회를 좋아한다. 그들의 욕구를 알고 채워주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민자 2세인 하형목 목사(Tim Haas 회장, 김보리비전교회 담임)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는 한류시대의 요령이고, 사랑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도록 역할 있는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탈북 디아스포라는 복음통일의 주역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통일 한국시대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만 6천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많은 정보들이 북한사회에 유입되면서 한류문화가 형성되고, 기독교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은 체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탈북민들을 주축으로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남남갈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보수적 교회는 탈북민들을 앞세워 투쟁의 목소리를 내고, 진보적 교회는 대가없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대중을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 교회가 갈등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탈북민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탈북민 선교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 “CGNTV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 시간과 재능, 기도와 물질을 드려 섬기는 사람들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CGNTV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려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후원자의, 후원자에 의한, 후원자들의 비전과 꿈을 위한 방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연자가 후원자가 되고, 운영위원회와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방송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CGNTV를 위한 여성연합 중보 기도모임 '드림은 맘'은 지지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다. / 편집자주

가수 노사연과 탤런트 유호정은 CGNTV 열혈 시청자다. CGNTV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른다. 가수 노사연은 “보면 볼수록 힘을 공급받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CGNTV의 특별함”이라고 강조했다. 탤런트 유호정은 “CGNTV는 기도해주는 친구 같다”고 했다. 그녀는 CGNTV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CGNTV를 향한 그녀들의 특별한 사랑이 간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 CGNTV의 특별함



가수 노사연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지만 평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 기쁨이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 CGNTV를 보면 흥분이 된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보면 볼수록 흥전되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CGNTV의 특별함이다.

CGNTV를 보면 생명이 되살아나는 마음이 든다. 영혼의 샘물 같다. 또한 CGNTV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CGNTV를 통해 공급 받은 진리를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고,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누줘야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이다.

CGNTV는 정말 순수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원액 같다. 앞으로도 CGNTV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열반의 선교사들이 CGNTV를 보고 힘을 얻고, 예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좋겠다. CGNTV가 사명을 잃지 않도록 내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도울 것이다.

### CGNTV는 기도해주는 친구



탤런트 유호정

CGNTV 직원들이 선교사들을 위해 안테나를 설치하는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선교지에서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겼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국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정말 큰 위트가 되겠다. 나보다 내가 CGNTV를 후원하는 것이 선교사님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작거나 마우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는데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집에서 CGNTV를 틀어놓으면 남편과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도 행복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제든지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공급받을 수 있다.

활영이 있는 날이면 교화에 오기 힘들 때가 있는데 CGNTV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쉽게 만나지 못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안방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나는 CGNTV 존재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늘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CGNTV를 사랑한다. CGNTV는 기도해주는 친구 같다. CGNTV를 통해 들은 말씀 한 구절의 힘으로 한 주 한 달 일 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CGNTV를 통해 내가 누린 기쁨과 은혜는 혼자서만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CGNTV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다.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 CGNTV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으면 좋겠다.



2014 CGNTV 운영위원회 오버헤로 이웃리치, 안테나 설치 후 기뻐하고 있다.

### CGNTV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CGNTV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크고 작은 CGNTV 사역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현재 129명의 운영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간과 물질을 드려 CGNTV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분기별 모임을 갖고 CGNTV를 도울 방안을 찾고, 매년 1회 이상 이웃리치를 가서 선교지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방송사역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만방에 알리고 있다.

CGNTV의 해외 지사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9월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2015년 8월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 예배 때에도 참석해 격려했다.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는 “CGNTV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방송”이라며 “CGNTV가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CGNTV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후원자가 있다. 바로 중보기도모임이다. 2006년 류석인 권사가 환상을 보고 금요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2013년에 고영희 권사를 주축으로 월요중보기도모임이 생긴 후 양재, 수원, 남양주 캠퍼스로 확대돼 현재 5개 팀이 CGNTV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CGNTV 중보기도 모임을 매주 또는 격주로 모여 두 시간 가량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CGNTV를 위한 모든 중보기도모임이 모여 여성연합모임 '드림은 맘'을 결성했다. 앞으로는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

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양재 중보기도모임 문명옥 권사는 “나의 작은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했고, 수원 중보기도모임 조원기 권사는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질 때 CGNTV를 통해 땅 끝의 한 영혼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달라도 뭔가 다른 직원들

CGNTV 직원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그들은 땅 끝을 섬기는 방송선교사다. 세상적인 가치를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CGNTV에서 근무하고 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방송선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원들 대부분이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53명의 직원 중에 113명이 정기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의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

음향팀 최영심 팀장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자녀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최 팀장의 아내는 방송 모니터를 얼마나 꼼꼼히 해주는지 모른다. 커뮤니케이션팀 현아영 팀장은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족 후원을 하고 있다. 자녀의 이름으로도 후원하고 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양질의 교육이나 값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크로스미디어팀 홍수진 사원은 부모님이 먼저 CGNTV 후원을 희망하셨다. 그녀의 부모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를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청하고 자인들에게도 추천했다.



특집 대담 - CGNTV,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를 만나다



# “전 세계가 네트워킹 하는 ‘C’

CGNTV가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를 만났다. CGNTV의 향후 10년에 관한 제언을 들었다. 그의 신앙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와 이어령 교수가 마주 앉았다. 동시대를 산 그들은 CGNTV의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과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하용조 목사

이어령 교수는 '러브소나타 도쿄' (2007년) 집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장면은 CGN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다. 당시 이 장면은 세간의 엄청난 이목을 끌었다. 이어령 교수와 CGNTV의 인연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 교수는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CGNTV와 인터뷰를 했다. 하용조 목사는 지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그가 CGNTV 사역에 동참해주기를 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CGNTV도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움, 눈물, 그리움, 사그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가득했다.

### CGNTV, 영성의 전파였기에 가능했다

**유재건 장로:** CGNTV가 어느새 개국 10년이 됐습니다. 직원도 157명으로 늘어났고요. 현재 179개국에서 24시간 동안 CGNTV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특히 중남미 선교교육사역에 CGNTV 미주 지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CGNTV의 활약을 보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CGNTV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엄청납니다. 동포들이 복음방송인데도 일반 한국 방송보다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전 세계를 어우르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 CGNTV처럼 멀리 가는 방송이 없죠. 한 교회에서 시작된 방송사가 지구촌 곳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 받고 처음 인터뷰를 한 방송이 바로 CGNTV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저에게 CGNTV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없는 인이었어요. 지적인 접근과 영적인 접근은 분명 다르니까요. 언뜻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고, 대학교수도 했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 CGNTV 사역은 미션(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2007년 러브소나타 도쿄 집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자마자 2만여 명의 열

분인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빕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인들을 미워했다고 고백하셨죠.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깨닫았지요. 제가 방송출연이나 강연을 많이 하는데 지성이 전달될 수 있는 인원은 많아봐야 100여 명입니다.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의 영성은 도쿄를 가득 채운 2만여 명의 군중을 일순간 사로잡았습니다. CGNTV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CGNTV는 관아에 울리는 영성의 방송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일개 교회가 만든 사실 방송이 전 세계 곳곳까지 퍼진 것은 영성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를 울릴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지적인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성 전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회에 개설 때보다 소리가 더 멀리 가죠?

**유재건 장로:** 더 멀리 가고, 마음에 평화와 보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교수, 국회의원,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8개 사무실에서 일했지요. CGNTV 대표이사 사무실은 제가 그동안 일한 사무실 중에서 가장 좁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장 편안해요. 말년에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 제 딸이 유 장로님과 친분이 있다고 했을 때 범조인이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 장로님이 CGNTV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 딸이 왜 유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로서 개인을 변호하시고, 정계에서 집단을 대변하시고, 이제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네요. 미션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CGNTV가 변성할 줄 알았습니다. 개국 10주년이라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 세례, 그리고 크리스천의 길

**유재건 장로:** 교수님이 세례를 받은 일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어령 교수:** 제가 세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하와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맹세 때문이었죠. 제 딸의 눈만 믿지 않



유재건 장로

“감사한 10년, 전 세계를 아우르는 또 다른 1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는다면 모든 걸 예수님께 비쳐줬다고 했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망막이 벗겨진 흔적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겁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거든요.

세례를 받은 것은 그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복적인 성향이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 통하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자리를 뜨셨지요. 복음의 그런 면모들이 늘 신기했고, 제 마음에 걸렸 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유독 음이 떠들었습니

다. 나는 약한 사람이라 불행을 참지 못합니다. 시험에 자신이 없어요.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나마 버려야 할 것이라도 했어요.

### “우리 딸 절대 바보 아니다”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오히려 음 같았어요. 더 불행하게 되었죠. 판을 잃고 외손자를 보내고, 하용조 목사님까지 떠나보냈으니까요. 일생 병원 한번 가지 않았던 제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제 몸과 마음에 있는 의신과 허영을 치시는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크리스천의 길이 무척 외롭다고 느껴지기도 했죠.



# 다운받고, CSNS' 되기를”

(Christian+SNS)

와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를 회고했다. 이어령 교수는 여전했다. 무엇보다 영의 세계에 대해 겸손하고, 진솔했다. 시대의 석학이며 문필가다운 감수성과 통찰력도 보여주었다. 그들의 대화를 정리했다.

/ 편집자주



이어령 교수

“앞으로 10년 부지런히 성장하고 발전하시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유재건 장로:** 최근 <딸에게 보내는 곳나잇 키스>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파넌인 이민아 목사가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딸 바보셨잖아요. <땅 끝의 아이들>을 품고 가는 딸을 보고 어땠었나요?

**이어령 교수:** 부모로서 속상하죠. 바보 같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좋은 대학을 갈만했지만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교를 택했죠. 미국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변호사로 스카우트 됐는데 싫다며 1년 연봉이 변호사 초봉만도 못한 검사로 직장을 옮겼어요. 암 투병 중에도 전화를 걸면 늘 집에 없었어요.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봉사하러 다녔지요. 부모로서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하겠

어요. 그 아이 때문에 불평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해왔죠.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딸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래서 '네가 옳다', '네가 맞다' 하는 마음을 담은 책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곳나잇 키스>입니다. 책 말미에 '우리 딸 절대 바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는 같다고 했어요. 연락도 없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 나 인천공항인데 테러러 주주세요" 하면 내가 나오지 않느냐면서요. 아버지는 조건이 없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믿는다고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같은 거라고 했죠. 한 시간간 소녀가 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바로 사랑

한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바로 "나도!"하고 답편이 왔대요. 아버지가 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딸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는 시험 치는 것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시험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탁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더군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험 못 치면 아빠가 나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열심히 했던 거지"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남아요.

<딸에게 보내는 곳나잇 키스> 종제가 쓴 시에 '내가 큰 집을 지어주었지만 난 그걸 버렸다. 네가 원하는 집은 햇살에 신발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집...'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그 아이가 자기집에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딸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 CGNTV가 나아가야 할 길

**유재건 장로:** CGNTV가 벌써 개국 10주년이 됐습니다. 179개국에서 24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아부다비, 인도네시아, 홍콩에 지사가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현지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참 꿈같은 10년이 흘렀는데요. CGNTV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효과 있게 나아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령 교수:** 미디어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접근해서 접속하고, 서로 네트워크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날로그적으로 하셨지요. 세속적으로는 SN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성경에 가장 접속하기 편한 재미 있고,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변화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운반되고, 서로 네트워크하는 'CSNS'가 되기를 바랍니다. SNS에 Christian의 C를 붙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로 이어져 도록 이끄는 미디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아쉬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신앙은 온전히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믿거나 해야지,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은 크리스천을 욕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CGNTV는 앞으로 10년 부지런히 성장하고 발전하시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저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와 대화를 하건 오늘 제가 잡담처럼 말한 게 현실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10년 뒤 햇을 열매를 베쳐 보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유재건 장로:** 오늘 축복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도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웃음). CGNTV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CGNTV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CGNTV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CGNTV 10년 발자취>

- 2005년 3월 CGNTV 개국
- 2005년 8월 미주CGNTV 개국
- 2006년 9월 미주CGNTV 스페인어방송 시작
- 2006년 10월 일본CGNTV 개국
- 2007년 9월 정기후원 런칭
- 2007년 10월 IS-10 위성방송 송출 실시
- 2008년 6월 중문CGNTV 개국
- 2008년 8월 CJ헬로비전 케이블 채널 런칭
- 2008년 10월 IPTV 서비스 시작
- 2009년 11월 태국 케이블(HTV) 방송 시작
- 2010년 3월 제작스튜디오 HD 전환
- 2010년 11월 태국 제작센터 오픈
- 2011년 5월 개국 6주년 기념 콘서트
- 2011년 11월 일본지사 47개현 교회 네트워크 구축
- 2012년 3월 아부다비 제작센터 오픈
- 2012년 6월 CJ헬로비전 케이블 채널 런칭
- 2012년 11월 다큐 '스미일 리크로스' 환태평양영화제 베스트미션 필름상 수상
- 2012년 12월 유재건 대표이사 취임
- 2013년 3월 개국 8주년 기념 선교헌신예배
- 2014년 7월 제1기 방송선교사 파견
- 2014년 9월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 2015년 9월 태국기독교총회와 MOU체결



0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 “오! 나의 태국어”



홍지아 성도(치앙마이래빗) <치앙마이, 그녀를 안아줘> 저자

우리는 토요일에 결혼해서 월요일에 방콕으로 날아온 25살 동갑내기 부부다. 남편은 오자마자 방콕의 국제대학인 에이배대학으로 편입했지만, 난 좀더 작장, 가족, 친구, 언어를 알아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절로 나는 처지가 됐다.

첫 달 내내 정신 나간 여자처럼 굴자 남편이 당장 태국어 학원을 알아봐주었다. 혹독하게 가르치기로 유명한 ULS(Union Language School)란 어학원이었다. 아침 7시50분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하고 지각하면 아잔이(원장)의 잔소리를 견뎌야한다. 하루 4시간, 주5일, 6개월 동안 태국어를 마스터하라는 마신이 떨어졌다. 발이 지구에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으므로 나는 필사적으로 언어에 매달렸다.

어섯 단계로 진행되는 태국어교육과정은 체계적이었다. 첫 두 달은 글자를 배우지 않고 음성기호를 보고 읽고 듣는 데만 집중한다.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한 문장 정도를 마스터 하는데, 정말 두 달이면 가벼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된다. 태국어는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다. 다섯 개의 성조를 잘 인식해야하는데, 음치인 경우 정말 힘들다. 문장 구조는 영어, 중국어와 비슷한데, 가장 좋은 건 동사변화가 없다는 거다. 동사의 과거형, 미래형 따위는 없다. 부사로 충분하다. 게다가 단어가 무척 쉽고 간단하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쉬운 언어라고 회화낙락하는데 3단계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도대체 왜 자음이 44개, 모음이 32개나 된단 말인가! 게다가 성조는 왜 이리 복잡하게 달라진단 말인가! 웬 복음과 생략은 이리도 많은 말인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태국어를 만들었다는 랍감행왕에게 세종대왕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다.

하나 이미 시작했으니 어찌겠는가. 몰면서 열심히 외우고, 반아쓰기 시도도 치고, 제발 이 고비만 넘기기 바랐다. 5단계에 들어서고 나서야 간판과 과자봉지를 읽게 되고, 6단계에 들어서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반세! 드디어 문맹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 부부를 잘 아시던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학원 옆 빌딩크리스천병원에서 한국인 통역사를 구하고 있으니 한번 인터뷰를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 원장님을 만났다. 결과는 놀랍게도 합격이었다.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됐다. 겨우 6개월 태국어 공부한 걸 가지고 중요한 병명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혹시나 통역을 잘못해서 환자에게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방문을 설치며 고민하자 남편은 다시 해결책을 내놓았다. 병원 언어만 따로 공부할 과외선생님을 구하자 는 거였다. 이웃에 사는 선교사님에게 부탁하니, 태국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주었다. ‘임’이



라는 자매였다. 그녀는 교회 청년부 리더로 신실하고 활발한 아가씨였다. 게다가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는지, 실명이 알아듣기 쉬웠다. 우린 금방 친구가 됐다. 임의 도움으로 병원 통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태국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태국인의 대부분은 불교신자로 국왕은 살아있는 부처로 여긴다. 몇 십년 전만해도 사찰은 학교이자 병원이었고 마을회관이었다. 현대 태국의 불교는 불교 본연과도 좀 거리가 있다. 대중의 신앙은 토속신앙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태국인은 만물에 귀신이 있다 믿으며, 귀신을 가장 두려워한다. 부처는 그 귀신을 내쫓는 영험한 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아 보인다. 또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배금주의와 개인주의가 태국인의 삶을 더없이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다.

임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든든히 뿌리를 내린 크리스천이었다. 몇 개월 후 그녀가 자신처럼 믿고 신실한 형제를 만나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 후에도 둘 사이에서 아들 셋이 줄줄이 태어나고 사역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다시 몇 년 후, 놀랍게도 임 부부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녀와 남편인 마눔 목사님은 지금 안산에서 태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꾸리며, 온누리교회와 협력하고 있다. 임 또한 한국어가 어렵다며 아주 열심히 공부 중이다. 한국어는 자음 모음 수야 적지만, 동사변화가 아주 끝내준다.

02



목회칼럼 **렘문홍 목사(중국어예배)**

## 중국인 유학생들을 잡아라!



7만 5천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매년 추석과 설날에 허기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정처 없이徘徊한다. 병든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

일한 피난처는 교회다. 2년 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누리교회를 찾은 한 중국인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은 귀한 청년이다.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부는 170여 명의 중국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그들에게 교회는 고향과 같은 존재다. 매년 늘어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 안에 심어줘야 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의 대학입시 체계 때문이다. 중국의 대학입시 열기도 한국 못지 않다.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해외유학이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유학을 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5-6년 전만 해도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으려고 유학을 왔지만 지금은 어릴 때 해외로 유학을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그래서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지역적 관점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10-40창(Ten Forty Window)’이라는 용어를 썼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북위 10-40도에 거주하는데, 이 지역은 러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을 의미한다. 집중선교 대상지역을 말한다.

최근 이 용어가 ‘4-14창(Four Fourteen Window)’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4세~14세까지의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선교가 지역적인 관점에서 연령적인 관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4-14세 사이는 예수를 믿는 황금기다. 중국의 사회주의에서는 그 황금기에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시기는 대학생 시기다. 매년 5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복음의 통로다. 부모를

떠나 방황하고, 외로운 시기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만큼 좋은 열매가 없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7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된다. 놀라운 복음의 효과다.

중국 교회와 중국 사회의 변화에 바라보면서 선교해야 한다. 온전한 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잘 양육시키면 중국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중국 사회와 직장, 가정을 변화시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래는 20-30년 후이다. 그들의 잠재력이라면 중국 복음화는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응원과 기도다. 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금전에도 두세 가정의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이다.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한다.

2015년 10월 4일 1068호

- 0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태국어 정복하기 : 홍지아 성도(10면)
- 02- <목회칼럼> 중국인 유학생들을 잡아라! : 렘문홍 목사(중국어예배)(10면)

01

##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행사

### 10일 일본선교포럼, 11일 감사예배

은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가 10월 7일 25주년을 맞이한다. 일본어예배부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0일 일본선교포럼을 개최하고 11일에는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10월 10일 열리는 일본선교포럼

은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일본어예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고, 일본선교 전략, 러브소나타 중장기 전략, 일본 비전교회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11일 오후 2시 20분 서빙고 한동홀

에서는 일본어예배부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일본어예배부의 향후 25년 비전을 선포하고, 간증을 나눌 예정이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는 “새로운 일본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와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



2015년 차이스타 컨퍼런스.

### 중국어예배부, '차이스타 컨퍼런스' 참석

은누리교회 중국어예배부 소속 성도 110명이 지난 26~29일 재한중국인 유학생 전도집회 '2015 차이스타(Chinese Students All nations)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국 KOSTA(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전도집회다.

중국어예배부 소속 계열 자매는 “은누리교회 한국어교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2년 동안 차이스타 컨퍼런스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KOSTA는 CHISTA 집회 외에도 MOSTA(몽골), JAISTA(일본) 집회도 열고 있다.

/ 김미림 기자

03



- 10월 5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 10월 6일(화) 일본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 10월 7일(수) 오이타 교회들이 강하고 담대해 지도록
- 10월 8일(목) 러브소나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 10월 9일(금) 실행위원 목사들에게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부여되도록
- 10월 10일(토) 이재훈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충만하기를
- 10월 11일(주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넘치도록

2015년 10월 4일 1068호

• 01- 일본어예배 :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일본선교포럼' 개최(11면)  
 • 02- 중국어예배 : 재한중국인 유학생 전도집회 '2015 차이스타 컨퍼런스' 참석(11면), • 03-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5-11)(11면)





기고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일본어예배 담당목사)

## 일본의 추석 '오봉(お盆)

일본에도 추석이 있다. '오봉(お盆)'이다. 음력 7월 15일에 조상을 모시는 일본인들의 명절이다. 일본 사람들은 오봉에 선조들의 영이 저 세상에서 현세에 돌아와 잠시 머물다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여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8월 13일~16일까지 4일 동안의 식을 행한다.

오봉의 정식명칭은 우라봉에(盂蘭盆會, うらぼんえ)다. 우란분경(불경의 하나)에 나오는 효도에 관한 일화가 오봉의 유래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신통력이 가장 세다고 알려진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어느 날 죽은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지를 스승인 석가모니에게 물었다. 석가모니는 “네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네 어머니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련존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여름 수행기간인 7월 15일에 많은 승려들에게 먹을 것을 바쳐 공양했다. 그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가 극락왕생했다고 하는 얘기다. 그 이후 음력 7월 15일은 부모나 조상의 보은에 감사하고, 공양을 드리는 중요한 날이 되었다. 각지에서 열리는 오봉 행사는 각지의 풍습이 더해져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상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다.

오봉이 시작되는 13일에는 무카에봉(盂盆)이라고 해서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는 의식을 한다. 이때 조상들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무카에비(盂盆火)라는 마중하는 불을 피우고, 집에 제단인 '본다나

(盆棚)를 마련한다. 이 제단에 음식과 함께 가지로 만든 소나 오이로 만든 말이 있다. 조상의 영이 소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온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상이 온다는 13일 밤에는 보리사(조상의 위패를 모신 절)에 참배하러 가거나 성묘를 간다. 한국인들이 고향을 방문해 성묘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16일은 오쿠리봉(送り盆)이라고 해서 조상의 영혼이 돌아가는 날이다. 오쿠리비(送り火)라는 배웅하는 불을 피운다. 고인이 죽은 지 49일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오봉)을 '니봉'이라고 한다. 아라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때는 보통의 추석보다 더 정성들여 준비하고 공양한다. 이처럼 일본의 추석은 조상의 영과 함께 보내는 기간이다. 최근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져가고 있다. 추석축제 오봉마츠리(お盆祭り)를 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봉오도리(盆踊り)라는 춤을 춘다. 이 또한 정령을 위로하고 다시 보내기 위해 행해지는 풍습이다.

일본에서는 오봉과 연결된 칠석축제가 있다. 조상에게 빈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단자쿠(短冊)라는 대나무 조릿대에 소원을 쓴 종이를 매다는 풍습이 있다. 일본의 어느 교회에서는 칠석날 이 대나무 조릿대에 예수님께 빈 기도제목을 매달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인에게는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참 영이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01

## CGNTV 정기후원자 2만 6천명 돌파

### 정기후원행사 4,100여 명 약정서 제출

CGNTV 정기후원자가 2만 6천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실시된 '2015 CGNTV 정기후원행사'에서 4,100여 명이 CGNTV 약정서를 제출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온누리와 함께 만든 10년의 감동, 온누리와 함께 만들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신규 후원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증액 후원은 지난해 대비 1.5배나 증가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열정과 CGNTV 임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맺은 열매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방송, 생명을 구하는 방송으로 발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도들이 약정한 CGNTV 후원금은 연간 6천 여 편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170여 개국 방송을 위한 위성 빔 사용 지원제작비 등으로 사용된다. 정기후원 행사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도 CGNTV 후원자가 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 후원코너를 클릭하면 정기후원이나 일시 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

후원문의: 02-796-2243

02

## 〈온누리행전 30년〉 발간

###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제공

온누리교회 3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책 〈온누리행전 30년〉이 발간되었다.

교회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온누리행전 30년〉에는 온누리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담겨있다. 교회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누리교회가 품었던 비전, 사역, 성도들 이야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온누리행전 30년〉은 온라인상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누리행전 30년' 배너를 클릭하면 PDF 파일을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QR 코드를 이용하면 영상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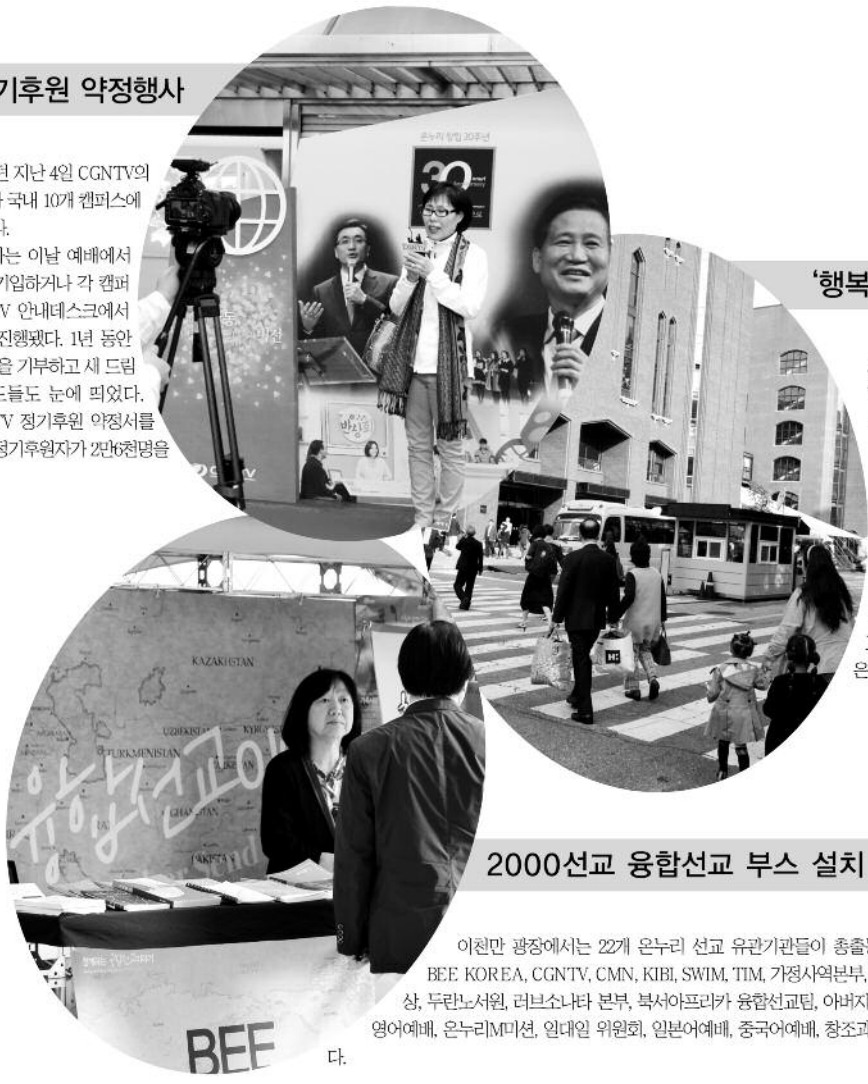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역시 온누리교회가 하면 뭔가 달랐다. 정말 특별한 축제 한미당이였다. 화려한 세리머니가 있어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다. 유명 인사들의 축하메시지가 쏟아져서 특별했던 것도 아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가 특별했던 이유는 온누리교회만의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회 창립 30주년 생일날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열었고, 지역주민들을 더 배려하기 위해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였다. 또 부흥비전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는 통일과 북한을 위해 부르짖었다. 그 아름다웠던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 편집자 주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창립기념주일이었던 지난 4일 CGNTV의 정기후원약정 행사가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이날 예배에서 나누주는 약정서에 가입하거나 각 캠퍼스에 설치된 CGNTV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년 동안 모은 드림통(저금통)을 기부하고 새 드림통을 받아가는 성도들도 눈에 띄었다. 4,100여 명이 CGNTV 정기후원 약정서를 제출했다. CGNTV 정기후원자가 2만6천명을 돌파했다.



##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사회선교부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였다.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운동을 말한다. 이날도 많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졌다. 주말이면 혼잡하던 교회 앞 도로가 속 시원하게 뚫렸다. 정체가 없고, 불법 주차도 없었다. 교회는 성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택시 승강장도 마련했다.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복한 캠페인에 동참한 성도들은 평소에도 실천해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 2000선교 융합선교 부스 설치

이전만 광장에서는 22개 온누리 선교 유관기관들이 총출동했다. Acts29 비전밀리지, BEE KOREA, CGNTV, CMN, KIBI, SWIM, TIM, 가정사역본부, 대학청년부, NGO 더넷진세상, 두란노서원, 러브스노나다 본부, 북서아프리카 융합선교팀, 아버지학교, 에zell선교회, 여성사역, 영어예배, 온누리M미션, 인대일 위원회,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창조과학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 ■ 현장인터뷰



**“나는 선교지에서 바보행전을 쓰겠습니다”**

/ 신동민 성도(OSOM 25기 훈련생)

‘예수바보행전’이라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주신 새 비전을 듣는 순간 나도 선교지에서 바보행전을 써내려가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한지 30주년이 됐는데도 안주하지 않고 새 비전을 향해서 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바보행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제로 행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 소망을 선물 받았어요”**

/ 오귀화 권사(중종로공동체)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새벽예배에 나오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수 바보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번 부흥비전집회는 저에게 기대와 설렘, 소망을 선물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어김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갈게요”**

/ 박지현 자매(요셉공동체)

‘바보’의 사명은 모험을 감행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정말 멋진 역사를 썼어요. 앞으로 30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 바보행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올라라 한반도여 집회.

**부흥비전집회**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

10월 6-8일까지는 부흥비전집회가 열렸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새 비전 예수바보행전을 이루기 위해 온누리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바보행전의 완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바로보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집회였다.

집회장은 회개의 장이었다. 그동안 예수바보로 살지 못했다고 통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분당을 가득 채웠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바보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했다.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창립 30주년 Celebration 올라라 한반도여**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의 대미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올라라 한반도여' 집회가 장식했다. 170여 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온 8천여 명의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통일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남녀노소,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 되어 어우러졌다. 나라와 민족, 교회, 통일, 다음세대를 위해 전심으로 드린 기도소리가 드넓은 평화누리 공원을 가득 채웠다. 분명 임진강 너머 북녘 땅까지 울려 퍼졌다.



**■ 인터뷰**



**“기대가 큼니다”**

/ 엄복례 성도(미국 휴스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국 휴스턴에서 왔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집회에 참석했어요. 현재 미국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가슴이 많이 아파요. 미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꼈어요. 예배의 소중함이랄까요. 온누리교회가 써내려가는 예수바보행전은 성령 안에 낮아진 자리로 나아가는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예수바보행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 임병훈 집사(CMN)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CMN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CMN에서 <바보행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사진집 같은 의료서책 책임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바보행전>이라고 지었는데 온누리교회의 새 비전이 ‘예수바보행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라지 않나요? CMN이 더욱 분발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CMN이 하고 있는 의료선역은 의료진과 중보팀, 이미용팀, 봉사자들과의 협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 오명순 권사(이수공동체)

‘전 오늘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수를 드시며 교제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특히 이번 30주년 행사를 위해 솔선수범하신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권사회가 성도들을 어머니 같이 보듬어주고 교회의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역동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또 하나의 예배공동체 만든다

그제가 569돌 한글날이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국경일을 보냈다. 이 뜻 깊은 날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온누리M미션 소속 한글학교팀이 그 주인공이다.

매주일 정오가 지나면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가 시끌벅적하다.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려는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오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예 한국에 정착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언어다. 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 온누리M미션 소속 한글학교팀은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들을 놓치지 않는다.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이기 때문이다.

환풍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세르조디(29세, 우즈베키스탄)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모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한국생활 적응이 녹록치 않았다. 무엇보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절실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친구로부터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소개받았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팀은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전도도 했다. 모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러시아어예배로 인도했다. 세르조디씨 사례처럼 한국어를 배우려고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찾았다가 예수를 만난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

네팔에서 온 이슈윌라이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 뒤쪽에 큰 종양이 생겼다. 의사는 그에게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고국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이승희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만든 한글교재들.

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 시력까지 잃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찾았다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온누리M미션 네팔어 예배에서 예수를 만났고, 지금은 고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 한국어 실력이 생계와 삶의 질 결정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주민들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주민이 되었다. 한국사회도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접어들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은 144만 명이 넘는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2.8%에 해당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36%(52만여 명)가 근로자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찾아오는 이주민들도 대부분 근로자들이다. 그들은 언어실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 남자는 건설업, 플라스틱 공장, 옷 공장, 화학 제품 제조업 공장, 환풍기 제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자는 넥타이 만드는 공장, 옷 공장에서 단추 달기, 식당 등에서 일한다. 그들에게 직업은 생계와 직결된다. 직업을 결정짓는 한국어 실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어 실력이 초급이면 다들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중급 이상이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다. 한국어 실력이 상급이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어 교사나 교수, 통역관으

로 활동할 수 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한국어 전문교사는 더 적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에게 직접 한글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친근하다. 한국어 양성과정을 수료한 교사가 절반이 넘는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이주민들에게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의 예배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믿고 맡겨도 좋다.

###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의 산증인 김정숙 권사와 이승희 교사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1997년 처음 문을 열었다. 외국인, 문맹인,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했다. 김정숙 권사와 이승희 교사의 헌신이 지금의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있게 했다. 김정숙 권사는 1997년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다.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졌다. 자신도 이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온누리교회에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모임이나 사역이 따로 없었다. 김정숙 권사는 그때부터 이주민들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을 알리고, 한글을 가르쳤다. 서울 시티버스, 고궁 관람, 미술관, 한식당 등지를 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승희 자매는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교사다. 올해로 18년째다. 그녀는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며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한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글책도 발간했다. 그 책으로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그 한글책은 초급~중급까지 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 온 이주민들에게 한글의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칼럼 김정숙 권사(서빙고공동체)

## 우리는 늘 즐겁다

홍콩에서 주재원 가족으로 살다 서울에 왔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섬긴 지 15년이 흘렀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시작한 무렵부터 몸을 담았으니 이곳을 거쳐 간 학생들에 대한 추억도 많이 쌓였다. 교실 이사도 여러 번 했고,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섬길 무렵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는 이승희 선생님 한 분 뿐이다. 일부 학생들 중에 여자 선생님에게 흑심을 품는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교사로 섬겨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함께 섬긴지가 벌써 10여 년이나 된다. 그 시간이 참 감사하다. 남자 선생님이 서너 명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 15명 중에 남편이 유일한 청일점이다. 교장선생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는 한국어 과정을 공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많다. 그 때

문에 매주일 한 시간 반만 공부해도 학생들이 실력이 날로 늘고 있다.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더 큰 바람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아졌다. 한글학교 분위기가 명랑해졌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좋아요> 등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간 만났던 학생들이 생각한다. 한국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한국 남자를 소개해도 거절했던 캄보디아 소파리 자매는 이화여대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이다. 사회 사업가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가 결혼을 했다고 들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기다나는 부모님과 함께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 나오고 있다. 최근에 동생이 태어나 신이 나 있다. 네팔에서 온 달과 릴라 부부는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학생이다. 올해

봄에 두 자녀와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다. 네팔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디파 자매가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녀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다. 네팔에 있는 동생들을 늘 걱정했다. 한국에서 네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슈왈라이 학생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 나와 착실하게 한국어를 배웠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때마다 찬양을 불러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다. 지금은 네팔로 돌아가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고 있다. 몽골로 돌아간 시내 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는 몽골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의 꿈이 허황된다고 생각했지만 몽골의 경제발전을 위해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잘 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의 바

찌 자매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트리니티 신학생인 진대 전도사님과 결혼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몽골어 예배를 섬겼다. 송신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몽골의 여성 사회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비록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교실이 비좁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도 20명 남짓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늘 즐겁다. 신앙도 좋고, 한국 말도 잘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목회자, 캄보디아 사회사업가, 몽골 대통령, 사회복지노동부 장관 등을 배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기분 좋다. 매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한 선교현장이다. 나는 매주 한글학교에 들어 설 때마다 이웃처럼 따뜻함 마음이 설렌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 “기독교로 개종, 사자의 이빨을 뽑는 것 보다 어렵다”



다문화 혹은  
다종교 국가  
미얀마



로지 목사  
(온누리M미션)

미얀마에서는 “당신은 미얀마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저는 버마즈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구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65% 가 버마족이다. 크게 8개 종족으로 나뉘는데 까친, 까야, 까렌, 친, 문, 버마, 라카인, 산 종족 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7개 주에 살고, 135 개의 부인종(副人種)이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 살고 있다. 다른 사투리를 쓴다. 미얀마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버마즈(미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인종과 종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의 강력한 영향 받은 ‘골든 미얀마’

미얀마는 불교국가다. 버마즈 민족과 다른 부족인 라친, 문, 산은 상좌불교에 해당된다. 상좌불교는 18부파 불교 중 하나를 의미한다. 미얀마의 종교 불교는 이웃국가인 인도에서 몇 세기 전에 넘어왔다. 불교가 미얀마에 들어 온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기독교가 들어오 기 600여 년 전에 이미 불교가 미얀마를 지배 하고 있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종족은 까친, 까렌, 친 부족이다. 그들은 5%정도의 소수에 해당된다. 다른 종교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애니미즘, 중국 전통 종교들도 있다. 그래서 미얀마를 다 문화 혹은 다종교 국가라고 부른다.

미얀마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유명한 유적지를 가면 불탑 들로 가득하다. ‘골든 미얀마’ 또는 ‘골든 랜 드’라 불릴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불탑과 절 들이 많은 국가다. 또한 불교의 날은 미얀마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 인 행사를 연다.

어느 나라든 국가의 종교와 문화는 때려야 떨 수 없듯이 미얀마도 마찬가지다. 사양 종교 라고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부역 행위 에 해당된다. 또한 기독교 이전에 불교를 먼저 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믿음이 아 주 강하다.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오면 큰 열매 를 맺지 못하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 버마즈 족 전통의상.

까렌, 까친, 친 부족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Adoniram Judson는 “버마즈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 는 것은 사자의 이빨을 뽑는 것 보다 어렵다” 고 말했다. 버마즈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 는 어르신, 부모님, 선생님, 수도자들이다. 지 역사회와 가족, 어른들의 결정과 판단은 무조 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담자 역할도 대 신한다.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16세의 버마즈족의 어린 남자아이들은 불교인이 되기 위해 수도원에 보내졌다. 그렇

게 불교 유산을 배웠다. 이것은 불교에서 순결 한 의식을 행하는 ‘서임식’이라고 부른다. 이 것은 미얀마 사람들의 의무이자 축복 의식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얀마에 사는 버마즈족이 뿌리 깊 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정말 어 렷고 힘든 일이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 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용기가 없다.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이 두렵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얀마의 선교가 열 매 맺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 요하다.



3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선교기관 연합모임, 27개 선교 유관기관이 모여 융합선교에 대해 나눴다.

##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 총 275명 참석, '선교사 특별간증' 끝으로 막 내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가 오늘(11일)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에서 선교사들의 특별간증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에는 파송 5년 이상 된 선교사 208명, 선교사 자녀 49명, 현지교회 지도자 18명이 참석했다. 총 275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선교대회는 그야말로 '선교사의,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에 의한' 행사였다.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일 온누리 선교기관 연합모임, 4일 융합선교 홍보 부스 설치, 5일 선교사 수련회, 6-8일 선교 세미나와 30주년 부흥비전집회, 9

일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 10일 열방탁구대회가 이어졌다. 오늘 예배에서는 선교사들의 특별 간증 순서가 있다.

이번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는 선교사들의 영·육·지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수련회와 열방탁구대회를 통해 육체의 힘을, 부흥비전집회와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를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선교기관 연합모임과 선교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의 선교 트렌드인 융합선교에 대해 공부했다.

최명현 선교사(Acts29 비전빌리지)는 "선교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는 앞으

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경숙 집사(가정사역본부)는 "기도제목으로만 접하던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다"면서 "앞으로도 보내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과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성도들에게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1

## 7개 언어로 드리는 ‘국제부 연합예배’

### 피부색, 언어, 출신지 달라도 주 안에서 모두 하나

지난 4일(일) 서빙고 국제부가 연합예배를 드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7개 외국어 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몽골어예배, 러시아어예배, 네팔어예배, 아랍어예배)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연합예배는 연합콰이어의 찬양, 럽문홍 목사(중국어예배)의 기도, 연합성가대 특순, 간증, 이재훈 목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牧사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끼리 뭉치는 것은 또 하나의

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7개 언어 예배부가 더 자주 모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제이미 성도(영어예배)는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오늘 일어난 것 같다. 언어는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고, 요시하라 카오루 성도(일본어예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감동이였다”고 말했다.

02



- 10월 12일(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오이타 전역에 울려 퍼지도록
- 10월 13일(화) 일본의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도록
- 10월 14일(수)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 10월 15일(목)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10월 16일(금)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 10월 17일(토) 모든 출연진과 강사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10월 18일(주일)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01

▪ 선교사 자녀(MK)들에게 고한다



“예수님을 따르라!”

/ 이훈 선교사(GMP선교사)

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15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선교사가 가족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바로 그 질문이다. 이 질문은 나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가족과 자녀들은 위험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다. 나는 선교지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매일 기도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라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 예수님의 선택은 바보 같지만 너무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MK, Missionary Kids)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MK들은 부모의 부르심에 순종해 선교지에 간 아이들이다. 그들은 성장기에 빼어난 일들을 참 많이 겪는다. 결단코 자신들의 선택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암바를 지켜봐야만 했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신음했지만 침묵

의 하나님을 느꼈다. 이유 없이 터문화관에서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MK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막 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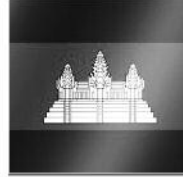
MK들의 숨겨진 고백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낮아진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를 나의 삶에 적용했을 때 와 닿았다. 낮은 자리에서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바로 내가 선교사로 무릎을 꿇은 이유다. MK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다. 인간이다 보니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다.

알려지지 않은 좁은 길,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교회와 선교사, 가정에 필요한 비전이다. 삶과 믿음이 일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외치기를 소망한다. MK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02

▪ 온누리미션 간증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 소짠 소취약(캄보디아)

나는 캄보디아 남동부에 위치한 타케오 주 출신이다.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되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를 믿어왔다. 그동안 예수님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가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싫어졌다.

인생은 내 마음, 내 능력, 내 생각 위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었다.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부모님이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내게 충고를 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무시 했다. 지금 와서 돌아켜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부끄럽다.

나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세상은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과학적인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나는 솔직히 해외 유학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을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외유학을 왜 가야 하는지 목적을 찾지 못했

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고향 생각이 간절했다. 어디든 나가서 답답한 기분을 풀고 싶었다.

나는 자리면서 크리스천은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내가 슬프거나 기분이 나빠도 교회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나도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나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주일날에는 다른 성도들과 간증을 나누며 신앙이 더욱 더 깊어졌다. 내 가슴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제목을 들어주셨다. 인생을 살면서 걸림돌에 부딪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다. 약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주셨다.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감사하게 살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을 섬기고 싶다.





기고 홍영숙 선교사

## CGNTV는 돌도 없는 친구

선교지에서 지내다 보면 보람된 일과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때 CGNTV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공급받는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공급받으면 좋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공급받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 CGNTV는 선교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선교지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다.

방콕에서 라용으로 이사 온지 10월이면 3년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없다.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방콕을 가지 않을 때에는 CGNTV를 주로 본다. 매일 아침 CGNTV를 보면서 일상을 시작한다.

나에게 CGNTV는 정말 친한 친구다. CGNTV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은혜 받고, 힘을 공급받는다. CGNTV는 정말 돌도 없는 친구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에서 CGNTV의 역할이 더 큰 것 같다. 한국어로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계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CGNTV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정말 큰 힘을 주고 있다.

나는 말씀강해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한다. 여기는 한국보다 시차가 2시간 느리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새벽기도회를 시청한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면 말씀강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보고 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다. 그 시간들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다. 고민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 될 때가 있는데 정말 행복하다. '나침반', '힐링유', '하늘빛향기'도 내게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CGNTV 말씀 프로그램을 보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다. 새겨보고 싶은 말씀들을 메모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한권의 노트를 다 채우면 또 다른 노트를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적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 노트를 보면서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왜 또 힘들어하지"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CGNTV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태국 사역자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 빨리 24시간 동안 태국어로 하는 방송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CGNTV를 시청했으면 좋겠다.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적어 예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GNTV를 통해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들이 보면 꿈이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비전도 생길 것이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다. 하루 빨리 CGNTV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태국어로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미국과 유럽교회 쇠퇴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미래

# 한국 기독교, 미국과

## 서구 교회 사례 보고 배워야 ... 안락한 삶에 젖은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 '부'가 영성 짓누르는 것 경계, 하나님 대신 인간이 관심사 되면 위기



닐슨 제닝스 박사  
선교 전문가

닐슨 제닝스 박사는 약 13년간 일본에서 사역한 전문 선교사다.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로도 재직했다. 뉴헤이븐에 있는 OMSC(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 대표도 역임했다. 그는 은누리 선교 30년 역사를 돌아 보고, 더 성숙한 선교를 돕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은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에게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묻고,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부탁했다. / 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이미 미술관과 나이트클럽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는 장엄했던 성전들이 지금은 텅 비었다. 교회가 관광 명소나 박물관이 되어 버렸다. 이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정과 온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적 가치관들이 통용되고 있다. 이제 결혼은 성이나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두 사람 간의 서약이 되어버렸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동등한 진리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도는 불쾌한 선전일 뿐이고, 해외 선교는 제국주의를 뒷받침했던 부끄러운 역사적 유물로 전락했다. 기독교가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절은 희미한 기억이 된 것 같다.

현재 유럽과 북미의 약해지고 쇠퇴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묘사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에 복음을 가져온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본거지에서 왔다.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왔다. 여러 세기 동안 서구 기독교는 기독교 사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적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서구 기독교 쇠퇴는 전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을까?

더구나 서구 기독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비슷한 약점들이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반문을 느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교회와 선교사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교회 리더들과 정치가들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토론하고 있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서구와 같은 기독교 쇠퇴는 피하지 못하는 미래일까?

### 유럽과 북미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확산

세계 종교 역사 속에서 서구의 최근 기독교 쇠퇴는 유일한 현상이 아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본거지에서 약화되어 다른 지역들로 이동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인도의 불교와 페르시아의 배화교일 것이다. 기독교 역사 중에 한때 강성했던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역전된 사례가 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이슬람 전의 북아프리카, 이슬람 전의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17-18세기 일본과 중국이 그렇다. 이런 종교적 쇠퇴를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것들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독교를 포함하여 종교적 전통들이 수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감소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려는 것뿐이다.

최근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하려면, 그 지역들의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확산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스케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역사 전체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강림한 이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까지 사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며 열방을 구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백인, 기타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예를 들어 7세기 이슬람의 부흥기 무렵, 예루살렘 서쪽인 유럽과 북미보다 예루살렘 동쪽인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미래는 백인들이 주류인 서구를 비롯하여 어느 한 민족이나 지역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다.

신약은 기독교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중해 북동 지역, 남유럽의 민족들 중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한다. 그 이후의 세기 동안 라틴 기독교가 점차 서유럽과 북유럽 민족들 중에 확산되었고, 동유럽에서는 그리스 기독교가 발달했다. 또한 기독교 친년 끝자락에 슬라브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라틴 기독교가 북동부 유럽 민족들의 언어와 사회적 상황에 맞춰진 것이다. 종교개혁은 주로 유럽의 르네상스와 계몽운동과 맞물려 일어났다. 유럽 민족들의 전 세계로의 이주(이민), 미합중국과 독일 같은 근대 국가들의 등장, 서구 제국들과 근대 세계 질서 창조와 촉매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19세기 초까지 유럽 나라들은 수백만~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강제 이주시켜, 자신을 제국의 농업과 광업, 불철적 발달을 일구었다.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렇게 했다.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선교단에 의해 유럽의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이 그들의 이주와 더불어 전 세계로 퍼졌다.

약 450년 동안 일어난 현대 서구 선교운동을 통해 20세기 중반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셨다. 이 시기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

진 민족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의 가톨릭과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다. 또한 이 시기에 복음이 다시 들어간 나라들도 있다. 중국이 그렇다. 중국은 처음 7세기에 시리아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들었지만, 현대에는 이탈리아 예수회, 러시아 정교회, 프랑스 가톨릭, 그리고 다양한 개신교 단체를 통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의 서구 선교운동을 통해 전 세계의 민족들 중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다양하게 성장했다.

이런 현대 서양 선교운동이 20세기 중반에 끝이 났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 두 번의 큰 전쟁(제1, 2차 세계대전)을 벌인 것이다. 전쟁은 식민지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끌어넣었으며, 결국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초래했고, 독립 국가(인도, 가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들이 현대 정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이민 방향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서구인들이 외부로 향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이 되는 과거 서구 식민지의 중심지로 이주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전보다 더 다양한 기반과 다양한 방향을 갖게 됐다. 가장 좋은 예는 한국 선교사들이 극적으로 성장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나간 것이다.

유럽의 정부와 대중들은 모두가 기독교와 연관되기를 점점 더 멀리하면서 유럽에서의 기독교 위상은 떨어졌다. 기독교가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을 막지 못했고, 억압적인 제국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눈에 띄게 지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미국 본토는 유럽처럼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독교는 무신론 소련과의 냉전 중에 미국을 지지해 주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인권 향상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독교의 주도권은 1970년대에 기울기 시작했다. 그 원인으로 베트남전쟁 패전에 대한 논란, 이민 증가로 인한 다양한 인종의 증가, 모든 민족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를 꿈꾸는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구심 등을 들 수 있다.

### 세계의 다양한 상황과 기독교 존재의 복잡성

서구 기독교에 대한 세계사적 스케치는 기독교의 발달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그리스도인

들의 믿음이 기독교의 성장이나 쇠퇴를 결정하는 우선적 요소라거나 혹은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쇠퇴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진실한 헌신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기독교 복음 확산을 결정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교회와 세계 신교가 다면적 세계와 성육신적으로 상호 얽혀있는 것은 세계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존재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은 일면 단순 명백하다. 그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실한 삶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잡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신다. 교회 생활과 기독교 선교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다면적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축소한다.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가져오시고, 성장시키시고, 어둠과 어려움이 잔존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끄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각 지역의 상황은 고유하고 특별하다. 이 글을 쓰는데 있어 유럽, 미국, 한국은 모두 역사, 도전, 영적, 성공에 있어서 흥미롭고 복잡하며 특별하다.

물론 세 나라에는 유사점도 있다. 예를 들어 정치구조, 경제발전, 첨단기술 등 다양한 면에서 현대적이다. 그리고 모두 기독교의 존재가 사회 내에서 의미심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각 나라가 각자 고유성을 갖는다. 기독교 복음이 도착하고 발달한 시기와 방법이 가장 명백한 예일 것이다.

한국보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이 유럽인을 조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 유사성은 상당히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지역의 기독교와 그 영향은 한국보다 훨씬 더 긴 역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짧은 역사에 비해 유럽과 한국은 오랜 역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한국 모두 토착민의 강제이주나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제도적으로 노예화했던 역사가 없다. 반면 미국은 두 가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 지역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언뜻 보는 것처럼 분명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를 따



# 유럽처럼 쇠퇴할 것인가?

라갈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 유럽 기독교가 명백히 감소하고 쇠퇴했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같은 패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반드시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지역의 경도가 비슷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있기는 하다. 미국에는 유럽과 다른 사회적, 종교적 역학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뚜렷한 역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행동감 있는 영성(특히 기독교 영성)과 끈질기게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적 역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둘은 서로 다르다. 미국의 슈퍼파워 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한 특징이며, 기기에에는 미국이 세계 종교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으로의 이민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기타 지역으로부터 온 기독교 이민 인구는 말미암아 종교적 다양성이 증가했고, 더 뜨거워졌다. 미국에 라틴계 인구가 증가한 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한 이주자들이 유럽으로 쇄도한 것과는 다르다. 한국도 이민자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다르다.

## 한국 기독교는 어디로?

최근 한국에서의 기독교 성장 둔화는 이전 세대의 폭발적 증가에 비하면 분명 위기 상태다. 한국 교회의 극적인 성장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교회가 개척되면서 싹텄다.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와 그 후에 이어진 6.25한국전쟁이라는 고통을 통해 깊어졌다. 한국 기독교의 그런 경험은 특별한 기반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반은 고통만이 아닌 자양분을 제공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기독교인들, 가난한 이민자들이 최근에 미국으로 왔고, 유럽에서는 독일 나치정권과 공산당 통치 하에서 기독교 영성을 비슷하게 강화시켰지만,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시달린 한국만큼 효과가 깊진 않았다.

한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와 공유하는 한 가지 낮은 수준의 과제는, 기독교 전통들의 다양성과 현재의 도전들에 대한 기독교 전통들의 반응의 다양성일 것이다. 사회,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미국의 기독교가 믿는 바를 단일화해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태, 성, 결혼, 성 역할, 이민, 군사력, 중동문제, 그리고 다른 사안들에 대한 미국 교회들의 입장은 다양하고 폭넓다. 한국 교회들도 다양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폭넓다. 그것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된다.

한국 기독교 미래에 있어서 중심 도전은 유럽과 미국에서 '부'가 영성을 짓들었다는 사

실이다. 부가 꼭 종교적 열정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경교가 안락한 삶에 쫓겨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급성장해 교회 건물, 사역 프로그램, 현재 약 2만 명의 선교사 파송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인의 삶은 안락한 주거환경, IT 기술 발달, 멋지고 편리한 교통시설, 잘 무장된 군대 등 전반적으로 1등급 생활수준을 이뤘다. 그러나 그런 사회와 생활방식은 신성한 공경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 선하신 대신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편안함, 행복이 주요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의 공적적 충성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억누를 수 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모든 개인과 사회는 세상의 유일한 참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서로 상호의존하며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몸의 일부가 억압과 상처를 받을 때 전체인 몸도 같이 아픔을 느끼며, 몸의 일부가 즐거워할 때 전체인 몸도 같이 즐거워한다.

가령 파키스탄, 북부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가 억압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억압을 느끼며, 남미의 교회성장과 시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성장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우리 역시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교회에게 배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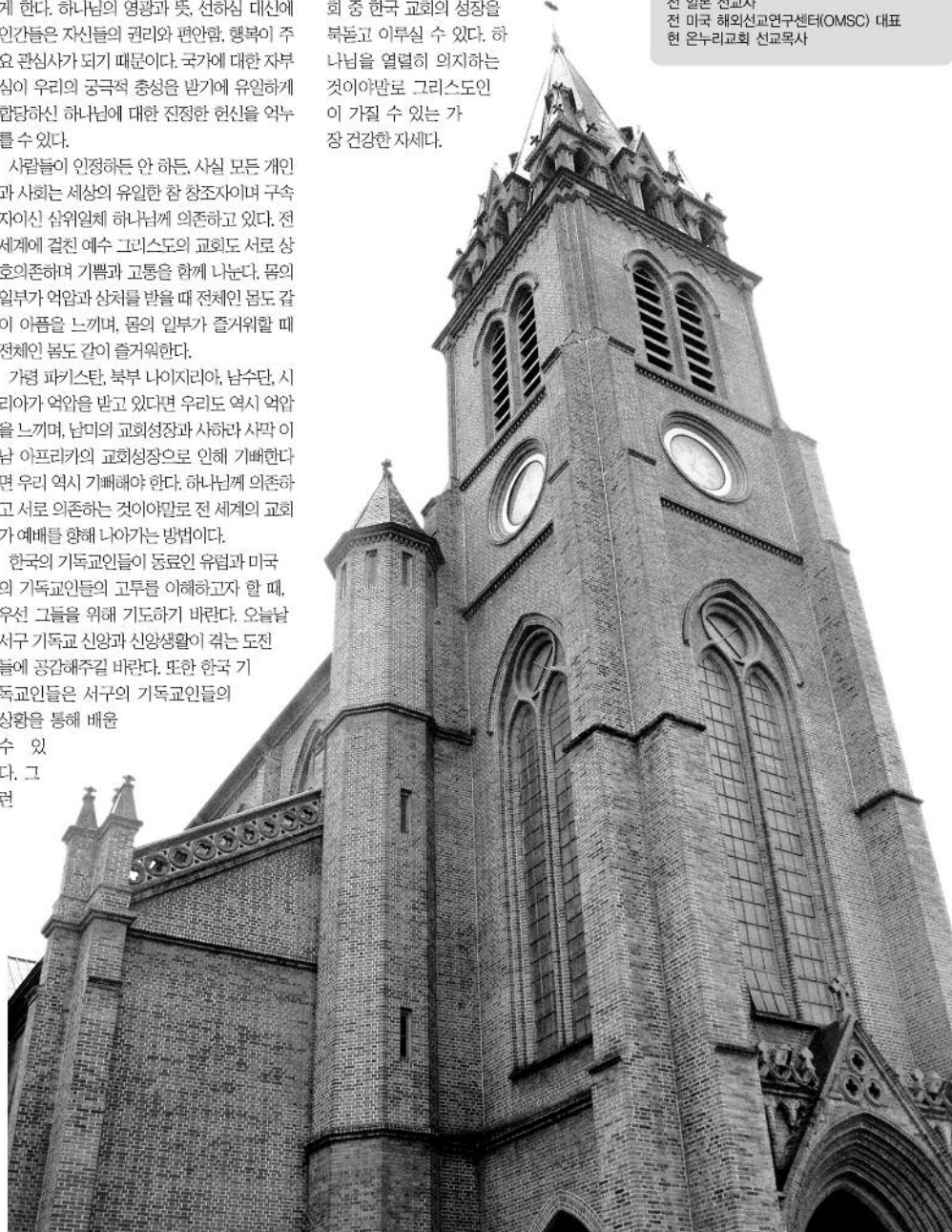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동요인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란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이 겪는 도전들에 공감해주길 바란다. 또한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구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런

한편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들 안에서 신신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상황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격려를 부탁해야 한다. 절대적인 창조 신학과 모든 사회적 사안들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현재와 또한 미래에 다가올 고난과 도전들에 대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실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지속되고 있고,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 신로 하나님만이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중 한국 교회의 성장을 북돋고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을 열렬히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자세다.

성, 부패, 리더십, 젊은 세대의 관심사 등이 이슈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새롭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장시키시며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전 세계에 걸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신하게 앞에 처한 도전들에 당면하길 바란다.

벨스 제닝스 박사는 .....  
전 일본 선교사  
전 미국 해외선교연구원(OMSC) 대표  
현 온누리교회 선교목사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미얀마의 종교



로지 전도사 (은누리M미션)

미얀마에서는 크리스천을 부를 때 어감없이 되묻는 말이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혹은 “미얀마 국민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을 수없이 받는 이유는 미얀마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미얀마 국민의 89%는 상좌 불교 신자다. 버마, 산, 몬, 리카인 인종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 인구의 5%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수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인종은 까친, 까렌, 친이다. 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554년 미얀마에 처음 로마 가톨릭 선교사

# “당신은 크리스천 입니까?”

가 왔다. 그런데 가톨릭은 국민과 군주들에 의해 완벽하게 거부당했다. 이로부터 259년이 흐른 1813년 7월 마침내 미국 침례교 선교사 ‘Adorniam Judson’ 목사와 사모가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로 회심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Judson 부부는 미얀마에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버마즈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했다. 마침내 ‘U Naw’ 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 후에는 고산족 사람들을 전도했고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고산족에 해당하는 인종이 까친, 까렌, 친이다. 버마즈 불교와 버마즈족을 향한 선교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미얀마 인구의 5%만이 기독교인이고, 그들 중 대다수가 침례교에 해당된다.

### 미얀마 크리스천들이 받고 있는 박해

미얀마 군사정부와 현 정부는 계속 예배의 자유와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 정부가 선호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이유로 미얀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방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선교가 정말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잃었다.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억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회사나 군대든 어느 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 내 조



▲ 미얀마의 군인들.

카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대학교 입학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미얀마에서 모든 종교는 법에 따라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원하는 만큼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다.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마을에 일부러 불교 사원을 짓기도 한다. 억압받고 있는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두려움과 궁핍한 마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불교를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불교 신자를 미워할수록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됐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도가 모이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사랑과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미얀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01



이재훈 목사와 일본어예배 리더십들이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 리더십, 성도 총출동 축제 한마당 ... 포럼도 개최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의 선봉장 일본어예배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1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본어예배를 위한 축제 한마당이었다. 일본어예배 리더십과 성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어예배를 섬겼던 목회자들도 총출동했다.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기념예배는 나문채 장로 선교사 파송, 박종길 목사의 말씀, 이재훈 목사의 축사, 감사패 증정,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종길 목사는 "일본어예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일본인 전도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

부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축사에서 "지난 25년 동안 일본어예배는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의 주요 통로가 되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며 말했다.

일본어예배 협력목사였던 다카미자와 목사(현 할렘루아교회 일본어예배)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는 일본과 한국의 화해의 가교가 되어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화해와 일본선교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자 성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일본어예배의 처음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10월 10일에는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일본선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는 지난 25년 동안 실시한 일본 선교활동을 발표했다. 비전과 협력 선교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비전교회 및 러브소나타 중장기 전략, 온누리교회 일본선교 전략 등에 대해서도 나눴다.

일본어예배는 1989년 동부이촌동 일본 주재원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모임으로 시작했다. 1990년 주재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강좌를 열었고, 그 해 10월 일본어예배부가 창립되었다. 러브소나타와 일본 CGNTV, 일본비전교회와 연계해 스테파와 목회자, 봉사자 파견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본 아웃리치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 11월 8일까지 접수

11월 8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해외 지역개발 사업을 돕는 장·단기(단기 2년 이하, 장기 4년 이상) 사역자와 국내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해외사역자로 파견되는 사역자다.

국내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역자는 세네갈, 르완다, 감비아, 인도, 네팔, 미얀마, 모로코 등지에서 활

동하게 된다. 국내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NGO 더멋진세상(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9, 703호)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kmkim@abetter-worldork)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3



### 오이타 기·도·제·목

- 10월 19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도록
- 10월 20일(화) 일본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 10월 21일(수) 오이타 지역 교회들이 협력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 10월 22일(목) 실행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 10월 23일(금)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10월 24일(토) 이재훈 목사님과 강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도록
- 10월 25일(주일) 행사 모든 일정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2015년 10월 18일 1070호

• 01-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10면)  
 • 02-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및 접수 안내(10면), • 03-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19-25)(10면)

▪ 열방탁구대회를 마치고



/ 양영자 선교사(한국WEC국제선교회)

## 탁구선교를 위하여

지난 10일 열방탁구대회가 열렸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 선교를 목적으로 탁구에 관심 있는 성도와 선교사,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대회를 개최해준 은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은누리교회가 숭선수범해서 탁구 대회를 개최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탁구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탁구는 선교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가 빼어나다.

한 예로 파키스탄에 후원자가 탁구대를 설치해 주면서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분 적이 있다. 교회 안에 탁구대를 설치했더니 청년들이 모이고 여성들이 모이고, 중장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탁구를 통해 전도의 장이 펼쳐졌다.

어느 무슬림 마을에도 탁구대를 설치했더니 청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탁구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들 안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그들끼리 탁구대회도 개최했다. 탁구가 전도와 선교의 탁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선교를 위해서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착점이 필요한데 탁구

가 탁월하다. 어르신과 여성들, 어린이들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시절에 해외 경기를 자주 했다. 당시는 한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는데 나는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서 상대국 선수들에게 나눠줬다. 아마 그 일이 나를 선교사로 만들어 준 계기가 아닐까 싶다. 직업을 살려 몽골과 중국을 오가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다.

몽골에 있을 때에는 탁구 클럽도 운영했는데 하루는 모든 선수들을 모이게 했다. 시합을 시켜 상품도 주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탁구선교다.

나는 1997년도에 선교지로 나가 2012년도에 한국에 왔다. 지금은 한국에서 후보 선수들과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 남편은 아직도 몽골과 중국을 오가면서 성경번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도 영어, 중국어 등으로 전도지를 제작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나눠주고 있다. 앞으로도 탁구라는 스포츠가 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은누리교회에서도 탁구를 통해 역동적인 선교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D-4

지난 4월 러브소나타 교도

# 순교의 피 흐르는 오이타 간다!

일본인 2,800명에 초대장 발송, 한국인 봉사자 524명 참석  
28~29일 가정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CEO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8일과 29일 23번째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막 오른다. 28일에는 오이타 교계 목회자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정세미나와 가스펠 나이트 집회가, 29일에는 한일 크리스천 리더십들 교류의 장 CEO 포럼과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열린다.

지금 오이타 현지는 코앞으로 다가온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교회가 67개 밖에 없는 오이타현에서 열리는 행사에 협력교회 70개가 모인 것이 고무적이다. 오이타현뿐만 아니라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야마구치현 교회들이 협력했다. 일본인 2800명에게 초대장도 보냈다.

오이타복음그리스도교회 후무타 교로 성도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위해 물질, 시간, 기도로 헌신해 준 은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했고, 그리스도복음오이타교회 구기미야 다카에 목사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는 분명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러브소나타 한국본부도 막바지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에는 한국인 봉사자 524명이 참가한다. 일반팀 158명을 비롯해 양재 권사회 79명, 장로합창단 40명, 부천 여성사역팀 27명, 복지재단 27명, CGN-TV운영위원 37명, CEO포럼스쿨팀 59명, 출연자 및 스태프 97명이 참석한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참가자 교육이 실시됐다. 오후 2시 양재 화평홀에서는 양재권사회,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는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오이타는 규슈에 위치한 인구 117만 명의 소도시다. 1578년 오이타 지방 영주였던 오토모 소린의 세례를 받은 후, 이 지역은 크리스천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정도로 부흥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박해에 의해 오이타현내 1,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발생했다. 그 사건 이후 오이타 기독교는 침체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통해 기독교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샤론데코팀 봉사자 모집

샤론데코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교회 행사에 필요한 꽃 장식을 손수 만드는 봉사팀이다. 교회 초창기부터 강대상, 분당, 테이블 센터피스 등을 만들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하는 화관과 임직식에서 사용하는 코사지도 제작하고 있다.

매년 4,000개가 넘는 화관을 만들고 있다. 30주년 선교대회 화관도 제작했다. 선교대회에서 사용한 화관은 오대양육대주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금편 류관을,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하는 화관은 죄가 씻겨, 청결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  
문의: 02-3215-3717

##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1. 목회자 2. 선교사 3. 성도

# “내가 죽는 삶을 사는 바보 선교사”



나는 20년 넘게 동아시아 B국에서 사역을 했다. 사업자 동아시아 B국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농민, 장사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 나라의 허와 실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동아시아 B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을 5년 동안 섬겼다. 2009년 선교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B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 특히 온누리교회 양육의 근간인 큐티와 일대일을 현지교회에 전하기 위해 세미나와 강연을 열심히 했다.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선교 정신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안식년을 맞이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차에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에 ‘예수바보행전’이라는 메시지가 선포 되었다. 나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예수바보행전,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오직 그 단어밖에 없을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수많은 사역팀들이 있다. 오죽 사역이 많으면 사역조정위원회까지 생겼을까. 수많은 사역팀들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 사역에만 집중하다보면 융합하기 힘들다. 그래서 ‘융합선교’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사역에만 치중하다보면 협력보다 결과물에 집중하는 면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위태롭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선교지로 나가기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 걱정했고, 기도했다. 한국 교회의 쇠퇴기가 너무 빨리 온 것이 안타깝다.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특히 온누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기도했다. 온누리 교회가 변화되면 쇠퇴하는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재훈 목사님이 새롭게 선포한 예수바보행전 이 비전에는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다. 온누리 교회가 진짜 예수바보교회가 된다면 한국 교회 또한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예수바보행전은 썬내리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이며 연합사역이다.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공동 프로젝트다. 네 사역 내 사역을 가리기 시작하면 예수바보는 나올 수 없다.

나는 그동안 현지교회 뿐만 아니라 선교사끼리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수바보행전 비전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모두 쏟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보 선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바보 선교사로서 날마다 어떻게 죽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다.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도 되새길 것이다.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 “온누리교회 선교사는 다르구나.”를 외칠 수

있도록 말이다. 그것이 내 나름의 예수바보행전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다. 말도 안통하고 기후와 문화, 음식도 맞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보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죽는 삶을 살 때 선교지와 사역이 살아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살아난다.

다양한 나라와 단체와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지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이 별로 없다. 현지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다더라면 동아시아 B국이 더 빨리 선교강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을까. 보안지역이라 구체적인 사역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동아시아 B국이 선교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예수바보 정신으로 무장한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동아시아 B국도 언젠가는 예수바보행전에 동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 김온누리 선교사(동아시아 B국)



## “땅 끝까지 전하겠다는 소망만 붙잡고”

2008년부터 남아시아 1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나는 선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선교사로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남아시아 1국으로 보내셨다.

내가 파송받은 지역은 당시만 해도 여행사 제구역이었다. 몇 해 전 발생한 재난으로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곳이었다. 폐허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이곳은 이슬람 특별자치구다. 길거리를 지나는 외국인에게 종을 쓰고, 수류탄을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지금도 위험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는 A지역 사람들이 싫지 않았다. 그곳에서 사역한 3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사역지가 바뀌면서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오긴 했지만 언젠가 또 그 지역에 가고 싶다. 그만큼 그곳이 좋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못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하고 싶다.

이번에 30주년 선교대회에 참가하려고 모처럼 한국에 왔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에 선포된 '예수바보행진' 비전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 온누리교회 안에 예수의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박차고 기뻐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재훈 목사님은 부흥비전전회 3월 동안 위험한 교회, 낮 아

진 교회, 연약한 교회에 대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이 중에서 나는 위험한 교회라는 주제가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두 가지를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다.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내 입장에서 위험한 교회는 무엇이며, 진짜 위험한 선교사는 무엇일지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다.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 20:23-24).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을 주셨다. 솔직히 나라면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며 좋아했을 것 같다. 그곳을 보란 듯이 피해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핍박의 예언을 듣고도 위험한 지역으로 갔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핍박과 고난보다 자기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 땅 끝까지

가서 말해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화살 같은 사람이다. 화살은 한 방향으로만 가서 과녁에 꽂혀야만 멈춘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피하지 않았다. 오직 땅 끝까지 전하겠다는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바보 정신이다.

바보는 똑똑하지 않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한다. 바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듣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예수바보행진이라는 새 비전을 듣고 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만 스무 개가 넘는 종족들이 살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발사된 하나의 화살에 불과하다. 과녁에 꽂혀 멈추기까지 나는 이 소망만을 품고 나아가갈 것이다. 위험하지만 바보처럼 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 이 땅에 살면서 10년, 2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주님이 끝내라고 주신 사명, 바보처럼 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사명, 내가 그 소망 외에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으리요

/ 박 선교사(남아시아 1국)



# “예수님 전하고, 사람 살리겠습니다”

## 고국으로 파송된 아치트 선교사

“몽골로 돌아가면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겁니다!”

아치트 전도사가 올해 11월 정들었던 한국을 떠나 고국 몽골로 간다. 그는 몽골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로 살아갈 예정이다. 아치트 전도사는 온누리M미션이 전도해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사다. 아치트 전도사는 한국에 온지 올해로 12년 되었다. 현재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학을 공부했다.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결혼도 했다. 그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아치트 전도사가 한국에서 만난 예수 이야기를 들려줬다. 코끝을 간질이는 간증은 덤이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아치트 전도사는 학창시절 전교 1등만 하던 인재였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 시절 선배를 잘못 만나 술과 담배, 여자, 폭력에 물들었다. 그때부터 탐자의 삶을 살았다. 결국 그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갈 길이 없자 군대에 자원입대했다. 군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5년 전 몽골에는 대학교에 합격하면 군대를 6개월 전에 제대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아버지를 설득해 농업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다.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다. 그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는 학교를 포기한 채 친구들과 돈을 벌기 위해 산과 들로 금을 캐러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몽골에서는 금을 캐면 때돈을 버는 소문이 자자했다. 많은 사람들이 체굴하려 다녔다. 아치트 전도사는 그 당시를 “부러러운 일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회상했다. 그는 패싸움을 일삼았고, 총칼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다. 빈털터리 신세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급하게 찾았다.

“네 큰형, 갈트가 쓰러졌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병으로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오랜 방황 끝에 돌아간 집은 울음바다였다. 그의 형을 걱정하는 가족들은 아치트 전도사에게 당장 한국으로 가서 형을 도우라고 당부했다.

### 한날한시 수술 받은 삼남매

그는 2003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그의 형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신장에 문제가 생겨 눈도 뜰 수 없던 상태였다. 그는 지난 날 몽골에서의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에서 형의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밤낮없이 일하기 시작했다. 형을 살리려면 목돈이 필요했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형이 서림고 온누리교회 몽골어에 배를 추천했다. 그의 형은 이미 서림고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아치트 전도사도 서림고 온누리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베타복이 되어준 사람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당시 온누리M미션을 담당했던 이경희 목사다. 이 목사는 그가 오랜 방황을 청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줬다. 뿐만 아니라 형의 치료비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불신앙면 도와줬다. 온누리교회는 그의 가정에 생명줄과 같았다.

그는 2005년 세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가 온누리교회 온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눈에 띄게 피아노를 잘 치는 자매가 있었다. 그녀도 몽골인이었다. 둘의 관계가 발전해 결혼예기도 기뻐했다.

2007년에는 형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었다. 그는 형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 조직검사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직검사 중에 그가 신장암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형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쓸 수 없었다. 결국 여동생이 오빠에게 신장을 이식하게 됐다. 형과 아치트 전도사, 여동생이 같은 날 수술을 받았다.

삼남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줄이 연장되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삼남매 모두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아치트 전도사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포했다.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했고,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목회자가 되었다.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이 심했다. 아버지로 부터 잦은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방황했다.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달라졌다. 그렇게 미워



온누리M미션 동역자들과 함께앉을 왼쪽에서 두번째.

했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 보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행운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원한 기쁨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몽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남은 가족들 모두 한국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웠다. 그의 편지를 읽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례 받던 날 온누리M센터는 눈물바다가 됐다. 아치트 전도사의 부모도 예수를 영접했고, 부동겨안으며 지난 날 아들에게 줬던 상처를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는 몽골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에 몽골인들을 위한 작은 센터가 생겼다.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에배에 관심있던 한 성도의

후원으로 봉고차도 생겼다. 몽골인 뿐 아니라 더 많은 이주민들을 전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 그가 쓰게 될 예수바보행전

아치트 전도사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한국어로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녹음해 매일 듣고 다녔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용조 목사부터 이재훈 목사까지 온누리신문에 나온 설교를 빠짐없이 모으고 있다.

또한 아치트 전도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몽골인들을 섬기고 있다.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7월 TP(터닝포인트)선교사 훈련도 받았다. 그는 올해 11월 몽골로 돌아간다. 그는 몽골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그가 몽골에서 쓰게 될 예수바보행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 기도제목

-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온누리교회와 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11월 몽골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 몽골에서도 선교사를 양육하는 자가 되도록.
- 우리 기적이 종교로 인해 탄압받지 않고, 안전한 수 있도록.
- 앞으로 온누리M미션 사역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한 알렉산드라 목사  
(온누리M미션 러시아어 예배)

내가 살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은 국민의 90%가 무슬림이다.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우즈벡도 예외가 아니다. 우즈벡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지는 않아도 국민들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70%는 수니파, 20%는 시아파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수니파는 '할리파(칼리파)'를,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인 '알리'를 무함마드의 계승자로 보고 있다.

우즈벡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

된다. 무슬림들은 교회력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30일 동안 헤 뜨기 전부터 헤 지기 전까지 금식을 한다. 물론 물과 술, 담배에 이어 부부 생활까지도 금지한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8번 이상 절하며 라마단 금식기도를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슬람 교리를 철저히 지키며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 종교는 샤머니즘이 혼합된 이슬람교를 추구하고 있다. 세속적인 이슬람을 추구하는 수니파는 사람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시아파 세력의 확산은 차단하고 있다. 과격 단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였다.

예배도, 선교도 어렵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왕조'가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면서 공산혁명이 시작됐다. 무신론적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면서 무슬림들이 많은 수난을 겪었다. 1991년 소련 정부가 독립하기 전까지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회교국들은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다. 70년 동안 소련에 속한 회교국들은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를 표출하지 못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진 이후, 우즈벡에 이슬람교 부흥이 시작됐다. 러시아의 독립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했다. 그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상과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고국의 정체성을 찾기 못해 혼돈의 시대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종교였다. 이슬람 사원을 새롭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

건축하고, 종교법을 바꾸는 등 급속도로 변화했다. 1991년 전 구소련 시대에 쓰였던 러시아 말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루아침에 우즈벡어로 대체됐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종교 운동에 탄압을 가하고, 크리스천들의 교제 장소를 없애고 있는 추세다. 교회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991년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우즈벡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우즈벡에 사는 고려인이나 러시아 무종교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했

다. 무슬림에게는 접근하지 못했다. 현재는 외국 선교사들이 종교 비자를 받는 것도 금지한 상태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국가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우즈벡에 들어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 비율이 기대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나 전도 금지법이 시행하는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200~300명이 넘는 우즈벡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01

## 단기선교사 훈련학교(TP)28기 모집

### 12월 13일까지 접수

비전빌리지에서 단기선교사 훈련 학교(TP) 훈련생을 모집한다.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는 2016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은누리교회에 등록된 지 2년 이상,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을 수료

하고, 2인 이상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성도가 대상이다. 12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26기 훈련도 2016년 2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031-331-8182

/ 김현준 기자 khj@annuri.org

02



## 오이타 기·도·제·목

- 10월 26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 10월 27일(화) 일본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받하기를
- 10월 28일(수) 모든 스테프들이 겸손과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 10월 29일(목)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 10월 30일(금) 섬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러브소나타 오이타 현장.

2015 러브소나타 오이타

# 기독교는 저주가 아니라 진짜 희망

## 2,437명 참석 ... 101명 “예수 믿겠다”, 398명 긍정적 응답 기독교 인구 적고, 박해 역사로 반감 심한 곳에서 열매 맺어

일본 기독교 부흥의 진원지 오이타에서 23번째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졌다.

지난 29일, 오이타 이치코그란시어터 행사장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에는 2,437명이 참석했다. 일본인 참가자가 1,995명이나 됐다. 열매 또한 풍성했다. 일본인 101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응답했다.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와 성경 메시지에 마음이 끌린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도 398명이 나왔다.

지난 4월 열린 러브소나타 교토 집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가 101명, 예수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가 215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행사 규모도, 교회 수도 교토보다 적은 오이타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28일에는 가족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29일에는 CEO포럼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졌다. 28일 홀트홀에서 열린 가족세미나에서 박종길 목사는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를, 김하중 장로는 축복의 불모를, 이기복 교수는 가정과 자녀양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같은 날 저녁 이치코

오토노이즈미홀에서는 가스펠나이트가 열렸다. 오이타 지역 교회 어린이들로 구성된 ‘연합키즈콰이어’, 프로 가스펠콰이어팀 ‘New Wings’, NHK(일본국영방송) 아침 드라마 주제곡을 부른 가수 ‘훈다 루츠코’, 오이타 교계 ‘연합콰이어 팀’, 가요금 연주사 이슬기 자매가 출연했다.

29일 오후에는 오아시스호텔에서 한일 리더십 만찬 CEO포럼이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우호를 다졌다. 사토 기이치로 오이타 시장을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국회의원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한일교류의 장에 참석했다. CEO포럼에 참석한 일본인 리더십들의 90%가 비신자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저녁 7시에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막 올랐다. 장로합창단의 축복송으로 문을 연 러브소나타 집회는 박진아 작가의 센드메니메이션 영상, 가수 심수봉의 공연, 송슬나무의 플루트 연주, 이슬기 가요금 연주, 김영미 권사의 찬양, 테너 배재철의 간증과 찬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남 이재훈 목사는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 오이타까지 희망을 선물하려고 왔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희망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행사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사시작 직전까지도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약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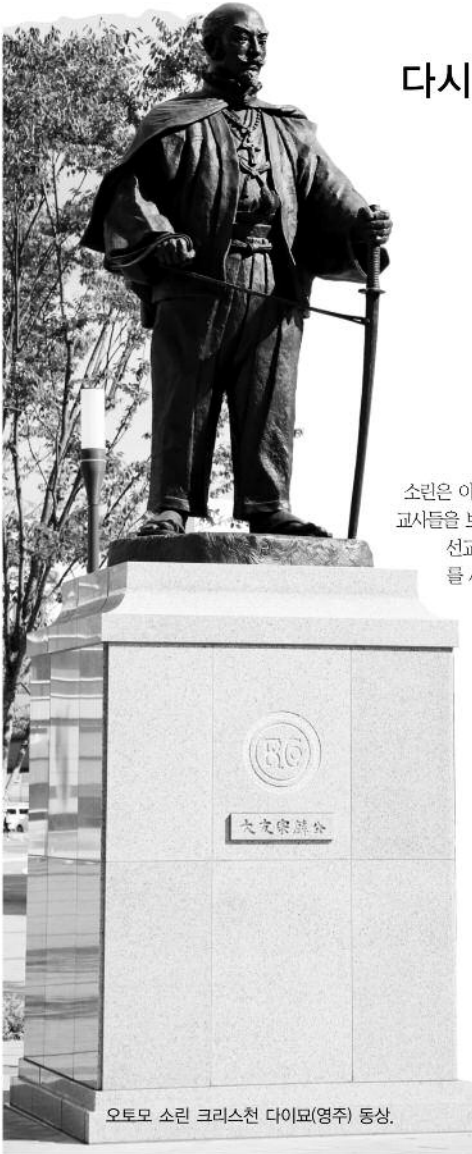
오이타는 그동안 일본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 가운데 가장 기독교 인구가 적은 곳이다. 한네에 교회가 67개 밖에 없다. 그나마도 성도가 15~30명 안팎이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가슴 아픈 역사의 영향으로 반감 또한 심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성황리에 러브소나타 집회를 마친 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독교는 저주가 아니라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알려 준 뜻 깊은 행사였다.

**<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joo@annuri.org



르포\_ 순교의 피 흐르는 오이타를 가다

# 저주의 땅에서 희망을 목도하다



오토모 소린 크리스천 다이묘(영주) 동상.

## 다시 한 번 부흥을 노래 ... 그 중심에 러브소나타가 있다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린 지난 27일, 일본 오이타에 도착했다. 23번째 러브소나타 집회가 규슈에 위치한 한적한 온천마을 오이타에서 열린다. 날씨 때문인지 내 마음도 왠지 모르게 추웠다. 아마도 오이타가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 같다. 오이타는 기독교 탄압으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기독교는 곧 저주라고 각인되어 있다. 역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 곳 중에서 교회가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목도했다. 러브소나타를 섬기러 한국에서 온 524명의 은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때 일본 기독교 부흥의 진원지였던,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오이타 기독교 역사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소린은 이때부터 기독교와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토지를 주고,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소린의 기독교 우호적인 치세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우선 일본에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에 의해 종합병원이 세워졌고, 일본 최초로 의과 수습이 행해졌다. 당시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라 많은 아들이 버려지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고아원을 세워 버려진 아이들을 키웠다. 그것이 일본 최초의 고아원이다. 당시 오이타는 복지와 구제, 봉사의 발원지였다.

소린은 미선스쿨(신학교), 수도원, 도서관도 세웠다. 포르투갈 선교사와 무역선의 출입을 적극 옹호해 일본에 난반 문화(포르투갈 혹은 서

지역에만 크리스천 인구가 5만 명 이상이었다. 일본 전체 크리스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이처럼 오이타는 일본 기독교 부흥의 발원지였다. 오이타를 제외하고는 일본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 없다.

### 석공들이 우스키성 돌에 새긴 십자가

1563년 소린이 우스키 지역에 성을 축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성을 만들 때 사용한 돌은 다루는 석공들이 모두 크리스천이었다고 한다. 석공들은 돌에 십자가와 △(성모), ○(하나님), H(예수회를 의미하는 IHS의 H) 등을 새겨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다.

직접 우스키성에 가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일본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곽이었다. 당시 석공들이 새겨놓은 표식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우스키그리스도교회 마츠나가 목사가 안내해 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찾지 못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의 흐름에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잠초와 이끼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석공들이 새겨놓은 표식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 돌에 문양을 새김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름 없는 석공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 기독교 부흥지에서 처참한 박해 현장으로 크리스천 20~30만 명이 순교 당하다

번영할 것만 같던 오이타의 기독교는 소린 영주가 소진한 1587년 이후 급변했다. 소린은 자신이 죽은 후 오이타가 기독교 박해의 현장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토요일 히데요시가 '바테렌(선교사란 뜻) 추방령'을 내렸다. 선진 외국 문물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도쿠가와 막부 때 정점을 찍었다. 1614년 전국에 '기리시탄(크리스천의 일본한자식 발음) 금지령'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크리스천 박해가 시작됐다. 당시 일본에 약 6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그중 20~30만 명이 이때 순

교를 당했다. 엄청난 숫자다. 기독교가 번성했던 오이타는 역설적으로 가장 극심한 박해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오이타 시내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진 곳에 '기리시탄 순교기념공원'이 있다. 이곳에서 14세 소녀부터 84세 노인까지 약 2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목이 잘려 처형당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무덤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 처참하게 버려졌다. 크리스천들이 이곳에서 처형당한 이후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 됐다. 불길한 땅이 되어 버렸다. 황두지나 다름없는 그곳을 1960년 당시 오이타 시장 우에다 다모츠(크리스천)가 공원으로 조성해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순교기념비를 세웠다.

순교기념공원에도 가보았다. 공원 맞은편에 '성예수회영광찬미교회'가 있다. 순교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오이타 모 온 시노 미츠코 목사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었다. 은누리교회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해 기도했다. 복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오이타 땅에 다시 한 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뜨겁게 기도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 당일, 이를 전 온 비로 스산했던 공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해졌다. 따뜻한 날씨로 바뀌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오이타를 축복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려온 524명의 표정이 화창한 날씨보다 더 밝았다.

러브소나타가 열린 그란시어터 행사장은 그야말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아침부터 이어진 중보기도가 한몫했다. 중보기도팀은 오전 10시부터 집회가 끝나는 9시까지 릴레이 중보기도로 힘을 보탤다. 뜨거운 중보기도와 은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오이타 성도들의 열망이 더해져 101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역대 러브소나타가 개최된 곳 중에서 교계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던 곳에서 이룬 쾌거다.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기독교의 부흥을 노래했다. 그 중심에 러브소나타가 있었다.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 1549년 8월 15일이다. 로마 가톨릭 예수회 소속 신부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에 기독교를 전했다. 가고시마에 상륙한 자비에르 신부는 2년 뒤 1551년 9월 중순 '분고'(오이타현의 옛지명)에 들어왔다.

### 오토모 소린 영주와 기독교

당시 오이타는 '오토모 소린'이라는 21세의 젊은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다. 외국 문물과 기독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던 소린이 자비에르를 초청했다. 자비에르는 오이타에 불과 2개월을 머물다 인도로 떠났다. 그가 일본에서 보낸 2개월 동안 젊은 영주 소린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양 중세 문화를 일컫는 일본어)를 꽃피웠다. 오이타는 일본의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 당시 서양에서는 분고를 일본과 별개의 나라로 인식했고, 이곳을 '동양의 로마'라고 부를 정도였다. 오이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라틴어로 된 성가가 불려지기도 했다. 성곡이 처음 행해진 곳도 바로 오이타다.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자에 대한 할로론의 재판을 다룬 성곡이 행해졌다.

외국 문물의 유입에도 적극적이었다. 단호박과 잣소를 처음으로 수입해 키운 것도 소린 이었고, 대포와 철포도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소린의 비호 아래 오이타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었다. 1587년 소린이 소진할 당시 일본 전체 크리스천이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오이타





오이타 기리시탄 순교기념공원.

오이타에서 만난 사람들

###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시노 미즈코 목사 (성예수회영광천미교회)

성예수회영광천미교회는 순교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아담한 교회다. 이 교회는 시노 미즈코 목사가 1987년에 세운 교회다. 그녀는 1985년 처음 오이타에 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오이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다. '순교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시노 목사는 교도에서 태어났다. 대학과 신학교까지 모두 교도에서 나왔다. 그야말로 교도 토박이다. 그녀가 아는 사람도, 성도도 없는 오이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만 해도 교회 근처가 산이었다. 황

량한 밭과 쓰레기장뿐이었다. 뱀이 많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곳 일대는 기독교 박해 당시, 기리시탄들의 목을 잘라 처형하던 처형장이었다. 처형당한 크리스천이 귀신이 되어 떠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황량한 곳에서 시노 목사는 1987년 목사관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다. 일대 땅을 개간하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노 목사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흉흉한 소문이 돌고, 저주받은

곳이라고 모두들 기피하던 곳에 1993년 9월 지금의 교회당을 세웠다.

시노 목사는 교회를 만들 때 순교지의 흙과 돌, 나무 등을 모아와 제단을 쌓았다. 순교당한 크리스천들을 매장한 절에서 흙을 퍼왔다. 예부살렘에도 가서 기념물만한 것들을 공수해왔다. 나사로 무덤가나 예언자 스가라의 무덤가 주변 흙도 가져와 제단 밑에 묻었다. 늘 순교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지금의 영광천미교회가 세워졌다. 순교자의, 순교자를 위한, 순교자에 의한 교회를 세웠다.

"영광천미교회뿐만 아니라 순교의 피가 흐르는 오이타의 교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열정을 담은 교회들입니다."

### 오이타의 67번째 교회이야기



나카이와 히로미 목사 (오이타이즈미교회)

오이타현에는 67개의 교회가 있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1년 6개월 전에는 교회가 68개였다. 나카이와 목사가 사무하는 오이타이즈미교회는 러브소나타 준비와 함께 주변 교회로부터 정식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카이와 목사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미우라 아이코의 소설 <호소키와 기리사 부안>을 읽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당시 나카이와 목사는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어둡고 힘든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는 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뒤늦게 신앙에 불이 붙은 그녀는 성경 읽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즐거웠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기쁨이 컸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넘쳐났다. 3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가 어느새 40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전도하는 즐거움에 빠진 그녀는 8년 전 신학교에 입학했다. 들어간 신학교에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6년 전 목사가 되었다. 그녀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이가 바로 남편이다. 그녀는 자녀들과 시부모, 친정부

모, 친척들, 친구들까지 전도에 성공했을 정도로 전도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쉽지 않았다. 그런 남편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세례받은 성도가 됐다.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소천했다. 하나님이 그녀의 손을 통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나카이와 목사는 일본 기독교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고 한다. 교단과 교파의 벽이 너무 높아 교류는커녕, 정식 교회로 인정해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변 교회들과 교류의 분위기가 트인 것이다. 나카이와 목사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오이타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영성 고향에 전수하다



이노우에 마키 목사 (사이키복음그리스도교회)

오이타에서 낯이 익은 반가운 이를 만났다. 주인공은 이노우에 마키 목사다. 그는 헛수로 11년 가까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 선교사 훈련과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노우에 목사가 처음 온누리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4년이다. 오사가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열심히 섬겼다. 2006년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으로 온 목적은 단 하나였다.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였다. 1년 정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하러 나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선교하러가기까지 무

려 5년 반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선교사 훈련뿐만 아니라 신대원에도 전학해 목사 안수도 받았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를 섬겼다. 2011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북경 온누리교회로 파송되었다.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섬기게 되었다. 북경에서 3년 동안 있었다. 힘들긴 했어도 평소 꿈이자 비전이었던 선교사가 되었기에 행복했다. 하지만 어렵게도 비자 문제로 2014년 12월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자신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교회가 있는 오이타에서 사역하고 있다. 오이타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발 벗고 나서서 도왔다. 온누리교회를 잘 알고, 한국어도 가능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오이타 실행위원회와 한국 온누리교회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노우에 목사는 아직도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 이유가 있어서 자신을 오이타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여단가로 보내실 때까지, 그는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싶다고 했다. 겸손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 일대일 제자양육을 논하다

- 1.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 2. 일대일 제자양육의 미래

온누리교회 양육의 기둥은 큐티와 일대일이다. 12가정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198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주일 성경공부에도 큐티와 일대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일대일 제자양육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영적 지도자로 성장시켰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과 삶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성장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다.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유익을 정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3만 3천여 명 동반자 과정, 2만여 명 양육자 과정 수료 11월 7일 '일대일 제자양육 30 페스티벌' 개최



맑은샘물교회 일대일 1기 수료식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강조했다. 일대일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단순히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인 유산을 나누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정의했다.

故하용조 목사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대일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약 6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경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발견과 사역, 선교, 비전 등이 형성됩니다.”

故 하용조 목사의 말처럼 온누리교회는 일

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6년 일대일 지도자반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이 동반자 과정을, 2만여 명이 양육자 과정을 수료했다.

###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일대일

그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은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으로 뻗어나갔다. 온누리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일대일 대외사역'이 있다.

일대일 대외사역은 1997년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일대일을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대일 대외사역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있다. 벌써 300개 이상의 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방법을 전수했다. 300명 미만의 교회, 미자립교회가 주 대상이다.

선교지에도 활발하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제가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2000선교본부에서도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집목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또 하나의 선교방법이 되고 있다. 선교와 일대일 제자양육이 만나 융합선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학교'도 있다. 일대일 위원회에서는 '일대일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국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언어의 한계가 있었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2014년 9월 마침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사역자 학교가 개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 다른 언어권에서도 일대일 사역자 학교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일대일제자양육 30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일대일 제자양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협력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서 점검도 할 예정이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 우즈베크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



한 알렉산드라 목사 (온누리M미션 러시아어 예배)

우즈베크스탄(이하 우즈베크)은 면화(棉花)재배를 많이 하는 국가다. 독립국가연합 면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우즈베크는 세계 3위의 목화 생산국이자 세계 7위의 금 생산국으로 유명하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구소련 시절 러시아를 의존했던 우즈베크이 경제독립을 하면서 모든 공장들이 멈췄다. 1991년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고 곧 이어 화폐도 바뀌었다. 국내 시장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해외 투

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구소련 시대에는 없었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갈수록 심화됐고,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과 교수들은 형편없는 월급을 받게 됐다. 월급은 50~100\$ 정도로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우즈베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제난의 영향으로 엘리트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을 주정당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 우즈베크 선교와 고려인

1991년 우즈베크으로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대부분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우즈베크에 와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고려인들이 한국어에 능통했다. 고려인들은 대부분 50~60대 중년층이었고, 북한말과 고려인이 쓰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구소련 사회체계가 무너진 것이 우즈베크에 한국인 사업가들과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영향으로 고려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즈베크에서는 지금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다. 타슈켄트 지역 2개의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생겼다. 한국어학원도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배우던 젊은이들과 나이든 고려인들이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즈베크에서 복음은 고려인들에게 가장 먼저 퍼졌다. 우즈베크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민



우즈베크스탄의 목화밭에서 목화를 수확하고 있다.

족이 고려인이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주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크에서 교회 개척의 가장 큰 관건은 한국인 선교사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현지인에게 교회 지도력을 인계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교회 지도력 인계를 어려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수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정작 지향적인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현지인에게 교회를 인계 할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적인 소유개념과 성공 지향적 사역을 추구했다.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정형

화된 노과심도 있었다.

우즈베크에서는 타종족 선교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하지만 많은 고려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좋아한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인과 잘 어울렸지만, 우즈베크 사람들과는 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인들로부터 러시아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됐지만, 우즈베크 종족에게는 잘 전달되지 못했다.

많은 고려인들과 러시아 현지 목회자들이 우즈베크 선교에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즈베크 사람들에게 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땅이 변화되리라 확신한다.

# 이슬람 선교학교 'WHY 무슬림?' 개강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이슬람 선교학교가 개강한다. 'WHY 무슬림?' 을 주제로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1주차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을 주제로 박경남 대표(한국 WEC), 2주차에는 '이슬람 팽창의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 을 주제로 이현수 대표(한국 Frontiers), 3주차에는 '무슬림들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중동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이드보라(중동 사역자), 4주차에는 '유럽, 아시아, 한국의 이슬람' 을 주제로 권지윤 부소장



(이슬람연구소), 5주차에는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선교의 필요성' 을 주제로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가 강의할 예정이다.

등록은 아이스쿨이나 현장등록을 하면 된다. 회비는 2만원. 문의: 김진경 총무 (010-5378-7140)

기고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 이슬람 선교학교를 열면서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뭐죠?”

“IS는 어떤 단체인가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던데 다 같은 이슬람 아닌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난민이 되는 건가요?”

요즘 세계는 이슬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재스민 혁명은 중동을 치열한 내전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IS와 관련된 뉴스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도 2015년 기준으로 25만 명 정도의 이슬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슬람의 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해결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환영, 이유 없는 거부나 혐오,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해묵은 종파 갈등이 무엇인지, 이슬람은 서구 기독교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떤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과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는 어떤 복잡한 관계고니 싸움이 있는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더라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 안방에 찾아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2000선교본부는 국내 전문 강사진을 모시고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설하고자 한다. 이슬람에 대해 궁금했거나, 이슬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이다. 이슬람 선교학교 개설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이슬람 선교가 균형 잡히고 심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01



CGNTV와 반석미니스트리 MOU 체결식.

## CGNTV·이집트 반석미니스트리 MOU 체결

### 중동과 북아프리카 미디어 선교 위한 교두보 마련

CGNTV가 지난 10월 1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영상·소셜미디어 제작사 '반석미니스트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미디어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연간 최소 2편 이상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고, 내년부터 무슬림 복음회를 위해 유튜브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바이슬람권 시청자들을 위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인, 무슬림의 삶과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반석미니스트리는 CGNTV 콘텐츠 가운데 현지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해서 SAT7, 킹덤셋(KINGDOMSAT), 미

러클(MIRACLE) 등 이슬람권 기독교 위성방송에서 정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올해 안에 '이람의 밤' 4주년을 맞아 CGNTV와 반석미니스트리가 튀지니에서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SAT7, 킹덤셋 등을 통해 상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석미니스트리 마이클 마하루스 대표는 "문화와 언어 등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국과 이집트 미디어 사역자들의 비전이 하나임을 확인했다"면서 "마케도니아의 환상과 같은 우리의 요청에 CGNTV가 동역의 손길을 내밀어 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02

## 이주민 선교학교 10기 참가자 모집

이주민 선교학교 10기가 개강한다. 11월 14일부터 4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국내 이주민 선교, 한두권 이주민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의 과거와 미래, 다문화가

정과 자녀 이야기, 이주민 제자훈련과 역파송, 불교권 이주민 선교, 온누리M센터 외국인예배 현장체험학습, 온누리M미션 비전과 사역 소개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화비 4만원. 문의: 010-3337-3327

■ 이주민 선교학교 수료 간증



/ 홍에스더 자매

## 이주민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

1978년 인구 분산과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후반, 침체되고 있던 안산은 이주노동자들의 공단 유입과 더불어 순식간에 그들의 주거지로 각광받으며 침체기에서 벗어났다. 안산 원곡동은 현재 외국인 주민 수가 내국인을 추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산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이주민 선교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안산M센터 방문과 이주민 마을 체험이었다. 이주민들을 만나 삶을 배웠고, 그들의 문화를 알았다. 파키스탄 음식과 스리랑카 음식도 맛보았다. 우리가 만난 이주민들은 고된 일터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이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마사지 서비스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터로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략 117만여 명에 이른다. 이주자들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그들은 공장에 딸린 기숙사에 살거나 한국인들이 사는 동네에 섞여 살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 이태원도 외국인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직장 유치원에서 이라크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교사를 뽑을 일이 있었다. 마침 동생의 반지리를 내가 채울 기회가 되었다. 나는 이라크를 테러국가이자 잔인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이라크 학부모들은 대부분 외교관 출신이며, 의사로 종사하던 분들이었다. 그들은 교양 있는 말과 총명한 지식으로 우리를 대했다. 그들은 자녀에게 “고기 안돼!”라는 말을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라크 부모들은 유치원에서도 철저하게 무슬림 관습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라크인들은 가족 관계도 중요시했고 먼 친척과의 결혼을 허용하기도 했다. 지난 주 이라크 학생의 한 어머니가 나를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그 어머니는 이라크에서 의사였고, 영어와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다. 내게 이라크 음식을 대접해주었다. 이라크의 문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 이라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를 돌아보게 했다.

이주민 선교학교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개인지도 봉사를 통해 관계의 문을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며, 복음의 통로를 열어갈 것이다.





장로칼럼 하성기 장로

##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장로합창단이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섬기고 돌아왔다. 우리는 러브소나타 집회 오프닝을 맡아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축복의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우리는 오이타 현지 교회도 방문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그 감동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열린 지난 29일, 장로합창단은 행사 출연 전 오이타 메구미 그리스도교회와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를 찾아가 그곳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했다. 특히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감동과 은혜의 눈물을 흘렸다.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는 89세인 야마모토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셨다.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나의 마음이 어려웠다. 장로합창단 총무로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열 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방문하고 야마모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은 흔한 휴대폰도 안 가지고 계셨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었다. 게다가 교회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 번듯해 보였는데 성도는 고작 두 명 밖에 없었다.

우리는 늘 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CGNTV 안테나 기증을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방문이 두 성도님과 목사님 내외분께 커다란 감동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들

을 둘러싸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연신 감사하다고 했다. 여든 아홉 되셨고, 허리가 구부러진 노(老)목사님이 자신들의 교회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우셨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 자신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일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려고 살려주신 것 같다고 하셨다. 자신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날까지 쉬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몸도 편치 않은 노(老)목사님이 어찌나 째짤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던지 듣고 있던 우리들의 가슴이 몽클해졌다.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갑작스레 헌금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두들 흔쾌히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엔화를 꺼냈다. 그 액수가 5만8천엔 가량 됐다. 감사한 마음과 힘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투를 드리자 야마모토 목사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목사님을 보고 순간 나도 가슴이 몽클해졌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또 울었다. 껴안고 축복했다. 일반적인 교회 방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감동을 체험했다. 봉사하러 간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오는 시간이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한 것도 은혜였지만,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일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 주최

### 이재훈 목사 '선교적 책임-온누리교회' 주제로 발제

이재훈 담임목사가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서 “온누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글로벌 선교 공동체 간에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속초 켈링턴스타호텔에서 개최된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

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에서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임-온누리교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온누리교회, OMSC, kriM이 공동 주최한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은 '대형교회

의 선교적 책임'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외 선교단체 대표 및 리더십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는 북미 대형교회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대형교회의 관계자와 선교단체 리더들이 참석해 '대형교회와 선교'라는 개념을 성

서적, 선교적, 역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하고, 회답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일 동안 13번의 발제와 회답이 이어졌다. 북미 대형교회-선교적 상관관계, 소형 및 중형 교회의 선교, 힐송 교회 네트워크: 세계 도시의 기독교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도 했다.

〈관련기사 6면〉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이제는 전문인 선교사를 꿈꿉니다”

##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 조율사 박창국 집사

박창국 집사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피아노를 관리하고 있다. 그의 손을 거친 피아노는 명품이 된다. 박 집사는 전국을 누비며 피아노를 조율하고, 고치는 일을 한다. 피아노 조율이라는 외길을 30년 동안 걸어온 전문가다. 10년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 삶이 180도 달라졌다. 아웃리치를 가서 낚은 피아노를 도색하고, 조율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라는 새로운 꿈도 꾸고 있다. 신학을 공부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피아노 선율처럼 곱고 아름다운 그의 인생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피아노 건반 88개와 2200여 개의 피아노 줄이 만나면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된다. 피아노는 예민한 악기다. 기름칠 해주고, 조율해주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잃는다. 장식용 피아노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듯 피아노도 정기검진과 수리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사의 손을 거쳐야 좋은 소리가 난다.

양재 온누리교회 박창국 집사는 피아노 조율 경력 30년 된 소리기술자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관심이 많았다. 30년 전에는 악기가 워낙 귀해 사양 악기는 만져볼 기회가 없었다. 어느 날 곱지 않은 음색의 피아노를 고쳐보고자 부탁대고 뜯어보았다. 그런데 조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는 더 엉망이 됐다. 그 사건과 삼촌의 제안이 더해져 피아노 조율 인생이 시작됐다. 당시 피아노 조율사는 생소한 직업이었다. 수도 극히 적었다. 그는 스승인 삼촌의 도움으로 망가졌던 피아노의 음색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박창국 집사는 1986년 해병대에 입대했다. 삼촌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세례도 받았다. 군 제대 후에는 삼촌과 함께 예배드리고, 부흥회도 같이 다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결혼 생활이 공허했다. 운동하고 친구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아내가 교회 생활로 바쁘다고 할 때마다 잔소리를 했다. 교회 모임이 잦던 아내와 30분 이상 대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다. 그러던 와중에 유명 피아노 대리점을 찾았다.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피아노 대리점 사업이 실패했다.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문을 닫고 말았다. 유명 피아노 대리점을 정리하고 중고 피아노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예수 만나고, 삶이 달라지다

그는 2005년 강남으로 이사를 왔다. 박창국 집사의 아내와 아들은 개척교회를 다니며 늘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박 집사가 예수를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제목을 놓고 부르짖었다. 박 집사의 아내는 그를 좋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온누리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이는 조기축구 동아리 '공사랑'도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한몫했다. 그는 교회에 적응하면서 삶이 변해갔다. 금요일에는 순 예배, 토요일에는 조기 축구 동아리 공사랑 참석, 주일에는 세가족사역팀 봉사를 시작했다.

교회에 발을 들여 놓고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 돈과 세상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2008년에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2009년에는 JDS(예수제자학교)과정을 마쳤다. JDS 간사로도 섬겼다. 아내와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도 참석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씁쓸이 시켜왔다.

한 번은 중국 아웃리치를 갔는데 한 기술학교에서 피아노 조율에 대한 강의를 의뢰했다. 그 기술학교는 미용, 자동차 정비, 치위생사 기술만을 전수하고 있었다. 박창국 집사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탁이라 여기고 피아노 조율에 대해 강의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돈 받고 피아노를 조율하는 기술자였지만 앞으로는 무보수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 보자!”

그의 헌신과 다짐은 확고했다. 그간 바쁘게 달려온 삶을 재정비하며 자신의 기술이 선교지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 관리 도맡아

2010년 또 다른 아웃리치 현장에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좋은 피아노가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황한 팀원들이 황급히 박 집사를 찾았다. 그 피아노를 들여다봤더니 줄이 끊어져 있었다. 그는 헤머(피아노 현을 때리는 기구)로 두들기고, 소리를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음을 맞춰나갔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본 이민욱 목사가 제안을 했다.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를 조율해주시겠습니까?”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의 손을 타면 피아노 선율이 달라졌다. 청각에 민감한 박창국 집사는 연주자의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어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타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피아



아웃리치 현장에서 피아노 조율 중인 박창국 집사.

노도 연주자에 따라 원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는 피아노를 조율할 때 연주자와 호흡을 맞춘다. 문제점을 함께 파악한다. 피아노 조율은 조정과 정음 과정이 포함된다. 음정을 확인한 뒤 건반의 높이, 해머와 현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조정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능숙하게 복원하는 정음을 한다. 양털과 나무로 된 해머는 기온과 습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는 양재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 때마다 피아노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냉방 기계를 가동했을 때에는 피아노 음이 높게 올라갔고, 난방 기계를 가동했을 때에는 음이 심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값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를 고치고, 음을 만들었다. 교회의 특성상 예배가 많고, 반주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꼼꼼히 살피고, 고쳐나갔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 보면 줄 틈사이에 연필, 볼펜, 심지어 악보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종이와 연필이 걸려 피아노 소리가 안날 수

도 있습니다. 자신의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인 선교사의 꿈

박창국 집사는 현재 신학생이다. 그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음악의 불모지인 곳에서 피아노 조율 기술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전문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곡강 유역 5개국을 돌며 피아노 조율 기술을 전수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4천 880킬로미터에 달하는 매곡강 인근에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있다. 그곳에 3억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매곡강 유역 5개국은 빈민층이 많은 국가다. 그런데 피아노는 아직까지 상류층이 접하는 악기다. 그래서 그는 매곡강 5개국에 피아노를 모르는 이들에게 조율하는 기술을 전하면서 음악도 알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천왕의 전파력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기술은 70살이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1. 일본 비전교회
- 2. 아부다비 비전교회
- 3. 미주 비전교회

# 알고, 기억하고,



문봉주 목사

동경 온누리교회 담당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 공동체 본부장

## 일본선교 위해 7개 지역에 세워진 '일본비전교회' 협력, 일치, 확장 통해 일본전역으로 뻗어나가야

온누리교회는 해외 4개 권역에 30개 비전교회가 있다. 미주 13개 지역, 일본 7개 지역, 중국 6개 지역, 기타(오세아니아, 중동, 동남아시아) 4개 지역에 교회가 있다. 지난 10월 8일 '2015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별 소개와 중장기 사역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해외비전교회를 알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사역 계획에 대해 성도들과 나눌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동경 온누리교회 문봉주 목사가 일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사역 계획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의 역사

2000년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 교회가 세워졌다. 2000년 3월 5일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고, 그해 4월 김사무엘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2001년에는 이영선 목사가 취임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세워진지 1년 뒤인 2001년 장재윤 목사가 도쿄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우에다 온누리교회, 2002년 아치오 온누리교회, 2004년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2008년 나고야 온누리교회, 2010년 교토 온누리교회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벌써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창립 15주년, 도쿄 온누리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했다.

우에다, 요코하마, 교토 온누리교회는 야마나카 목사가 개척했다. 그는 일본교회 개척의 단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지도 상(그림 1)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치오, 도쿄, 요코하마, 우에다, 나고야, 교토, 오사카가 위치해 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섬을 '혼슈'라고 한다. 도쿄 등 일본의 대도시가 모두 혼슈에 있는데 비전교회 7곳도 모두 혼슈에 위치해 있다.

###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의 규모

도쿄와 오사카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도시답게 이곳의 비전교회는 다른 5개 비전교회와 규모면에서 다르다. 우선 예배인원이 많다(그림 2). 성인 기준으로 평균 350~450명 정도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다. 차세대까지 합치면 450~550명 정도 된다. 이 두 곳 비전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교회는 성도가 100명 미만이다. 소규모 교회다. 규모가 작다고 영향력이 작은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교회와 비교해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교회의 규모에 숫자 '0'을 더하면 한국교회랑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에는 크리스천 비율이 0.2%도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와 오사카 교회 규모는 그야말로 엄청난데, 다른 5개 교회도 일본교회 상황에 비해보면 절대 작



나고야 온누리비전교회

고 할 수 없다. 재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도쿄와 오사카 온누리 비전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교회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래도 성도 수의 차이, 비싼 교회 임대료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 주재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일본 선교' 위해 세워진 교회

일본 비전교회는 다른 권역에 세워진 해외 비전교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일본 비전교회는 처음부터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는 점이다. 다른 권역의 비전교회도 선교를 위해 세워졌지만 주 대상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로 세워졌다. 그러나 일본 비전교회는 일본 주재 한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 일본을 선교하기 위하여 한국인 목사와 한국인 성도가 협력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다(그림 3). 일본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것이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일본인의 경우 세례 받고 교회에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분명 매주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는 있지만, 이들이 교인으로 정착해 교회를 섬기는 일원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공이 필요하다. 많은 목회자들이 느끼는 일본 비전교회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일본비전교회의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 일본어예배부가 'Sending Body' 역할 해줘야

일본 비전교회의 목회 방향은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으로 나눌 수 있겠다.

우선 단기계획은 청년 연합 수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을 좌우하는 대상은

청년들이다. 청년부를 중점적으로 섬장시켜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연합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의 특성을 감안해 관서지방(오사카, 교토, 나고야)과 관동지방(도쿄, 아치오, 요코하마, 우에다)으로 나눠 연합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비전교회 중장기 목회 방향은 한마디로 '협력, 일치, 확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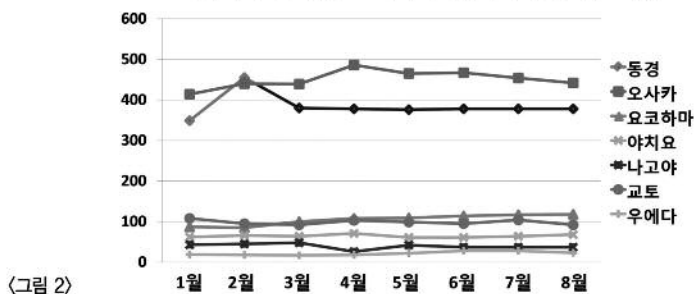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그림 3). 한인 양국 성도와 목회자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서울(서빙고 일본어예배)을 포함 8개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인 목회자(서빙고 요시하라 목사, 아치오 니시야마 목사, 우에다 하카마타 목사, 교토 야마나카 목사와 한국인 목회자(도쿄 문봉주 목사, 요코하마 서현 목사, 오사카 이영선 목사, 나고야 김철희 목사)가 각각 절반을 이루고 있다. 성도의 경우 일본인 성도와 한국인 성도가 공존하고 있



# 기도해 줘야한다



일본지역 비전교회 주일예배 현황(1월~8월)



(그림 2)

지향하는 방향성



(그림 3)

다. 한국인 목회자의 경우 한국어 설교는 물론 일본어 설교가 가능한데 비해, 일본인 목회자의 경우 한국어 설교가 힘들다. 그렇기에 한인 양국 성도 모두를 원활하게 복음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어로만 하면 일본인 성도가 어려워하고, 일본어로만 하면 한국인 성도가 소외감을 느낀다. 담당목사로서 한일 양국 성도 모두를 품기 위해서 언어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비전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긴 하나, 한국인 성도의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목회자가 한국어 설교가 되지 않으면 한국인 성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정 악화와 교회 일꾼 감소로 이어진다. 작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일본인 목회자들은 한국어 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어렵더라도 한국어로 설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어란 것이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대안으로 한국 성도를 원활히 섬기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부교역자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하고는 5개 교회가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 해외협(해외비전교회협력위원회)에서 한국인 부교역자 채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예산을 아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 성도

와 일본인 성도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린 것과 같다. 막힌 담을 허물면 교회가 부흥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협력한다면 일본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서빙고 일본어예배부의 협력이 긴밀히 필요하다. 현재 야치요, 우에다, 요코하마, 오사카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는 서빙고 일본어예배부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다. 또 일본어예배부 출신 청년들이 몇 개 비전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서빙고 일본어예배부는 'Sending Body'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예배부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현지에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나 간사가 파견되기 전에 제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찬양 가사를 통일하는 것도 일본어예배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가사가 아닌 것을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배와 찬양 같은 한국 찬양을 번역하는데 있어서도 각 교회가 달리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비전교회가 목회 협력이나 정보교환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서빙고 일본어예배가 'Sending Body'로서 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에 여러 아웃리치팀들이 각 비전교회로 오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오는 아웃리치팀이

아니라 특정화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아웃리치팀이 와주길 바란다. 비전교회에 특히 도움이 되는 사역은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 찬양, 악기, 차세대 교육 등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비전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없다. 이는 결국 인제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아웃리치팀이 비전교회에 필요한 활동을 돕거나 우이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찬양팀을 파견하거나 예배 세미나, 악기 세미나 등을 개최해 온누리교회의 실제적인 찬양 스타일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세미나 등도 매우 유익하다. 노방전도를 하거나 코리안나이트를 하는 전도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은 비전교회의 목회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다.

### 일본선교를 위하여 계속 확장되어야한다 아낌없는 지원과 기도 뒷받침되어야

'일치'도 중요하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 이재훈 목사님은 "예수바보가 됩시다"라는 아주 멋지고 지향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셨다. 예수바보행진을 써 내려가는 교회는 먼저 기쁘게 응시해야 한다. 즉 '말씀과 성령'에 충실해야 한다. 비전교회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말씀에 충실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교회의 태생적인 한계일 수가 있다. 성령집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기도가 약하다. 나는 일본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새벽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본 비전교회에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온누리교회의 영성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균형을 맞춰나가야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성령집회에 대한 서울본부의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본다. 감사지원 등 성령집회 개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받아야 한다. 정말로 현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일본 선교를 위하여 일본 전역으로 교회를 '확장' 하는 것이 일본 온누리비전교회의 비전이다. 현재 7개 비전교회는 모두 일본 혼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일본 전역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밑으로는 규슈에서부터 위로는 홋카이도에까지 진출하는 것이 향후 일본 비전교회의 비전이자 과제다. 일본 비전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다. 그렇기에 일본 선교를 위하여 일본 전역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내년부터는 규슈 지역에 교회개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 홋카이도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비전이다. 이를 위하여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일본 온누리비전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

#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임이 무엇인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속초 컨벤션스타호텔에서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이 개최되었다. 국내외 선교단체 리더십들이 대거 참가해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재훈 담임 목사도 4일 발제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이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호 교수(네델란드 틴데일 신학대학원)는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발표했다. 이날 이재훈 목사와 안성호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 편집자 주



안성호 교수가 온누리교회 선교를 여섯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역 교회와 초교파 단체(즉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선교적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 개척 두 달 후, 국제적 선교 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 두란노해외선교회(TMM)가 설립되었다. 1994년에는 '2000선교본부'를 설립해 성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자 했다. 장단기 선교사를 양성하고, 타문화 선교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선교훈련센터가 1996년 6월 개관했다. 2002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로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2010년 'Acts29 비전빌리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때마다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지난 30년 동안의 온누리교회의 선교참여를 평가하고,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임의 주제를 여섯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적, 재정적 자원,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 선교사 관리 및 개발, 선교지에서의 전문화, 온누리를 넘어선 선교 자원, 자기반성적 선교학이 그것이다.

## 선교 자원 동원, 선교프로그램 개발, 평생 선교사와 자녀 관리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위해 다음 사람들을 유지하고, 지원하고,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첫째, 대형교회는 일반 지역교회보다 확실히 인적, 재정적 자원이 많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그 자원을 선교를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할 책임이 더 크다. 그것을 위해 교회와 선교

의 연합이 효과적이다. 온누리교회와 TIM은 최근 타 교회 및 단체의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지원한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 선택된 선교 지원자들을 인력이 필요한 교회와 단체에 추천하여,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외부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파송한다. 온누리교회는 외부 선교 단체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2014년에 126만 달러(약 12억 6천만 원)를 64개의 외부 선교 단체에 후원했다.

둘째, 대형교회는 비교적 큰 인적, 물질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타문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타교회와 선교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빌리지는 외부 선교 훈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현재 3개의 현지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티넷 포인트(TIM)'는 단기 선교사를 훈련하고, '온누리선교 학교(OSOM)'는 장기 선교사를, '흙 두릅'은 안식년 선교사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셋째, 본국에서 선교사 관리가 평생 장기 선교사와 자녀들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 작은 교회와 선교 단체는 자원이 제한되어 안식년의 주거지, 의료 관리, 선교사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지원 등이 어렵다. 이런 일들을 대형교회가 도와야 한다. 안식년 선교사를 위해 온누리교회는 현재 선교사 관리의 일환으로서 32가정에 주거지를 제공하고 협약체결 의료기관들을 통해 의료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힐링 캠프, 흙 두릅 등의 휴식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교사 자녀(MK)의 3차 교육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 전문성 함양, 선교자원 콘텐츠 제공, 정신적, 재정적 지원

넷째, 대형교회는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위해 온누리교회는 국제적 선교 단체로부터 활발히 배워야 한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장기 선교사의 타문화 민감성과 언어유창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누리교회는 젊은 해외 한인으로서 타문화 환경에서 자란 이들을 잠재적 선교사 후보로 양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형교회는 다양한 선교자원과 콘텐츠를 다른 교회와 선교단체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온누리교회는 일반 선교를 위해 전도 집회 러브소나타와 CGNTV, 두란노를 설립했다. 2007년 처음 러브소나타가 열렸을 때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변화의 원인은 지역 이사회 구성으로 일본인 목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폭넓은 준비로 최소한 2년 동안 준비하여 러브소나타를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전도 축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는 CGNTV다. 기독교 프로그램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170개가 넘는 나라에서 방송하고 있다. CGNTV 지역은 온누리교회의 가장 의미심장한 사업 중 하나다.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있고,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디어 선교의 선봉에 서있다.

출판사 두란노는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일반 교인들에게 타문화 선교에 필요한 도구, 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목사, 선교사, 교인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여섯째,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풍부한 인적,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자기 신학화와 자기 선교학화를 돕고, 한국의 신학 자료 준비를 위해 정신적, 재정적 지원으로 참여한 책임이 있다. 가능한 다음 단계는 온누리교회가 선교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선교학 조사, 선교학 자료 개발, 선교학 문건 준비를 위한 기관을 세우는 것이다. 이 기관은 국내 및 국제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과 협력하여 한국 교회를 위한, 현장에 기반을 둔 신학을 개발하는 한편, 최신 선교학 사상과 신학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선교적 교회 유지, 선교활동 보안 자기 신학화와 자기 선교학화 역량 개발 필요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는 다음 중요 사항들을 유지하고, 지원하고,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

다. 첫째, 선교적 교회 형태가 당장은 제한을 주는 것 같더라도, 선택한 그 구조(교회와 선교의 연합)를 유지해야 한다. 교회와 초교파 단체가 손잡을 때 선교운동이 일어나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그 둘이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선교운동의 저하가 일어났다. 1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20세기 후반의 교회 중심 선교가 시작되어 힘을 얻고, 교회와 초교파 단체의 통합을 옹호하는 교회론이 등장했다. 태동부터 선교적 교회였던 온누리교회는 최선을 다해 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대형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온누리교회가 선교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왔다면, 이제는 그 초점을 보완할 때다. 즉, 그 초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선교 신학을 개발해야 한다. 선교사 파송과 선교 현지의 열매를 보는 것이 선교라는 건물의 외벽이라면, 신학과 선교학은 그 건물의 기반구조다. 외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튼튼한 구조와 기반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최근 한국 교회는 자기 신학화와 자기 선교학화의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온누리교회는 이 운동에 다양한 방식들로 참여할 수 있다. 언급했듯이, 선교학 연구 센터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신학대학원 및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한국과 아시아에 걸친 자기 신학화, 자기 선교학화 포럼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와 비서구 컨퍼런스에서 세계 기독교에 대한 최고의 자료를 수집 편찬하여 잡지로 발간하여 우리의 선교학자, 선교학자, 선교사에게 글로벌 선교학 동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별적인 선교 연구를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와 글로벌 선교 공동체 간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서 이재훈 목사와 안성호 교수가 발표한 내용 전문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news.onnuri.org).



# 일대일 제자양육의 미래

## 나누고, 전수하고, 뺏어나가는 '일대일 제자양육'

### 일대일 제자양육을 논하다

- 1.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 2. 일대일 제자양육의 미래

11월 7일 '일대일제자양육 30 페스티벌'이 열렸다. 온누리교회 양육의 큰 기둥인 일대일 제자양육의 목적과 유익을 되새기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 단순히 성도의 신앙 성숙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차세대에게는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으로 뺏어나가 제자를 낳고 또 낳는 재생산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 이날 행사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의 목적과 유익, 차세대 일대일 제자양육의 필요성과 목적, 일대일 대외사역의 영향력을 함께 공유했다. 다음은 일대일의 미래에 대한 글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 아래 글들의 전문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news.onnuri.org).

### 일대일 대외사역



허복만 장로

2003년 3월, 2천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Acts29' 비전이다.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 목회 프로그램, 양육체계, 선교, 공회 사역 등의 사역을 국내외 지역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이다. 이때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다른 교회들과 공유하는 대

## 강력한 재생산의 파급력

외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침체 또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회자들이 많이 목양을 주도하고,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목회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목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대일 제자양육 도입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일대일 사역을 요청하는 주변교회에 꾸준히 일대일 양육자를 파송해 왔다. 그중에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잘 정착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곳도 있고, 또 정착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난 곳도 있

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강력한 선교의 도구인지를 알리고 교육시켜야 한다. 중국과 케냐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그 예다. 이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었고, 재생산이 이뤄졌다. 양육되어진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로 양육이 확산되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들의 숫자가 150만 명이라고 한다.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이 체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 갈 때 현재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강력한 재생산의 파급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교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 온 교회로 퍼져 나갈수록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하여 밋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 10기 모집

### 14일부터 서빙고 시온홀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 10기를 모집한다.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은 오는 14일부터 4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주민선교학교는 다문화권을 비롯해 한두, 아랍, 불교권 등 다양한 문화

와 관습을 배우는 과정이다. 타문화권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주민선교학교에서는 이주민에 선교에 대한 실제적 이론과 사례, 온누리 M센터 현장체험학습, 19개 외국어 예 배공동체에서 동역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3337-3327



주일강단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목사

#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

역대상 28:20~21

“주님께 뜻이 열려 있고, 후퇴를 모르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21절).

1865년 6월 저희 고조할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쓴 글에도 기술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영국 남부에 있는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에서 글을 남기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4명의 사람을 주시는데 뜻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의 시작입니다.

###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선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약 6년 동안 중국을 섬겼습니다. 1860년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5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제발 좀 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가 영국 브라이튼에서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마침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허드슨 테일러가 오래 전에 섰던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에 가서 교회를 찾기는 했는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숲을 파는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교회가 다른 나라에서 세워졌지만 서구에 있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사들을 보냈던 나라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무렵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을 머금고, 150년 전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우리를 돌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구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기를 썼는데 그중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명 이상 되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중국의 중국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찾아간 브라이튼의 해변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 해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을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나에게 오셨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를 발굴해 낼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내륙에도 복음전도자들을 보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방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선교지로 부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의 심령에 갈등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50여 년 전에 성령의 침투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침투해 들어와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기술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 24명을 중국을 위해서 준비해달라고 썼습니다. 만약 중국의 11곳의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2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22명인데 나머지 2명은 동굴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24명을 데리고 중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거룩한 일을 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니라. ‘강하고 용감하게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짓는 모든 일에 도울 준비가 돼 있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네 모든 명령을 따를 것이다.’”(20-21절).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를 심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었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19절).

하나님은 21세기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해주심으로 시작합니다. 들림 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이념으로도 구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세상을 네 가지 종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슬림들입니다. 약 15억 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나 태국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2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둘째, 중국인들입니다. 13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미진도 종족 가운데 가장 큰 부류 중 하나입니다. 셋째, 불교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에 10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니라. ‘강하고 용감하게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20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많은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진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제각기 다른 기술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술을 주셨습니다.

21세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협력해서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기존의 선교 방법은 많은 나라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끈 뜻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어드리는 마음을 충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후퇴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도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뜻이 열려 있고, 능력을 사용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범원 부장 one@onnuri.org



#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청년들

## 선교 소식통 '하늘공동체'와 노방전도 'SNS공동체'

### 청년, 선교와 전도를 노래하다

대학청년부 하늘공동체는 선교의 주역이다.故 하용조 목사가 "청년의 시기에 인생의 십분의 일을 선교 지에 드리자"고 선포하자 하늘공동체 소속 청년 1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들은 열방으로 나아가 발로 뛰면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렸다. 여기 선교의 주역이 또 있다. 이번에는 국내 선교다. 고속버스터미널, 용산역 등지에서 노방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SNS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SNS공동체는 중보기도와 탈북자 섬김에도 여념이 없다. 청년들의 선교이야기를 담았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하늘을 품으면, 선교사가 됩니다. 하늘을 품는 것은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공동체하면 가장 먼저 선교가 떠오른다. 하늘공동체는 은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중에서 'FA(Frontier Agency:전방개척선교사역) 9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 N국에 7명, I국에 2명을 파송했다.

TP(Turning Point)선교사 한명도 일본에 파송했다. 하늘공동체 소속 청년 10명이 실시간으로 선교지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청년부에서 하늘공동체는 선교지 소식통으로 불리고 있다.

### 선교지 소식 듣고 기도 이어져

선교지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대략 이렇다. N국에 파송된 단기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에는 선교지 정세가 상세히 적혀있다.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혼란스

배반주와 복순, 집회,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고 있다. 우리는 다음 날 주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CGNTV로 예배드리고 있다. 언어훈련을 마치면 관계전도를 나간다.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탐방하고, 전도를 한다."

선교지에서 밤 빠르게 전해오는 생생한 소식은 청년들에게 적잖은 도전과 자극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자극은 선교사를 낳고 또 낳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 예수 전하는 동역자가 되고 싶어서

하늘공동체는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매일 셋째 주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FA팀과 TP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늘공동체 주보에는 '선교지에서 보내는 편지'란이 있다. 그곳에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도제

### SNS공동체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

매주 토요일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 SNS공동체 지체들이 노방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청년들이 노방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SNS공동체 전도팀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노방전도에 자신감이 넘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도현장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용산역 광장에 노방전도를 갔을 때에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그 뒤로 장소를 고속버스터미널로 옮겼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들이 노방전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한 장의 전도지와 사영리가 전부다.

서유진 자매는 지난해 SNS공동체 선교 MC로 섬겼다. 그녀도 처음에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외면을 당했

다 멈추지 않는 중보기도 모임 아님까. SNS공동체는 매주 토요일 4시 서빙고 은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매일 2시간 예배를 위해 토요일과 주일예배 시작 2시간부터 중보기도에 집중한다. 이것이 SNS공동체 부흥의 원동력이다.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예배를 위한 마음가짐을 바로하기 위해서다. 또한 육신의 아픔이나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SNS공동체의 기도행진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 중보기도와 탈북자 사역이 원동력

남궁성 자매는 "SNS공동체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고, 기도자라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N국에 파송된 하늘공동체 FA 9기.



매주 토요일 SNS 중보기도 모임.

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매 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견디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한다. 선교지에서 보내는 하루에 대해서도 적어 보냈다.

"선교지에서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새벽 여섯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언어 공부, 성경공부를 반복한다. 환경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강도 높은 언어 훈련과 심습을 매일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우리가 언어훈련을 고되게 받는 이유는 밤 빠른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선교지에서는 주일날 풍경도 다르다. N국은 토요일이 주일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

목과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알린다. 하늘공동체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예수 전하는 동역자가 되고 싶어서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향초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판매한 수익금을 선교 헌금으로 봉헌할 예정이다. 하늘공동체 선교팀은 "향초에는 선교지에 복음의 불이 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4880-8038  
(하늘공동체 선교MC)  
선교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2-652-359227 김지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다.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희선 자매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상을 보고 예수를 만났다.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복음은 제 자신이 완전히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된 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SNS공동체는 2년 반 만에 10배나 성장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비가 오나 눈이 오

탈북자 사역에도 열심이다. 지난해 이맘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탈북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란 청년들이 마음을 모았다.

정희선 자매는 한 달에 한 번 탈북자 사역 기도모임에 참석한다. 그녀는 탈북자 사역을 하러갈 때마다 오히려 섬김을 받고 돌아온다"고 고백했다. 탈북자들의 고백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도 점검하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SNS공동체는 노방전도, 중보기도, 탈북자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들이 발걸이 닿는 곳마다 그 육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



CGNTV 직원들이 드림온콘서트에서 특순을 선보이고 있다.

## CGNTV후원 위한 드림온콘서트

### 278명 참석 ... 비전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후원 동참

'2015 CGNTV후원을 위한 드림 온콘서트'가 지난 12일 장충동 그랜드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렸다. CGNTV운영위원회와 후원자 등 278명이 참석했다.

드림온콘서트는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CGNTV프로그램 출연자 특순, 클래식 연주 및 간증, 글로벌 선교 이야기,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의 후원약정 순으로 진행됐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광고 없이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CGNTV가 170여 개국에서 방송될 정도로 세계적인 선교복음 방송으로 거듭난 것은 모두 후원자들 덕분"이라고 감사인사를 했다.

이재훈 목사는 "CGNTV를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는

것"이라며 "후원자들 모두가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선례 장로(가정사역공동체)는 "CGNTV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1

▪ 간증



## 10배, 100배 넘치는 축복

/ 오미희 집사(방송인, CGNTV 후원자)

몇 년 전, CGNTV 후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재정적 상황이 좋지 못한 때였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터라 후원하는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었다. 얼른 이 자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상이 흘러나왔다. 선교사 자녀들의 인터뷰였다. 부모 따라 외진 곳으로 간 그들은 선교지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외롭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CGNTV를 보면서 위안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 영상을 보고 CGNTV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받은 것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다. CGNTV를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비록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흔쾌히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CGNTV에서 받은 출연료만큼 후원하겠다고 약

정서에 기입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기쁘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현실로 돌아오니 지난밤 약정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돈도 없는데 빚하러 후원을 하겠다고 했나 싶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심정을 심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험에 든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고 후원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넘치도록 부여 주셨다. 1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했다.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후회한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02

## 양재 유년 3부, NGO 더멋진세상 후원

### ‘나눔 가족 걷기 대회’서 적립한 21만원 전달

양재 유년3부가 ‘나눔 가족 걷기 대회’에 참가해 적립한 21만원을 NGO 더멋진세상에 기부했다.

지난달 31일 양재 유년 3부가 나눔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눔 걷기 대회는 양재천 근처 3.5km를 걸 으면서 구간별 포인트를 적립해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는 행사였다. 100

여명이 참석했다. 양재 유년3부가 적립해 기부한 금액은 세네갈 본나라마 을 케르발라 초등학교에 학용품을 기증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가일 교사는 이날 행사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 “지금도 바로 중동의

##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1. 일본 비전교회
2. 아부다비 비전교회
3. 미주 비전교회



김태완 목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자 감지가 큰 지진이 일어난다.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부엌엔 쇠사슬이 풀렸다.

요즘 아랍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 하다 보면 중동의 상황이 마치 이 사건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중동의 영혼들이 이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들은 기두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 아랍, 페르시아, 투르크 문명권에서 시작된 중동의 역사

‘중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 IS와 메르스를 떠올린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다. 아랍 사람들은 다들 낙타타고 다니고, 대추야자를 먹고, 무더운 기후와 사막 가운데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동의 문화, 지리, 기후, 종교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이슬람권은 크게 세 개의 문명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랍 문명권이다. 이집트를 필두로 고대 문명의 발흥지 이라크와 시리아, 페니키아 혹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잘 알려진 레바논, 이슬람이 발흥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유한 산유국들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아랍 문명권이다. 아랍어를 공통으로 쓰고, 이슬람을 믿는다. 그러나 아랍 문명권 안에 수많은 이슬람 종파가 존재한다. 또한 경제적 수준과 인구, 정치체제 등이 다양하다.

두 번째로 페르시아 문명권이 있다. 이들은 과거 구약성경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제국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장 큰 민족 쿠르드, 아프가니스탄 등도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대부분의 이슬람이 엄격한 율법과 규율을 강조하는 수니파에 반해서 페르시아 문명권 국가들은 대부분 시아파의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이라크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상당한 수의 시아파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터키를 중심으로 한 투르크 문명권이다. 과거 오스만제국의 영광 속에서 승승장구하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급격하게 몰락했다. 터키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이 들어가는 국가들은 투르크 문명권으로 끈끈한 유대와 형제애를 과시한다. 아직도 중동의 맹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원래 중동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정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서구열강은 이들 국가들을 독립시켜준 뒤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의 다양한 세력들과 종파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약속과 타협을 했다. 중동 지역은 오랜 역사 동안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국경선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려진 국경선 안에서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됐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국가를 만들어가는 전제군주 국가 체제나 독재정부 체제로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로 재편되면서 이들 독재자들과 군주들은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권력을 강화했다. 독재 정부 아래서 신음하던 이슬람 리우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세력화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집트의 경우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1950년대 이집트의 지도자 나세르는 원래 군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그는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아랍권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야심을 보였다. 그는 이집트의 독립 이후 냉전체제 아래서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아랍식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슬람보다는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 체제를 실행했다. 이런 군부 독재 지도자들 아래서 이슬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한 와하비즘 등의 근본주의 이슬람 사상을 통해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 건설을 꿈꾸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 불만세력들에게 접근하기 시



이라크 난민촌.

작했다. IS나 알카에다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중동의 경제 침체와 사회 불안, 젊은 층의 심각한 실업문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동에 냉전체제가 마무리되면서 힘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최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예멘의 경우에도 냉전체제가 끝나면서 소련의 군사지원이 끝나고,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내전이 이어지면서 혼란에 빠진 경험이 있다. 점차적으로 중동의 독재국가들과 왕정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체제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된 것이다.

### 혼란 속에 세력 키운 무장테러단체들

2011년 제스민혁명이 폭발하면서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중동을 힘으로 통치하던 독재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가장 좋은 예일 것이다. 그동안 중동의 각 나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 이슬람 종파, 종교별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서 중동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라크와 시리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두 나라는 아랍식 사회주의정당인 바아쓰당이 집권해 오랜 기간 독재체제를 유지했다. 그 안에는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 민족 등이 다양한 형태로 공존해 왔다. 집권했던 독재자들이 소수와 출신들이었고 오랫동안 다수파를 힘으로 장악했다. 이라크는 대테러전쟁의 여파로, 시리아는 제스민혁명의 여파로 독재자들에게 힘의 공백이 생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양한 인종과 종파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고 급기야 내전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공백을 이용해 IS나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테러단체들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IS는 선교사나 기독교인들, 서양인들에게만 잔혹하게 살해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국의 다른 이슬람 종파들과 인종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집트나 튀니지 같은 나라들은 선거를 통해 이슬람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슬람이 건설하는 이상사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철저히 무너졌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르시 정권(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던 1년(2012년 7월~2013년 6월)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파탄났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오히려 무슬림 형제단 집권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에 실망하고 공개적으로 이슬람 신앙을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슬람의 폭정과 테러, 잔인함에 치를 떨고 난민이 되어 주변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위기 와 혼란 속에도 희망이 자라고 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이라크 E지역(북부 쿠르드 지역)의 상황을 들여보면 놀라움 그 자체다. 많은 쿠르드인들, 이라크인들, 코바니 종족들이 IS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라크 북부 인근의 쿠르드 자치주로 피신을 나와 있다. 이들은 IS 때문에 이슬람에 너무나 실망을 했고, 복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은 중동



# 문 여는 황금기회다”

## 영적, 지적학적, 전략적 선교 베이스캠프에 세워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재스민혁명, 내전, 대테러전쟁 여파로 위기에 빠진 중동에 복음 전해야



이리크 난민촌의 아이들.

의 감옥을 기반부터 흔드시오, 닫힌 문을 열고 계시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기회를 열고 계시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4년 전 중동 아라비아반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 영적, 지적학적, 전략적 선교 베이스캠프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들이 연합해 국가를 세운 나라로, 중동에서 가장 발전하고 부유한 산유국 중 하나다. 한국에서 몇 년 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주주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중동의 경제 붐을 다시 만들기 위해 땅을 흘리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영적으로, 지적학적으로, 선교전략적인 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위치적으로 이곳은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NGO 및 민간기업’을 필두로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 가나, 감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지에서 구호사업과 재개발, 현지교회 협력 사업, 교회개척 등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아웃리치팀들이 이 지역을 갈 때 걸리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30시간이 넘는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거쳐서 가야 한다. 아부다비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주요국들은 물론,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까지도 5시간 안에 비행기로 연결될 수 있다.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잠시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선교베이스로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는 201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중동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온누리 선교사들을 초청해 쉬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OMC(Omnari Mission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다양한 사역들을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현재 UAE 인구는 950만 정도다. 인도인들이 260만 명으로 27%를 차지하고, 파키스탄 사람이 120만(13%), 아랍에미리트인이 108만(11%), 방글라데시 70만(7%), 필리핀 52만(5.5%), 이란 50만(5.2%), 이집트 40만(4.2%), 네팔 30만(3.13%), 중국인 20만(2.1%)이 살고 있다. 이외에도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영국, 수단, 소말리아 등 10만 명이 넘는 다양한 국적의 인구들이 있다. 한국 사람은 2만 명 정도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각 토후국마다 종교 부지를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민족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종교 부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울러 복음주의 교단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비자도 발급해 주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과 교회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사역, 출판사역, 현지교회 협력사역, 난민사역 등 각종 금융·구제사역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의 사명과 역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올해를 온누리교회 양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해로 삼고 양육에 힘쓰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아부다비를 방문

하고 새롭게 정착했다. 몇 년의 근무가 끝나면 다시 임지를 바꾸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의 입출입이 항상 자유롭고 다양하다. 그래서 늘 교회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은 온누리교회 양육체제 안에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교회의 역량을 디아스포라 사역과 레이버캠프 사역, 난민사역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전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사역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미 성도들 중에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제3국 이주민 근로자들과 우정을 나누고,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내년에는 교회적으로 이웃사랑을 주제로 캠페인을 벌여나가려고 한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친구관계를 통해 전도해서 아부다비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레이버캠프 사역을 더욱 확대해 가고자 한다. 아부다비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림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다. 림아일랜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노동자들의 숙소가 있다. 그곳을 ‘레이버캠프(Labor Camp)’라고 부른다. 아부다비, 무사파 등지에 수많은 레이버캠프가 있고, 규모는 수천 명이 넘는다. 미국의 한 사역단체가 림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무사파를 비롯해 많은 레이버캠프에 있는 인도인, 파키스탄인, 필리핀,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도 이 단체와 연합사역을 펼쳐 올 하반기부터 레이버캠프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해 전도회를 열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레이버캠프 사역에 동참해서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안산M센터처럼 이주민사역을 위한 선교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지원과 사역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라크나 중동의 분쟁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다. 이곳 지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사역에 대한 정보도 얻고, 함께 중보하며 난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이라크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쓰인다. 내년도도 이러한 금융사역과 구호사역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현장 베이스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6년은 중동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슬람의 근본을 뿌리부터 흔드셔서 수많은 사역들이 중동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상황, 중동의 경제 불안과 정치 불안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이동하게 될 것이다. 바운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대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과 문물들, 사상들이 교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그 역사의 흐름한 가운데에 있다. 비교적 IS나 이슬람 테러단체들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고, 중동의 거대 도시로서 불지와 인적 교류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수많은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이 아랍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금요일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격이다. 선교사들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좋아한다.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위트가 된다. 아부다비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추수할 것은 많이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7-38).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고 말씀하셨다.

블레싱 사하라 이후 다시 한 번 중동을 위해 중보기도와 사역, 헌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하나님은 지금 중동을 기초부터 흔들고 계신다. 중동의 열린 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쿠르드인들,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 아랍교회와 협력해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집트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집트와 아랍 전역에 꿈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위성방송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아프리카와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들과 가정부들이 아랍 현지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년에는 아랍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목회칼럼 서경남 목사(인천 은누리교회)

## 인천 송도에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꿈

‘오픈 메시아’ 합창은 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교회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우연히 본 기억이 있다. 그들은 ‘메시아’를 불러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악보를 가져와서 같이 부를 수 있다. 전 세계 헨델의 메시아를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시아’를 자신이 기본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우월감이 있다. 하나의 경험이다. 내가 본 특별한 경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이 합창을 부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파트별로 함께 찬양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젊은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메시아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뜻한다. ‘기묘자라, 모사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인천 은누리교회는 내년 2월부터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처소를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

다. 성도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천에서 복음이 흘러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땅이 인천이기 때문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4년 조선선교사로 임명받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도착했다. 그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부두로 상륙해 한국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나는 인천이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이 많은 선교사들이 입출국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많은 이들이 머무르

는 선교의 거점지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송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전문 인력들이다. 교사와 금융업 종사자, 기술 인력자 등이 인천에 있는 여러 기관에 전문 인력으로 포진되어 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송도에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한국은 싱가포르나 중국처럼 영어가 모국어 아니지만, 제3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다문화대를 양육시킬 수 있는 비전을 꿈꾸고 있다.



## 드디어 물이 나왔다

###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식수사업 성과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5일 오후 4시경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에서 두 번째 시추를 한 끝에 지하 73미터에서 시간당 1500리터의 물이 뿜어 나왔다.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 사람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 시추장소 선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렵게 선정된 3곳 중에 1곳만 시추가 가능했다. 지난 10일 1차 시추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2차 시추 끝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 성공으로 약 천명의 주민들이 식수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식수 및 우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2013년부터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에서 '더멋진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조식소 건축 및 운영, 시범농장, 양계장 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응호망가 마을에서 식수를 시추하고 있다.

#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 1 선물 준비

### ·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국내에 있는 선교사 포함) 보안지역에 있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단체 주소록 참고.)
- 3) 편지쓰기 :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물이 돌아와면서 한마디씩 적습니다. 필히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 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우체국에 기준하는 소포 포장이어야 합니다.
- 5)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사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 · 선물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3)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 (자녀 수와 연령 확인) :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물감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장갑, 모자, 큐티책, 게임 S/W,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보안지역 제외 품목 :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서리 등

##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모슬렘, 선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선교사의 신분 보장하기 위한.

-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과 편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기사항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선교단체와 사전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 · 보안지역 안내

공산권-중국  
모슬렘권-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북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힌두교권-인도, 네팔 등(비자 제한 지역)  
불교권-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다만, 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예수전도단은 예수전도단에 현지 주소 문의 후, 발송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 3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최희준 간사 02-3215-3208, abc12@onnuri.org)

## 4 우편요금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5 선교단체 주소록

단체	주소	문의
비전빌리지 TIM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지면 추계로 62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지면 추계로 62	031-331-8100
이전선교 후원사역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03 현대아파트 31동 202호	070-4949-7882
경배와 찬양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바울 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F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86-4번지 지아나빌딩 2층	02-576-8503
중동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6-3 한일빌딩(선교재일교회) 4층 401호	02-3436-3307
창조과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5층	02-419-6465
BEE KOREA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me Mission (한국침례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9-21번지	070-8250-3985
Cornerstone (모용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Destination	kdestination@hanmail.com	+902323648028
FMn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 오산빌딩 3층	02-848-6251
GBT 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05-29 신현대유오피스텔 406호	02-598-5324
G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1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GO 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오금리로 금학동 549 2층	02-400-9182
GP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2층	02-443-0883
HOPE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oop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634 열방센터	070-8787-8807
InterServe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플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ITM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81-12호 2층	02-2695-1451
KIBI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08 대릉빌딩 1층	02-792-7075~6
OM 선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4-60 세션회관3층	02-6925-3333
O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63-32 호연빌딩 2층	02-455-0261
OMC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 369 성향빌딩 4층	02-3459-1031
UPMA 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회회 4층	050-5315-1993
WE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승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02-322-0563

## “관심 어린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목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오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나온 세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맞이하는 느낌 또한 남다르다. 나도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맞이하던 크리스마스를 떠올려보면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부모를 따라서 오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사람, 가족과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맞이하기 때문이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낯설거나 어색한 시간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선사 해주면 어떨까. 기쁨은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의 관심 어린 손길이 필요하다.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전해져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시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작은 선물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확신한다.

/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 선교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된다

2013년부터 양재 은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에서 타지키스탄의 선교사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비즈니스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봉사단체들은 많다. 여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곳의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3개월 동안의 방학이 길게만 느껴진다. 딱히 갈만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선교현장에 와서 선교사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과 그들로부터 온 선물을 받을 때마다 행복해 한다.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기억이 된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비전을 찾고, 열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선교사 자녀들을 잊지 않고 선물을 전해주고, 찾아주고, 섬겨주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타지키스탄 섬김이



## 온누리 선교사,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

### 박세업 선교사 대통령상, 한영훈 선교사 국무총리상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박세업 선교사와 한영훈 선교사가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25일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최한 '제1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박세업 선교사가 민간부문 대통령상을, 한영훈 선교사가 정부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세업 선교사는 모로코에서 결핵퇴치 및 학교보건사업을 하고 있다. 모로코, 베트남, 몽골 등지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한영훈 선교사는 15년 동안 몽골 빈민가에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 하나님 역사에서

##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1. 일본 비전교회
2. 아부다비 비전교회
3. 미주 비전교회



권혁빈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 〈미주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미국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2.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의해 교리와 기독교 관련 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3. 미국의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4. 미국 신학교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온누리교회는 국내 10개 캠퍼스뿐만 아니라 해외 4개 권역에 30개 비전교회를 두고 있다. 그중 미주지역에 절반에 가까운 13개 교회가 있다. 그만큼 미주지역 해외비전교회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영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6월 미 연방법원이 동성애 합헌 결정을 내렸고, 종교차별을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기독교를 차별하는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없고, 다음세대들의 교회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주 지역 비전교회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얼바인 온누리교회 권혁빈 목사가 미국 기독교의 위기와 미주 지역 온누리 비전교회의 사역방향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뜻하지 않았던 미국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온지 벌써 4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OMA(Onnuri Mission Alliance)와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섬기며 해외비전교회의 정체성과 이민자들의 고뇌와 아픔, 이민 목회에 대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직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다양성의 총화로 불리는 국가답게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시대정신의 한 가운데에 있다. 사회 곳곳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차별 문제와 흉기 사건들, 물질적 풍족함 가운데 안 초처럼 자라는 각종 사회 문제는 청교도 정신을 가졌던 국가라는 자부심을 무색하게 한다.

경기 회복세는 약간 있다고 하나, 소규모 비즈니스까지는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금리인상과 앞으로 다가올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대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다.

### 동성결혼 합법화 ... 영적 위기에 불붙어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와 기관 피해 예상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아무래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이다. 미국에 산다고는 하지만 서부 한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살고 있고, 한인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미국의 영적 상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북음주의 교회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영적인 위기의식은 매우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꽤나 실질적이기도 하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더 이상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10년 내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영적 위기에 불을 붙인 것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기폭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 윤리,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이고도 영적인 충격과 파장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더욱 우려를 갖게 된다.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는 이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고, 오바마 정부는 계속해서 동성애 옹호 정책을 펴고 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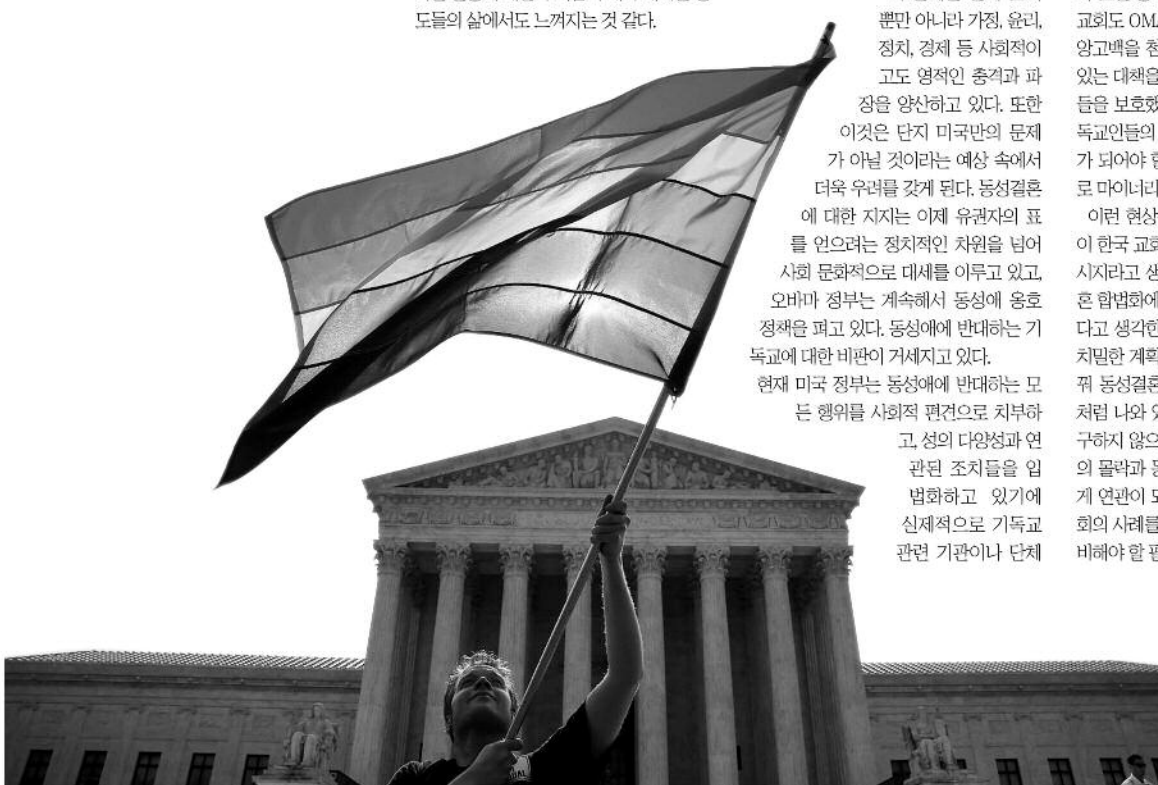
현재 미국 정부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사회적 편견으로 치부하고, 성의 다양성과 연관된 조치들을 입법화하고 있기에 신제적으로 기독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은 앞으로 동성애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의 계약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등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복사가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거나 혹은 동성결혼식을 위해 교회를 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미군에서는 군종 목사까지 성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대학들은 세습급면 혜택을 잃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학내의 서클들은 이미 등록이 거부되고 있거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교회들을 포함한 미국의 북음주의 교회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과 고민 중에 놓여 있다. 현재 미주 온누리교회도 OMA 정관(定款)에 가족에 대한 신앙고백을 첨부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전에 동성애자들을 보호했던 차별법이 이제는 역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들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아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아주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법조항을 바꿔 동성결혼 합헌을 이끌어냈는지 매뉴얼처럼 나와 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잘 연구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위험하다. 교회의 몰락과 동성결혼 합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 위기는 늘 최고의 기회

## 미국 교회 위기 ... 동성결혼 합헌, 차세대 교회이탈, 신학교 몰락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사례 바탕으로 영적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지난 6월 25일에 열린 뉴욕 게이 퍼레이드 'NYC 프라이드'

### 한인 2세들의 교회 이탈 현상 가속화 미주 한인교회 미래가 불확실하다

영적인 위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또 하나는 다음세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다른 교회들은 물론이고, 신앙적 열심이 가장 뜨겁다고 하는 한인교회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미주 한인교회들의 존립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이민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인 2세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민교회의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것을 흔히 Silent Exodus(조용한 탈출)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할 때까지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미주 온누리교회들도 이에 대한 신중하고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교회가 가정과 협력하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차세대에 대한 교회적 관심과 투자를 강화하며, 차세대와 EM(English Ministry)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책임목회제와 OMA 교단화 목회적 한계 극복, 연합·교류 활성화 기대

최근 몇몇 미주 온누리교회들은 현재 담당 목사제를 담임목사제로 바꾸는 이른바 '책임목회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계속 제시되어 온 담임목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도록 인해서 생기는 목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이다. 대상은 미주 13개 중에 알바인, 뉴저지, 밴쿠버, 산타모니카, 뉴욕인투를 제외한 8개 교회(LA, 샌디에이고, 글, 보스턴, 네이퍼빌시카고, 노스시카고, 포틀랜드, 앵커리지)다. 알바인, 뉴저지,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교회들로서 서울 온누리교회와 보다 가까운 비전 공유와 소통을 위해 책임목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타모니카와 뉴욕인투는 각각 알바인 온누리교회의 캠퍼스 교회이다.

시행체제에 의하면 현재 담당목사가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역한지 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인총회를 거쳐 담임목사로 인준하게 된다. 현재까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박재영 목사), LA 온누리교회(이영업 목사),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이종재 목사)가 책임목회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책임목회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미주 온누리교회 연합기관인 OMA를 그 임무와 체계를 강화하여 '교단(denomination)'으로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OMA가 교단화가 되면 그동안 개교회 차원에서 세워진 장로들이 교단 차원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신학적인 통일성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책임목회제를 시행하는 교회들 간의 연합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단화에 필요한 bylaw(세칙, 내규)와 article(조항)이 완성되었고, 각 교회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 등록 과정만을 앞두고 있다. 교단 출범식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선교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점에 주목

최근 몇 년간 미주 온누리교회들은 각 지역에 속한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보다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지역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고, 연합행사에 참여하고 섬기며, 이웃 교역자들과의 활발한 교제를 통해서 지역 한인교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OMA는 2014년부터 각 비전교회가 지역사회 또는 지역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실행할 경우 격려와 후원 차원으로 매년 2000불씩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주 비전교회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껏 다양한 사역과 헌신이 이루어져 왔다.

이웃과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른 다민족 교회들이나 선교 차원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 비전교회에서는 주변의 히스패닉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 큐티와 일대일 사역을 소개했다. 매우 좋은 반응과 기대가 있었고, 앞으로 그 사역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교회 주변에 있는 대학에 세계 곳곳으로부터 온 학생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적 정책도 세워지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 우수한 대학들이 즐비한 보스턴과 시카고, 뉴욕, UCLA를 위한 전략적인 교회 산타모니카, UC Irvine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알바인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각지의 미주 온누리교회가 품고 집권할 수 있는 대학들이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무슬림 등 선교지에서 온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신체적 선교지'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앞으로의 미주 비전교회들의 비전과 사역이 될 것이다.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직접 가는 것과 비교할 때 더 높은 효율과 많은 참여의 가능성이 있다. 선교지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주 온누리교회들은 각기 어려운 목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주 비전교회들을 되돌아보면 교회가 내외적으로 많이 성숙했고, 이제 다음 단계의 허니문 나라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미주의 정치, 사회적인 요소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목회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많다. 물론 미주 온누리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위기는 늘 최고의 기회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둠과 거친 파도를 'Acts28'의 영성과 '예수바보행진'의 비전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더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다.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민 사회에서 다음세대를 향해 도약하며 대안적인 이민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미주 온누리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다

### NGO 더멋진세상이 복구한 네팔 교회 세 곳 헌당예배

NGO 더멋진세상이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웠다. 지난 24일과 25일 네팔 고르카 지역 교회 세 곳이 다시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헌당예배를 드렸다.

고르카 지역은 지난 4월 15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곳이다. 당시 교회도 처참하게 무너졌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곳에서 지진 발생 직후부터 긴급구호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공사를 병행했다.

공사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4일과 25일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24일 오전에는 걸랑은혜교회, 오후에는 나레스웰교회, 25일에는 샤울리교회에서 헌당예배를 드렸다. 특히 걸랑은혜교회 헌당예배에는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했



복구된 세 곳의 교회 중 하나인 걸랑은혜교회.

다. 헌당예배에 참석한 김창욱 전도사는 “다시 세워진 교회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구호활

동을 펼쳤던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무너진 주택 70여 채와 학교, 보건소,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2015 장로장립

01

## “본이 되도록 돕는 장로”



김종호 장로

대한민국 광복 70년과 온누리교회 창립 30년 해에 장로로 장립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퉁잇돌이 되고, 종교 귀족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2

##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는”



김지현 장로

믿음이 마음과 입술만이 아닌 순종과 실천으로 고백되는 장로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장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기록한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03

## “하늘나라 청지기”



이태열 장로

믿지 않던 집안에서 처음 믿은 것도 은혜인데 장로 직분까지 주시다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천대만대 이어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하늘나라 청지기’의 삶을 살 것입니다.

04

## “선교 비전이 성취되도록”



조성민 장로

미국이 역선교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민 15세인 제가 장로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역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성취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01

## 스타트리 아카데미 총무교사 모집

### 안산 M센터, 영어회화 가능자 우대

안산 M센터에서 스타트리 아카데미 총무교사를 모집한다.

스타트리 아카데미(Star Tree Academy)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영어전문학원이다. 학업능력 향상과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교육 기관이다.

스타트리 아카데미 총무교사는

20대 후반부터 39세 이하 성도가 대상이다. 행정사무, 학생 및 교사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문화사역에 관심이 있고, 영어회화 가능자를 우대한다.

문의: 이경숙 전도사  
(010-5034-009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2

## NGO 더멋진세상, 청년인턴 사원 모집

###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12월 13일까지 신청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함께 할 청년인턴 사원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이 대상이다.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ODA자격증보유자, NGO 계통 전공자 및 경력자, 영어와 불어 능통자, 편집디자인 관련자를 우대한다.

홈페이지(<http://oda.incruit.com>)에서 더멋진세상을 검색후 지원서를 작

성하면 된다.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청년인턴 사원으로 채용되면 국내본부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12개월 근무가능) 근무하게 된다.

문의: 최진혁 실장(02-2271-2246  
betterworld87@gmail.com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01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스키를 배우고 있다.

##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

### 대청, 다문화가정 '윈터캠프' 개최

대학청년부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지난 5일과 6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윈터캠프'를 개최했다. 대학청년부는 윈터캠프에 참석한 133명의 참석자들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스키 강습, 부모들의 휴식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유해근 목사(나침교회는)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를 주제로 설교하며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을 선불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시간과 세족식도 이어졌다. 떠나할 것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윈터캠프 참석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미림 기자

02

### NGO '더멋진세상' 창립 5주년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0일 서빙고 은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드린 NGO '더멋진세상' 창립 5주년 감사예배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이재훈 목사

는 "NGO 더멋진세상이 20여 개국에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지구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03

### CGNTV 다큐 'MK의 고백' 특별상

####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부문

CGNTV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MK의 고백(처음 만나는 MK 이야기)'이 제7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MK의 고백'은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들의 속마음과 고민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014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26677명이고 선교사 자녀가 18442명에 이르는데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 'MK'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

고 있었다. 이에 CGNTV는 MK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MK의 고백'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MK의 고백'은 한국 교계 방송 최초로 선교사 자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선교지와 교계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올해 7회를 맞이한 한국기독교언론대상은 공평과정의 나눔과 생명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을 추천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MK의 고백 다시보기: [www.cgntv.net](http://www.cgntv.net)

▪ CGNTV '여성선교사 다큐' 감상평



# 일어나 함께 가자!

/ 함OO(OSOM 훈련생)

130여 년 전 황폐한 조선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여성 선교사들을 통해 가장 낮고, 이름도 없는 조선에 찾아오셨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파하며 슬픔을 경험하셨다. 그들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셨다.

여성 선교사들의 사랑과 열정은 130년을 뛰어 넘어 '일어나 함께 가자'며 나를 깨웠다. 나는 아내이며, 세 아이의 엄마이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여성 선교사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는 아이들이 아플 때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힘든데,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으로 자녀를 잃는 경우도 많았다. 소중한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만약 선교지에서 남편이나 자녀를 잃으면 그곳에서 계속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선뜻 대답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여성 선교사들의 이러한 아픔들이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조선 여성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

깊이 다가왔다.

로제타 홀은 김점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 아이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에 김점동은 “언니가 가는 곳이면 나를 데려가 돕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다. 로제타 홀의 사랑이 김점동에게 전해졌다.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다. 김점동은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로제타 홀이 김점동을 꿈꾸게 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한 여성 선교사의 사랑과 열정이 조선 여성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나누어주었던 여성 선교사들의 삶과 사랑을 통해 '나는 어떤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삶과 복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보고, 만질 수 있기를 원한다. 제2의 김점동과 여메레 같은 제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음의 바통을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해주는 꿈을 꾸고 있다.





장로칼럼 최주관 장로(성북공동체)

## 진정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

7-8년 정도 인도네시아로 매해 아웃리치를 갔었다. 아웃리치를 가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알게 되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친밀감도 느끼게 되었다.

나는 2010년 12월 25일 장로로 장립 받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기(두순회) 장로들과 제대로 교체하지 못했다. 장로로 장립 받은 며칠 뒤 인도네시아로 떠났기 때문이다. 현지에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고열과 통증을 수반한 맹기열에 걸렸다. 아내와 나는 나란히 병원에 입원했다. 호된 신교식을 치러야 했다.

자카르타와 반둥에 머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만나 교체하면서 전문인사역을 준비했다. 아내와 함께 기독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선교지에 머물렀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다. 그 나라 행정상의 문제와 경비 문제,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결국 3년 만에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했던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을 위하기보다 나를 위한 마음이 더 크고, 눈을 찢고 찾아봐도 내 안에서 겸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훈련받지 않고 나가서 그런지 미숙한 점이 정말 많았다.

“흠 없이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본국에 있는 것이 낫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상과 구별되며, 진실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 적이 언제였는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과 믿음이 진정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금인지 지푸라기인지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나름대로 열심히 공동체와 목요선교집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너무 멀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제2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 성북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목요선교집회를 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온누리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 한걸음씩 새롭게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 물질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늦었지만 허락하신다면 훈련을 받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싶다. 많은 영혼들을 울게 데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2000선교, 간증집 〈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 발간

2000선교본부가 12월 24일 간증집〈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를 발간한다. 간증집〈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에는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56명의 간증이 수록되어 있다. 간증집〈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 엔젤트리, 노숙인, 쪽방촌, 다문화가정 섬김, 쓰러진 소년 위한 기도까지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작은 예수를 덕분에 더 이상 출지 않다. 사회선교부는 엔젤트리 행사, 대학청년부는 노숙인, 쪽방촌, 다문화가정 섬김, 안산M센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열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뇌출혈로 쓰러진 성균이를(10살) 살려 달라고 한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었다. 그 기도 덕분에일까, 성균이가 62일 만에 깨어났다. 이처럼 구들장 같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편집자 주

### 62일 만에 깨어난 성균이

지난 7월 4일,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성균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였다. 성균이는 이제 겨우 10살이다. 성도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던 소년이었기에 더 비통했다. 성균이는 성품이 바르고, 성숙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아이였다. 야구와 수영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어느 날 수영을 하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결국 수영장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아파의 전화번호를 말할 만큼 의식이 분명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잠이 들었다. 성균이가 쓰러지자마자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다. 그 작고 푹푹하던 아이의 뇌혈관이 갑자기 타진 것이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균이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아가 성균이와 성균이 부모를 위로했다. 그렇게 잠이 든 성균이는 62일 만에 깨어났다.

“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균이가 잠에서 깨자마자 한 말이다. 성균이는 지금 간단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성균이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다. 그것은 아빠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꿈이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균이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빠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다.

누구보다 성균이 엄마가 고생이 많았다. 성균이 엄마는 내년 1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임신한 몸으로 6개월 동안 성균이를 간호하면서

지칠 법도 한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성균이 엄마는 건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균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힘을 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성균이를 엔젤트리 사연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지금 남양주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성균이의 사진과 동영상도 가득하다. 지금 남양주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에는 성균이를 응원하는 편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성균이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기도하겠다는 내용들이 적혀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 열매가 이토록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

### 꼭 필요한 선물 받은 이웃 2천여 명

엔젤트리에 맺힌 열매가 여기 또 있다. 엔젤트리가 이번에는 노숙자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옷을 보내주었다.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엔젤트리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옷, 수면안방, 핫팩, 담요 등을 선물했다.

김공동체 이해민 지매가 SNS를 통해 헌옷을 모집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천사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다. 헌옷뿐만 아니라 새 옷이 배달된 경우도 있었다.

엔젤트리를 통해 옷을 선물 받은 한 노숙자는 “깨끗한 길옷이 없어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는데 선물 받은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는 교회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어린이처럼 좋

아했다.  
김공동체 하태성 형제는 엔젤트리 사역을 통해 “손 뻗으면 닿는 곳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사랑을 나눠준 천사들이나 받은 사람들 모두 주인공이었다. 노숙자에게 옷을 선물한 한 기증자가 보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도님 사업실패로 온 식구들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무너져 가던 가정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됐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엔젤트리에 참가합니다.”

그 천사가 보낸 선물을 수원역 앞 노숙자 나눔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올해 21살 된 형제가 받았다. 그는 지적장애인이다. 선물을 받은 그 형제가 선물을 보내준 천사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

“가끔 용돈을 벌기 위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활동하기 좋으면서 따뜻한 옷을 선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형제처럼 엔젤트리를 통해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은 이웃들이 2천여 명이나 된다. 엔젤트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따뜻하게 했는지 모른다.

### 수원역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수원역 광장에서 5분쯤 걸었을까. 다리 밑 육교에서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보였다. 모두들 성난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있다. 누가 왔는지 지켜보는 눈빛이 매섭다. 공중 화장실 옆 박스가 날부러진 이곳이 그들의 야지트였다. 매주 주일과 월요일 저녁 7시가 그들의 식사 시간이다. 대학청년부 김공동체 청년들이 브라이드치치 이하얀 목사를 도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이하얀 목사는 수원역 일대에서 ‘밥 엄마’로 통한다. 그녀는 노숙자들

에게 누나이자 엄마로 불린다. 이 목사는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올해 3년째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료수와 빵을 주던 것이 밥과 국으로 발전했다.

노숙자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네 배추밭에서 우거지를 주워다가 삶고 말리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150명의 노숙자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난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천군만마와 같았다. 힘이 힘을 합쳐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이렇게 기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새삼 다시 느끼고 있다.

### ‘사랑앓이’ 쪽방촌을 가다

지난 12일 오전 9시 여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섬기대실. 옛날 얼굴의 청년들이 하나둘 보였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대학부 Pole2공동체 지체들이다. 이날 모인 29명의 청년들은 용산구 동작로 쪽방촌에서 ‘사랑앓이’ 사역을 했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서울시 용산구 동작동에 있는 쪽방촌이다. 동자동에는 1,000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날 Pole2공동체는 가정당 쌀 20kg, 라면 1박스, 생필품(삼푸, 비누, 치약 칫솔 등), 반찬 등을 선물했다. 선물을 포장하고, 조를 나누어 방문했다. 물품이 있는 곳에서 집까지 거리가 상당한 곳도 많았는데 청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배달했다.

이날 총 50가구를 방문했다. 모두 쪽방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다.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몇 번씩이나 오르고, 성인 한명이 겨우 지나가는 통로를 지나 물품을 전달했다. 힘들게 사역하면서도 청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선물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난방은 잘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으며 살뜰히 챙겼다. 주민들도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Pole2공동체 이서진 목사는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적인 청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면서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후원과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Pole2공동체 박애리 자매는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섬김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랑앓 나눔’은 대학청년부가 매년 겨울에 실시하는 사역이다. 불우이웃 및 자살위계층 가정을 찾아가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지역을 청소하는 사역이다. 지난 12월과 19일에 은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0개 공동체는 11구역, 760가구를 방문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현장이었다.

**다문화가정 위한 ‘윈터캠프’**

지난 5일 대학청년부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윈터캠프’를 개최했다. 시빙고, 안산, 수사에서 다문화가정을 태운 버스가 일제히 강원도 원주 오르벨리 스키장으로 출발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오르벨리 스키장에 도착하자마자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으로 돌아갔다. 너나 할 것 없이 신이 났다. 그동안 팍팍했던 생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날 윈터캠프에 참가하면서 난생처음 스키를 타본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도 겁먹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대학청년부 봉사자들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다. 극진히 섬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14U 공동체 김규진 형제는 윈터캠프 내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섬기는 동안 흑사나 실수하거나 상처를 준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가 만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모,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허물없이 대했다. 그 러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캠핑 둘째 날에는 세족식이 이어졌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다. 9명의 자녀를 둔 일본인 가족이 눈길을 끌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기도해줬다. 자식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여호수아공동체 이지연 자매는 “여태껏 색안경을 쓰고 다문화가정을 바라봤던 모습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을 배운다 ‘스타트리 아카데미’**

안산M센터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다문화가정에 예수의 탄생 소식을 조금 일찍 알렸다. 지난 11일, 스타트리 아카데미가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영어무지컬로 선보였고, 초등부는 성경인물 모제가 되어 스토리텔링과 삼계명을 안송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크리스마스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등부는 영어 캐럴을 준비했고, 중등부는 중국어 노래와 피아노 독주를 했다. 은누리M센터 노규식 목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제로 설교했다.

안산M센터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해있다. 안산은 이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내국인(38%)보다 외국인(62%)이 더 많다. 그만큼 다문화가정도 많다. 2개의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에 안산M센터는 2011년부터 스타트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영어, 음악, 성경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안산M센터 스타트리 아카데미에서 한국어 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영민 성도는 서울에서 안산까지 왕복 4시간을 달리고 있다. 그는 다

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독서와 눈술,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활용교육)도 교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의 문화, 경제, 정치 등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섬긴지 8개월 정도 지났다. 조금씩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있다. 건강한 정체성과 가치관



도만 들어가고 있다. 스타트리 아카데미에서는 중학생들을 위한 영적 멘토 및 체육활동 교사, 진로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다. 중보기도자와 약기 지도를 해줄 재능기부자와 가정 방문 봉사자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1. 스타트리 아카데미
2. 엔젤트리
3. 성금이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4. 윈터캠프
5. ‘사랑앓 나눔’ 사역





선교사 간증집 <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 발간  
선교사 56명의 웃음과 눈물, 은혜와 사랑 담겨

**연재\_온누리교회 선교를 말한다**

- 1. 선교사 간증집 발간
- 2. 2015 선교헌금 결산
- 3. 2016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56명의 이야기를 담은 간증집 <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가 오는 24일 발간된다. 선교사들의 웃음과 눈물, 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온누리교회 초청기 선교사,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불편하고 힘든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부, 단 하나의 사역을 위해 22시간을 달려가는 선교사, 무슬림 청년이 교회를 세운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췌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바이라, 화장실에서 회심하다**

동아시아 A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서너 달 지났을 때 일이다. 성도 중에 신실하고 예쁜 자매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상당히 유명한 전과자에 폭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아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꾀박했다. 틈만 나면 교회에 들락거리며 아내를 감시했다. 그가 나타나면 교인들도 두려워 슬금슬금 피할 정도였다. 선교사인 나는 무서워도 그를 피할 수 없었다. 아무리 무서워도 그에게 다가가 음모수도 주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봐주고, 한없이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려 애썼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교회에 자주 있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통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말을 고분고분 듣기 시작했다. 시장판에서 종종 벌이던 싸움도 줄었다. 순한 양이 되어갔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허락하고, 자신도 시간이 되면 주말에내에 나오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주님을 영접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기대는 풍선처럼 허무하게 터져버렸다.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그가 술을 잔뜩 마시고 교회를 찾아와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이 교회 불질러 버릴 거야! 너희들 다 죽어 버릴 거야!"라고 위협도 했다. 나는 끌려가는 그녀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부끄럽고 창피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다. 주일이 되었고 나는 설교를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 밤 그는 아내

를 때리고 난 뒤 성경을 찢고 불태웠다. 성경을 태우고 난 뒤 화장실에 가려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젯티미로 변해버린 성경을 뒤척거리다 간신히 멀쩡한 종잇조각 몇장을 건져 화장실에 갔다. 불임을 보던 그가 무심코 들고 간 종잇조각에 눈을 돌렸고,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어서 말씀이 그의 가슴에 박혀버렸다.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는 내 백성을 치며 폭행하며 악행을 범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 말씀은 명백하게 그를 향한 말씀이었다. 악행을 저지른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었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일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철희 선교사

\*이철희 선교사는 동아시아 A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다. 1996년에 파송되어 20년째 사역중이다.

**너의 고맙다는 말, 하나님의 찢힌 위로**

"아빠, 선교사로 하나님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은 2012년 5월 남아시아 F국에 있는 둘째 딸 부부를 만나러 갔을 때 딸이 나에게 한 말이다. 제3세계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일하다보니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 알겠다는 것이었다. 해준 것이 고생만 시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 가정은 1983년 선교지에 갔다. 그때 첫째 아이가 6살, 둘째 아이가 4살이었다. 유난히 입이 짧았던 둘째는 달라진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다.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이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났다. 엉엉 울면서 "우리 왜 여기에 왔어?"라고 묻는데 말문이 막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9개월을 기다린 끝에 우리가 선교지로 정한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주 바뀌는 환경 탓인지 차분하던 둘째가 산만한 아이로 변해 있었다. 기본적인 공부조차 어려워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했다.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아이를 보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배푸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지내던 마을은 자연과 가까웠다. 동물을 좋아하던 둘째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많은 동물들과 어울리고, 카누를 타고 댄발로 뛰어 다니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들은 일년 동안 한국학교에 다녀야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집에서 한글공부를 또 해야 한다

는 사실이 싫어서 불멘소리를 내뿜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평평 울기도 했다. 이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우리의 사정을 들은 몇몇 지매들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었다. 선교회와 교회에서 열린 캠프와 '솔티찬양단'에 들어가기도 베풀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대학공부를 했는데 조금씩 배워둔 한국어 실력이 그때 요긴하게 쓰였다.

그제야 "왜 우리만 또 공부해야 하느냐?"며 투정부리던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줬다. 더 이상 산만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둘째 아이는 지금 남아시아 F국에서 남편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기업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아이가 "아빠, 선교사로 하나님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한 말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겪었을 수많은 혼란, 좌절, 아픔을 자식이라고 말해주는 아이가 고맙다. 아이들이 힘들 때 도움을 준 믿음의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때로는 선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의 부름에 순종해 그 자리를 지켜주니 참 좋구나!" / 박연화 선교사

\*박연화 선교사, 김의정 선교사 부부는 온누리교회 창립 2개월만에 선교를 간 가정이다(1985년 파송).

01



오비히로 교회 사모들에게 통역자 없이 일본어로 일대일 양육을 했다.

##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 첫 아웃리치

### 오비히로 목회자 사모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지난 4월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을 수료한 3명(서승욱 권사, 신우영 성도, 김정희 성도)이 특별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들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5박6일 동안 홋카이도 오비히로에서 목회자 사모 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을 수료한 양육자들이 현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우에다 온누리교회 하카타마 목사, 서

빙고 일본어예배부 김영숙 선교사, 요시하라 목사도 힘을 보탰다.

일대일 위원회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7주 동안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를 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양육자 77명을 배출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2

##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 네팔 출신 초등학생 자매 최우수상 수상

온누리M미션이 지난 13일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서 11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네팔 출신 초등학생 자매 '스미리티'와 '드리스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아브라함(네팔)이 고급반 1위, 전드라(네팔)가 중급반 1위, 알료나(카자흐스탄)가 초급반 1위를 차지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교장 이영복 장로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데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했고, 심사위원장 원우현 장로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제들이 한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을 키우는 모습이 아름다운 무지개 같았다"고 심사평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매주 주일 오후 1시~2시 2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01호에서 진행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 선교사가 보낸 편지



# 람퐁족 복음화의 꿈이 가까워지고 있다

/ 추주엽 선교사

나는 람퐁족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람퐁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님들께 알리고 싶다.

람퐁족은 1996년 온누리교회가 미전도 종족으로 입양하였다. 1999년 1가정, 2010년 1가정, 2013~2014년 2가정을 파송했다. 교회 람기모(람퐁 기도모임)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이웃리치를 다녀왔다. CMN과 각 공동체, 중고등부와 JDS 학생 등 수많은 성도들이 섬겨주고 있다.

람퐁족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스마카시 온누리 메트로 사역'이다. 현지어로 고아원이란 뜻인데, 보육원과 동일한 사역이라고 보면 된다. 중고등학교 45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동안 목사 후보생 1명을 배출했고, 신학생 5명, 신학 후보생 7명을 양육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독교대학 및 간호대학, 한국의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리더십으로 양육

중인 대학생이 30여명 정도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거나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도 10여 명에 이른다.

두 번째는 '엑스트라 무랄 사역'이다. 이 사역은 지역교회와 교단, 기독교병원과 온누리교회의 협력사역이다. 엑스트라 무랄(벽을 넘어 서라는 뜻)은 지역의 한계를 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병원과 교회가 협력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역이다. 교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영적인 부분을 보살피고, 병원은 병든 몸을 치료해주는 연합사역이다. 교회는 마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병원은 치료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형태다. 극빈자가 오면 원목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교육 사역이다. M시에 센터를 세워 이곳에서 방과 후 교실처럼 오히려 영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섬길 영

어 교사를 훈련시켜 복음전도지로서 파송하고 있다. 이미 B도시에서 4명을 훈련해 파송했다.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 2011년 H목사와 함께 P지역에 농장을 세워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이 마을은 무슬림 마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척이 아주 심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의료사역을 펼친 이후부터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한국 의료팀의 탁월한 치료 덕분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례는 S지역의 열매다. 이 지역 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의료사역팀과 현지 M병원이 협력해 의료사역을 실시했다. S브릿지 자매들이 따로 은공이 짓을 정도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무슬림 환자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3

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Y목사는 10여 년 전부터 마을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Y목사의 극진한 돌봄으로 마을 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다. 5년 만에 60명이던 성도가 150명으로 늘었다. 이 일을 계기로 M병원에서 흡케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다.

람퐁족 복음화 사역은 현지 지역교회와 기관이 연합해야 효과적이다. 지금은 람퐁 선교협의회가 결성되어 현지 교계와 단체, 사역자들, 외국 단체가 협력하고 있다. 드디어 현지 교회와 교단들이 람퐁족 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제 람퐁족 복음화를 위해 곁을마를 댄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것이다.



가정이 회심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Y목사에

람퐁족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2016 선교헌금 작정

### 1월 3일, 10일 ... 중보기도 및 재능기부도

2016년 1월 3일과 10일 선교헌금 작정 행사를 실시한다.

선교헌금 작정행사에는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다. 중보기도 및 재능기부도 후원 가능하다. 자동이체(CMS) 방식은 1월 3일과 10일 은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 신청서에 신규 후원인자 후원 연장인자를 표시해야 한다. 소속캠퍼스, 성명, 핸드폰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 생년월일도 기입해야 한다. 작정금액은 금액란에 표시하면 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현금 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고, 작정금액란에 표시해야 한다. 또 선교헌금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문의: 02-3215-3616 <관련기사7면> / 김현준 기자



# “Merry Christmas”

## 길거리 찬양, 노방전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초청.



양재 직원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영어예배, 요양센터에서 어르신과 함께.

선물했다.

유독 눈에 띄는 성도가 있었다. 이영희 성도다. 그녀의 전도실력이 탁월했다. 그녀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는 전도폭발훈련을 7년 동안이나 삼킨 전도 베테랑이다. 그녀가 최근 3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2백명 정도가 예수를 만났다.

강동 은누리교회 대학부 강수정 자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녀는 “혼자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아서 노방전도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수정 자매가 소속된 대학부 청년들은 이날 전도축제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함께 기도하고, 선물을 포장했다.

최원준 목사(강동 은누리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친숙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전도축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도축제에서 만난 한 청년은 “이력서 100통을 썼는데 단 한곳에서도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해 낙심해 있었는데 이날 전도축제 메시지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 최원준 목사가 “인생의 초고성능 자유게”를 주제로 설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2천년 동안 사람이 발명한 물건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지구개입니다. 2015년 한 해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지만, 잘못은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아픔과 슬픔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 양재, 교회직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지난 22일 양재 은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양재 은누리교회 목사들이 교회직원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한 것. 테이블마다 깨끗한 식탁보가 깔렸고, 그 위에 꽃과 촛불을 올려 한껏 멋을 냈다. 성탄절 분위기가 불췌 풍겼다. 양증맞게 나비넥타이를 매고 빨간 양치기도 돌렸다.

드디어 파티 주인공들이 도착했다. 목사들이 분주하게 식사를 나르고, 커피와 음료를 대접했다.

이상준 목사(양재 은누리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회직원들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직원들과 함께 봉역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재 은누리교회 목사들은 이날 파티를 위해 사비를 털어 도시락을 준비했고, 예장품도 내놓았다.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자필 카드도 썼다. 뿐만 아니라 테이블 세팅부터 안내, 서빙, 뒷정리까지 모두 책임졌다. 그 덕분에 교회직원들이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된 한 직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면서 “먼저 낮아지고, 술선수법해서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고 마음먹었

다”고 말했다.

###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위한 성탄축하예배

남양주 은누리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로 초대했다. 그들을 위해 인도식 뷔페와 국악공연, 주영광찬양사역팀의 칸타타가 준비됐다. 인도어로 번역된 찬양도 함께 불렀다.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마당이었다.

이날 예배를 유독 열심히 섬기는 형제가 있었다. 그는 8년 전 인도에서 온 해리 형제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섬겼다. 그가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 때문에 많이 지쳐있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고, 도와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찾고 찾다 임한테 장모를 찾아갔다.

“장로님, 제가 어눌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요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임한테 장모가 해리 형제의 수호천사가 되었다. 그의 친구를 찾아가 해리 형제의 진심을 전해줬다. 그 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해리 형제는 그 일을 계기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남양주 은누리교회에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남양주 은누리교회도 해리 형제와 가족처럼 자랐다. 힌두교인 아내를 전도하고 싶어 하는 해리 형제를 돕기도 했다. 최근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가 해리

형제의 집을 찾아가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선교사는 남양주 은누리교회에서 해리 형제와 막역하게 지낸 사이다. 그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고 가장 먼저 찾아가던 곳이 바로 해리 형제의 집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 이웃리치를 해리 형제의 고향으로 다녀왔다.

### 영어예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영어예배는 은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서울시립동부노안전문요양센터를 찾았다.

루돌프 머리띠와 신터복장을 한 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한 손에 선물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악보집을 들고 있었다. 한국에 유학 온 청년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4명도 동참했다. 어르신들과 뜻 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봉사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봉사자들의 극진한 섬김과 신나는 공연을 본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영어예배 박수현 자매는 “들어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조남수 형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르안다에서 온 르노세 형제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했고, 케냐에서 온 시비트 형제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아 행복하다”고 했다.



특집\_온누리교회 선교를 말한다

- 1. 선교사 간증집 발간
- 2. 2015 선교헌금 결산
- 3. 2016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 2015 선교헌금 결산

105억 7천만 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 파송 및 훈련 등에 사용

올해는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해였다.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시작한지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였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쉬 없이 달려왔다. 한손에는 복음을, 또 다른 손에는 헌신을 들고 온 누리를 섬겼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854명의 선교사들이 지구촌 복음화를 위하여 구슬땀 흘리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선교열정으로 봉헌한 선교헌금이 있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선교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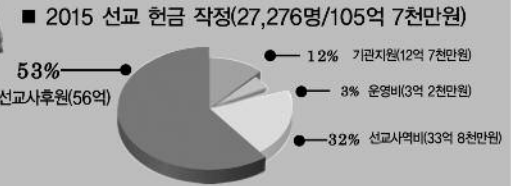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15 온누리선교 30년 돌아보고, 30년 내다보고

올해 2000선교본부는 온누리선교 3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했다. 그 일환으로 6월 26-27일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일본선교포럼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일본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를 돌아보고, 일본선교 비전을 공유하였다. 온누리교회와 일본 교계 리더십들이 더욱 협력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다.

선교사들을 초청한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10월 '30주년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다. 5년 이상 장기파송 선교사 및 현지인 사역자, MK(선교사 자녀) 등 270여 명을 초청했다.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場)이었다.

11월 3일에서 8일까지는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사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에 참가했다. 국내외 선교단체 리더십 및 선교학자 1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온누리교회 선교를 소개했다.



온누리교회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논의도 이어졌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선교 30년은 한마디로 '융합선교'라는 비전이다. 온누리교회는 풍성한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TIM, NGO 더밋진세상, Acts29 비전 빌리지, 온누리M미션, CGNTV 등 선교유관기관들이 융합 선교라는 이름으로 더욱 협력해 선교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됐다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NGO 더밋진세상은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고르카 지역 교회 3곳을 새로 건축해줬다. 뿐만 아니라 주력 82채를 보수하고, 보건소, 학교 등을 세우는 '더밋진마을 조성사

업'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는 농업개발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이생명살리기(CPR)사업으로 캄보디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3명을 초청해 치료하였다.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에도 여념이 없었다. 55명이 단기선교사 훈련(ITP)을 수료했고, 26명이 분국 선교사 재훈련(H2F)에 참가했다. 23명은 장기선교사 훈련(OSOM)을 받았다.

하영호 목사 기념관 및 기념채플도 완공되었다. 이곳은 선교사 훈련생들과 성도들의 영성훈련의 장(場)으로 활용된다. 또한 4대 훈련원장으로 황종연 목사가 오면서 선교사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스텝표를 구성했다.

온누리M미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8월 16일 9개 나라, 11개 예배공동체 이주민 40여 명이 대부도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HARVEST'에는 6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4월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안산 '온누리M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두란노 해외선교회(TIM)는 탄자니아에서 유치원을 건축 중이다. 교회개혁 훈련을 통해 교사들을 지도자로 양육하고, 어린이들을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양육하고 있다. 탄자니아 우테테군 12개 마을과 내륙 산악마을, 루피지 강변 마을에는 선교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간베아 잠부르 지역 학교에서는 '성경스토리 북'을 활용해 공부방을 진행하고 있다. 매 주일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강당과 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 몽골 밝은미래학교 캠프장도 보수했다. 1997년 개교한 밝은미래학교는 빈민이나 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2015 온누리선교 발자취

- 5월 비터민 C
- 6월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 맥싱턴 선교사케어센터 프로그램 참가
- 7월 온누리선교심포지엄
- 8월 몽골, 네팔 교회 건축
- 9월 강소성 바로 그 교회, Acts29 비전 빌리지 선교사 수송동 건축시작
- 10월 온누리교회 30주년 기념 선교대회, MK 가드북 발행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터민 C
- 11월 제 3회 KGMLF, 현지 차세대 지도자 양성몽골 밝은미래학교, 몽골 국제대학 등
- 12월 캄보디아 탄자니아 교회 건축

■ 선교사의 감사편지

##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네팔에는 두 번의 큰 시련이 있었다. 4월 대지진과 9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도의 국경봉쇄(경제제재)가 바로 그것이다.

언어어 일어난 엄청난 재앙과 시련 앞에 네팔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다행인 것은 네팔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단체들과 연대하거나 독자적으로 자진파해 구조사역을 펼쳤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네팔사람들을 극진히 섬겼다.

하나님은 올해도 네팔교회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런 일에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셨다.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의 결랑은혜교회,

네레스윌교회, 사울리교회가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졌다. 또 다른 3곳에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네팔은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나라다. 각 지역교회에 신실한 목회자들과 열정적인 교인들이 많다.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부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지진과 사회적 문제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네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료가 더욱 절실했다. 이 같은 상황에 온누리교회를 통해

네팔 현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요, 큰 축복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네팔의 산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 교회들이 절망하고 있는 네팔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팔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경근 선교사



01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 중동서 열린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

###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외국인 근로자 100명 초청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지난 17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외국인 근로자 100명을 초대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극진히 섬겼다. 안 내와 배식, 청소,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 차세대들은 위 심댄스와 부채춤, 핸드벨, 마임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료들 앞에서 예수 만난 간증을 했다.

파키스탄 출신 카쉬프 형제는 “아부다비에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준 곳은 이곳이 처음”이라면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미소와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다. 전체 인구 11%만 현지인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부다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은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 수용소(Labor Camp)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캠프를 섬기면서 알게 된 1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할 것이다.

/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02

### CGN 투데이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

#### 제6회 크리스천기자협회 보도부문 최우수상

CGN 투데이가 중동 난민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보도 프로그램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가 한국 크리스천기자협회가 선정한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기자상 시상식에서 CGN 투데이가 제작한 프로그램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가 심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는 CGNTV 보도 프로그램 ‘CGN 투데이’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 10회에 걸쳐

방출한 기획뉴스다. 유럽 난민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담아낸 수작(秀作)이다. 유럽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을 하나씩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CGNTV 본사가 기획과 편집을 맡고, 아랍에미리트 CGNTV 최서우 PD가 영상 취재, 난민 지역지이자 포드제널리스트 이중덕 선교사와 김형석 목사가 취재했다.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는 유럽의 난민 하이웨이 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내년 1월 방송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03

### 양재 2000선교, 프랑스어 겨울특강

양재 2000선교에서 프랑스어 겨울 특강(기초과정)을 실시한다. 201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열린다. 구정연휴 기간인 2월 8일에는 휴강한다.

프랑스어 겨울특강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회비는 2만 원이다.

문의: 010-3912-9888



김영숙 선교사

##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누리교회는 저를 목회자 반열에 세워주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 조그마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 남편은 2004년 소천한故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우리 부부가 은누리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5년 6월부터였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한 2천1만 비전을 따라 은누리교회에 왔습니다. 당시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천1만 비전을 품은 은누리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훈련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도와달라.”

당신이 선교를 하고 싶는데, 선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남편에게 은누리교회 선교에 동참해 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됩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선교훈련센터를 만들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훈련받은 청년 12명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1년 훈련시키고 2년 동안 현지에서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오사카 은누리교회를 개척하라는 하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때(2000년 4월)부터 선교 훈련을 시키는 동시에 매주 오사카를 오가는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양지에 선교훈련센터를 세우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양지는 영적으로 정말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땅 밟기를 하면서 그곳에 선교훈련센터를 세웠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라크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품고 2003년 10월부터 이라크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어 예상보다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 이듬해 2월 소천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미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나에게 하 목사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누리교회에 함께 있어주세요. 선교사역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서빙고 일본어예배를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일본어예배를 섬김 요량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본어예배 담당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늘어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을 무사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예배가 러브소나타 집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러브소나타를 시작할 당시에는 일본어예배부의 역할이 미비해서 아쉬웠습니다.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러브소나타 집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일본어예배부가 많은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봉역과 번역 감수는 물론, 후



김영숙 선교사(좌)와故 김사무엘 목사(우) 부부.

속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에도 일본어예배부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양육자들이 일본인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직접 일대일 제자양육 해주는 것이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일본의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믿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일본 교회들의 사정이 열악합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대

일 제자양육을 통해 일본교회 양육자를 만드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건, 선교사건 상관없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영숙 선교사는 2004년 소천한故 김사무엘 목사의 아내다. 1995년 6월부터 은누리교회 선교사역에 임장했다. 세계선교훈련센터, 일본어예배부 등에서 사역했다.



#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82	2014.01.05	2014년 1차 선교헌금 작성 : 헌금 방식 및 사용처 안내
982	2014.01.05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일본
982	2014.01.05	2014 선교헌금 작성 신규사역 소개
982	2014.01.05	2013년 선교헌금 사용처 및 나라별 해외선교사역비 안내
982	2014.01.05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멘토 위촉
982	2014.01.05	NGO 더 멋진 세상 :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 결정
982	2014.01.05	단동 온누리교회 정길안 장로 장로장립식 및 해외 비전교회 이취임
982	2014.01.05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983	2014.01.12	2014년 선교헌금 작성 헌금 안내
983	2014.01.12	2014 Acts29 비전과 함께 하는 온누리 파송 선교사 1-1
983	2014.01.12	2014 Acts29 비전과 함께 하는 온누리 파송 선교사 1-2
983	2014.01.12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아프리카
983	2014.01.12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R선교사(아프리카D국) · K선교사(아프리카K국)
983	2014.01.12	온누리M미션 : 골수암 투병 소녀 '에케르케' 돕기 위한 재정 및 기도 후원 요청
983	2014.01.12	바로잡습니다 : 단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 김대진 목사
984	2014.01.19	사회선교부 신설
984	2014.01.19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중동
984	2014.01.19	NGO '더 멋진 세상' 필리핀 긴급구호 그 후
984	2014.01.19	NGO '더 멋진 세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 봉사대사 위촉
984	2014.01.19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취임 박영근 목사
984	2014.01.19	〈제1회 아시아 기도성회〉 폐막
984	2014.01.19	2014 CGNTV 3대 핵심가치 : 선교 지향 · 복음 중심 · 섬김 실천
985	2014.01.26	온누리M미션 설날봉사자 모집
985	2014.01.26	세라핌합창단 필리핀 아웃리치 간증 : 이은옥(가정사역공동체)
985	2014.01.26	네덜란드 유럽연합청소년 수련회 아웃리치 간증 : 신주연(Point5공동체)
985	2014.01.26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동남아시아
986	2014.02.09	2014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986	2014.02.09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CGNTV
986	2014.02.09	영어예배(OEM) : 버틀러 선교사 부부 초청 '자유와 정의' 컨퍼런스 개최
987	2014.02.16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미국남침례교단(IMB) MOU체결
987	2014.02.16	故김사무엘 선교사 영성일기 『아낌없이 신실하게』 책 출간
987	2014.02.16	2014년 첫 선교사 파송식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미셔널 패스터(Missional Pastor)' 주제로 개강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재훈 목사 메시지 : "선교 열이 담긴 목회자"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재환 선교사 메시지 :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훈 목사 메세지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온누리교회"
987	2014.02.16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보고 : 김남희·정수진 자매(W공동체)
987	2014.02.16	신간 소개 : 『직업과 선교』 - 손창남 지음
988	2014.02.23	김사무엘 선교사 소천 10주기
988	2014.02.23	〈특별기고〉 성지순례와 폭탄테러
988	2014.02.23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선교관련) ①
988	2014.02.23	故 김사무엘 선교사 10주기& 온누리교회 선교사 순교일지
988	2014.02.23	20번째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개최 안내
989	2014.03.02	2014 선교헌금 작성 집계 결과
989	2014.03.02	2014 선교헌금 : 선교후원사역부 신설 및 재능기부자 기도편지 제작
989	2014.03.02	〈북한중보기도모임〉 소개
989	2014.03.02	〈Mission Talk〉 보석같이 빛나는 선교사 자녀들 : 김정혜 선교사
989	2014.03.02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선교관련) ②-(1)
989	2014.03.02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선교관련) ②-(2)
989	2014.03.02	고령화문제 교회에서 대안 찾기 〈시니어 선교〉
989	2014.03.02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및 기니비사우 우물공사
990	2014.03.09	Acts29 비전빌리지 24시간 기도처 〈시안홀〉
990	2014.03.09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 소개
990	2014.03.09	〈Mission Talk〉 골방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골방으로 : 박영희 선교사
990	2014.03.09	선교지 후원 인형 제작 : 박경희 권사(한 땀 사역팀)
990	2014.03.09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참가자 모집
990	2014.03.09	네팔 현지 아년더교회·시나이교회 입당예배
991	2014.03.16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 모집
991	2014.03.16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 모집
991	2014.03.16	시모노세키에서 온 편지 : 우카이 카츠미 목사(기독교재단 시모노세키교회)
991	2014.03.16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991	2014.03.1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조중환-임미경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991	2014.03.1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샘물 선교사 (동아시아 A국)
991	2014.03.16	〈전문인선교중보기도모임〉 소개
991	2014.03.16	〈Mission Talk〉 온누리교회 선교를 생각한다 :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장)
991	2014.03.16	온누리교회 외국어예배를 소개합니다
991	2014.03.16	다문화사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991	2014.03.16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개강 안내
991	2014.03.16	〈장로칼럼〉 중국 제남에서 만난 하나님 : 이영복 장로
992	2014.03.23	차세대 선교사 FT(Frontier teens) 훈련 및 선교체험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92	2014.03.23	CGNTV 대담 : 테리 에스콧 (중동 기독교 채널 SAT7 설립자)
992	2014.03.23	〈칼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 'CGNTV' : 함태경(CGNTV 경영기획본부)
992	2014.03.23	차세대 선교사 FT 2기 훈련 및 인도 아웃리치 파송
992	2014.03.23	평신도를 위한 상반기 선교스쿨 소개 : 와이미션 · 과학기술 · IT선교학교
992	2014.03.23	〈Mission Talk〉 풀뿌리 선교를 생각하며 : 손창남 선교사(OMF)
992	2014.03.23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992	2014.03.23	일만사역자 파송 : 한충희-김경희(미국)
992	2014.03.23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3.24-30)
992	2014.03.23	CGNTV 봄 개편 프로그램 :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헌신예배& 선교헌신자 간증
993	2014.03.30	〈칼럼〉 CGNTV의 인도네시아 진출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993	2014.03.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네팔 아년더교회 · 시나이교회 헌당예배 1-1
993	2014.03.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네팔 아년더교회 · 시나이교회 헌당예배 1-2
993	2014.03.30	To.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FA선교사들이 보낸 편지
993	2014.03.30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3.31-4.6)
993	2014.03.30	일본 동북지역 아웃리치 후기 : 배수영 성도(일본어예배)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특별인터뷰 : 이재훈 목사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축하메시지 : 이영표 외 5명
994	2014.04.06	〈선교를 알면 온누리가 보인다〉 이제는 '순 선교' 시대
994	2014.04.06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4.7-13)
994	2014.04.06	키즈나(Kizuna)집회 후기 : 마츠카네 유키요(일본어예배부)
994	2014.04.0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랄레 선교사
994	2014.04.06	〈장로 순환칼럼〉 예수님이 바라시는 '더 멋진 세상' : 박대호 장로(2천선교)
995	2014.04.13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995	2014.04.13	일본교회 위한 일본어성경 필사(筆寫)한 성도와의 만남 : 최정순 권사
995	2014.04.13	KIBI 〈살롬 예루살렘 2014〉 참가자 모집
995	2014.04.13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4.14-20)
995	2014.04.13	네팔 노방전도 후기 : 김숙경 권사(새벽예배1부찬양팀)
995	2014.04.13	〈선교지 이야기〉 아라비아 백성들을 섬기는 오아시스 병원 : 노규석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996	2014.04.20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행사〉
996	2014.04.20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쉼기대회 개최 및 마친 후 소감
996	2014.04.20	중보기도모임 소개 :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 멕시코 중보기도모임
996	2014.04.20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4.21-27)
996	2014.04.20	PHOTO NEWS : '양재 일대일사역팀' 아웃리치 기금 마련 자선장 개최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96	2014.04.20	장로중보기도팀 : 중국 단둥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996	2014.04.20	여성선교사 꿈 리트릿 후기 : 조이 선교사(남아시아 1국)
996	2014.04.20	<선교지 이야기> '루디아'를 찾아서 : 손OO 선교사(터키)
997	2014.04.27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 교육 안내 및 기도제목(4.28-5.4)
997	2014.04.27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인천 온누리교회'
997	2014.04.27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블롬 마을 우물 준공식
997	2014.04.27	<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 개강
997	2014.04.27	<선교지 이야기>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이야기 : 노규석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998	2014.05.04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교육 안내 및 기도제목(5.5-11)
998	2014.05.04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본나바 '더 멋진 마을' 사업 진행 및 선교사 인터뷰
998	2014.05.04	<칼럼> NGO더멋진세상, 영적 최선선에 서다 : 김광동 장로(NGO더멋진세상 CEO)
998	2014.05.04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자원봉사자 모집
998	2014.05.04	차이스타 러브터치 전도집회 후기 : 주석(중국어예배부)
999	2014.05.11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5.12-18)
999	2014.05.11	<선교지 이야기> 루디아를 찾아서 2 : 손OO 선교사(터키)
1000	2014.05.18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개막
1000	2014.05.18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 현장
1000	2014.05.18	<Mission Talk>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 김영철 목사(안산 온누리M센터)
1000	2014.05.18	<르포>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로 희망을 노래하다
1000	2014.05.18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봉사자 · 참가자 이야기
1000	2014.05.18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끝까지 사랑하는 '평택 온누리교회'
1000	2014.05.18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보건소> 착공식
1000	2014.05.18	온누리세계관학교 <이슬람의 이해와 문화> 포럼 개최 안내
1000	2014.05.18	2천선교본부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 개최
1000	2014.05.18	<선교지 이야기> 문화한류 넘어 선교한류로 : 김OO 선교사(인도네시아)
1001	2014.05.25	Acts29 비전빌리지 열방팀 6월 특별집회 개최 및 일정 안내
1001	2014.05.25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 등을 위한 <정경화 자선콘서트> 티켓 판매 안내
1001	2014.05.25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개최 안내
1001	2014.05.25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 후기 : 최민정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1001	2014.05.25	평택 외국인 근로자 의료선교 후기 : 이종길 집사(평택 온누리교회)
1001	2014.05.25	<선교지 이야기> 알송달송한 인도네시아인의 마음 : 김OO 선교사(인도네시아)
1002	2014.06.01	<특집기사> 21세기 新선교 트렌드 : 왜 과학기술 선교인가? 1-1
1002	2014.06.01	<특집기사> 21세기 新선교 트렌드 : 왜 과학기술 선교인가? 1-2
1002	2014.06.01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개최 안내
1002	2014.06.01	다문화사역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캠프> 개최 안내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02	2014.06.01	<선교지 이야기> 창의적 선교방법을 개발해야 할 때 : 권OO 선교사(몽골)
1003	2014.06.08	다문화사역팀 <다문화캠프> 참가 30가정 모집
1003	2014.06.08	PHOTO NEWS(사진기사) :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1003	2014.06.08	Acts29 비전빌리지 <연합부흥회> 개최 : 피터 양 선교사(코나 열방대학) 인도
1004	2014.06.15	[특집]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 1-1
1004	2014.06.15	[특집]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 1-2
1004	2014.06.15	대학청년부 청년선교운동 FA(Frontier Agency Movement) 7기 모집
1004	2014.06.15	FA 선교사 간증문 : 오수린 (4&5기 인도네시아)
1004	2014.06.15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끝나고 후속활동 논의 활발
1004	2014.06.15	시모노세키에서 온 편지 : 코바야시 켄이치 목사(시모노세키 실행위원장)
1004	2014.06.15	CGNTV 중동·아프리카 미디어사역 연합 강화
1005	2014.06.22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 위한 <그래도 희망> 정경화 헌정콘서트 개최
1005	2014.06.22	<선교지 이야기> 개동발에 굴러도 선교지가 좋다! : 충성-이레 선교사(터키)
1006	2014.06.29	의료선교팀 <CMN> 활약상 소개 및 CMN 2014 여름 아웃리치 일정
1006	2014.06.29	<2014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막 안내
1006	2014.06.29	일본 후쿠시마 아웃리치 후기 : 박미라 집사(동경 온누리교회)
1007	2014.07.06	2014 여름 아웃리치 시작 : 약 152개팀 1천6백 명 성도 참가
1007	2014.07.06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캠프> 스케치 및 참가자 후기
1007	2014.07.06	<사역칼럼> 안에서 잘해야 밖에서도 잘한다 : 허원희 목사(다문화·탈북자 사역 담당)
1007	2014.07.06	단기선교팀의 위기관리 기본자세 : 강일영 목사(이천선교)
1007	2014.07.06	산본안산공동체 : 순 단위 '금흥사역 아웃리치' 준비
1007	2014.07.06	<노원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 신현기(노원공동체)
1007	2014.07.06	스포츠선교 소개 : 축구선교팀 <공사랑>& 탁구선교팀 <OPM>
1007	2014.07.06	중종로·서초A공동체 : CGNTV 후원금 전달
1007	2014.07.06	<2014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막 안내
1007	2014.07.06	장로중보기도팀 : 중국 단동 아웃리치 보고
1007	2014.07.06	NGO 더멋진세상 : 파키스탄 농수 및 식수 개선사업 완료
1007	2014.07.06	일본어예배 수련회 <Joyful Family> 참가 후기 : 채미숙 성도
1007	2014.07.06	<권사순환칼럼> 흑암을 비추는 다이아몬드 : 류석인 권사
1008	2014.07.13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폐막
1008	2014.07.13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보고
1008	2014.07.13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 비전
1008	2014.07.13	강동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발대식 현장
1008	2014.07.13	<인터뷰> "주님의 영광 위해 사십시오" : 마이클 오 목사(국제로잔운동 총재)
1008	2014.07.13	양육본부 일대일 위원회 : 언어권별 일대일 양육전문 사역자 모집 안내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08	2014.07.13	Acts29비전빌리지 열방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회> 진행중
1009	2014.07.20	2014 온누리 각 부서 및 공동체 여름사역 진행중
1009	2014.07.20	여름사역 현장 르포 ① 갈렙공동체 몽골 여름 아웃리치 사역
1009	2014.07.20	중문 CGNTV 개국 6주년 기념예배
1009	2014.07.20	CGNTV 라마단 기간 특별 기획영상 : 이슬람은 무엇인가?
1010	2014.07.27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안내
1010	2014.07.27	여름사역 현장 르포 ② CMN& 분당B공동체 연합 해외 사역 1-1
1010	2014.07.27	여름사역 현장 르포 ② CMN& 분당B공동체 연합 해외 사역 1-2
1010	2014.07.2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허세현 자매(J4U 공동체)
1010	2014.07.27	선교지에서 온 편지 : K 선교사(동아시아 A국)
1010	2014.07.27	서승욱 권사의 QT 그림묵상
1010	2014.07.27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특집 : 그가 남긴 사도행전적 교회 비전
1010	2014.07.27	두란노 신간 : 『하나님의 선교사 A to Z』 - 김종성 지음
1010	2014.07.27	온누리M미션 : 이주민 구원 위한 <180일/1000명> 중보기도운동 중보자 모집
1010	2014.07.27	<제1회 제3세계 문화교류 프로젝트 포럼> 온누리교회 '손희원' 성도 발표
1010	2014.07.27	시안열방예배 특별집회 후기 : 박은숙 성도
1010	2014.07.27	CGNTV 1기 방송선교사 4명 파견
1011	2014.08.03	하용조 기념관 착공 : 2015년 8월 완공 예정
1011	2014.08.03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1011	2014.08.03	<하용조 목사 3주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쓴 편지 1-1
1011	2014.08.03	<하용조 목사 3주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쓴 편지 1-2
1011	2014.08.03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간증 : 이성구 성도(일산 공동체)
1011	2014.08.03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간증 : 남상욱 장로(크리스천CEO포럼)
1011	2014.08.03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간증 : 서형원 형제(여호수아 공동체)
1011	2014.08.03	동경 온누리교회 청년부 여름캠프 간증 : 김진주 자매(동경 온누리교회)
1011	2014.08.03	NGO 더 멋진 세상 : 르완다 청년 초청 농업 및 양계 기술 전수
1011	2014.08.03	오비히로 러브소나타 사전행사 <이은일 교수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 개최
1011	2014.08.03	이재훈 담임목사&CMN의료팀&청년부 연합 : 르완다 아웃리치 예정
1011	2014.08.03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후기 : 곽은순(수원 대학청년부)
1011	2014.08.03	<장로순환칼럼> 온누리미션 부흥의 비밀 '융합 선교' : 신현승 장로
1012	2014.08.10	<기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 : 류모세 선교사
1012	2014.08.10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간증 : 최성훈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1012	2014.08.10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정지수 자매(강동 PromiseU 공동체)
1012	2014.08.10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간증 : 함명희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1012	2014.08.10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윤선령 자매(일본어예배부)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12	2014.08.10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양원향 자매(J4U공동체)
1012	2014.08.10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 간증 : 신정목 성도(영아2부 교사)
1012	2014.08.10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1012	2014.08.10	<한편의 시> 라오스 어땀어? : 오경곤(요셉공동체)
1013	2014.08.17	온누리M미션 : 대부도 바닷가 24명 이주민 연합세례식
1013	2014.08.17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이나리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1013	2014.08.17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송지영 자매(하늘 공동체)
1013	2014.08.17	<특별기고> 하용조 목사 3주기를 보내고 : 정호욱 목사
1014	2014.08.31	중동 A국 아웃리치 간증 : 오범규 집사(서초C공동체)
1014	2014.08.31	일본 야치요 아웃리치 간증 : 김미영 성도(일본어예배부)
1014	2014.08.31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간증 : 김소아 성도(평택 온누리교회)
1014	2014.08.31	JDS예수제자학교 '제자의 날' 아웃리치 보고 및 수강생 간증
1014	2014.08.31	<제2회 온누리선교탁구대회> 개최 안내
1014	2014.08.31	NGO 더 멋진 세상 : 필리핀 비농안안섬 초등학교 준공식
1014	2014.08.31	온누리M미션 세례식 후기 : 김관식 성도(서초B공동체)
1014	2014.08.31	<장로순환칼럼> 결코 싫지 않은 아웃리치 열(fever) : 최득린 장로
1015	2014.09.07	2014 여름 아웃리치 현재 진행상황
1015	2014.09.07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간증 : 임미진 자매(유아3부 교사)
1015	2014.09.0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이태윤 형제(요셉공동체)
1015	2014.09.0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최윤형 성도(서초A공동체)
1015	2014.09.07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간증 : 임혜나 자매(강동 프라미스공동체)
1015	2014.09.0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박춘기 형제(Pole2공동체)
1015	2014.09.07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 간증 : 고광범 형제(허브공동체)
1015	2014.09.07	<사역 후기> NGO 더 멋진 세상 르완다를 가다 : 고대선(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장)
1015	2014.09.07	선교후원사역부 소개 및 하반기 각오
1015	2014.09.07	일본 코바야시 목사 및 교역자와 성도 14명 온누리교회 방문
1015	2014.09.07	일본 군마에서 온 편지 : 카나이 쿠미에 목사(뉴와인스킨 그리스도교회)
1015	2014.09.07	<장로순환칼럼>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 김병순 장로
1016	2014.09.21	CGNTV 인도네시아 진출
1016	2014.09.21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및 축하 기념콘서트 <러브 인도네시아> 개최
1016	2014.09.21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개최 안내
1016	2014.09.21	온누리M미션 : 베트남공동체 출범
1016	2014.09.21	신용산 · S브릿지 공동체 : 남아시아 I국 연합사역
1016	2014.09.21	PHOTO NEWS(사진기사) :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
1016	2014.09.21	호치민 온누리교회 '제1기 Why Mission?' 스태프 간증 : 유영준 집사(김포공동체)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16	2014.09.21	CGNTV 직원 일본 구마모토 아웃리치 간증 : 유희우(CGNTV 편성기획팀)
1016	2014.09.21	〈장로순환칼럼〉 25년차 성도의 소회(所懷) : 김재일 장로(일본어예배부)
1017	2014.09.28	〈장로순환칼럼〉 더 크게, 더 높게, 더 힘차게 : 정영일 장로
1017	2014.09.28	CGNTV 선교 역사와 열매
1017	2014.09.28	몽골국제대학교 이사장&총장 취임예배 : 이사장 양유식 장로& 총장 권오문 선교사 취임
1017	2014.09.28	3차 선교사 파송식 : 번스틱-하닷사 외 가정 1팀, 싱글 19팀
1017	2014.09.28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9.29-10.5)
1017	2014.09.2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빌립-뵈뵈 선교사(아프리카 C국)
1018	2014.10.05	온누리교회 창립 29주년 행사 안내
1018	2014.10.05	의료선교사를 꿈꾸는 CMN 윤상엽 팀장 인터뷰 및 의료봉사자 후기
1018	2014.10.05	CGNTV가 있어 행복한 사람들
1018	2014.10.05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0.6-12)
1018	2014.10.05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임병수 장로
1018	2014.10.05	CGNTV 정기후원의 날
1019	2014.10.12	스포츠(탁구)선교회 소개
1019	2014.10.12	일본어예배부 : 동부이촌동 거주 일본인 초청 전도집회
1019	2014.10.12	CGNTV 정기후원자 현황 : 2만3천명 돌파
1019	2014.10.12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0.13-19)
1019	2014.10.12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임병수 장로
1019	2014.10.1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엘리사벳(남아시아 N국)
1020	2014.10.19	일본 순맞춤전도 세미나 개최 및 참가자 간증
1020	2014.10.19	2014년 4차 선교사 파송 : 권강한-오조이 외 가정 2팀, 싱글 4팀
1020	2014.10.19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0.20-26)
1020	2014.10.19	〈장로순환칼럼〉 가슴 벅차고, 힘이 솟고, 기쁘고 : 함선호 장로
1020	2014.10.19	〈CGN 청춘 선교단 은빛날개〉 프로그램 이야기
1021	2014.10.2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봉사자 교육 일정 안내 및 준비 보고
1021	2014.10.26	〈송파공동체〉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 이주민 초청 '가을운동회' 개최
1021	2014.10.26	일본 CGNTV 〈개국 8주년 기념행사〉 개최
1021	2014.10.2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 (10.27-11.2)
1021	2014.10.26	일본 순맞춤전도 세미나 후기 : 카사하라 에미코(러브소나타 동경본부)
1022	2014.11.02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행사〉
1022	2014.11.02	NGO더멋진세상 : 남아시아 K국 여성 리더십 초청 〈지역사회개발선교훈련〉 지원
1022	2014.11.02	교회개혁운동(CPM) 세미나 개최
1022	2014.11.02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1.3-9)
1023	2014.11.09	〈선교 기획〉 선교사 안식의 필요와 대안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23	2014.11.09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후기 : 김해기 장로(한강공동체)
1023	2014.11.09	일본어예배부 : 동부이촌동 거주 주재원 부인 대상 한글강좌
1023	2014.11.09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개막 안내 및 기도제목(11.10-15)
1023	2014.11.09	<장로순환칼럼> 융합선교의 의미와 가치 : 정대서 장로(선교분과위원장)
1023	2014.11.09	CGNTV 선교 스토리 : 김남섭 선교사(필리핀)
1024	2014.11.1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폐막
1024	2014.11.16	<현장르포>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1024	2014.11.1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숨은 보석들을 만나다
1024	2014.11.16	NGO 더멋진 세상 : 르완다 국제개발협력사업 해외봉사단 모집
1024	2014.11.16	<서빙고 일본어예배부> 나가노 일대일 제자양육 아웃리치 간증 : 황기영 목사
1025	2014.11.23	<선교현장을 가다> ① 온누리M센터 :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
1025	2014.11.23	NGO더멋진세상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산복 기증
1025	2014.11.23	<바로잡습니다> 1024호 러브소나타 기사 이름 정정 : '김성희' → '김수정' 성도
1025	2014.11.23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수료간증 : 윤진혁 집사
1025	2014.11.23	ECC 2015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 모집 : 니카라과 CCA 국제학교 교사 파견
1025	2014.11.23	더멋진세상 2015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 모집 : 르완다 파견
1026	2014.11.30	<선교현장을 가다> ② NGO 더멋진세상 : 르완다 <더멋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1026	2014.11.30	CGNTV 후원 위한 '드림-온(Dream-On) 콘서트' 개최
1026	2014.11.30	이문동 동안교회 CGNTV 후원행사 : 'CGNTV 1인칭 시점 어린이로 각색' 보고
1027	2014.12.07	<선교현장을 가다> ③ Acts29 비전빌리지 :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위한 다섯 가지 비전 선포
1027	2014.12.07	NGO 더멋진세상 창립 4주년 감사예배
1027	2014.12.07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그 후 참석자 간증 : 시게노 유키코 · 후쿠이 타이카 성도
1027	2014.12.07	<권사순환칼럼> 일본에 가정사역의 초석을 놓다 : 한영희 권사(가정사역공동체)
1028	2014.12.14	<선교현장을 가다> ④ 갈렙 선교 : 50세 이상 단기선교훈련(TP) 수료 선교사 양성
1028	2014.12.14	네팔 너왈쁘라시 홀리미선교회 헌당식
1028	2014.12.14	NGO 더멋진세상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년인턴 및 해외사역자 모집
1028	2014.12.14	네팔 홀리미선교회 헌당예배 후기 : 남영표 성도(과천의왕공동체)
1029	2014.12.21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윈터캠프> 개최
1029	2014.12.21	<목사칼럼>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
1029	2014.12.21	<2014 선교감사의 밤> 행사 개최 및 한해를 돌아보며 '전영수 장로'와 함께
1029	2014.12.21	온누리M미션 :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1029	2014.12.21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대회 고급부문 1위 수상자 간증 : 나타샤 자매(카자흐스탄)
1030	2014.12.28	<새벽에 만난 사람들> 새벽예배 동시 통역 봉사자 : 김선경 자매(일본어예배)
1030	2014.12.28	<선교현장을 가다> 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교회개혁운동(CPM) 도입
1030	2014.12.28	온누리M미션 : 성탄절 맞이 전도집회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4. 12. 28 ~ 2015. 2. 15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30	2014.12.28	서빙고 네팔 성탈절 전도집회 간증 : 데벤드라 목사(서빙고 네팔공동체)
1031	2015.01.04	2015 선교현금 작성
1031	2015.01.04	<선교현장을 가다> ⑥ 2000선교 : '비전 2000' 이뤄가는 선교 총괄부서
1031	2015.01.04	<선교 기획> MK사역은 또 하나의 선교입니다
1031	2015.01.04	새벽에 만난 사람들 : 365일 쉼 없이 복음을 전하는 'CGNTV 송출실 직원들'
1031	2015.01.04	NGO 더멋진세상 홍보 담당 직원 모집
1031	2015.01.04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후기 : 한동훈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1032	2015.01.11	2015 2차 선교현금 작성
1032	2015.01.11	<선교현장을 가다> ⑦ 후원사역부 소개 및 후원사역부 손정래 장로 인터뷰
1032	2015.01.11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신설
1032	2015.01.11	강동 온누리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후기 : 배선영 성도
1033	2015.01.18	2015 첫 선교사 8명 파송식 및 간증 : Grace 외 싱글1팀, 가정3팀
1033	2015.01.18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 온누리 불어예배 '장 마르탱 베레' 목사
1033	2015.01.18	CGNTV 드림통 수거 집계 결과 안내
1033	2015.01.1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성윤-임정산 선교사(코트디부아르)
1034	2015.01.25	<코트디부아르 세례식 현장> 리포트 및 표명한 선교사 후기
1034	2015.01.25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더멋진마을 프로젝트> 진행 중
1034	2015.01.25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 : 김영철 목사 취임 및 박영근 목사 이임
1034	2015.01.25	샤론데코팀 : 러브소나타 <교토> 화관제작 봉사자 모임 안내
1035	2015.02.01	<청년과 선교> FA Movement 소개 및 9기 모집 안내 & FA 담당 김진웅 간사 칼럼
1035	2015.02.01	<기고> 21세기 선교 트렌드 '미디어 선교' : 함태경 본부장(CGNTV 경영기획)
1035	2015.02.01	CGNTV 개국 10주년 맞이 <봄 개편>
1035	2015.02.01	2000선교 <비전컨퍼런스> 개최 예정
1035	2015.02.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서요셉-황로즈 선교사 (아랍 M지역)
1035	2015.02.01	대학부 네팔 아웃리치 간증 : 김민정 자매(허브공동체)
1036	2015.02.08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모집 안내
1036	2015.02.08	<인터뷰> 유럽교회 위기에 비춰 본 한국교회 문제와 대안 : 장 마르탱 베레 목사(불어예배)
1036	2015.02.08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모집 안내
1036	2015.02.08	하늘공동체 네팔 아웃리치 간증 : 류은경 성도
1036	2015.02.08	디자인실 고경미 간사의 위클리 공감(그림) : I AM KENJI
1036	2015.02.0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서권능-김믿음 선교사(A지역)
1037	2015.02.15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개최
1037	2015.02.15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2.16-22)
1037	2015.02.15	온누리M미션 소식 : 이주민을 위한 구정수련회 개최
1037	2015.02.15	온누리M미션 소식 : 이슬람 선교 세미나 개최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37	2015.02.1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식지 발간
1037	2015.02.15	〈권사칼럼〉 선교지에 인형 만들어 보내기 '한땀사역' : 박경희 권사
1038	2015.03.01	2015 선교현금 작성 집계 결과
1038	2015.03.01	온누리미션 아랍예배 주관 〈2015 이슬람 선교 세미나〉 시작
1038	2015.03.01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2-8)
1039	2015.03.08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스마트바이블' 사역 소개
1039	2015.03.08	〈칼럼〉 IT선교 중심에 '온누리 IT전략위원회'가 있다 : 이승훈 집사(온누리 IT전략위원회)
1039	2015.03.08	〈청년들을 만나다〉 다시 부흥을 꿈꾸는 대학청년부 'J4U공동체' 및 '구은영 자매' 간증
1039	2015.03.08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케르빌라 초등학교 준공식 및 중축 공사 기공식
1039	2015.03.08	안산M센터 : 신축기공예배 일정 안내
1039	2015.03.08	안산M센터 : TIM 신입선교사 전도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세례
1039	2015.03.08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9-15)
1039	2015.03.08	온누리미션 구정수련회 후기 : 양윤희 선교사(온누리미션 태국예배봉사자)
1040	2015.03.15	2015년 2차 선교사 파송 : 채필립-조이폴 외 싱글 5팀, 가정 1팀
1040	2015.03.15	〈21세기 목회 트렌드〉 SNS 목회시대를 준비하라 1-1
1040	2015.03.15	〈21세기 목회 트렌드〉 SNS 목회시대를 준비하라 1-2
1040	2015.03.15	의료선교팀 〈CMN〉 소속 팀 및 사역 소개
1040	2015.03.15	CMN드림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간증 : 이도희 집사(CMN 드림팀)
1040	2015.03.15	NGO 더멋진세상 : 후원자 감사패 증정식
1040	2015.03.15	〈세네갈 준공식 현장에서〉 건물 그 이상의 의미 : 고대선 부장(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
1040	2015.03.1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4대 가치 지정 및 프로그램 제작
1040	2015.03.15	안산M센터 신축 기공예배
1040	2015.03.15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참가자 모집
1040	2015.03.15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16-22)
1041	2015.03.22	미서부(얼바인·LA·샌디에이고·산타모나카)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1
1041	2015.03.22	미서부(얼바인·LA·샌디에이고·산타모나카)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2
1041	2015.03.22	CGNTV& 월드비전 업무협약(MOU) 체결
1041	2015.03.22	2015 공동체 선교사역자 상반기 현황
1041	2015.03.22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23-29)
1041	2015.03.22	CGNTV 일본지사 후원자 간증 : 고이즈미 마사코 성도
1042	2015.03.29	CGNTV 개국10주년 및 CGNTV 직원 일동 사진
1042	2015.03.29	러브소나타 〈교토〉 개막 임박 안내
1042	2015.03.29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30-4.5)
1042	2015.03.29	또 하나의 CGN패밀리 중보기도자 : 류석인 권사
1042	2015.03.29	CGNTV 방송선교행진 10년 연혁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이재훈 담임목사(CGNTV 이사장)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손한기 장로 (CGNTV 초대 대표이사)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유재건 장로 (CGNTV 대표이사)
1043	2015.04.05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4.6-10)
1043	2015.04.05	NGO 더멋진세상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 시작
1043	2015.04.05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에서 보낸 1년 사역 보고 : 김민선 자매
1043	2015.04.05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민정환 팀장(제작기획팀)
1043	2015.04.05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 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소개 글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축하메시지
1044	2015.04.12	러브소나타 <교토> 개막
1044	2015.04.12	아마존 큐티운동에 헌신한 김주태 선교사 이야기
1044	2015.04.12	러브소나타 <교토> 현장르포
1044	2015.04.12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 : 신민호 장로
1044	2015.04.12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 : 테너 배재철 · 프로듀서 와지마 · 집도의 잇시키 노부히코
1044	2015.04.12	NGO 더멋진세상 :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개 및 정기후원 약정행사 안내
1044	2015.04.12	두란노해외선교회 :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관계자 방문
1044	2015.04.12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김소진 팀장(미디어국 UX기획팀)
1044	2015.04.12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봉사 후기 : 김준 해외봉사자
1045	2015.04.19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일정 안내
1045	2015.04.19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앞둔 인터뷰 : 김광동 장로(더멋진세상 CEO)
1045	2015.04.19	NGO 더멋진세상 네팔 봉사 후기 : 김대승 해외봉사자
1045	2015.04.19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소개
1045	2015.04.19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 행사 안내
1045	2015.04.19	Acts29 비전빌리지 : 장 ·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1045	2015.04.19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간증 : 서승욱 권사
1045	2015.04.19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오성환 팀장(후원기획실 후원영상팀)
1046	2015.04.26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개최
1046	2015.04.26	<특별기고> IS와 중동의 미래 :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1046	2015.04.26	일본(오사카 · 교토 · 나고야)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1
1046	2015.04.26	일본(오사카 · 교토 · 나고야)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2
1046	2015.04.26	<목회칼럼> 외국인 근로자 사역 : 박성천 목사(평택)
1046	2015.04.26	대학청년부 국내 미자립교회 및 사회기관 섬김 사역 <Acts29 Movement> 실시
1046	2015.04.26	CMN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1046	2015.04.26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양응모 형제(편성제작팀)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47	2015.05.03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 네팔 지진피해 현장 급파
1047	2015.05.03	〈목회칼럼〉 인천 온누리교회의 꿈 :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1047	2015.05.03	네팔 지진피해 현장 급파 '긴급구호팀' 파송식
1047	2015.05.03	일대일사역팀 '선교와 일대일' 세미나 개최
1047	2015.05.03	〈권사칼럼〉 온누리과 함께한 신앙 성장기 : 홍정희 권사(에zell선교회 대표)
1048	2015.05.10	〈양재 이천선교팀〉 호남선교 역사여행 후기 : 김종호 집사
1048	2015.05.10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 네팔 지진피해 현장 상황 보고
1048	2015.05.10	〈이주민 선교학교〉 10기 참가자 모집
1048	2015.05.10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 개최 안내
1048	2015.05.10	태국에서 온 간증 : 김마리아 권사 (파타야 선교교회)
1048	2015.05.10	일본어예배부 일본 이와테 지역 아웃리치 보고 : 백재구 성도
1048	2015.05.1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스글-그로 선교사 (남아시아 F국)
1049	2015.05.17	〈온누리 긴급구호팀 르포〉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현장 : 고대선 부장(NGO더멋진세상)
1049	2015.05.17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이스라엘의 음식문화 '후무스와 올리브기름' : 류모세 선교사
1049	2015.05.17	청년들의 예배와 선교 회복 위한 컨퍼런스 〈2015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1049	2015.05.17	NGO 더멋진세상 : 해외사역자(선교사) 모집
1050	2015.05.24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이스라엘의 음식문화 '웰빙음식' : 류모세 선교사
1050	2015.05.24	NGO 더멋진세상 : 미스코리아 '이사라' 홍보대사 위촉
1050	2015.05.24	〈아프리카와 네팔 후원 콘서트〉 개최
1050	2015.05.24	2015 여름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 실시
1051	2015.05.31	2015 여름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 실시
1051	2015.05.31	부천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의 꽃 '무릎선교기도학교모임'
1051	2015.05.3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라마단의 저녁식사 '이프타르' : 노규석 목사
1051	2015.05.31	CMN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개최
1051	2015.05.31	NGO 더멋진세상 : 르완다 의료진 초청 연수
1051	2015.05.31	에zell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1052	2015.06.07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최 안내
1052	2015.06.07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① CGNTV 기억 창고를 걷다
1052	2015.06.07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권능의 밤'과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 노규석 목사
1052	2015.06.07	2차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 실시
1052	2015.06.07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 개최 안내
1052	2015.06.07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간증 : 김은정 자매(여호수아)
1052	2015.06.07	〈신앙에세이〉 유해근 목사와 질경이 사모님 :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다문화사역)
1053	2015.06.14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1053	2015.06.14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② CGNTV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53	2015.06.14	〈칼럼〉 왜 블랙마운틴인가 : 윤영각 장로(CCF 회장)
1053	2015.06.14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선교를 위해 태어난 '양지 온누리교회'
1053	2015.06.14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흥차와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 윤용국 목사
1053	2015.06.14	인도네시아 CGNTV 〈인도네시아 CGNTV 운영·자문위원회〉 발족식
1054	2015.06.21	2015 여름 아웃리치 계획
1054	2015.06.2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진행 안내
1054	2015.06.21	아웃리치 안전교육 강의 요약 : 김진대 사무총장(한국위기관리재단)
1054	2015.06.2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스리랑카 식사, 화장실, 조문 문화 : 윤용국 목사
1054	2015.06.21	재일대한 교토교회 :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개최 및 조수정 선교사 간증
1054	2015.06.21	키비 〈살롬 예루살렘 대회〉 개최
1055	2015.06.28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막
1055	2015.06.28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캄보디아 결혼 문화 : 신정빈 목사
1055	2015.06.28	스포츠선교팀 〈공사랑〉 M센터 캄보디아 지체들 위한 축구 교육
1055	2015.06.28	Acts29 비전빌리지 : 장기선교사(OSOM) 25기 훈련생 모집
1055	2015.06.28	온누리 전도학교 〈여름 아웃리치 전도 특강〉 일정 안내
1055	2015.06.28	2015년 여름 아웃리치 후기 모집 알림
1055	2015.06.28	〈신앙에세이〉 상도동 난민 피난처에서의 상념 :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1056	2015.07.05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폐막
1056	2015.07.05	차세대사역본부 : 해외 여름 아웃리치 28개팀 533명 계획
1056	2015.07.05	2015 〈카운트다운〉 현장 스케치
1056	2015.07.05	2015 〈카운트다운〉 현장에서 만난 청년선교사들 : 김은영 자매·김현아 자매·황경훈 형제
1056	2015.07.05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 개최
1056	2015.07.05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캄보디아 음식 문화 : 신정빈 목사
1056	2015.07.05	CGNTV 안테나 설치 사역 아웃리치 위한 〈안테나 설치 교육〉 준비
1056	2015.07.05	대형 카운트다운 봉사자 간증 : 윤나래 자매(J4U공동체)
1056	2015.07.05	〈장로칼럼〉 카운트다운을 마치며 드리는 감사기도 : 노홍규 장로
1057	2015.07.12	201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시작
1057	2015.07.12	2015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모집 알림
1057	2015.07.12	〈7.27-8.1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지정 및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 안내
1057	2015.07.12	기획_① 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1-1
1057	2015.07.12	기획_① 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1-2
1057	2015.07.12	〈칼럼〉 12가정과 아웃리치 : 류석인 권사
1057	2015.07.12	〈남양주 J1대학부〉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 후기 : 조유진 자매
1057	2015.07.12	〈CGNTV직원〉 일본 아웃리치 후기 : 이득수 형제(일본제작팀)
1057	2015.07.12	〈차세대 파워스테이션〉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 후기 : 이소라 자매(서빙고 파워스테이션)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57	2015.07.12	1.5세 이민자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Point5공동체> 소개
1057	2015.07.12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몽골의 음식 문화 '하얀 음식과 빨간 음식' : 박광규 전도사
1057	2015.07.12	JDS(예수제자학교) 2015 여름 아웃리치 일정
1057	2015.07.12	러브소나타 <오이타> 위한 중보기도 요청
1057	2015.07.12	알림 : Acts29 비전빌리지 OSOM 25기 훈련생 모집
1057	2015.07.12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준비하며 : 히로타 가츠마사 목사(실행위원장)
1058	2015.07.19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예고
1058	2015.07.19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과 김포M센터의 인연
1058	2015.07.19	기획_② 아웃리치 현황과 주의사항 1-1
1058	2015.07.19	건강하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를 위한 당부 : 이재정 목사(2000선교)
1058	2015.07.19	기획_② 아웃리치 현황과 주의사항 1-2
1058	2015.07.19	건강하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를 위한 당부 : 김은-김우 선교사(동아시아 B국)
1058	2015.07.19	<허브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 최윤영 자매(허브 공동체)
1058	2015.07.19	<CGNTV> 태국 아웃리치 : 김혜림 자매(제작국 사회선교팀)
1058	2015.07.19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몽골 여성들의 삶 : 박광규 전도사
1058	2015.07.19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 : 베트남 다문화가정 초청 <행복드림 콘서트> 개최
1058	2015.07.19	<Acts29 독자마당>나는 CGNTV 열혈 시청자 : 이태현 선교사
1058	2015.07.19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씨니 선교사(남아시아 J국)
1059	2015.08.02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1059	2015.08.02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특집> 열정과 비전의 사람 '하용조 목사'
1059	2015.08.02	<화보>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1059	2015.08.02	<의료선교팀 CMN>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 윤상엽 팀장(CMN 의료사역팀장)
1059	2015.08.02	<과천의왕공동체> 보은 회남교회 아웃리치 : 이삼형 집사
1059	2015.08.02	<한강공동체> 김포M센터 아웃리치 : 유영수 성도
1059	2015.08.02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 : 은 전도사 가족(M센터 베트남예배)
1059	2015.08.02	<기고> 중화권 방송선교의 꿈 : 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CGNTV)
1060	2015.08.09	CGNTV · NGO 더멋진세상 <홍콩 CGN World> 설립
1060	2015.08.09	8월 비전현금 사용처 안내 <몽골국제대학교> 후원
1060	2015.08.09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1060	2015.08.09	<서대문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 김용희 집사(마태 1순)
1060	2015.08.09	<이촌공동체>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 : 강찬욱 성도
1060	2015.08.09	<Pole2 공동체>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 하민수 형제
1060	2015.08.09	<영등포구로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 김성호 성도
1060	2015.08.09	<갈렙 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 서윤경 자매
1060	2015.08.09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 명절 '땃' : 은 전도사 가족(M센터 베트남예배)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60	2015.08.09	CGN·NGO 더멋진세상 : '홍콩 CGN World' 설립 및 홍콩 창세TV와 업무협약 체결
1060	2015.08.09	온누리M센터 '2015 여름 영어 캠프' 개최
1060	2015.08.09	<장로칼럼> 일본선교는 꾸준히 인내하는 과정 : 김재일 장로(일본어예배부)
1061	2015.08.16	<수원 차세대> 필리핀 아웃리치 : 최다원
1061	2015.08.16	<여호수아공동체> 니카라과 아웃리치 : 송유진 자매
1061	2015.08.16	<CGNTV> 스리랑카 아웃리치 : 김영신 PD(선교교육팀)
1061	2015.08.16	<요셉공동체>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 이진호 자매
1061	2015.08.16	<S브릿지공동체> 남아시아 F국 : 김미순 자매
1061	2015.08.16	<GIL공동체>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 박은미 자매
1061	2015.08.16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네팔 음식 및 정훈 문화 : 바릿 목사-만지라 사모
1061	2015.08.16	<목회칼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 윤석원 목사(강동 온누리 청년부)
1061	2015.08.16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 준비 및 러브소나타 <오이타> 결기대회 참가자 간증
1061	2015.08.16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의료진과 어린이 심장병 환자 초청 의료지원 사업
1061	2015.08.16	보고싶은 영화 <순교> : 아프가니스탄 순교자 김영학, 배형규 목사 이야기
1062	2015.08.23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1062	2015.08.23	온누리M미션 : 9개국 41명 연합세례식
1062	2015.08.23	<일산공동체> 아프리카 D국·S국 아웃리치 : 박호준 성도
1063	2015.08.30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1063	2015.08.30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5> 봉사자 모집
1063	2015.08.30	5차 선교사 파송식 : 보아스-로이스 외 싱글 4팀, 가정 2팀
1063	2015.08.30	2015 여름 아웃리치 결산
1063	2015.08.30	<목회칼럼> 열방을 품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 서재범 목사(S브릿지공동체)
1063	2015.08.30	아웃리치 종료 성도 위한 격려메시지 : 김홍주 목사·김승수 목사·노희태 목사
1063	2015.08.30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보고 : 김명진 성도(서초D공동체)
1063	2015.08.30	<기고> 미주CGNTV 중남미 선교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사명 :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
1063	2015.08.30	책 신간 - 『Why Missions?』 (온누리2000선교본부, 한철호, 김영동 외 4인 저)
1064	2015.09.06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 개최 안내
1064	2015.09.06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 개최 안내
1064	2015.09.06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①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1064	2015.09.06	<목회칼럼>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앞두고 :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1064	2015.09.06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네팔의 종교 : 바릿 목사-만지라 사모
1064	2015.09.06	<목회칼럼> 난봉꾼에서 목사로 변신한 청년 : 정현석 목사(서빙고 차세대)
1064	2015.09.06	일본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 9명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1064	2015.09.06	NGO 더멋진세상 : 르완다 응호망가마을 조산소(Maternity clinic) 준공
1064	2015.09.06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7-1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64	2015.09.06	〈장로칼럼〉 은빛날개를 단 시니어 선교사 : 김상인 장로(과천의왕공동체)
1065	2015.09.13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 개막 안내
1065	2015.09.13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 개막 안내
1065	2015.09.13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②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1065	2015.09.13	선교로 하나가 되고,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양지 온누리교회'
1065	2015.09.13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필리핀의 9월의 크리스마스 : 레비 목사와 가족(온누리M미션)
1065	2015.09.13	CGNTV가 태국 기독교 총회와 업무협약 체결
1065	2015.09.13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14-20)
1065	2015.09.13	JDS 아웃리치 그 못 다한 이야기 : 김상모 성도 (수원 JDS)
1065	2015.09.13	〈장로칼럼〉 사회선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 : 정운오 장로(사회선교 분과위원)
1066	2015.09.20	2015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
1066	2015.09.20	2015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 개최
1066	2015.09.20	NGO 더멋진세상과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함께 사역한 '파울로 선교사'
1066	2015.09.20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③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1066	2015.09.20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필리핀의 대가족 문화 : 레비목사와 가족(온누리M미션)
1066	2015.09.20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21-27)
1066	2015.09.20	〈한터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 나정건 학생
1067	2015.09.27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1067	2015.09.27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1067	2015.09.27	〈CGNTV〉 더 할수록 커지는 그 비전 : 후원자 도성해-안수영 성도
1067	2015.09.27	〈기획-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
1067	2015.09.27	〈목회칼럼〉 맞이하는, 함께하는, 준비하는, 보내는 :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1067	2015.09.27	〈기획-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2
1067	2015.09.27	〈이주민 간증〉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레반타 라왈 형제(네팔)
1067	2015.09.27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④ "나는 건축전문 선교사 박일구입니다"
1067	2015.09.27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태국에서 이사하기 1편 : 홍지아 성도
1067	2015.09.27	일본어예배부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1067	2015.09.27	NGO 더멋진세상 · 한국뉴욕주립대 업무협약(MOU) 체결
1067	2015.09.27	서빙고 Why Missions? 토요반 개강
1067	2015.09.27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28-10.4)
1068	2015.10.04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1068	2015.10.04	〈기획〉 온누리행전 30주년 - 5대 실천적 목회철학으로 다져진 사도행전적 그 교회 1-1
1068	2015.10.04	〈기획〉 온누리행전 30주년 - 5대 실천적 목회철학으로 다져진 사도행전적 그 교회 1-2
1068	2015.10.04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폐막
1068	2015.10.04	CGNTV 후원자 스토리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68	2015.10.04	〈CGNTV 특집 대담〉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와 이어령 교수가 만나다 1-1
1068	2015.10.04	〈CGNTV 특집 대담〉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와 이어령 교수가 만나다 1-2
1068	2015.10.04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태국어 정복하기 : 흥지아 성도
1068	2015.10.04	〈목회칼럼〉 중국인 유학생들을 잡아라! : 려문홍 목사(중국어예배)
1068	2015.10.04	일본어예배 :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일본선교포럼' 개최
1068	2015.10.04	중국어예배 : 재한중국인 유학생 전도집회 '2015 차이스타 컨퍼런스' 참석
1068	2015.10.04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5-11)
1068	2015.10.04	〈기고〉 일본의 추석 '오봉'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일본어예배 담당)
1069	2015.10.11	CGNTV 정기후원 약정자 현황
1069	2015.10.11	〈온누리 행진 30년〉 발간
1069	2015.10.11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1-1
1069	2015.10.11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1-2
1069	2015.10.11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팀 소개
1069	2015.10.11	〈칼럼〉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섬김 : 김정숙 권사(서빙고공동체)
1069	2015.10.1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다문화 혹은 다종교 국가 '미얀마' : 로지 목사(온누리M미션)
1069	2015.10.11	〈온누리선교 30주년 선교대회〉 폐막
1069	2015.10.11	서빙고 국제부 : 7개 외국어예배 연합예배 진행
1069	2015.10.11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12-18)
1069	2015.10.11	〈선교사 자녀(MK)들에게 고한다〉 "예수님을 따르라!" : 이훈 선교사(GMP선교사)
1069	2015.10.11	〈온누리M미션 간증〉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 소짠 소취약(캄보디아)
1069	2015.10.11	〈기고〉 CGNTV는 돌도 없는 친구 : 홍영숙 선교사
1070	2015.10.18	미국과 유럽교회 쇠퇴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미래 : 벨슨 제닝스 박사(선교 전문가) 1-1
1070	2015.10.18	미국과 유럽교회 쇠퇴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미래 : 벨슨 제닝스 박사(선교 전문가) 1-2
1070	2015.10.18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미얀마의 종교 : 로지 전도사(온누리M미션)
1070	2015.10.18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1070	2015.10.18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및 접수 안내
1070	2015.10.18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19-25)
1070	2015.10.18	〈열방탁구대회를 마치고〉 탁구선교를 위하여 : 양영자 선교사(한국WEC국제선교회)
1071	2015.10.25	러브소나타 〈오이타〉 개막 일정 및 한국인 봉사자 참석 현황 안내
1071	2015.10.25	샤론데코팀 〈러브소나타 오이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임
1071	2015.10.25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② 선교사 : 김온누리 선교사(동아시아 B국)
1071	2015.10.25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② 선교사 : 박 선교사(남아시아 I국)
1071	2015.10.25	몽골 역파송 선교사 〈아치트〉
1071	2015.10.25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종교 : 한 알렉산드라 목사(M미션 러시아어예배)
1071	2015.10.25	Acts29 비전빌리지 : 단기선교사 훈련학교(TP) 28기 모집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5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1071	2015.10.25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26-30)
1072	2015.11.01	2015 러브소나타 <오이타> 개막
1072	2015.11.01	<러브소나타 현장 르포> 순교의 피 흐르는 <오이타>를 가다
1072	2015.11.01	<현장 르포> 러브소나타 <오이타>에서 만난 사람들
1072	2015.11.01	<일대일 제자 양육> 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1072	2015.11.0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와 선교 : 한 알렉산드라 목사(M미션 러시아어예배)
1072	2015.11.01	이슬람 선교학교 <WHY 무슬림?> 개강 :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1072	2015.11.01	CGNTV · 이집트 반석미니스트리 업무협약(MOU) 체결
1072	2015.11.01	서빙고 이주민 선교학교 10기 참가자 모집
1072	2015.11.01	이주민 선교학교 수료 간증 : 흥에스터 자매
1072	2015.11.01	<장로칼럼>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 : 하성기 장로
1073	2015.11.08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GMLF)> 개최
1073	2015.11.08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 조율사 박창국 집사
1073	2015.11.08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①일본 비전교회 1-1
1073	2015.11.08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①일본 비전교회 1-2
1073	2015.11.08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GMLF)>
1073	2015.11.08	<일대일 제자 양육> ② 일대일 제자 양육의 미래
1073	2015.11.08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 10기 모집
1074	2015.11.15	<주일강단>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목사 설교 :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
1074	2015.11.15	대학청년부 선교이야기 : 선교의 주역 '하늘공동체' 와 노방전도 'SNS공동체'
1074	2015.11.15	<2015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 개최
1074	2015.11.15	CGNTV 후원자 간증 : 오미희 집사
1074	2015.11.15	양재 유년 3부 : '나눔 가족 걷기 대회' 참가 및 적립금 더멋진세상 후원
1075	2015.11.22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②아부다비 비전교회 :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1-1
1075	2015.11.22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②아부다비 비전교회 :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1-2
1075	2015.11.22	<목회칼럼> 인천 송도에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꿈 :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1075	2015.11.22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 식수사업 성공
1075	2015.11.22	각 공동체 주관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안내
1076	2015.11.29	온누리 파송선교사 박세업 · 한영훈 선교사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
1076	2015.11.29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③미주 비전교회 : 권혁빈 목사(얼바인) 1-1
1076	2015.11.29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③미주 비전교회 : 권혁빈 목사(얼바인) 1-2
1076	2015.11.29	NGO 더멋진세상 : 네팔 지진 피해 지역 교회 재건 감사 헌당예배
1077	2015.12.06	2015 장로장립소감 : 김종호 장로
1077	2015.12.06	2015 장로장립소감 : 김지현 장로
1077	2015.12.06	2015 장로장립소감 : 이태열 장로









##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분류표

- |    |   |
|----|---|
| 01 |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 관련 (이재훈 목사, 하용조 목사 관련 포함)   |
| 02 | 선교 관련 건물, 시설물 신축, 개축 등  |
| 03 | <선교 전략> 관련 정책, 회의, 교육, 행사(미전도종족 선교 관련 포함)<br>2000/10000 대한 칼럼 및 행사/ 온누리 10주년/ 미전도종족(정보)/ Acts 29 특집                         |
| 04 | 선교 헌금 및 재정(예산, 결산 등) 관련<br>Acts 29 비전을 위한 헌금  |
| 05 | 선교사 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br>TP(단기)/ 장기(OSOM)/ 전문인 선교학교(OPMS)/ FA/ 안식, 본국 선교사:H2H, H2K/ OMO  |
| 06 | 선교사 허입, 파송, 종료 등 인사 관련<br>종료 순직(순교) 포함  |
| 07 | 선교지 행사 및 탐방 취재(르포), 선교지 소개, 정보<br>해외 집회 및 행사/ 소아시아 관련/ 이스라엘 현장집회  |
| 08 | 선교사 소식 및 편지, 사역 보고, 간증, 기도제목 등<br>큰 기도표   |
| 09 |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br>CGNTV/ 더멋진세상/ M Mission/ TIM/ 외국어예배부서/ IT사역위원회(OIMC)/ 과학기술선교팀/<br>SWIM/ 해외일만사역관련/ 햇불 트리니티/ 일대일사역팀 |
| 10 |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br>공동체 다락방 선교동역/ 아웃리치 (계획, 현황, 보고, 간증)/ 선교사 선물관련/ CMN(온누리 의료선교부)                            |
| 11 | 비전교회, 해외협력교회, 해외 성도 등의 선교 관련 기사<br>협력 관련/ 타 교회에서 우리교회 방문/ Acts 29   |
| 12 | 선교 관련 학교 및 강좌, 세미나, 선교여행 등<br>와이미션/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 BEE/ 무릎선교학교/ KIBI/ 갈렙선교학교/ 세품아/<br>JDS/ 하가훈/ 국내 비전교회 내 학교           |
| 13 | 긴급 구호 및 질병 치료 지원 활동 등<br>Lamp On  |
| 14 | 선교 관련 게시판 광고(기도모임, 학교모집 광고 등)<br>물품구입/ 후원요청   |
| 15 | 기타 (위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br>교회(선교부)조직도/ 하용조목사 추도/ 순직선교사 추도 관련/ 장로 장립   |
| 16 | 러브소나타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 관련(이재훈 목사, 하용조 목사 관련 포함) (19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3	2014.01.12	2014 Acts29 비전과 함께 하는 온누리 파송 선교사 1-1	17
983	2014.01.12	2014 Acts29 비전과 함께 하는 온누리 파송 선교사 1-2	18
1011	2014.08.03	하용조 기념관 착공 : 2015년 8월 완공 예정	139
1057	2015.07.12	〈7.27-8.1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지정 및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 안내	350
1057	2015.07.12	기획_① 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1-1	351
1057	2015.07.12	기획_① 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1-2	352
1058	2015.07.19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예고	359
1059	2015.08.02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특집〉 열정과 비전의 사람 '하용조 목사'	369
1059	2015.08.02	〈화보〉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370
1064	2015.09.06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①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401
1064	2015.09.06	〈목회칼럼〉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앞두고 :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402
1066	2015.09.20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③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417
1067	2015.09.27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420
1068	2015.10.04	〈기획〉 온누리행전 30주년 - 5대 실천적 목회철학으로 다져진 사도행전적 그 교회 1-1	429
1068	2015.10.04	〈기획〉 온누리행전 30주년 - 5대 실천적 목회철학으로 다져진 사도행전적 그 교회 1-2	430
1069	2015.10.11	〈온누리 행전 30년〉 발간	438
1069	2015.10.11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1-1	439
1069	2015.10.11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1-2	440
1069	2015.10.11	〈온누리선교 30주년 선교대회〉 폐막	444

### ▶ 2. 선교 관련 건물, 시설물 신축, 개축 등 (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40	2015.03.15	안산M센터 신축 기공예배	277

### ▶ 3. 〈선교전략〉 관련 정책, 회의, 교육, 행사 (미전도종족 선교 관련 포함) (15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6	2014.02.09	2014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28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미셔널 패스터(Missional Pastor)' 주제로 개강	32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재훈 목사 메시지 : "선교 열이 담긴 목회자"	33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재환 선교사 메시지 :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	33
987	2014.02.16	제12회 목회사관학교 이훈 목사 메시지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온누리교회"	33
988	2014.02.23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선교관련) ①	37
989	2014.03.02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선교관련) ②-(1)	42
989	2014.03.02	온누리교회 전교인 의식조사 결과 (선교관련) ②-(2)	43
989	2014.03.02	고령화문제 교회에서 대안 찾기 〈시니어 선교〉	44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3. <선교전략> 관련 정책, 회의, 교육, 행사 (미전도종족 선교 관련 포함) (15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23	2014.11.09	<선교 기획> 선교사 안식의 필요와 대안	210
1030	2014.12.28	<선교현장을 가다> 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교회개혁운동(CPM) 도입	235
1036	2015.02.08	<인터뷰> 유렵교회 위기에 비취 본 한국교회 문제와 대안 : 장 마르탱 베레 목사(불어예배)	259
1065	2015.09.13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②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408
1073	2015.11.08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GMLF)> 개최	468
1073	2015.11.08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GMLF)>	472

### ▶ 4. 선교 헌금 및 재정(예산,결산 등) 관련 (1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2	2014.01.05	2014년 1차 선교헌금 작성 : 헌금 방식 및 사용처 안내	11
982	2014.01.05	2014 선교헌금 작성 신규사역 소개	13
982	2014.01.05	2013년 선교헌금 사용처 및 나라별 해외선교사역비 안내	13
983	2014.01.12	2014년 선교헌금 작성 헌금 안내	16
989	2014.03.02	2014 선교헌금 작성 집계 결과	40
989	2014.03.02	2014 선교헌금 : 선교후원사역부 신설 및 재능기부자 기도편지 제작	41
1031	2015.01.04	2015 선교헌금 작성	239
1032	2015.01.11	2015 2차 선교헌금 작성	244
1038	2015.03.01	2015 선교헌금 작성 집계 결과	266
1060	2015.08.09	8월 비전헌금 사용처 안내 <몽골국제대학교> 후원	377
1080	2015.12.27	<2016 선교헌금 작성> 행사 안내	498
1080	2015.12.27	<특집> 온누리교회 선교를 말한다 - ②2015 선교헌금 결산& 네팔 조경근 선교사의 감사편지	500

### ▶ 5. 선교사 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 (14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2	2014.01.05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15
990	2014.03.09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참가자 모집	46
991	2014.03.16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개강 안내	51
997	2014.04.27	<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 개강	79
1000	2014.05.18	2천선교본부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 개최	90
1004	2014.06.15	대학청년부 청년선교운동 FA(Frontier Agency Movement) 7기 모집	103
1025	2014.11.23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수료간증 : 윤진혁 집사	221
1028	2014.12.14	<선교현장을 가다> ④ 갈렙 선교 : 50세 이상 단기선교훈련(TP) 수료 선교사 양성	228
1035	2015.02.01	<청년과 선교> FA Movement 소개 및 9기 모집 안내 & FA 담당 김진웅 간사 칼럼	253
1040	2015.03.15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참가자 모집	277
1045	2015.04.19	Acts29 비전빌리지 : 장·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301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5. 선교사 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 (14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48	2015.05.10	〈선교사 일일 오리엔테이션〉 개최 안내	314
1055	2015.06.28	Acts29 비전빌리지 : 장기선교사(OSOM) 25기 훈련생 모집	341
1071	2015.10.25	Acts29 비전빌리지 : 단기선교사 훈련학교(TP) 28기 모집	458

### ▶ 6. 선교사 허입, 파송, 종료 등 인사 관련 (8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7	2014.02.16	2014년 첫 선교사 파송식	31
992	2014.03.23	일만사역자 파송 : 한총희-김경희(미국)	57
1010	2014.07.27	CGNTV 1기 방송선교사 4명 파견	138
1017	2014.09.28	3차 선교사 파송식 : 번스틱-하닷사 외 가정 1팀, 싱글 19팀	189
1020	2014.10.19	2014년 4차 선교사 파송 : 권강한-오조이 외 가정 2팀, 싱글 4팀	201
1033	2015.01.18	2015 첫 선교사 8명 파송식 및 간증 : Grace 외 싱글1팀, 가정3팀	248
1040	2015.03.15	2015년 2차 선교사 파송 : 채필립-조이폴 외 싱글 5팀, 가정 1팀	272
1063	2015.08.30	5차 선교사 파송식 : 보아스-로이스 외 싱글 4팀, 가정 2팀	394

### ▶ 7. 선교지 행사 및 탐방 취재(르포), 선교지 소개, 정보 (48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2	2014.01.05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일본	12
983	2014.01.12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아프리카	19
984	2014.01.19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중동	22
985	2014.01.26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동남아시아	27
988	2014.02.23	〈특별기고〉 성지순례와 폭탄테러	36
990	2014.03.09	네팔 현지 아너더교회 · 시나이교회 입당예배	46
991	2014.03.16	다문화사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51
993	2014.03.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네팔 아너더교회 · 시나이교회 헌당예배 1-1	60
993	2014.03.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네팔 아너더교회 · 시나이교회 헌당예배 1-2	61
995	2014.04.13	〈선교지 이야기〉 아라비아 백성들을 섬기는 오아시스 병원 : 노규석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71
996	2014.04.20	〈선교지 이야기〉 '루디아'를 찾아서 : 손OO 선교사(터키)	75
997	2014.04.27	〈선교지 이야기〉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이야기 : 노규석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79
999	2014.05.11	〈선교지 이야기〉 루디아를 찾아서 2 : 손OO 선교사(터키)	83
1000	2014.05.18	〈선교지 이야기〉 문화한류 넘어 선교한류로 : 김OO 선교사(인도네시아)	91
1001	2014.05.25	〈선교지 이야기〉 알송달송한 인도네시아인의 마음 : 김OO 선교사(인도네시아)	95
1002	2014.06.01	〈선교지 이야기〉 창의적 선교방법을 개발해야 할 때 : 권OO 선교사(몽골)	99
1005	2014.06.22	〈선교지 이야기〉 개종발에 굴러도 선교지가 좋다! : 홍성-이레 선교사(터키)	107
1009	2014.07.20	여름사역 현장 르포 ① 갈렘공동체 몽골 여름 아웃리치 사역	127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7. 선교지 행사 및 탐방 취재(르포), 선교지 소개, 정보 (48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12	2014.08.10	〈기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 : 류모세 선교사	150
1020	2014.10.19	일본 순맛충전도 세미나 개최 및 참가자 간증	201
1028	2014.12.14	네팔 너왈쁘라시 홀리미션교회 헌당식	229
1028	2014.12.14	네팔 홀리미션교회 헌당예배 후기 : 남영표 성도(과천의왕공동체)	230
1034	2015.01.25	〈코트디부아르 세례식 현장〉 리포트 및 표명환 선교사 후기	251
1046	2015.04.26	〈특별기고〉 IS와 중동의 미래 :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304
1049	2015.05.17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이스라엘의 음식문화 '후무스와 올리브기름' : 류모세 선교사	317
1050	2015.05.24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이스라엘의 음식문화 '헬빙음식' : 류모세 선교사	319
1051	2015.05.3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라마단의 저녁식사 '이프타르' : 노규석 목사	323
1052	2015.06.07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권능의 밤'과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 노규석 목사	327
1053	2015.06.14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흥차와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 윤용국 목사	333
1054	2015.06.2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스리랑카 식사, 화장실, 조문 문화 : 윤용국 목사	337
1055	2015.06.28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캄보디아 결혼 문화 : 신정빈 목사	340
1056	2015.07.05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 개최	346
1056	2015.07.05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캄보디아 음식 문화 : 신정빈 목사	347
1057	2015.07.12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몽골의 음식 문화 '하얀 음식과 빨간 음식' : 박광규 전도사	356
1058	2015.07.19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몽골 여성들의 삶 : 박광규 전도사	365
1059	2015.08.02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 : 은 전도사 가족(M센터 베트남예배)	374
1060	2015.08.09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 명절 '땃' : 은 전도사 가족(M센터 베트남예배)	381
1061	2015.08.16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네팔 음식 및 정혼 문화 : 바릿 목사-만지라 사모	387
1064	2015.09.06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네팔의 종교 : 바릿 목사-만지라 사모	403
1065	2015.09.13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필리핀의 9월의 크리스마스 : 레비 목사와 가족(온누리M미션)	410
1066	2015.09.20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필리핀의 대가족 문화 : 레비목사와 가족(온누리M미션)	418
1067	2015.09.27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태국에서 이사하기 1편 : 홍지아 성도	425
1068	2015.10.04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태국어 정복하기 : 홍지아 성도	435
1068	2015.10.04	〈기고〉 일본의 추석 '오봉'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일본어예배 담당)	437
1069	2015.10.1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다문화 혹은 다종교 국가 '미얀마' : 로지 목사(온누리M미션)	443
1070	2015.10.18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미얀마의 종교 : 로지 전도사(온누리M미션)	450
1071	2015.10.25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종교 : 한 알렉산드라 목사(M미션 러시아어예배)	457
1072	2015.11.0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와 선교 : 한 알렉산드라 목사(M미션 러시아어예배)	463

### ▶ 8. 선교사 소식 및 편지, 사역보고, 간증, 기도제목 등 (29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3	2014.01.12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R선교사(아프리카D국) · K선교사(아프리카K국)	19
989	2014.03.02	〈Mission Talk〉 보석같이 빛나는 선교사 자녀들 : 김정혜 선교사	41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8. 선교사 소식 및 편지, 사역보고, 간증, 기도제목 등 (29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90	2014.03.09	〈Mission Talk〉 골방에서 열방으로, 열방에서 골방으로 : 박영희 선교사	45
991	2014.03.1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조중환-임미경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49
991	2014.03.1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샘물 선교사 (동아시아 A국)	49
992	2014.03.23	〈Mission Talk〉 풀뿌리 선교를 생각하며 : 손창남 선교사(OMF)	56
993	2014.03.30	To.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FA선교사들이 보낸 편지	61
994	2014.04.06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랄레 선교사	67
996	2014.04.20	여성선교사 팸 리트릿 후기 : 조이 선교사(남아시아 I국)	75
1004	2014.06.15	FA 선교사 간증문 : 오수린 (4&5기 인도네시아)	103
1010	2014.07.27	선교지에서 온 편지 : K 선교사(동아시아 A국)	134
1017	2014.09.2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빌립-뵤뵤 선교사(아프리카 C국)	190
1019	2014.10.1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엘리사벳(남아시아 N국)	200
1033	2015.01.1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성윤-임정산 선교사(코트디부아르)	250
1035	2015.02.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서요셉-황로즈 선교사 (아랍 M지역)	256
1036	2015.02.0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서권능-김민음 선교사(A지역)	262
1044	2015.04.12	아마존 큐티운동에 헌신한 김주태 선교사 이야기	293
1048	2015.05.1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스글-그모 선교사 (남아시아 F국)	315
1058	2015.07.19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씨니 선교사(남아시아 J국)	367
1067	2015.09.27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 ④ "나는 건축전문 선교사 박일구입니다"	424
1069	2015.10.11	〈선교사 자녀(MK)들에게 고한다〉 "예수님을 따르라!" : 이훈 선교사(GMP선교사)	446
1071	2015.10.25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② 선교사 : 김온누리 선교사(동아시아 B국)	454
1071	2015.10.25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② 선교사 : 박 선교사(남아시아 I국)	455
1071	2015.10.25	몽골 역파송 선교사 〈아치트〉	456
1076	2015.11.29	온누리 파송선교사 박세업·한영훈 선교사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	483
1079	2015.12.20	2000선교 간증집 〈예수바보, 사랑에 빠지다〉 발간	492
1079	2015.12.20	〈특집〉 온누리교회 선교를 말하다 - ①선교사 간증집 발간 : 이철희 선교사& 박연화 선교사	495
1079	2015.12.20	선교사가 보낸 편지 : 추주엽 선교사(인도네시아 람퐁)	497
1080	2015.12.27	〈선교사 은퇴 기념 기고〉 "잘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김영숙 선교사	502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2	2014.01.05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멘토 위촉	14
982	2014.01.05	NGO 더 멋진 세상 :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 결정	14
984	2014.01.19	사회선교부 신설	21
984	2014.01.19	NGO '더 멋진 세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 봉사대사 위촉	23
984	2014.01.19	〈제1회 아시아 기도성회〉 폐막	2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4	2014.01.19	2014 CGNTV 3대 핵심가치 : 선교 지향 · 복음 중심 · 섬김 실천	24
985	2014.01.26	온누리M미션 설날봉사자 모집	25
986	2014.02.09	〈2014 신년특집〉 온누리교회와 CGNTV	29
986	2014.02.09	영어예배(OEM) : 버틀러 선교사 부부 초청 '자유와 정의' 컨퍼런스 개최	30
987	2014.02.16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미국남침례교단(IMB) MOU체결	31
989	2014.03.02	〈북한중보기도모임〉 소개	41
989	2014.03.02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및 기니비사우 우물공사	44
990	2014.03.09	Acts29 비전빌리지 24시간 기도처 〈시안홀〉	45
990	2014.03.09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 소개	45
991	2014.03.16	〈전문인선교중보기도모임〉 소개	49
991	2014.03.16	〈Mission Talk〉 온누리교회 선교를 생각한다 :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장)	49
991	2014.03.16	온누리교회 외국어예배를 소개합니다	50
992	2014.03.23	CGNTV 대담 : 테리 에스콧 (중동 기독교 채널 SAT7 설립자)	54
992	2014.03.23	〈칼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 'CGNTV' : 함태경(CGNTV 경영기획본부)	54
992	2014.03.23	CGNTV 봄 개편 프로그램 :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57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58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헌신예배& 선교헌신자 간증	59
993	2014.03.30	〈칼럼〉 CGNTV의 인도네시아 진출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59
993	2014.03.30	일본 동북지역 아웃리치 후기 : 배수영 성도(일본어예배)	63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특별인터뷰 : 이재훈 목사	64
993	2014.03.30	CGNTV 개국 9주년 축하메시지 : 이영표 외 5명	64
994	2014.04.06	키즈나(Kizuna)집회 후기 : 마츠카네 유키요(일본어예배부)	66
995	2014.04.13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68
996	2014.04.20	중보기도모임 소개 :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 멕시코 중보기도모임	74
997	2014.04.27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인천 온누리교회'	77
997	2014.04.27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불롬 마을 우물 준공식	78
998	2014.05.04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본나바 '더 멋진 마을' 사업 진행 및 선교사 인터뷰	81
998	2014.05.04	〈칼럼〉 NGO더멋진세상, 영적 최선선에 서다 : 김광동 장로(NGO더멋진세상 CEO)	81
998	2014.05.04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자원봉사자 모집	82
998	2014.05.04	차이스타 러브터치 전도집회 후기 : 주석(중국어예배부)	82
1000	2014.05.18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 현장	85
1000	2014.05.18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끝까지 사랑하는 '평택 온누리교회'	89
1000	2014.05.18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보건소〉 착공식	90
1001	2014.05.25	Acts29 비전빌리지 열방팀 6월 특별집회 개최 및 일정 안내	92
1001	2014.05.25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 등을 위한 〈정경화 자선콘서트〉 티켓 판매 안내	92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01	2014.05.25	평택 외국인 근로자 의료선교 후기 : 이종길 집사(평택 온누리교회)	94
1002	2014.06.01	<특집기사> 21세기 新선교 트렌드 : 왜 과학기술 선교인가? 1-1	96
1002	2014.06.01	<특집기사> 21세기 新선교 트렌드 : 왜 과학기술 선교인가? 1-2	97
1002	2014.06.01	다문화사역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캠프> 개최 안내	98
1003	2014.06.08	다문화사역팀 <다문화캠프> 참가 30가정 모집	100
1003	2014.06.08	Acts29 비전빌리지 <연합부흥회> 개최 : 피터 양 선교사(코나 열방대학) 인도	100
1004	2014.06.15	[특집]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 1-1	101
1004	2014.06.15	[특집]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 1-2	102
1004	2014.06.15	CGNTV 중동·아프리카 미디어사역 연합 강화	105
1005	2014.06.22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 위한 <그래도 희망> 정경화 헌정콘서트 개최	106
1006	2014.06.29	<2014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막 안내	109
1007	2014.07.06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온누리 가족캠프> 스케치 및 참가자 후기	111
1007	2014.07.06	<사역칼럼> 안에서 잘해야 밖에서도 잘한다 : 허원희 목사(다문화·탈북자 사역 담당)	111
1007	2014.07.06	스포츠선교 소개 : 축구선교팀 <공사랑> & 탁구선교팀 <OPM>	114
1007	2014.07.06	중종로·서초A공동체 : CGNTV 후원금 전달	115
1007	2014.07.06	<2014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막 안내	115
1007	2014.07.06	NGO 더멋진세상 : 파키스탄 농수 및 식수 개선사업 완료	116
1007	2014.07.06	일본어예배 수련회 <Joyful Family> 참가 후기 : 채미숙 성도	117
1008	2014.07.13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폐막	119
1008	2014.07.13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보고	120
1008	2014.07.13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 비전	121
1008	2014.07.13	양육본부 일대일 위원회 : 언어권별 일대일 양육전문 사역자 모집 안내	124
1008	2014.07.13	Acts29비전빌리지 열방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회> 진행중	125
1009	2014.07.20	중문 CGNTV 개국 6주년 기념예배	128
1009	2014.07.20	CGNTV 라마단 기간 특별 기획영상 : 이슬람은 무엇인가?	129
1010	2014.07.27	온누리M미션 : 이주민 구원 위한 <180일/1000명> 중보기도운동 중보자 모집	136
1010	2014.07.27	<제1회 제3세계 문화교류 프로젝트 포럼> 온누리교회 '손희원' 성도 발표	137
1011	2014.08.03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140
1011	2014.08.03	NGO 더 멋진 세상 : 르완다 청년 초청 농업 및 양계 기술 전수	147
1012	2014.08.10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157
1013	2014.08.17	온누리M미션 : 대부도 바닷가 24명 이주민 연합세례식	159
1014	2014.08.31	<제2회 온누리선교탁구대회> 개최 안내	167
1014	2014.08.31	NGO 더 멋진 세상 : 필리핀 비농안안섬 초등학교 준공식	167
1014	2014.08.31	온누리M미션 세례식 후기 : 김관식 성도(서초B공동체)	168
1015	2014.09.07	<사역 후기> NGO 더 멋진 세상 르완다를 가다 : 고대선(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장)	177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15	2014.09.07	선교후원사역부 소개 및 하반기 각오	178
1016	2014.09.21	CGNTV 인도네시아 진출	181
1016	2014.09.21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및 축하 기념콘서트 <러브 인도네시아> 개최	182
1016	2014.09.21	온누리M미션 : 베트남공동체 출범	184
1016	2014.09.21	PHOTO NEWS(사진기사) :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	184
1016	2014.09.21	CGNTV 직원 일본 구마모토 아웃리치 간증 : 유희우(CGNTV 편성기획팀)	185
1017	2014.09.28	CGNTV 선교 역사와 열매	188
1017	2014.09.28	몽골국제대학교 이사장&총장 취임예배 : 이사장 양유식 장로& 총장 권오문 선교사 취임	189
1018	2014.10.05	온누리교회 창립 29주년 행사 안내	191
1018	2014.10.05	CGNTV가 있어 행복한 사람들	193
1018	2014.10.05	CGNTV 정기후원의 날	195
1019	2014.10.12	일본어예배부 : 동부이촌동 거주 일본인 초청 전도집회	197
1019	2014.10.12	CGNTV 정기후원자 현황 : 2만3천명 돌파	198
1020	2014.10.19	<CGN 청춘 선교단 은빛날개> 프로그램 이야기	203
1021	2014.10.26	일본 CGNTV <개국 8주년 기념행사> 개최	206
1022	2014.11.02	NGO더멋진세상 : 남아시아 K국 여성 리더십 초청 <지역사회개발선교훈련> 지원	209
1023	2014.11.09	일본어예배부 : 동부이촌동 거주 주재원 부인 대상 한글강좌	212
1023	2014.11.09	CGNTV 선교 스토리 : 김남섭 선교사(필리핀)	215
1024	2014.11.16	NGO 더 멋진 세상 : 르완다 국제개발협력사업 해외봉사단 모집	219
1025	2014.11.23	<선교현장을 가다> ① 온누리M센터 :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	220
1025	2014.11.23	NGO더멋진세상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산복 기증	221
1025	2014.11.23	<바로잡습니다> 1024호 러브소나타 기사 이름 정정 : '김성희' → '김수정' 성도	221
1026	2014.11.30	<선교현장을 가다> ② NGO 더멋진세상 : 르완다 <더멋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223
1026	2014.11.30	CGNTV 후원 위한 '드림-온(Dream-On) 콘서트' 개최	224
1026	2014.11.30	이문동 동안교회 CGNTV 후원행사 : 'CGNTV 1인칭 시점 어린이로 각색' 보고	224
1027	2014.12.07	<선교현장을 가다> ③ Acts29 비전빌리지 :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위한 다섯 가지 비전 선포	225
1027	2014.12.07	NGO 더멋진세상 창립 4주년 감사예배	226
1028	2014.12.14	NGO 더멋진세상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년인턴 및 해외사역자 모집	229
1029	2014.12.21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윈터캠프> 개최	231
1029	2014.12.21	<2014 선교감사의 밤> 행사 개최 및 한해를 돌아보며 '전영수 장로'와 함께	232
1029	2014.12.21	온누리M미션 :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233
1029	2014.12.21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대회 고급부문 1위 수상자 간증 : 나타샤 자매(카자흐스탄)	233
1030	2014.12.28	<새벽에 만난 사람들> 새벽예배 동시 통역 봉사자 : 김선경 자매(일본어예배)	234
1030	2014.12.28	온누리M미션 : 성탄절 맞이 전도집회	236
1030	2014.12.28	서빙고 네팔 성탄절 전도집회 간증 : 데벤드라 목사(서빙고 네팔공동체)	23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31	2015.01.04	〈선교현장을 가다〉 ⑥ 2000선교 : '비전 2000' 이뤄가는 선교 총괄부서	240
1031	2015.01.04	〈선교 기획〉 MK사역은 또 하나의 선교입니다	241
1031	2015.01.04	새벽에 만난 사람들 : 365일 쉼 없이 복음을 전하는 'CGNTV 송출실 직원들'	242
1031	2015.01.04	NGO 더멋진세상 홍보 담당 직원 모집	243
1032	2015.01.11	〈선교현장을 가다〉 ⑦ 후원사역부 소개 및 후원사역부 손정래 장로 인터뷰	245
1032	2015.01.11	온누리교회 불어예배 신설	246
1033	2015.01.18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 온누리 불어예배 '장 마르탱 베레' 목사	249
1033	2015.01.18	CGNTV 드림통 수거 집계 결과 안내	250
1034	2015.01.25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더멋진마을 프로젝트〉 진행 중	252
1035	2015.02.01	CGNTV 개국 10주년 맞이 〈봄 개편〉	255
1035	2015.02.01	2000선교 〈비전컨퍼런스〉 개최 예정	255
1037	2015.02.15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개최	263
1037	2015.02.15	온누리M미션 소식 : 이주민을 위한 구정수련회 개최	264
1037	2015.02.15	온누리M미션 소식 : 이슬람 선교 세미나 개최	264
1037	2015.02.1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식지 발간	264
1038	2015.03.01	온누리미션 아랍예배 주관 〈2015 이슬람 선교 세미나〉 시작	266
1039	2015.03.08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스마트바이블' 사역 소개	267
1039	2015.03.08	〈칼럼〉 IT선교 중심에 '온누리 IT전략위원회'가 있다 : 이승훈 집사(온누리 IT전략위원회)	267
1039	2015.03.08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케르빌라 초등학교 준공식 및 중축 공사 기공식	269
1039	2015.03.08	안산M센터 : 신축기공예배 일정 안내	269
1039	2015.03.08	안산M센터 : TIM 신입선교사 전도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세례	270
1039	2015.03.08	온누리M미션 구정수련회 후기 : 양윤희 선교사(온누리미션 태국예배봉사자)	271
1040	2015.03.15	NGO 더멋진세상 : 후원자 감사패 증정식	276
1040	2015.03.15	〈세네갈 준공식 현장에서〉 건물 그 이상의 의미 : 고대선 부장(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	276
1040	2015.03.1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4대 가치 지정 및 프로그램 제작	277
1041	2015.03.22	CGNTV& 월드비전 업무협약(MOU) 체결	280
1041	2015.03.22	CGNTV 일본지사 후원자 간증 : 고이즈미 마사코 성도	281
1042	2015.03.29	CGNTV 개국10주년 및 CGNTV 직원 일동 사진	282
1042	2015.03.29	또 하나의 CGN패밀리 중보기도자 : 류석인 권사	284
1042	2015.03.29	CGNTV 방송선교행전 10년 연혁	285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행사	286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이재훈 담임목사(CGNTV 이사장)	287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손한기 장로 (CGNTV 초대 대표이사)	288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기념 기획 인터뷰 : 유재건 장로 (CGNTV 대표이사)	288
1043	2015.04.05	NGO 더멋진세상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 시작	289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43	2015.04.05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에서 보낸 1년 사역 보고 : 김민선 자매	290
1043	2015.04.05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민정환 팀장(제작기획팀)	290
1043	2015.04.05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 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소개 글	291
1043	2015.04.05	CGNTV 개국 10주년 축하메시지	291
1044	2015.04.12	NGO 더멋진세상 :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개 및 정기후원 약정행사 안내	296
1044	2015.04.12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김소진 팀장(미디어국 UX기획팀)	297
1044	2015.04.12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봉사 후기 : 김준 해외봉사자	297
1045	2015.04.19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일정 안내	298
1045	2015.04.19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앞둔 인터뷰 : 김광동 장로(더멋진세상 CEO)	299
1045	2015.04.19	NGO 더멋진세상 네팔 봉사 후기 : 김대승 해외봉사자	299
1045	2015.04.19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소개	300
1045	2015.04.19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오성환 팀장(후원기획실 후원영상팀)	302
1046	2015.04.26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개최	303
1046	2015.04.26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양응모 형제(편성제작팀)	309
1047	2015.05.03	일대일사역팀 '선교와 일대일' 세미나 개최	311
1048	2015.05.10	〈양재 이천선교팀〉 호남선교 역사여행 후기 : 김종호 집사	313
1048	2015.05.10	일본어예배부 일본 이와테 지역 아웃리치 보고 : 백재구 성도	315
1049	2015.05.17	청년들의 예배와 선교 회복 위한 컨퍼런스 〈2015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318
1049	2015.05.17	NGO 더멋진세상 : 해외사역자(선교사) 모집	318
1050	2015.05.24	NGO 더멋진세상 : 미스코리아 '이사라' 홍보대사 위촉	320
1050	2015.05.24	〈아프리카와 네팔 후원 콘서트〉 개최	320
1051	2015.05.31	NGO 더멋진세상 : 르완다 의료진 초청 연수	324
1051	2015.05.31	에zell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324
1052	2015.06.07	2015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최 안내	325
1052	2015.06.07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① CGNTV 기억 창고를 걷다	326
1052	2015.06.07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 개최 안내	328
1052	2015.06.07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간증 : 김은정 자매(여호수아)	328
1053	2015.06.14	2015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330
1053	2015.06.14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② CGNTV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331
1053	2015.06.14	〈칼럼〉 왜 블랙마운틴인가 : 윤영각 장로(CCF 회장)	330
1053	2015.06.14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선교를 위해 태어난 '양지 온누리교회'	332
1053	2015.06.14	인도네시아 CGNTV 〈인도네시아 CGNTV 운영 · 자문위원회〉 발족식	334
1054	2015.06.2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진행 안내	335
1055	2015.06.28	2015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막	339
1055	2015.06.28	스포츠훈교팀 〈공사량〉 M센터 캄보디아 지체를 위한 축구 교육	341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56	2015.07.05	2015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폐막	343
1056	2015.07.05	2015 <카운트다운> 현장 스케치	344
1056	2015.07.05	2015 <카운트다운> 현장에서 만난 청년선교사들 : 김은영 자매 · 김현아 자매 · 황경훈 형제	345
1056	2015.07.05	CGNTV 안테나 설치 사역 아웃리치 위한 <안테나 설치 교육> 준비	348
1056	2015.07.05	대청 카운트다운 봉사자 간증 : 윤나래 자매(J4U공동체)	348
1057	2015.07.12	<CGNTV직원> 일본 아웃리치 후기 : 이득수 형제(일본제작팀)	354
1057	2015.07.12	1.5세 이민자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Point5공동체> 소개	355
1058	2015.07.19	<CGNTV> 태국 아웃리치 : 김혜림 자매(제작국 사회선교팀)	364
1058	2015.07.19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 : 베트남 다문화가정 초청 <행복드림 콘서트> 개최	366
1058	2015.07.19	<Acts29 독자마당>나는 CGNTV 열혈 시청자 : 이태현 선교사	367
1059	2015.08.02	<기고> 중화권 방송선교의 꿈 : 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CGNTV)	375
1060	2015.08.09	CGNTV · NGO 더멋진세상 <홍콩 CGN World> 설립	376
1060	2015.08.09	CGN · NGO 더멋진세상 : '홍콩 CGN World' 설립 및 홍콩 창세TV와 업무협약 체결	382
1060	2015.08.09	온누리M센터 '2015 여름 영어 캠프' 개최	382
1061	2015.08.16	<CGNTV> 스리랑카 아웃리치 : 김영신 PD(선교교육팀)	385
1061	2015.08.16	NGO 더멋진세상 : 세네갈 의료진과 어린이 심장병 환자 초청 의료지원 사업	389
1062	2015.08.23	미주 CGNTV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391
1062	2015.08.23	온누리M미션 : 9개국 41명 연합세례식	391
1063	2015.08.30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5> 봉사자 모집	393
1063	2015.08.30	<기고> 미주CGNTV 중남미 선교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사명 :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	398
1064	2015.09.06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 개최 안내	400
1064	2015.09.06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 개최 안내	400
1064	2015.09.06	NGO 더멋진세상 : 르완다 응호망가마을 조산소(Maternity clinic) 준공	405
1065	2015.09.13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 개막 안내	407
1065	2015.09.13	<2015 햇불디아스포라선교대회> 개막 안내	407
1065	2015.09.13	선교로 하나가 되고,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양지 온누리교회'	409
1065	2015.09.13	CGNTV가 태국 기독교 총회와 업무협약 체결	411
1066	2015.09.20	2015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Build up'	414
1066	2015.09.20	2015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 개최	415
1066	2015.09.20	NGO 더멋진세상과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함께 사역한 '파울로 선교사'	416
1067	2015.09.27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420
1067	2015.09.27	<CGNTV> 더 할수록 커지는 그 비전 : 후원자 도성해-안수영 성도	421
1067	2015.09.27	<기획-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	422
1067	2015.09.27	<목회칼럼> 맞이하는, 함께하는, 준비하는, 보내는 :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422
1067	2015.09.27	<기획-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2	42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67	2015.09.27	〈이주민 간증〉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레반타 라알 형제(네팔)	423
1067	2015.09.27	일본어예배부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426
1067	2015.09.27	NGO 더멋진세상 · 한국뉴욕주립대 업무협약(MOU) 체결	427
1068	2015.10.04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428
1068	2015.10.04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폐막	431
1068	2015.10.04	CGNTV 후원자 스토리	432
1068	2015.10.04	〈CGNTV 특집 대담〉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와 이어령 교수가 만나다 1-1	433
1068	2015.10.04	〈CGNTV 특집 대담〉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와 이어령 교수가 만나다 1-2	434
1068	2015.10.04	일본어예배 :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일본선교포럼' 개최	436
1068	2015.10.04	중국어예배 : 재한중국인 유학생 전도집회 '2015 차이스타 컨퍼런스' 참석	436
1069	2015.10.11	CGNTV 정기후원 약정자 현황	438
1069	2015.10.11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팀 소개	441
1069	2015.10.11	서빙고 국제부 : 7개 외국어예배 연합예배 진행	445
1069	2015.10.11	〈온누리M미션 간증〉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 소짠 소취약(캄보디아)	446
1069	2015.10.11	〈기고〉 CGNTV는 둘도 없는 친구 : 홍영숙 선교사	447
1070	2015.10.18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451
1070	2015.10.18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및 접수 안내	451
1072	2015.11.01	〈일대일 제자 양육〉 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462
1072	2015.11.01	CGNTV · 이집트 반석미니스트리 업무협약(MOU) 체결	465
1073	2015.11.08	〈일대일 제자 양육〉 ② 일대일 제자 양육의 미래	473
1074	2015.11.15	〈2015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은 콘서트〉 개최	476
1074	2015.11.15	CGNTV 후원자 간증 : 오미희 집사	477
1074	2015.11.15	양재 유년 3부 : '나눔 가족 걷기 대회' 참가 및 적립금 더멋진세상 후원	477
1075	2015.11.22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 식수사업 성공	481
1076	2015.11.29	NGO 더멋진세상 : 네팔 지진 피해 지역 교회 재건 감사 헌당예배	486
1077	2015.12.06	안산M센터 : 스타트리 아카데미 총무교사 모집	488
1077	2015.12.06	NGO 더멋진세상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청년인턴 사원 모집	488
1078	2015.12.13	대청 다문화가정 학생 위한 〈윈터캠프〉 개최	489
1078	2015.12.13	NGO 더멋진세상 〈창립 5주년 감사예배〉 개최	489
1078	2015.12.13	CGNTV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MK의 고백〉 제7회 한국기독언론대상 수상	489
1078	2015.12.13	CGNTV '여성선교사 다큐' 감상평 : 함OO(OSOM 훈련생)	490
1079	2015.12.20	〈작은 예수들이야기〉 다문화가정 위한 '윈터캠프'와 '스타트리 아카데미' 1-1	493
1079	2015.12.20	〈작은 예수들이야기〉 다문화가정 위한 '윈터캠프'와 '스타트리 아카데미' 1-2	494
1079	2015.12.20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반 첫 〈훗카이도 아웃리치〉	496
1079	2015.12.20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49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25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80	2015.12.27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성탄축하예배> & 영어예배 <요양센터 어르신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499
1080	2015.12.27	CGN 투데이 기획보도 프로그램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 크리스천기자협회 수상	501
1080	2015.12.27	양재 2000선교 : 프랑스어 겨울특강(기초과정) 실시	501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0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5	2014.01.26	세라핌합창단 필리핀 아웃리치 간증 : 이은옥(가정사역공동체)	26
985	2014.01.26	네덜란드 유럽연합청소년 수련회 아웃리치 간증 : 신주연(Point5공동체)	26
987	2014.02.16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보고 : 김남희·정수진 자매(W공동체)	34
992	2014.03.23	차세대 선교사 FT(Frontier teens) 훈련 및 선교체험	53
992	2014.03.23	차세대 선교사 FT 2기 훈련 및 인도 아웃리치 파송	55
994	2014.04.06	<선교를 알면 온누리가 보인다> 이제는 '순 선교' 시대	65
995	2014.04.13	네팔 노방전도 후기 : 김숙경 권사(새벽예배1부찬양팀)	70
996	2014.04.20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행사>	72
996	2014.04.20	PHOTO NEWS : '양재 일대일사역팀' 아웃리치 자금 마련 자선장 개최	74
996	2014.04.20	장로중보기도팀 : 중국 단동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74
1006	2014.06.29	의료선교팀 <CMN> 활약상 소개 및 CMN 2014 여름 아웃리치 일정	108
1007	2014.07.06	2014 여름 아웃리치 시작 : 약 152개팀 1천6백 명 성도 참가	110
1007	2014.07.06	단기선교팀의 위기관리 기본자세 : 강일영 목사(이천선교)	112
1007	2014.07.06	산본안산공동체 : 순 단위 '금흥사역 아웃리치' 준비	113
1007	2014.07.06	<노원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 신현기(노원공동체)	113
1007	2014.07.06	장로중보기도팀 : 중국 단동 아웃리치 보고	116
1008	2014.07.13	강동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발대식 현장	122
1009	2014.07.20	2014 온누리 각 부서 및 공동체 여름사역 진행중	126
1010	2014.07.27	여름사역 현장 르포 ② CMN& 분당B공동체 연합 해외 사역 1-1	131
1010	2014.07.27	여름사역 현장 르포 ② CMN& 분당B공동체 연합 해외 사역 1-2	132
1010	2014.07.2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허세현 자매(J4U 공동체)	133
1011	2014.08.03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간증 : 이성구 성도(일산 공동체)	143
1011	2014.08.03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간증 : 남상욱 장로(크리스천CEO포럼)	144
1011	2014.08.03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간증 : 서형원 형제(여호수아 공동체)	145
1011	2014.08.03	이재훈 담임목사&CMN의료팀&청년부 연합 : 르완다 아웃리치 예정	147
1011	2014.08.03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후기 : 곽은순(수원 대학청년부)	148
1012	2014.08.10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간증 : 최성훈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151
1012	2014.08.10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정지수 자매(강동 PromiseU 공동체)	152
1012	2014.08.10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간증 : 함명희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15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0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12	2014.08.10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윤선령 자매(일본어예배부)	154
1012	2014.08.10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양원향 자매(J4U공동체)	155
1012	2014.08.10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 간증 : 신정묵 성도(영아2부 교사)	156
1012	2014.08.10	〈한편의 시〉 라오스 어땀어? : 오경곤(요셉공동체)	158
1013	2014.08.17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이나리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160
1013	2014.08.17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송지영 자매(하늘 공동체)	161
1014	2014.08.31	중동 A국 아웃리치 간증 : 오범규 집사(서초C공동체)	163
1014	2014.08.31	일본 야치요 아웃리치 간증 : 김미영 성도(일본어예배부)	164
1014	2014.08.31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간증 : 김소아 성도(평택 온누리교회)	165
1015	2014.09.07	2014 여름 아웃리치 현재 진행상황	170
1015	2014.09.07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간증 : 임미진 자매(유아3부 교사)	171
1015	2014.09.0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이태운 형제(요셉공동체)	172
1015	2014.09.0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최윤형 성도(서초A공동체)	173
1015	2014.09.07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간증 : 임혜나 자매(강동 프라미스공동체)	174
1015	2014.09.07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간증 : 박춘기 형제(Pole2공동체)	175
1015	2014.09.07	남아시아 M국 아웃리치 간증 : 고광범 형제(허브공동체)	176
1016	2014.09.21	신용산·S브릿지 공동체 : 남아시아 I국 연합사역	184
1018	2014.10.05	의료선교사를 꿈꾸는 CMN 윤상엽 팀장 인터뷰 및 의료봉사자 후기	192
1021	2014.10.26	〈송파공동체〉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 이주민 초청 '가을운동회' 개최	205
1022	2014.11.02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행사〉	208
1023	2014.11.09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후기 : 김해기 장로(한강공동체)	211
1031	2015.01.04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후기 : 한동훈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243
1032	2015.01.11	강동 온누리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후기 : 배선영 성도	247
1035	2015.02.01	대학부 네팔 아웃리치 간증 : 김민정 자매(허브공동체)	257
1036	2015.02.08	하늘공동체 네팔 아웃리치 간증 : 류은경 성도	260
1039	2015.03.08	〈청년들을 만나다〉 다시 부흥을 꿈꾸는 대학청년부 'J4U공동체' 및 '구은영 자매' 간증	268
1040	2015.03.15	의료선교팀 <CMN> 소속 팀 및 사역 소개	275
1040	2015.03.15	CMN드림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간증 : 이도희 집사(CMN 드림팀)	275
1041	2015.03.22	2015 공동체 선교사역자 상반기 현황	280
1045	2015.04.19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 행사 안내	301
1046	2015.04.26	CMN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308
1050	2015.05.24	2015 여름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 실시	320
1051	2015.05.31	2015 여름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 실시	321
1051	2015.05.31	CMN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개최	324
1052	2015.06.07	2차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 실시	328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0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54	2015.06.21	2015 여름 아웃리치 계획	335
1054	2015.06.21	아웃리치 안전교육 강의 요약 : 김진대 사무총장(한국위기관리재단)	336
1055	2015.06.28	온누리 전도학교 <여름 아웃리치 전도 특강> 일정 안내	341
1055	2015.06.28	2015년 여름 아웃리치 후기 모집 알림	341
1056	2015.07.05	차세대사역본부 : 해외 여름 아웃리치 28개팀 533명 계획	343
1057	2015.07.12	201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시작	350
1057	2015.07.12	2015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모집 알림	350
1057	2015.07.12	<남양주 J1대학부>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후기 : 조유진 자매	353
1057	2015.07.12	<차세대 파워스테이션> 남아시아 I국 아웃리치 후기 : 이소라 자매(서빙고 파워스테이션)	354
1058	2015.07.19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과 김포M센터의 인연	360
1058	2015.07.19	기획_② 아웃리치 현황과 주의사항 1-1	361
1058	2015.07.19	건강하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를 위한 당부 : 이재정 목사(2000선교)	361
1058	2015.07.19	기획_② 아웃리치 현황과 주의사항 1-2	362
1058	2015.07.19	건강하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를 위한 당부 : 김은-김우 선교사(동아시아 B국)	362
1058	2015.07.19	<허브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 최윤영 자매(허브 공동체)	363
1059	2015.08.02	<의료선교팀 CMN>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 윤상엽 팀장(CMN 의료사역팀장)	371
1059	2015.08.02	<과천의왕공동체> 보은 회남교회 아웃리치 : 이삼형 집사	372
1059	2015.08.02	<한강공동체> 김포M센터 아웃리치 : 유영수 성도	373
1060	2015.08.09	<서대문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 김용희 집사(마태 1순)	378
1060	2015.08.09	<이촌공동체>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 : 강찬욱 성도	378
1060	2015.08.09	<Pole2 공동체>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 하민수 형제	379
1060	2015.08.09	<영등포구로공동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 : 김성호 성도	380
1060	2015.08.09	<갈렙 공동체>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 서윤경 자매	380
1061	2015.08.16	<수원 차세대> 필리핀 아웃리치 : 최다원	384
1061	2015.08.16	<여호수아공동체> 니카라과 아웃리치 : 송유진 자매	384
1061	2015.08.16	<요셉공동체>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 이진호 자매	385
1061	2015.08.16	<S브릿지공동체> 남아시아 F국 : 김미순 자매	386
1061	2015.08.16	<GIL공동체> 동아시아 B국 아웃리치 : 박은미 자매	386
1062	2015.08.23	<일산공동체> 아프리카 D국 · S국 아웃리치 : 박호준 성도	392
1063	2015.08.30	2015 여름 아웃리치 결산	395
1063	2015.08.30	<목회칼럼> 열방을 품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 : 서재범 목사(S브릿지공동체)	394
1063	2015.08.30	아웃리치 종료 성도 위한 격려메시지 : 김홍주 목사 · 김승수 목사 · 노희태 목사	396
1063	2015.08.30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 보고 : 김명진 성도(서초D공동체)	397
1066	2015.09.20	<한터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 나정건 학생	419
1074	2015.11.15	대학청년부 선교이야기 : 선교의 주역 '하늘공동체' 와 노방전도 'SNS공동체'	475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0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75	2015.11.22	각 공동체 주관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안내	482

### ▶ 11. 비전교회, 해외협력교회, 해외 성도 등의 선교 관련 (28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2	2014.01.05	단동 온누리교회 정길안 장로 장로장립식 및 해외 비전교회 이취임	15
983	2014.01.12	바로잡습니다 : 단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 김대진 목사	20
984	2014.01.19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취임 박영근 목사	23
1006	2014.06.29	일본 후쿠시마 아웃리치 후기 : 박미라 집사(동경 온누리교회)	109
1008	2014.07.13	<인터뷰> "주님의 영광 위해 사십시오" : 마이클 오 목사(국제로잔운동 총재)	123
1011	2014.08.03	동경 온누리교회 청년부 여름캠프 간증 : 김진주 자매(동경 온누리교회)	146
1015	2014.09.07	일본 코바야시 목사 및 교역자와 성도 14명 온누리교회 방문	178
1015	2014.09.07	일본 군마에서 온 편지 : 카나이 쿠미에 목사(뉴와인스킨 그리스도교회)	179
1018	2014.10.05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임병수 장로	194
1019	2014.10.12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 임병수 장로	199
1021	2014.10.26	일본 순맛충전도 세미나 후기 : 카사하라 에미코(러브소나타 동경본부)	207
1024	2014.11.16	<서빙고 일본어예배부> 나가노 일대일 제자양육 아웃리치 간증 : 황기영 목사	219
1034	2015.01.25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 : 김영철 목사 취임 및 박영근 목사 이임	252
1041	2015.03.22	미서부(얼바인·LA·샌디에이고·산타모나카)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1	278
1041	2015.03.22	미서부(얼바인·LA·샌디에이고·산타모나카)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2	279
1044	2015.04.12	두란노해외선교회 :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관계자 방문	296
1046	2015.04.26	일본(오사카·교토·나고야)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1	305
1046	2015.04.26	일본(오사카·교토·나고야)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 1-2	306
1048	2015.05.10	태국에서 온 간증 : 김마리아 권사 (파타야 선교교회)	315
1054	2015.06.21	재일대한 교토교회 :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개최 및 조수정 선교사 간증	338
1064	2015.09.06	일본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 9명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405
1073	2015.11.08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①일본 비전교회 1-1	470
1073	2015.11.08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①일본 비전교회 1-2	471
1075	2015.11.22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②아부다비 비전교회 :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1-1	478
1075	2015.11.22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②아부다비 비전교회 :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1-2	479
1076	2015.11.29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③미주 비전교회 : 권혁빈 목사(얼바인) 1-1	484
1076	2015.11.29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 ③미주 비전교회 : 권혁빈 목사(얼바인) 1-2	485
1080	2015.12.27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 외국인 근로자 100명 초청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501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2. 선교 관련 학교 및 강좌, 세미나, 선교여행 등 (16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92	2014.03.23	평신도를 위한 상반기 선교스쿨 소개 : 와이미션 · 과학기술 · IT선교학교	56
995	2014.04.13	KIBI <살롬 예루살렘 2014> 참가자 모집	69
1000	2014.05.18	온누리세계관학교 <이슬람의 이해와 문화> 포럼 개최 안내	90
1014	2014.08.31	JDS예수제자학교 '제자의 날' 아웃리치 보고 및 수강생 간증	166
1016	2014.09.21	호치민 온누리교회 '제1기 Why Mission?' 스태프 간증 : 유영준 집사(김포공동체)	185
1022	2014.11.02	교회개혁운동(CPM) 세미나 개최	209
1048	2015.05.10	<이주민 선교학교> 10기 참가자 모집	314
1051	2015.05.31	부천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의 꽃 '무릎선교기도학교모임'	322
1054	2015.06.21	키비 <살롬 예루살렘 대회> 개최	338
1057	2015.07.12	JDS(예수제자학교) 2015 여름 아웃리치 일정	357
1065	2015.09.13	JDS 아웃리치 그 못 다한 이야기 : 김상모 성도 (수원 JDS)	412
1067	2015.09.27	서빙고 Why Missions? 토요반 개강	427
1072	2015.11.01	이슬람 선교학교 <WHY 무슬림?> 개강 :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464
1072	2015.11.01	서빙고 이주민 선교학교 10기 참가자 모집	465
1072	2015.11.01	이주민 선교학교 수료 간증 : 흥에스더 자매	466
1073	2015.11.08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 10기 모집	473

### ▶ 13. 긴급 구호 및 질병 치료 지원 활동 등 (6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3	2014.01.12	온누리M미션 : 골수암 투병 소녀 '에케케' 돕기 위한 재정 및 기도 후원 요청	20
984	2014.01.19	NGO '더 멋진 세상' 필리핀 긴급구호 그 후	22
1047	2015.05.03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 네팔 지진피해 현장 급파	310
1047	2015.05.03	네팔 지진피해 현장 급파 '긴급구호팀' 파송식	311
1048	2015.05.10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 네팔 지진피해 현장 상황 보고	314
1049	2015.05.17	<온누리 긴급구호팀 르포>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현장 : 고대선 부장(NGO더멋진세상)	316

### ▶ 14. 선교 관련 게시판 광고 (기도모임, 학교모집 광고 등등) (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25	2014.11.23	ECC 2015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 모집 : 니카라과 CCA 국제학교 교사 파견	222
1025	2014.11.23	더멋진세상 2015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 모집 : 르완다 파견	222
1057	2015.07.12	알림 : Acts29 비전빌리지 OSOM 25기 훈련생 모집	357

### ▶ 15. 기타 (다른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66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7	2014.02.16	故김사무엘 선교사 영성일기 『아낌없이 신실하게』 책 출간	31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5. 기타 (다른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66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7	2014.02.16	신간 소개 : 『직업과 선교』 - 손창남 지음	34
988	2014.02.23	김사무엘 선교사 소천 10주기	35
988	2014.02.23	故 김사무엘 선교사 10주기& 온누리교회 선교사 순교일지	38
990	2014.03.09	선교지 후원 인형 제작 : 박경희 권사(한 땀 사역팀)	46
991	2014.03.16	〈장로칼럼〉 중국 제남에서 만난 하나님 : 이영복 장로	52
994	2014.04.06	〈장로 순환칼럼〉 예수님이 바라시는 '더 멋진 세상' : 박대호 장로(2천선교)	67
995	2014.04.13	일본교회 위한 일본어성경 필사(筆寫)한 성도와의 만남 : 최정순 권사	69
1000	2014.05.18	〈Mission Talk〉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 김영철 목사(안산 온누리M센터)	86
1001	2014.05.25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개최 안내	92
1002	2014.06.01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개최 안내	98
1003	2014.06.08	PHOTO NEWS(사진기사) :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100
1007	2014.07.06	〈권사순환칼럼〉 흑암을 비추는 다이아몬드 : 류석인 권사	118
1010	2014.07.27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안내	130
1010	2014.07.27	서승옥 권사의 QT 그림묵상	134
1010	2014.07.27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특집 : 그가 남긴 사도행전적 교회 비전	135
1010	2014.07.27	두란노 신간 : 『하나님의 선교사 A to Z』 - 김종성 지음	136
1010	2014.07.27	시안열방예배 특별집회 후기 : 박은숙 성도	137
1011	2014.08.03	〈하용조 목사 3주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쓴 편지 1-1	141
1011	2014.08.03	〈하용조 목사 3주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쓴 편지 1-2	142
1011	2014.08.03	〈장로순환칼럼〉 온누리미션 부흥의 비밀 '융합 선교' : 신현승 장로	149
1013	2014.08.17	〈특별기고〉 하용조 목사 3주기를 보내고 : 정호욱 목사	162
1014	2014.08.31	〈장로순환칼럼〉 결코 싫지 않은 아웃리치 열(fever) : 최득린 장로	169
1015	2014.09.07	〈장로순환칼럼〉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 김병순 장로	180
1016	2014.09.21	〈장로순환칼럼〉 25년차 성도의 소회(所懷) : 김재일 장로(일본어예배부)	186
1017	2014.09.28	〈장로순환칼럼〉 더 크게, 더 높게, 더 힘차게 : 정영일 장로	187
1019	2014.10.12	스포츠(탁구)선교회 소개	196
1020	2014.10.19	〈장로순환칼럼〉 가슴 벅차고, 힘이 솟고, 기쁘고 : 함선호 장로	202
1023	2014.11.09	〈장로순환칼럼〉 융합선교의 의미와 가치 : 정대서 장로(선교분과위원장)	214
1027	2014.12.07	〈권사순환칼럼〉 일본에 가정사역의 초석을 놓다 : 한영희 권사(가정사역공동체)	227
1029	2014.12.21	〈목사칼럼〉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	231
1035	2015.02.01	〈기고〉 21세기 선교 트렌드 '미디어 선교' : 함태경 본부장(CGNTV 경영기획)	254
1036	2015.02.08	디자인실 고경미 간사의 위클리 공감(그림) : I AM KENJI	261
1037	2015.02.15	〈권사칼럼〉 선교지에 인형 만들어 보내기 '한땀사역' : 박경희 권사	265
1040	2015.03.15	〈21세기 목회 트렌드〉 SNS 목회시대를 준비하라 1-1	273
1040	2015.03.15	〈21세기 목회 트렌드〉 SNS 목회시대를 준비하라 1-2	274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5. 기타 (다른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66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46	2015.04.26	<목회칼럼> 외국인 근로자 사역 : 박성천 목사(평택)	307
1046	2015.04.26	대학청년부 국내 미자립교회 및 사회기관 섬김 사역 <Acts29 Movement> 실시	308
1047	2015.05.03	<목회칼럼> 인천 온누리교회의 꿈 :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310
1047	2015.05.03	<권사칼럼> 온누리과 함께한 신앙 성장기 : 홍정희 권사(에zell교회 대표)	312
1052	2015.06.07	<신앙에세이> 유해근 목사와 질경이 사모님 :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다문화사역)	329
1055	2015.06.28	<신앙에세이> 상도동 난민 피난처에서의 상념 :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342
1056	2015.07.05	<장로칼럼> 카운트다운을 마치며 드리는 감사기도 : 노홍규 장로	349
1057	2015.07.12	<칼럼> 12가정과 아웃리치 : 류석인 권사	352
1059	2015.08.02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368
1060	2015.08.09	<장로칼럼> 일본선교는 꾸준히 인내하는 과정 : 김재일 장로(일본어예배부)	383
1061	2015.08.16	<목회칼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 윤석원 목사(강동 온누리 청년부)	388
1061	2015.08.16	보고싶은 영화 <순교> : 아프가니스탄 순교자 김영학, 배형규 목사 이야기	390
1063	2015.08.30	책 신간 - 『Why Missions?』 (온누리2000선교본부, 한철호, 김영동 외 4인 저)	399
1064	2015.09.06	<목회칼럼> 난봉꾼에서 목사로 변신한 청년 : 정현석 목사(서빙고 차세대)	404
1064	2015.09.06	<장로칼럼> 은빛날개를 단 시니어 선교사 : 김상인 장로(과천의왕공동체)	406
1065	2015.09.13	<장로칼럼> 사회선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자 : 정운오 장로(사회선교 분과위원)	413
1068	2015.10.04	<목회칼럼> 중국인 유학생들을 잡아라! : 려문홍 목사(중국어예배)	435
1069	2015.10.11	<칼럼>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섬김 : 김정숙 권사(서빙고공동체)	442
1070	2015.10.18	미국과 유럽교회 쇠퇴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미래 : 벨슨 제닝스 박사(선교 전문가) 1-1	448
1070	2015.10.18	미국과 유럽교회 쇠퇴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미래 : 벨슨 제닝스 박사(선교 전문가) 1-2	449
1070	2015.10.18	<열방탁구대회를 마치고> 탁구선교를 위하여 : 양영자 선교사(한국WEC국제선교회)	452
1072	2015.11.01	<장로칼럼> 사이키 성서 그리스도교회에서 : 하성기 장로	467
1073	2015.11.08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 조율사 박창국 집사	469
1074	2015.11.15	<주일강단>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목사 설교 :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	474
1075	2015.11.22	<목회칼럼> 인천 송도에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꿈 :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480
1077	2015.12.06	2015 장로장립소감 : 김종호 장로	487
1077	2015.12.06	2015 장로장립소감 : 김지현 장로	487
1077	2015.12.06	2015 장로장립소감 : 이태열 장로	487
1077	2015.12.06	2015 장로장립소감 : 조성민 장로	487
1078	2015.12.13	<장로칼럼> 진정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 : 최주관 장로	491

### ▶ 16. 러브소나타 (69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88	2014.02.23	20번째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개최 안내	39
991	2014.03.16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 모집	47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6. 러브소나타 (69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91	2014.03.16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 모집	48
991	2014.03.16	시모노세키에서 온 편지 : 우카이 카츠미 목사(기독교재단 시모노세키교회)	48
991	2014.03.16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48
992	2014.03.23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57
992	2014.03.23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3.24-30)	57
993	2014.03.30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3.31-4.6)	62
994	2014.04.06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4.7-13)	66
995	2014.04.13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4.14-20)	69
996	2014.04.20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쉼기대회 개최 및 마친 후 소감	73
996	2014.04.20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4.21-27)	74
997	2014.04.27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 교육 안내 및 기도제목(4.28-5.4)	76
998	2014.05.04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자교육 안내 및 기도제목(5.5-11)	80
999	2014.05.11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기도제목(5.12-18)	83
1000	2014.05.18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개막	84
1000	2014.05.18	<르포>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로 희망을 노래하다	87
1000	2014.05.18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봉사자·참가자 이야기	88
1001	2014.05.25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참가 후기 : 최민정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93
1004	2014.06.15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끝나고 후속활동 논의 활발	104
1004	2014.06.15	시모노세키에서 온 편지 : 코바야시 켄이치 목사(시모노세키 실행위원장)	104
1011	2014.08.03	오비히로 러브소나타 사전행사 <이은일 교수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 개최	147
1016	2014.09.21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개최 안내	183
1017	2014.09.28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9.29-10.5)	189
1018	2014.10.05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0.6-12)	194
1019	2014.10.12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0.13-19)	198
1020	2014.10.19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0.20-26)	201
1021	2014.10.2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봉사자 교육 일정 안내 및 준비 보고	204
1021	2014.10.2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 (10.27-11.2)	206
1022	2014.11.02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기도제목(11.3-9)	209
1023	2014.11.09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개막 안내 및 기도제목(11.10-15)	213
1024	2014.11.1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폐막	216
1024	2014.11.16	<현장르포> 러브소나타 <오비히로>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217
1024	2014.11.16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숨은 보석들을 만나다	218
1027	2014.12.07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그 후 참석자 간증 : 시게노 유키코·후쿠이 타이카 성도	226
1034	2015.01.25	샤론데코팀 : 러브소나타 <교토> 화관제작 봉사자 모임 안내	252
1036	2015.02.08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모집 안내	258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6. 러브소나타 (69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1036	2015.02.08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모집 안내	260
1037	2015.02.15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2.16-22)	263
1038	2015.03.01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2-8)	266
1039	2015.03.08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9-15)	270
1040	2015.03.15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16-22)	277
1041	2015.03.22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23-29)	280
1042	2015.03.29	러브소나타 <교토> 개막 임박 안내	283
1042	2015.03.29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3.30-4.5)	283
1043	2015.04.05	러브소나타 <교토> 기도제목(4.6-10)	289
1044	2015.04.12	러브소나타 <교토> 개막	292
1044	2015.04.12	러브소나타 <교토> 현장르포	294
1044	2015.04.12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 : 신민호 장로	295
1044	2015.04.12	<교토>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들 : 테너 배재철 · 프로듀서 와이마 · 집도의 잇시키 노부히코	295
1045	2015.04.19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간증 : 서승욱 권사	302
1057	2015.07.12	러브소나타 <오이타> 위한 중보기도 요청	357
1057	2015.07.12	러브소나타 <오이타>를 준비하며 : 히로타 가츠마사 목사(실행위원장)	358
1060	2015.08.09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377
1061	2015.08.16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 준비 및 러브소나타 <오이타> 쉼기대회 참가자 간증	389
1063	2015.08.30	러브소나타 <오이타> 참가자 모집	393
1064	2015.09.06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7-13)	405
1065	2015.09.13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14-20)	411
1066	2015.09.20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21-27)	415
1067	2015.09.27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9.28-10.4)	427
1068	2015.10.04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5-11)	436
1069	2015.10.11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12-18)	445
1070	2015.10.18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19-25)	451
1071	2015.10.25	러브소나타 <오이타> 개막 일정 및 한국인 봉사자 참석 현황 안내	453
1071	2015.10.25	샤롯데코팀 <러브소나타 오이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임	453
1071	2015.10.25	러브소나타 <오이타> 기도제목(10.26-30)	458
1072	2015.11.01	2015 러브소나타 <오이타> 개막	459
1072	2015.11.01	<러브소나타 현장 르포> 순교의 피 흐르는 <오이타>를 가다	460
1072	2015.11.01	<현장 르포> 러브소나타 <오이타>에서 만난 사람들	461



